

圓佛教七十二年總覽

人物·附錄

圓佛教雜誌編輯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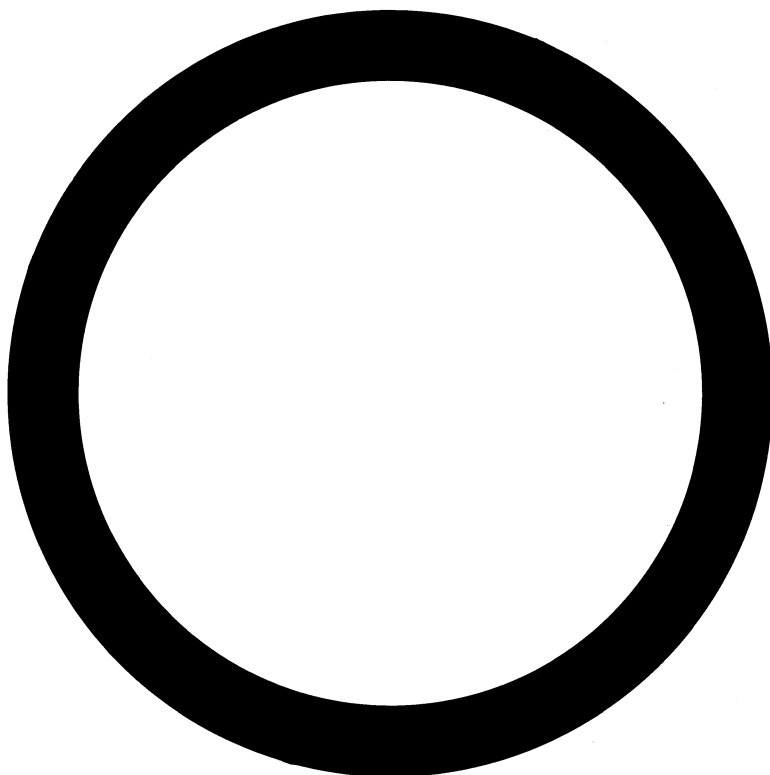
圓佛教七十二年總覽

人物・附錄

圓佛教 創立 第二代 吳 聖業奉贊會
大宗師誕生百周年

법신불 일원상

하나이며 두렵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
모든 종교의 근원이요, 모든 성현과 중생의 본래 마음
원래 생멸이 없으나 돌고 돌아 인과의 변화가 끊임이 없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곧 부처이며, 우주가 한 집안이요,
온 생령이 한 권속이 된다.



원불교를 창립하신 少太山 大宗師(朴重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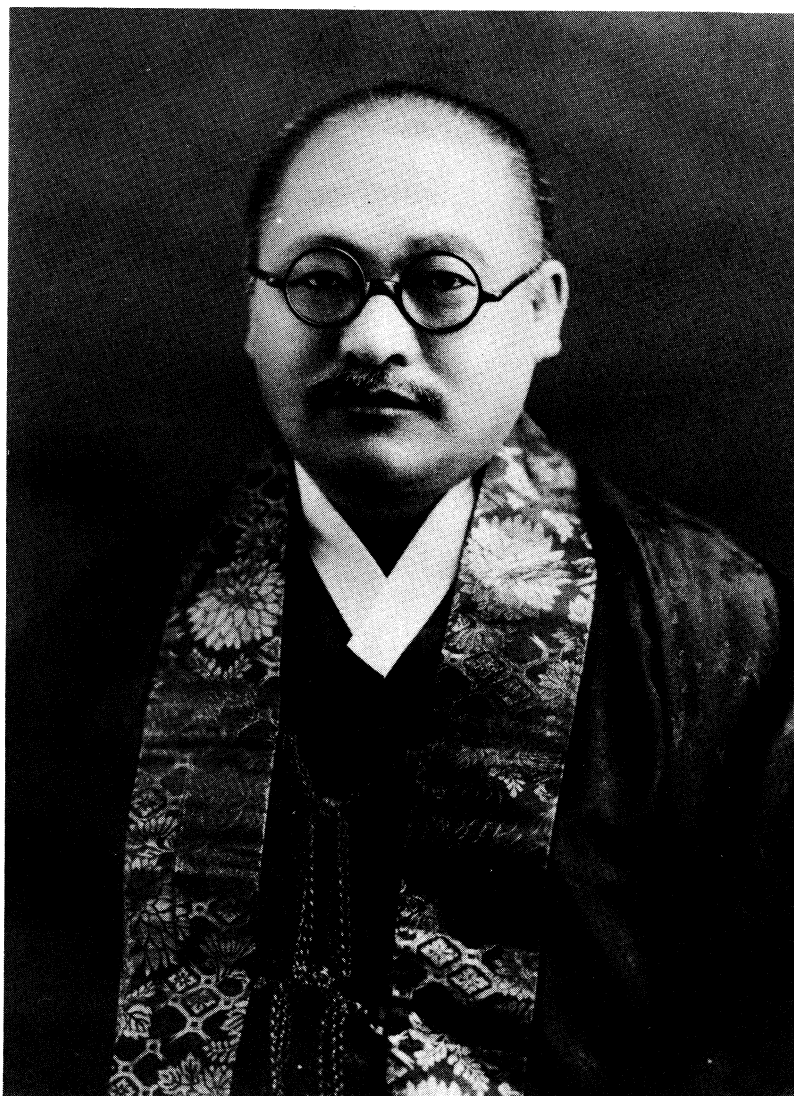
(1891. 5. 5~1943. 6. 1)

전남 영광에서 탄생하시어, 어려서부터 자연현상과 인생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시고
구도 고행 끝에 1916년 4월 28일 스스로 대각을 이루시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외치시며 제자들과 저축조합을 설립하시고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들며 인류구제를 위한 기도로 진리의 인증을 받아 새 회상을 창립하셨다.

일제의 온갖 핍박 속에서도 새로운 문명세계 건설에 대한 희망을 제시 하시고
교화·교육·자선사업을 진흥시키며 중생교화에 헌신하시다가

“有는 無로 無는 有로 돌고돌아 지극하면, 有와 無가 俱空 역시 具足이라”는
계송을 설하시고 열반하시었다.



鼎山 宗師(宋奎)

(1900.4.8~1962 1.24)

경북 성주에서 출생하시고

원기 2년(1917) 소태산대종사의 수제자가 되셨다.

원기 28년(1943) 6월 소태산대종사 열반 후

법통을 이어 후계 종법사가 되시고 「원불교」로 교명을 선포하신 후
교재정비, 기관확립, 정교동심, 달본명근의 사대정륜을 실천 하시다가

「한 울안 한 이치에(동원도리) 한 집안 한 권속이(동기연계)

한 일터 한일꾼으로(동척사업) 일원세계 건설하시는

계승을 설하시고 열반하시었다.



大山 宗法師(金大舉)

(1914. 3. 16~)

전북 진안군 좌포에서 출생하시어 원기 14년(1929)에 출가하시고,
원기 47년(1962) 1월 24일 정산종사 열반 후 법통을 이어 후계 종법사가 되신 후
안으로 교단체제 정비와 교화, 교육, 자선, 산업, 문화,
봉공, 훈련, 복지의 8대사업을 확장하시고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일원세계」의
기치아래 종교연합운동을 제창 하시고 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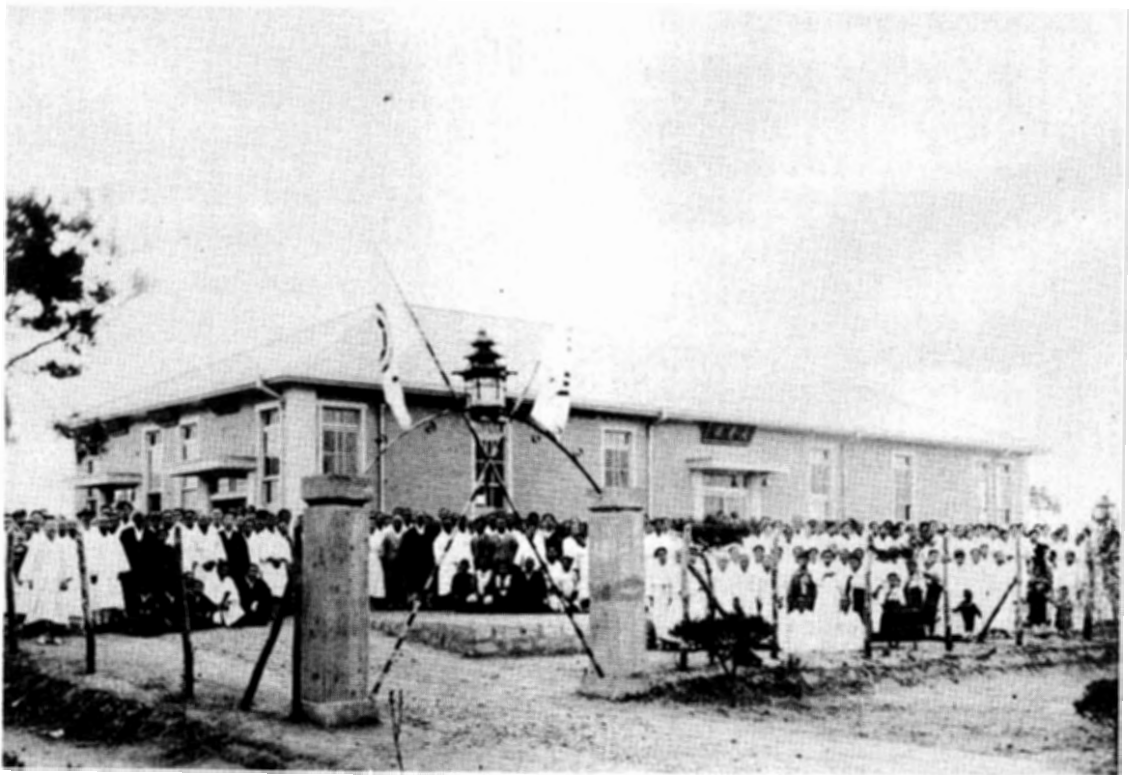








원기13년(1928) 제1대 제1회 기념총회



원기20년(1935) 4월 중앙총부 대각전 준공기념



원기 38년(1953) 원불교 창립 제1대 성업봉찬회 대회장



원기 42년(1957) 법훈증 수여식



원기56년(1971) 원불교 반백주년 기념대회 상징 아취



원불교 반백주년 기념대회 대회장



원기62년(1977) 제2대 2회 기념총회 대회장



제2대 2회 기념총회 종법사 기념법문



원기73년(1988) 원불교 창립 2대말 기념대회 대회장



기념대회장에서 종사의 법훈을 서훈 받으신 교단의 원로님들

일 러 두 기

1. 이 책은 원기원년(1916) 원불교의 개교에서부터 원기72년(1987) 원불교 창립 제2대말까지의 발전 과정과 현황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따라서 모든 서술 및 자료는 원기72년(1987) 12월로 마감하였다.
2. 이 책은 원불교 72년의 역사 자료를 총편, 중앙총부편, 교구·교당편, 기관·단체편, 인물편과 부록으로 분류 정리 하였던 바, 자료의 분량에 따라 총편, 중앙총부편, 기관단체편을 모아 중앙총부·기관단체편의 1권과 교구·교당편을 2,3권 그리고 인물편과 부록의 4권으로 나누어 묶었다.
3. 각 편 of 자료 정리는 다음의 원칙으로 정리하였다.
 - 가. 총편은 교조인 소태산대종사와 원불교 약사, 교서, 교리, 제도의 변천을 편년체로 각각 정리하였다.
 - 나. 중앙총부편은 중앙총부 기구의 위상별로 종법사부터 법인체까지 8장으로 나누어 각각 개관을 쓰고 자료를 정리 편집하였다.
 - 다. 교구·교당편은 각 교구와 교당으로부터 보고서와 주변 자료를 종합하여 설립, 교화, 활동으로 구분하여 서술을 마친 후 가나다 순으로 해외 교구까지 총 21장으로 편집하였다.
 - 라. 기관·단체편은 교단내 각 기관과 단체를 13개 범주로 나누어 각각 개관을 쓰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정리하였다.
 - 마. 인물편은 법훈자, 전무출신, 재가정사, 지진출진 입묘자로 구분, 정리하였는데 법훈자와 전무출신, 재가정사는 사진 자료로 수록 하였다.
단, 법훈자, 재가정사는 2대말 결산에 의한 원기73년(1988) 승급자까지를 포함하였다.
 - 바. 부록에는 교단 연표와 각종법규, 보도자료를 수록하였는데 보도자료는 소태산대종사 재세시의 보도자료 원문과 72년간의 보도목록을 정리하여 실었다.
단, 일제하의 일문은 번역하였다.
4. 이 책의 내용은 평이한 문체로 간편하게 서술하되 고유 명사와 교리용어는 한문으로 표기하고 편찬의 범주를 사실 자료의 망라에 두었으며 각종 도표는 가능한 전편에 통일을 기하였다.
5. 경어와 존칭은 모두 생략하였으며 연도는 원기로 통일하고 서기를 괄호에 넣었으며 생년월일은 편의상 서기로 하였다.

운 노력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영명하신 진리가 소소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이날을 맞이하여 적수공권으로 일어나서 오늘의 교단이 있게 한 창립의 정신을 다시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제 교단 三代에는 하나의 세계를 향해 물려오는 국가세계의 대운을 마음껏 활용하여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셨던 광대무량한 대 낙원으로 인도하는데 가일층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3년후의 大宗師님 탄생 백주년을 기하여 세계가 함께 받드는 大宗師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報本事業에 우리의 있는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자기훈련・교도훈련・국민훈련・인류훈련을 통해 다같이 대진급하여 참문명세계 건설의 주인들이 되게 하고 교화를 위주한 교단의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세계 만방에 이 교법을 전파하고 종교연합운동으로 政教同心을 이루어 인류가 대화합함으로써 무궁한 佛國土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회상 기틀을 세운 꽃다운 법훈을 높이 기리고 역만년 뽐어나갈 우리의 교운을 心祝하며 法身佛 四恩과 대종사님 성령과 정산종사 성령과 선영 열위 전에 새로운 대서원과 대신성을 다지고 하나에서 열, 열에서 백, 천, 만, 영생, 영접을 한 마음 한 서원으로 나아가 교단 三代의 거룩한 공덕주들이 다같이 되시기를 심축드리는 바입니다.

원기 73년 11월 6일

宗法師 金 大 舉

少太山大宗師님의 聖靈 전에 이 책을 올립니다.

圓佛教 創立 第二代末 聖業奉贊會
大宗師誕生 百周年
會長 李 共 珠

회상 창립 제1대를 마감하면서 발족한 제1대 성업봉찬사업회는 4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원기 38년(1953) 4월 성업봉찬기념식을 올리게 됩니다.

4년의 준비기간 속에는 6·25사변을 겪어야 했고, 화폐개혁도 치루어야 하는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업봉찬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사업의 개요들을 지금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때 네가지 목표사업을 세웠는데, 하나는 편집사업이요, 둘은 건설사업이며, 셋은 경축행사, 넷은 선전사업이었습니다.

편집사업에서는 ① 대중경 ② 창건사 ③ 지부 지소 및 각 기관 연혁 ④ 창립유공인 역사 ⑤ 기념문집 ⑥ 성가집 ⑦ 기념사진첩의 발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편집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었지만, 기념대회때는 40개 지부와 10개지소 및 12개 기관의 역사를 정리한 『圓佛教 沿革』만이 발간되었습니다.

제1대 성업기념대회가 열릴 때 교세는 재가교도 20여만명, 출가교도 260여명, 교당 50여개소, 12여개의 교육 자선기관이 발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교당 50여개소와 12여개의 기관 역사를 정리한 것이 『圓佛教 沿革』입니다.

제1대 성업봉찬사업을 세우면서 할일이 태산처럼 많던 시기에 편집사업에 이처럼 큰 비중을 둔 것은 우리 회장의 자량이며, 이때 저는 대회장으로서, 특히 편집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7,8인의 후진들과 함께 지부와 지소 및 각 기관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여 직접 쓰기도 하고, 편집도 하고, 교정을 보고 하면서 발간한 것이 『圓佛教 沿革』입니다. 이 책이 一代의 교당과 기관의 역사를 정리하여 놓은 유일한 책 입니다. 이후 다른 편집사업은 차례로 다 이루어졌는데, 창립유공인의 역사를 정리하지 못해 대중사

님 성령과 역사를 보지 못하고 열반에 든 창립유공인들에게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았으며 어떤 때는 내 손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나까지 떠난다면 이 죄스럼을 어쩔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전에 『圓佛教 第一代 創立有功人』까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圓佛教 第一代 創立有功人』은 사업계획을 세운지 1대 기간인 37년이 지나서 제2대성업봉찬기념대회를 2년 앞두고 원기71년(1986) 9월 발간되었습니다.

『圓佛教 第一代 創立有功人』에는 제1대를 총 결산한 결과, 교단 창업에 공덕을 쌓은 창립유공인으로 전무출신(출가교도) 258명과 거진출진(재가교도) 1498명 등 1756명의 공로와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창립유공인은 창립제1대내에 공부와 사업성적을 합한 원성적이 준5등 이상입니다. 이 속에는 준정사 이상의 법위자 26인, 정사 이상 법위자 9인, 준특등 유공인 9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봉도 2명, 대호법 2명, 종사위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립제2대를 마감하는 성업봉찬 기념대회를 준비하며 대회장을 또 맡게 되었으며 『圓佛教 七十二年 總覽』 발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후진들을 보면서 4백개가 넘는 교당과 교당에 부설된 1백여개 유치원과 기구, 1백여개의 기관, 각종 단체, 5천여명의 교역자, 1백만명의 교도, 72년의 역사동해아릴 수 없는 자료를 집대성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을 하는 후진들이 대견스럽습니다. 모아진 자료들을 보면서 지금은 불필요한 것 같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 귀중한 사료들은 먼 뒷날에 오는 후진들의 것입니다. 모아서 묶어놓은 창립 2대말 성업봉찬의 일꾼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료를 소중하게 알고, 보관하고, 기억한 사람들, 그 흠어진 자료들을 모은 사람들, 그 자료들을 정리하며 사료화한 사람들, 오류를 바로 잡아 감수한 사람들 모두 대종사님 성령전에 자랑스런 제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圓佛教七十二年總覽』에 모아진 귀중한 사료들이 오만년 교운의 우리 회상에 초석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少太山大宗師님의 탄생백주년을 앞두고 발간되어 또 한번 대종사님 성령 앞에 보은이 될 것입니다.

원기75년(1990) 12월

中央總部 修道院에서

創立弟二代 決算聖業의 意義

少太山大宗師께서 일찌기 새회상의 창립한도를 정하여 주시기를 1代를 36年으로 하고 다시 매회 12年으로 區分하여 3회 36년이 되게하여 주신 것은 교단의 경륜을 보다 계획적 합리적으로 달성키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二代決算聖業의 참된 의미는 지난 36년간을 마무리하는 행사나 대회를 갖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매듭과 형식을 통하여 과거를 反省對照하고 이를 거울삼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전망하는데 있다.

한 인간이나 인간이 이루어 놓은 집단은 대단히 현명한 것 같으면서도 일정한 기간과 계기를 통하여 자신을 근본정신과 목표에 비추어 철저히 반성치 않으면 일상적 타성에 빠져서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제2대를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결산했으며,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찾을 것인가를 개관해 보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1代가 幼兒期라면 2代는 成年期이다. 2代는 成年을 위한 몸부림과 발전, 고뇌와 영광이 함께 한 代이다.

1代 결산성업은 6·25동란으로 한해 뒤인 원기38년(1953) 4월에 개최되었고 그때 아쉬웠던 결산을 원기42년(1957) 법훈중여식과 각종 경축행사로써 보완하였다.

원기48년(1963)의 2代 제1회 결산은 정산중법사의 열반과 개교반백년기념사업회의 발족으로 회석되었고, 원기60년(1975) 제2회의 결산도 전교도의 공부와 사업성적 사정만으로 간략히 치루어 졌다. 긍정적으로 보아 1회와 2회의 중간에 든 개교반백년기념사업에 그 영광을 양보한 셈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원기72년(1987) 2代 제3회의 마지막 결산성업도 공부 사업 결산잔치는 푸짐히 하였으나 모든 경축행사는 3년 뒤에 개최되는 대종사탄생백주년기념대회로 미루어 진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2대의 결실을 수치상으로 1대와 비교해 보자면 36년동안에 6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많게도 보고 적게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수량의 다과에 있다가 보다 그 내용에 있다.

내외역사의 격동속에서도 우리는 이 기간에

- 1) 재단법인 원불교의 설립인가(원기32년)를 받아 교명을 공식 선포(원기33년 4월) 하였고 원기47년(1962년 7월)에는 본 교단이 불교재산관리법에 통제를 받지않는 독자적 교단으

로서의 공인을 받게되었다.

- 2) 정전 재편과 아울러 대중경을 편수하여 기본경전을 확립하고 예전 교사 교헌 성가 정산 종사법어(세전) 등 7종교서를 완비하였다.
- 3) 교헌제정(원기33년)과 수차의 개정을 통하여 교단의 기본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각종제도와 조직, 법규를 정비시행하여 법치교단으로서의 기틀을 다져왔다.
- 4) 원기50년(1965)부터는 법의 정한 바에 따라 法位査定을 실시하여 교단의 생명인 工夫風土조성과 법위향상을 촉진하여 많은 佛菩薩을 배출하고 소태산대종사의 慧命의 등불을 이어받는 血心弟子가 繼繼承承케 하였다.
- 5) 유일학림을 시작으로 원광대학교·원광중고등학교 등 원광학원군을 이루었으며 영산·동산·중앙의 3대선원을 비롯하여 각처 요지에 많은 훈련기관을 설립하고 교역자는 물론 일반교도와 비교도까지 소태산대종사의 훈련법으로 참된 자아를 회복하고 실현케 하였다.
- 6) 보육원 양노당을 비롯하여 수양 요양 등 자선기관을 확장하였고 봉공기관을 발족시켜 대사회 봉공활동을 강화하였다.
- 7) 언론·출판·문화를 진흥시켜 문화교화의 체제와 문호를 넓혔으며 특히 출판문화는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여 크게 발전시켜 왔다.
- 8) 많은 藥業 醫療기관을 확장하여 靈과 肉을 아울러 구제하는 기틀을 다졌으며 농장과 상사·금융·묘원기관을 설립하여 교단 기간산업을 육성하기에 노력하였다.
- 9) 청소년 어린이단체를 조직 육성하고 특히 유치원·유아원을 많이 설립하여 청소년교화와 교단의 미래 꿈나무를 넓혀 나갔다.
- 10) 한국종교인협의회 창립 당시부터 꾸준한 활동을 통하여 국내 우수한 종교로서의 기반이 확립되었으며 해외 교당설립과 교화, 국제종교활동과 종교연합운동을 통하여 세계종교로서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 11) 이러한 모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육영사업회를 비롯하여 법은·교화·유지 훈련·문화·자선·후생사업회·원창회 등을 설립하여 재정적 밑바침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鼎山宗師의 4대경륜과 현 大山宗法師의 경륜과 지표,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교단에서는 원기68년(1983) 2월 2대를 알차게 결실하기 위하여 교단 창립제2대 및 대종사 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를 발족하였다.

그러나 성업봉찬회에서는 탄생백주년성업과 아울러 주로 기념사업을 하게 되었고 공부 사업 성적사정 등은 교정원에서 주관하여 결국 결산총회도 교정원 주관하에 치루었다.

성업봉찬회에서는 총부 건설장엄으로 청문 담장 및 포장공사, 보존건물 복원, 대종사성탑

장엄과 정사종사성탑 중건, 영산성지 보존건물 복원 및 대각지 장엄 등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부지가 확장되었다.

편찬 문화사업으로 『圓佛教 七十年 精神史』의 발간과 72년총람 작업이 진행되었고 영문교전이 재편되었으며 「개벽의 북소리」 전국 순회공연으로 교단사상 최대의 문화예술교화가 이루어졌다.

제주국제훈련원을 비롯하여 각지 훈련원 신축을 지원하고 동경을 비롯하여 각지 해외교당 개척설립을 지원하여 훈련과 해외교화의 뒷바침을 하였다.

또 3대설계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교단의 현안문제를 6개부문으로 나누어 자료와 의견을 모은후 바람직한 정책지침 방향을 설정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이 자체로도 충분한 의의와 가치가 있는 작업이었다.

우리 교단의 더욱 큰 자산과 자량은 이러한 사업의 성공과 실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안으로는 교단의 인재들이 개인적으로는 설사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교단의 대의와 공의에는 물과 같이 합하여 법과 교단을 살려나가는 데 있고, 또한 개인이 교단을 버린일은 있으나 교단은 개인을 살려써서 교단내에서 살면서 크게 후회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또한 밖으로는 격동하는 역사와 사회환경 속에서도 교단이 일반 사회의 신뢰와 신망을 얻고 있는 점이다. 한때의 실수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저력과 역량이 있다. 교단의 이러한 모습과 평가는 교단의 어떠한 자산보다도 값진 것이며, 훌륭한 유산과 전통으로 이어가야 되리라 믿는다.

교단에 이러한 저력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첫째 소태산대종사의 법의 圓滿通達 함이며, 둘째 9인선진의 훌륭한 교단 創立精神이며, 셋째는 당대 主法이신 중법사의 광대한 지도력이며, 넷째는 정기 상시훈련을 통한 인격의 거듭남이며, 다섯째는 私를 버리고 法과 공을 위해서 바치고 희생하는 전무출신과 거진출진 정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긍정적인 면만 보아서는 안된다.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건실하고 신뢰받는 교단으로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도 훌륭한 자량이 될 수 있지만 현대의 36년이면 과거의 360년 보다도 더한 황금같은 시기이다.

이 기간에 우리는 교단의 이념과 소태산대종사의 경륜을 어떻게 실현하여 왔는가 교단의 목표를 얼마나 착실히 달성해 왔는가를 냉정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 1) 우리는 믿음과 이념공동체로서 확고한 신념과 方向을 함께하고 제 길을 걸어왔는가, 제 길을 벗어나 때로는 방향 없이 일만 벌려 왔는가.
- 2) 9인선진의 교단창립정신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키고,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재현시키고 있는가, 小我가 大를 위해 희생하기보다 小我때문에 大가 희생되는 일은 없었는가.

- 3) 역사가 흐름에 따라 우리의 훌륭한 주체성과 전통성을 상실하지는 않았는가, 완고와 타성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인심을 향도하여 왔는가.
- 4) 교단의 성장에 따른 방대한 조직과 기관들이 제자리에서 합리적 생산적으로 움직여 왔는가, 비합리적인 문제를 청산치 못하고 낭비만 하고 있는가.
- 5)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 민족문화와 접목시키며 새로운 값진 문화를 창조해 왔는가, 문화로서 축적 될 수 없는 타성적인 일을 되풀이 하여 왔는가.
- 6) 역사의 매듭과 고비마다 다짐하고 맹세한 결의안과 연구하고 검토한 정책들이 얼마나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가, 시행되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 7) 교단의 모든 이념들이 교단내에서 먼저 시행되어 일반사회의 모범이 되고 부끄럼이 없는 낙원공동체로서 살아 왔는가, 이념과 사상만 외쳐왔는가.

우리는 분명히 많은 성장을 하여왔다. 그러나 성장이라는 업적에 가려 더욱 소중한 생명을 잃어서도 안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 하여 변화와 발전에서 낙오되어도 안된다.

우리는 통일 통합을 이루어야 하지만 획일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원화 개방화를 시도해야 하나 이것이 대립과 혼란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룩한 36년간의 업적이 진정 교단의 훌륭한 문화유산과 전통으로서 후진만대에 길이 전해줄 만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유산이 얼마나 되고 개선 폐기해야 할 유산이 얼마나 되며, 특수화된 문화가 얼마이고 보편화가 된 문화가 얼마나 되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3대가 보다 밝게 열려질 것이라 믿는다.

聖業奉贊會
事務總長 金仁喆

목 차

* 일러두기	i
* 법 문	iii
* 발 간 사	v
* 창립 제2대 결산성업의 의의	vii

인 물 편

□ 종 사	1
□ 대 봉 도	3
□ 대 호 법	9
□ 전무출신	14
□ 재가정사	91
I. 거진출진	133
II. 입 모 자	162

부 록 편

I. 원불교사 연표	228
II. 각종법규	319
1. 역대 불법연구회규약 수록/319	2. 역대 원불교교헌/353
III. 보도자료	391
1. 관계보도자료 목록/391	2. 보도기사 습수록/420
* 발간위원	
* 편집후기	

人 物 編

□ 宗 師	1
□ 大 奉 道	3
□ 大 護 法	9
□ 專務出身	14
□ 在家正師	91
I. 거진출진	133
II. 입 묘 자	162

宗 師



主山 宋道性



三山 金幾千



空陀圓 曹專權



六陀圓 李東震華



應山 李完喆



恒陀圓 李敬順



崇山 朴光田



誠山 成丁哲



亨山 金 洪 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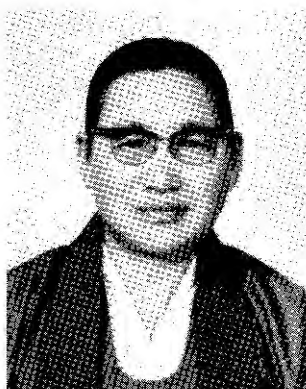
九陀圓 李 共 珠



龍陀圓 徐 大 仁



高山 李 雲 捲



薰陀圓 梁 道 信



常山 朴 將 植



香山 安 理 正



養山 金 中 默



香陀圓 朴 恩 局



睿陀圓 全二昌



中陀圓 呂清雲



誼陀圓 李永勳



喜山 吳喆煥



八山 金光旋



一山 李載喆



四山 吳昌建



道山 李東安

大奉道



公山 宋 慧煥



五山 朴 世喆



義山 趙 甲鍾



惠山 全 飮光



圓山 徐 大圓



中山 丁 光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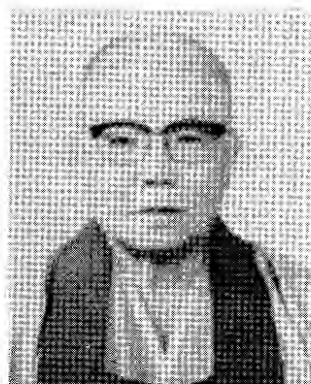
東山 李 炳恩



默山 朴 昌基



亨陀圓 吳 宗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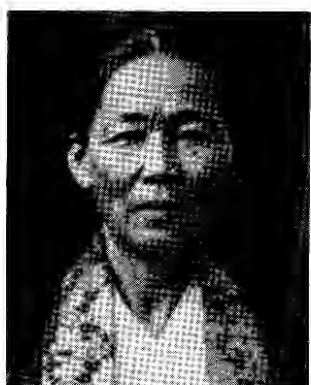
融陀圓 金永信



達陀圓 李正和



一陀圓 朴四時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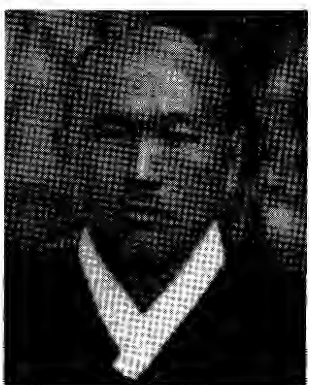
二陀圓 張寂照



四陀圓 李願華



五陀圓 李青春



靈山 朴大完



柳山 柳虛一



德山 趙禧錫



根山 池海元



均山 丁慈善



凡山 李空田



梵陀圓 金智玄



禮山 李喆行



憲陀圓 丁盛熟



靜陀圓 李正恩



均陀圓 辛濟根



聖陀圓 李聖信



承陀圓 宋靈鳳



潤山 金允中



發陀圓 鄭眞淑



文山 金正勇



亞山 金仁龍



麗山 金西悟



坤陀圓 朴濟權



主陀圓 尹周現



多山 金勤修



弘陀圓 朴恩燮



天山 李建春



欽陀圓 鄭潤才



法山 李百徹



阿陀圓 全八根



山陀圓 高賢種



恩陀圓 徐世仁



禪陀圓 柳聖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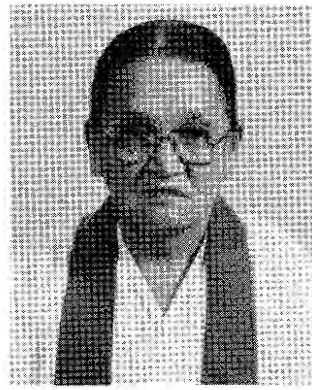
閑陀圓 柳壯順



達山 尹致聖



濟陀圓 宋慈明



秀陀圓 李順錫



勝山 梁濟乘



崇陀圓 朴性敬

大護法



八陀圓 黃淨信行



良陀圓 宋敬心



二山 李旬旬



六山 朴東局



七山 劉 市



京山 康弼國



十陀圓 梁夏雲



永陀圓 林七寶華



秋山 徐中安



三陀圓 崔道華



海山 吳利均



奉山 申圓觀



貫山 趙大震



修山 李徹遠



金瑞眞



教陀圓 金法用心



中山 呂圓光



中陀圓 林圓覺行



慧陀圓 尹致德



滿陀圓 金明煥



慶陀圓 高性容



寶陀圓 金瑞敬



安陀圓 任濟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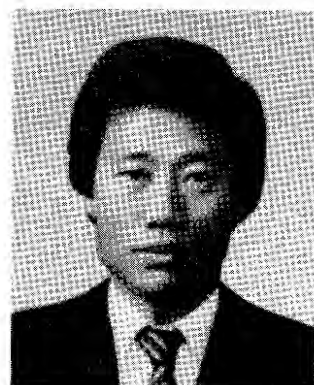
哲山 卓正榮



始陀圓 洪仁德



道陀圓 全隱德



李德化



信陀圓 金慧性



專陀圓 尹聖圭



賢山 李義聲



世山 金成學



明陀圓 朴錦容



雲山 文東賢

명예
大護法



國山 洪仁天



裕山 金德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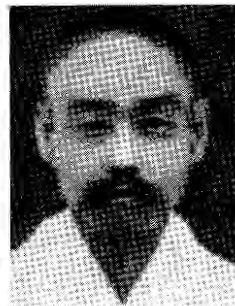
專務出身



平山 李俊鏡



慕山 宋萬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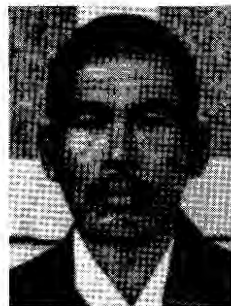
薰山 李春風



久山 宋碧照



洛陀圓 金三昧華



玄山 李寶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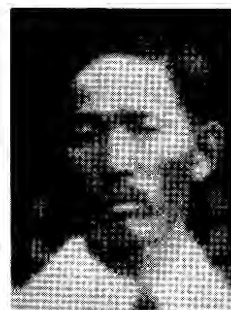
善陀圓 金正覺



金秉哲



田宗煥



直山 宋奉煥



權大鎬



乾山 李建陽



劉龍俊



忠山 丁一持



穩山 李載文



七陀圓 鄭世月



恩陀圓 曹一貫



翠陀圓 崔尚淳



德陀圓 丁良善



壽山 朴理碩



進山 金瑞龍



回山 曹元善



富陀圓 金峻湖



靈陀圓 李大教



時陀圓 李道信華



允陀圓 李正滿



湖山 李君一



吳富哲



景陀圓 鄭觀音行



玄陀圓 池歡善



慶陀圓 崔修仁華



雲陀圓 曹滿植



緣陀圓 金泰信



常陀圓 李泰然



霽陀圓 朴濟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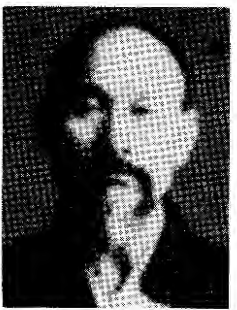
松陀圓 李貴生



俊陀圓 盧三九華



念陀圓 朴永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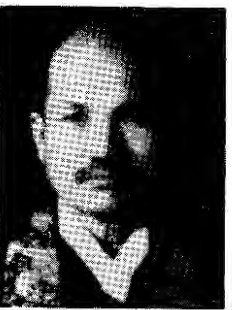
角陀圓 金南天



良陀圓 金亨眞



金成庸



仁陀圓 李亨局



河陀圓 金日鉉



基陀圓 李性覺



福陀圓 韓貴智華



李順權



松陀圓 金仁空玉



純山 金昌峻



辛陀圓 溫法中行



哲陀圓 吳哲秀



測陀圓 李江蓮華



聰陀圓 安慧三華



梅陀圓 鄭安心行



寧陀圓 李智一



爲山 文鳳晴



根陀圓 朴眞悟



青陀圓 庾現一



洪在完



淑陀圓 安智淑



碩陀圓 朴德濟華



垣陀圓 鄭亨善



培陀圓 尹順培



默陀圓 權偶然



嘉陀圓 金文局



華陀圓 李明勳



明山 宋日煥



和陀圓 金仁現



宗陀圓 田現關



敦山 鄭泰飲



林 全萬



鄭南峻華



世陀圓 丁蓮國



祐陀圓 吳然秀



桂陀圓 鄭法機行



侍陀圓 李唯一華



郎山 李中和



祝陀圓 朴南秀華



鄭 教眞



申 正秀



旺山 李明秀



向陀圓 金昔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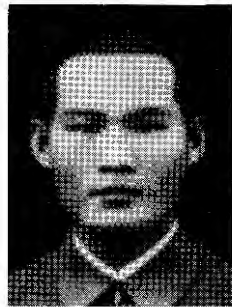
垂陀圓 柳貴男



豐陀圓 崔福基華



仰山 趙峻谷



李光悟



曉陀圓 梁慧蓮



容山 梁泰說



望陀圓 黃明照



善山 李善友



閑山 李恩錫



欽山 牟相峻



望山 金貴根



敏山 李中正



重陀圓 金大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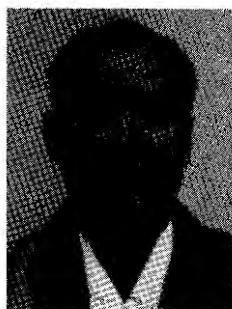


悟陀圓 林善揚

원불교총람 인물편



惠陀圓 張景晏



安山 張仁中



念山 李修悟



寂陀圓 金大現



幾陀圓 李祐正



專山 梁景瑞



萬陀圓 權一經



完山 申在一



荷陀圓 丁良珍



圓陀圓 宋圓徹



親陀圓 金奉植



維陀圓 朴維正



舜陀圓 金成珠



證陀圓 李用眞



至陀圓 全基徹



瑞山 張正現



竹陀圓 丁慶浩



麟陀圓 李大機華



梁長淑



鄭薰豐



弘山 韓廣根



禹陀圓 李再耕



慕陀圓 崔靈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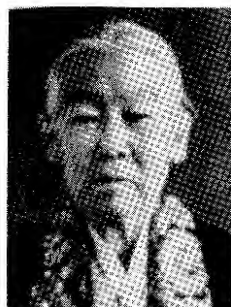
松山 李增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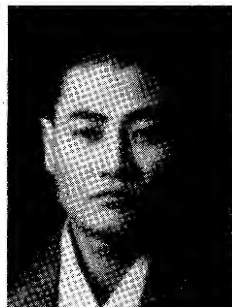
谷陀圓 張喜順



連陀圓 馬明淑



梁現秀華



李亨遠



剛山 尹正運



勉陀圓 金淨勤



薰山 鄭敬薰



金玄淑

원불교총람 인물편



水陀圓 權江水月



昭山 鄭聖德



松陀圓 辛敬眞



相陀圓 田宗哲



法陀圓 金理玄



如山 柳基現



震山 韓正圓



道陀圓 宋清進玉



茄陀圓 李淳一



葛陀圓 金露眞華



務陀圓 柳寬眞



睦陀圓 黃周南



敦陀圓 權正音



奎陀圓 崔奎學



堯陀圓 鄭宗喜



實山 吳海仁



溫陀圓 李性露



朴德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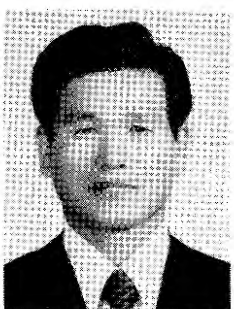
侍山 金正貫



陸山 鄭碩德



進陀圓 韓智緣



哲山 金仁碩



處山 金壯權



理陀圓 李正務



乾陀圓 金大觀



咸陀圓 宋靈智



積陀圓 全敬和



孝陀圓 金法眞



宗陀圓 池性仁



震陀圓 朴濟現



奉山 李宗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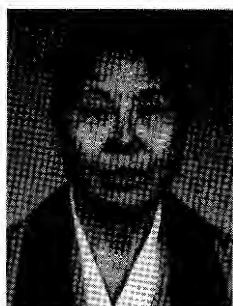


錦陀圓 朴世經

원불교총람 인물편



慧陀圓 吳 禧 圓



同陀圓 金 義 眞



白陀圓 李 現 照



台陀圓 宋 順 鳳



運陀圓 金 調 現



普山 李 普 圓



水陀圓 金 仁 玉



朴 元 吉



淸山 閔 道 淵



淑陀圓 金 用 植



培山 申 普 根



裡山 朴 正 薰



萬山 朴 選 一



龍山 徐 大 峻



元山 李 濟 性



融山 宋 天 恩



元陀圓 李六途華



治山 金致局



脈陀圓 李善均



富陀圓 李永華



榮山 朴榮植



養陀圓 李震明



文圓景



奇陀圓 鄭福天



光山 金光昌



玉陀圓 崔柔權



時陀圓 沈益舜



本陀圓 梁慧經



希山 宋成讚



完陀圓 金慶完



龍山 柳正完



崑陀圓 沈慧寬

원불교총람 인물편



日陀圓 鄭日中



維山 鄭維誠



會陀圓 金普信



勤陀圓 姜妙眞



彌陀圓 張善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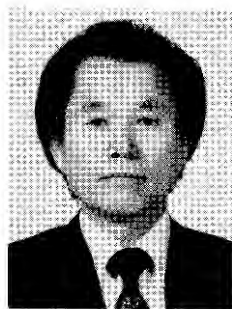
亢山 金仁喆



基山 李玄度



釋山 韓正釋



貫山 李善慶



孝山 趙正勤



溪山 趙正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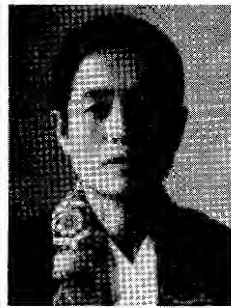
廉陀圓 張惠星



方山 李元道



還山 曹善根



仁陀圓 許淑仁



官陀圓 金順局



善陀圓 金 德 眞



金 賢 虛



厚陀圓 姜 寶 良



遍陀圓 金 智 行



能陀圓 梁 法 寬



基陀圓 朴 賢 一



厚陀圓 朴 智 洪



興陀圓 崔 滿 振



坎陀圓 朴 慧 順



連陀圓 朴 成 席



務陀圓 朴 道 完



智山 姜 雲 祥



古陀圓 李 德 心



要山 金 達 性



林陀圓 李 維 寬



明陀圓 金善地行

원불교총람 인물편



船陀圓 韓濟船



賢山 趙智聖



裕陀圓 申德仁



佐陀圓 金復煥



菊陀圓 李晶煥



侍陀圓 李惠善



完陀圓 蘇宣珠



洋山 金大根



更山 趙喜悅



彌山 吳彌山



載陀圓 李載玉



坎陀圓 崔純圓



林山 林允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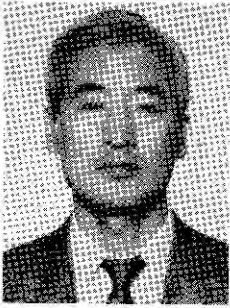
頭陀圓 田奉善



止山 金大鉉



景陀圓 金元滿



金亮秀



眞陀圓 柳喜榮



天陀圓 白智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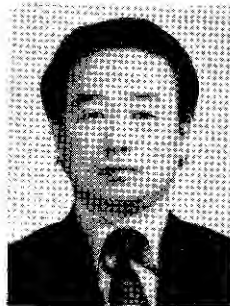
福山 吳定立



浩山 朴濟仁



奉陀圓 金亨徹



課山 韓正洙



左山 李廣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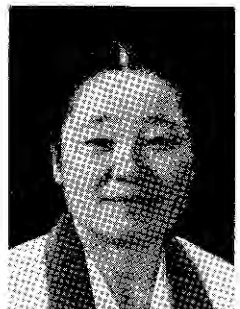
觀陀圓 柳香元



奉陀圓 金智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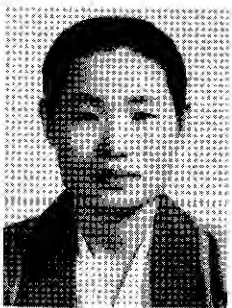
碩陀圓 金惠寶



誓陀圓 朴清秀



典陀圓 張鳳雲



曾陀圓 鄭守德



璟陀圓 金修仁



冠陀圓 李慧定

원불교총람 인물편



順陀圓 崔順哲



滿陀圓 金忠玄



載陀圓 朴圓錫



奉山 張正一



秀陀圓 金正勤



覺山 辛道亨



典陀圓 崔南貞



恬山 朴濟衆



溫陀圓 朴明音



妙陀圓 高孝根



同陀圓 朴玄道



茂陀圓 李法輪



仁陀圓 韓仁性



藏山 黃直平



南山 朴正基



彌陀圓 林南悅



厚山 金聖現



壯陀圓 李明仁



實陀圓 吳恩聖



普陀圓 金和景



安陀圓 趙敬蓮



學陀圓 成正在



福山 金剛仁



溫山 太德權



元陀圓 姜英文



曉山 孫正允



免陀圓 宋明鎬



裡陀圓 權德圓



充陀圓 柳玄正



東陀圓 柳秀日



規陀圓 張正髓



化陀圓 林化仁

원불교총람 인물편



海陀圓 高興權



峻山 權峻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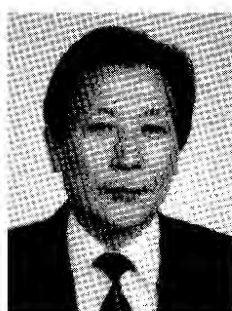
文山 朴大成



峴山 李鍾圓



耘山 河一誠



妙山 李正清



明山 李慧鎮



堂陀圓 朴純玉



銀山 吳聖洙



壽山 具安福



興山 朴眞興



降山 金法宗



始陀圓 金恩信



進陀圓 徐淑正



蒼山 丁道允



觀山 金東玄



松陀圓 白水晶



斗山 徐慶田



初陀圓 白想源



覺陀圓 張敬眞



南陀圓 朴正默



昌陀圓 金普現



安陀圓 安正眞



梅山 金聖徹



惜陀圓 朴德秀



平陀圓 康舜常



朴 桂眞



宮陀圓 金三印



庶陀圓 大光玉



韓 慧根



水山 朱定鏡



潤陀圓 朴正慧



慶陀圓 李道興



歸山 韓海仙



琬陀圓 高玄聖



衛山 權誠天



錦山 朴圓根



準陀圓 李明輪



和山 金碩元



道陀圓 尹聖道



慕陀圓 朴仁淑



芳陀圓 張明信



貫陀圓 李文眞



葛山 金淵聖



吉山 韓吉良



秀山 李運徹



希陀圓 金德信



深陀圓 朴舜正



昭陀圓 申明實



璟山 李大光



諫陀圓 鄭四根



慧山 宋慧聖



柳三恩



忠陀圓 白玉蓮華



彦陀圓 李法悅



弓陀圓 李敬倫



曾山 沈道正



勉山 金聲振



寶陀圓 朴明濟



湖陀圓 黃英奎



心陀圓 南宮善鳳



懇陀圓 朴慧源



鑑陀圓 柳信玉



佳山 鄭眞明

원불교총람 인물편



濟陀圓 金義眞



印山 成仁鍾



栢陀圓 金知恩



弦山 金永鍾



謙山 牟成哲



舊陀圓 高慧善華



碩山 丁華聲



裕山 李性吉



台山 李泰聖



福陀圓 韓壽福華



任陀圓 金正信



宥陀圓 李德照



素陀圓 朴慈悅



首陀圓 柳一鳳



普陀圓 沈昌德



岸山 鄭圓一



國陀圓 李玄鳳



清山 李道明



蘭陀圓 金德賢



金敬仁



律陀圓 李良權



無陀圓 文國善



權陀圓 李倫正



福陀圓 溫和中



耕山 張應哲



親山 趙仁圓



淙陀圓 徐爲眞



寧山 金祥益



洗陀圓 崔洗塵



威陀圓 柳宗信



辛陀圓 柳日新



信陀圓 李修真



甲陀圓 曹永振



農陀圓 李良信



哲陀圓 崔康然



厲陀圓 吳信聖



巽陀圓 韓道鳳



倦陀圓 金光仁



印陀圓 宋仁鎬



規山 權道圓



本山 羅道國



虛陀圓 李英仁



崔柔權



農陀圓 金正雲



館陀圓 李順性



世山 徐聖範



碩山 金文澤



緣陀圓 金法緣



隱陀圓 金聖田



京陀圓 朴純基



備陀圓 金明悟



淡山 李聖恩



湜陀圓 金興信



鮮陀圓 韓蓮心



竹山 姜慶樂



佳陀圓 李敬心



晃陀圓 朴贊明



慈陀圓 李典圓



麗陀圓 李敬滿



立陀圓 丁濟圓



果陀圓 柳玄實



潑陀圓 申慧權



葛陀圓 朴英倫



玉陀圓 金至善

원불교총람 인물편



鳳陀圓 宋 德 信



瞭陀圓 朴 慧 明



信陀圓 崔 靈 明



照陀圓 金 南 明



廣陀圓 朴 常 根



誓山 李 宗 眞



月陀圓 宋 官 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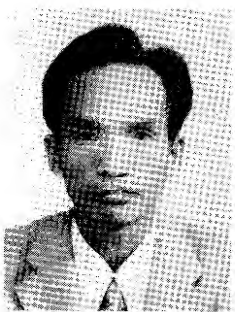
春山 金 春 澤



高 圓 奎



尼陀圓 洪 何 靈



新山 李 正 仁



春陀圓 柳 春 秀



金 蓮 鳳



曙陀圓 梁 正 信



芳陀圓 金 正 局



敏陀圓 林 正 旭



曼陀圓 鄭道中



越山 趙誠中



碧陀圓 柳理鏡



命陀圓 鄭蓮石



文陀圓 金亨模



若山 朴聖基



扶陀圓 崔修圓



深山 金恩峻



淵陀圓 馬圓宗



衆陀圓 李安秀



通陀圓 朴智圓



特陀圓 尹正養



播陀圓 朴公圓



溪陀圓 金濟明



金正德



密陀圓 陳文徹



彬陀圓 鄭仁成



辨陀圓 李孝源



李景玉



尹舜明



柳義明



李龍定



金慧信



高圓善



權世圓



金慧奉



金慧心



拓陀圓 宋達俊



澹陀圓 鄭法悅華



利陀圓 李載賢



多陀圓 金明基



書陀圓 宋善滿



宗陀圓 李 善 宗



隱山 金 長 源



裕陀圓 李 妙 信



然山 金 學 仁



慰山 李 俊 一



金 性 圓



吳 光 益



效陀圓 劉 聖 田



應陀圓 李 昶 圓



綿陀圓 崔 仁 學



吉陀圓 金 常 恩



趙 圓 悟



崔 熙 性



李 壽 現



李 聖 局



金 正 敏



體陀圓 李會光



益陀圓 河大淵



母陀圓 盧聖子



緣陀圓 曹曉鏡



崔應眞



李建仁



金成薰



梁賢秀



文善慧



金晶暝



金聖觀



金主圓



鄭安信



朴道善



宋敬鎬



擔陀圓 姜主煥



金 一 誠



會陀圓 趙明觀



朴 亮 德



土陀圓 李洙根



企陀圓 李德圓



旦陀圓 全奉圭



熙陀圓 柳敬熙



江陀圓 趙南薰



信陀圓 李修真



嘉山 金聖澤



歸陀圓 金道振



甘陀圓 崔道善



賢陀圓 李誠喜



博陀圓 朴至善



吳 禧 善



果山 金 玄

원불교총람 인물편



多陀圓 朴文吉



教山 李成澤



敬山 魯大薰



祿陀圓 韓法印



現陀圓 柳應現



參陀圓 李正珠



執陀圓 辛自然



直陀圓 康大行



蒙陀圓 邊性默



得陀圓 柳寬淑



徐光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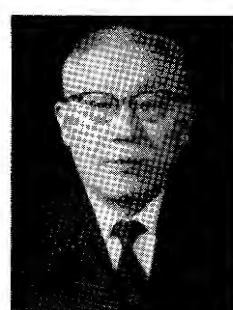
金化德



張道英



成道鍾



禪山 邊衆船



想陀圓 李蓮一



安世雄



全陀圓 林妙俊



聰山 朴達識



貴陀圓 韓明正



釜山 金正俊



肥陀圓 李鳳蓮



李喜仁



萊陀圓 朴眞圓



永陀圓 朴永昌



李性照



金應現



李祥眞



岸陀圓 李信正



川陀圓 高明一



吳珠恩



崔道仁

원불교총람 인물편



漸陀圓 申善慧



牧陀圓 文仁眞



金善英



韓純仁



淡陀圓 羅仁觀



兼陀圓 林仁英



廣陀圓 黃大願



朴南周



金玄均



鄭淑現



肯山辛靈文



羅文正



蘇晶仁



克陀圓 朴順道



金進學



金永孝



李道蓮



金曉明



尹敬一



昱陀圓朴永華



孜陀圓李眞薰



偉陀圓柳承仁



研陀圓蘇理根



耘陀圓金義聖



崔聖蘭



李圓京



金玄性



喜陀圓孫德宣



信山金和道



般陀圓吳明性



烽陀圓崔眞宇



徐致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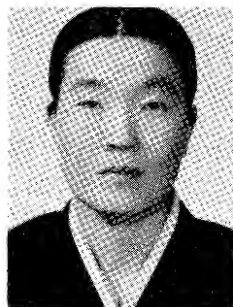
尹 正 宇



崔 性 德



李 明 善



李 孝 敏



金 元 道



李 南 賢



趙 學 心



鄭 慶 圓



宋 蓮 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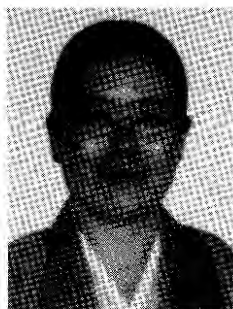
李 龍 煥



南宮 誠



朴 仁 道



李 德 一



黃 明 信



韓 聖 勉



太 成 實



金 圓 鳳



宋 賢 慈



金 正 有



許 光 永



金 福 遠



金 仁 卿



吳 德 觀



梁 正 理



小山 金大勳



金 信 田



行山 尹正觀



千 蓮 心 行



功陀圓 朴大錫



光陀圓 金光日



湖山 金井浩



務陀圓 崔敬仁

원불교총람 인물편



申宗秀



李性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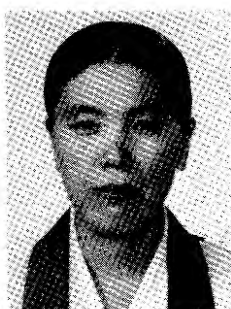
姜德煥



朴圓玄



徐進華



李秀恩



恕陀圓 鄭常薰



李善奎



薛允煥



金濟恩



咸聖培



李慧眞



韓喜允



朴恩源



丁敬安



李明鍾



李 心 眼



柳 眞 根



黃 仁 哲



金 玟 蓮



李 善 照



辛 明 敎



成 時 鍾



辛 大 誠



金 道 宗



李 正 宅



李 禮 性



吳 善 道



李 法 恩



金 曉 敏



李 眞 誠



珍陀圓 沈 養 源



李 聖 田



來陀圓 崔 志 圓



李 明 照



李 應 圓



朴 光 秀



田 濟 煥



金 基 圓



證陀圓 張 仁 善



伯陀圓 崔 仁 春



牟 賢 哲



鄭 誠 萬



金 恩 珠



洪 敬 鳳



金 正 常



李 聖 奎



朴 世 正

전무출신



金宗德



室陀圓朴世正



高眞陽



玉山李慧徹



柳義成



群陀圓趙慧明



金宇賢



宋慧慈



金明學



泉陀圓金慧泉



金明元



金道京



梁在圓



李亨德



金一相



文修敬

원불교총람 인물편



敍陀圓 朴貞慧



金蓮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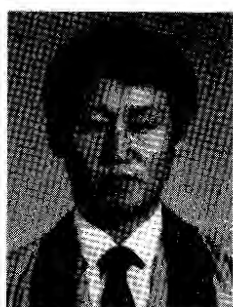
金基德



合陀圓 尹聖智



明山 金圓祐



崔敬道



申明國



鄭圓雅



金善直



河龍現



李恩永



申孝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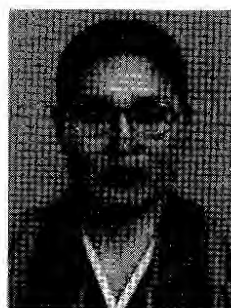
鄭大安



安民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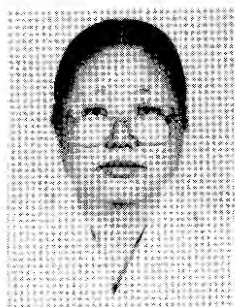


南宮恩



朱經信

전무출신



黃 恩 奎



李 敬 峯



丁 慈 弘



梁 聖 圓



柳 法 元



李 蓮 悟



金 寬 賢



金 復 仁



李 和 眞



金 慧 峰



悅陀圓



進陀圓 金 萬 永



曹 大 性



徐 敬 範



靜陀圓



鄭 俊 圓



金 善 明



李 道 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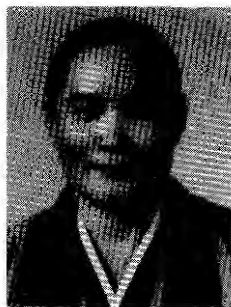
李 靈 田



朴 井 厚



金 柔 賢



崔 善 局



田 貴 圓



金 仁 剛



李 中 天



吳 重 圓



謹陀圓 徐德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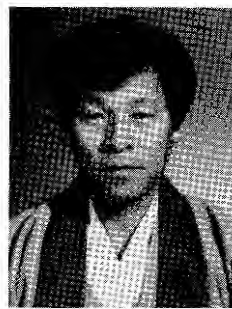
卓 惠 振



金 仁 眞



崔 德 信



金 明 德



宋 仁 明



金慶圓



宋圓堯



梁仁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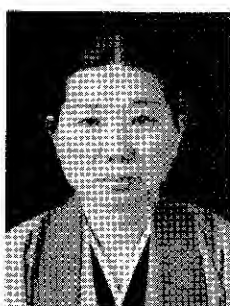
金泳澤



崔道常



鄭明中



文熙圓



姜淑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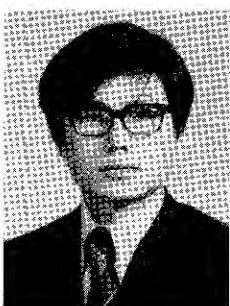
金弘善



李雲淑



崔道正



安道淳



金性孝



鄭荷益



金曉善



申宗熙

원불교총람 인물편



朴 鍾 安



金 壽 永



金 恒 善



金 貞 心



張 三 正



金 德 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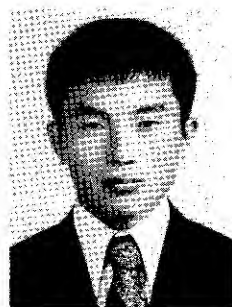
朴 仁 教



李 唯 新



梁 元 奎



韓 昌 民



成 明 鍾



宋 圓 田



丁 容 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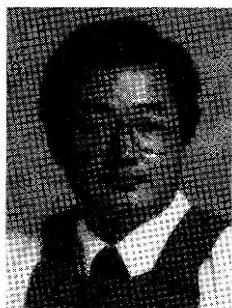
金 道 心



崔 基 眞



還陀圓 徐 淨 蓮



金 宗 天



田 有 玄



宣陀圓 金積善華



禮陀圓 林 香 仁



金 聖 豪



韓 珍 成



芝山 權 世 英



金 妙 田



申 大 道 華



桂陀圓 吳 孝 明



張 淵 光



柳 希 振



沈 道 潤



金 善 珠



崔 承 圓



辛 道 暉



崔熙鳳



田道淑



金慧光



鄭貴圓



朴龍德



全明眞



朴常眞



金性圓



金正悟



戒陀圓張世眞



宋德常



朴主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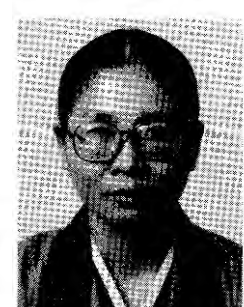
柳靜心



黃德奎



張行善



李明信



徐明善



金仁昭



張圓心



丁白蓮



姜明眞



金三眞



成大眞



李敬中



李淨善



教陀圓 朴眞修華



活陀圓 李貞善



茲陀圓 朴恩淑



敏陀圓 朴正德



金達善



始山 金正文



張秉道



金 慧 仁



趙 喜 田



韓 圓 緣



金 瑞 鶴



金 泰 成



李 宗 寬



李 曉 泉



黃 道 局



高 允 聖



朴 冠 德



金 常 重



崔 性 養



南 宮 圓



崔 義 馨



許 大 成



丁 恩 守



張 賢 心



韓 恩 淑



梁 道 承



曹 永 善



高 淨 吉



金 惠 圓



朴 圓 敬



金 護 仁



李 施 仁



趙 宗 賢



崔 信 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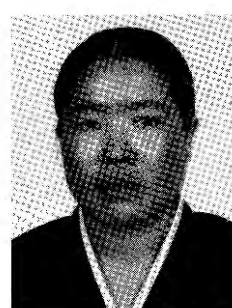
趙 煥 局



林 靈 哲



鄭 玄 仁



文 心 圓



金 熟 圓

원불교총람 인물편



申 平 淑



河 常 義



曹 常 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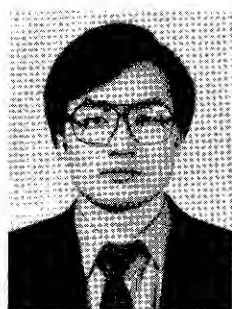
吳 善 寬



朴 允 哲



裴 恩 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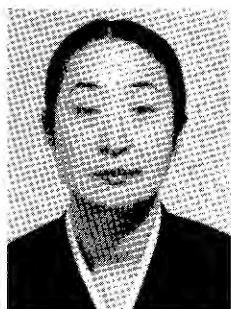
梁 海 寬



金 曉 徹



安 慈 恩



金 志 貞



李 圓 明



李 壯 善



朴 玄 經



洪 明 和



柳 永 眞



金 奉 佛 行



金大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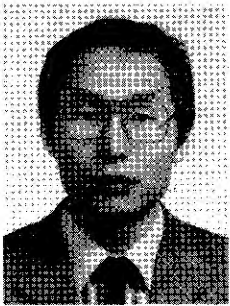
崔世鍾



李明修



具仁和



韓德天



李荷淨



徐圓珠



親山李法峻



李永德



金周暎



金玄悟



權道甲



金道運



朴孝貞



李如正



張法元

원불교총람 인물편



新陀圓 朴三純



裴心眞



許靖智



方德萬



田陀圓 任福田行



文正慧



柳心明



朴正仁



鄭喜行



李恩圓



崔永眞



林道玄



卜啓善



申眞圓



蘇宗玄



宋興仁

전무출신



崔 熙 憬



金 賢 珍



金 誠 潤



金 性 熹



崔 雲 珠



李 明 圓



沈 正 秀



劉 敬 緣



黃 鳳 眞



高 淨 鳳



孫 興 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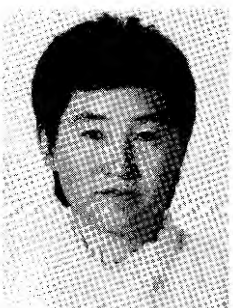
申 一 覺 圓



王陀圓 張 德 善



儉山 黃 天 日



金 顯 眞



梁 信 德



金大禪



金眞光



安善珠



梁潤誠



梁世晶



李吉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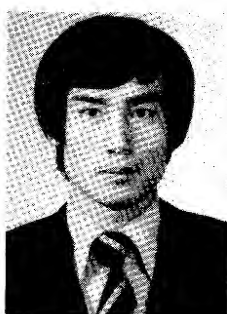
李貞吉



李舜悟



金道眞



金圓永



宋仁傑



高主心



洪貴蓮



鄭仁信



崔慈恩



朴智明

李 貞 道



李 貞 廈



柳 聖 泰



殷 聖 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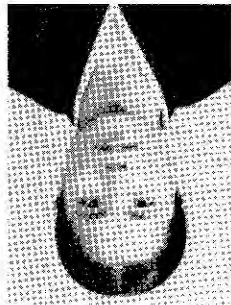
朴 信 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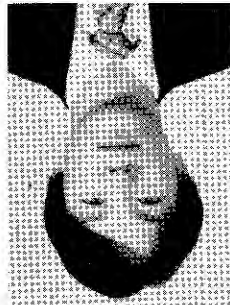
張 仁 觀



李 冠 道



李 春 植



李 宣 哲



黃 然 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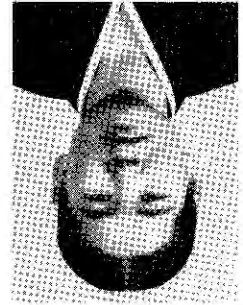
崔 心 經



韓 聖 心



劉 德 中



全 海 德



鄭 正 慈



朴 仁 海



원불교총람 인물편



朴 法 宗



金 貞 淑



李 奇 英



全 圓 德



意陀圓 李 正 善



崔 德 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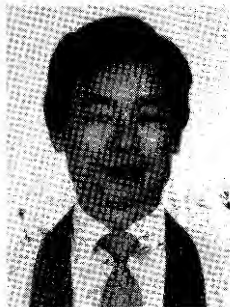
黃 釋 中



李 道 田



姜 敬 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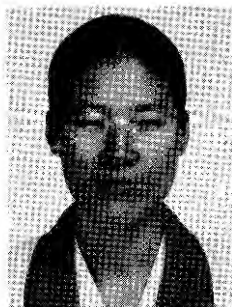
姜 亨 信



金 慶 日



白 心 德



黃 鳳 熹



朴 仁 源



盧 永 寬



柳 容 眞



林 德 盛



李 智 蓮



張 珠 玄



任 道 哲



奇 才 圓



李 安 性



李 悟 恩



徐 寧 秀



金 仁 宗



李 靜 光



金 正 安



柳 香 眞



徐 光 德



洪 理 仁



張 法 珠



許 晶 音



崔 定 安



李 學 新



金 德 英



黃 旻 政



孔 明 根



具 耕 田



李 仁 根



羅 常 仁



朴 慧 哲



洪 正 仁



高 眞 如



宋 基 圓



劉 妙 圓



成 基 潤



金 潤 圓



南 宮 仁



申奉恩



梁燦熙



朴恩心



朴誠仁



朴昌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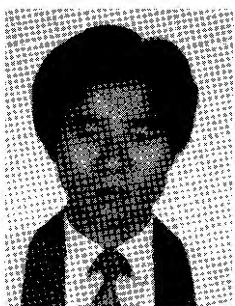
具明德



朴道源



洪圓正



李洵圓



韓濟恩



李亮德



姜法信



韓主性



元誠願



李善默



崔素願

원불교총람 인물편



李 明 熙



李 聖 淵



鄭 恩 福



李 浩 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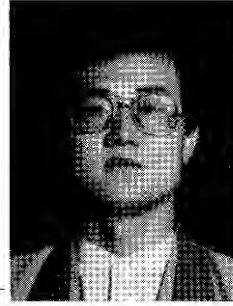
車 光 信



李 敬 圓



崔 眞 船



金 允 泰



吳 道 哲



金 圓 鍾



朴 圓 任



黃 法 心



朴 主 信



柳 世 明



月山 宋正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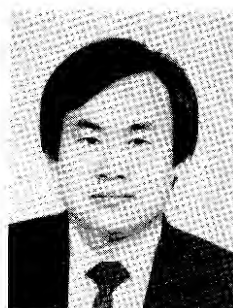
朴 良 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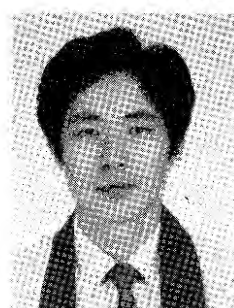
金 禪 瓊



李 聖 圓



姜 樂 眞



白 仁 赫



李 正 圓



金 觀 中



崔 仁 天



金 正 道



金 載 德



李 明 倫



金 誠 慧



申 寅 奎



李 眞 光



丁 彰 賢



宋 淑 貞



金 仁 奉

원불교총람 인물편



金 南 周



張 仁 明



金 學 宗



南 宮 信



張 成 恩



李 建 直



金 舜 益



梁 常 德



徐 敬 秀



洪 仁 景



李 恩 觀



金 承 恩



朴 道 廣



成 正 進



趙 和 秀



金 亨 善



裴 賢 誦



李 宗 化



宋 淨 心



李 明 觀



李 敬 園



李 春 宣



李 永 眞



安 明 恩



沈 弘 振



李 秀 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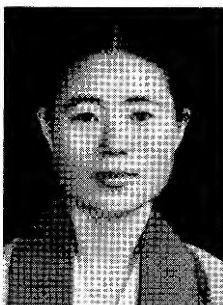
崔 奎 圓



崔 一 珠



朴 常 賢



金 知 蓮



梁 眞 性



金 保 成

원불교총람 인물편



朴 恩 田



徐 景 淵



宋 倫 全



黃 道 默



梁 應 天



金 大 運



姜 慧 善



朴 宣 泰



金 道 英



鄭 德 均



余 根 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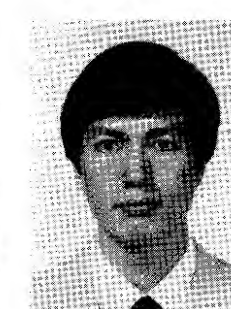
朴 聖 蓮



崔 明 圓



白 賢 麟



金 象 護



李 敬 悅



崔亨芝



朱道光



金東蓮



金明呂



金眞誠



姜在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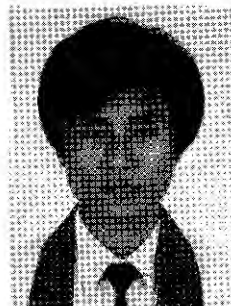
安重勳



張德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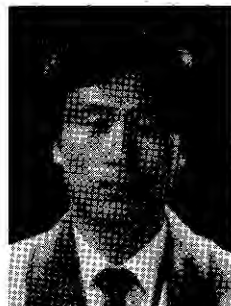
張敬道



申誠鎬



文圓珠



蔣釋準



鄭仁德



趙義澤



李仁景



安仁錫



金東宣



吳恩道



李貴仁



姜文成



柳聖圓



洪慧眞



張善志



崔光善



沈洪濟



金信圓



金慧恩



朴道一



金仁圓



千萬成



朴恩成



洪明仁



吳 耕 虛



崔 良 仁



金 法 恩



徐 道 現



南 宮 善



沈 道 緣



金 道 仁



金 恩 觀



李 圓 照



金 吉 善



金 性 根



全 性 敏



金 然 喜



辛 永 善



房 仁 性



李 三 德

원불교총람 인물편



洪 明 田



吳 正 道



白 仁 基 、 朴 法 一



朴 主 永



鄭 天 經



吳 善 鳴



金 德 寧



李 勤 行



申 基 圓



安 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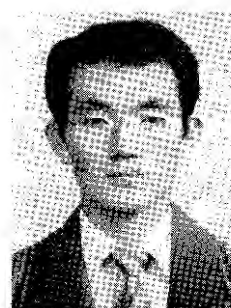
朴 主 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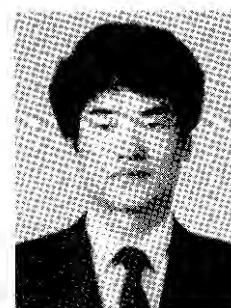
金 永 修



徐 景 恩



金 賢 局



金 圓 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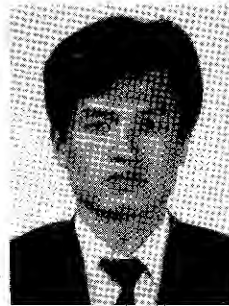
권무출신



李 壯 薰



朴 靜 龍



朴 宰 悟



金 佑 正



李 重 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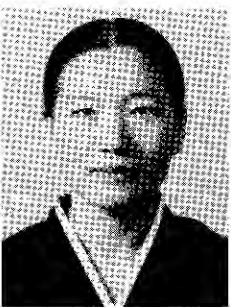
金 寶 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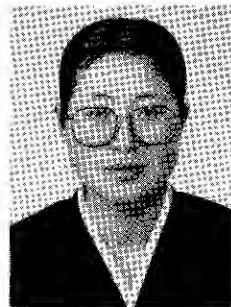
權 德 眞



嚴 靜 心



金 淵 中



孫 永 敏



姜 恩 明



黃 修 珍



李 同 喜



鄭 常 賢



李 庸 勉



李 道 中

원불교총람 인물편



韓 喜 明



朴 道 仁



鄭 明 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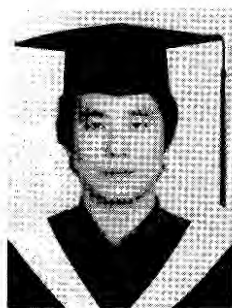
閔 誠 孝



羅 文 成



金 尚 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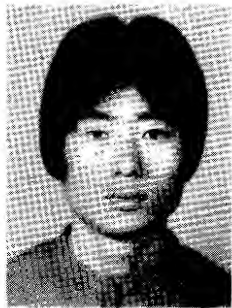
柳 長 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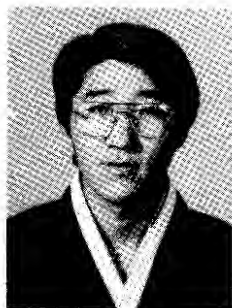
宋 道 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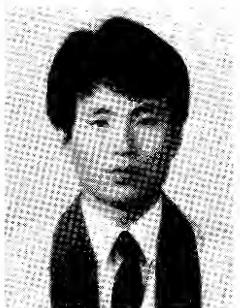
朴 世 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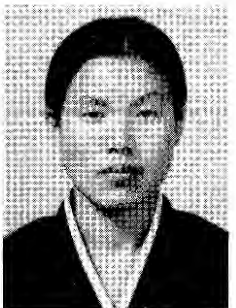
金 義 謙



李 敬 護



柳 性 元



朴 尚 德



宋 聖 堯



朴 光 賢



李 良 薰

전무출신



李明心



金祚榮



鄭一心



金靈一



程德恩



金熙眞



白明眞



崔眞光



鄭仁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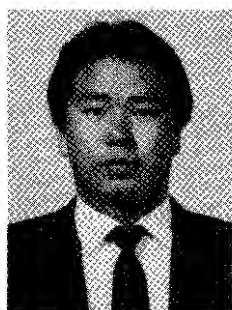
徐正稷



韓道賢



張德圓



辛東勳



文尚禪



朴昇龍



金明證

원불교총람 인물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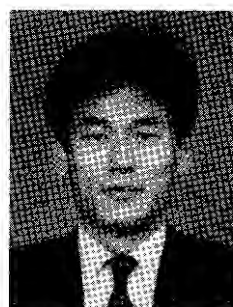
李 亮 瑞



金 觀 眞



金 法 聲



全 世 中



朴 靈 天



金 常 和



朴 德 規



申 應 準



李 明 和



鄭 眞 覺



柳 法 恩



鄭 恩 光



姜 恩 圭



金 章 恩



李 永 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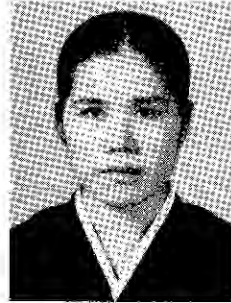
高 德 宣



崔 蓮 旭



金 淨 連



姜 聖 允



朴 根 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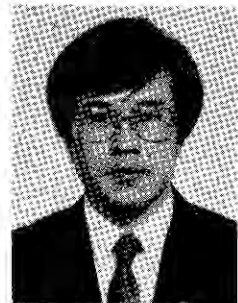
楊 聖 勳



張 敬 圓



鄭 恩 京



朴 允 圓



金 德 淵



朱 經 善



張 天 眞



朴 良 根



李 圓 善



黃 珠 玉



安 明 照



金 琪 蓮

원불교총람 인물편



朴賢心



金道連



姜裕善



金善智



趙允德



崔聖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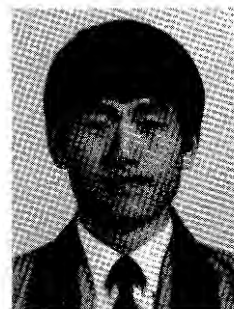
金賢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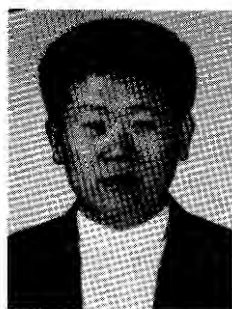
朴主誠



鄭榮祚



金鑽益



金圓龍



朴東圓



曹常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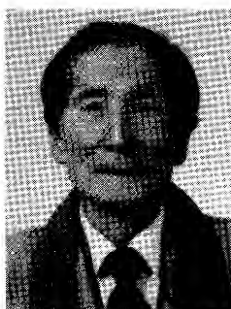


李常善



韓道雄

在家正師



昌山 金元昌



鍊陀圓 金一柱



領陀圓 金順玉



伽陀圓 金時亨



歸陀圓 金道明



慧山 金光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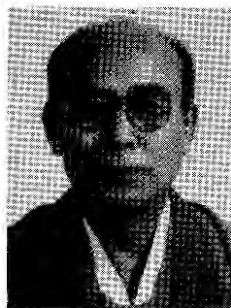
錫陀圓 朴聖學



慶山 朴哲性



宗山 閔圓宗



尚山 秋塵捲



鑑陀圓 申恒俊



芝陀圓 尹春和



嘉山 金聖秀



說陀圓 柳忠眞



誦陀圓 李虛精



昇陀圓 鄭龍淑



光陀圓 尹光一



富陀圓 高大中華



和陀圓 金春和玉



往陀圓 朴義俊



曉山 李仁昌



宝陀圓 李正光



禪陀圓 金光圓心



暢陀圓 林正觀



江陀圓 奇如天



解陀圓 金精煥



彩陀圓 金世和行



敬陀圓 金德一華



生陀圓 李壯恩



侍陀圓 秦智完



宣山 韓貴錫



任陀圓 丁安淑



卓陀圓 金應然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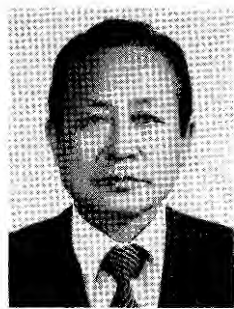
水陀圓 李寬柔行



有陀圓 金聖天華



官陀圓 趙準官



龜山 鄭萬中



瑞陀圓 梁圓冠華



青山 柳青史



眞陀圓 鄭長局



倫山 金眞權



潔陀圓 李處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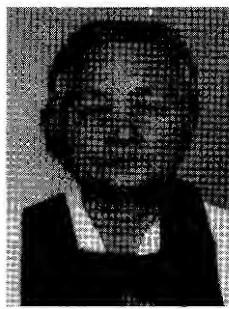
還陀圓 趙喜善



慈陀圓 全明哲行



英陀圓 方成歡



哲陀圓 趙正旭



旭陀圓 崔正學



諸山 朴 諸 相



春山 朴 壯 春



純陀圓 方 始 圓



漢陀圓 李 在 植



滿陀圓 鄭 修 源



茂山 金 利 德



仙陀圓 金 學 進



燈陀圓 李 修 明



黃陀圓 金 義 眞 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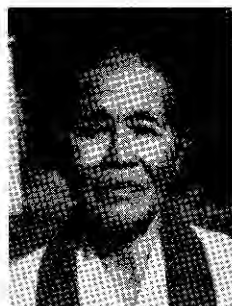
亨陀圓 趙 甲 順



和陀圓 尹 寶 處 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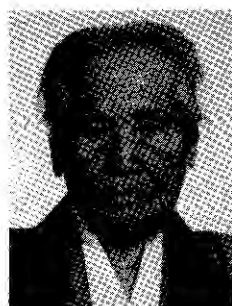
盆陀圓 吳 至 誠 行



乙陀圓 李 福 田



金 靈 根



緣陀圓 柳 春 源



源陀圓 朴 長 源



輪陀圓 李慧月行



心陀圓 金緣知行



仁陀圓 徐永天



壽陀圓 徐有性



萬山 柳永根



淨陀圓 李三正華



宣陀圓 朴天心華



諒陀圓 李良知行



東陀圓 崔東仁



柔陀圓 李圓教



耕山 柳精局



蓮陀圓 金淨土行



建山 金恩相



春陀圓 姜道一行



諦陀圓 吳正印



曾陀圓 李仁道

원불교총람 인물원



睦陀圓 姜如善行



安陀圓 權浩敬



智山 洪正觀



慶陀圓 李敬中



遇陀圓 吳光圓



還陀圓 金心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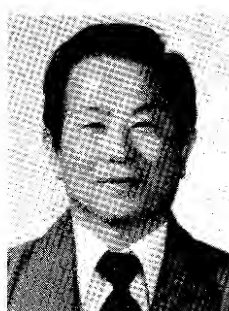
教陀圓 朴智揚



欽山 朴修權



仁山 朴聖壽



鏡山 吳善教



報陀圓 權偶慶



隱山 蔡道耕



勤陀圓 洪益聖



圓陀圓 金一相圓



芝陀圓 金性蓮



夏陀圓 金性華



在陀圓 朴興德



明山 尹忠田



田陀圓 朴允哲



研陀圓 李鳳蓮華



帝陀圓 卞世潤



研山 曹聖濟



裕陀圓 金慧淨



南山 許敬哲



海陀圓 李法性華



能陀圓 張海印



長陀圓 李元理華



熙陀圓 趙元三華



勤陀圓 李同仁華



慈陀圓 鄭東薰



董山 劉德中



門陀圓 丁有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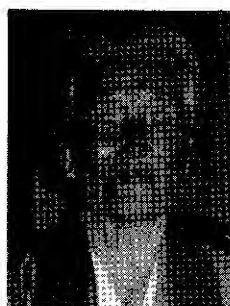
원불교총람 인물편



海陀圓 陳明一

姦陀圓 吉明仁

湛陀圓 金雲水華



雲陀圓 白隱明

石山 李大現

孟陀圓 金道緣

堅山 孫振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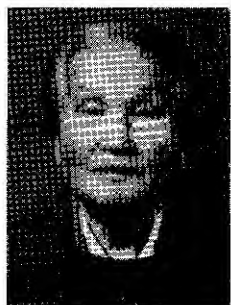


希陀圓 黃法淨行

制陀圓 金三道華

省陀圓 金有鉉

智陀圓 萬博進



昌陀圓 白仁鏡

省陀圓 李三中行

彬陀圓 丁中善

領陀圓 蔡茂盛華



收陀圓 崔養正



恩山 金玄觀



小山 金正光



柔陀圓 金興蓮



蓮陀圓 李法旺華



貫陀圓 李萬修華



慶陀圓 金時煥



善陀圓 白善均



平陀圓 張九品華



虛陀圓 金見性華



太陀圓 金滿順



瑞陀圓 金學基



宣陀圓 白仁哲



茂陀圓 全功德海



鏡陀圓 趙鏡清



福陀圓 李東福華

원불교총람 인물편



信陀圓 崔賢普



滿陀圓 金普明月



池陀圓 金道永華



經陀圓 韓英仁



淨陀圓 河清蓮華



碩陀圓 金奉德行



甲陀圓 金桂玉



電陀圓 尹玄智行



釋陀圓 朱壽安



行陀圓 金法理華



義陀圓 朴眞福華



德陀圓 崔德修



實陀圓 丁實相華



冲山 許容



隱山 崔法龍



現山 曹萬現



海陀圓 姜法順



運陀圓 林濟玉



恩陀圓 林達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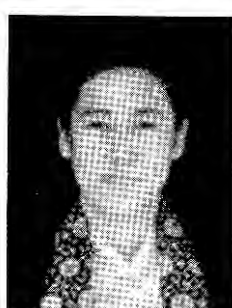
東陀圓 朴熙性



舟陀圓 黃大空華



瀛陀圓 林基善



金德源



孝山 梁慧星



蒼山 金鍾聲



連陀圓 林玄機華



浮山 金峻養



萊山 梁元局



善陀圓 李聖主華



施陀圓 朴恩施華



連陀圓 李玄化



覺陀圓 崔正覺



益山 趙公範



貴陀圓 朴順德華



孫 泰 暎



南陀圓 梁南根



脫陀圓 馬達賢



白陀圓 李正慧



尊陀圓 崔恩珠



蓮陀圓 洪利他行



性陀圓 金性明華



執陀圓 孫慈溫



諫陀圓 鄭東湖



澤陀圓 曹善默



懷陀圓 都潤哲



信陀圓 朴用性華



萊山 朴虛舟



蓮陀圓 李山頭華



先陀圓 鄭明眞華



藏陀圓 金善玉



厚陀圓 文正施華



郎陀圓 李南州華



和陀圓 尹文施



進陀圓 金共鳴行



華山 林濟庵



日陀圓 辛大明華



悅陀圓 金有聲



法陀圓 具良根



智山 金哲元



玄陀圓 李聖道



金法用心



金萬空華



侍陀圓 朴修正華



佑陀圓 李良仁



吉陀圓 姜賢春



迎陀圓 金時順



平山 李敬主



梅陀圓 田妙正華



得陀圓 洪相天



年陀圓 俞善用



奉陀圓 尹德奉



柔陀圓 李修哲華



瑞陀圓 姜法性華



虛陀圓 李無念華



世陀圓 辛行業



新陀圓 姜德成華



詩陀圓 金正允



修陀圓 朴益順



誓陀圓 徐仁觀



淑陀圓 梁奉眞



蘇陀圓 鄭道仁



淵陀圓 李法順



祥陀圓 金福田華



瑞陀圓 金明德



珍陀圓 崔淨善



命陀圓 金精進行



現陀圓 朴濟恩華



賈陀圓 柳南仁華



鶴陀圓 尹俊根



角陀圓 朴仁建



理陀圓 趙東運



英陀圓 金西植



舟山 朴道敬



萬陀圓 朴孝淑



尚陀圓 李永宇



萬陀圓 田修仁

원불교총람 인물편



洋陀圓 金東秀



孝陀圓 金轉知行



顯陀圓 宋慧覺



虛陀圓 許雲松華



用陀圓 李洸正華



李大石



金現秀



道陀圓 李普運月



鳳陀圓 徐妙蓮心



得山 金永能



黃陀圓 崔貞實



淵陀圓 柳智性



孫陀圓 金揚正



秩陀圓 金統制華



棲陀圓 李孟進



厚陀圓 千德運



正陀圓 金 必然



眞陀圓 朴 靈珠



昭陀圓 朴 理權



益陀圓 徐慧光華



完陀圓 李 公眞



豫陀圓 韓三基玉



設陀圓 申 大英



樣陀圓 鄭 水潤



寬陀圓 李性理華



盟陀圓 洪法明華



學陀圓 羅 庸善



振陀圓 朴 德輪



星陀圓 金 良音



源山 李 士正



陽陀圓 孫成仁華



省陀圓 李三中行



安陀圓 劉秀安



建陀圓 金道眞行



栢山 鄭道振



泰陀圓 金永泰



祖陀圓 姜妙道



譜山 高文局



悅陀圓 金信誠華



越陀圓 朴蓮權



讚陀圓 崔仁守



到陀圓 韓修誠華



攝陀圓 金淨蓮華



春陀圓 金敬明



白陀圓 金出塵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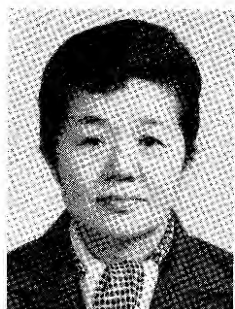
露陀圓 王在明



若山 曹聖薰



厚山 金政仁



晶陀圓 白 漢 明



光山 韓 清 泉



平陀圓 白 起 德



練陀圓 方兩全華



智陀圓 梁 智 權



頭陀圓 朴 孝 盡



能山 高 井 振



倫陀圓 南賀圓行



賢陀圓 李 祥 雲



月陀圓 李 天 倫



臣山 白 景 振



素陀圓 梁 亨 善



水陀圓 柳 聖 源



培陀圓 李 南 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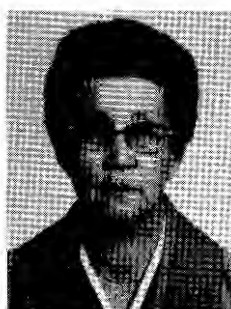
眞陀圓 林 玄 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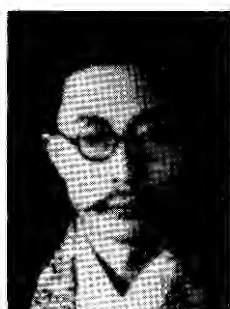
芳陀圓 鄭 同 仁



照陀圓 高慧林華



務陀圓 金道眞



技山 朴根雨



貴陀圓 河遠鏡



金性頭華



厚山 普奎鎬



曉山 趙容碩



崔濟倫



戒陀圓 柳三空



萊山 金經圓



赫陀圓 宋禮性



孩陀圓 朱正宣



萬陀圓 金法珍



晚陀圓 李靈安



徹山 吳光碩



呂陀圓 李玄妙行



益陀圓 李忠信華



安陀圓 金秀龍



衛陀圓 宋德田



湖山 梁志浩



新陀圓 朴眞信



愼陀圓 沈建永



妙陀圓 白寶善華



玄陀圓 趙秋淵



章陀圓 金玄德



信陀圓 李潤貞



現陀圓 鄭敬眞



瑞山 裴東訓



白山 張東潤



揚陀圓 邊慧圓



樹陀圓 崔宗業



相陀圓 朴安定行



義陀圓 成 義 徹



得陀圓 金 明 中



誓陀圓 徐 滿 教



學陀圓 成 仁 永



緣陀圓 鄭 性 眞



鴈山 姜 印 法



裕陀圓 金 明 勳



念陀圓 盧龍慈華



孝陀圓 馬良進華



吉陀圓 李 明 觀



銀陀圓 張心印行



敏陀圓 普 寶 權



晴陀圓 崔 雲 耕



舜山 范 正 仁



盟山 高 玄 光



樂陀圓 閔自然華



彌陀圓 朴孔明善



護陀圓 崔行德



定陀圓 黃大一華



黃柱信



都運徹



稟陀圓 文忠恩



日陀圓 金如一華



麟山 咸爐峰



鶴陀圓 趙道運行



超陀圓 孔彩玉



圓陀圓 柳大信行



運陀圓 鄭眞寶



望陀圓 金海恩



珍山 韓珍權



朗陀圓 金一南



希陀圓 李英修

원불교총람 인물편



釋陀圓 李德南



勤陀圓 朴向修



世陀圓 辛泰義



體陀圓 吳英觀



純陀圓 韓安植



寬陀圓 李聖安



水陀圓 朴和宣



優陀圓 林優善



育山 崔萬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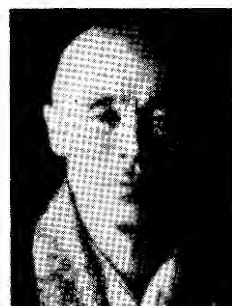
新山 李權永



如山 徐清一



竹山 金湖烟



漢山 李炳吾



儂山 金宗言



奇山 朴壯烈



信陀圓 姜制恩



全山 姜現秀



趙俊益



基山 李庸聲



李熙英



眞山 徐奎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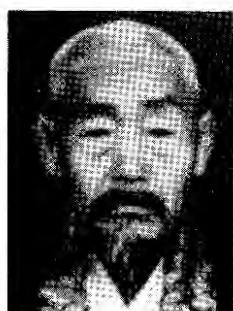
玉陀圓 朴敬德



椿山 姜景大



光陀圓 鄭佛光華



聰山 姜元燮



鶴山 金致一



溫陀圓 韓貴然



廉山 李千甲



碧陀圓 朴淨業



春陀圓 金泰尚玉



觀陀圓 全貞觀玉



恒山 李昊春



方山 李亨基



釋陀圓 盧道峰華



容陀圓 辛以耕



應陀圓 劉華潤玉



姜勝萬



廣山 曹光哲



和陀圓 曹三智華



仁陀圓 牟運種華



昇山 金亨悟



白山 丁鶴現



切陀圓 卓普信甲



敬陀圓 鄭三離火



玉陀圓 金華玉



睦山 崔福京



肯山 鄭桂還



功陀圓 李仁淑



李法輪



種陀圓 李載善



沈公善



報陀圓 丁羅善



信陀圓 韓貴哲



角陀圓 金平雲



照陀圓 金高雲



營陀圓 朴道善華



方陀圓 張河旭



朴東信



氏陀圓 金順天



金貞慧



朴晦傾



劉定天



徐滿局



奉陀圓 朴天始玉



理陀圓 李宗業華



和山 田仁局



觀陀圓 李聖蘭



永陀圓 黃喜徹



普山 金振永



元陀圓 金法因行



妙山 金道隆



泰陀圓 申基現



利山 南宮性晚



寂陀圓 朴萬之華



李三慶



菜陀圓 金普仁



權陀圓 朴德勉華



訓山 宋金圓



滿陀圓 牟如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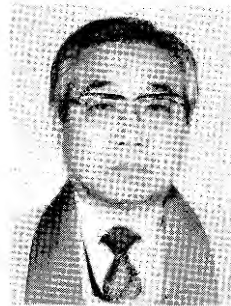
羅陀圓 崔孝順



壯陀圓 張如善華



秀陀圓 李滿植



首山 曹明亮



協陀圓 洪德和



相陀圓 梁普仁



昭陀圓 崔修安



咸陀圓 鄭賢信華



朋陀圓 金新興華



審陀圓 金龍珠



世陀圓 申正一華



文陀圓 徐共南



興陀圓 金兩華



朴淨志行



仁陀圓 金福眞



世陀圓 白寬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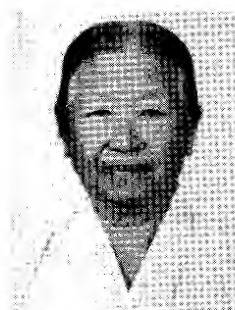
王山 朴炳源



滿山 宋基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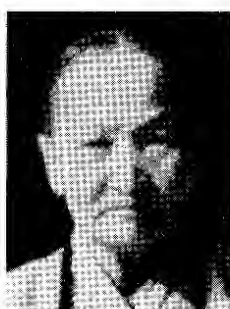
金 仁 寬



靜陀圓 白知燮



允陀圓 朴河淑



梁陀圓 金一問華



如山 金宗根



體陀圓 具南守



完陀圓 李萬甲



朝山 金元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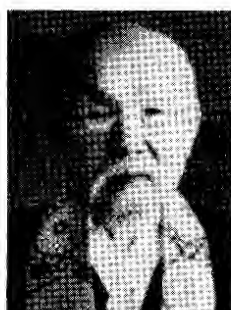
崔 正 玉



徐 東 風



張 正 守



曹 頌 廣



平山 辛敬悟



靑陀圓 李主仁



昊陀圓 韓正寶華



慈陀圓 安善行



果陀圓 張常根



滿陀圓 金普聲華



謙山 趙東悟



行陀圓 吳南正行



進陀圓 鄭炳源



鍾山 金道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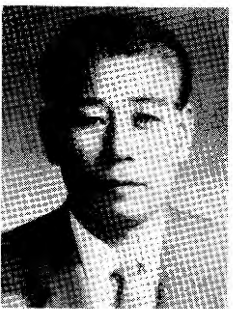
積陀圓 劉昌玉



榮陀圓 金安定華



夏陀圓 金中根



寬山 白善根



含山 吳正教



幽陀圓 田永眞行



新陀圓 朴一春



宿陀圓 李基善行



大陀圓 李仁義華



覺陀圓 崔尚玉



趙環局



麗陀圓 金志圓行



貴山 方省心



平陀圓 成玄珠



祥陀圓 金智順



光陀圓 金昌元



明陀圓 閔聖經



星陀圓 李明善



淡山 張貴滿



栢山 金一善



眞山 徐奎碩



奉山 成鐵石



梅陀圓 陳永田



鮮山 柳成烈



勉陀圓 申輪碩



會陀圓 李 賢 權



錦陀圓 金水精月



得陀圓 李 元 永



進陀圓 朴定是華



冬山 文 正 奎



芽陀圓 朴解願玉



建陀圓 孫 學 經



成陀圓 田 參 參



鵬山 黃 二 天



春陀圓 朴 興 運



修陀圓 金 南 順



厚陀圓 朴 樂 潤



時山 吳 亨 斗



榜陀圓 李 康 田



鎮陀圓 吳 順 覺



頭山 吳 頭 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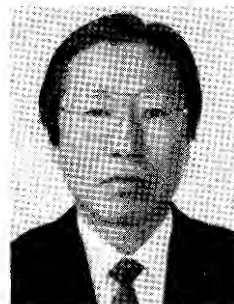
樂山 朴樂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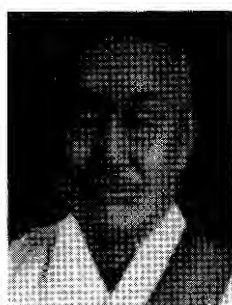
回山 安在道



菊陀圓 尹黃雲



敬山 吳權文



節山 吳海石



出陀圓 李松村玉



朗陀圓 朴慧練華



塔山 李虛藏



妙陀圓 柳法根



恩陀圓 宋虛實圓



徐陀圓 金正益



溫陀圓 權壯源



秀陀圓 李滿淑



志陀圓 沈志願



張陀圓 李成執



江陀圓 鄭滿水



喜陀圓 吳政敏華



休陀圓 朴奉恩華



世山 柳成澤



彌陀圓 金光順



蒙山 崔龍善



守陀圓 張炳道



柳善義行



密陀圓 金奉淑



文陀圓 崔內善



妙陀圓 白法眞華



善陀圓 趙循環



記陀圓 梁靈珍



壽陀圓 康壽元



圓陀圓 季圓輪



海陀圓 柳海日



善陀圓 崔恩慧華



鳳山 金精進



耕山 陸耕田



孟陀圓 丁宇鎭



松山 朴東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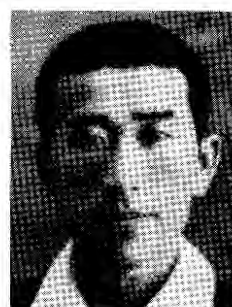
朴 樂 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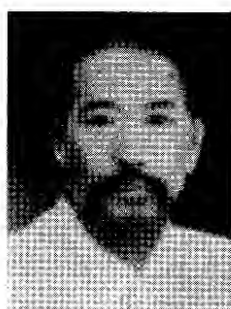
賢陀圓 盧德松玉



貞陀圓 尹彩雲



鳳山 金大說



連山 金仁悟



鳳陀圓 安敬信



淨陀圓 朴眞善



照陀圓 李正教



敬陀圓 文敬溫



固山 金聖丘



厚山 金珍丘



洗山 許法均



練山 金聖吉



溫致仁



順陀圓 鄭順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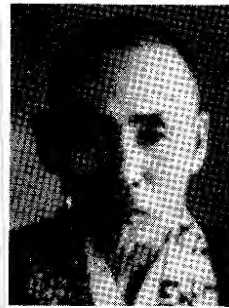
願山 黃聖陀



樞山 柳正教



隱山 崔隱山



輝山 朴鎮世



朴孝典



羅聖業



牟成英



雲陀圓 尹慈慧



推陀圓 辛東薰



祈陀圓 金福眞華



威陀圓 金善光



因陀圓 鄭大振



精陀圓 金正進行



鎮陀圓 吳順寬



金宗道



肯陀圓 全義天



禳陀圓 宋淑振



怡山 羅喆重



逢山 權常中



吉陀圓 尹碩仁



戒山 韓清湖



莖陀圓 金海運



海陀圓 宋仁興



然陀圓 金誠功華



專陀圓 高賢一華



廣陀圓 盧清信行



張貴安



赫陀圓 金基玉



祭山 宋仁泉



息陀圓 徐法藏華



宮陀圓 李華信



學山 朴碩元



英陀圓 金妙英



宗山 孔德宗



觀陀圓 朴敬局



癩陀圓 金應慈華



續陀圓 鄭奉淑



李化眞



田陀圓 韓圓心華



載陀圓 金長信甲



金萬中



裕陀圓 金聖潤



安陀圓 金東壽



穩陀圓 李普應華



準陀圓 李雲外



節陀圓 李周完



謙陀圓 林靈田



源陀圓 鄭得源



動陀圓 權動華



備陀圓 金正緣



淸陀圓 朴吉善



淵陀圓 成寶靈



忍陀圓 李七星



眞陀圓 林春信



露山 全性完



舜陀圓 丁舜永



易陀圓 陳仁璧



栢陀圓 崔正信



瑞陀圓 金良中



玉陀圓 崔普純



舒陀圓 崔忠仁



南陀圓 姜性修



宣陀圓 姜正信



林陀圓 金道眞



雅陀圓 吳修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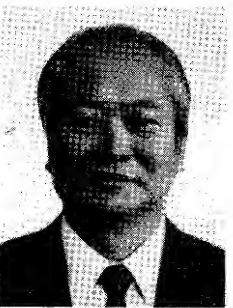
慕陀圓 李福源



誨陀圓 鄭道仁



瑞陀圓 張貴英



敬山 朴光振



亮陀圓 朴中圓



稔陀圓 金聖勤



河 聖 奉



志陀圓 徐大淑



鄭誠意行



衍陀圓 孔善德行



利陀圓 丁正薰



李 順 德



正陀圓 成聖願



侍陀圓 鄭妙連華



豐山 李皓濬



素山 黃淸源



收陀圓 盧勤善



嶺山 李宗道



略山 全大堯

I. 居 塵 出 塵

정 특 등

吳喆煥(군산), 呂圓光·林圓覺行(대구), 任濟安(부산), 金法用心(부산진), 金瑞眞(양정), 吳利均(사직), 金慧性·宋敬心·洪道田·洪仁天(원남), 李德化(제기), 金明煥·金瑞敬·申圓觀·尹致德·李徹遠·全隱德(중로), 黃淨信行(서울), 趙大震(수원), 卓正榮(함열), 尹聖圭(정토회).

준 특 등

金春和玉(북광주), 奇如天(중흥), 柳靑史·鄭長局(남원), 金緣知行·徐永天·李義聲(대구), 李敬中(서문), 金慧淨(동대진), 金成學·丁有鎭(제원), 金玄觀(목포), 金正光(완도), 李萬壽華(금정), 金法界華(김해), 朴恩施華(대신), 梁南根(부산), 朴錦容(부산진), 金明德(양정), 林七寶華(초량), 金道眞行·李重德·鄭道珍(원남), 白起德(잠실), 高井振·朴孝晝(장릉), 金惠田(제기), 南賀圓行(중로), 趙秋淵(마포), 文東賢·成義徹(서울), 崔俊明·趙道運行(신촌), 朴和宣(수원), 梁普仁·曹明亮(동이리), 金長信甲(이리), 羅喆重(정주), 金正道華(청주), 金聖潤·梁夏雲·呂清雲·李永勳(정토회).

정 1 등

金道明·金純玉(광주), 尹光一(농성), 金德一華(군산), 韓貴錫(대야), 崔正學(수지), 李福田(운봉), 徐有性(대구), 柳精局(대원), 洪正觀(상주), 金心元(서성로), 朴聖壽(금산), 金一相圓(대전), 鄭東勳(연산), 吉明仁·金雲水華·白隱明(마산), 黃法淨行(진영), 丁中善·蔡茂盛華(통영), 張九品華(동래), 全奉德行(연산), 金柱玉(온천), 金福修圓(해운대), 崔法龍(구포), 林濟玉(남부민), 朴熙星(다대), 朴貴仁(당감), 李玄化(대신), 馬達玄·李正慧·崔恩珠·洪利他華(부산), 金萬空華·朴修正華·李良仁(부산진), 姜德成華·金正允·朴益順(서면), 趙東運(초량), 金揚正(구의), 金道永·朴德輪(사직), 朴心圓·柳保明圓·崔行德·金永泰·金靜海·朴蓮權·鄭良運·崔仁守·韓修性華(원남), 金政仁·白漢明(의정부), 方兩全華(잠실), 洪仁德·朴正義行·李祥雲·李天倫·韓智聖(중로), 金經圓·宋禮性·朱正宣(중구), 宋德田(개포), 朴眞信(구로), 崔宗業(불광), 金明中·文忠恩·徐滿教·成仁永·鄭性眞(서울), 權鳳安·柳清正月(신촌), 李英秀(원효), 李賢剛玉(홍제), 鄭光願(성남), 李聖蘭(김제), 金志圓行·方省心·成玄珠(익산), 朴樂潤(교동), 吳眞圓(덕진), 朴樂天(동전주), 丁宇鎭(전주), 權常中(초강), 宋仁泉(청주), 金송기(뉴욕), 金妙英(해외), 金東壽·李普應華·李雲外·李周完·林靈田·鄭得源(정토회), 金一柱(중앙수양원).

준 1 등

金光準·金時亨·朴聖學·朴哲性·閔圓宗·秋塵捲(광주), 朴義俊·李仁昌·李正光(서광주), 趙徹圓(순천), 崔俊根(여수), 朴仁昌(군산), 李壯恩(남군산), 丁安淑(술산), 金應然華(화포), 金眞權(남원), 姜德正(순창), 金利德·金學進·李修明·鄭修源(오수), 吳至誠行·趙甲順(운봉), 柳永根·柳精局·李三正華(대구), 金淨土行(대현), 姜道一行·吳正印(봉덕), 權浩敬(삼덕), 朴智揚·吳光圓(서성로), 宋壽吉(금산), 權偶慶(남대진), 金性蓮·金聖華·朴興德·尹充田(대전), 李法性華(서대전), 李正鳳(동마산), 鄭濟玉(밀양), 南明德·李大現·朱三中·崔大法(마산), 金三道華·金有鉉·黃圭一(진영), 金慈庵·白仁鏡(통영), 崔養正(목포), 鄭宗德(완도), 金興蓮(광안), 朴順德華(남산), 朱圓心(대연), 金滿順·金學基·白仁哲·田功德海·韓濟衆華(동래), 李眞善(망미), 金普明月(서동), 尹玄智行·朱修安(온천), 朴眞福華(울산), 林基善(당리), 金福智行·崔正覺·黃濟弘(대신), 金敬學·金性明華·金仁秀·朴有德圓·朴惠善·徐香圓·孫慈溫·宋日新·安大造行·禹潤全·李眞主華·鄭東湖·曹善默(부산), 姜賢春·金善道行·金時順·金朝寶·吳仁漢·李敬主·田妙正華·洪相天(부산진), 徐仁觀·梁奉眞·鄭道仁(서면), 柳南仁華·崔淨善(영도), 金西根·朴道敬·朴孝淑·李永宇·田修仁(초량), 徐妙蓮心(토성), 金永能·柳智性(강동), 金統制華·李孟眞·千德運·朴廉直(돈암), 金志榮(사직), 金善圓·丁芝善(성동), 李仁中行(송천), 康妙道·高文局·金信誠華(원남), 崔永福華(이문), 梁智權(전능), 高文起·金成德(정릉), 朴度圓行·宋寶局·柳聖愛·河明善(제기), 金敬信·白景振·梁亨善·柳成烈·柳聖圓·李南權·林玄眞(중로), 金法珍·李靈安(중구), 金秀龍(개봉), 李敬一(구로), 姜妙眞(대치), 黃道永(마포), 琴三成(반포), 金玄德·李潤貞·鄭敬眞(방배), 朴日新行·尹法衆(불광), 姜印法·金明勳·盧龍慈華·馬良進華·徐成道行·李明觀·李忠和·張心印行(서울), 趙仁和(신림), 金誠心華·金如日華·金容福·李曉星(신촌), 李道峰(여의도), 柳大信行(영동), 李靜仁行(영등포), 鄭眞寶(원효), 朴向修(홍제), 韓安植(화곡), 姜滿善(성남), 李濟心(김제), 金道降·申基現·黃喜徹(남중), 李三鏡(동이리), 金龍珠(문화), 李歸道(북일), 白寬善(영등), 辛敬悟·李主仁·韓正寶華(원평), 郭炳源(이리), 金智順·金昌元·閔聖經·李明善·張貴滿(익산), 申景蘭(함열), 吳智圓(교동), 金明燮(덕진), 白祥範(동진주), 李虛藏(봉동), 林壯源·金正益·吳太圓·柳慧眞(서진주), 柳成澤·鄭滿水(수계), 白奉是華·全光順·曹聖濟·崔龍善(진주), 朴眞善(진북), 金聖丘(진안), 鄭圓英(소성), 尹慈慧(정주), 朴願船(서청주), 孔德宗·朴碩元(해외), 權動華·金正緣·朴吉善·成寶靈·李七星·林春信·全性完·丁舜永·陳仁璧·崔正信·金養中(정토회), 徐慧仁(중앙수양원), 孫成仁華·鄭德振(전주양노원).

정 2 등

申恒俊·尹春和·池道正(광주), 金永秀(동순천), 朴一敬(여수), 奇圓和(중흥), 高貴淵(대야), 金惠衆·張薰德(남원), 高敬圓(남원중앙), 朴法鄉(임실), 韓聖基(장계), 朴天心華·李良知行(대

구), 金應慈華·鄭道心(대명), 李圓教(대현), 李仁道(봉덕), 姜浩然行·徐明根·趙聖德(삼덕), 梁元益(상주), 李敬允(서성로), 朴修權(금산), 吳善教(남대전), 蔡道耕(논산), 金聖煥·朴允哲·李鳳蓮華(대전), 卞世潤(도곡), 朴正信·鄭明德(마산), 卓道修華(신마산), 金和淑(진영), 權德眞華·金善敏·尹義正(통영), 金正源(목포), 李法旺華·崔圓慧行(금정), 金道香(기장), 白善均(대연), 趙鏡清(동래), 韓英仁(부산사직), 金正守(안락), 崔德修(울산), 金周圓(해운대), 曹萬現(구포), 朴春景·薛昌善(김해), 宋奇雲華·宋吉綠·鄭德和行·趙仁和·崔愛潤·許良彥·朴信根(대신), 金性悟·金修運·金永秀·都潤哲·朴用性華·朴虛周·辛大明華·尹正保·尹眞法華·李山頭華·林玄機華·鄭明進華·丁性中(부산), 裒益善行·吳道正·吳道薰·俞善用·尹德奉·李聖道·趙揚善(부산진), 卞聖元(서김해), 安敬一·李法順(서면), 金精進行·朴法眼·尹福天(영도), 尹俊根(청학), 金東秀, 金一德行·金轉知行·徐勤行華·宋慧覺·辛聖吉(초량), 申大英·鄭高善(돈암), 金良音(사직), 李妙根(성동), 金永寶·金淨蓮華·金滄海·朴正完·徐圓心·徐在圓華·李寬秀·鄭安中(원남), 韓清泉(이문), 李恩明華·林孝永(정릉), 申道玄(제기), 姜成仁·金共成·朴永禪華·邊大淳·梁清恩·鄭東仁·鄭聖奎·趙南振·金德庵(종로), 柳三空(중곡), 吳明世·吳眞性·張和田(중구), 李玄妙行(강남), 許春煥·黃理性(강화), 高曉峻(개포), 李永勤(대치), 이현철(방배), 朴眞圓(불광), 金義倫·白與天·柳敬秀·晉寶權·崔雲耕·千萬德華(서울), 李如眞(서초), 朴德賢(신림), 金三倫行·朴善進行·徐戒信華·吳明珠行·李光玉·李圓明·李正心華·曹應潭·咸盧峯(신촌), 孔彩玉(영동), 金海恩·車仁空(원효), 李德南(은평), 李聖安(수원), 金義正·朴安正·尹泰鍾·李仁性圓(안양), 朴英種·李炯圓(인천), 金振永(남중), 朴基源(북일), 金福眞(서이리), 朴炳源·宋基東(용신), 金道一·金忠眞·劉昌玉(이리), 金一善, 徐奎碩·成鐵石(익산), 金大圓華(함열), 崔善正(금암), 金萬行·閔濟順(서전주), 李揚恩·李宗恩·張炳道·陳重玉(전주), 李修道(평화), 辛正愛·辛眞滿·溫致仁(부안), 辛東薰(정주), 韓清湖(화해), 高賢一華(오등), 陳宣明行(동진주), 徐隣圓(삼천포), 金宗奄(남춘천), 黃現默(속초), 吳德天·李大惠·車性現·朴大恩(청주), 徐光圓(충주), 白慈仁(해위), 金正緣·宋德勳·丁舜基·崔普順·崔忠仁(정토), 蘇日完(이리수양원), 鄭聖義華(중앙수양원).

준 2 등

〈광주교구〉 金聖秀·金順道行·柳忠眞·尹三正·李虛精(광주), 任正圭(구례), 金彰曼(나주), 洪智順(동광주), 尹東圓華(동원), 張瑞德華(서광주), 林正觀(송정), 金淨心(순천), 金月淨(여수), 金一正(장성), 金光天(중흥).

〈군산교구〉 吳光潤(경장), 朴東現·李世榮·鄭信圓(군산), 秦智完·康敬善·金兩德華(남군산), 金常恩(대야), 李大熟(동군산), 趙山鶴(서군산), 李常德·李眞岩(장항).

〈남원교구〉 李蓮信(관촌), 趙禹顯·崔正行(금평), 辛秀南·李夏榮(남원), 方成歡·尹士玉·尹淨泉·趙正旭(남원중앙), 朴哲圓(산서), 韓春一華·朴壯春(수지), 姜德正·李正教(아영), 金義眞華·李

仁濟·韓昌善(오수), 朴宣道·尹普處華(운봉), 朴長源·柳朱亨·柳春源·李在淑(장수).

〈대구교구〉 金道善華·金聖河(경주), 崔南淑(군위), 宋大心性(김천), 金大乘華·朴圓一·方淨德·李宗善·李華信·張德英·崔東仁(대구), 朴明益(대명), 姜如善行·金敬悟·金良德·朴普仁(봉덕), 金大般華(상주), 朴世圓(서성로), 朴貴智華·李淑正(안동), 金圓空(후포).

〈대전교구〉 禹裕碩·陸祥雲(금산), 趙允德(논산), 郭宰圭·南安城玉·朴仁田·禹法興華·洪益聖(대전), 鄭道泉·許敬哲(서대전), 柳德中·李元理華·趙元三華·李同仁行(연산), 尹普滿月(유성), 金良德(제원).

〈마산교구〉 金濟局·車大輪(고성), 孫振經(밀양), 金其滿·金道光·金道恩華·金義蓮·朴蓮中·尹玄理子·曹法玉華·曹仁明·陳明一·崔熟緣·許三善(마산), 具東明·朴蓮心行(신마산), 禹博進·曹大進(진영), 金莊心·朱道淵(통영).

〈목포교구〉 金眞如行·吳德玄·李性理華·李清淨玉·張明欣·羅周明華(목포), 曹濟衆(무안), 金正光(불목), 盧大援(해남).

〈부산등부교구〉 金正覺行(광안), 金永恩·朴圓道(금정), 李無住圓(기장), 辛致道(남천), 姜偉然華·金修眞行·金時煥·朴大現·徐貫正(대연), 權妙亨·金見性華·金明慈華·金正鳳·金春局·文道權·李東福華·李明南·全德業華·崔賢普(동래), 郭善德心(부곡), 姜大蓮(부산사직), 金大然玉·朴聖功·鄭妙淑·崔完淑(양산), 金法理華·羅庸善·李聖連(온천), 尹靖賢(옹호), 鄭實相華(울산).

〈부산서부교구〉 黃教觀行(가야), 姜法順·黃亨根(구포), 金妙淨華·金普賢華·崔正純(김해), 金浩然華·李無住圓·李壽福·林達運(남부민), 金如眞華·朴孝田(다대), 梁慧星(당리), 金賢福華(당감), 金春碩·李賢住華·趙公範(대신), 權恩衆·金光碩·金大夫華·金道善·金妙心行·金善玉·金善行·金誠信華·金在興·金智仁·文正是華·朴道剛·朴靈心·裴法淨行·石敬眞華·尹徑日·李貴恩·李南州華·李正教·李住性·李玄子·趙全一華(부산), 姜進明行·金敬心月·金仁峯·宋德善華·辛圓根·延德善·李修哲華·李中道·趙玄心(부산진), 金福仁(사상), 朴金潤·朴奇晚·朴英心·辛行萊·嚴正鏡華(서면), 金安樂華(성지곡), 金福田華·金昌連·朴振德華(양정), 郭張善行·朴濟恩華·李如意華·趙建中·趙泰亨(영도), 李春日(전포), 李永信華(청학), 金修圓·金慧允·朴性淑·宋順秀·沈寶中·李志仁行·許雲松華(초량).

〈서울등부교구〉 金在性(가락), 金正旭(도봉), 金必然·朴靈珠·朴理權·徐慧光華·李公珍·李昌圭·韓基三玉(돈암), 權志圓·李泰逸·崔聖安(동두천), 權志圓·李泰逸·崔聖安(면목), 金汝玉·趙運盛華·黃和炯(사직), 梁永泰·黃眞常(석문), 金峻燁·林時現·丁明圓·崔炳悟(성동), 權悟仁·金歸法華·金靜仁·朴執圓·徐德心華·劉秀安·李靜清·鄭德眞(송천), 金覺星行·金敬明·金恩眞·金出塵玉·朴圓道·朴理視·柳瓊林·李成一行·林明潤玉·曹敬圓·趙正濟·趙眞淑·崔仁寬·洪大空華(원남), 鄭蓮觀(이문), 高性光·梁道經·池東圓(전농), 申鳳明心·李道賢·曹賢淑(정릉), 金仁寶華·金助道華·朴靈智華·申圓心·辛慧雲·吳心安·李聖薰·尹貞復(계기), 高慧林華·金道眞·朴根雨·辛文昌華·吳海清·

元德信·柳永顯·河遠鏡·金性頭華·金萬州華(중로), 金明淑·李法眞(중곡), 金道常·南善明華·朴理燮·白弘顯·宋明煥·吳光碩·陳仁道·崔圓覺·咸怡心華(중구), 鄭基華(중화).

〈서울서부교구〉 權大鴻·金妙恩·李南蓮·黃明牲(강남), 李壽天(개봉), 梁志浩·吳敬中·朱英俊(공향), 朴聖文·朴理順(구로), 한성연·崔德眞(남서울), 白普善華(대방), 朴濟倫(대치), 朴元興·李貴德玉·李英玉·許眞源(마포), 金濟圓(반포), 高光信·羅如願行·裴東訓·李敬天·이은경·張東潤·鄭順煥(방배), 具道行·金正南·유정명 화(불광), 金道光·金貞觀行·金香默·范正仁·徐清安·林能度華·鄭慧宗(서울), 金修安·吳泰亨(신림), 金道苗·金法圓·金聖梵行·安大願·吳明完·柳大明華·丁世賢·張法仁(신촌), 金智香·朴修賢·吳月蓮心(여의도), 全八現(역촌), 金正度·閔圓道·辛賢大·韓眞華(영등), 金禪樂(영등포), 高妙恩·安正善·吳玉蓮華·李貞心·丁信明·韓振權·黃榮眞(원효), 李春珠(은평), 魚淨水(홍제), 金元道·吳性德華·柳文英·趙和景·車圓冥(화곡).

〈수원교구〉 金福永·金濟龐(과천), 李恩靜(동안양), 金道光·金福源·金政局·李能德行·崔基圓(수원), 林優善·崔萬旭(안산), 尹聖恩(안양), 崔慧心(악대), 權法秀行·李永觀·崔正恩(인천), 李學徹(평택).

〈영광교구〉 徐清一·李權永(군남), 金湖烟(군서), 趙俊益(도양), 徐奎圓(법성), 姜景大·呂元植(불갑), 李庸聲(신흥), 金良順·丁鶴現·卓普信甲·鄭三禽火·金華玉(영산).

〈이리교구〉 朴亨禮(금마), 金法因行, 李聖蓮·李英根·鄭寧圓·趙雲根(남중), 林清心(도원), 高性出·金普仁·朴德勉華·宋金圓(동이리), 崔修安(만성), 姜蓮華(문화), 申正一華(북일), 鄭純根(삼성), 金仁寬·白智燮·李止正(용신), 趙權植(원평), 金光明華·金安定華·金用寬·金淨信·白敬薰·宋泰仁·李修哲華·李正浩華·李治賢·洪正德(이리), 宋正鎬·吳正明·趙昌煥·陳永田·崔應心·柳成烈(익산), 吳正順·李道奉行·趙眞定(합라).

〈전주교구〉 沈道哲·吳亨斗·柳春成·張圓明·趙秉仁·李順甲(교동), 金慧根·宋圓空(덕진), 白慈仁(동산), 姜成源·申智養·安在道(동전주), 尹黃雲(마령), 朴慧鍊華(백운), 姜漢善, 林永眞(삼례), 郭淸恩·金慧淨·宋世現(서전주), 金心德(송학), 李滿淑·李成執(수계), 吳權文(인후), 權道玄·魯安碩·朴眞玉·孫敬慧·梁承圓·柳善義行·李德基·李賢益·趙安善·朱浩峻(전주), 全義天·丁慧永·黃義碩(진북), 金純貞·李昌運·吳文榮(진안), 陳壽安(팔복).

〈정주교구〉 金聖吉(고창), 李宗蓮(무장), 權倫田·朴善法·鄭順基(부안), 李善永·李秀正(소성), 權淑眞(승부), 朴度圓·朴賢淑·梁泰俊(신태인), 金福眞華·金善光·金順慧·鄭大振(정주), 殷道谷(해리), 宋仁興(홍덕).

〈제주교구〉 金誠功華(서귀포), 金光蓮·金定宅(제주).

〈진주교구〉 柳益順(서진주), 李萬修玉(용암), 鄭如眞(지곡), 金法般(진주), 韓太益(함양).

〈춘천교구〉 柳理現玉·李炳允·車再安·金成理(춘천), 李光信(홍천), 李明照(화천), 朴聖法·李道恩·林圓道行(청주).

〈해외·기관〉 沈淑賢(뉴욕), 姜性修·姜正信·金道珍·金清中·金良悅·羅淨荷·盧道峰華·安益善·吳修圓·李福源·李化眞·張安全·全貞觀玉·鄭道仁·鄭東仁·鄭奉淑·韓良權(정토), 康壽元·金聖蓮·金鍾現·朴勤德華·方信英·成聖願·宋滿燮·宋虛實圓·申德恩·鄭妙蓮華·曹性地華(중앙수양원), 盧勤善, 申德恩·李宗道·全大堯(전주양노원).

정 3 등

〈광주교구〉 金靜圭(곡성), 金貞希·金炫江·吳賢住華·鄭龍淑·鄭正明(광주), 金元昌·尹基安·趙仁田(구례), 金錫杖華·李公善·丁完本·鄭龍翔(남광주), 鄭芳薰(농성), 林法性華·鄭椿願·趙法綠(동광주), 徐舜道·宋周性(동순천), 林慈賢(북광주), 鄭富緣(산수), 金善業華(서광주), 朴將春·朴玄燮·梁施仁·梁佑碩·張明信(순천), 徐道敬華·徐圓敬·徐法淵華·柳清源·李玄春·崔敬業(여수), 金元希·金玄帝·朴寶源(증흥), 金一南·金精煥·柳清仁·李圓鏡(창평).

〈군산교구〉 金元燁·文道仁·鄭聖業(군산), 金土圓(동군산), 卓正鉉(만경), 高芸巷·李呂經·蔡如玉行(술산), 李道恩華·蔡德一(장항), 金一正(화포).

〈남원교구〉 趙準官(관촌), 梁圓寂華·梁慧修(금평), 朴仁善·韓榮忍·李處仁(남원), 朴恩中·李奉輪(남원중앙), 金寶城·蘇春日華·張明哲(산서), 李東仁華·鄭法眞行(산동), 金淨行·梁仁觀(산서), 朴諸相(수지), 金南德·李在植·趙貴恩·晋忠玉(오수), 尹寶完(운봉), 姜道育(장수).

〈대구교구〉 金大蓮華·金法信華·金聖奎·金誠宗·李道應·鄭道潤·車正照華(경주), 朴誠心(김천), 權玄角·盧亨春·徐明燮·신성은·李性薰·李現德·張淵道·鄭道圓行·咸濟煥(대구), 金三正·朴正恩·河白道行(대명), 金恩相(봉덕), 權至圓·金安國·李文性華·崔道陽華(삼덕), 呂元超·李茂林(서문), 呂中道·李正安·崔法智行·崔良善(서성로), 朴智音(안동), 李允慳(의성).

〈대전교구〉 吳寬忍行(강경), 金仁聖(금산), 金敬田·安道定·鄭普圓·鄭浩仁(남대전), 林圓峰(논산), 姜利濟行·具慈日·白道成·吳良田·柳在興·李喜善·鄭慈心(대전), 權世潤(동대전), 曹峻淑(서대전), 李淨秀(연산), 梁容仁(유성).

〈마산교구〉 朴善德華·黃直觀·李敬眞(고성), 南聖舜·李海眞·全浩正·趙雲松(마산), 陳文磐(북신), 金一相行(신마산), 崔英春(신현), 魚海創(진영), 曹有善(진해), 李現正(창원), 姜正光·金用寬·徐世圓·梁濟圓·鄭亨濟·河雲眞華(통영), 郭眞成(함안).

〈목포교구〉 金大行玉·羅潤法·李大善(목포), 金世現·裴慈心·李南仁(불목), 朴圓淨(장흥).

〈부산동부교구〉 文淳道·車輪心圓·黃大憲(금정), 吳精一華·崔佳福(기장), 姜蓮心·朴倫性·沈允光·尹基道·李如玄·河泰然華(동래), 朴寶善(당미), 金道永華(명륜), 孫性運(부곡), 河清蓮華(부산사직), 辛濟學(연산), 金明寬·宋柱蓮(온천), 禹善福(울산), 南淵明·張明眞圓(해운대).

〈부산서부교구〉 金恩徹·金種樂·朴善德·申勤榮·李田和·朱敬恩(가야), 崔性造(구포), 金道源·金日輪華·徐南薰·李敬鳳·李善權(김해), 金應說(남부민), 孫法恩(다대), 金應元·金鍾聲(당리), 金

允正·崔養和(대신), 具良明華·具潤慈·金敬學·文希正·方相度行·吳如眞華·李慈淑行·林泰順(부산), 姜法性華·金法空心·金仁燦·朴成仁·朴沅在·朴和容心·裴任德·安聖壽·吳成眞·玄大成華(부산진), 吳仁信(사상), 朴德輪(서김해), 金聖珍·裴正妙·宋萬法華·尹萬德華·鄭聖濟·鄭良玉·崔眞明華(서면), 李京現·鄭仁京(양정), 具良根·裴寬心·卞恩主華·李妙明心·林聖德行·崔和連行(영도), 辛大善行(영주), 崔善植·崔正洪(전포), 孔茂順·金福潤·金三德·金鈴寬·朴熙淨·徐妙法行·李洙正華·張慧日·全正超·鄭慶珠(초량), 姜一貫行·沈良峻(토성).

〈서울등부교구〉 姜正才·崔貞實(강동), 鄭相滿(구의), 李和貞(도봉), 金天德華·薛寶正華·李宗相(돈암), 韓慧英(동두천), 韓慧英(면목), 金淨心·金佑圓·李士正·李悟道華·李行道·林聖順(사직), 金道仁·柳輪俊(석문), 金殷聖·金鍾洙·朴九天華·李三明·李中樂(송천), 吳眞修華·王在明·柳和正·李成音·曹正福(원남), 申圓敬·申眞境·崔良溫(이문), 梁悟眞·柳泰根·李重慈華(잠실), 康誠田·李公一華·許一誠(전농), 金孝恩華·李溫順行(정릉), 姜怡悅華·金同源·李模仁·張信慈圓·田基順(제기), 金晶明·朴信華·朴向修·邊致中·李勤修華·李濟殷·李眞仙·鄭德山玉·秋道權(중로), 朴正暎·李聖觀(중곡), 金寶煥·金善牧行·金仁田·金賢主·梁濟恩·李德熙圓·張法正(중구).

〈서울서부교구〉 徐尙德·鄭宗仁·鄭海淨·黃聖宇(강남), 卞聖文·張慧超(강서), 金明敦(강화), 신대기행·鄭恩淑(개봉), 崔玉潤(개포), 白義明(공향), 朴智淑(구로), 沈信度行(남가좌), 權中道·金公源(대방), 郭鳳信·李大德·林春園·鄭中圓(마포), 盧弘願·朴仁道華·孫仁愼(반포), 高洪誓玉·裴蓮鏡·安正石·李春澤(방배), 李道心·李明信行(불광), 高玄光·朴聖心圓·朴玄順·朴僖明·裴時玄·鄭修仙·崔賢眞(서울), 崔明煥(서초), 金光潤·金현진·李대하·李慧光(신림), 李柱心·李純根·李圓善·李恩淑·林彌聖·張得仙·鄭舜源·趙鳳景·趙玄妙行·韓炳運(신촌), 韓蓮華圓(여의도), 金純明·崔和圓(역촌), 尹光峻·林基濟(영동), 崔德仁(영등포), 郭妙月·徐世薰(원효), 金道光·金修眞·金智英(은평), 崔聖林玉(홍제), 金精明·裴良信·成圓公(화곡).

〈수원교구〉 梁慧圓(과천), 金舜德·許圓珠行(동안양), 金明天·金圓正(부천), 金載典(부평), 金智設(성남), 金如一華·成一大行·安在淨·尹大道華·李主淵(수원), 李禮安(안산), 金仁明·朴貞仁(안양), 金性天(약대), 李眞心行·李眞華·曹圓淨(인천).

〈영광교구〉 李權德(도양), 宣恩淑·吳如信(백수), 姜聖禹·朴有春·鄭佛光華(불갑), 曹三智華(영광), 崔福京·鄭桂環·李仁淑·李法輪(영산).

〈이리교구〉 田仁局(금마), 崔德根·韓慈淵(김제), 朴萬練·丁大涉(남중), 金慧信(도원), 牟如眞·崔孝舜(동이리), 崔重明華(문화), 李正潤(봉황), 徐共南·李英右·韓大淑(북일), 趙奉恩(신룡), 金允修(영등), 朴河淑·宋制玉(용신), 金仁甲·朴昌進·宋俊永·安善行(원평), 金中根·文眞旭·白善根·吳正教·田永眞得·全眞得·趙準宮·韓舜行(이리), 金愛賢·都是春·申輪碩·李賢權·全慧春(익산), 姜仙得·金性信行·朴興運(합라).

〈전주교구〉 吳頭山·吳世一·崔南濟·洪貴安·洪世定·洪守興(교동), 黃觀應(노송), 金行善華(덕

진), 姜水恩·宋安性·趙純植(동전주), 徐淸源·李松林玉·崔崎完(마령), 高三要·李功薰圓(봉동), 金利春(삼례), 趙完奎·洪一眞行(서전주), 沈志源·李龍仁(수계), 金碩潤(안천), 孫基泰(인후), 李康圓·張喜善·許義相·黃仁德·黃周安·金奉淑·崔內善(전주), 金仁恬(좌포), 金度新·李正教·晉寶權(진북).

〈정주교구〉 田龍現(감곡), 金寬柔華(무장), 金道光(백산), 辛靈明·李영원화(부안), 文淸眞·黃聖陀(소성), 金順道華·柳忠權(승부), 柳和信(신태인), 朱明教(장학), 金正眞行·辛英薰·愼和淑(정주), 金道敬·宋慧燮(태인), 尹心月明(해리), 金海運·宋益賢(화해).

〈제주교구〉 吳聖犬·柳宗和(서귀포).

〈진주교구〉 崔恩樹(동전주), 金善益(삼천포), 鄭淵源(하동), 姜道圓行(함양), 許靜修行(합천).

〈춘천교구〉 李蓮心華·李仁德(남춘천), 朴聖信行·車一明覺·張貴安(춘천), 吉蓮華(화천).

〈청주교구〉 李景宗(북청주), 吳明信·李文哲·崔誓弘(청주), 裒惺岩(충주).

〈해외·기관〉 고승만·金妙貞(뉴욕), 朴良吉·辛英順·李春淑·張貴英·鄭德宣·鄭世薰·韓圓心華·朴光振(정토), 孔善德行·金善淑·金創始華·朴仁玉·裒福一·宋淑振·魯善勤華·吳南正行·李順德·丁正薰(중앙수양원), 鄭妙信行(전주양노원).

준 3 등

〈광주교구〉 趙明益(검면), 金相生華·潘奉植·夫慧光·淳永眞·李光錫·李施德·林衆濟·崔德圓·韓南順·黃善明(광주), 朴明薰·安永寶華·李洪舜·車濟度華·韓圓敬(구례), 金淨心(남광주), 李心當玉·車敬敏(농성), 李得正(담양), 高大衆華·金安植·朴順理華·辛華性·李道圓華·李仁福華·張東俊·鄭敦淳·崔仁善(동광주), 姜德圓華·朴圓鍾·孫孝順(동순천), 李道永(득량), 朴正德·吳明善(보성), 高春園·최도중(북광주), 牟善仁·金眞女·林周現·鄭貴圓·鄭大順行·洪德仁(산수), 高宿善·金光圓心·金順道·宋裕賢·吳仁善·李敬實·李仁珠·李慧根·崔濟德(서광주), 李賢道·洪敬道華(송정), 金聖宗·宋善鄉·鄭圓定(순천), 金周恩·孫忠賢·李道明華·李俊淑·趙荷明·池海仁·崔敬珍(여수), 金正光(장성), 高洪明華·金觀一華·沈孝敏·朱孝善(중흥), 宋恩益·安春信·李無住行·曹靈山玉(창평).

〈군산교구〉 姜仁谷·金明峻·金曉中·文容珠·徐玉珍·吳光天·劉宗秀·李大圓·鄭圭仁(군산), 朴性眞·田聲秀(남군산), 張明局(동군산), 趙正明華(만경), 康天承·李大安(서군산), 朴連勝·洪善範(서천), 金正吉(술산), 李仁性(장항), 李南湖(화포).

〈남원교구〉 金舜心·柳其一·李寬柔行·李永壽·鄭萬中·晉相文(관촌) 宋永空華(금평), 金三禪華·吳連中·李仁根·張聖林·韓珠環·趙喜善(남원), 高峻其·金南浩·金忠圓·劉修玉(남원중앙), 朴教亨(보절), 蘇三眞·李淑溫(산동), 崔普德華(산서), 朴鳳安·朴永哲·房始圓(수지), 鞠慈仁·柳篤信行·韓馨南(순창), 金壯信(아영), 姜大寬·姜正一·金敬哲·金明進·李善超·李容寬(오수), 姜瑞潤·金中南·朴琪英·朴道觀·朴聖恬·朴恩慶·梁修?·梁智煥·尹春常·鄭道仁(운봉), 朴常悅·晉承根(임실),

金敬中·金主庵·曹洪仁(장수), 金順明華·崔道藏·韓修英(지사), 金得善華·吳舜道(청계).

〈대구교구〉 劉法仁·李安德行·李元澤(김천), 具濟融·金任天·盧可德·裴裕天·白正庵·薛英根·宋孝正·辛三妙華·愼恩京·金姜仁·李慧月行·朱英俊·咸聖恩華(대구), 具性俊·金明德行·金聲蘭·安撤京·李正念·趙主一華(대명), 金蓮淑·朴蓮修·裴相局·申勤實·崔性默(대현), 權誠谷·金緣機·盧英春·徐良行·鄭知恒·趙順德行·曹淨信(봉덕), 郭奉道·金安心·南庸信·沈一道行·李愼道華·李中道華(삼덕), 金棹洋·李施雨(상주), 金修吉·李珍福(서문), 權順道華·金蓮文·金慈慶·徐大願行·申貴珍·林善珠·張時圓·全妙仁華·許緣道(서성로), 蘇德環(성주), 姜慧寬·權福慧圓·權正祚行·金達淑·洪聖悅(안동), 黃道進行(포항), 李法心行(후포).

〈대전교구〉 沈春澤·全常天·趙長善華(강경), 崔德安(공주), 金誠務·金圓同·朴良正·李一連(금산), 金聖子·金秀眞·朴聖奎·尹簡中·李大榮·李奉信·崔恩珠(남대전), 崔周明(논산), 金明心玉·閔智煥·朴常曉·安秉蓮·尹致元·曹妙常·趙解一行·崔法恩·韓道緣(대전), 林富仁華·鄭道恩(도곡), 申誠淵(동대전), 申善文·全光憲(무주), 權道玉·鄭高奉·鄭東鎮(연산), 金慈悲華(유성), 朴道莊·柳圓日·李雲仙·林善福(제원), 尹正煥(추부).

〈마산교구〉 姜南圓(고성), 趙明旭(동마산), 孔興蓮·金德田·辛泰聖(밀양), 姜安道華·金功德華·金道緣·金榮佑·金精庵·辛德順·成樂性·신창담옥·李蓮淑·張理成(마산), 姜元局·尹敏修華(수산), 姜性蓮華·權法恩行·金圓田·朴永眞·李法悅華(신마산), 姜怡性華·李水晶華(신창원), 車祥喜行(의창), 金寬性·李景明·李圓述·鄭德訓·崔潤德(진영), 尹周道行·曹容德行(진해), 曷상문·李圓敬(창령), 李順根(창원), 金德翁·金清仁·辛良述·鄭歸聖·鄭道德行(통영), 具東明·朴歸道·朴安信(함안).

〈목포교구〉 康慧善華·金三台華·金香蓮·朴晚成·孫萬德·申香善華·吳祥妙·李大心·洪好德(목포), 安道修(무안), 姜清中(불목), 徐忍辱行·吳德玄(서목포), 池吾善(완도), 金惠成·鄭成願(해남).

〈부산등부교구〉 金明達行·文自性華·朴海印行·李桂玄·鄭玄恩覺(거제), 金佑性(광안), 鄭大願華(구서), 廉公善·李圓慧·張敬運·鄭緩昊·曹淨善·崔雲性·黃仁珠(금정), 李性達(기장), 白受善行·白和正·張海仁(남산), 姜修善·金現生華·辛明旭·安性濟·柳修明·李奉元·崔正覺心·韓宗淳(대연), 金普明月·金悟道華·宋春和·梁明寬·王性一·尹修圓·尹仁寬·李建世·李光明華·李妙然華·李令觀·李慧承·朱道振·崔明德·河成道·河慧仁行·許聖務華(동래), 姜慧允·沈千蓮·李哲圓·鄭修道(망미), 金性根(문현), 崔德眞(물금), 黃淨河(서동), 辛恩貞·李根悟(석포), 姜聖道·朴圓慈·李誠淵·張溪源·鄭和善(양산), 郭圓一華(언양), 申德照·辛中煥(연산), 具三根·具安定華·都忠眞·宋安定行·宋和貞·李同源行·崔明允(은천), 姜忍和·安德明·尹慧淑(울산), 金泰久·金好德·南理田·李理一行(해운대).

〈부산서부교구〉 金指日·劉三寶華·尹清玉(가야), 文法地華·徐性淡(괴정), 金光文·金守正華·金慧圓(구포), 薛昌善·俞大善心·柳法修玉(김해), 金順洪·金潤玄·尹住然·趙基淨·崔清真(남부민),

文東秀·李得明·李慈榮·崔正選(다대), 金智仁·金清淨行·朴南順·朴道玉·梁正受華·李玄重(당리), 金俊賢·成圓淑·鄭聖淵·崔敬德·卓晶潭·李道天(대신), 金圓悟·金明善行·金文殊行·金有聲·金白蓮·金淨信·金珠聖·朴聖勳·孫泰映·宋敬信行·愼大蓮華·李大石·李德度行·李永修·李恩化·李華峰·鄭恩英·朱永德華·崔仁善(부산), 孫永福華·金大玉華·金明修華·金承煥·金益中·馬法運·裴永德華·吳南振·李清淨行·鄭道進玉·崔正谷·韓正緣(부산진), 姜法運(사상), 金灌玉·金法雲·金主星·羅明進華·都眞月·梁萬圭·李昌煥·趙明根·陳淨明(서면), 金功勳·金龍田·金恩實·李文洙·李智眼·林智運(양정), 姜哲信·金法順·朴眞澤·宋道善行·鄭淨道·黃萬德(영도), 鄭東善(영주), 白永福·成普明·俞能鎭·全善仁(청학), 姜善一華·姜正心華·郭忍性華·權惠綠·金覺圓行·金原福·金漸修行·朴明德·朴守貞·朴如眞·朴仁建·方眞受·裴濟圓·白善覺·邊妙法海·石正孝·吳十州行·李成中·李玄妙華·趙仁德·趙正擇·韓曉淑·許明聖·許平恩(초량), 申靜善·去法信行(토성).

〈서울동부교구〉 金聖滿·金正友·南祥潤·宋大誠·李聖舜(가락), 孫如貞·禹相住華·李理賢(구의), 金宗敏·金慧宗·朴慈恩·吳如圓·李敬植·李正行·李靑俊(도봉), 金道成·金妙經行·金玉眞·金潤碩·朴將仙·裴濟勳·宋眞源·柳敬烈·田慧舜·鄭妙仁·鄭豪圓·秋七空華·韓光善華·咸淨仁(돈암), 朴敬心圓·朴興宗·劉仁圓·李喜滿·張慧壽(면목), 羅成薰·朴報信華·白蘭淑·白成仁·白圓明·沈性賢·李東順·曹勝玉華·河清潤(사직), 李仁奎·洪眞覺華(석문), 具德行·金敬仁·李歸宗華(성동), 金覺仁華·金大實·金道法華·金賢行·盧眞如圓·朴敬局·鄭道安行·趙濟善玉·崔萬法華·洪心圓(송천), 金明根·金妙恩·金永敬·金永禪·金貞命·金智常·朴公心·朴善化·朴淳達(圭), 白純圓·梁馨道華·吳永昌·吳昶圓·李光德·李理天·朴惠局·張正安·鄭貴정·鄭漏盡華·鄭德壽·鄭修行·鄭圓益·曹聖薰·崔德仁·崔解善華(원남), 康仁敬·權惠雲·金薰陶華·李璟來·李敬禹·韓道中·洪正道(이문), 金潤植·成圓淑·鄭順正華·鄭正泰·鄭照蓮(잠실), 金大範華·金性蘭·朴行植·朴花成玉·張善眞·全一貞華(진농), 曹奉信(정능), 金悟性華·金至願·尹仁宗·李慈仁·林戊成·洪降賢·李英秀(제기), 金貴道華·金德庵·金善光華·金圓敬·金義英·金仁碩·金眞熙·金慧根·文聖一·禹聖恩華·禹眞局·劉昌眞·李三眞行·李聖明玉·李英淑·鄭碩恩·鄭允圓·鄭興眞·曹英玉·趙容碩·趙禎和·晉奎鎬·崔仁和·崔慧命華·韓性空月·黃道品(중로), 金雲水華·盧順命·朴玄晚·徐道信華·趙聖眼·趙如眞·崔要星(중곡), 金信圓·金貞烈·盧正德華·朴永心·孫法藏·吳淨鏡·劉清圓·李清心·李漢成·林光德(중구), 金戒正華(중화).

〈서울서부교구〉 方萬基·오양택·柳道傳·李忠信華·鄭鍾宇·崔宰純·黃彩奎(강남), 金東振·崔仁貞(강서), 柳光秀·韓聖壽華(강화), 朴聖奉·金正默·金正合·朴瑞輪·申淨心華·李妙相·河文公·洪慧圓華·李光明圓(개봉), 金景英·金莞局·金眞煥·吳正敏·崔眞學·崔敦陸華(개포), 金法善·裴正斗·白智聖·柳龍仁·崔道圓(공하), 鄭敬德華·崔鳳蓮玉·崔主賢(구로), 李鍾實·洪德和(남자라), 金水明·金聖宗·羅常運·朴允峻(대방), 高敬慈·郭溫中·李誠薰(대치), 金義新·朴性薰(마포), 金大基(반포), 金善仁·金淨業·金主德·南賢翊·朴精進·孫福主華·殷道器華·李寶根·李潤振·林淨仁·張貞鳳·田無住圓·丁圓珠·黃海印華·崔貴恩華(방배), 金法賢·成曉烈·李順聖(불광), 姜正平·高性準·金道降華·

金永心·金庸局·金正光·朴寬玉·朴慧林·申大乘月·吳維正華·李明蘭·李法善·李扶一行·崔奇田華·洪智仁(서울), 辛施法·李德泉·李昌珠(시흥), 金濟國·金周敬·吳基悟·柳永修·尹敬中·李明覺·曹萬眞玉(신림), 金善燁·朴大均·朴聖蓮·朴順視·李善德圓·李然熙·李靈明華·林裕重·鄭義說·河清潤(신촌), 具明信·朴俊英·尹仁植·李圓觀(여의도), 金仁學·朴圓國·朴濟仁·辛仁信行·安在新·柳麗正·李恩悅·張法雲(영동), 金潤碩·李良厚·鄭周弘(영등포), 金聖典·金純道·金亨述·申玉鍊華·梁至順·元善主·李奉聖華·林道光·鄭明善·鄭良恩·鄭會緣·趙善英(원효), 朴香德·崔濟圓(은평), 金聖勳·姜靈山月·梁靈珍·許貞孝·黃寶亨純(홍제), 郭善德·金道音·金學眞·南慈薰·朴明信·朴正中·薛明善·申純仁·柳基仁·李海仙·金佑天·全泰靜·崔允聖·崔仁觀·黃惠恩(화덕).

〈수원교구〉 孫晶浩·柳勳性·李南薰(과천), 安大連·田養仁·崔奉植(동안양), 高貞烈·金菩根行·金濟行·李慈心(부천), 朴正眞·林泰恩(성남), 高文益·高希鏡·金今福行·朴德恩·孫濟圓·李祥奎·李永度行·李和圓·許仁(수원), 姜眞明華·洪理性行(약대), 高希中·金晶文·梁常春·宣法圓·李皓濬·전영만·趙聖眞(인천), 金眞道·李永寶·洪光燁(평택).

〈영광교구〉 金碩鍾·金天益·李達中·李制運·張貞鳳(군남), 金寶徹·李亨徹·李治燮·鄭仁福(대마), 姜現秀·金修蓮·安世鍾·趙正悟·李炳吾(도양), 柳成南·鄭潤七(문장), 申知奉·李純一華(법성), 姜勝萬·姜元變·朴達成(불갑), 金明俊·張起信·韓貴然(신흥), 金常德·牟運種華·劉靈明·尹大錫·李敬悟·韓圓宗(영광), 이안섭·李載善·沈公善(영산), 李俊哲(왕촌).

〈이리교구〉 文性圓·李圓眞·鄭喜鳳(금마), 朴至善·王金和行·柳清雲華(김제), 姜良淑·金法印·羅良鏡·朴善圭·辛東圓·沈眞清華·李培碩·李仁心·李玄秀·張慧省(남중), 朴德之華(도원), 朴圓悟·任敬烈(동이리) 郭賢信華(모현), 金爾華·徐正悟(북일), 權榮圓·金德實·李仁福華(삼성), 金妙植(서이리), 李南施華·曹東圭(신흥), 沈志尙(영동), 金一向華·金泰昊·李弘仁·朴炳源·金宗根(용신), 金眞宗·黃恩星(원평), 姜正仁華·權相雲·金法鏡行·金法源·金石田·金性照·金順基·金正雲·金玄宗·吳應心·方致運·李壯信·鄭明教·曹一智圓·蔡文植·朴頭業(이리), 金永精月·沈修眞華·李敬權·李得報·李正文·李總順·趙義純·李元永(익산), 金南順·朴圓種(함라), 蔡慧日(황등).

〈전주교구〉 金淑玄·金純照·金一恩行·金慧福·梁慧羅·柳聖禮·李康田·李勤範·李起南·李法陽華·李永性·李皓純·林賢聖·崔恩惠華·洪養眞行(교동), 文尙憲·鄭善局(금구), 辛道玄·柳善春·許光淵(금암), 柳春榮華(덕진), 金道薰·馬成田華·李正堯·李泰善(등산), 金永深·金仁穆·安仁賢·李七九華·李喜根·鄭勤奉·趙容碩·陳裕善·車載德(동전주), 高昌倫·金貴宗·金春範·朴道玉·吳權文·吳仁煥·李德源·李慧然華·鄭峻虛(마령) 徐修德·愼積功華·全誠心行·全智順(백운), 柳法根·李順圓(봉동), 郭二樂行·李德淵(삼례), 徐景蓮·宋戒善行·鄭白岩(서전주), 金永連·金治溫·吳英淑·吳政敏華·柳基善·李觀淑·李福基華·李援國·李育善行·李正吉·林道連(수계), 金妙田·朴慧心·宋萬德·李妙信·채문권·崔根淑·許載天(인후), 權福緣·金明哲華·金養淑·金喜俊·宋淑振·辛智仁·李揚求·李慈運·李慈悅華·林安淑·崔貴恩華·崔道鏡·崔碩中·崔慧德·韓偉心·許法均·許春寬·황정하·白法眞

華·趙循環·梁靈珍(진주), 金孝根·朴潤根·徐弘基華·沈亨中·梁普勳(좌포), 沈興善(증길리), 高明全·朴淳慶·崔明日·韓正大華(진북), 洪德和·文敬溫·李圓興(진안), 金文寬·金聖局·許大賢華(평화), 白德敏華·安世鎬·安承德·李三寶華·任慈圓(효자).

〈정주교구〉 崔俊局(감곡), 孫慈成·吳順心華·李仁公(고부), 殷心成華·周日中·崔心德明(무장), 權貞玉·金景仁行·金貞仁·朴慈圓行·朴玄信行·裴石鎭·尹重薰·殷內在行·李道耕·李尙道·李昇智華·張光照·崔永表(부안), 金敬智·金養天·李順貴(소성), 金道春·金智順·柳正教(승부), 金恩玉·金正馨華·朴馨照·薛良信·李光淨華·梁哲薰·蔡知仁華·崔隱山·朴鎭世(신태인), 朴世麟·李大地華(용각), 高保任華·朴妙淨月·韓靈貴華(정주), 李孝德·陳玉子·秋仁德(태인), 姜光善·宋永守·吳敬德·柳恩正·張福現(화해), 崔世眞(화호), 朴熙誠·鄭恒德華(흥덕).

〈제주교구〉 金英眞(남원), 邊昌基·宋德順華·林德皓(서귀포), 李仁光(신제주), 白寶蓮(애월), 申明德華·魏大寶行(제주).

〈진주교구〉 朴範成·朴性道·李大地華(동진주), 朴正秀·朴正益·朴理圓(삼천포), 金대운·崔運善(서진주), 趙安住行(용암), 宋祐泉(의령), 張貫性(지곡), 金壹寶圓·朴洪善·李慈玄·鄭良漢·諸常眞·崔恩樹·河靜念·許如珠華(진주), 李宣金(하동), 裴石圓·宋泰仁·吳桂賢(함양), 李國善(합천).

〈춘천교구〉 南元順·池香蓮華·崔敬仁·洪濟英(남춘천), 崔法恩行(속초), 朴圓學·趙心耕(원주), 高正麟·朴洗心華·宋慧仁·安聖圓·梁大願行·李壽安·林尙圓·崔柔俊·黃法薰(춘천), 朴文理華·梁厚圓(홍천), 李香中·朴蓮水·李修謙·李輪德(화천).

〈청주교구〉 金尙德華(괴산), 金明性·李尙德華(북청주), 李學心行(서청주), 吳忠信(조치원), 金光憲·金福智圓·金周一華·徐法藏華·辛慧天·安賢德行·梁天心行·李曉相(청주).

〈해외·기관〉 金요인·宋修恩·沈建永·李병철(뉴욕), 高圓奎·金福賢·薛英根·李承烈·鄭景根(해외), 金敬信·金道恩·金復均·文恩京·朴中元·손경덕·吳鳳薰·李聖玉·鄭心月·鄭仁鳳·崔智賢(정토), 柳秋成(원광요양원), 金權修華·金文淑·金善觀·金恩淑·朴光徹·朴安正行·朴孝田·尹慈恩·李敬一·李淳和·李蓮順·李靑正心, 鄭正機華·太重玉·河聖奉·韓潤宗(중앙수양원), 金大願華·金玄光·羅靜明心·朴仁空玉·柳道信華·李正德行·諸壹德月·全中正華(전주양노원).

정 4 등

〈광주교구〉 楊相元·韓守光(검면), 朴正德(곡성), 姜道圓·金大性華·金正道行·羅正國·白明蓮華·孫正知華·柳昌仁·柳春淑·曹東薰(광주), 梁正蓮·邪大圓華(구례), 李仁德(나주), 具俊善·유진선·黃靈實·林龍善(남광주), 李宇敬(농성), 高允錫·高仁光·조南現(동광주), 裴濟輪(동순천), 崔敬慈(동원), 洪開伯(득량), 朴成月(보성), 金善華·장유진(북광주), 金養賢·崔公明·黃敬植(산수), 徐法順行·尹榮和(서광주), 金願明(여수), 鄭安碩(장성).

〈군산교구〉 孫善勳(경장), 徐敬瑞華·孫起德華·李道行·李聖心·林春成華·陳時現(군산), 林誠慧

(동군산) 羅性錦·辛守永(만경), 韓寬仁·咸修徹(서군산), 高正明(술산), 全賢玉(장항).

〈남원교구〉 金大成·李壯根·李準其·崔用順(관촌), 朴瑞中(남원), 文現德·趙景仁·晋美修(남원중앙), 金聖浩(보절), 申敬一華(산동), 金妙淑·梁法輪行·尹心珠(수지), 姜侍法行·韓德海·黃大福華(오수), 魯正生華·李明源(운봉), 金仁正(인월), 鄭善寬(임실), 金宗根(장계), 柳聖東(장수), 金玄德行(지사).

〈대구교구〉 金崇孝·宋正道行(경주), 朴濟恩行·李圓實華(김천), 金萬哲·盧明秀·朴敬眞·朴誠實·李善寬·蔡大榮(대구), 吳良順行(대명), 方道雄·張振園(대현), 張玉林華·韓南一華(봉덕), 權仁淑·許大用心(삼덕), 李淨德行·李知圓·趙盡誠華(상주), 吳泰賢(서문), 金大中·金明珠華·劉聖元·李三修(서성로), 金德仁·金無相華·金信範·孫珠圓·鄭正振(안동), 金堯願·趙大成(포항).

〈대전교구〉 朴濟運(강경), 崔世安(공주), 金東亨·閔實務華·鄭惠寬·崔龍願(금산), 姜大保華·金正太·白鏡心·蘇永善·李鳳願·李聖蓮·高正福華(남대전), 강성남·朴誠植·朴玄德·裴慧明·辛歸正·李正明·주영준(대전), 金福恩(도곡), 崔恩明華·崔出塵華(동대전), 朴靈路(무주), 金守中·李來頭華(서대전), 朴香薰·趙元三華(연산), 羅明善華(영동), 權道甲(온양), 姜正憲(유성), 朴惠淑(제원), 金玟嬉·孫得眞(천안).

〈마산교구〉 崔圓敬·黃眞公(고성), 金泰烈·申道一行(밀양), 金善德·申蓮花台·李金輪華·李明性月·鄭正信·金大勸華(마산), 鄭芳仁(신마산), 金二利行(신현), 孫浩圓·趙明正華·曹玄相(진해), 金慶圓(창령), 金載圓·金香洙·朴順心·徐道輪·辛純德行·崔務眞·卓喜三(통영), 趙達賢·許智淨華(함안).

〈목포교구〉 朴光仁·朴光載·朴亨哲(도립), 金養眞·金眞榮·白恩信·韓法界華(목포), 尹成吉華·李道勳(무안), 金東成華·金聖彦(불목), 金法心行·孫妙允(서목포), 吳福德(압해), 李法輪華·李信根(영보), 姜潤德·金貞賢·崔善英華(영암), 朴恩慧·裴大光·李仁玉·李仁願華·林明鳳月·鄭善德華·池奉龍(완도), 郭景度華·金海惺華(장산).

〈부산동부교구〉 姜養圓·朴達恩·潘敬滿(거제), 韓光一(기장), 李法主·鄭蓮植(남산), 鄭信圓·崔亨信(남울산), 朴基田·白仁平·卞道正·卞慶道行·李明世·李善勳(대연), 金正福華·金弘願·朴善觀·朴性實·嚴白蓮華·李松煥·鄭道均·河誓明·河淨心圓(동래), 金清蓮心·朴允信·李純粹華·李眞忠·崔玉潤(망미), 全仁恕(서동), 金鏡煥·金慈然·朴明中·李平心華(양산), 曹平道行(언양), 盧明浩·鄭歸道(연산), 趙淑賢(울산).

〈부산서부교구〉 具和經·金善敬·劉教範(가야), 金信心行(개금), 金德明行·裴淑恩(괴정), 金允教·金正守·張利均(구포), 姜實明(김해), 金法徹·朴永德·孫英珠·李福秀·韓明才(남부민), 金德源(다대), 梁智一華·崔文奎(당리), 金允振·朴正圓·成東仁·禹道恩行·鄭明性華·崔心德華·崔玉潤(대신), 金貴仁·金萬壽華·金洪淑·朴心地華·朴靈順·辛南薰·尹文施·李道英·李蓮純·林英才·張有德華·鄭長善·崔賢珠(부산), 姜法寶行·金貴綠·金誠天·金圓潭·金和烈(부산진), 姜治仁·具正董·

金明誠·金慧田·孫正壽·李普賢行·鄭正仁(仁正)(서면), 李吉恩(성지곡), 奇一性華·朴道天·沈安修·吳德順華·李聖庵·李主圓·張孝文(양정), 朴清信華·安德善·陳榮俊·崔德賢·河聖培(영도), 河貞善(영주), 金正善·盧鏡珠·成功圓(전포), 姜賢眞·金柔淑·金忠仁·金好綠·閔和淑·宋惠安·李誠心華·黃金剛心(창학), 方峻烈·石法行·李明化·李惺石·曹貴中(초량).

〈서울동부교구〉 金俊雄(강동), 金淳燦·朴慧用(도봉), 金滿眞圓·金順烈·金向貞·朴萬仁行·吳亨南·劉白聖華·鄭永潤·丁義淑·趙光湖(돈암), 許英仁(방학), 金法峻·南圓根·李興法(사직), 金修明(석문), 姜宇眞·權義振·梁延圓·趙然喜·崔至心(성동), 朴宣道(善教), 朴天信·李德敏·李永順(송천), 金妙明華·金晉圓·金世虛華·金允哲·朴順濟·宋道英·宋四恩玉·安南解玉·柳京郎·鄭滿根·陳純粹華·韓德緣(원남), 姜思洙·金德榮·朴德奉·朴德修(잠실), 南善眞·朴忠仁行·李根修·李哲振(전농), 宋修仁(정릉), 金玉成華·全公顯·鄭麗一·趙信英(재기), 金敬玉·盧善勤華·文圓吉·朴仁瑞·孫明和·宋慈圓·李性舜·홍성조·林龍圓(중로), 具昌慶·金道淑(중곡), 金三忍華·朴聖範·朴熙俊·李德圓·鄭仁永·李仁術·조蓮鳳(중구).

〈서울서부교구〉 權文經·金葵堂·金亨眞·朴弘舜(강남), 孫一眞·庚正完·李妙信(강서), 李公新(개봉), 朴安修(개포), 김성덕, 崔蓮華(공향), 許誠南(구로), 金常賢·李靈山華(남가좌), 金聖仁·柳鍾緣(대방), 鄭修英(대치), 김자원(마포), 고경주, 金建希·金滿純·金仁實·박정혜화·徐和田·유태연·全仁實·조정인화·崔貴性(방배), 신효련월·李聖行·李定修華·林飯基華·鄭圓燮(불광), 姜修永·金德修華·金玉眞·朴昌善·吳興仁·王性一·李授衆·李眞如華·鄭道心(서울), 姜淨大·金廣明·梁理田·鄭道仁行(신림), 金端業·安濟象華·李永法·崔柔一·洪明智王(신촌), 金法仁·金印澤·朴仙美·崔道蓮(여의도), 李正孝(역촌), 朴熙俊·李慈潤·林正根·鄭秉昊·許泳達(영등), 張德宣·鄭圓昊(영등포), 김보인·金允性·林大薰·林正淵·許正基(원효), 金順命行·金東恩(홍제), 朴奉道華·申泰義·吳英觀·黃蓮道(화곡).

〈수원교구〉 金大永·金慧春·孫漢鳳·林棲仁(과천), 崔殷修(동안양), 韓德心華(부평), 權寬眞·金應秀·薛明圓·田德善·鄭法蓮(수원), 李百順(안산), 蘇明元·李道淳·趙仁興·崔智恩(안양), 申裕成·安世正(약대), 金德榮·全在弘(인천).

〈영광교구〉 金聖濟·金永中(군남), 鄭德善(대마), 金道寬·金維憲·吳龍覺華·金裁仁·全寬裕行·周成淑(문장), 金興天·오진석·鄭定慧(백수), 李法經·丁仁谷(법성), 沈道清·鄭德心華(신광), 李千甲(신흥), 金善行華·金性悟·金潤根·梁幸運·殷玄明華·李貴禮·李正日·張聖心華·鄭復元·崔聖容(영광), 丁羅善·韓貴哲·金高雲·朴道善華(영산), 沈輝明玉(왕촌).

〈이리교구〉 蘇恩生華·鄭宗圓玉(금마), 姜雲燮·高馨文·朴正圓·李東源·李法恩·李玄哲·趙圓明華(남중), 權義田·南宮性晚·閔天日玉·朴光祐·嚴夢安·嚴慈悲華(도원), 金大聲·申智性華·張如善華(동이리), 金法順·李法淨(봉황), 明清圓·朴文明·吳聖種·尹至淨華·李共信(북일), 朴星熙·崔聖?!(삼성), 柳貴然(서이리), 韓圭一行(신흥), 權一順(용신), 金慧中·都和圓·張啓春·張常根·周柔眞·

咸寶運(원평), 金明性·金禹勤·金弘顯·金化俊·朴一春·朴珠實·申大悟·李仁淑·林吉善·蔡正命(이리), 金妙誠行·金宇賢·徐春明·趙順植·韓貴然(익산), 金順玉·金眞局·朴正道行·張萬熙·張玄性玉·黃仁鎬(합라), 徐南妙·李養源(합열), 金法薰·金正眼(황등).

〈전주교구〉 金中心華·李世煥·李順用·李玄悟·全大基·趙仁知華·黃永信行(교동), 金德心行·趙完根(금구), 金周煥·洪恩寬(금암), 金장인·安道順·韓正德華(덕진), 朴理明·吳東珠(동산), 柳東日(동전주), 全性澤·丁智完·吳海石(마령), 洪妙德(백운), 金良順·柳正俊·李福田華(봉동), 金施德行·金喜正·魯正光玉·沈慈性玉·鄭忠信行(삼례), 高貞烈行·安寬厚·趙亨根·채인목(서전주), 金炳淑·金奉恩·金智行·朴奉恩華(수계), 鄭道涉(안천), 金경원·金基仁·金明安·嚴東變·陸宗浩·尹浩相·李永福·李用眞·전중옥·崔泰成(전주), 金大說·金秉權(좌포), 金福田·金世明·윤귀권·李法一·趙英圓(진북), 吳順貞(진안), 金春寬(팔북), 金性明·金聖育·白大願(효자).

〈정주교구〉 朴明源·李教圓(감곡), 朴高德行(고부), 姜順賢·陳敬心華(고창), 權世圓·金修仁(소성), 金勝慧華·유철원(승부), 孫聖奎·李圓金(신태인), 金鳳淳·羅聖業·朴善慈·韓永國(용각), 崔光殷(이평), 李貴鳳(정주), 康炫聖·孫成道(칠보), 牟明孝·柴敬?!·尹碩仁·河順數行(태인), 金機英(화호), 朴明俊·朴永觀·丁蓮淳(흥덕).

〈제주교구〉 曹眞鏡(서귀포), 金允公(애월), 鄭道貫(오등), 金誠正·宋允修·李南道(제주).

〈진주교구〉 李寶鏡(삼천포), 許普聖華(의령), 朴天心玉·李三緣(지곡), 宋利成(진주), 朴僅馥·吳度尙·林和性·鄭利他行(하동), 林道國·林明義行(함양), 朴昌願(합천).

〈춘천교구〉 尹淸淨華(남춘천), 崔法恩行(속초), 朴晶局·李性文·李勝蓮華·林寶全·鄭誠志·서춘천), 金眞指華·李亮德·張淨塵(홍천), 李道政(화천).

〈침주교구〉 金慧璇(괴산), 노희진·李道玄(북청주), 金基玉·金法融(서청주), 金如正·劉敬德行·黃長都(청주).

〈해외·기관〉 金眞基·朴明恩·李智淨·鄭樂仁·蔡仁和(뉴욕), 朴敬局·裴善化·賓順奉·全八珍·鄭福眞·鄭性地·정원명·許聖伯·任明根(해외), 金孝峻·盧大悅·文好善·白世德·宋恩明·李亨道·崔道心·崔安局(정토), 徐大淑·徐富貴華·禹長悟·李善默·鄭悟眞華·蔡順偶行(중앙수양원), 金妙聖華·金奉淑·盧寶善華·朴報恩·宋泰平華(전주양노원).

준 4 등

〈광주교구〉 沈孝敏·崔妙一華(검면), 申德元行(고흥), 민련구·朴玉輝·梁悟正·吳性局(곡성), 奇英中·金高根·金大昌·金純一·金永德·金顯船·金裕璋·金理源·金和田·朴性觀·朴明照·邊麟瑞·邊長運華·申慧圓·유덕정·尹成旭·李宗訓·李春京·林東明·鄭光現(광주), 孔華嚴藏·金星寂華·朴永福華·柳援明·李一榮·崔義明(구례), 姜徹俊·全在明·崔道正(나주), 姜性明·朴承仁·朴道心·邊鐵圓·黃德畢(남광주), 金長榮·申純仁·鄭道煥·崔蓮池行·崔圓奎(농성), 金龍鎮(담양), 金光錫·金錦淑·金

정담·金天吉·文和正·安性心行·邊敬悟·沈昌仁(동광주), 李萬行(동원), 김일용·尹慈恩(득량), 金天一行·金大倫·卞常勉·李守倫·李容佑(보성), 文世圓·文直心·金賢眞·朴正民·安珠現·李善忍華·李慈圓(북광주), 高熙東·金善美玉·朴法一·宋剛仁·宋淨珠華·張周仁·趙鏡住華·曹炯敏(산수), 朴普倫·朴誠谷·李普明華·李圓世·鄭萬德華·鄭恩宗·한양범(서광주), 金合理行·南舜源·朴修進·朴慧恩·徐舜道·安動靜圓·尹聖蓮·尹宇正華·尹玄規·鄭昌善·趙善慶華(순천), 姜本然華·具明信·金道圓行·金妙行華·金秀田·金時亨·金亨文·金興法·朴本明華·柳弘祚·李聖敬·李田圓·李精一行·李宗德·張聖彬·秦道心華(여수), 金貞一(여천), 金德性華·金鳳珠·黃順悟(장성), 韓養直(중흥), 高道一·金妙心行·辛法禮華·尹元峻(창평), 朴修淨·尹修證華(화순).

〈군산교구〉 南秦亨·權德泉·金大然·金慧圓·方堯願·杜常德行·昔恩宗·宋法常·李淑善·李眞圓·任佛性華·任孝明·田道基·崔法善·韓南德華(군산), 권도연·金萬性華·金仁得·朴東玉·李允證·林揚薰·趙仁實(남군산), 金法峻·金施衆華·朴晴和·吳眞性華·蔡永地華·崔道衆華·韓成鹿舜(대야), 金秦煥(대천), 金賢培·朴智仁(동군산), 金奉德華·梁海性·趙南薰華·趙誓願行(만경), 姜聖然·余養眞華·趙慧明·黃仁商(서군산), 양선직·이인권(서천), 高亨均·金貞禮·李日省(술산), 金成蓮·朴濟薰(장항), 金仁田·朴允明·張萬哲·張晴峰·崔義然華(화포).

〈남원교구〉 康明恩·權忠信·金起貞·朴慧源·陸慧圓·李明出·全順一華(관촌), 權滿仁·崔貴慶·崔在聖·崔興化(금평), 李眞貴·許三之玉·金明哲行(남원), 양선도·李愛恩·李宗範·朱聖悟(남원중앙), 安惟眞·鄭樂馨·崔賢仁華(보절), 金水善·金圓局·金正谷·安亨善(산동), 李大中華·張景鍾·朱明守(산서), 金如義行·金志正華·盧宗南·朴明圓(수지), 權正薰·金貴珠·金順亨·林良煥·全在誠·崔道正·崔聖子·崔眞貴華(순창), 朴聖德·李德根(아영), 姜德智行·金修日玉·金宗勤·金慧碩·盧光明華·申日昌華·申堯順華·安眞常·張常姬·鄭德善·崔英姬·黃元信(오수), 姜一新行·金瑞中華·朴時正·朴英明·朴雲聖·朴元申·朴自動華·白瑞峰·李泰和·趙局眞(운봉), 李智正行·梁海天(인월), 姜明珠·金正觀·文明熙·沈其圓·禹慈法華·李英照(임실), 金施恩·丁其爽·崔眞性華(장계), 金雲永·梁濟福·允哲眞·崔恩慶(장수), 孔再城(청계).

〈대구교구〉 金道行·金誠實華·李敬祚華·李常德·李龍源·李用仁·田大覺行·韓性悟華(경주), 金勤直·柳聖雲·姜起賢·金善直華·金志華·金孝誠·朴其圓·朴聖恩·朴靈明·徐圓亨·孫妙現·安正善·吳善貫·禹恩正·柳常眞·李源心行·李恩炅·李晶宜·林道弘·林貞茂(구미), 金兌蓮(군위), 李修練·張至善華·丁道公·黃正模(김천), 高聖宰·琴性月·金道禪·金始永·金良中·金鍾煥·盧和善·朴珠蓮·裴宗信·성대준·吳慶德華·劉道眞·劉安國·尹正運行·殷舜明·李敬悟行·李聖蘭·이승재·李圓一華·張慧尙·丁恩道行·鄭行眞·趙道心行·조희운·崔道鍊華(대구), 權道昌·吳道英(대명), 徐正仁華·朴忠一圓·孫同倫·李明信·李徹圓·林理明·張德海·張圓性·崔敬智(대현), 柳洪日·李道峰·李湖心月·趙良玉·崔經德(봉덕), 朴順生華·朴正達·薛善吉·李成濟(삼덕), 尹容敏·李大光·趙化圓·洪大根(상주), 郭如然·白法恩·尹善徹·李元順行·李慧圓·鄭蓮澤(서문), 權性和·金吉運華·金善蓮·金壽綠行·金仁海

·金宗聖華·朴三出·朴和雲·孫永善華·安濟生華·柳荷慈·林恩上華·全心珠行·崔宗信·河法生華·河清明華(서성로), 文長善·石命祚·宋修緣·宋希聖·李中薰(성주), 金智正華(수성), 權歸性·琴慈德行·金範谷·金壽明·金修性華·金圓局·金慧明華·南修珍·朴圓璇·柳容浩·李明玄·李安星(안동), 金空恩(영양), 金盛現·吳慈恩(영천), 金道信·金忠信·金玄正·陸賢眞·黃章均(포항).

〈대전교구〉 金唯成·金貞信華·우美仙·林長壽華·丁誠喜·蔡敬心華(강경), 宋修仁·韓眞冠(공주), 金敬天華·金永樂華·朴應烈·박지정·安具珠華·禹容碩·李明中·李松筠(금산), 金大哲·김선택·卞舜德·李康玉·李昌敏·鄭濟願·崔善恩(남대진), 金光明華·金祐仁·金永修(논산), 郭文善·金正容·金純廷·金承煥·羅正乘·裴主變·白和正·徐仁正華·成恩淑·오인성·유順道·柳玄文·李鏡新·이시덕·崔元音(대전), 金信興華·朴永權·裴一道明(도곡), 安宗元·鄭光準·鄭仁局·韓道眞(동대전), 全圓照·全正圓(무주), 李友益·李憲誠·鄭妙性(서대전), 심명옥·全賢眞(서산), 金洪慈玉·李元根·張海印·林大允(연산), 姜道圓·姜慧一華(유성), 金鳳玉(제원), 南圓根·朴正信華·禹性煥·李彌靈華·李培根·曹喜泉(천안), 梁惠仁華·鄭英根(추부).

〈마산교구〉 徐玄中·吳妙法華(고성), 朴大幾華·鄭主善(군북), 李德敏(남지), 金相生·金相仁·金修品·金養善·金亭和·金義誠(동마산), 權顯成·金大貴華·金勇振·金慧圓·朴鳳壽·裴蓮興華·孫永恩·鄭福緣玉(밀양), 權慧正華·金願一華·金應培·金正圓·김재광·金中道·閔正和行·박영진옥·宋靈照·辛眞一華·安中圓·尹常源·이성운·李眞源·林觀心玉·林吉運·張聖義·鄭泰吾·朱良珠·崔性悟·崔淨蓮華·韓吉禪(마산), 鄭允定(수산), 姜貞中行·金瑛熙·變世蓮·白圓心行·宋明心·安基德·安明化·李永生華·李泰善行·張性善·鄭仁明行·曹眞勳·千敬天·崔光善·崔宗德華·許仁月(신마산), 甘善振·郭達仁·宋仁寬·梁海淨·吳정희·임문석·鄭誠根(신창원), 梁恩性華·元修明(신현), 金光一·金靈照·白孝順·沈德遠·劉義悅(진영), 金修圓(진해), 金鏡滿·金慈玉·李琪明·鄭學經·崔充修(창평), 具眞玉·全碩允·全柔奉·黃永恩(창원), 姜亨蓮·金明喜·金永明華·金仁修玉·文道榮行·朴正言華·朴淨蓮行·柳正圓·尹戒信·尹德心華·李無相行·李晶昱·李統制華(통영), 南靈善·宋大哲華·安定修華·趙德明·趙悟敬·金南田(함안).

〈목포교구〉 吳正行(도립), 姜善正行·姜至誠華·郭恩光·金光舜·金道光·朴正道行·朴賢正行·張均濟華(목포), 高奉圓·金明圓·吳止安(무안), 金聖恩·朴圓礎·李培其·曹明德華(불목), 金東仁·張水淨(서목포), 金養順·金慈仙·張大哲行(압해), 金性運·金賢心(영암), 金經珠·金圓成華·朴明淑·朴正眼·朴厚正·方法佳華·徐敬仁(완도), 金善忍華·鄭舜一華(장산), 李和貞·崔敎錦(해남).

〈부산동부교구〉 文信成·朴英妙·朴孝允·李道恩·李無念華·李弘誓(거제), 甘聖珍·金春順·金孝源·李達運·李布施行·趙正善圓·韓智完·許眞萬·朴蓮公(광안), 金汝信·金正道華·安恩昭華·梁智眼·李道公·李道雄·李玄珠·蔣圓珠·韓機中(금정), 金鳳蓮·金善施華·金惠德·崔敬仁(기장), 朴修定·申聖佑·韓京眞(남산), 姜正信·鄭圓珠(남울산), 金正謙·吳正善·李善貴(남천), 姜順受華·姜仁守·具有慶·金寶井·金聖權·金性一行·金靈月·金鍾鮮·朴孝明·李靈智華·李喜榮·河大殷華(대연), 高曉田

·郭明寶·金大圓覺·金珍貴行·金眞寶華·朴慶曦·우대연화·李善美·張法印華·蔡理明·黃指空華(동래), 白淨德華·趙眞局·河聖教(망미), 白圓信(명륜), 朴地德華(문현), 沈英鍾(반여), 金道一·崔淨江月(부산사직), 辛命根(서동), 郭大練·金容眞·朴慧寬·孫聖妙(석포), 孫修專(안락), 金玉鉉·朴積善行·양만철·吳照靈·李順圓·林緣深華·鄭樂園華(양산), 金大蓮華·金永者華·安守明華(언양), 權眞敬·崔至善行·許志淵·권석진(연산), 姜洗賢·金善德華·沈東仁華·張滿志華(온천), 安正局·李希求(용호), 具德行·金慶浩·朴斗星·禹惠實·李聖斗·李世益·李慧仁華·河後錫·黃光善·黃恩振·許鎔(울산), 金修德行·金順正華·徐中和·宋淨業·宋進福華·梁興仁·張一眞行·河正熙(해운대). 〈부산서부교구〉 權衡中·金馨珉·朴三受華(가야), 徐性運(괴정), 金光一行·金德殷·金東泉·白希宗·安好景(구포)·金吉養·金萬重·金善明華·朴世月行·朴正權·王萬行圓·李鍾彬·崔眞誠行(김해), 吳眞和·李大源·李善寶·李盡性華·崔奉恩(남부민), 文普香·朴柄烈·朴大一性·朴眞理行·徐誠熙·尹俞和·尹理衆·李九品華·韓貴奉·韓慧性·黃運正(다대), 金普運·徐仁述·沈大欽·李同願·李明德·黃濟雄·林玄機華·金峻泰(당리), 金德田·金法壇華·金善玉·金正勤·盧通心行·朴椿植·薛仁修·慎積德華·沈道純·沈良峻·李甲(德)善, 李性鏡·李性天·全(錢)義德·鄭法地華·鄭相均·鄭九哲·趙聖然行·趙仁慈行·崔孝淨·河泰元·韓景恩·許時圓行·朴順德華(대신), 姜善中·姜圓碩·姜正生華·康智信·姜護聖·金萬行華·金鳳接華·金三忍華·金聲濟圓·金善順·馬道根·朴順亨·朴現旭·白元淨·徐圓道華·石敬法華·成榮熙·孫敬德·宋敬圓·吳正修·尹周運·尹昌現·李明心玉·李法熙·李三大圓·李璋吉·李正忍·林濟順·張貴振華·張賢馥·鄭東善·鄭法明圓·鄭永壽華·趙鏞聖·曹練性華·趙清如華·午濟浩·崔富圓·崔性光·崔蓮育·秋明寶華·韓眞敬·金共鳴行·林清菴(부산), 甘聖珍·高潤道·具慧眞·金貴德華·金萬有行·金明源·金鳳仁·金眞觀·金弘淳行·盧雲明·裴中實·孫一正·安因性華·柳永眞·尹安宅·李慈得·林吉慶華·田峯淑·崔樂性·崔智仙(부산진), 朴常仁·李常仁·崔尙法行(사상), 金公源·柳永益(서김해), 姜瑞日華·姜善明·金桂淵·金熙英·朴信徹·朴仁眞·徐恩德華·安修宗·梁基泰·梁達玄·李性浩·張濟象華·鄭明蓮華·鄭恩荷·趙偶玄·曹海連·河善福·韓道成·黃星天(서면), 金碩培·金珠生·金進禪·金昌仁·朴眞綱·吳仁明·李修安·林恩宗·全伊淑·趙道春·趙永夫(양정), 盧濟天·李二永·鄭道心·정일명·朱一月華·河永道華(영도), 裴正珠·李敬信華(영주), 姜同德華·金法雨·文仁謙·成忍相·李貴綠(전포), 成道國·孫和榮·李大河·全惠星·曹仁寬(청학), 姜安基行·具道恩·權圓宇·金道林華·金文天·金哲眞·朴啓進·朴成秋·朴順道華·徐聖悅·石仁旋·尹亨錫·任拜席·崔雲門·金必然·李大石(초량), 鄭明旭(토성).

〈서울동부교구〉 金平淑·朴連貞·李慈正(가락), 金周仁·朴性眞·柳常德·李馨順·許仁明(강동), 南法經·宋京恩·鄭東恩(구의), 金龍善·金在亨·박도형·朴德田·張法仁·李中信(도봉), 姜度正·姜炳善·金明哲·金慈源·金泰恩·南宮仙鶴·모인경화·朴大鏡華·朴明順·朴宣觀·朴悟聖·申戒淑·吳奉圓·吳天眞華·李景化·李性理華·李修宗·李悔心行·林瑞雲畫·張致安·鄭永碩·趙性琢·趙賢明·崔善明華·崔香勸·崔和蓮·洪基徹(돈암), 韓獨哲(동두천), 韓獨哲(면목), 嚴正仁行·金圓揚·李徹圓·崔眞學

(방학), 權眞煥·金永善行·金香元·朴道一行·白殊勝華·安覺孝·安在圖·李璋吉·田虛圓·鄭道亨·咸正潭(사직), 金廣道行·金徹圓·洪圓實(석문), 金濟薰·李大法王·全海景(성동), 金桂庸·金道源·朴大坪·裴正盧華·梁福順·尹煥圓·李玉善·任芸賢·張圓中·鄭原明·鄭圓吳·河仁初·黃潤善(송천), 姜信明·郭培現·金基誠·金正德·金住賢華·金亨道·金桓觀·南道現·朴舜性·朴施炫·裴明全·白蓮中·蘇敬澤·宋法悅·宋賢性·申德田·梁慈圓華·柳清恩行·尹靈壽·尹慈潤·林永觀·張統一華·鄭亨元·曹恩德·曹千善華·崔喜恭·韓道光華·洪錫圓·林貞觀·朴圓一(원남), 金鍾煥·尹基昌·李鏡心·李氣安·曹明中(의정부), 金道一行·金明佑華·金明恩·金蓮孝·金庸奎·魯聖薰·朴瑞賢·邊英眞·辛正道華·李道俊·林明倫·李善濟(이문), 金道成·金明薰·金正峰·盧時中·吳永世·柳正業華·洪孝徹·黃仁淑(갈실), 高益善·金美眞·金연옥·金圓淑·金和仁·魯安善·文心農·朴重勳·吳行·柳眞景·李萬眞·李靈照·李倫俊·張太眞·全天一行·鄭勉修(전농), 金恩河·朴耕耘·朴貴南·朴孝善·成振萬·吳惠明·李晉恩·李正心華·張基局·張道永·鄭成眞(정릉), 姜希揚·金華·金心月華·朴妙善·朴悟蓮·裴連燮·宋永燾·李仁教·曹景曦·河聖權·黃瑞日(제기), 高道經華·孔聖行·權道林·金道月行·金淑仁·金圓公·金裕淨·金正覺華·金貞烈·金昌吉·金昌日·金天命·金慧福·朴樂善行·朴聖心華·朴性眞·成正德·蘇巨秀行·孫蓮旭·孫清音·신純眞·辛泰義·柳修德行·尹慈善·李萬英·李明眞·李法眞·李正修行·李正陽華·李眞境·李和行·林道根華·鄭東圓·鄭發願行·鄭昇圓·鄭英仁·鄭裕範·趙明淑·許法倫·許成龍·洪泰恩·黃顯根·黃智亨·黃昌煥(중로), 權貴植·朴敬善·朴明德·李聖薰·李致緣·崔聖贊(중곡), 姜孝英·高在烈·金公圓·朴善一圓·朴玄石·成圓明·宋公明華·申海順·呂蓮心·柳天順·李光源·林如心·黃惠明(중구), 高中安·金道眼·鄭光輪華·鄭靜安(중화).

〈서울서부교구〉 高永讚·金明修華·金三慶·金誠溫·金현경·金慧俊·申石蓮·申正根·吳明照·吳慧星·殷成正華·李公德·李修道·李恩植·李현행·鄭圓京·洪범중(강남), 姜修勳·金素悅·梁淑華·禹宗鈺·全心生華(강서), 郭鏞大·金恩瓊·申仁頌(강화), 金修圓華·朴慈仁·柳德源·韓圓道華(개봉), 金英宗·吳敬一·宋同荷(개포), 姜誠英·姜練淨·金永洙·裴明根·李智恩·李智薰·鄭道現·鄭順德華(공항), 金善業·金仁壽玉·金주덕·金華峰·金曉聲·朴修仁華·吳賢眞·柳心根玉·柳海益·趙圓明華·韓明福·구명화(구로), 金明道·金明心·金鳳仁·金慧善·朴仁玉·辛수원·任惠根·曹圓澤·韓道興·沈建永(남가좌), 鄭台元·千妙一行·洪志俊(남서울), 金玉琴·都宇鎮·愼圓宰·李道敬(대방), 金英正·金千壽行·成圓燮(대치), 金重烈·안성도·洪範益(마포), 曷혜연·金和倫華·徐玉眞·南法雲行(반포), 孔德天·金道明·金海仙·金曉明·朴道峻·朴道天·朴洪烈·배찬희·邊慧圓·오남인·吳是眞華·柳仁德·柳淨明·李無常華·李尙文·李進永·林解願·張圓一·鄭善榮·曹中七·崔三德·崔證道華(방배), 金眞月·成永興·宋萬鎬·安淵道·梁修正·吳用德·朴安定行(불광), 姜斗文·金明德華·金永學·金正德行·金正修華·金正日·金慧心·盧孝明行·文明心·朴貫機行·朴魯珠·朴大植·朴東順·白萬德花·卞圭元·徐三輪·成法禮華·宋南眞行·宋明道·吳樂道華·吳恩信·尹普賢華·李明賢·李性淵·李永陸·李圓局·李圓養·李庸執·李淵局·李仁珠·李淨信·李正義華·林宗旋·張敬廉·鄭德善·鄭哲仁·陳泰亨·千日德·崔達

眞·崔法妙行·崔庸安·朴圓基(서울), 李恩慧心·李宗圓(서초), 金光淑·金誠根·孫道進華·李靖孝(시흥), 권경덕·金德圓·金明善·金仁圭·金慧眞·朴性吉·朴中正·李仁德·張德宣·鄭明淑·鄭良宗·陳喜圓·蔡敬圓·崔靜柱·崔賢仁·洪始元(신림), 郭志善·金鳳蓮·金庸陶·金濟養·金和正·申聖恩·愼聖浩·安孔明心·安善相華·吳昭圓·禹宣德·李明智·李永實·李中達·李中誠·李中恩·張善敬·張平均·張慧眞·崔永道華·崔春景·韓明潤·洪濟薰·黃樂仁華·姜正才(신촌), 姜基現·구性敏·金根修行·金德權·金守仁·金正心月·裴慈源·宋善敬·安光潤·尹慈信行·李智山·韓公禪·許玄發(여의도), 權妙賢·文泰淳·趙法慈(역촌), 姜雲德·金仁善·金海貴·金慧珍·朴善德·朴禹敬·申仁淑·辛堯舜華·李湖潤·趙俊熙·崔峽蓮·洪性運·崔哲性(영동), 金如雲·朴光南·李普德·玄圓德(영등포), 김경진·金明宣·金永宣·金正甲·安聖心華·鄭貴恩·鄭순화·車規哲·金一南(원효), 金景淑·朴春華·方善福(은평), 羅賢淑·朴義奉·朴仁基·成仁權·安貴學·張信香·陳相恩·陳完主華·車理明·崔眞一·河時現·鄭奉淑(홍제), 高大願玉·金敬德行·金大成·金輪運·金正心·金中善·羅光源·南妙仁華·裴道貫玉·吳敬信·劉南根·俞圓一·李聖德華·李允誠·李仁甲·金光圓·張希善·曹世型·崔鳳翼·黃信誠(화곡).

〈수원교구〉 金保任圓·陸哲(과천), 魯必洙·李法恩·趙珉淑(동안양), 金道明華·金成仁行·金五福·朴基洙·柴潤基·尹智圓·李修亨·張中根(부천), 李賢行(부평), 盧賢德·柳淨行·太彌陀華(성남), 金美地華·金圓稷·羅施恩·朴勤道行·朴德秀·朴行圓·安世經·吳允聖·李度梵·李法惶·李秉恩·李銑心行·李靈澤·崔耕徹·崔修賢·許宗文(수원), 金恩性華·安正圓·鄭圓裂(안산), 郭法信華·文世賢·安聖鎬·李信宗·崔在仁·洪道圓華·張法印華(안양), 경호연·吳榮基·尹性悟·李圓鏡(악대), 姜德俊(이천), 吉恩常·金京宗·金正恩·金智一華·金弘圓華·염眞源·申有珍·李成根(인천), 姜南媛·方永慶·徐仁德·梁明官(평택).

〈영광교구〉 金妙現·金舜貞·金恩施華·文學照·李道祥華·李道心行·李勝運·鄭聖海(군남), 金圓局·文耳順·安白然華·李喜仁·張明度·田德煥·卓貴眞行(군서), 金修德華·邊施南·張慧曄(대마), 金和員·鄭成煥(덕산), 權修哲·金公安·朴允宗·梁永完·李恩진(도양), 金聖福·朴圓求·白智明心·邊天性華·李鎬正(문장), 金福玉·朴基善·辛如眞華·吳倫植·李正說·張福實(백수), 朴修徹·朴容善·崔淵眞(법성), 金聖旭·金如德·吳慧正·李順性·丁德水圓(불갑), 李清恩(신광), 金大永·金在明·朴鏡照·林妙有華·朴淨業(신흥), 宋義奎·鄭道均(영산), 金文局·金蓮信·金貞實·金濟信·朴靈明華·朴慈仁華·朴亨南·徐順基華·申又圓·張龍智玉·鄭泰源·曹恩中·池鳳順·崔緣悟(영광), 김옥전·金玉天·朴祭丑·吳明根·張聖庵·金兩華(영산), 張鳳烈·丁一權(왕촌).

〈이리교구〉 朴慈成·朴和庸·李普明華·張信妙華·崔瑞信行·朴成鏡(금마), 金仁慈心·朴德修華·柳妙根華·殷裕順華·鄭好眞(김제), 金景姬·金法衆·金永達·金智(眞)仁華·朴德濟·朴主圓·朴惠善·裴德明·裴義洪·尹恩性·李歸敬華·李俊基·張大錫·張永主行·全敬仁·丁道振行·鄭慧淑·韓清源(남중), 鄭大善·鄭義眞·鄭天壽華(도원), 高濟局·金法金·金悟碩·朴起德·朴正完·徐主圓·李世珍·張景德·趙原準(동이리), 金萬行玉·金仁性·申益賢·沈南勳·崔東宇·洪萬行(단성), 金圓鏡·김장신·李順明·

鄭恩雨(모현), 朴濟心·李동은(문화), 金道均·金一住行·徐明秀華·李文基·任晚德華(봉황), 姜正慈行·朴淨志行·徐大輪·安一定·오민진·李泰純·趙智賢(복일), 金寶馨·吳義天·李性田華(삼성), 金恩信行·盧智馨·安允善·安慧眞(서이리), 金聖仁行·沈仁觀·李道性·李柔鎮(신통), 李道正·晉玉泉(영등), 金원경·金仁根·朴權厚·李화순·장현근·崔明權·黃亨石(용신), 金上賢·金雲庵·朴光明·宋敬護·宋仁鎬·李法峻·張明輝·丁應文·金普馨華·趙東悟(원평), 姜香德華·權永貞·金萬全·金碩圓·金元法華·金亨信·文連彬·朴精進行·朴濟翁·徐仁空·宋永眞·辛慧一·吳安樂華·柳貴緣·柳錦蓮華·柳修玉·柳哲信·柳春英·尹寬仁玉·尹夢覺·尹信澤·李建震·李基善行·李福性·李演敬·李潤玉·李知淑·林星淑行·鄭恩舜·趙道圓·崔道林·朴淨志行·金出塵玉(이리), 姜洪淑·金有德·金允中·金昌洙·金妙雲·金如仁華·文唯一·朴道院·손세환·孫悟心行·李元葉·李琪鑽·李大理行·全德眞·朴正失行(익산), 朴正根·鄭法道華(합라), 裴援淳·朴興運·曹海萬(합열), 金瑞雲·崔緣德·許心印·黃利馴(황등).

〈전주교구〉 金德心華·金法氣華·金善佑·金中道·金現行·金和信·文仁常·朴善益·朴孝順行·白國現·楊奉圓玉·梁明恩·梁成和·柳德明·柳仁清·李主善·趙德田·崔鶴林·許德華·許誠中·姜賢哲·金柄淑·吳順貫(교동), 金無量心·羅成允華·朴權範·李富道(금구), 金眞性·宋慧連·楊賢成·李道球·李智輪·全圓心·崔春善(금암), 梁平寬·吳禮源·許永浩(노송), 權同仁·權純一華·金行善華·朴靈初·白清真行·安永明華·尹悟緣·李正氣行(덕진), 朴正愛·徐永明·尹濟德·張眞榮·鄭耕雲·崔重觀(등산), 高明良·金淑英·南英教·朴承仁·朴慧中·安聖優·李正善·李慧性·曹法蓮·崔永信行(동전주), 金德賢·金自由心·朴富局·宋三中蓮(華), 柳眞明華·李善經·李誠徹·全玄道行·崔寬淑·崔奉運·崔春亨·韓慈是華(마령), 朴玄文(백운), 魯雨利圓·楊珠明華·吳弘寬·尹輔仁·宋虛實圓(봉동), 姜三德·金德潤·金聖法行·金聖學·金清蓮華·朴妙明心·白智權·李道禹·李鳳緣·李誠心·崔德修·韓仁淑(삼례), 郭蓮雲·朴容淵·朴智源·徐慧恩·孫濟仁·嚴亨燮·崔永圓華·陳仁澤(서전주), 李금연화(송학), 宋南眞·李圓敬·李圓庸·李有煥·李仁德·全恩宗·洪城中(수계), 金安明華·任明逸·韓度衆·許東安·黃道心(안천), 金善觀·金聖川·宋榮仁玉·申寬心行·安淨靜華·李景彩·李裕勤(인후), 姜能子·姜誓圓·姜修源·강정신화·奇運一·金聖模·金靈覺華·金勇仁·金容勳·金仁英·金正權·金眞心行·金知倫華·金興權·金喜哲·朴敬愛圓·朴文德·朴靈晏·吳和一·李恩淑·李鍾學·鄭達淑·鄭和圓·鄭良道華·崔萬守華·최정란·河進行·李圓輪·柳海日(전주), 金童文華·朴希蓮·安敬信·李全玉(좌포), 高孝恩行·權佳賢·金善基·閔福萬玉·朴菩提華·朴允眞·辛濟明·오신도행·尹利貞·丁常德·丁相信·최然友·秋智圓心·李大日華(진북), 姜啓文·郭眞福圓·金珍丘·安世淨·元培玄·全眞心行·崔學鎮(진안), 姜貴仙·金清陰·柳淳敏(팔복), 金聖化·金正心·서도중화·宋道永·송정용·柳德熙·尹修心·李心富玉·李定禪(평화), 李道善·陳萬音·趙榮智·許法均(효자).

〈정주교구〉 金仁正華·金玄郁·吳雲洲·李舜珠·張眞一華·黃仁珠(감곡), 申蓮華玉·李麒賢·林圓德(고창), 金貞明華·李聖權(덕천), 朴柔眞·殷賢哲·林大受行(무장), 金德浩·李義圓華(백산), 金聖

圓(변산), 金南永華·金法宣·金福眞·金雲露·金玄子·金玄珠·白晶岩·宋無窮華·辛順永華·安理慶·李明倫·林青圓·鄭性田·趙戒心·黃永安·黃正業華(부안), 金報恩華·金曉明·韓曉然(소성), 孫道心·柳德敏·柳玉明心·柳昌浩(승부), 宋雲根·李修道行·柳孝田(신태인), 姜信用·朴永眞·尹致亨·李妙石·林光信(용각), 洪貴仁華(이평), 金正天·金理明(장학), 高萬恩·金錦仁·金常恩·金時仁·金良心華·金運信·金慈正·徐仁春·申瑞旭·辛貞安·吳瑞日·吳順寬·柳慈敬·柳助道行·柳煥珠·殷文明玉·朱修德華·陸賢眞(정주), 權濟性·南石浩(초강), 權奇安·金舜五(칠보), 金道俊·金重烈·梁敬仁行·柳南周華·韓玄境·洪明峰(태인), 姜聖元(해리), 金根玉·任相生華·鄭仁敦(화해), 金賢壽·李準和(화호), 具禪佑·金覺性華·金貴賢·金和明行·朴誠智·安聖安(홍덕).

〈제주교구〉 辛明濟·李蒼帆(남원), 李弘照(도순), 元善瑞華·柳寅植(서귀포), 李三圓(신제주), 姜忠薰·金道政·金義澤(애월), 金善報華·金正心·金濟圓·金慧蘭·梁和善·黃敬圓(제주).

〈진주교구〉 郭圓善·李仁德華·崔心正華·崔仁慈心(남해), 權修練行·李正根(동진주), 姜性天(문산), 姜蓮玉·陳光天(사천), 金研道·金正峻·馬宣公·孫恩性(삼천포), 李精明月(서진주), 金道然行·朴福源·李成均·趙東成·崔眞智行(용암), 李南仙·韓仁德(의령), 朴守圓·李曉聖·洪純根(지곡), 金方圓華·朴持戒華·李惠瓊·李永信行·鄭明哲·諸良德·曹敬圓·朴道日·河如謙(진주), 朴惠德·조光心(하동), 盧貞順·趙大中華·許大順(함양), 姜保聖·權養德華·卞護法華·尹敬舜(합천).

〈춘천교구〉 李孝仁(강릉), 金敬恩·朴敬恩·邊重哲·周仁主·池海源·韓周恩·洪萬禹(남춘천), 高正倫·林奉恩(속초), 李禹賢(원주), 金晚歸華·南基順·朴大光·朴性徹·沈大荷·吳知正華·吳賢寬·劉天性華·尹聖蓮·李恩慈華·崔連中(춘천), 權大眞·金弘碩·都正德·洪清淵(홍천), 吉道善·金亨仁(화천).

〈청주교구〉 李宗法行·黃貴德行(괴산), 趙道清(북청주), 權至恩·金基全·安正信華·李道修·黃河倫(서청주), 金聖仁·朴道心行·白明修·卞妙智行·梁誠俊·吳忍常·柳昌順·尹鍾道·李法寬·林永壽華·崔相貴·崔性安·洪珍寶行(청주), 李順和·李圓慈(충주).

〈해외·기관〉 金培養玉·金成學·金彰奎·金湖成·朴大仁覺·朴用玄·朴仁實玉·송도영·송정호·辛明道·沈性眞行·鄭奉圓玉(뉴욕), 權妙有華·金福慧·金修宗·金正行·朴孝德·裴春信·李法界華·趙慶哲·郭溫中·金應慈華(해외), 姜仁和·權義眞·金公勳·金金眞·金善敬·金聖勤·金聖川·金成和·金熙俊·朴庸信·朴慈源·夫世勳·宋大恩·宋貞寬·신지섭·柳法珍·柳眞明·李普榮·李潤玉·張圓覺·張正說·鄭福月·鄭秀源·정정진·鄭和勳·鄭眞根·崔南眞·崔眞慶·河聖奉·김현재(정토), 洪德和(이리수양원), 金敬圓行·張大順(원광요양원), 姜順道行·金道知華·金施元·金昌權·羅明眞華·閔枝熙·朴慈善行·安寶賢·梁德行·李福眞行·李上福圓·李順厚行·林英達·金行道·鄭如淑·曹良元·趙仁善·許德雲·鄭世月(중앙수양원), 羅明珠華·盧濟完·朴仁知行·송기심화·宋孝恩·梁演濟·유경자·柳要知華·尹慶福華·李炳恩·李聖經·李순덕화·장정은화·全熙明·鄭正是月·趙大中華·탁동선·韓道貞·許本性華·許順命華(진주양노원).

정 5 등

〈광주교구〉 金聖益(경면), 文性慶(곡성), 高三禮華·高永道華·金明烈·金性仁華·金龍國·金正和·金亨明·魯運智行·朴俊圓·신공량·梁一珠·梁貞希·吳淨河·魏良恩·유원정·柳正權·李道宗·李亨水·林勤淨·張眞鏡·全歸純華·全本性華·鄭敬信·鄭光明行·趙大成華·崔法性華·許貞允·黃圓滿·金震宇(광주), 郭法淵·金進權·南無任行·馬應天·安中根·安孝德·柳澤秀·尹宗秀華·李善鏡(구례), 金回心華·李蓮昌·趙賢淨(나주), 金樂天·金眞明·李眞孝·李徹眞(남광주), 高亨善·金智淳·尹元春·李濟實·林孝根(농성), 金頌德(담양), 朴景朗·朴慶眞·李奉明·鄭喜敬·이재생(동광주), 金利圓·朴善運·安賢敏·尹榮心·李仁德行(동순천), 金性潭·金精一行·王聖淳·張妙心華·鄭仁道(동원), 金敬信·金主仁·朴歸性·朴善敏·梁東明·李眞堂(득량), 朴海宇(보성), 金福榮·吳仁正·柳誠敬·鄭道源·韓慧日(북광주), 鄭玉珍(사창), 李圓燦·李孝根(산수), 金養眞·金一淨心·羅成玉·盧正心華·朴慶援·朴明希·吳仁性·柳寶烈·李見性華·李法眞·李頌德華·張法成華·鄭佛心華·鄭宗鏡·鄭哲宇·崔正道華(서광주), 조길수(송정), 金吉性·金順正·羅仁局·朴慈恩·李春鳳·최지윤(순천), 姜壯德·金善明華·朴公正華·裴正文·宋道敏·梁馨達玉·吳信烈行·尹泰然圓·張圓濟·丁修瓊·崔三信·黃清俊(여수), 金慧日華·朴精勤(장성), 李永恩·黃琪石(창평), 許在定(광주).

〈군산교구〉 姜相濟·高聖慧·高淨浩·金啓正行·金道現·김형권·南大敬華·朴濟廣·白圓輪·宋清峻·尹信英·李茂善·趙信勝·蔡精善·崔允英(군산), 具明仁·金法仁·金慧勳·이정인·鄭佛明華·鄭智明·崔法藏華·李容淑(남군산), 郭天宗·杜晚德(대야), 柳仁哲(대천), 金智閔·柳香善·李允敬·林道悟·黃上根華(동군산), 姜甲現·高光善華·文誠眞(만경), 高佑慶·朴正修·宋仁奉·吳圓道·全重慶·李學徹·王善明華(서군산), 金道仁行·朴守貞·宋恩慶(서천), 羅局一·文周仁(술산), 李聖勳(임피), 徐貞禮華·安慧俊(장항), 金長忍·朴養業·崔惠星(화포).

〈남원교구〉 姜春滿·朴金蓮·李智薰·李薰一·全惟一·崔大淵玉(관촌), 張範局·洪柔謙(금평), 孔順益·文用德·梁玄順·柳宗碩·李芝安·太眞洪·安貴緣(남원), 金法住華·金心玉華·金義變·劉貴奉·崔大舜(남원중앙), 高春生華·蘇眞實行(보길), 金慈德·晋相春(산동), 姜英日·姜理成·宋永住華·禹禹仁·柳亨基·張妙一行(산서), 金如眞·金眞南·徐秉權·梁主南·李大心行(수지), 金道權·尹普善·林善妙·林孝順·朱道善(순창), 孔大性行·朴兩根(아영), 金善龍·金靈峻玉·文明順·설원섭·梁道眞行·오화일·李修現·林淨仁(오수), 文法薰·朴長現·廉貴善·李時運·林功勳·趙正敏·崔大明玉(운봉), 金成田·朴正恩·李濟生(인월), 權春景·金永順·金仁珠玉·梁賢正·吳正樂·李蓮道華·鄭大赫·晋聖一·車法輪華(임실), 金成願·金正順·李緣信(장계), 金炳玉·柳仁谷·李明仁(장수), 金壯仁·尹奉德行·丁聖功華·崔如重(지사), 金圓空華·文慧緣(청계).

〈대구교구〉 金敬信·鄭仁月(경산), 金淑圓·卞道成華·徐承圓·李圓澤·崔德雨·許世蓮華(경주), 李貞修(군위), 金道德華·孫大性天·李誠善·李淨德(김천), 奇正教·金道心圓·金秀完·金圓心·南正明華·裴相局·白眞性華·邊有美行·徐淑仁·徐眞虛·嚴順頌·柳敬心行·유순명·尹成圓·李元昌·李宗王·

林浩宗·金英修·崔眞源·李正善·趙恩慶(대구), 徐德眞華·鄭貴善(대명), 金奎眞·金宣貞·金義正·成仁薰·孫正德·洪敬蘭·崔祥恩(대현), 김낙경·金忍勝·李平慈玉·鄭智環(봉덕), 金亨法華·吳敏仁·李成華·車仁元·崔善生華(삼덕), 金素養(상주), 金聖鍊·金眞覺華·朴正蓮·李眞行·鄭淨守(서문), 南東和·朴晶烈·俞尙浩·李保任華·李時現·李正悟·張守仁玉·趙奉德華(서성로), 金機正(성주), 金法仁(수성), 琴修田·金仁平·金慧運·朴道賢·李順道華·李永德華·李平心·全萬修華(안동), 李守哲(영주), 朴德圓華(영천), 金仁宣·申賢均·柳允賢(의성), 高忠圓·張濟圓·張圓濟·趙充善(청도), 崔敬心·崔法成華·河清仁(포항).

〈대전교구〉 金俱空華·金慧心·王善美華(강경), 李梵志·千月券中(공주), 李馨圓·鄭正福華·李正心·李緣喜·申大道華(금산), 金靜得·朴香淑·安相和·全永寶玉·鄭仁正·皇甫恩淨(남대전), 李南薰(논산), 郭緣善·權眞禹·金淨明華·金性煥·南明恕華·成道燁·宋善英·오희택·柳大道華·유숙정·鄭善學·車性勳·崔允正·崔玄道·許仁田·黃雲珠(대전), 崔元承(도곡), 金道月·裴恩圭·孫德心·沈道進行·李秀賢·지정득·崔善珠(동대전), 姜圓河·吳修賢·黃善道華(무주), 姜赫宙·金明實·李正基·林松圓·崔德常(서대전), 高大圓行·朴榮珠·安昌順·李德恩行·李龍煥(연산), 李敬天(영동), 洪敬善華(온양), 金妙善行·金和仁·羅賢中·朴聖心·張大順(유성), 金慧田華·朴賢琦·任敬寬(제원), 姜壽仁·吳敏性·李圓正·趙水蓮(천안), 朴定基(홍성).

〈마산교구〉 金成和·金恩寬·車其鮮·崔鳳恩·崔聖奄(고성), 李眞善(남지), 李眞英(동마산), 金容敬·金正恩華·朴至誠華·李聖常·金吉善(밀양), 郭義心·金敬德華·金光恩·金妙覺華·金性泉·金永眞·金喜權·文正信·朴世植·潘敬時行·신원일·심효원·李蓮台華·이천식화·鄭惠權·趙性和·曹圓道·조정진·池隨器華·崔明光·韓德宗華·許允珠·許仁涉·李靜明月·沈明玉·張德養(마산), 權修淵·朴曉鳳·宋命天·林大正華·林解願(북산), 金彌陀華·權正心華·吳玄修·俞光眞(수산), 甘恩仙·朴曉悅·李南濟華·趙清圓·許仁田(신마산), 朴善仁·朴養仁·李然淑(신창원), 宋敬信(신현), 盧용진(의창), 朴正完·白正鎮·禹慈靜·鄭明俊·朱順正華(진영), 魚哲薰·魚海源·鄭南現·崔榮吉·金眞性華(진해), 郭承蘭·辛日新·조常樂華(창평), 金孝仁行·朴修眞·徐徹圓·李善東華·全仁福·朱仁德(창원), 具昌運·金法經·金陽德·柳敬圓·尹智福圓·李養德華·諸道慈·趙普明玉·曹永德華·韓寶雲(통영), 宋奉圓·安修福·趙潤明·趙眞希·周蓮日堯·李壽蓮華·李誠道·李聖勳(함안).

〈목포교구〉 朴善貫·成一敬·安慧現華·尹信法華·鄭琦圓(목포), 金維慶·申完基(무안), 金宗南·朴敬心行(불목), 朴賢公(서목포), 金法施行·朴亨根·鄭信敬(압해), 金仁德·鄭泉喜·曹宗珠·黃靈實(영암), 金德奉·金允圓·朴信明·朴學禪·吳鍾弼·李務賢·李恩和·李華命·崔弼圓(완도), 金善明·張道淳·崔恩修(장산), 金敬恩·安正圓(해남), 宋在圓·崔得善(현화).

〈부산동부교구〉 孫道昌華·鄭善榮·鄭俊明華·朱昇玉(거제), 鄭振碩(구서), 姜光遠·金誠心·金蓮心華·朴道眞·曹心月華·玄聖學(금정), 金禪岩·金希施玉·林正天華(기장), 李圓柱(남울산), 金誠大·金姬妍·鄭公和(남천), 金報施華·閔道正·朴主敬·朴清淨華·徐賢淑·孫悟常·辛桂連·安法性·鄭

荷策·曹三寶華·曹恩中(대연), 金宣觀·金良悅·金情心華·徐至願玉·安仁德華·梁寶仁·李大鳳華·李上品華·李信月華·李英賢·鄭仁贊·蔡慧福·秋月明圓·朴妙亨(동래), 金慶大·全允性(당미), 張聖元(명륜), 薛功德華(물금), 金圓澤·朴無住行(반송), 朴慧鳳·柳善船(반여), 朴完性(부곡), 李玲彬(부산사직), 金圓法·李濟仁·張永珠(서동), 文吉仙·薛明善·안정순·李京道·李海龍·鄭貴法(석포), 李賢眞(안락), 金舜福·金玄明華·朴誠明·徐圓景·孫貴哲·張仁親行·鄭純仁·崔圓福(양산), 孔緣明·孔護法華·金一眞行·朴恩心華·林常圓(언양), 金孝星·李戊玄·李法輪華·李日正(연산), 具濟常·金萬空華·文歸正·李敬德·崔蓮修華(은천), 金奉敬(용호), 姜圓心·文廣惠·朴援用·梁聖一·鄭珍善·趙敬眞·車明性·崔悟鳳·許善明·洪善局·黃裕善(울산), 金順錫·金恩耕·李仁馨·李恩悅·李仁亨(해운대).

〈부산서부교구〉 金淨仁華·金智信·朴甲圓·李道薰·趙成寶(가야), 趙英施(개금), 李智映(괴정), 金光德·朴守一華·朴安宅·朴英法·李天信行·鄭裕求·鄭恩重·崔宗明玉(구포), 姜仁修·金法眼·金性泰·金恩植·都德華·成蓮中華·宋宇良·宋眞究·李明德·李福耕·許淨心月(김해), 權心圓·金明根·孫國恩·李眞忠·朱仁淑(남부민), 金極樂月·金善心華·金定安華·朴彩圓·方大明華·徐大安行·宋道玄·梁悟道華·林道仁·韓堅中(다대), 金樂淨·朴貴重華·宋永恩·安濟善·李聖心華·朴大植(당리), 姜誠願·金慈德·金昌(蓮)連·朴大圓鏡·李圭(練)鍊·李願根·李回生華·鄭恩順·趙圓智·崔淑英·河昌淑·孫貴圓(대신), 金正益(만덕), 姜聖化·高普善·具良根·金慶圓·金寶性·金性濟圓·盧悟煥·盧慧眞·文普綠(現)·朴大德·朴性月·朴聖宗·朴慧尙·徐成佛華·孫妙心華·梁主仁·梁昌薰·余東碩·劉玄拭·李性願·李蓮善華·李正圓·李俊滿·李桓徹·張普益·趙修德華·曹良德·崔崇道·黃機煥(부산), 金起石·金道亭華·金圓極·朴連眞·尹福潤·李歸善華·李大智華(부산진), 趙慈悲行·金英慈行(사상), 金海心華·盧仁馨(서김해), 金度圓·金普光華·金常圓·金正賢·金正燁·金鍾萬·金平日·朴圓心·朴濟度行·徐忠仁·余成佛華·尹法光·李法淨華·鄭會英·朱愛恩·崔仁昌華·黃眞敬·金梵一華(서면), 裴正男·李仁喆(성지곡), 金孝圓·都成德·朴德明·朴眞永·成大興·王宗德·李賢敏·鄭修身華·曹奎煥(양정), 金法悅華·金守正華·金信心華·金圓性·金允信·朴善志圓·白大振·吳大蓮·柳聖心·朱守完(영도), 任梅珍·趙香遠(영주), 강대능화·姜仁善·張法船(전포), 金理鏡·盧船若行·李禹烈(청학), 金聖滿·金水晶華·金現秀·文忠(中)敬·朴聖志行·朴正福·申淨道行·梁慧日·魏成王(珠)·李教善·李普運月·李潤眞·李和中·林春意華·鄭德現華·秋露運·卓正圓華·具性敏·金淨心月·孫道眞華(초량), 金耕心(토성).

〈서울동부교구〉 金南圭·金慧輪·權道仁(가락), 文善度行·李華慈(강동), 金承明華·金弘田·朴仁宗·柳舟賢·張雲貞(구의), 裴道勤·蘇善道·李善萬·鄭中玄(도봉), 金順性行·金仁義行·金眞碩·金清淨華·朴順善·朴正甲·朴海碩玉·梁宇田·鄭東明行·曹大心行(돈암), 金慧眞華·趙南貞華·崔獨眞(동두천), 金慧眞華·趙南貞華·崔獨眞(면목), 柳瑞允·李道良·崔貞淑·黃仁熟(방학), 金承圓·徐慧蓮·李樂圓行·鄭賢仁華·崔妙明華(사직), 徐妙蓮·鄭恩知華(석문), 吳心正·李鳳然·李堯眞·鄭희정(성동), 權應烈·金孝明·孫純烈·宋慧圓華·李聖俊·趙正德·朱運煥·崔正旭(송천), 姜弘願華·金慶安·金

寶明華·朴性雲·朴施盡·朴正禮·徐淑仁·宋道潤·宋炯微·申貞和·吳正法·李大共華·李東憲·李法緣·李正福·林兩全行·鄭法圓·鄭恩敬·鄭孝眞·趙宗仁·河定禪·韓蓮華圓·韓精擇(원남), 金想源·金宗淑·盧福仁·宋賢秀華·安天真華(의정부), 金善一行·金慧明華·朴崇恩·薛禮善·梁時蓮·禹敬圓·李信心華·李昌理華·林眞成·趙聖敬(이문), 姜道慶華·姜善慶(禪鏡)·姜正福·高千修玉·具聖福·金信圓·金仁成·申容珠·沈練圭·柳三德華·尹慈英·李昌均·張志蓮華·崔舜暎·洪修圓·黃仁順(잠실), 金善眞·盧安國·朴圓鎮·蘇正敏·宋진길·申聖玉·申圓眞·李今明·李智蓮行·李馨蓮·全性蓮·全洪圓·許寬容華(진농), 姜種德華·馬道盛·朴泰正·李蓮鏡·李潤明·鄭誠學(정능), 權修正·金賢悟·金惠眞·朴常進·裴正益·吳聖宗·李光圓(제기), 姜貴道華·金瑞中·金仁性華·金慈賢·金濟信行·金眞根·金賢中·南光祚·朴公淑·裴濟旭·徐修真華·宋興信華·廉昭德·유순정화·李根成·李萬法華·李玄福·趙仁宗華·조정인·池三空華·崔正煥·咸守眞·洪始元·黃道永華(중로), 李德悟·張奉現(중곡), 姜誠淵·姜仁常·權泰現·金在國·南山德·安道田·林大定·林成昊·李聖天·李眞守·李泰逸(중구), 吳壯圓·李法中·鄭禹明·崔精誠華·洪貞恩(중화).

〈서울서부교구〉 姜기현·金德圓·金輔靈玉·金世明·羅惠徹·朴恩中·朴昭妍·徐圓金·宋田圓·宋和田·柳修仁·尹永修·李德烈·李眞英·趙正根華·陳興心·許仁局·李明珠(강남), 姜濟俊·金順性·金俊孝·白德海·鄭賢沐·趙恩植·趙正心(강서), 金東薰·金成和·朴濟榮·鄭成道·泰德明華(강화), 金文殊·金法宣行·金聲徹·文淑映·安道玉·張孝秉(개봉), 高永煥·安聖恩·趙晶善·曹和敬·韓明妙(개포), 金心明·文善福行·嚴報恩(공항), 金奉眞·朴元化·元正淑·趙長明·黃正善(구로), 金賢性·庾正吉·鄭道善·韓敬棹華(남가좌), 吳誠天·李日煥·李正和·林法船·洪志靈(남서울), 신혜인화·安光日·李敬善(대방), 金道亨·金壽仁·金心上月·朴正明·李和榮·鄭規圓(대치), 金大蓮月·金恩石·吳敬淑·李正善(마포), 朴仁英·沈蓮根·李慶日·李道敬·李道常·張一定(반포), 金敬圓·金貴石·金滿信·金珠英·박원제·安性圓·安玄德華·吳濟賢·유청안·李賢出·鄭瑞賢·鄭心慈·鄭良圓·曹鏡現·蔡希圓·우시진화·羅主明華·李愼道華·구성준(방배), 金基正·金晚悟·吳敬德·李春淑·張根原·全宗音·崔妙焄(불광), 姜惠善·孔良蓮華·郭貴安·權性淵·金法田華·金壽恩·金心正行·金圓淑·金裕田華·金正道·金亨悟·羅正乘·朴如準·朴壯碩·朴調然行·蘇貴重華·梁志亨·嚴智賢·尹玄敬·李時完·李海明華·李眞源·鄭尙益·張中根·朱性法·崔吉雲·泰尙眞行·韓道緣·洪法性華·李永福(서울), 金東日·韓聖鳳(서초), 裴仁性·이설정화·李聖局(시흥), 高賢心·孔現在·權慧敬·金光蓮·金基明·金吉善·김대연화·金妙善·김성천·朴純寬·박의연·申根性·沈根子·梁恩善·孝達賢·이상순·林恩中·趙仙行(신림), 高濟燁·金福蓮行·金性烈·盧寬仁·文明旭·裴然正·白智南·徐修德·李培英·李正觀玉·鄭龍得·丁又心·鄭順德華·崔觀音性·洪興法華·金興順(신촌), 金明淑·金修圓·沈正和·李玄實·張慧圓·全碧雲·池善道行·陳令施·許慈·黃厚植(여의도), 高南德·金慈然·金正信行·殷和心行·張在信(역촌), 權基蓮·金金剛華·金善敬·金修精·金正藝·南正理·徐玄德·成賢珠·李順德華·李淳英·林昌윤·崔妙煥·崔守正·崔濟明·河基恩(영등), 羅相宇·南石浩·李文玉·田德眞·田宗眞(영등포), 金京洙·金聖中·金순정·金龍定

·손정수·申貞秀·李玉善·張法悅·韓修眞·張貴性(원효), 權仁英·金德立·宋萬鎬·李雲永(은평), 朴慈心·李修田·鄭時元·鄭回心華·車大倫(홍제), 金萬一行·金一道·金智仁·金孝源·魯聖任·朴允精·朴解脫行·潘綾圓·白蓮信·白孝敬·李常慶·鄭性珠·崔聖俊·黃元益·金福賢·申正心華(화곡).

〈수원교구〉 성도엽(과천), 徐德萬·李大般·李直圓(동안양), 金明道·金熙尙(부천), 安玄心·李度衆行(성남), 金明心·朴長局·羅善喜·申道均·元慧蘭·李慶滿·李和淑·李孝誠(수원), 高敬德·구남연·화·金濟馨·閔永日·朴生命華·朴潤玉(안양), 李啓賢·李愛慈行·정정명화(약대), 崔秉悟(이천), 金淨仁·金眞正·金弘信·朴善中·劉聖蓮·成永權·車永福·許雲松·黃順玉·郭海印華·許德雲(인천), 閔明哲·邊孝順·卓明淑(평택).

〈영광교구〉 金길진·金南振·金良性·金慈禪·金香德華·林志圓·丁愛學·丁哲宇·崔正山玉·黃妙仁玉·한양직(군남), 金道國·羅道一·李蓮德行(군서), 金善日華·李法眼·李聖光·李智遠(대마), 姜壽恩·鄭동훈(덕산), 姜圓空·金道眞·金奉俊·張仲善·鄭仁誠·최용식·片圓金·朴亨憲(도양), 柳應現·李普性華·金大慈行·김도연·金圓玉·金智定華·朴순권(문장), 李南明·張道中·韓圓宗(백수), 李光信·丁順仁(법성), 金善德華·金春玉·李順道·趙永主行(불갑), 金三善·沈瑞眞·李法眞·李聖奉(신광), 金順善·沈瑞眞·李法眞·李聖奉(신광), 金順善·徐正兼(신흥), 李貴德華·李潤中·張正恩華·鄭貴正·金이경·金證德·金至誠·南宮仁關·魯敬心行·朴鍾聲·徐淳澤·辛聖南·梁眞法華(영광), 金明圓·文恩重行·閔準瞻·朴大靈華·朴東信·吳龍鳳·吳仁善·張基碩·張宗善·丁基誠·朱明根·鄭聖澤(영산), 金明恩·李善性(왕촌), 文緣聖·安孝恩·尹忍明(함평).

〈이리교구〉 姜仁鳳·金道權·朴正悟·宋心益華·梁正善·尹修一·洪舜福(금마), 姜圓法華·高善旭·徐仁智華·尹敬心華·朱性守華·崔守法行·黃桂權(김제), 金法賢·閔道恩·朴義明華·朴夏盛·方大性·봉법도화·劉敬善·李建德·李德世華·李道植·任相生華·張普蓮行·丁奎文·曹光現(남중), 朴始蓮·李修正·李鍾哲·鄭秉浩(도원), 郭寶亨·郭仁道行·金善慈·金一明月·金正倫華·朴大成行·朴福田行·申德一行·李觀靈·李光中·李圓性華·李恩觀·李應道·李仁睦華·李希倫·丁如一行·鄭正緣華·韓永說(동이리), 金海眞(단성), 朴大靈華·백영구·柳寶輪·李庸善(모현), 金蓮行·문주향·서浩仁(문화), 羅順德華·吳全權·尹明煥·李法主圓·李仁萬·李清蓮華·林仁烈·林春成·鄭東仁行·崔戒眞行(봉황), 金法圓·金悟葉·김일주행·金珠仁·柳仁敬華·崔修仁·韓興天(북일), 金眞運·朴貞益·蘇萬順·李修德行·李厚直行(삼기), 權淨林·權慧性·金良知華·金持融·金賢益華·鄭圓林(삼성), 金基玉(貴)·안성현(서이리), 權昌完(신통), 金淳緣·金仁圓·朴仁玄·裴仁修·李道雨·丁桂華·黃淨信(영등), 權信篤行·金남운·金修仁行·박신달·宋在心華·양명국·李大聖·李서유·田玄賞·崔貴正·許明德·황신근·黃自如行(용신), 金大恩行·邊歸悅·李보선행·李正見華·蔡眞誠·최정옥·이석진·주정란·김정숙·이자선화·金묘인(원평), 康承寬·姜圓信·姜俊玉·金美京·金一連華·金智安·金眞修玉·朴磨石·朴禪心華·朴承慧·朴恩常·朴貞淑·徐大基·宋福周·宋正蓮·宋大空·安宇洪·安慧眞(이리), 姜聖仁華·姜正順·金義公·金貴性·金德浩·金德化·金東觀·金富錫·金相悟行·金厚明華·南覺眞·閔正道華·朴恩觀·裴

明順華·辛元淑·吳德相·元亨福華·李敬宇·李公順·李順性·李禹連·李圓中·李眞默·李昌鎮·李玄福·林昇一·張正信·鄭재원·鄭主心華·崔道正·崔重明華·卓貴仁·黃允道·安寶賢·姜重信·趙眞永(익산), 金明善·朴春圓·李圓覺行·趙順悅(합라), 姜南雲華·金允瑞·許政祐(황등).

〈전주교구〉 柳莊榮·崔柔碩(가수), 金光修·金光明華·金修善·李德慈華·李修全·李蓮實行·鄭順德華·河清源(교동), 朴金田·全是珠玉·黃善穆(금구), 權德賢·金善光華·金性正·邊常理華·宋和淑·柳禹德·張正成·崔裡明·崔貞禮(금암), 朴誠天(노송), 康範模·權理性·權周馨·金法運·金賢珠·金喜正·安章熙·梁妙法·李道心華·李福忍行·李禮榮·鄭益賢·조의택(덕진), 金圓道行·宋聖雲·柳聖雲·李圓煥·黃瑞玉·黃仁天(동산), 金明雄·金淨心行·金眞明·梁貞圓·李素聖華·李乙中華·印昌玉·田武緣·趙智月行·晉慧滿(동전주), 金基德·金基哲·金宗圓·金必恩·盧豐音·朴慧心·孫基泰·宋舜福·梁水進行·李景彩·李起南·李壽明·李眞行·張靈覺·全尙哲·全順道華·全圓信·鄭安心華·崔貴善·河龍願(마령), 朴道哲·宋純眞華·李法心華·全濟均·崔眞哲·崔敏善(백운), 金恩重·李文安(봉동), 金永教·孫明倫華·申三通華·李敬法·정관선(삼례), 高聖載·문단수화·朴學成華·梁守眞·劉淨願·李修徹·李正鏡華·林慈悲行·丁允性·鄭恩祐·許敬實(서전주), 金敬修·金中仁·尹仁陀行·李能運(송학), 姜榮德·權榮貴·金修馨·白觀根·蘇能行·宋具空華·李道根·李萬仁·李圓濟玉·李八中行·丁東善·鄭慧玉(수계), 李聖浩·李融賢·全永舜·鄭仁慈行·陳世敬·崔智養華·陳剛連華(인후), 金善一行·金舜一華·金精悟·金薰德·徐道現·宋法住華·宋中貫·安洗心華·柳致圓·張惠施行·최귀정·李靈山華·白德珉華(전주), 金大機圓·金奉修·朴聖谷·朴圓道·宋眞言·柳成德·李明心玉(좌포), 金南恩·金勉學·金正明·金眞教·朴圓順·李歸一·李仁德華·鄭正吉·趙眞性華·崔圓根·崔智徹·洪德華(진북), 具圓丘·白銀基·李德眞華·全志倫·崔正世·강오목·具日和·金明成·김성조·金練眞·金宗萬·金昌烈·金泰圓·金賢調華·동귀연·朴德一·朴聖修行·朴修奉·朴英昌·朴恩田·朴仁性·朴正中華·石誠中·설천록(진안), 金심홍·朴亨順·崔知仁(팔북), 姜福錫·金和正·鄭萬修·鄭容理·崔奉峻(평화), 張賢德(효자).

〈정주교구〉 宋南淑·宋天援·申判德·王善明華·李久賢(감곡), 朴貞珍(고부), 金順暎·李光春(고창), 金緣道·朴順眞·柳戒香華·趙昌善華(덕천), 金英祥·金清道華(무장), 金兩進(백산), 金歸眞行(변산), 金聖振·金安定華·吳濟現·林接品·張南圓·蔡善益華·蔡仁明·韓性華(부안), 金性權·沈清厚·沈孝眞行·柳貞順行·陸海滿(소성), 金德宗·金文淑·金盛荷·金信與華·柳敬文·柳元泰·柳仁宗·李妙德行(승부), 權永世華·金聖文·朴公德·裴義鎮·吳道覺·張平心·崔道豐·池元淨華(신태인), 李道淳(용각), 朴永中玉·崔海印華·허정원(강학), 權漸修華·朴信圓·朴慈悲玉·宋亨燮·申聖濟·安明心·윤종인·李吉道·李安中·林道根·林興成·張誠敬·張義馨·田聖樂·趙仁覺·崔潤美華(정주), 金慧心·金慧仁·金大殷·李濟浩(초강), 姜成佑(칠보), 盧泰眞(태인), 金成道行(해리), 金啓文·金聖文·宋永喜·元承煥·李唯碩·河致玉(화해), 金德湖月·金常善·정진도(화호), 金宣定·盧長心華(홍덕).

〈제주교구〉 曹大善華(도순), 金承恩·許法輪(서귀포), 朴成眞·秦明仁(애월), 金大碩·鄭允善·鄭平等華(오등), 金濟仁·李聖中(제주).

〈진주교구〉 權巡敬(거창), 潘正球·邊福修·李圓慶(동진주), 朴正賢(문산), 朱敬德(사천), 權修研華·鄭好明華(산청), 姜道心月·金慈德(삼천포), 馬賢仁·李法成行·李慈永·盧圓慶(서진주), 鄭慧權(용암), 劉安玉(지곡)·姜志行·金大用·金大雲·金承福·柳法恩·李學恩·田普耕(진주), 金成祚·金慧秀·金慧運·朴貞美·李信定·鄭佑緣·鄭喜順(하동), 金洪今·李明道華(합천).

〈춘천교구〉 金亨圓·李現德華(강릉), 申孝眞·이도일·李至德·池常明華(남춘천), 姜性裕·崔聖任(속초), 洪喜善(원주), 姜慧烈·金善和·金順成華·朴明慧·辛仁性華·安大鳳·李群善·李貴恩華·韓修禪華·許宗德·張善眞·李敬信(춘천), 邊貴德·龍敬性(홍천), 吳景善·金持信·盧明根·申一馨·成善照(화천).

〈청주교구〉 姜聖修·吳道修華·李道守·李常樂園(괴산), 朴明一·李法眞·張明禪(북청주), 潘惠根(서청주), 金慧德·金喜元(제천), 金敬源·金菩提華·羅仁術·申洪法·尹慧賢·李法信·鄭舜圓(청주), 金慧宗·朴永植·裴玄中·李仁圓(충주).

〈해외·기관〉 金法安·宋圓榮·尹玄康·李道賢·李熹善·姜仁圓·姜智海·金明根·金性慶·金勇宣·金恩淑·金仁正·盧永喜·朴根益·朴道薰(뉴욕), 姜德正·金德守華·金道章·金妙眞行·金養順·金元澤·金仁善·文三賢·朴仁宣玉·신상우·吳大恩·尹道光·李法淵·張衆善·陳仁碩·黃賢聖·金聖蓮·柳光道(해외), 金敬愛·金경인·金明淑·金福慧·金庸善·金正心·金正河·金眞英·金和正·南度船華·朴貴奉·朴性基·朴正善·徐三受·徐英善·宋正宣·申忠善·梁性緣·吳相慧·柳東明·李建振·李規連·李善根·李理順·李忠然·張信永·張至誠·全仁新·鄭常仁·鄭賢珠·曹妙順·趙恩澤·池敬仁·表淳安·韓基弘(정토), 林聖勳·梁仁天(대학법당), 車程秀(만덕산), 金熙澤(서울보화당), 張濟弘·李聖來(전주보화당), 金本善行·金順烈·朴修一·朴直修·孫成學·宋歸一華·安宇洪·嚴善心行·유태선·李敬道·李大德圓·鄭芝圓華·趙道眞·黃清源(중앙수양원), 고정인·金明修·金誠閔·金성봉·金曉仁華·朴興善華·徐道春·沈良淑·유천옥·李歸一華·李근수화·李道永華·李賢信·임창일·張正道覺·鄭仁修華·조묘은·조인수옥·최상보화·河淨明心·韓仁錫·許正明(전주양노원).

Ⅱ. 入 廟 者

○ 大宗師少太山如來位

○ 宗師位

번호	법 호	법 계	법 명	성별	비 고	번호	법 호	법 계	법 명	성별	비 고
1	鼎 山	大圓正師	宋 奎	男	總 部	7	恒陀圓	圓 正 師	李 敬 順	女	總 部
2	主 山	圓 正 師	宋 道 性	男	"	8	崇 山	"	朴 光 田	男	"
3	三 山	"	金 幾 千	男	"	9	誠 山	"	成 丁 哲	男	"
4	空陀圓	"	曹 專 權	女	"	10	亨 山	"	金 洪 哲	男	"
5	應 山	"	李 完 喆	男	"	11	中陀圓	"	呂 清 雲	女	正土會
6	六陀圓	"	李東震華	女	"	12	喜 山	"	吳 喆 煥	男	群 山

○ 大奉道位

번호	법 호	법 계	법 명	성별	비 고	번호	법 호	법 계	법 명	성별	비 고
1	八 山	正 師	金 光 旋	男		13	東 山	正 師	李 炳 恩	男	
2	一 山	"	李 載 喆	男		14	亨陀圓	"	吳 宗 泰	女	
3	四 山	"	吳 昌 建	男		15	達陀圓	"	李 正 和	女	
4	道 山	"	李 東 安	男		16	德 山	"	趙 囑 錫	男	
5	公 山	"	宋 慧 煥	男		17	根 山	"	池 海 元	男	
6	五 山	"	朴 世 喆	男		18	一陀圓	"	朴四時華	女	
7	融陀圓	"	金 永 信	女		19	二陀圓	"	張 寂 照	女	
8	默 山	"	朴 昌 基	男		20	四陀圓	"	李 願 華	女	
9	惠 山	"	全 飲 光	男		21	五陀圓	"	李 青 春	女	
10	義 山	"	趙 甲 鍾	男		22	柳 山	"	柳 虛 一	男	
11	圓 山	"	徐 大 圓	男		23	均 山	"	丁 慈 善	男	
12	中 山	"	丁 光 薰	男		24	靈 山	"	朴 大 完	男	

○ 大護法位

번호	법 호	법 계	법 명	성별	교 당	번호	법 호	법 계	법 명	성별	교 당
1	二 山	正 師	李 旬 旬	男	靈 山	7	永陀圓	正 師	林七寶華	女	草 梁
2	六 山	"	朴 東 局	男	靈 山	8	京 山	"	康 弼 國	男	서 을
3	七 山	"	劉 巾	男	靈 山	9	奉 山	"	申 圓 觀	男	鍾 路
4	十陀圓	"	梁 夏 雲	女	總 部	10	明陀圓	"	朴 錦 容	女	釜山鎮
5	三陀圓	"	崔 道 華	女	總 部	11	國 山	"	洪 仁 天	男	苑 南
6	秋 山	"	徐 中 安	男	總 部	12	世 山	"	金 成 學	男	濟 原

○ 專務出身一座位

번호	법 호	법 명	성별	비 고	번호	법 호	법 명	성별	비 고
1	久 山	宋 碧 照	男		19	處 山	金 壯 權	男	
2	常陀圓	李 泰 然	女		20	要 山	金 達 性	男	
3	忠 山	丁 一 持	男		21	德陀圓	丁 良 善	女	
4	根陀圓	朴 眞 悟	女		22	梅陀圓	朴 德 峻	女	
5	雲陀圓	曹 滿 植	女		23	望陀圓	黃 明 照	女	
6	霽 山	朴 濟 奉	男		24	慶陀圓	李 道 興	女	
7	圓陀圓	宋 圓 徹	女		25	光 山	金 光 昌	男	
8	仰 山	趙 峻 谷	男		26	允陀圓	李 正 滿	女	
9	七陀圓	鄭 世 月	女		27	任陀圓	金 正 信	女	
10	剛 山	尹 正 運	男		28	覺 山	辛 道 亨	男	
11	慶陀圓	崔 修仁華	女		29	靈陀圓	李 大 教	女	
12	河 山	金 日 鉉	男		30	碩陀圓	朴德濟華	女	
13	思陀圓	曹 一 貫	女		31	元陀圓	李六途華	女	
14	睦陀圓	黃 周 南	女		32	翠陀圓	崔 尙 淳	女	
15	宗陀圓	池 性 仁	女		33	謙 山	牟 成 哲	男	
16	玄陀圓	池 歡 善	女		34	仁 山	李 亨 局	男	
17	閑 山	李 恩 錫	男		35	榮 山	朴 榮 植	男	
18	哲 山	金 仁 碩	男		36	和陀圓	李 順 權	男	

원불교총람 인물편

37	聰陀圓	安慧三華	女		43	侍陀圓	李唯一華	女	
38	祝陀圓	朴南秀華	女		44	敦 山	鄭泰飲	女	
39	景陀圓	鄭觀音行	女		45	時陀圓	李道信華	男	
40	禪 山	邊衆船	男		46	靑陀圓	庾玄一	女	
41	基陀圓	李性覺	女		47	還 山	曹善勤	女	
42		辛明教	男		48	萬陀圓	權一經	男	

○ 專務出身二座位

번호	법 호	법 명	성별	비 고	번호	법 호	법 명	성별	비 고
1	洛陀圓	金三昧華	女		17	新 山	李正仁	男	
2	進 山	金瑞龍	男		18	農陀圓	金正雲	女	
3	得陀圓	李元永	女		19	福陀圓	韓貴智華	女	
4	智 山	李亨遠	男		20	純 山	金昌峻	男	
5	宗陀圓	田現關	女		21	緣陀圓	金泰信	女	
6	玉陀圓	崔柔權	女		22	明 山	宋日煥	男	
7	彌 山	吳彌山	男		23	平 山	李俊鏡	男	
8	天陀圓	白智明	女		24	麟陀圓	李大機華	女	
9	淸 山	閔道淵	男		25		孫爲一	女	
10	進陀圓	徐淑正	女		26	完陀圓	金慶完	女	
11	俊陀圓	盧三九華	女		27	貫 山	李善慶	男	
12	耘陀圓	柳孝專	女		28	小 山	金大勳	男	
13	弘 山	韓廣根	男		29	葛陀圓	金露眞華	女	
14		金敬仁	女		30	恒 山	李昊春	男	
15	雪 山	金秉哲	男		31	昇 山	金亨悟	男	
16	奮陀圓	高惠善華	女						

○ 專務出身 三座位

번호	법 호	법 명	성별	비 고	번호	법 호	법 명	성별	비 고
1	回 山	曹 元 善	男		17	豐陀圓	崔福基華	女	
2	玄 山	李 寶 局	男		18	松陀圓	金仁空玉	女	
3	湖 山	李 君 一	男		19		黃 柱 信	女	
4	良 山	金 亨 眞	男		20	角 山	金 南 天	男	
5	松 山	李 貴 生	男		21		金 蓮 鳳	女	
6	善陀圓	金 正 覺	女		22	福 山	吳 定 立	男	
7	測陀圓	李江蓮華	女		23	好 山	鄭 薰 豐	男	
8	薰 山	李 春 風	男		24		李 光 悟	男	
9	穩 山	李 載 文	男		25	富陀圓	金 俊 湖	女	
10	明陀圓	金元明華	女		26	直 山	宋 奉 煥	男	
11	維陀圓	朴 維 正	女		27	華陀圓	李 明 勳	女	
12	哲陀圓	吳 哲 秀	女		28		金 晶 瞻	女	
13	乾 山	李 建 陽	男		29		河 漢 善	女	
14		金 賢 虛	女		30	龍 山	金 碩 奎	男	
15	歸 山	朴 元 吉	男		31	嘉 山	金 聖 秀	男	
16	桂陀圓	鄭法機行	女						

○ 專務出身 四座位

번호	법 호	법 명	성별	비 고	번호	법 호	법 명	성별	비 고
1		崔成德華	女		9		吳 富 哲	男	
2	辛陀圓	溫法中行	女		10		梁現秀華	女	
3	和陀圓	金 仁 現	女		11		鄭南俊華	女	
4		田 宗 煥	男		12	會陀圓	金 玄 淑	女	
5	向陀圓	金 昔 日	女		13	莊 山	權 正 進	男	
6	爲 山	文 鳳 瞻	男		14		梁 長 淑	女	
7		林 全 萬	男		15		池 正 風	男	
8	慕 山	宋 萬 京	男		16		許 淑 仁	女	

원불교총람 인물편

17		劉 龍 峻	男		19	眞陀圓	柳 喜 榮	女	
18	栽陀圓	李 祐 正	女		20		權 大 鎬	男	

○專務出身 五座位

번호	법 호	법 명	성별	비 고	번호	법 호	법 명	성별	비 고
1		鄭 敎 眞	女		8	又陀圓	李壯明華	女	
2	旺 山	李 明 秀	男		9		韓 慧 根	女	
3	壽 山	朴 理 碩	男		10		高 英 寶	女	
4		洪 在 完	男		11		那 吉 祥	女	
5		金 成 庸	男		12		劉慧根華	女	
6		申 正 秀	男		13		李 康 福	女	
7	世陀圓	丁 蓮 國	女						

○居塵出塵 一座位

번호	법 호	법 명	성별	교 당	번호	법 호	법 명	성별	교 당
1	大陀圓	李仁義華	女	이 리	14	禮陀圓	金 成 德	女	창 평
2	茂陀圓	田功德海	女	동 래	15	小 山	金 正 光	男	불 목
3	樂 山	朴 樂 天	男	동 전 주	16	寬陀圓	金法界華	女	김 해
4	安陀圓	金 東 壽	女	영 산	17	德陀圓	鄭 長 局	女	남 원
5	成陀圓	田 參 參	女	익 산	18	裕陀圓	金 慧 淨	女	동 대 전
6	心陀圓	辛 正 浪	女	영 산	19	希陀圓	李 英 秀	女	원 효
7	陽陀圓	孫成仁華	女	사 직	20	姪陀圓	吉 明 仁	女	마 산
8	護陀圓	崔 行 德	女	원 남	21	練 山	鄭 光 願	男	성 남
9	平陀圓	成 玄 珠	女	익 산	22	稟陀圓	文 忠 恩	女	서 을
10	蓮陀圓	洪利他行	女	부 산	23	江陀圓	奇 如 天	女	중 흥
11	慶 山	曹 頌 廣	男	원 평	24	修陀圓	朴 益 順	女	서 면
12	恩 山	金 玄 觀	男	목 포	25	衛 山	金 慈 庵	男	통 영
13	緣 山	金 道 永	男	사 직	26	貴陀圓	朴順德華	女	대 신

II. 입 묘 자

27	學陀圓	成仁永	女	서울	32	勇陀圓	朴樂潤	女	교동
28	侍陀圓	朴修正華	女	부산진	33	碩陀圓	全奉德行	女	부산연산
29	月陀圓	李天倫	女	종로	34	義陀圓	成義徹	女	서울
30	能山	高井振	男	정릉	35	白陀圓	李正慧	女	부산
31	慈陀圓	鄭東薰	女	정토회					

○居塵出塵 二座位

번호	법호	법명	성별	교당	번호	법호	법명	성별	교당
1	戒陀圓	鄭亨燮	女	남원	22	甲陀圓	金桂玉	女	돈암
2	仁陀圓	姜修鍊	女	부산	23	廣陀圓	盧淸信行	女	진주
3	應陀圓	劉華潤玉	女	신흥	24	續陀圓	鄭奉淑	女	정토회
4	菊陀圓	尹黃雲	女	마령	25	行陀圓	金法理華	女	동래수양원
5	頭山	吳頭山	男	전주	26	海陀圓	陳明一	女	마산
6	方山	李亨基	男	신흥	27	讚陀圓	崔仁守	女	원남
7	眞山	徐奎碩	男	익산	28	萬陀圓	朴孝淑	女	초량
8	耘山	陸耕田	男	전주	29	玄陀圓	李聖道	女	부산진
9	建陀圓	孫學敬	女	익산	30	忍陀圓	李七星	女	정토회
10	巽山	朴道院	男	익산	31	仙陀圓	鄭德振	女	전주양노당
11	筍山	金志榮	男	사직	32	昌陀圓	朴仁昌	女	군산
12	新陀圓	宋奇雲華	女	대신	33	圓陀圓	劉大信行	女	영동
13	奇陀圓	李貴道華	女	신태인	34	裕陀圓	金明勳	女	서울
14	玄山	黃道永	男	서울	35	慈山	金光準	男	광주
15	瀛陀圓	林基善	女	당리	36	華山	林淸庵	男	부산
16	偈陀圓	白慈仁	女	동산	37	蘇山	朴虛周	男	부산
17	寶山	梁聖峰	男	종로	38	蓮陀圓	李山頭華	女	부산
18	松山	朴東現	男	전주	39	性陀圓	金性明華	女	부산
19	奉陀圓	尹德奉	女	부산진	40	年陀圓	俞善用	女	부산진
20	晴陀圓	崔雲耕	女	서울	41	融山	辛聖吉	男	초량
21	海陀圓	郭炳源	女	이리	42	連陀圓	林玄機華	女	부산

원불교총람 인물편

43	丹陀圓	黃大空華	女	다	대	67	備陀圓	金正緣	女	정	토	회
44	淡陀圓	尹玄理子	女	마	산	68	甲陀圓	李正鳳	女	동	마	산
45	世山	柳成澤	男	수	계	69	彌陀圓	千萬德華	女	서		울
46	益陀圓	吳至誠行	女	운	봉	70	領陀圓	梁永泰	女	석		문
47	鍾山	金道一	男	이	리	71	富陀圓	李華信	女	대		구
48	仙陀圓	金學眞	女	오	수	72	肯陀圓	全義天	女	진		북
49	釋陀圓	盧道峰華	女	정	토	회	73	正陀圓	成聖願	女	중	앙수양원
50	觀陀圓	全貞觀玉	女	정	토	회	74	法陀圓	具良根	女	영	도
51	同陀圓	李化眞	女	정	토	회	75	普山	金振永	男	남	중
52	方陀圓	張河旭	女	영	산	76	觀山	李濟心	男	김		재
53	芳陀圓	鄭東仁	女	중	로	77	揚陀圓	宋壽吉	女	금		산
54	禪山	金圓公	男	후	포	78	制陀圓	金三道華	女	반		포
55	命陀圓	金精進行	女	영	도	79	實陀圓	崔英福華	女	이		문
56	日陀圓	辛大明華	女	부	산	80	仁陀圓	金復眞	女	서	이	리
57	氏陀圓	金順天	女	영	산	81	蘇陀圓	鄭道仁	女	서		면
58	麟山	咸爐峰	男	신	촌	82	積陀圓	劉昌玉	女	이		리
59	彬陀圓	徐成道行	女	서	울	83	榮陀圓	金安定玉	女	이		리
60	寧山	甘元道	女	불	광	84	海陀圓	李法性華	女	서	대	전
61	淡山	張貴滿	男	익	산	85	戊山	韓清湖	男	화		해
62	吳陀圓	韓正寶華	女	원	평	86	雲陀圓	尹慈慧	女	정		주
63	治陀圓	尹法衆	女	불	광	87	世陀圓	白寬善	女	영		등
64	熙陀圓	白奉是華	女	전	주	88	學山	朴碩元	男	샌프란시스코		
65	侍陀圓	秦智完	女	남	군	산	89	圓陀圓	徐圓心	女	원	남
66	張陀圓	李成執	女	수	계	90	淨陀圓	金東秀	女	초		량

○居塵出塵 三座位

번호	법호	법명	성별	교당	번호	법호	법명	성별	교당
1	有陀圓	金聖天華	女	관촌	3		趙俊益	男	도양
2	敬陀圓	鄭三萬火	女	영산	4	廣山	曹光哲	男	영광

5	惠陀圓	金眞如行	女	목	포	35	福 山	李總順	男	익	산
6	竹 山	金湖烟	男	군	서	36	賢陀圓	盧德頌玉	女	좌	포
7	和陀圓	尹文旋	男	부	산	37	體陀圓	具南守	女	원	평
8	萊 山	梁元局	男	당	리	38	完陀圓	李萬甲	女	원	평
9	柔陀圓	李修哲華	女	부	산	39	朝 山	金元亨	男	원	평
10		孫泰英	女	부	산	40	儒陀圓	金南德	女	오	수
11	瑞陀圓	車正照華	女	경	주	41	厚 山	金珍丘	男	진	안
12	智 山	金哲元	男	남	부	42	禮 山	姜漢善	男	삼	례
13	敏陀圓	吳成眞	女	부	산	43		柳朱亨	男	장	수
14	興陀圓	玄大成華	女	부	산	44	鎭 山	洪世定	男	교	동
15	滿陀圓	曹法王華	女	마	산	45		金光明華	女	이	리
16		梁慧星	女	당	리	46	推陀圓	趙昌煥	女	익	산
17	堅 山	孫振經	男	밀	양	47	潔陀圓	李處仁	女	남	원
18		金日輪華	女	김	해	48	寂陀圓	朴德之華	女	도	원
19	妙陀圓	孔茂順	女	초	량	49	白陀圓	柳淑眞	女	승	부
20	望陀圓	朴明性	女	익	산	50		朱浩峻	女	전	주
21	丈陀圓	崔內善	女	전	주	51	德 山	崔德根	男	김	제
22	座陀圓	尹寶完	女	운	봉	52	全陀圓	鄭法眞行	女	산	동
23	千陀圓	房致運	女	이	리	53	浦陀圓	金一正	女	중앙수양원	
24	朗陀圓	朴慧連華	女	마	령	54	恪陀圓	曹性地華	女	중앙수양원	
25	覺陀圓	崔尙玉	女	익	산	55	眞陀圓	鄭悟眞華	女	중앙수양원	
26	玄 山	高玄庵	男	임	산	56		朴圓基	男	서	울
27	謙 山	趙東悟	男	원	평	57	樂陀圓	閔自然華	女	서	울
28	高陀圓	崔濟輪	女	익	산	58	眞陀圓	朴靈珠	女	돈	암
29	盡 山	朴常悅	男	임	실	59	水 山	崔基圓	男	수	원
30	滿陀圓	金普聲華	女	원	평	60	歸 山	全泰守	男	전	농
31	志陀圓	沈志源	女	수	계	61		金宗理華	女	개	성
32		文正明	女	태	인	62		金聖浩	男	개	성
33	和 山	田仁局	男	금	마	63	斯陀圓	崔柔俊	女	춘	천
34	尙陀圓	李慧然華	女	마	령	64	夏 山	趙芝石	男	춘	천

65	寧陀圓	李成一行	女	원	남	95		梁正受華	女	당	리
66	靜陀圓	金靜仁	女	송	천	96	載山	趙雲松	男	마	산
67	忠陀圓	方俊然	女	초	량	97	持陀圓	趙玄心	女	부	산진
68		呂元超	女	서	성로	98		姜偉然華	女	대	연
69	晋山	鄭聖濟	男	서	면	99	彌陀圓	朴孔明善	女	서	울
70	甚山	金基滿	男	마	산	100		曹正福	女	원	남
71	張陀圓	金善玉	女	부	산	101		朴聖信行	女	춘	천
72	虛陀圓	金見性華	女	동	래	102	厚山	晋奎鎬	男	종	로
73	信陀圓	安聖壽	女	부	산진	103		高慧林華	女	종	로
74		曹仁明	男	마	산	104	蕪山	劉德中	男	신	도
75	欣山	朴修權	男	금	산	105		裴惺岩	男	충	주
76	厚陀圓	文正是華	女	부	산	106	須山	金仁聖	男	금	산
77	修陀圓	李如意華	女	영	도	107	略山	全大堯	男	전주	양노원
78	忍陀圓	金如眞華	女	다	대	108	信陀圓	姜制恩	女	도	양
79	善陀圓	崔恩惠華	女	전	주	109	純陀圓	趙環局	女	신	홍
80	瑞陀圓	梁圓寂華	女	금	평	110	春陀圓	金泰尙玉	女	신	홍
81	願山	黃聖陀	男	소	성	111	鶴山	金致一	男	불	갑
82	理陀圓	李宗業華	女	익	산	112	角陀圓	金平雲	女	영	산
83	黃陀圓	金義眞華	女	오	수	113	會山	金天益	男	군	남
84	修陀圓	金南順	女	함	라	114	彩陀圓	金世和行	女	총	부
85	出陀圓	李松村玉	女	마	령	115	進陀圓	金共鳴行	女	부	산
86	春山	朴壯春	男	수	지	116	寬陀圓	李性理華	女	목	포
87	慶山	宋制玉	男	용	신	117	信山	姜勝萬	男	불	갑
88	普陀圓	李聖主華	女	당	리	118	陸山	崔福京	男	영	산
89	用陀圓	李洗正華	女	초	량	119	妙陀圓	金善牧行	女	중	구
90	蒼山	金鍾聲	男	당	리	120		高三要	女	봉	동
91	益陀圓	趙安住行	女	진	주	121	玉陀圓	金華玉	女	영	산
92		朴正矢行	女	다	대	122	松陀圓	許良彦	女	대	신
93		金應圓	女	당	리	123	決陀圓	崔主賢	女	구	로
94		河雲眞華	女	통	영	124	至陀圓	李明南	女	동	래

II. 입 표 자

125	明陀圓	張明欣	女	목	포	155	懇陀圓	崔熟緣	女	마	산
126	帝陀圓	徐清安	女	서	울	156	理陀圓	姜進明行	女	부	산진
127	玉陀圓	柳理現玉	女	춘	천	157		金仁燦	女	부	산진
128	祈陀圓	金福眞華	女	정	주	158		成圓公	男	화	곡
129	悅山	金炫江	男	광	주	159		신대선행	女	영	주
130	和陀圓	崔賢眞	女	서	울	160	母陀圓	辛文昌華	女	종	로
131	官陀圓	趙準官	女	이	리	161		梁基泰	男	서	면
132	寬山	金仁甲	男	원	평	162	切陀圓	卓普信甲	女	영	산
133	尋陀圓	張喜善	女	전	주	163	野山	金用寬	男	이	리
134		金圓燁	男	군	산	164	全山	姜現秀	男	도	양
135	讓陀圓	徐清源	女	마	령	165	樂陀圓	成樂源	女	화	포
136		金道常	男	중	구	166	春山	金成帽	男	춘	천
137	勉陀圓	申輪碩	女	익	산	167	利山	南宮惺晚	男	도	원
138	白山	丁鶴現	男	영	산	168	恩陀圓	宋虛實圓	女	중앙수양원	
139	基陀圓	尹基道	女	동	래	169	福陀圓	裒福一	女	중앙수양원	
140	東陀圓	崔東仁	女	대	구	170	行陀圓	李秀正	女	소	성
141	成山	金光天	男	중	흥	171	攝陀圓	李善永	女	소	성
142	觀山	白善根	女	이	리	172	讓陀圓	徐清源	女	마	령
143	禪陀圓	金光圓心	女	서	광주	173		梁濟圓	男	통	영
144	性山	金祥樂	男	영	등포	174	愛陀圓	姜利濟行	女	대	전
145	解陀圓	鄭中圓	女	마	포	175	練陀圓	朴萬鍊	女	남	중
146	智陀圓	李英石	女	북	일	176	苗陀圓	白寶善華	女	대	방
147	建山	金恩相	男	봉	덕	177	元陀圓	權志圓	女	면	목
148	慈陀圓	安善行	女	원	평	178	持陀圓	鄭妙蓮華	女	중앙수양원	
149	永陀圓	宋明煥	女	중	구	179	始陀圓	方信英	女	중앙수양원	
150	素陀圓	安益善	女	정	토회	180	隱山	辛靈明	男	부	안
151	銘陀圓	車一明覺	女	춘	천	181	祐陀圓	金順道行	女	승	부
152	畢陀圓	金福潤	女	초	량	182	田陀圓	韓圓心華	女	정	토회
153	源陀圓	朴長源	女	장	수	183	洋陀圓	申大基行	女	개	봉
154	念陀圓	金愛賢	女	익	산	184	冲山	許鎔	男	울	산

185	任陀圓	張法仁	女	신촌	189		李法輪	女	영산
186		金良順	女	영산	190	地陀圓	金道永華	女	명륜
187	回山	安在道	男	동전주	191	度陀圓	張淵道	女	대구
188	典陀圓	李滿修玉	女	용암	192	威陀圓	金善光	女	정주

○居塵出塵 四座位

번호	법호	법명	성별	교당	번호	법호	법명	성별	교당
1		李玄空	女	좌포	23	南陀圓	朴眞法華	女	군산
2	樹陀圓	李敬元	女	관촌	24	昌陀圓	金德昌	女	남원
3	春山	徐東風	男	원평	25	高陀圓	姜日新行	女	운봉
4		金琉璃華	女	이리	26	玉陀圓	朴敬德	女	익산
5		申永基	男	익산	27	陀山	金法源	男	이리
6	承山	柳衡碩	男	승부	28	嬉山	朴瑞中	男	남원
7	悅陀圓	柳舜局	女	운봉	29		李成順	男	함라
8	智山	李萬英	男	전주	30	瞻山	殷右川	男	정주
9	稱陀圓	李石正華	女	운봉	31		李瑞慶	男	전주
10	蘭陀圓	宋慈善華	女	원평	32		申泰恩	女	감곡
11	忠陀圓	金常住華	女	운봉	33		柳基一	女	관촌
12	如山	金昌愚	男	용신	34	豐陀圓	李順德	女	아영
13	慈陀圓	金明哲行	女	남원	35	水陀圓	李寬柔行	女	남중동
14	富山	朴元石	男	익산	36	本陀圓	李善修圓	女	신태인
15		梁空忍行	女	장수	37		殷寬裕	女	정주
16	熙陀圓	趙元三華	女	이리	38		李普運月	女	익산
17	好陀圓	金新成華	女	승부	39		李性淵	女	정주
18	行陀圓	金法中	女	전주	40	忍陀圓	金淑英	女	동전주
19	柔陀圓	金妙淑	女	수지	41		金從德	女	봉황
20	輝山	朴鎮世	男	신태인	42	開陀圓	晋忠玉	女	오수
21		柳聖春	男	수계	43	月陀圓	李敬權	女	익산
22	普山	金宗勤	男	오수	44		黃正河	男	전주

45	秦陀圓	鄭峻虛	女	마	령	75	皓山	李大石	男	부	산
46	順陀圓	郭康然華	女	익	산	76	寶陀圓	金修全	女	용	암
47		金理明	女	장	학	77		李成均	女	용	암
48		柳篤信行	女	순	창	78	晚陀圓	沈一道行	女	대	구
49	完陀圓	金允中	女	익	산	79		金德修	男	초	량
50		金三禪華	女	남	원	80		下妙法海	女	초	량
51	功陀圓	李仁淑	女	이	리	81	仙陀圓	李玄妙華	女	초	량
52	讓陀圓	金道薰	女	동	산	82	成陀圓	姜善一華	女	초	량
53		殷內在行	女	부	안	83		金玉蓮華	女	기	장
54		張福現	女	화	해	84	威山	鄭大淵	男	함	양
55		晋相文	女	관	춘	85		金精庵	女	마	산
56		尹碩仁	女	태	인	86		文奉林	女	당	리
57		羅聖業	女	진	북	87		張理成	女	마	산
58		崔碩中	男	전	주	88		黃善德	男	영	도
59		金一向華	女	용	신	89		尹仁寬	女	동	래
60		朴報恩	女	익	산	90	武山	朴現旭	男	부	산
61		魯正生華	女	운	봉	91		金常德華	女	괴	산
62		李容官	男	오	수	92		孫敬德	女	부	산
63		金春範	女	마	령	93	恭山	李永修	男	부	산
64		金容勳	男	전	주	94	寬山	朴聖勳	男	부	산
65	鎮陀圓	沈修真華	女	익	산	95		崔正覺心	女	영	도
66	源陀圓	裴石鎮	女	부	안	96		李圓述	男	진	영
67	牧山	辛東圓	男	남	중	97		李令觀	女	동	래
68	先山	鄭明教	男	이	리	98		金守正華	女	구	포
69	景陀圓	金正吉	女	임	산	99		崔正谷	男	부	산
70		尹貴局	男	부	산	100		金信範	男	안	동
71	勤陀圓	李同仁行	女	부	산	101		金貴緣	男	부	산
72		尹松雲	男	부	산	102		許如珠華	女	진	주
73	復陀圓	金白蓮	女	부	산	103		李智圓	女	상	주
74	如陀圓	金明源	女	남	부	104	湖陀圓	朴敬眞	女	대	구

105	茂陀圓	李圓實華	女	김	천	135		李 敬 一	女	중앙수양원
106		金 熙 英	女	서	면	136	樂陀圓	全中正華	女	전주양노원
107	新陀圓	柳 勤 性	女	대	명	137		羅淨明心	女	전주양노원
108		李 正 念	女	대	명	138	蜜陀圓	金 奉 淑	女	전주양노원
109		金弘淳行	女	부	산 진	139	長陀圓	李元理華	女	연 산
110	華陀圓	金施德行	女	초	량	140	越陀圓	白 正 鎮	女	대 전
111	昭陀圓	沈 五 雲	女	서	울	141	信陀圓	林富仁華	女	도 곡
112	喜陀圓	李 正 圓	女	서	울	142		權 道 玉	女	연 산
113		晋 大 益	男	서	울	143		李 慈 心	女	부 천
114		金成頭華	女	개	성	144	昌 山	鄭 高 奉	男	신 도
115	貴陀圓	宋 道 英	女	원	남	145		姜 性 修	女	익 산
116		魯光明華	女	중	구	146	向 山	李 壯 運	男	신 흥
117		金 昌 信	女	춘	천	147		朴 正 信	男	신 흥
118		劉 秀 安	女	송	천	148		康益夏(父)	男	서 울
119		林 奉 說	女	개	성	149	曙 山	朴 將 星	男	서 울
120		金 知 境	女	개	성	150	聰 山	姜 元 燮	男	불 감
121	睿 山	許 仁	男	수	원	511	麗 山	金 養 眞	男	목 포
122		李扶一行	女	서	울	152		權 忠 言	女	관 촌
123	船陀圓	劉 昌 眞	女	원	효	153	隱 山	崔 隱 山	男	신 태 인
124		趙濟善玉	女	송	천	154		金 敬 智	女	소 성
125		金順命行	女	홍	제	155		朴 明 德	女	초 량
126		李 妙 相	女	개	봉	156		金漸修行	女	초 량
127		李 興 法	男	사	직	157		趙 遠 峻	男	이 리
128		金 信 圓	女	중	구	158		鄭 善 局	女	금 구
129	高陀圓	金 學 眞	女	화	곡	159		張 智 局	女	개 성
130		金 明 恩	女	신	림	160	肯 山	鄭 桂 環	男	영 산
131	順陀圓	陸 智 順	女	서	울	161	漢 山	李 炳 吾	男	군 남
132	磨陀圓	金 善 仁	女	방	배	162		朴 仁 建	女	초 량
133	寶陀圓	崔貴恩華	女	방	배	163		李 潤 局	女	서 울
134		金權修華	女	중앙수양원		164	鳳陀圓	安 敬 信	女	좌 포

165		金 恩 實	女	양	정	195		金 一 善	女	이	리
166		林 吉 善	女	이	리	196	鎮陀圓	吳 順 覺	女	전	주
167		崔 仁 觀	女	화	곡	197		李 圓 輪	女	전	주
168		陳敬心華	女	고	창	198		尹 彩 雲	女	좌	포
169		李金倫華	女	영	산	199	鳳 山	金 大 說	男	좌	포
170		劉 宗 秀	男	군	산	200		沈 公 善	女	영	산
171		韓基三玉	女	돈	암	201	廉 山	李 千 甲	男	신	홍
172		柳 海 日	女	익	산	202	奇 山	朴 壯 烈	男	도	양
173		백 용 성	男	종	로	203		朴 晶 局	男	춘	천
174	容陀圓	辛 以 耕	女	신	홍	204		梁空忍行	女	장	수
175	種陀圓	李 載 善	女	영	산	205		鄭 淨 道	女	영	도
176	仲陀圓	金南日華	女	신	홍	206	往 山	李 華 峰	男	부	산
177	碧陀圓	朴 淨 業	女	신	홍	207		趙 完 根	男	금	구
178	小 山	金 正 光	男	불	갑	208		林宇宙華	女	금	마
179		金大性華	女	광	주	209		李德度行	女	부	산
180	碩 山	朴 晚 成	男	목	포	210		金 性 浩	男	보	절
181	儀陀圓	康惠善華	女	목	포	211	陸陀圓	趙圓明華	女	남 중	동
182		申大願華	女	광	주	212		徐富貴華	女	백	수
183	曙陀圓	韓法界華	女	목	포	213		林 正 根	男	영	동
184		吳 仁 善	女	서 광	주	214		李明性月	女	마	산
185	淸 山	沈 道 淸	男	신	광	215		奇一性華	女	양	정
186		徐 規 圓	男	법	성	216		李 惺 石	男	초	량
187		韓 貴 哲	女	영	산	217		韓 德 海	女	오	수
188		朴 東 信	男	영	산	218	要陀圓	鄭 眞 根	女	정 토	회
189	閑陀圓	金 潤 根	女	영	광	219	玉陀圓	李 三 修	女	서 성	로
190		黃大一華	女	초	량	220	昇 山	徐 南 勳	男	김	해
191	溪 山	金 峻 養	男	당	리	221	淸 山	白 心 田	男	사	창
192	鳳 山	金 精 進	男	익	산	222		辛大善行	女	영	주
193		朴 興 運	女	함	라	223		朴修仁華	女	감	곡
194		車 聖 輪	女	용	신	224		朱五福月	女	마	산

225	能陀圓	秋七空華	女	돈	암	255	敬陀圓	文敬溫	女	진	안
226		朴正中	男	화	곡	256	安山	劉清圓	男	중	구
227		卓東善	男	전주양노원		257	果陀圓	張相根	女	원	평
228		金性寬	男	대	구	258	悉陀圓	李無住行	女	창	평
229	峻陀圓	金功德華	女	마	산	259		金滿順	女	방	배
230	攝陀圓	郭忍性行	女	초	량	260	景山	李正吉	男	수	계
231		朴大鏡華	女	돈	암	261	田陀圓	尹修圓	女	동	래
232		孫道耕華	女	돈	암	262		咸正潭	男	사	직
233		金淨心華	女	서	울	263	保陀圓	權義全	女	도	원
234	鑑陀圓	李光明圓	女	개	봉	264		李理天	男	원	남
235	樂陀圓	金聖福	女	문	장	265	滿陀圓	牟如眞	女	동	이리
236	福山	金世麟	男	용	각	266	賢陀圓	晋萬修圓	女	남원중양	
237		朴永眞	男	용	각	267	解陀圓	金妙聖華	女	전주양노원	
238	還山	金眞宗	男	원	평	268	中陀圓	朴忠仁華	女	전	농
239		金修道	女	원	평	269	創陀圓	金平數華	女	익	산
240		崔明眞玉	女	원	평	270		馬成田華	女	동	산
241		崔賢信	女	원	평	271		朴安修	女	개	포
242		任晩德華	女	봉	황	272	幅陀圓	高希鏡	女	수	원
243	晶陀圓	李仁根	女	남	원	273		李梅心行	女	수	원
244		徐道輪	男	통	영	274		金蔡堂	女	강	남
245	奉山	金眞道	男	평	택	275		成普明	男	청	학
246	玉陀圓	鄭宗圓玉	女	금	마	276	止山	金碩鍾	男	군	남
247	妙陀圓	嚴夢安	女	도	원	277	溫陀圓	韓貴然	女	익	산
248	淨陀圓	周成淑	女	문	장	278		朴奉道華	女	화	곡
249		金貞仁	女	부	안	279		高貞烈行	女	서	전주
250	平陀圓	宋泰平華	女	전주양노원		280	鶴陀圓	李聖教	女	서	산
251	在陀圓	金淨業	女	방	배	281		朱永德華	女	부	산
252	明陀圓	鄭圭仁	女	군	산	282	駕陀圓	白永福	女	청	학
253	鳳陀圓	崔普德華	女	산	서	283		權文經	女	강	남
254		金蓮淑	女	대	현	284	芳陀圓	申大乘月	女	서	울

285	哲陀圓	金 允 哲	女	원 남	308	蓮陀圓	金 眞 英	女	정 토 회
286	花陀圓	李 英 淑	女	중 로	309	修陀圓	嚴慈悲華	女	정 토 회
287		朴 理 明	男	금 암	310	安陀圓	南 理 田	女	해 운 대
288	吳陀圓	李正德行	女	전주양노원	311		이 원 관	男	여 의 도
289	種 山	李 用 眞	男	전 주	312	紹陀圓	文法地華	女	괴 정
290		尹 春 相	男	운 봉	313		朴 行 圓	女	수 원
291		李 祥 圭	男	수 원	314		鄭 蓮 植	女	부산남산
292	龜 山	鄭 萬 中	男	관 춘	315	시타원	신정심화	女	개 봉
293	운 산	權 榮 圓	男	삼 성	316		韓 正 緣	女	부 산 진
294	眞 山	金 聖 國	男	평 화	317		徐 道 輪	男	통 영
295	雲陀圓	金 正 雲	女	이 리	318	중타원	김 문 숙	女	중앙수양원
296		金 栽 仁	女	문 장	319	忠 山	孫 忠 賢	男	여 수
297		蔡 慧 日	男	황 등	320	月陀圓	尹順明華	女	서 울
298		韓 珠 環	女	남 원	321		白 和 正	女	부산남산
299	淳陀圓	梁法輪行	女	수 지	322		鄭 勤 奉	女	동 전 주
300	善陀圓	許大賢華	女	평 화	323	靑陀圓	李七九華	女	동 전 주
301		白 和 正	女	남 산	324	京陀圓	金 奉 恩	女	수 계
302	白陀圓	趙主一華	女	대 명	325		崔 務 眞	男	통 영
303		柳 成 南	男	문 장	326	懷陀圓	姜性眞華	女	초 량
304	護 山	朴 圓 學	男	추 부	327		尹宗秀華	女	구 례
305	喆 山	崔 文 奎	男	당 리	328	厚 山	崔 住 福	男	기 장
306		柳道信華	女	전주양노당	329		辛 良 述	男	통 영
307	恩陀圓	李 法 恩	女	남 중	330	原陀圓	朴 原 國	女	영 동

○居塵出塵 五座位

번호	법 호	법 명	성별	교 당	번호	법 호	법 명	성별	교 당
1		李出塵華	女	서 울	4		李 裕 生	男	서 울
2		愼 元 堯	女	서 울	5		崔金剛華	女	개 성
3		金濟衆行	女	서 울	6		金永仁行	女	개 성

7	海 山	秦 圓 宗	男	개	성	37	樂 山	尹三知華	女	운	봉
8		成 昌 淑	女	개	성	38		朴 仁 淑	女	수	지
9		崔 元 鎭	男	개	성	39		朴 仁 秀	女	금	평
10		金 峻 石	男	개	성	40		崔 貴 中	男	금	평
11		金 鏡 照	女	서	울	41		朴 和 圓	女	장	수
12		朴 海 山	男	서	울	42		金 樂 圓	女	서	울
13		崔衆濟華	女	서	울	43		金法雲行	女	개	성
14		都 運 徹	女	서	울	44		李 琪 說	男	초	량
15		李 哲 玉	女	서	울	45		林 正 述	男	초	량
16		尹 廣 安	男	서	울	46		玄道七華	男	초	량
17		康 東 鎭	女	서	울	47		秋 現 庵	男	초	량
18		宋 貴 重 華	女	서	울	48		金 南 巡	女	부	산
19		李 現 局	女	서	울	49		李 鍾 信	女	초	량
20		李 成 滿	女	서	울	50		吳 洪 順	女	초	량
21		金永住行	女	개	성	51		金聖壽華	女	부	산
22		金 喜 淳	女	서	울	52		金 祐 正	男	부	산
23		金 普 現	女	관	촌	53		尹 薰 一	男	다	대
24		車 奉 天	男	전	주	54		金 昔 田	男	초	량
25		李 正 局	女	좌	포	55		朴 正 順	女	당	리
26		李 慧 明 華	女	좌	포	56		許 性 熙	女	용	암
27		李 聖 默	女	삼	례	57		金 達 仁	女	부	산
28		吳 雲 草	女	좌	포	58		具仁鳳華	女	초	량
29		吳 海 石	男	마	령	59	融 山	李 寬 賢	女	초	량
30	節 山	盧天供玉	女	전	주	60		姜安基行	女	초	량
31		吳 慧 中 華	女	마	령	61		鄭 振 局	男	용	암
32		韓 淨 淸 華	女	임	실	62		白 峻 明 華	女	부	산
33		具 萬 壽	女	수	지	63		林 春 意 華	女	초	량
34		趙 聖 文	女	수	지	64		裴 寶 鏡 華	女	부	산
35		崔 相 云	男	금	평	65		尹 眞 局	女	부	산
36		鄭 順 英	女	수	지	66		李 桂 明 華	女	용	암

67		文積善行	女	용	암	97		金 仁 正	男	이	리
68		朴貴重華	女	당	리	98		金滿空月	女	익	산
69		崔普一華	女	초	량	99		趙 天 一	男	익	산
70		李 安 俊	女	초	량	100		鄭 碩 現	女	익	산
71		金 瑞 田	男	초	량	101		李大蓮華	女	원	평
72		尹 普 潤	女	부	산	102		崔大震華	女	함	라
73		金 應 燮	女	부	산	103		韓 宗 根	女	익	산
74		裴普信行	女	초	량	104		池三空華	女	익	산
75		金大明華	女	부	산	105		崔順調華	女	용	신
76		李 春 圓	女	당	리	106		金寶重華	女	원	평
77		李洪理華	女	부	산	107		鄭修仁行	女	익	산
78		李元智華	女	당	리	108		金淨江月	女	이	리
79		鄭心理華	女	용	암	109		申 聖 基	男	익	산
80		黃 海 振	男	당	리	110		宋 洙 景	男	원	평
81		張 普 益	女	당	리	111		韓 寶 淑	女	군	산
82		方 修 烈	女	초	량	112		車 貴 種	男	이	리
83		李永道華	女	당	리	113		鄭 一 成	男	익	산
84		文 慶 旋	女	당	리	1114		李 一 根	男	익	산
85		李 中 權	男	다	대	115		安 基 權	男	익	산
86		金 頭 憲	女	초	량	116		文 貴 善	女	이	리
87		林注然華	女	당	리	117		郭 閑 誠	男	이	리
88		李奉揚華	女	당	리	118		徐清一華	女	이	리
89		李 蘭 英	女	다	대	119	晉 山	宋 蒼 虛	男	이	리
90		金淨土華	女	이	리	120		朴 濟 重	男	이	리
91		李 道 秀	男	익	산	121		金 慧 月	女	익	산
92	莊 山	趙 大 盡	男	익	산	122		梁德信華	女	익	산
93	冬 山	文 正 奎	男	익	산	123		李萬一華	女	익	산
94		姜一生華	女	원	평	124		金 亨 南	女	용	신
95		陳正滿玉	女	원	평	125		吳 曉 鍾	男	영	산
96		金雪上華	女	익	산	126		吳 天 權	女	영	산

127	慈 山	李 元 澤	女	신	홍	157	連 山	金用智華	女	전	주
128		曹 敬 一	男	신	홍	158		趙 嬉 善	女	남	원
129		鄭 道 寬	女	영	산	159		鄭三寶華	女	전	주
130		李 嬉 暎	男	대	마	160		柳 正 教	男	승	부
131		李全一華	女	영	산	161		金 仁 悟	男	좌	포
132		李普陀圓	女	신	홍	162		林 洪 珠	女	전	주
133		金 長 眞	男	도	양	163		金 東 淳	女	전	주
134		柳 平 眞	男	영	산	164		朴上智華	女	전	주
135		朴 宗 眞	男	도	양	165		朴 元 甲	女	운	봉
136		鄭 順 月	女	영	산	166		李 成 初	女	전	주
137	碧 山	金 伯 玄	男	신	홍	167	莖陀圓	金 海 運	女	화	해
138		朴元住華	女	영	산	168		宋 月 守	男	화	해
139		李 載 信	男	영	산	169		梁 海 島	男	신	태인
140		崔心道行	女	신	홍	170		宋慧浪華	女	마	령
141		李德主華	女	도	양	171		尹正道行	女	수	지
142		金 惠 植	男	신	홍	172		朴智空華	女	신	태인
143		崔文殊華	女	신	홍	173		盧 又 成	女	운	봉
144		申 敬 齊	女	도	양	174		梁 正 寬	男	남	원
145		李 光 洙	男	신	홍	175		林清信玉	女	전	주
146		李 南 哲	男	대	마	176		全 一	男	전	주
147	佳 山 儂 山	金 圓 光	男	왕	춘	177	哲 山	金動善行	女	신	태인
148		朴 亨 憲	男	도	양	178		梁 大 植	男	신	태인
149		金 宗 言	男	왕	춘	179		洪正南華	女	승	부
150		李 商 行	男	영	산	180		鄭 貴 煥	女	화	해
151		李養貞華	女	도	양	181		李 相 燮	女	신	태인
152		朴 潤 善	男	신	홍	182		徐 順 性	女	신	태인
153		丁 一 秀	男	신	홍	183		呂 東 眞	男	화	해
154		徐 奇 彩	男	영	산	184		李 庸 廣	男	전	주
155		陳 廣 信	男	신	홍	185		鄭明瑞行	女	전	주
156		朱 公 仁	男	신	홍	186		金香山玉	女	전	주

187	趙 妙 恩	女	전	주	217	黃 聖 模	男	용	신
188	朴 重 根	男	임	실	218	朴峻濟華	女	당	리
189	朴 義 中	男	운	봉	219	崔 夢 鏡	女	마	령
190	柳 東 元	男	장	수	220	蘇貴仁華	女	익	산
191	趙 玄 一	女	남	원	221	李根成華	女	화	해
192	金老親華	女	남	원	222	權偶然華	女	서	울
193	康 大 甲	女	관	촌	223	金 春 淑	男	왕	촌
194	李 薰 澤	男	광	주	224	成萬修圓	女	춘	천
195	朴圓滿華	女	진	영	225	鄭 眞 勇	男	용	암
196	李同仁行	女	연	산	226	吳 宗 順	女	익	산
197	孫滿月華	女	연	산	227	尹大養華	女	당	리
198	張 海 印	女	연	산	228	金 德 元	女	마	령
199	權法恩華	女	수	지	229	梁秋水月	女	익	산
200	金智靈華	女	당	리	230	朴 老 信	男	초	량
201	崔正順行	女	용	신	231	車寶重行	女	화	해
202	金大親華	女	군	산	232	金興山玉	女	신	홍
203	金本修華	女	전	주	233	洪敬道行	女	남	산
204	金 宇 淑	女	이	리	234	吳慧日華	女	마	령
205	李 敬 天	女	운	봉	235	柳長壽華	女	전	주
206	奇 正 進	女	전	주	236	崔 亨 寬	女	마	령
207	李 昌 玉	女	대	마	237	徐德進行	女	전	주
208	崔鳳棲華	女	좌	포	238	金 昌 圓	女	개	성
209	金五雲華	女	원	평	239	金 俊 燁	女	군	산
210	金 正 氣	男	용	신	240	丁花潭玉	女	마	산
211	權洪濟華	女	서	울	241	張年年華	女	서	울
212	金龍善華	女	신	홍	242	李 謹 要	女	수	지
213	崔 正 旭	女	개	성	243	尹世中華	女	익	산
214	宋玄道華	女	원	평	244	徐 正 均	男	초	량
215	權 大 河	男	정	릉	245	權 正 錫	女	전	주
216	朴天道華	女	용	신	246	崔終始華	女	남	산

247	柳 賢 順	女	남	원	277
248	金慧勤華	女	당	리	278
249	崔 甲 辰	女	원	평	279
250	李 允 甲	女	서	울	280
251	韓 圭 南	女	신	홍	281
252	李玄武華	女	신	홍	282
253	林 寶 山	男	서	울	283
254	李正窮行	女	용	신	284
255	朴 修 願	女	당	리	285
256	韓正善華	女	진	영	286
257	金 昔 峻	女	용	신	287
258	李 聖 仁	女	개	성	288
259	洪青松月	女	원	평	289
260	金 正 氣	男	원	평	290
261	李 潤 生	男	영	산	291
262	姜 宇 燮	女	신	홍	292
263	李 完 圭	女	용	암	293
264	白 有 天	女	전	주	294
265	李萬一行	女	이	리	295
266	孫 春 園	男	초	량	296
267	趙 頭 現	男	익	산	297
268	成慧順華	女	마	령	298
269	朴成道華	女	초	량	299
270	李 成 默	女	마	령	300
271	吳 聖 昌	女	마	령	301
272	李聖恩華	女	개	성	302
273	張 永 寬	女	용	신	303
274	崔 奉 玉	女	용	신	304
275	金萬水玉	女	원	평	305
276	金大德華	女	전	주	306

黃 仁 淨	男	진	영
李正基行	女	초	량
林 祥 權	男	익	산
李 安 燮	女	영	산
金 白 雲	男	영	산
金 康 碩	男	개	성
朴 奉 善	女	초	량
鄭 完 一	女	화	해
李 智 恩	女	진	영
朴 理 燮	男	전	주
鄭靑江月	女	원	평
李 敬 恩	女	신 태	인
丁本來華	女	수	계
李萬善華	女	익	산
金三住行	女	당	리
金寶所華	女	운	봉
金龍順玉	女	서	울
金 義 中	女	수	지
柳現主華	女	좌	포
孫 奉 朝	女	서	울
權吳楚華	女	전	주
金宇宙華	女	경	남
朴 仁 基	男	서	울
柳 完 石	女	운	봉
陳 信 行	女	진	영
金 日 文	女	감	곡
徐 仁 淑	女	마	령
郭淑仁華	女	임	실
金基露華	女	신 태	인
李 俊 滿	女	경	남

307	朴道善華	女	영	산	337	朴俱空華	女	영	산
308	禹德濟華	女	전	주	338	白法眞華	女	전	주
309	宋宗元	男	원	평	339	朴本一華	女	영	산
310	許眞淑	女	당	리	340	張洪法華	女	이	리
311	金甘味華	女	이	리	341	吳中石	男	마	령
312	崔鳳元	男	춘	천	342	安五城華	女	마	령
313	康益夏	男	서	울	343	崔道圓行	女	수	계
314	李正心行	女	운	봉	344	金道然行	女	용	암
315	崔亨燁	女	원	평	345	崔興化	男	금	평
316	金奉京	男	영	산	346	具白忍行	女	신	도
317	李法融	男	서	울	347	金相悟	男	교	동
318	金一環	男	서	울	348	崔尙山玉	女	익	산
319	張南基華	女	신	홍	349	鄭純明	女	신	태인
320	李明賢	女	서	울	350	金四海	男	영	산
321	朴玉辰	男	수	지	351	金天真行	女	서	울
322	李裕山	女	서	울	352	韓翠松	男	화	해
323	李守榮	男	익	산	353	林武悅華	女	영	광
324	金萬聖	男	화	해	354	李普運月	女	익	산
325	姜義進	男	진	영	355	林道根華	女	중	로
326	鄭萬修圓	女	진	영	356	鄭性海	男	군	남
327	洪道亨	男	경	남	357	金春燮	女	운	봉
328	李壯明華	女	신	홍	358	姜大建	男	신	태인
329	朴靈理華	女	신	홍	359	鄭淑義華	女	교	동
330	徐弘基華	女	좌	포	360	李法性華	女	교	동
331	崔恩主華	女	전	주	361	林浩宗	女	대	구
332	李七現	男	대	마	362	李南明	男	백	수
333	丁又賢	女	이	리	363	金富烈	女	수	계
334	朴圓淑	男	초	량	364	蘇妙信華	女	수	계
335	鄭龍淑	女	광	주	365	吳十洲行	女	초	량
336	田道仁行	女	이	리	336	白妙一行	女	전	주

367		高道局	男	원	평	397	洪自恩華	女	신	태	인
368		朴至順華	女	화	해	398	金慶圓	男	경	남	
369		金藏潤玉	女	원	평	399	金萬有行	女	부	산	진
370		李碩鎭	女	원	평	400	洪德衆華	女	전	주	
371		千啓頌華	女	삼	례	401	李源根	男	대	신	
372		文明道華	女	당	리	402	姜春滿	男	관	춘	
373		林飯器華	女	당	리	403	金奇萬	男	전	주	
374		崔道恩華	女	당	리	404	李保任華	女	서	성	로
375		李道安	女	당	리	405	姜善明	女	서	면	
376		李應局	女	당	리	406	李秀哲華	女	초	량	
377		張溪源	女	당	리	407	金永明華	女	통	영	
378		梁知一華	女	당	리	408	朴大榮華	女	청	학	
379		張偶根	男	당	리	409	張義燮	女	봉	학	
380		韓慧是華	女	마	령	410	李化眞	女	용	신	
381		金甲信	女	마	령	411	朴德器華	女	이	리	
382		柳同理華	女	마	령	412	趙勤成華	女	봉	황	
383		朴光圓	女	마	령	413	金天民	男	마	산	
384		金水精華	女	초	량	414	鄭修瓊	男	여	수	
385		朴正福	女	초	량	415	金慶岩	男	부	산	진
386	謹山	金公安	男	도	량	416	鄭敬珠	女	경	남	
387		李清玉	女	관	춘	417	曹海連	女	서	면	
388		成建錫	男	영	도	418	朴仁邦	男	안	동	
389		金鍾德	男	영	도	419	韓明潤	女	신	춘	
390		梁海盡	女	이	리	420	朴富局	女	마	령	
391		尹修德華	女	익	산	421	朴聖愛	女	개	성	
392		李參德華	女	동	이	리	禹義根	女	개	성	
393		李英熙	女	임	실	423	金龍玉	女	개	성	
394		姜中權	男	신	태	인	金正信行	女	개	성	
395		李秀玉	女	백	수	425	禹周眼	男	개	성	
396		許參志玉	女	남	원	426	許一心行	女	개	성	

427	朴 修 仁	女	개 성	457	金 濟 養	男	신 촌
428	鄭成秋華	女	개 성	458	藥 山 朴 聖 公	男	종 로
429	梁 慧 日	女	초 량	459	鄭 行 眞	男	대 구
430	車妙連華	女	대 신	460	朴 德 濟	男	광 주
431	金智一華	女	인 천	461	羅 仁 術	男	청 주
432	金道林華	女	초 량	462	梁 眞 徹	女	초 량
433	金根實華	女	초 량	463	朱 明 根	女	영 산
434	申 秋 陽	女	초 량	464	宋 法 悅	女	원 남
435	李 仁 性	男	초 량	465	李 法 照	男	경 남
436	金 起 石	女	부 산 진	466	宋 大 願	男	대 전
437	林道根華	女	개 성	467	成義正華	女	대 마
438	朴四空華	女	개 성	468	金 永 善	男	산 동
439	李 西 田	女	개 성	469	全 大 基	男	교 동
440	金 奎 練	女	개 성	470	崔 贊 修	男	이 문 동
441	柳瑞中行	女	개 성	471	全 宗 音	女	불 광
442	曹永明華	女	대 마	472	崔 道 林	女	이 리
443	金注賢華	女	대 마	473	李九品華	女	다 대
444	黃迷理華	女	대 마	474	尹正覺行	女	창 원
445	李 圓 中	男	이 리	475	金道德華	女	김 천
446	李 峻 相	男	대 마	476	羅善心行	女	대 전
447	李 景 武	男	대 마	477	朴信心華	女	영 도
448	朴 ?! 石	女	이 리	478	梁根道華	女	마 령
449	宋 眞 言	女	동 전 주	479	安南解玉	女	원 남
450	白 俊 一	男	대 구	480	河敬雲華	女	광 주
451	朴 正 恩	男	인 월	481	洪恩福華	女	대 전
452	梁甘露華	女	전 주	482	李 圓 養	男	서 울
453	金 現 秀	女	초 량	483	李清連華	女	봉 황
454	朴天始玉	女	익 산	484	琴 實 圓	女	안 동
455	梁 慧 根	女	동 광 주	485	朴 靜 江	女	이 리
456	李奉珠華	女	서 울	486	梁 明 德	男	청 학

487	豐 山	梁 萬 現	男	서	면	517	威 山	崔 泰 運	男	원	효
488		梁 濟 輪	男	서	면	518		朴 谷 離 行	女	교	동
489		朴 大 德	男	부	산	519		金 樂 眞	男	교	동
490		張 益 相	女	백	운	520		宋 永 慶	女	교	동
491		全 德 孝	女	백	운	521		金 仁 天	男	안	동
492		曹 順 是 華	女	남	중	522		崔 善 局	女	이	리
493		黃 用 仁 華	女	금	평	523		崔 權 福	女	이	리
494		朴 哲 玄	男	목	포	524		李 時 雨	男	이	리
495		羅 道 一	男	군	서	525		李 道 英	女	부	산
496		유신철화	女	원	효	526		洪 明 峰	男	태	인
497		李玉潤行	女	신	촌	527		金 道 光	男	목	포
498		趙 局 眞	女	운	봉	528		林 德 星	男	이	리
499		金 智 融	男	목	포	529		崔 根 修 華	女	교	동
500		趙 世 型	男	화	곡	530		金 元 法 華	女	이	리
501		金 鏡 潭	男	목	포	531		鄭 永 根	男	추	부
502		李 一 榮	女	구	례	532		金 中 道	女	교	동
503		朴 光 德	女	부	산	533		金 正 面	女	서	광 주
504		全 在 誠	男	순	창	534		金 法 田 華	女	서	울
505		崔 道 正	女	순	창	535		鄭 誠 修 華	女	삼	례
506		金 眞 應	男	기	장	536		姜 壯 德	男	여	수
507		尹 善 仁 行	女	동	래	537		鞠 道 明 華	女	신	촌
508		徐 修 德	男	서	전 주	538		丁 道 公	男	김	천
509		辛 眞 一 華	女	마	산	539		宋 日 空	男	대	마
510		崔 仁 植	男	금	평	540		柳 戒 恩	男	남	군 산
511		徐 仁 正 華	女	대	전	541		朴 暢 達	女	창	원
512		金 潤 根	男	중	로	542		金 正 玉	女	전주양노원	
513		朴 普 一 華	女	군	남	543		朴 誠 谷	男	서	광 주
514		金 心 琴 華	女	당	리	544		李 良 賢	女	삼	례
515		柳 炯 運	女	익	산	545		吳 是 眞 華	女	방	배
516		光 山 李 三 空	男	대	마	546		李 仁 山 玉	女	부	산

547	姜斗文	女	서울	577	成君錫	男	이리
548	丁相信	女	진북	578	金慈德	女	산동
549	鄭江水華	女	원평	579	尹濟貫	男	영도
550	林正天華	女	기장	580	趙大中華	女	전주양노원
551	金善一行	女	이문	581	朴崇恩	女	이문
552	李上品華	女	동래	582	崔光燮	女	전주양노원
553	金大圓覺	女	동래	583	梁法緣華	女	구례
554	金允圓	男	완도	584	孫蓮旭	女	종로
555	柳天旭	女	전주양노원	585	田眞石	女	중앙수양원
556	尹夢覺	女	이리	586	박장현	女	운봉
557	許採成	女	신태인	587	林道常	男	진안
558	李英賢	女	동래	588	卞和德	女	서울
5559	柳老松華	女	이리	589	林親心玉	女	마산
560	金誠敬	女	익산	590	李恩中	男	용각
561	徐忠仁	女	서면	591	金高雲	女	법성
562	趙淸如華	女	부산	592	全正世華	女	이리
563	金世明	男	진북	593	宋濟浩	男	이리
564	李聖哲	男	김제	594	李時運	女	운봉
565	朴智源	女	서전주	595	朴玄石	男	중구
566	李虛圓	男	부산	596	金德浩	男	익산
567	張濟衆華	女	서면	597	趙妙恩	女	전주양노원
568	崔養眞圓	女	김해	598	林昌一	女	전주양노원
569	李福德華	女	이리	599	朴奉恩	女	수계
570	曹靖明	男	신촌	600	金明湖	男	감곡
571	辛福基	女	당리	601	朴自動華	女	운봉
572	金道國	男	군서	602	許秉常	男	장학
573	梁龍完	女	장성	603	金賢益華	女	팔봉
574	朴一聖圓	女	무주	604	姜護聖	男	부산
575	宋孝恩	女	전주양노원	605	奉天性華	女	용신
576	金淸峯	男	완도	606	金圓正	女	서광주

松 山

湖 山

明 山

607	任 孝 宗	女	소 성	637	金 眞 觀	男	삼 덕
608	柳 弘 祚	男	여 수	638	元敬陀行	女	춘 천
609	吳 道 根	男	부 산 진	639	朴 宇 圓	女	지 곡
610	李 亨 水	女	광 주	640	高 寶 金	女	방 배
611	柳 制 根	女	이 리	641	金宇田華	女	서 울
612	柳 瑞 完	女	수 계	642	金萬空華	女	동래수양원
613	李 圓 康	女	수 계	643	鄭聖珠行	女	목 포
614	成 仁 眞	男	대 전	644	朴積善行	女	영 도
615	宋 光 燮	男	대 전	645	河永道華	女	영 도
616	鄭法性華	女	서 울	646	신기연화	女	금 구
617	李 道 勳	男	서 울	647	崔 路 眞	女	부 산 진
618	李 寶 善	女	대 마	648	李 俊 現	女	익 산
619	鄭 容 眞	男	진 안	649	趙爲仁華	女	영 도
620	金 浩 然	女	청 학	650	郭 榮 泰	女	이 리
621	崔千萬玉	女	군 남	651	李大德華	女	동 래
622	金性是行	女	서 울	652	朴圓德華	女	신 촌
623	秀 山 尹 玉 錫	男	종 로	653	田 淸 圭	女	신 촌
624	金 仁 學	男	부 산 진	654	趙 吉 粹	男	송 정
625	吳 興 仁	男	원 주	655	尹 道 濟	男	동 이 리
626	韓淨水華	女	좌 포	656	金道心行	女	동 이 리
627	閔 圓 鏡	男	청 학	657	李 大 圓	男	동 이 리
628	趙 東 成	女	용 암	658	朴 起 德	女	동 이 리
629	박 윤 명	女	삼 천 포	659	高明水華	女	동 이 리
630	金 明 恩	女	왕 촌	660	權 道 完	女	마 산
631	金水晶華	女	전주양노원	661	李蓮台華	女	마 산
632	金精一行	女	동 원	662	金 南 昌	男	울 산
633	李 種 彬	男	김 해	663	韓 仁 錫	女	중앙수양원
634	李 瑞 華	女	덕 진	664	崔船若行	女	이 문
635	徐 中道華	女	남 원	665	李 誠 善	女	김 천
636	張 龍 運	男	초 량	666	李浩精華	女	광 주

667	高靜修華	女	광 주	697	朴周善	男	영 산
668	金法淵	女	삼 덕	698	朴晶烈	女	서 성로
669	金大然	女	김 해	699	白仁泉	男	원 효
670	金大貴華	女	밀 양	700	宋道潤	男	원 남
671	許心印	男	황 등	701	金滋誠	男	북 광주
672	金正德華	女	서 울	702	吳報恩華	女	북 광주
673	吳信烈行	女	여 수	703	梁道永	女	청 학
674	尹正春	女	서 면	704	崔鶴林	女	교 동
675	李見性華	女	서 광주	705	張桂英	女	전 주
676	鄭日明	男	영 도	706	張惠施行	女	전 주
677	都福器行	女	대 신	707	劉圓鍾	男	북 광주
678	盧應明玉	女	팔 봉	708	李昌運	女	마 령
679	鄭祥祐	男	남 중	709	李道甲	男	대 구
680	黃正養	女	중앙수양원	710	秋露運	男	초 량
681	盧宗南	女	수 지	711	金廈谷	男	초 량
682	金光錫	女	동 광주	712	金寬恕華	女	산 서
683	崔亨珠	女	서 울	713	韓泰裕	女	광 주
684	文法薰	女	운 봉	714	서중화	女	해 운대
685	高道隱	男	동 광주	715	宋曉眞	女	교 동
686	金修性	女	마 산	716	鄭仁修華	女	전주양노원
687	秋成實華	女	마 산	717	李仁教	男	제 기
688	金宗庵	男	마 산	718	全法成	女	진 주
689	嚴善心行	女	중앙수양원	719	黃星天	男	서 면
690	金昌洙	男	익 산	720	金正公華	女	종 로
691	金仁德華	女	백 수	721	趙恩慶	女	대 구
692	安奉景	女	수 지	722	金重烈	女	마 포
693	宋至仁行	女	불 광	723	金心正行	女	서 울
694	張行德	女	칠 보	724	朴宜觀	女	돈 암
695	鄭福德藏	女	전주양노원	725	李正忍	女	부 산
696	李道永華	女	전주양노원	726	李明出	男	관 촌

727	李道明華	女	전주양노원	757	朴春植	女	초량
728	李布施行	女	광안	758	金普信月	女	이리수양원
729	李恩順行	女	용신	759	李必淑	女	보절
730	鄭明善	女	목포	760	朴孝明	女	대연
731	金眞觀	女	부산진	761	李常德	男	대연
732	權觀水月	女	금마	762	조全功華	女	대연
733	金鍾煥	女	의정부	763	裴宗信	男	대구
734	崔道鍊華	女	대구	764	강도중	男	대구
735	姜道圓	男	유성	765	李龍煥	男	신도
736	金恍岩	男	여수	766	曹正德華	女	백운
737	金龍雲	男	여의도	767	鄭慧心華	女	백운
738	李明德	女	익산	768	文歸正	女	동래수양원
739	全玄道行	女	마령	769	全歸順華	女	광주
740	奉山 宋道鳳	男	태인	770	安寶經	女	장항
741	宋在心華	女	용신	771	李統一華	女	돈암
742	趙永天	男	양정	772	許志淵	女	연산
743	金珠生	男	양정	773	池海源	女	남춘천
744	金慧運	女	돈암	774	羅輪嘲	女	대전
745	趙慈修華	女	돈암	775	朴玄貫	男	영산
746	敏陀圓 南宮仙鶴	女	돈암	776	金安淑	女	교동
747	戎喜明	女	돈암	777	梁淨地華	女	동이리
748	洪基澈	女	돈암	778	金碩辰	女	정토회
749	鄭東明行	女	돈암	779	李歸一華	女	전주양로원
750	宋大鎔	男	원평	780	金仔中	女	제기
751	安天真華	女	의정부	781	金萬重	男	돈암
752	金順明	女	전주양노원	782	李公道華	女	강남
753	朴炳烈	男	다대	783	金文局	女	동광주
754	安因性行	女	부산진	784	李佑正	女	관촌
755	具圓丘	男	진안	785	梁地藏華	女	부산
756	曹恩重	女	대연	786	李聖經	女	전주양로원

787		金 春 執	女	왕	촌	817
788		金正安華	女	대	전	818
789		成 斗 淳	男	이	리	819
790		邊 道 順	女	소	성	820
791		李 庸 執	女	도	량	821
792		張 斗 然	男	교	동	822
793		高福男華	女	교	동	823
794		朴 永 順	女	서	울	824
795		金 亨 道	男	금	성	825
796		李正明華	女	중	로	826
797		金 聖 和	男	양	산	827
798		黃 正 心	男	용	신	828
799		李行運華	女	극	성	829
800		金淨空心	女	춘	천	830
801	振 山	李 明 振	男	백	수	831
802		金 修 完	男	진	안	832
803		金 永 中	男	군	남	833
804		白 性 珠	女	중	로	834
805		徐至善心	女	정	읍	835
806		李正陽華	女	중	로	836
807		林慈悲行	女	서	전 주	837
808		黃正氣行	女	남	원	838
809		許恩正華	女	목	포	839
810		崔 一 進	男	목	포	840
811		金應法行	女	용	신	841
812		崔 正 玉	女	원	평	842
813		朴 福 薰	女	정	릉	843
814		鄭永壽華	女	부	산	844
815	聯 山	金 仁 谷	男	목	포	845
816		崔道天行	女	중	로	846

鄭張成華	女	중	로
田修真華	女	동	이 리
韓 昔 中	女	용	신
金定主華	女	동	이 리
曹寶勝行	女	신	마 산
沈正覺行	女	전	주
林 柔 成	女	이	리
元 慧 淑	女	마	산
李 如 圓	男	대	신
魚 道 天	男	중	로
朴解願玉	女	서	울
崔 亨 滿	女	전	주
李 正 善	男	익	산
徐 敬 肅	男	부	산 진
朴解仁玉	女	초	량
邊有美行	女	대	구
양 영 주	男	남	원
韓 淸 植	男	화	해
俞眞明華	女	마	령
安 明 道	女	서	울
奇 正 進	女	전	주
金 龍 闕	女	마	령
林 大 充	女	신	도
朴慧月華	女	전	주
李敬振華	女	전	주
權悟正玉	女	임	실
韓靈光華	女	마	령
李 昇 玄	男	정	릉
金 妙 環	女	원	평
辛 慧 一	女	이	리

847		李 奉 奎	男	남 중 동	877	洙陀圓	李 世 玉	女	이 리
848		朴 氣 田	男	대 신	878	貞陀圓	金善日華	女	대 마
849		李 明 世	女	대 신	879		李 炳 淳	女	대 마
850		李根成華	女	화 해	880	耐 山	許 大 峻	男	전주양노원
851		洪德衆華	女	전 주	881	華陀圓	柳要旨華	女	전주양노원
852		金大智月	女	백 수	882		金 高 恩	女	광 주
853		朴優曇華	女	진 영	883		高永道華	女	광 주
854		柳正德華	女	전 주	884		金善明華	女	여 수
855		金 正 谷	男	감 국	885		劉大慶華	女	구 례
856		王 聖 淑	女	승 부	886		金法成華	女	밀 양
857		吳政敏華	女	수 계	887		金 正 峻	男	삼 천 포
858		吳安樂華	女	서 전 주	888		朱順正華	女	진 영
859		張 정 수	男	원 평	889		金 春 善	女	남 부 민
860		朴 正 來	男	임 실	890		韓 堅 中	男	다 대
861		秦如星華	女	개 성	891		趙 道 春	男	양 정
862		申 宗 海	男	태 인	892		李 修 安	女	양 정
863		吳 우 영	男	경 남	893		金 碩 培	男	양 정
864		許 慶 元	男	춘 천	894		宋眞福華	女	해 운 대
865		梁圓義華	女	중 로	895		최 성 문	男	초 량
866		金 貞 洙	男	광 주	896		김 민 정	女	초 량
867		金淸濟華	女	초 량	897		卓正圓行	女	초 량
868	磨陀圓	崔 寶 鏡	女	돈 암	898		李 和 中	女	초 량
869	輪 山	李 大 河	男	원 효	899		박 덕 수	男	인 월
870		최양지화	女	인 후	900		姜一如行	女	인 월
871	晃陀圓	張統一華	女	원 남	901		金 道 權	男	화 곡
872		梁 護 源	男	서 청 주	902		崔法悅玉	女	화 곡
873		金思重華	女	감 국	903		李南秀行	女	사 직
874		李 虛 正	男	돈 암	904		李 法 眞	男	중 로
875		최대련화	女	강 화	905		崔永盛玉	女	중 구
876	靑陀圓	朴 慶 根	女	당 리	906		노청정심	女	중 구

907	奘陀圓	金知心華	女	역	촌	937	進陀圓	尹基昌	女	의	정	부	
908		咸晶福	女	평	택	938		林仁烈	女	봉	황		
909		金聖泉	男	신	림	939		李桂根	女	봉	황		
910		金宗善華	女	원	남	940		宋淸心華	女	봉	황		
911		徐淑仁	女	원	남	941		尹明煥	女	봉	황		
912		金恩施華	女	군	남	942		林春成	男	봉	황		
913		金萬行玉	女	만	성	943		崔永禮	女	마	령		
914		吳益善	女	함	열	944		夫世勳	女	정	토	회	
915		崔義願心	女	이	리	945		卞正明	女	중	로		
916		崔一心華	女	금	구	946		梁忠玉	女	남	원		
917		金南恩	女	진	북	947		張晴峰	男	화	포		
918		梁希望	女	진	북	948		劉連德	女	다	대		
919		朴菩提華	女	진	북	949		김묘인화	女	전	주	양노원	
920		吳亨善	男	임	실	950		李恩心華	女	가	야		
921		朴明禮	女	전	주	951		鄭敬濟	男	양	정		
922	耘山	金聖模	男	전	주	952	金世英	女	양	정			
923		吳性理華	女	마	령	953	成道慶	男	서	을			
924		朴天壽華	女	마	령	954	文경인	男	서	을			
925		金法寶行	女	봉	황	955	靜陀圓	張重根	女	서	을		
926		柳南佳華	女	태	인	956	與陀圓	運普賢華	女	서	을		
927		金常根	女	화	해	957	朴道源華	女	화	해			
928		吳永宗	男	광	주	958	吳世安	女	동	산			
929	奎陀圓	李善根	女	정	토	회	959	許因善	女	화	해		
930		金慧空圓	女	통	영	960	元陀圓	洪敬安	女	정	토	회	
931		李南風華	女	평	화	961	鄭道善	女	남	가	좌		
932		李明恩	男	신	촌	962	權德奉	女	칠	보			
933		柳命煥	男	신	촌	963	柳大道華	男	면	목			
934		梁圓悟	男	신	촌	964	牧陀圓	김주연	男	황	동		
935		周正宣	男	불	광	965		白智權	女	삼	례		
936		金持信	女	춘	천	966		嚴正仁行	女	방	학		

967		崔堅志玉	女	삼 성	997		吳曉敬	女	진 영
968	閻陀圓	李恩慈華	女	춘 천	998		尹海善	女	진 영
969		金一直心	女	통 영	999		羅道局	女	완 도
970		邊天性華	女	문 장	1000		文賢眞	女	구 포
971		曹永德華	女	통 영	1001		朴禪心華	女	이 리
972		朴淸淨華	女	대 연	1002		朴正完	男	진 영
973		李覺道華	女	삼 성	1003		柳秀明	男	전주양노원
974		千德田玉	女	원 평	1004	心 山	金敬圓	男	익 산
975		金勇仁	男	전 주	1005		金舜五	男	칠 보
976		柳仁宗	男	승 부	1006	茂 山	金安守	男	익 산
977	秀 山	金道俊	男	태 인	1007		李誠徹	男	마 령
978		이정명월	女	서 진 주	1008		金璋錫	男	개 포
979		劉天性華	女	춘 천	1009		金熙尙	男	부 천
980		최상보화	女	전주양노원	1010		趙圓明華	女	구 로
981	完陀圓	노 재 환	女	전주양노원	1011		梁善玉	女	구 로
982		徐宗榮	男	관 춘	1012		曹三賢	女	광 주
983		徐定兼	男	신 흥	1013		朴晴和	女	대 야
984		金法住華	女	남원중앙	1014		金滿空	女	동 군 산
985	解陀圓	南明怒華	女	대 전	1015		金圓德	女	논 산
986	瓊陀圓	李性田華	女	삼 성	1016		申有天	女	동 마 산
987	宇陀圓	曹恩中	女	영 광	1017		孫悟常	男	대 연
988	源陀圓	張德海	女	대 현	1018	輪陀圓	成振萬	女	정 룡
989	修陀圓	韓敬壽行	女	오 수	1019		李潤明	女	정 룡
990		金道亨華	女	부 산 진	1020	母陀圓	牟仁鏡華	女	돈 암
991		金九玄	女	신 흥	1021	寶陀圓	柳三德華	女	잠 실
992		金在國	男	중 구	1022	福陀圓	金正覺華	女	종 로
993		朴明順	女	돈 암	1023	逢陀圓	李清恩	女	신 광
994		宋純眞華	女	백 운	1024		徐大默華	女	봉 황
995		梁正智玉	女	마 령	1025		高德禧	女	마 산
996		吳德常	男	익 산	1026		朴建局	女	남 가 좌

1027	寧陀圓	金定安華	女	다	대	1057	萬陀圓 兼 山 眞 山	金修禮	女	화	해
1028		張貴安	女	춘	천	1058		朴永哲	男	밀	양
1029		宋聖心行	女	등	광 주	1059		白正道行	女	삼	성
1030		朴元義華	女	교	동	1060		金德敏	女	삼	성
1031		徐宗薰	女	수	계	1061		韓大一	男	소	성
1032		鞠自性華	女	수	계	1062		曹禮善	女	소	성
1033		吳德新行	女	수	계	1063		任孝宗	女	소	성
1034		柳福新	女	수	계	1064		金奉修	女	좌	포
1035		曹誠一華	女	도	원	1065		金圓昌	男	소	성
1036		金泰顯華	女	마	산	1066		裴宗淵華	女	안	동
1037	寧陀圓	金清心華	女	동	래	1067	萬陀圓 兼 山 眞 山	朴順善	女	돈	암
1038		宋滿成	女	동	래	1068		金清淨華	女	돈	암
1039		沈良淑	女	전주양로원		1069		金寶聲	女	삼	성
1040		鄭務眞華	女	전주양로원		1070		徐定兼	男	신	홍
1041		金基誠	女	원	남	1071		李應眞	女	용	신
1042		李性天	男	신	촌	1072		鄭希敬	女	면	목
1043		朴永喆	男	밀	양	1073		崔昌遠	男	군	서
1044		李寶善行	女	원	평	1074		全成佛行	女	원	남
1045		崔正玉	女	원	평	1075		趙眞英	男	익	산
1046		宋明日華	女	원	평	1076		曹義現	女	삼	성
1047		李茂善	女	군	산	1077		李大澤玉	女	마	령
1048		金啓正行	女	군	산	1078		李道中	女	소	성
1049		柳亨善	男	불	광	1079		鄭一陀華	女	신	홍
1050		金法峻	女	대	야	1080		陳大道華	女	신	홍
1051		秋仁植	男	초	량	1081		崔義泉	男	해	리
1052		丁훈명화	女	임	산	1082		崔聖順	男	소	성
1053		盧豐音	女	마	령	1083		崔仁昌華	女	서	면
1054		具德恩	男	대	구	1084		崔重觀	男	동	산
1055		羅惠恩華	女	동	마 산	1085		韓貴錫	男	이	리
1056		河致玉	女	화	해	1086		閔慈善華	女	부	안

1087		丁奎文	男	남	중	1117	良陀圓	朴大植	女	서	을
1088		許正求	男	인	후	1118		牟雲英	女	영	산
1089		千智行	男	전	주	1119		金淨仁華	女	가	야
1090		洪性根	男	오	수	1120		李大緣華	女	대	신
1091		洪道局	男	오	수	1121		鄭濟慧玉	女	서	면
1092		姜眞明	男	오	수	1122		金良中	男	대	구
1093		朴仁敬華	女	남	춘	1123		具聖化	女	송	천
1094		全順德	女	대	방	1124		金修性華	女	안	동
1095		黃瑞玉	女	동	산	1125		權榮貴	女	수	계
1096		朴順道華	女	초	량	1126		崔淨明玉	女	수	계
1097		李順道華	女	전	주	1127		朴永日	女	마	령
1098		권양님	女	전주양노원		1128		鄭報恩行	女	마	령
1099		千正德華	女	전주양노원		1129		梁正福華	女	마	령
1100		鄭明性華	女	전주양노원		1130	寧陀圓	秋至願心	女	진	북
1101		金德奉	男	완	도	1131		崔玄默	女	남	중
1102	赫陀圓	金一珠行	女	북	일	1132	悟陀圓	孫悟心行	女	익	산
1103		李願生華	女	대	구	1133		李明仁	女	장	수
1104		柳淨光	男	돈	암	1134		池隨器華	女	마	산
1105	廣陀圓	金光明華	女	교	동	1135		許仁涉	男	마	산
1106	茂陀圓	李修全	女	교	도	1136		金基正	男	불	광
1107		桂澤潤	男	구	로	1137		全洪圓	女	전	능
1108		姜仁修	男	김	해	1138		趙孝貞	女	정	릉
1109		柳應現	女	문	장	1139		鄭仁教	女	화	해
1110		李貴恩華	女	춘	천	1140		金玉善華	女	화	해
1111		尹戒信	女	통	영	1141		韓俊榮	男	화	해
1112	是陀圓	河清明華	女	서	성	1142		金道嘆	女	화	해
1113		全正訓	男	동	이	1143		李修安	女	화	해
1114		金蓮心華	女	금	정	1144		魯月松	女	화	해
1115	建陀圓	李正氣行	女	덕	진	1145		金仁泰	男	화	해
1116	路山	金聖川	男	정	토	1146		嚴壽源	女	화	해

1147	朱秋月行	女	화 해	1177	鄭道峰	男	신 춘
1148	金東光	男	화 해	1178	眞山張慧眞	男	신 춘
1149	金啓善華	女	화 해	1179	朴世安	男	신 춘
1150	金元信	男	화 해	1180	薛善吉	男	삼 덕
1151	柳正光華	女	화 해	1181	朴援用	男	울 산
1152	金昌權	男	중앙수양원	1182	권덕천	男	군 산
1153	송덕진화	女	중앙수양원	1183	隱陀圓 임불성화	女	군 산
1154	안우홍	女	중앙수양원	1184	明陀圓 李永生華	女	신 마 산
1155	봉陀圓 조인선	女	중앙수양원	1185	李秉恩	男	수 원
1156	이陀圓 정지장행	女	중앙수양원	1186	陳心印華	女	삼 성
1157	민지희	女	중앙수양원	1187	曹修真行	女	동 두 천
1158	이상복원	女	중앙수양원	1188	金永寶玉	女	남 대 전
1159	朴眞相	男	삼 천 포	1189	興陀圓 魯正光玉	女	삼 례
1160	金妙雲	女	익 산	1190	朴修真	女	창 원
1161	李道明華	女	구 로	1191	淵陀圓 朴貴男	女	정 룡
1162	姜順鏡	女	운 봉	1192	曹中七	女	방 배
1163	柳敬子	女	전주양로원	1193	榮陀圓 申戒淑	女	돈 암
1164	高恩重	男	원 남	1194	徧陀圓 李進永	女	방 배
1165	김용덕	男	대 전	1195	慶陀圓 尹慶福華	女	전주양로원
1166	羅光法華	女	광 주	1196	壯陀圓 尹哲眞	女	장 수
1167	崔德常	男	서 대 전	1197	李敬法	女	삼 례
1168	宋德亨	女	광 주	1198	柳壽纘	男	원 남
1169	鄭賢仁華	女	남 중	1199	李福緣華	女	원 남
1170	淸山 洪一石	男	금 마	1200	慶山 朴圓一	男	원 남
1171	尹元春	男	농 성	1201	金正心	女	화 곡
1172	崔濟運	男	마 령	1202	李普明行	女	수 계
1173	金誠德行	女	수 계	1203	李常環	女	수 계
1174	金泰亨	男	화 해	1204	吳一覺	女	수 계
1175	鄭智正	男	신 춘	1205	鄭德現華	女	초 량
1176	裴寶善	男	신 춘	1206	金用寬	女	통 영

1207		崔 誠 心	女	수	계	1217		金梵一華	女	서	면
1208		宋具空華	女	수	계	1218	原陀圓	金法住華	女	남원중양	
1209		朴元一華	女	수	계	1219		尹信法華	女	목	포
1210		李基道華	女	수	계	1220		金 雲 庵	男	원	평
1211		宋 清 峻	男	군	산	1221		李 法 峻	男	원	평
1212		蔡 松 烈	男	군	산	1222		鄭光明華	女	남	울 산
1213		林永寶華	女	금	마	1223		黃 濟 雄	男	당	리
1214		한수선화	女	춘	천	1224	興陀圓	金 普 運	女	당	리
1215	貫陀圓	韓 玄 鏡	女	태	인	1225		金 智 完	男	밀	양
1216		金英慈行	女	사	상	1226	柔陀圓	朴 福 源	女	용	암

○大喜捨位

번호	법 호	법 명	관 계 인	비 고	번호	법 호	법 명	관 계 인	비 고
1	晦 山	朴 晦 傾	大 宗 師 先考		3	久 山	宋 碧 照	鼎山宗師 先考	
2	定陀圓	劉 定 天	大 宗 師 先妣		4	準陀圓	李 雲 外	鼎山宗師 先妣	

○中喜捨位

번호	법 호	법 명	관 계 인	비 고	번호	법 호	법 명	관 계 인	비 고
1		金 多 有	金 幾 千 先考		11	連 山	金 仁 悟	金 大 舉 先考	
2		金 大 有	金 幾 千 先妣		12	鳳陀圓	安 敬 信	金 大 舉 先妣	
3	慶 山	曹 頌 廣	曹 專 權 先考		13	少太山	朴 重 彬	朴 光 田 先考	
4		崔 亨 燁	曹 專 權 先妣		14	十陀圓	梁 夏 雲	朴 光 田 先妣	
5	向 山	李 壯 運	李 完 喆 先考		15		成 載 玟	成 丁 哲 先考	
6	仲陀圓	金南日華	李 完 喆 先妣		16	建陀圓	孫 學 敬	成 丁 哲 先妣	
7		李 和 實	李東震華 先考		17	八 山	金 光 旋	金 洪 哲 先考	
8		金 姓 女	李東震華 先妣		18	心陀圓	辛 正 浪	金 洪 哲 先妣	
9	薰 山	李 春 風	李 敬 順 先考		19		李 裕 生	李 共 珠 先考	
10	敬陀圓	鄭三?火	李 敬 順 先妣		20	樂陀圓	閔自然華	李 共 珠 先妣	

21	眞 山	徐 奎 碩	徐 大 仁 先考	32		朴 玄 貫	朴 恩 局 先考	
22	玉陀圓	朴 敬 德	徐 大 仁 先妣	33		李 法 輪	朴 恩 局 先妣	
23	方 山	李 亨 基	李 雲 捲 先考	34	略 山	全 大 堯	全 二 昌 先考	
24	容陀圓	辛 以 耕	李 雲 捲 先妣	35		李 安 燮	全 二 昌 先妣	
25	萊 山	梁 元 局	梁 道 信 先考	36		呂 昌 奎	呂 清 雲 先考	정토회
26	普陀圓	李聖主華	梁 道 信 先妣	37		盧 代 宣	呂 清 雲 先妣	정토회
27		朴 海 昌	朴 將 植 先考	38		李 根 萬	李 永 勳 先考	정토회
28	戒陀圓	鄭 亨 燮	朴 將 植 先妣	39	官陀圓	趙 準 官	李 永 勳 先妣	정토회
29		安 錫 龜	安 理 正 先考	40		吳 聖 照	吳 喆 煥 先考	군 산
30	碧陀圓	朴 淨 業	安 理 正 先妣	41		洪永明華	吳 喆 煥 先妣	군 산
31		金 正 德	金 中 默 先考					

○小喜捨位

번호	법 명	관 계 인	비 고	번호	법 명	관 계 인	비 고
1	金 應 七	金 光 旋 先考	영 산	16	沈 月 鏡	徐 東 風 先妣	원 평
2	趙 烟 風	金 光 旋 先妣	영 산	17	李 熙 同	李 君 一 先考	대 마
3	朴 多 汝	朴 世 喆 先考	영 산	18	金 東 閣	李 君 一 先妣	대 마
4	盧 氏	朴 世 喆 先妣	영 산	19	李 完 喆	李 泰 然 先考	신 흥
5	李 官 現	李 載 喆 先考	신 흥	20	劉華潤玉	李 泰 然 先妣	신 흥
6	金 華 玉	李 載 喆 先妣	신 흥	21	朴 海 陽	朴 慧 鍊 華 先考	마 령
7	吳 允 安	吳 昌 建 先考	영 산	22	柳 姓 女	朴 慧 鍊 華 先妣	마 령
8	金 性 女	吳 昌 建 先妣	영 산	23	丁 文 玉	丁 一 持 先考	영 산
9	宋 薰 勳	宋 碧 照 先考	영 산	24	池正理行	丁 一 持 先妣	영 산
10	李 顯 德	宋 碧 照 先妣	영 산	25	趙 大 盡	趙 甲 鍾 先考	총 부
11	宋 相 豐	宋 慧 煥 先考	진 안	26	崔 道 華	趙 甲 鍾 先妣	총 부
12	金 尹 石	宋 慧 煥 先妣	진 안	27	吳 近 亨	吳 彌 汕 先考	완 도
13	李 永 淳	李仁義華 先考	이 리	28	趙 明 德	吳 彌 汕 先妣	완 도
14	金 氏	李仁義華 先妣	이 리	29	梁 河 蓮	梁 河 雲 先考	총 부
15	徐 致 旭	徐 東 風 先考	원 평	30	朴玄濟華	梁 河 雲 先妣	총 부

31	辛大賢	辛道亨先考	총부	61	金雪上華	李青春先妣	총부
32	丁炳玉	辛道亨先妣	총부	62	金氏	金南天先考	"
33	白運欽	白智明先考	총부	63	모氏	金南天先妣	"
34	田映昊	田功德海先考	동래	64	李鉉沃	李春風先考	"
35	金小龍	田功德海先妣	동래	65	金氏	李春風先妣	"
36	朴海山	朴靈珠先考	둔암	66	徐奇彩	徐大圓先考	"
37	李大光	朴靈珠先妣	둔암	67	朴道仙華	徐大圓先妣	"
38	丁益秀	丁慈善先考	총부	68	朴風用	朴濟奉先考	"
39	朴具空攬	丁慈善先妣	총부	69	安敬任	朴濟奉先妣	"
40	金聖西	金東壽先考	영산	70	朴將星	朴昌基先考	"
41	昌寧曹氏	金東壽先妣	영산	71	朴光實	朴元吉先考	"
42	李致德	李貴道華先考	신태인	72	李氏	朴元吉先妣	"
43	한복림	李貴道華先妣	신태인	73	李氏	李旬旬先考	영산
44	姜致光	姜現秀先考	도양	74	모氏	李旬旬先妣	영산
45	金氏	姜現秀先妣	도양	75	유호일	劉巾先考	영산
46	朴乃明	朴樂天先考	동전주	76	金氏	劉巾先妣	영산
47	玄氏	朴樂天先妣	동전주	77	徐致旭	徐中安先考	김제
48	吳松庵	吳宗泰先考	총부	78	藩月鏡華	徐中安先妣	김제
49	尹黃雲	吳宗泰先妣	"	79	曹錫元	曹頌廣先考	원평
50	丁一持	丁光薰先考	"	80	房氏	曹頌廣先妣	원평
51	金東壽	丁光薰先妣	"	81	徐五兼	徐奎碩先考	영산
52	朴氏	朴四時華先考	"	82	金玉順	徐奎碩先妣	영산
53	李氏	朴四時華先妣	"	83	梁在一	梁元局先考	당리
54	張氏	張寂照先考	"	84	李姓女	梁元局先妣	당리
55	李氏	張寂照先妣	"	85	田達俊	田參參先考	마령
56	崔氏	崔道華先考	"	86	李性愛	田參參先妣	마령
57	진정만옥	崔道華先妣	"	87	盧氏	盧德頌玉先考	좌포
58	李氏	李願華先考	"	88	모氏	盧德頌玉先妣	좌포
59	金是心華	李願華先妣	"	89	鄭氏	鄭三?!火先考	영산
60	李仁景	李青春先考	"	90	黃氏	鄭三?!火先妣	영산

91	安 亮 烈	安 敬 信 先考	좌 포	121	鄭 仁 喆	鄭 世 月 先考	익 산
92	尹 彩 雲	安 敬 信 先妣	좌 포	122	李明仁華	鄭 世 月 先妣	익 산
93	辛 氏	辛 正 浪 先考	영 산	123	金 致 一	金 瑞 龍 先考	불 감
94	모 氏	辛 正 浪 先妣	영 산	124	南玄受行	金 瑞 龍 先妣	불 감
95	鄭 在 健	鄭 亨 燮 先考	남 원	125	林 局 信	林七寶華 先考	초 량
96	盧 氏	鄭 亨 燮 先妣	남 원	126	權 在 兒	林七寶華 先妣	초 량
97	孫 景 三	孫 學 敬 先考	익 산	127	李 日 善	李 天 倫 先考	중 로
98	郭 玄 行	孫 學 敬 先妣	익 산	128	成 昌 淑	李 天 倫 先妣	중 로
99	金 應 圓	林 基 善 先考	당 리	129	李 良 雨	李 正 慧 先考	부 산
100	林 主 緣	林 基 善 先考	당 리	130	金性明華	李 正 慧 先妣	부 산
101	朴 漢 泰	朴天始玉 先考	신 흥	131	成 修 植	成 義 徹 先考	서 을
102	李 氏	朴天始玉 先妣	신 흥	132	李 明 賢	成 義 徹 先妣	"
103	李 炳 玉	李 中 和 先考	대 마	133	文 楨 殷	文 東 賢 先考	"
104	李 氏	李 中 和 先妣	대 마	134	秋 瓊 連	文 東 賢 先妣	"
105	尹 相 起	尹 正 運 先考	충 부	135	成 載 桓	成 聖 願 先考	"
106	洪 禮 聖	尹 正 運 先妣	"	136	朴孔明善	成 聖 願 先考	서 을
107	趙 明 局	趙 峻 谷 先考	"	137	趙 靈 圓	趙 嬉 錫 先考	군 남
108	崔 竹	趙 峻 谷 先妣	"	138	金正法行	趙 嬉 錫 先妣	군 남
109	池 尙 鎬	池 海 元 先考	"	139	朴 晶 華	朴 東 現 先考	전 주
110	李聖義華	池 海 元 先妣	"	140	金 亨 國	朴 東 現 先妣	전 주
111	李 東 安	李 正 滿 先考	"	141	崔 致 福	崔 行 德 先考	원 남
112	金 潤 德	李 正 滿 先妣	"	142	李法性華	崔 行 德 先妣	원 남
113	權 聖 壽	權 動 華 先考	정 토 회	143	金 永 碩	金 善 玉 先考	
114	金滿空月	權 動 華 先妣	정 토 회	144	정 일 련	金 善 玉 先妣	
115	宋 泰 昇	宋 敬 心 先考	원 남	145	孫 昌 秀	孫 振 經 先考	밀 양
116	金 貞 淑	宋 敬 心 先妣	원 남	146	李 是 浩	孫 振 經 先妣	밀 양
117	丁 又 賢	丁 宇 眞 先考	전 주	147	金 夏 益	金 桂 玉 先考	초 량
118	金 道 奉	金志圓行 先考	익 산	148	李正進行	金 桂 玉 先妣	초 량
119	宋 文 孝	宋 圓 徹 先考	마 령	149	崔 昇 雨	崔修仁華 先考	충 부
120	徐 仁 淑	宋 圓 徹 先妣	마 령	150	李 姓 女	崔修仁華 先妣	충 부

151	李 七 現	李 炳 恩 先考	총 부	181	金 碩 奎	金 智 玄 先考	총 부
152	梁 性 女	李 炳 恩 先妣	총 부	182	申 法 現	金 智 玄 先妣	"
153	金 昌 淑	金 湖 烟 先考	군 서	183	朴 榮 植	朴 濟 權 先考	"
154	李性智華	金 湖 烟 先妣	군 서	184	鄭 奉 淑	朴 濟 權 先妣	"
155	趙 奉 奎	趙 昌 煥 先考	익 산	185	張 應 眞	張 聖 鎮 先考	"
156	金 姓 女	趙 昌 煥 先妣	익 산	186	金修業行	張 聖 鎮 先妣	"
157	윤 보 병	尹 德 奉 先考	부 산 진	187	梁 元 圭	梁 濟 承 先考	"
158	한 의 완	尹 德 奉 先妣	"	188	李 正 淳	李 普 圓 先考	"
159	朴 太 洙	朴 錦 容 先考	"	189	李 亨 媛	李 普 圓 先妣	"
160	趙 仁 淑	朴 錦 容 先妣	"	190	柳 漢 東	柳 基 現 先考	"
161	黃 秀 哲	黃 周 南 先考	마 령	191	朴 萬 植	朴 正 薰 先考	"
162	鄭淨道行	黃 周 南 先妣	마 령	192	金 黃 龍	朴 正 薰 先妣	"
163	최 우 식	崔 雲 耕 先考	서 울	193	宋 道 性	宋 天 恩 先考	"
164	李 性 如	崔 雲 耕 先妣	서 울	194	李 三 空	李 廣 淨 先考	"
165	金 宗 言	金 勤 修 先考	총 부	195	李 梅 谷	李 廣 淨 先妣	"
166	李宗業華	金 勤 修 先妣	총 부	196	金 贊 京	金 法 宗 先考	"
167	金 振 永	金 允 中 先考	"	197	劉 敬 愛	金 法 宗 先妣	"
168	朴 萬 練	金 允 中 先妣	"	198	李 宗 石	李 修 悟 先考	"
169	全貞觀玉	李 喆 行 先考	"	199	李 性 女	李 修 悟 先妣	"
170	李 昊 春	李 空 田 先考	"	200	鄭 爽 調	鄭觀音行 先考	"
171	金 道 一	金 正 勇 先考	"	201	李普運月	鄭觀音行 先妣	"
172	千古城華	金 正 龍 先妣	"	202	朴 宗 眞	朴 永 權 先考	"
173	金 一 環	金 永 信 先考	"	203	李 仁 淑	朴 永 權 先妣	"
174	李 性 覺	金 永 信 先妣	"	204	尹 相 化	尹 周 現 先考	"
175	黃 元 俊	黃淨信行 先考	서 울	205	姜日新行	尹 周 現 先妣	"
176	宋귀중화	黃淨信行 先妣	서 울	206	金 完 成	金 奉 植 先考	"
177	鄭 淳 中	鄭 眞 淑 先考	총 부	207	金義眞華	金 奉 植 先妣	"
178	朴 圓 溪	鄭 眞 淑 先妣	"	208	朴 鎮 樹	朴 性 敬 先考	"
179	宋 奎	宋 靈 鳳 先考	"	209	李 庸 執	朴 性 敬 先妣	"
180	呂 清 雲	宋 靈 鳳 先妣	"	210	全 元 鍾	全 基 徹 先考	"

211	李法眞煥	全基徹先妣	총 부	241	文鳳林	徐世仁先考	총 부
212	丁眞秀	丁慶浩先考	"	242	朴昌信	朴恩燮先考	"
213	田眞石	丁慶浩先妣	"	243	林洪珠	朴恩燮先妣	"
214	李貴正	李再耕先考	"	244	林舜目	林善揚先考	"
215	崔恩惠華	李再耕先妣	"	245	張萬翼	張景晏先考	"
216	田仁局	田宗哲先考	"	246	朴正理行	張景晏先妣	"
217	金貴禮	田宗哲先妣	"	247	金精進	金大現先考	"
218	崔景雲	崔奎學先考	"	248	崔內善	金大現先妣	"
219	宋仁哲	宋靈智先考	"	249	白道源	白水晶先考	"
220	崔尙玉	宋靈智先妣	"	250	李厚德	白水晶先妣	"
221	姜性修	朴濟現先妣	"	251	宋德輝	宋達俊先考	"
222	吳致元	吳嬉圓先考	"	252	閔自然性	宋達俊先妣	"
223	朴眞悟	吳嬉圓先妣	"	253	柳道願	柳青史先考	남 원
224	金煥千	金德眞先考	"	254	李修圓華	柳青史先妣	남 원
225	秋潤眞華	金德眞先妣	"	255	孔永喆	孔德宗先考	중 로
226	李亨俊	李智一先考	"	256	趙福仁	孔德宗先妣	중 로
227	權吳楚華	李智一先妣	"	257	金信錫	金經圓先考	중 구
228	安東洙	安智淑先考	"	258	남일심령	金經圓先妣	중 구
229	鄭性女	安智淑先妣	"	259	羅正弼	羅喆重先考	정 주
230	權丙輝	權偶然先考	"	260	成殷鎬	成鐵石先考	익 산
231	金性是行	權偶然先妣	"	261	趙昌煥	成鐵石先妣	익 산
232	鄭祥祐	鄭潤才先考	"	262	崔崙수	崔福京先考	영 산
233	曹順是華	鄭潤才先妣	"	263	유 흥 선	崔福京先妣	영 산
234	高道局	高賢種先考	"	264	朴시운	朴東信先考	
235	金性任	高賢種先妣	"	265	김 정 안	朴東信先妣	
236	宋重碩	宋慈明先考	"	266	金光善	金正光先考	완 도
237	車靈七華	宋慈明先妣	"	267	朴氏	金正光先妣	완 도
238	柳允七	柳壯順先考	"	268	黃道日	黃清源先考	삼 례
239	沈志願	柳壯順先妣	"	269	尹性女	黃清源先妣	삼 례
240	徐亨洙	徐世仁先考	"	270	李根遠	李皓濬先考	수 계

271	宋 氏	李 晔 澹 先妣	수 계	301	李 淑	林 正 觀 先妣	원 남
272	김 성 기	金 一 主 先考	광 주	302	朴 住 植	朴 智 揚 先考	대 구
273	이가름예	金 一 主 先妣	광 주	303	李保任華	朴 智 揚 先妣	대 구
274	金 時 中	金 純 玉 先考	광 주	304	金 亨 柱	金萬公華 先考	부 산 진
275	정 수 옥	金 純 玉 先妣	광 주	305	김 탄 실	金萬公華 先妣	부 산 진
276	李 德 和	李 福 田 先考	운 봉	306	徐 中 安	徐 共 南 先考	익 산
277	玄道七華	李 福 田 先妣	운 봉	307	鄭 世 月	徐 共 南 先妣	익 산
278	林 淸 庵	林 濟 玉 先考	남 부 민	308	한 두 섭	韓 貴 哲 先考	영 산
279	具 良 根	林 濟 玉 先妣	남 부 민	309	정 성 려	韓 貴 哲 先妣	영 산
280	金 性 淸	金 學 基 先考	동 래	310	金 相 英	金 瑞 敬 先考	종 로
281	文 午 山	金 學 基 先妣	동 래	311	文 陝 伊	金 瑞 敬 先妣	종 로
282	白 住 換	白 仁 哲 先考		312	梁 在 斗	梁 亨 善 先考	종 로
283	朴 恩 賢	白 仁 哲 先妣		313	高 雲 根	梁 亨 善 先妣	종 로
284	鄭 敬 和	鄭明眞華 先考		314	金 根 滢	金 妙 英 先考	종 로
285	朴 德 奉	鄭明眞華 先妣		315	洪 孝 任	金 妙 英 先妣	종 로
286	金 斗 昊	金法理華 先考		316	閔 興 植	閔 聖 經先生	익 산
287	全 仁 岳	金法理華 先妣		317	李 賢 基	閔 聖 經先考	익 산
288	朴 錦 緒	朴 眞 信 先考	구 로	318	김 채 술	金 揚 正先妣	화 포
289	李 貞 和	朴 眞 信 先妣	구 로	319	이 원 주	李 七 星先考	정 토 회
290	趙 東 植	趙 秋 淵 先考	마 포	320	박극진화	李 七 星先妣	정 토 회
291	韓 恩 徹	趙 秋 淵 先妣	마 포	321	정 재 호	鄭 得 源先考	정 토 회
292	진 성 영	陳 明 一 先考	마 산	322	朴 氏	鄭 得 源先妣	정 토 회
293	崔 氏	陳 明 一 先妣	마 산	323	李 氏	李寬柔行先考	이 리
294	李 東 明	李三中行 先考	동 래	324	邊聖進華	李寬柔行先妣	이 리
295	金共鳴行	李三中行 先妣	동 래	325	梁 石 贊	梁 南 根先考	부 산
296	趙 延 鎬	趙道運行 先考	신 촌	326	金 必 每	梁 南 根先妣	부 산
297	鄭 基 媛	趙道運行 先妣	신 촌	327	李 世 光	李 壯 恩先考	남 군 산
298	金 文 培	金道眞行 先考	원 남	328	金 基 世	李 壯 恩先妣	남 군 산
299	崔月萬華	金道眞行 先妣	원 남	329	鄭 鴻 錫	鄭 奉 淑先考	남 원
300	林 東 曄	林 正 觀 先考	원 남	330	盧淸信行	鄭 奉 淑先妣	남 원

331	池 東 寅	池 歡 善 先考	총 부	367	박 형 원	朴德之華 先考	익 산
332	李 龍 沅	池 歡 善 先考	총 부	368	강 재 은	朴德之華 先考	익 산
333	李 康 燁	李 玄 度 先考	총 부	369	柳 松 濟	柳 虛 一 先考	총 부
334	金 德 昌	李 玄 度 先妣	총 부	370	鄭 栢 桐	柳 虛 一 先妣	총 부
335	李 丙 度	李 明 觀 先考		371	劉 世 錄	柳大信行 先考	서 성 로
336	李 鍾 眠	李 明 觀 先妣		372	姜道明華	柳大信行 先妣	서 성 로
337	金 氏	金 元 亨 先考	원 평	373	郭 閑 成	郭 炳 源 先考	이 리
338	李 萬 甲	金 元 亨 先妣	원 평	374	金泰尙玉	郭 炳 源 先妣	이 리
339	李 氏	李 萬 甲 先考	원 평	375	金 春 明	金 致 一 先考	이 불 감
340	某 氏	李 萬 甲 先考	원 평	376	平康蔡氏	金 致 一 先妣	이 불 감
341	盧 應 佑	盧淸信行 先考		377	趙 日 錫	趙 正 中 先考	총 부
342	鄭 氏 來	盧淸信行 先妣		378	李 化 眞	趙 正 中 先考	"
343	文 澤 奎	文 忠 恩 先考	서 울	379	沈 相 璵	沈 益 順 先考	"
344	李扶一行	文 忠 恩 先妣	서 울	380	金順是華	沈 益 順 先妣	"
345	高 氏	高賢一華 先考		381	鄭 正 根	鄭 守 德 先考	"
346	金大無心	高賢一華 先妣		382	丁 順 成	鄭 守 德 先妣	"
347	김 경 호	金 成 學 先考	제 원	383	張 中 性	張 善 舉 先考	"
348	崔圓明心	金 成 學 先妣	제 원	384	柳 泰 春	張 善 舉 先妣	"
349	崔 龍 德	崔 宗 業 先考	불 광	385	柳 根 述	柳 貴 南 先考	"
350	林飯器華	崔 宗 業 先妣	불 광	386	金敬義華	柳 貴 南 先妣	"
351	朴 祥 珉	朴恩施華 先考	대 신	387	鄭 자 경	鄭 亨 善 先考	"
352	全玉蓮華	朴恩施華 先妣	대 신	388	姜 氏	鄭 亨 善 先妣	"
353	金 東 鎮	金 智 順 先考		389	오 정 삼	吳 然 秀 先考	"
354	安德慧玉	金 智 順 先妣		390	姜 氏	吳 然 秀 先妣	"
355	金 宗 信	金 仁 碩 先考	총 부	391	柳 亨 度	柳 寬 眞 先考	"
356	朴圓導行	金 仁 碩 先妣	총 부	392	高 慧 子	柳 寬 眞 先妣	"
357	沈修眞華	黃 直 平 先考	총 부	393	崔 露 眞	崔 順 哲 先考	"
358	金 學 俊	金 明 甲 先考	서 울	394	全 飲 光	全 八 根 先考	"
359	최 지 복	崔 仁 守 先考	원 남	395	朴 守 安	朴 賢 一 先考	"
360	李 氏	崔 仁 守 先妣	원 남	396	房致運	朴 賢 一 先妣	"
361	이 동 원	李 聖 道 先考		397	吳 斗 煥	吳 聖 洙 先考	"
362	옥 영 희	李 聖 道 先妣		398	李 洪 範	李 吳 春 先考	"
363	홍 정 길	洪吏施行 先考	부 산	399	金泰尙玉	李 吳 春 先妣	"
364	양지장화	洪吏施行 先妣	부 산	400	이 경 안	李 惠 善 先考	"
365	鄭 法 悅	鄭 長 局 先考	남 원	401	김성인행	李 惠 善 先妣	"
366	李 啓 善	鄭 長 局 先妣	남 원	402	李 起 助	李 法 輪 先考	"

404	張鍾元	張惠星	先考	총	부	435	金東華	金剛仁	先考	총	부
405	鄭德明華	張惠星	先妣	"		436	鄭順今	金剛仁	先妣	"	
406	韓奇先	韓正釋	先考	"		437	金宗煥	金成珠	先考	"	
407	金成願華	韓正釋	先妣	"		438	李在善	金成珠	先妣	"	
408	丁煥秀	丁道允	先考	"		439	崔炳哲	崔南貞	先考	"	
409	金潤赫	金普現	先考	"		440	陳淨明日	崔南貞	先妣	"	
410	李瑞雲	李大光	先考	"		441	李元澤	金忠玄	先考	"	
411	金炳基	金智行	先考	"		442	金東九	金碩奎	先考	"	
412	朴知安	金智行	先妣	"		443	安法因	金碩奎	先妣	"	
413	權漢元	權正音	先考	"		444	張上鳳	張應哲	先考	"	
414	朴智空華	權正音	先妣	"		445	金出塵玉	張應哲	先妣	"	
415	李富碩	李永華	先考	"		446	梁海潤	梁慧經	先考	"	
416	崔般若行	李永華	先妣	"		447	李均衡	李維寬	先考	"	
417	太正根	太德權	先考	"		448	柳孝順	李維寬	先妣	"	
418	李南德	太德權	先妣	"		449	張成彥	張仁中	先考	"	
419	高德述	高興權	先考	"		450	金貴彥	張仁中	先妣	"	
420	權氏	高興權	先妣	"		451	金四海	金光昌	先考	"	
421	張文源	張正現	先考	"		452	李永生華	金光昌	先妣	"	
422	金玄德華	張正現	先妣	"		453	安道公	安正眞	先考	"	
423	梁會捲	梁法寬	先考	"		454	李南秀行	安正眞	先妣	"	
424	趙主恩華	梁法寬	先妣	"		455	李昌吉	李百徹	先考	"	
425	金升玉	金善地行	先考	"		456	李敬澤	李晶煥	先考	"	
426	宋姓女	金善地行	先妣	"		457	李亨局	李中正	先考	"	
427	崔仁成	崔萬振	先考	"		458	盧道峰華	李中正	先妣	"	
428	朴成萬	朴明音	先考	"		459	李奉奎	李用眞	先考	"	
429	姜서운	朴明音	先妣	"		460	朴靈理華	李用眞	先妣	"	
430	趙喜善	朴圓錫	先考	"		461	崔大安	崔純圓	先考	"	
431	朴德常	朴慧順	先考	"		462	車明姬	崔純圓	先妣	"	
432	權法恩華	朴慧順	先妣	"		463	陸智順	金亨哲	先考	"	
433	牟常德	牟相峻	先考	"		464	盧圓道	吳恩聖	先考	"	
434	金正住華	牟相峻	先妣	"		465	盧天供玉	吳恩聖	先妣	"	

466	徐奎圓	徐聖範 先考	충	부	496	吳敬旭	吳海仁 先考	충	부
467	許法緣華	徐聖범 先妣	"		497	朴鳳植	朴玄道 先考	"	
468	朴亨寬	朴世經 先考	"		498	權如聖	權一經 先考	"	
469	劉昌玉	朴世經 先妣	"		499	崔性眞行	權一經 先妣	"	
470	朴炳元	朴德峻 先考	"		500	全法中	全敬和 先考	"	
471	金亨南	朴德峻 先妣	"		501	金允中	全敬和 先妣	"	
472	尹松雲	尹順培 先考	"		502	柳完根	柳正完 先考	"	
473	金連玉	尹順培 先妣	"		503	李基道華	柳正完 先妣	"	
474	鄭仁秀	鄭敬勳 先考	"		504	金性月	金惠實 先考	"	
475	金完錫	金三味華 先考	"		505	金殷植	金三印 先考	"	
476	卓氏	金三味華 先妣	"		506	마선규	馬明淑 先考	"	
477	李白兼	李俊鏡 先考	"		507	金同音	金聖現 先考	"	
478	金氏	李俊鏡 先妣	"		508	李晚基	李聖露 先考	"	
479	李漢植	李順權 先考	"		509	朴普日華	李聖露 先妣	"	
480	朴氏	李順權 先妣	"		510	柳戒恩	柳玄正 先考	"	
481	金今同	金達性 先考	"		511	金日鉉	金貴根 先考	"	
482	大甲漢	金達性 先妣	"		512	李海根	金貴根 先妣	"	
483	李相玉	李道信華 先考	"		513	李宗光	李德心 先考	"	
484	柳玄明	李道信華 先妣	"		154	李寬柔行	李德心 先妣	"	
485	孫春京	孫爲一 先考	"		515	朴樂現	朴清秀 先考	"	
486	鄭基燁	孫爲一 先妣	"		516	宋蒼虛	宋成讚 先考	"	
487	池海元	池性仁 先考	"		517	呂南眞華	宋成讚 先妣	"	
488	李善根	池性仁 先妣	"		518	權榮勤	權德圓 先考	"	
489	李炳熙	李道興 先考	"		519	李明振	李正務 先考	"	
490	趙大明華	李道興 先妣	"		520	李順覺	李正務 先妣	"	
491	李東世	李鍾圓 先考	"		521	鄭在植	鄭宗喜 先考	"	
492	柳徹圓	柳香元 先考	"		522	吳氏	鄭宗喜 先妣	"	
493	許興法華	柳香元 先妣	"		523	金仁甲	金智英 先考	"	
494	梁澤均	梁景瑞 先考	"		524	柳貞行	金智英 先妣	"	
495	金海印華	梁景瑞 先妣	"		525	朴秀植	朴成席 先考	"	

526	尹 心 珠	朴 成 席 先妣	충 부	558	金 太 鉉	金 明 勳 先考	서 울
527	趙 東 悟	趙 正 勤 先考	"	559	朴 太 玉	金 明 勳 先妣	"
528	黃 榮 燮	黃 明 照 先考	"	560	姜 學 太	姜 印 法 先考	"
529	최순조화	黃 明 照 先妣	"	561	丁 貴 學	姜 印 法 先妣	"
530	金 好 淵	金 致 局 先考	"	562	鄭 炫 朱	鄭 性 眞 先考	"
531	鄭觀音行	金 致 局 先妣	"	563	安 淑 子	鄭 性 眞 先妣	"
532	李 靈 根	李 慧 定 先考	"	564	徐 駿 錫	徐 滿 教 先考	"
533	羅 聖 業	李 慧 定 先妣	"	565	李恩心華	徐 滿 教 先妣	"
534	金 柱 哲	金 恩 信 先考	"	566	張 炳 春	張心印行 先考	"
535	宋 眞 言	金 恩 信 先妣	"	567	金 正 心	張心印行 先妣	"
536	姜 安 國	姜 妙 眞 先考	"	568	李 正 龍	李 大 現 先考	마 산
537	池元淨華	姜 妙 眞 先妣	"	569	金 庄 涉	金雲水華 先考	"
538	金 建 植	金 元 滿 先考	"	570	盧正明花	金雲水華 先妣	"
539	金 鍾 文	金 法 眞 先考	"	571	吉 昌 根	吉 明 仁 先考	"
540	孫 振 經	孫 正 允 先考	"	572	李金輪華	吉 明 仁 先妣	"
541	金 鎮 學	孫 正 允 先妣	"	573	吳 在 禹	吳 頭 山 先考	교 동
542	金 寶 培	張 敬 眞 先妣	"	574	李 氏	吳 頭 山 先妣	교 동
543	李 慶 良	李 明 仁 先考	"	575	朴 道 修	朴修正華 先考	부 산 진
544	林正智華	李 明 仁 先妣	"	576	憫善行華	朴修正華 先妣	부 산 진
545	趙 俊 益	趙 智 聖 先考	"	577	田 海 鏡	田妙正華 先考	부 산 진
546	金 應 鉉	趙 智 聖 先妣	"	578	趙極樂華	田妙正華 先妣	부 산 진
547	鄭 基 弘	鄭 性 德 先考	"	579	趙 容 吾	趙 正 旭 先考	남원중앙
548	金仁德華	鄭 性 德 先妣	"	580	李 慶	趙 正 旭 先妣	남원중앙
549	梁 海 島	梁 慧 蓮 先考	"	581	金 東 漢	金 慧 淨 先考	동 대 전
550	金器露華	梁 慧 蓮 先妣	"	582	尹 福 喜	金 慧 淨 先妣	동 대 전
553	金 亨 照	金 正 貫 先考	"	583	曹 秉 鮮	曹 聖 濟 先考	동 대 전
554	柳 內 玉	柳 秀 日 先考	"	584	孫 丙 葉	曹 聖 濟 先妣	동 대 전
555	姜眞意華	柳 秀 日 先妣	"	585	金 泓 權	金 玄 德 先考	방 배
556	李 京 立	李 亨 局 先考	"	586	金 光 州	金 玄 德 先妣	방 배
557	金南一華	李 亨 局 先妣	"	587	鄭 龍 雲	鄭 敬 眞 先考	방 배

588	李萬壽華	鄭敬眞先妣	방배	618	金秉柱	金正眞行先考	정주
589	尹相元	尹碩仁先考	대인	619	李畝東	金正眞行先妣	"
590	文姓女	尹碩仁先妣	대인	620	金允瑞	金善光先考	"
591	丁大榮	鄭實相華先考	울산	621	金姓女	金善光先妣	"
592	趙鳳岳	鄭實相華先妣	울산	622	宋弼憲	宋淑振先考	"
593	金興培	金福田華先考	양정	623	金永淑	宋淑振先妣	"
594	李氏	金福田華先妣	양정	624	鄭東必	鄭大振先考	"
595	李淳赫	李玄化先考	대신	625	李範淑	鄭大振先妣	"
596	文美山	李玄化先妣	대신	626	辛士允	辛東薰先考	"
597	趙文允	趙公範先考	대신	627	金姓女	辛東薰先妣	"
598	尹直伊	趙公範先妣	대신	628	金贊明	金福眞華先考	"
599	崔浩成	崔正覺先考	대신	629	李姓女	金福眞華先妣	"
600	金道仁	崔正覺先妣	대신	630	金多日	金聖吉先考	고창
601	郭在豐	郭賢信華先考	모현	631	朴長城	金聖吉先妣	고창
602	梁대련화	郭賢信華先妣	모현	632	曹秉益	曹三智華先考	영광
603	奇有燮	奇如天先考	중흥	633	趙氏	曹三智華先妣	영광
604	高靜修華	奇如天先妣	중흥	634	송정식	宋虛實圓先考	봉동
605	金炯爽	金元昌先考	구례	635	南宮善華	宋虛實圓先妣	봉동
606	李秉禮	金元昌先妣	구례	636	崔相圓	崔正學先考	수지
607	김하인	金普仁先考	동이리	637	趙福伊花	崔正學先妣	수지
608	강화자	金普仁先妣	동이리	638	金文賢	金昌元先考	익산
609	宋和植	宋禮性先考	중구	639	李氏	金昌元先妣	익산
610	鄭玉信	宋禮性先妣	중구	640	朴永道	朴熙星先考	다대
611	梁正寶	梁智權先考	전농	641	李連花	朴熙星先妣	다대
612	李自動行	梁智權先妣	전농	642	方孝鎭	方省心先考	익산
613	方淨樂	方兩全華先考	잠실	643	黃滿空華	方省心先妣	익산
614	김영명화	方兩全華先妣	잠실	644	李英根	李萬壽華先考	금정
615	백성농	白起德先考	잠실	645	金宗惠	李萬壽華先妣	금정
616	金永樂	金淨土行先考	대현	646	李容殷	李法旺華先考	금정
617	金極樂華	金淨土行先妣	대현	647	金蓀汀	李法旺華先妣	금정

648	金 炯 繪	金精進行 先考	영 도	678	黃 鍊 玉	李 祥 雲 先妣	종 로
649	張 小 艾	金精進行 先妣	영 도	679	趙 三 俊	趙 容 碩 先考	종 로
650	權 正 賢	權 浩 敬 先考	삼 덕	680	禹德濟華	趙 容 碩 先妣	종 로
651	吳歸法華	權 浩 敬 先妣	삼 덕	681	孔 址 洙	孔 彩 玉 先考	영 동
652	柳 致 相	柳 永 根 先考	대 구	682	金 春 子	孔 彩 玉 先妣	영 동
653	배 차 순	柳 永 根 先妣	"	683	丁 文 賢	丁 安 淑 先考	임 산
654	崔 東 燮	崔 東 仁 先考	"	684	崔大安華	丁 安 淑 先妣	임 산
655	金 俊 길	崔 東 仁 先妣	"	685	蔡 周 仁	蔡 道 耕 先考	논 산
656	朴 永 鎭	朴天心華 先考	"	686	趙 林	蔡 道 耕 先妣	논 산
657	金 順 福	朴天心華 先妣	"	687	李 載 勳	李 康 田 先考	교 동
658	崔 景 國	崔 普 順 先考	정 토 회	688	양 순 자	李 康 田 先妣	교 동
659	李 氏	崔 普 順 先妣	정 토 회	689	黃 聖 陀	黃 喜 徹 先考	남 중
660	徐 丙 植	徐 有 性 先考	대 구	690	邊道順	黃 喜 徹 先妣	남 중
661	李 貞 秀	徐 有 性 先妣	대 구	691	申繼善	申 基 現 先考	남 중
662	李 裕 和	李三正華 先考	대 구	692	이귀의화	申 基 現 先妣	남 중
663	金 呂 碩	金 一 善 先考	익 산	693	金 完 成	金 眞 權 先考	남 원
664	朴至一行	金 一 善 先妣	익 산	694	金義眞華	金 眞 權 先妣	남 원
665	정 성 삼	鄭妙蓮華 先考	중앙수양원	695	李 基 晃	李 英 秀 先考	원 효
666	조 하 옥	鄭妙蓮華 先妣	중앙수양원	696	河 氏	李 英 秀 先妣	원 효
667	權 重 序	權 常 中 先考	초 강	697	鄭 中 世	鄭 修 源 先考	오 수
668	朴普明華	權 常 中 先妣	초 강	698	張 姓 女	鄭 修 源 先妣	"
669	趙 晋 燁	趙 甲 順 先考	운 봉	699	金 在 鑛	金 學 進 先考	"
670	李金井華	趙 甲 順 先妣	"	700	吳 鑛 燁	金 學 進 先妣	"
671	尹 相 元	尹普處華 先考	"	701	金 東 明	金法用心 先考	부 산 진
672	文 姓 女	尹普處華 先妣	"	702	金 貴 緣	金法用心 先妣	"
673	尹 泰 益	尹 致 德 先考	종 로	703	李 古 泉	李 良 仁 先考	"
674	張 眞 珠	尹 致 德 先妣	"	704	韓賢心華	李 良 仁 先妣	"
675	金 雲 庵	金 明 煥 先考	"	705	姜 운 송	姜法性華 先考	"
676	鄭 同 仁	金 明 煥 先妣	"	706	金正해월	姜法性華 先妣	"
677	李 正 熙	李 祥 雲 先考	"	707	김 근 모	金 時 順 先考	"

708	鄭 德 順	金 時 順 先妣	부 산 진	738	李 敦	金 敬 明 先妣	원 남
709	洪 精 進	洪 相 天 先考	부 산 진	739	康 裕 璿	康 妙 道 先考	"
710	高精進行	洪 相 天 先妣	부 산 진	740	車 京 辰	康 妙 道 先妣	"
711	李 春 章	李 公 鎮 先考	돈 암	741	金 信 錫	金 慧 性 先考	"
712	韓 貞 德	李 公 鎮 先妣	"	742	南一心行	金 慧 性 先妣	"
713	鄭 우 삼	鄭 英 潤 先考	"	743	李 鳳 憲	李性理華 先考	목 포
714	趙 氏	鄭 英 潤 先妣	"	744	俞 氏	李性理華 先妣	목 포
715	李 德 三	李 孟 眞 先考	"	745	金 奎 弘	金 玄 觀 先考	목 포
716	梁善德華	李 孟 眞 先妣	"	746	羅 인 흥	金 玄 觀 先妣	목 포
717	申 元 必	申 大 英 先考	"	747	朴 允 正	朴 聖 壽 先考	금 산
718	林妙法華	申 大 英 先妣	"	748	金聖明行	朴 聖 壽 先妣	금 산
719	徐 益 煥	徐慧光華 先考	"	749	박 이 식	朴 孝 淑 先考	초 량
720	吳慧日華	徐慧光華 先妣	"	750	田 인 자	朴 孝 淑 先妣	초 량
721	洪 在 玉	洪法明華 先考	"	751	李 鍾 華	李 永 宇 先考	초 량
722	黃 氏	洪法明華 先妣	"	752	金 次 岳	李 永 宇 先妣	초 량
723	羅 敬 習	羅 庸 善 先考	돈 암	753	田 自 玉	田 修 仁 先考	초 량
724	吳 仁 乃	羅 庸 善 先妣	"	754	金月明華	田 修 仁 先妣	"
725	金 在 浩	金統制華 先考	"	755	金 容 在	金 必 然 先考	"
726	李 光	金統制華 先妣	"	756	吳十州行	金 必 然 先妣	"
727	千 斗 成	千 德 運 先考	"	757	趙 聖 一	趙 東 運 先考	"
728	趙 淑 伊	千 德 運 先妣	"	758	崔 氏	趙 東 運 先妣	"
729	손 준 식	孫 慈 溫 先考	부 산	759	宋 哲 信	宋 慧 覺 先考	"
730	고 복 단	孫 慈 溫 先妣	"	760	權 福 男	宋 慧 覺 先妣	"
731	문 경 로	文正是華 先考	"	761	金 奉 眞	金 西 植 先考	"
732	윤 덕 연	文正是華 先妣	"	762	김 연 순	金 西 植 先妣	"
733	任 大 淳	任 濟 安 先考	"	763	朴 俊 遠	朴 道 敬 先考	"
734	趙濟善玉	任 濟 安 先妣	"	764	白 俊	朴 道 敬 先妣	"
735	高 中 峯	高 井 振 先考	정 룡	765	李 啓 永	李世正華 先考	"
736	金 成 德	高 井 振 先妣	정 룡	766	朴 德 云	李世正華 先妣	"
737	金 準 洙	金 敬 明 先考	원 남	767	朴 喜 純	朴 盧 周 先考	부 산

768	柳 福 述	朴 虛 周 先妣	부 산	798	孫渡震華	白 善 均 先妣	대 연
769	白 明 鎭	白 善 根 先考	이 리	799	金 학 돈	金如日華 先考	신 춘
770	全 氏	白 善 根 先妣	이 리	800	金 寶 花	金如日華 先妣	"
771	辛 德 守	辛 行 業 先考	서 면	801	咸 有 度	咸 爐 峰 先考	"
772	오 수 이	辛 行 業 先妣	"	802	張 敬 臣	咸 爐 峰 先妣	"
773	李 鍾 民	李 法 順 先考	"	803	崔 注 鉉	崔 龍 善 先考	전 주
774	김묘법화	李 法 順 先妣	"	804	吳 子 元	吳至誠行 先考	운 봉
775	정 채 기	鄭 道 仁 先考	"	805	鞠 氏	吳至誠行 先妣	운 봉
776	최 덕 립	鄭 道 仁 先妣	"	806	趙 駿 夏	趙 東 悟 先考	원 평
777	徐 炳 燁	徐 仁 觀 先考	"	807	鄭 芳 禮	趙 東 悟 先妣	원 평
778	金 福 祚	徐 仁 觀 先妣	"	808	趙 台 元	趙 俊 益 先考	도 양
779	박 문 기	朴 益 順 先考	"	809	金正道華	趙 俊 益 先妣	도 양
780	김금광화	朴 益 順 先妣	"	810	송 숙 기	宋 仁 興 先考	홍 덕
781	姜 達 竣	姜德性華 先考	"	811	진 아 임	宋 仁 興 先妣	홍 덕
782	朴 德 順	姜德性華 先妣	"	812	金 錫 俊	金 心 元 先考	서 성 로
783	송 도 섭	宋 金 圓 先考	등 이 리	813	李 富 丕	金 心 元 先妣	서 성 로
784	黃 氏	宋 金 圓 先妣	"	814	육 해 국	陸 耕 田 先考	전 주
785	梁 麟 錫	梁 普 仁 先考	"	815	이 성 너	陸 耕 田 先妣	전 주
786	蔡 鳳 淑	梁 普 仁 先妣	"	816	李 鍾 太	李 法 輪 先考	영 산
787	金 膺 斗	金法因行 先考	남 중	817	千 寶 愛	李 法 輪 先妣	영 산
788	梁 氏	金法因行 先妣	남 중	818	李 封 秀	李 化 眞 先考	정 토 회
789	정 판 길	鄭 東 勳 先考	익 산	819	趙 環 局	李 化 眞 先妣	정 토 회
790	이 순 애	鄭 東 勳 先妣	익 산	820	姜 郵 永	姜 元 變 先考	불 갑
791	劉 택 렬	劉善義行 先考	전 주	821	李 氏	姜 元 變 先妣	불 갑
792	金팔상화	劉善義行 先妣	"	822	李 邦 緒	李宗業華 先考	익 산
793	白 봉 옥	白奉是華 先考	"	823	崔 氏	李宗業華 先妣	익 산
794	박정지행	白奉是華 先妣	"	824	姜 芝 秀	姜 勝 萬 先考	불 갑
795	金 永 杰	金 時 煥 先考	대 연	825	朴 鍾 南	姜 勝 萬 先妣	불 갑
796	宋 氏	金 時 煥 先妣	"	826	金 致 心	金泰尙玉 先考	신 홍
797	白 濟 祐	白 善 均 先考	"	827	金 氏	金泰尙玉 先妣	신 홍

828	晋 亮 夏	晋 奎 鎬 先考	중 로	858	朴 向 淑	韓 貴 智 華 先妣	충 부
829	安德中華	晋 奎 鎬 先妣	중 로	859	金 萬 鍊	金 昌 峻 先考	"
830	김 중 덕	金光圓心 先考	서 광 주	860	辛 貴 英	金 昌 峻 先妣	"
831	안보덕화	金光圓心 先妣	서 광 주	861	李 時 哲	李 善 友 先考	"
832	申 奉 栗	申 輪 碩 先考	익 산	862	韓 貴 然	李 善 友 先妣	"
833	吳 哲 秀	申 輪 碩 先妣	익 산	863	朴 宗 眞	朴 維 正 先考	"
834	高 光 昇	高惠善華 先考	충 부	864	李 仁 淑	朴 維 正 先妣	"
835	林 淑 鎬	高惠善華 先妣	충 부	865	宋 相 基	宋 日 煥 先考	"
836	이 길 재	李 華 信 先考	대 구	866	全 寶 秀 華	宋 日 煥 先妣	"
837	조수도행	李 華 信 先妣	대 구	867	宋 達 憲	宋 奉 煥 先考	"
838	庾 靈 明	庾 現 一 先考	충 부	868	李 大 教	宋 奉 煥 先妣	"
839	尹基正華	庾 現 一 先妣	"	869	金 善 兼	金 俊 湖 先考	"
840	李 敏 和	李唯一華 先考	"	870	鄭 氏	金 俊 湖 先妣	"
841	安榮貴華	李唯一華 先妣	"	871	曹 夏 鉉	曹 善 勤 先考	"
842	閔 恩 植	閔 道 潤 先考	"	872	李 仁 範	李 載 善 先考	"
843	李 義 順	閔 道 潤 先妣	"	873	金 華 玉	李 載 善 先妣	"
844	李 集 玉	李六途華 先考	"	874	金 乃 心	曹 善 勤 先妣	"
845	高万嘉行	李六途華 先妣	"	875	金 奉 西	金世和行 先考	군 산
846	金 願 男	辛 明 教 先妣	"	876	한 내 순	金世和行 先妣	군 산
847	李 禹 相	李 大 教 先考	"	877	李 鴻 基	李 義 聲 先考	대 구
848	任九品華	李 大 教 先妣	"	878	金 貞 愛	李 義 聲 先妣	대 구
849	邊 復 淵	邊 衆 般 先考	"	879	전 경 근	全貞觀玉 先考	정 토 회
850	柳明德玉	邊 衆 般 先妣	"	880	장 봉 청	全貞觀玉 先妣	정 토 회
851	李 洙 燮	李大機華 先考	"	881	金 東 禹	金緣知行 先考	대 구
852	柳正理行	李大機華 先妣	"	882	崔 姬 鄉	金緣知行 先妣	대 구
853	金 學 敬	金 正 覺 先考	"	883	李 文 吉	李普運月 先考	수 양 원
854	金順成華	金 正 覺 先妣	"	884	劉 氏	李普運月 先妣	수 양 원
855	金 奎 星	金 泰 信 先考	"	885	崔 麟 弼	崔恩惠華 先考	전 주
856	崔 正 信	金 泰 信 先妣	"	886	李 瓊 皓	崔恩惠華 先妣	전 주
857	韓 元 伯	韓 貴 智 華 先考	"	887	崔 喆 權	崔 隱 山 先考	신 태 인

888	高 氏	崔 隱 山 先妣	신 태 인	918	吳 奉 今	金見性華 先妣	동 래
889	閔 德 玄	閔自然華 先考	서울수도원	919	曹 瑞 鉉	曹 光 哲 先考	영 산
890	咸 氏	閔自然華 先妣	서울수도원	920	孫 氏	曹 光 哲 先妣	영 산
891	辛 克 元	辛 以 耕 先考	신 흥	921	朴 亨 憲	朴 將 烈 先考	도 양
892	金 氏	辛 以 耕 先妣	신 흥	922	姜 制 恩	朴 將 烈 先妣	도 양
893	유 복 근	柳 成 澤 先考	수 계	923	洪 祐 敦	洪 仁 德 先考	중 로
894	沈 志 願	柳 成 澤 先妣	수 계	924	許海月華	洪 仁 德 先妣	중 로
895	김 관 옥	金 光 準 先考	광 주	925	金 相 淳	김 평 운 先考	영 산
896	박성리화	金 光 準 先妣	광 주	926	朴 鳳 洞	김 평 운 先妣	영 산
897	沈 魯 仁	沈 志 願 先考	수 계	927	尹 秉 漢	尹 黃 雲 先考	마 령
898	金 氏	沈 志 願 先妣	수 계	928	吳 姓 女	尹 黃 雲 先妣	마 령
899	田 仁 局	田 奉 善 先考	충 부	929	金 元 植	金 南 順 先考	함 라
900	金 貴 禮	田 奉 善 先妣	충 부	930	李 氏	金 南 順 先妣	함 라
901	李 正 還	李聖主理 先考	당 리	931	辛 鍾 奎	신대명화 先考	부 산
902	朴 正 信	李聖主華 先妣	당 리	932	權 下 同	신대명화 先妣	부 산
903	盧 福 海	盧道峰華 先考	신 흥	933	田 載 源	田 仁 局 先考	금 마
904	文 氏	盧道峰華 先妣	신 흥	934	李 東 順	田 仁 局 先妣	금 마
905	崔 氏	崔 尙 玉 先考	익 산	935	구 덕 화	具 良 根 先考	부 산
906	鄭 石 現	崔 尙 玉 先妣	"	936	金 植 玉	具 良 根 先妣	"
907	張 贊 遠	張 貴 滿 先考	"	937	金 基 鳳	金 有 聲 先考	"
908	金 丙 祚	張 貴 滿 先妣	"	938	丁 奉 順	金 有 聲 先妣	"
909	趙 氏	趙 環 局 先考	"	939	林 景 弘	임 청 암 先考	"
910	黃 聖 敏	黃大空華 先考	다 대	940	白 連 伊	임 청 암 先妣	"
911	梁 允 岳	黃大空華 先妣	다 대	941	俞 有 鎮	俞 善 用 先考	부 산 진
912	金 鍾 振	金 精 進 先考	전 주	942	金鳳蓮華	俞 善 用 先妣	부 산 진
913	최만수옥	金 精 進 先妣	전 주	943	이 종 근	李 成 執 先考	수 계
914	李 應 三	李修哲華 先考	부 산 진	944	丁本來華	李 成 執 先妣	수 계
915	張 氏	張 河 旭 先考	영 산	945	朴 基 全	朴順德華 先考	대 신
916	정우양화	張 河 旭 先妣	영 산	946	李 明 世	朴順德華 先妣	대 신
917	金 在 必	金見性華 先考	동 래	947	全 錫 周	全 義 天 先考	진 북

948	崔忠義華	全 義 天 先妣	진 북	978	李一心華	金 聖 田 先妣	총 부
949	金 龍 文	金泰尙玉 先考	신 흥	979	金 聖 燁	金 明 悟 先考	"
950	密陽朴氏	金泰尙玉 先妣	신 흥	980	姜道明華	金 明 悟 先妣	"
951	金 敬 天	金 日 鉉 先考	총 부	981	金義聖	金 文 澤 先考	"
952	朴萬城華	金 日 鉉 先妣	"	982	朴 貴 錫	金 文 澤 先妣	"
953	朴 魯 鉉	朴德濟華 先考	"	983	金 拜 席	金 法 緣 先考	"
954	金淸淨行	朴德濟華 先妣	"	984	金 三 根	金 至 善 先考	"
955	송 달 훈	송 봉 환 先考	"	985	金 眞 應	金 正 局 先考	"
956	이 대 교	송 봉 환 先妣	"	986	辛文昌華	金 正 局 先妣	"
957	이 부 석	이 제 성 先考	"	987	金 鶴 培	金 亨 模 先考	"
958	최반야행	이 제 성 先妣	"	988	金 成 英	金 仁 玉 先考	"
959	박 혜 창	박 진 오 先考	"	989	河 姓 女	金 仁 玉 先妣	"
960	정 형 섭	박 진 오 先妣	"	990	김 정 두	金 用 植 先考	"
961	姜 順 元	姜 寶 良 先考	"	991	김응법화	金 用 植 先妣	"
962	魯一柱華	姜 寶 良 先妣	"	992	金 完 守	金義眞 先考	"
963	金 誠 敬	姜 英 文 先妣	"	993	金新興華	金義眞 先妣	"
964	康 仁 直	康 舜 常 先考	"	994	南宮性晚	南宮善奉 先考	"
965	權 吉 龍	權江水月 先考	"	995	朴德之華	南宮善奉 先妣	"
966	權 宗 賢	權 誠 天 先考	"	996	朴 聖 亨	朴 正 慧 先考	"
967	裴 聖 教	權 誠 天 先妣	"	997	박 환 필	朴 仁 淑 先考	"
968	안 익 선	權 峻 圓 先妣	"	998	李 在 基	朴 仁 淑 先妣	"
969	金 平 局	金 聖 徹 先考	"	999	朴 中 明	朴 舜 正 先考	"
970	陳大道華	金 聖 徹 先妣	"	1000	金 良 女	朴 舜 正 先妣	"
971	金 基 云	金 東 玄 先考	"	1001	申貞觀華	朴 慧 源 先妣	"
972	金仁德華	金 東 玄 先妣	"	1002	崔柔性華	朴 明 濟 先妣	"
973	金 用 寬	金 知 恩 先考	"	1003	朴 根 厚	朴 慈 悅 先考	"
974	金 德 浩	金 聲 振 先考	"	1004	김수인행	朴 慈 悅 先妣	"
975	孫悟心行	金 聲 振 先妣	"	1005	朴 鍾 南	朴 慧 明 先考	"
976	金 中 元	金 光 仁 先考	"	1006	殷 寬 裕	朴 慧 明 先妣	"
977	金 炳 用	金 聖 田 先考	"	1007	朴 德 一	朴 英 倫 先考	"

1008	朴樂潤	朴常根先妣	송	부	1038	張道命	吳信聖先妣	송	부
1009	朴官樹	朴大成先考	"		1039	梁弘根	梁正信先考	"	
1010	姜良春	朴大成先妣	"		1040	柳熙烈	柳聖鏡先考	"	
1011	朴玉辰	朴海運先考	"		1041	林得春	林正旭先考	"	
1012	金義中	朴海運先妣	"		1042	朴養任	林正旭先妣	"	
1013	朴煥益	朴道完先考	"		1043	尹性玉	尹致聖先考	"	
1014	申敬容	申在一先考	"		1044	李信修行	尹致聖先考	"	
1015	金平數華	申在一先妣	"		1045	朴鍾三	朴正基先考	"	
1016	申義一	申德仁先考	"		1046	李性燁	李文眞先考	"	
1017	徐順中	申德仁先妣	"		1047	尹文明華	李文眞先妣	"	
1018	李俊現	成正在先考	"		1048	李東淑	李運徹先考	"	
1019	申聖基	申明實先考	"		1049	李寶善	李敬倫先妣	"	
1020	李敬權	申明實先妣	"		1050	李聖煥	李倫正先考	"	
1021	申東英	申慧權先考	"		1051	金善日華	李倫正先妣	"	
1022	宋又鳳	宋德信先考	"		1052	李台哲	李良權先考	"	
1023	李順道華	宋德信先妣	"		1053	金恩施華	李良權先妣	"	
1024	宋奉煥	宋正鎬先考	"		1054	李仁默	李順性先考	"	
1025	宋秉權	宋慧聖先考	"		1055	金仁知華	李順性先妣	"	
1026	朴喜捨玉	宋慧聖先妣	"		1056	李連基	李宗眞先考	"	
1027	孫永福	孫德宣先考	"		1057	李化眞	李道明先考	"	
1028	安正姬	孫德宣先妣	"		1058	韓永明	李道明先妣	"	
1029	梁允玉	梁泰說先考	"		1059	李昌淑	李靈明先考	"	
1030	韓貴智華	梁泰說先妣	"		1060	吳在德	李靈明先妣	"	
1031	尹哲周	尹聖道先考	"		1061	李致伯	李元道先考	"	
1032	李瑞華	尹聖道先妣	"		1062	申姓女	李元道先妣	"	
1033	柳鎮泳	柳日新先考	"		1063	李商行	李曾元先考	"	
1034	柳聖典	柳一鳳先考	"		1064	李種南	李善均先考	"	
1035	宋正呂	柳一鳳先妣	"		1065	李憲一	李成澤先考	"	
1036	溫貴男	溫和中先考	"		1066	李圓實華	李成澤先妣	"	
1037	吳治玉	吳信聖先考	"		1067	李仁歸	李敬滿先考	"	

1068	金平心行	李敬滿先妣	충 부	1098	崔隱山	崔康然先考	충 부
1069	李同珍	李敬心先考	"	1099	洪自恩華	崔康然先妣	"
1070	李姓女	李敬心先妣	"	1100	韓俊榮	韓道鳳先考	"
1071	鄭振局	鄭日中先考	"	1101	韓永安	韓蓮心先考	"
1072	趙安住行	鄭日中先妣	"	1102	金今禮	韓蓮心先妣	"
1073	鄭純江	鄭惟誠先考	"	1103	崔仲甲	崔靈明先考	"
1074	張宗煥	張鳳雲先考	"	1104	崔成觀	崔修圓先考	"
1075	張度養	張明信先考	"	1105	韓判任	崔修圓先妣	"
1076	魯雲祥	張明信先妣	"	1106	崔洛鐘	崔靈石先考	"
1077	鄭法仁	鄭眞明先考	"	1107	韓貴德華	崔靈石先妣	"
1078	張眞光	張正髓先考	"	1108	韓東洙	韓仁性先考	"
1079	朱公仁	朱定鏡先考	"	1109	한 청 호	韓濟般先考	"
1080	金碩辰	朱定鏡先妣	"	1110	金永敏	金誠功華先考	서귀포
1081	鄭空眞	鄭圓一先考	"	1111	高奉敏	金誠功華先妣	서귀포
1082	鄭元根	鄭蓮石先考	"	1112	정길우	鄭桂環先考	영산
1083	金成福	鄭蓮石先妣	"	1113	이성녀	鄭桂環先妣	영산
1084	鄭寬善	鄭道中先考	"	1114	김낙중	金高雲先考	영산
1085	趙熙明	趙仁圓先考	"	1115	林무열화	沈公善先妣	영산
1086	李一光華	趙仁圓先妣	"	1116	李中烈	李元永先妣	익산
1087	張聖安	張喜順先考	"	1117	柳評	柳海日先考	전주
1088	金和平	張喜順先妣	"	1118	金善日行	柳海日先妣	전주
1089	曹元善	曹喜悅先考	"	1119	李炳註	李處仁先考	남원
1090	崔文殊華	曹喜悅先妣	"	1120	柳氏	李處仁先妣	남원
1091	鄭道三	鄭四根先考	"	1121	全大成	全明哲行先考	남원
1092	鄭智明華	鄭四根先妣	"	1122	李敬圓	全明哲行先妣	남원
1093	韓充完	韓智緣先考	"	1123	趙元奎	趙喜善先考	남원
1094	崔明根華	韓智緣先妣	"	1124	梁忠玉	趙喜善先妣	남원
1095	韓孝錫	韓正洙先考	"	1125	金氏	金義眞華先考	오수
1096	林孟禮	韓正洙先妣	"	1126	朴氏	金義眞華先妣	오수
1097	韓仁煥	韓吉良先考	"	1127	朴玉振	朴壯春先考	수지

1128	金義中	朴壯春	先妣	수지	1158	全知雲	康壽元	先妣	진주
1129	吳相吉	吳海石	先考	마령	1159	金東憲	金聖丘	先考	진안
1130	梁聖女	吳海石	先妣	마령	1160	全氏	金聖丘	先妣	진안
1131	朴永善	朴炳源	先考	용신	1161	金辰培	金珍丘	先考	진안
1132	郭正淑	朴炳源	先妣	용신	1162	柳氏	金珍丘	先妣	진안
1133	金昌愚	金宗根	先考	용신	1163	김성천	金道緣	先考	마산
1134	崔正信行	金宗根	先妣	용신	1164	조명선	金道緣	先妣	마산
1135	柳河相	柳正教	先考	승부	1165	金德相	金有鉉	先考	진영
1136	孫姓女	柳正教	先妣	승부	1166	梁福順	金有鉉	先妣	진영
1137	韓星教	韓清湖	先考	화해	1167	金炯奎	金道永華	先考	명륜
1138	柳正光華	韓清湖	先妣	화해	1168	許도암	金道永華	先妣	명륜
1139	정세현	鄭龍淑	先考	광주	1169	金煥祚	金滿順	先考	동래
1140	박노현	鄭龍淑	先妣	광주	1170	金順伊	金滿順	先妣	동래
1141	조기진	趙準官	先考	관촌	1171	金碩培	金明德	先考	양정
1142	김원효	趙準官	先妣	관촌	1172	李修安	金明德	先妣	양정
1143	金在坤	金正緣	先考	정토회	1173	金始煥	金東秀	先考	초량
1144	李音田	金正緣	先妣	정토회	1174	尹玉粉	金東秀	先妣	초량
1145	姜大湜	姜性修	先考	정토회	1175	金性敬	金性明華	先考	부산
1146	李元堂	姜性修	先妣	정토회	1176	姜大錫	姜道一行	先考	봉덕
1147	金珠炯	金道明	先考	광주	1177	金秉守	姜道一行	先妣	"
1148	金東春	金道明	先妣	광주	1178	강대철	姜如善行	先考	"
1149	高承柱	高大衆華	先考	동광주	1179	조봉계	姜如善行	先妣	"
1150	林玉敬	高大衆華	先妣	동광주	1180	金成基	金恩想	先考	"
1151	金滋誠	金春和玉	先考	북광주	1181	黃長順	金恩想	先妣	"
1152	吳報恩華	金春和玉	先妣	북광주	1182	金永會	金秀龍	先考	개봉
1153	金永保	金精煥	先考	창평	1183	申允甫	金秀龍	先妣	개봉
1154	沈氏	金精煥	先妣	창평	1184	高光弼	高玄光	先考	서울
1155	金宗德	金正益	先考	서전주	1185	申姓女	高玄光	先妣	서울
1156	朴善德行	金正益	先妣	서전주	1186	金炳洙	金海恩	先考	원효
1157	康良浩	康壽元	先考	전주	1187	鄭完成華	金海恩	先妣	원효

1188	김영철	金一南 先考	원효	1218	丁善益華	姜景大 先妣	광주
1189	李鏡心華	金一南 先妣	원효	1219	閔泳勳	閔圓宗 先考	광주
1190	金時權	金永龍 先考	강동	1220	朴花德	閔圓宗 先妣	진안
1191	李姓女	金永龍 先妣	강동	1221	文昌貴	文敬溫 先考	진안
1192	金善仲	金良音 先考	사직	1222	金順舟	文敬溫 先妣	전주
1193	朴姓女	金良音 先妣	사직	1223	盧命壽	盧勸善 先考	전주양로원
1194	김준석	金信誠華 先考	원남	1224	崔玉田	盧勸善 先妣	전주양로원
1195	서경자	金信誠華 先妣	"	1225	都壽根	都潤哲 先考	부산
1196	김용우	金淨蓮華 先考	"	1226	김돈오	都潤哲 先妣	부산
1197	이선심화	金淨蓮華 先妣	"	1227	馬理根	馬良進華 先考	서울
1198	金萬根	金永泰 先考	"	1228	盧秉轍	盧龍慈華 先考	서울
1199	黃普仁行	金永泰 先妣	"	1229	박도옥	盧龍慈華 先妣	서울
1200	고광석	高性容 先考	종로	1230	南宇鉉	南賀圓行 先考	종로
1201	이씨	高性容 先妣	종로	1231	李義鄉	南賀圓行 先妣	종로
1202	金明植	金政仁 先考	의정부	1232	許一烈	許敬哲 先考	서대전
1203	安天真華	金政仁 先妣	의정부	1233	金氏	許敬哲 先妣	서대전
1204	金白享	金新興華 先考	문화	1234	李允明	李法性華 先考	서대전
1205	李明哲	金新興華 先妣	문화	1235	梁氏	李法性華 先妣	서대전
1206	金環祐	金仁寬 先考	용신	1236	尹在禎	尹充田 先考	대전
1207	金成安	金仁寬 先妣	용신	1237	金圓鏡	金一相圓 先考	대전
1208	金洪三	金道珍 先考	정토회	1238	牟仁鏡華	金一相圓 先妣	대전
1209	金修真華	金道珍 先妣	"	1239	朴熙喆	朴允哲 先考	대전
1210	金太太	金良中 先考	"	1240	李容賢	朴允哲 先妣	대전
1211	丁炳商	丁舜永 先考	"	1241	朴甲石	朴和宣 先考	수원
1212	姜玉秀	姜正信 先考	"	1242	高桂峰	朴和宣 先妣	"
1213	金錫柱	金中根 先考	이리	1243	宋玉姬	李聖安 先妣	"
1214	金福守	金中根 先妣	이리	1244	趙永顯	趙大震 先考	"
1215	김영실	金長信甲 先考	정토회	1245	李淑子	趙大震 先妣	"
1216	주씨	金長信甲 先妣	불갑	1246	崔尙烈	崔養正 先考	목포
1217	姜有善	姜景大 先考	불갑	1247	金相姬	崔養正 先妣	목포

1248	朴 遇 衡	朴 敬 局 先考	로스엔젤레스	1278	朴 興 教	朴安定行 先考	불 광
1249	金 順 姬	朴 敬 局 先妣	"	1279	朴 佐 陽	朴 理 權 先考	돈 암
1250	鄭 應 五	鄭聖義行 先考	중앙수양원	1280	李性理華	朴 理 權 先妣	돈 암
1251	池 夫 嚴	鄭聖義行 先妣	"	1281	朴 道 益	朴 德 輪 先考	사 직
1252	丁 永 大	丁 正 薰 先考	"	1282	張 且 連	朴 德 輪 先妣	사 직
1253	姜 德 禮	丁 正 薰 先妣	"	1283	朴 魯 元	朴 蓮 權 先考	원 남
1254	孔 章 洙	孔善德行 先考	"	1284	吳 義 子	朴 蓮 權 先妣	원 남
1255	金 善 順	孔善德行 先妣	"	1285	白 目 向	白 景 振 先考	종 로
1256	이 성 재	李 順 德 先考	"	1286	李修長華	白 景 振 先妣	종 로
1257	방 씨	李 順 德 先妣	"	1287	白 心 田	白 漢 明 先考	의 정부
1258	朴 吉 龍	朴 聖 學 先考	광 주	1288	李 縣 山	白 漢 明 先妣	의 정부
1259	黃 眞 現	朴 聖 學 先妣	광 주	1289	朴 海 春	朴 根 兩 先考	종 로
1260	朴 正 煥	朴 義 俊 先考	서 광 주	1290	金 姓 女	朴 根 兩 先妣	종 로
1261	崔 英 子	博 義 俊 先妣	서 광 주	1291	朴 奉 必	朴德勉華 先考	동 이 리
1262	박 사 인	朴奉恩華 先考	수 계	1292	金 氏	朴德勉華 先妣	동 이 리
1263	李 氏	朴奉恩華 先妣	수 계	1293	白 文 天	白 寬 善 先考	영 등
1264	朴 善 和	朴 眞 善 先考	진 북	1294	吳 聖 女	白 寬 善 先妣	영 등
1265	金 慶 柱	朴 眞 善 先妣	진 북	1295	朴 濟 遠	朴 和 淑 先考	용 신
1266	백 화 일	白 隱 明 先考	마 산	1296	宋 貞 和	朴 和 淑 先妣	용 신
1267	홍 또 순	白 隱 明 先妣	마 산	1297	朴 東 化	朴 中 元 先考	정 토 회
1268	白 南 昊	白 仁 鏡 先考	통 영	1298	金 貞 順	朴 中 元 先妣	정 토 회
1269	朴 柱 先	白 仁 鏡 先妣	통 영	1299	申 文 休	申 恒 俊 先考	광 주
1270	朴 命 돌	朴眞福華 先考	울 산	1300	李 募 芳	申 恒 俊 先妣	광 주
1271	尹 南 伊	朴眞福華 先妣	울 산	1301	徐 澤 圭	徐妙連心 先考	토 성
1272	朴 元 勳	朴用性華 先考	부 산	1302	金 萬 之	徐妙連心 先妣	토 성
1273	崔 仙 女	朴用性華 先妣	부 산	1303	徐 相 瑀	徐 永 天 先考	대 구
1274	朴 基 柱	朴濟恩華 先考	영 도	1304	金 甲 伊	徐 永 天 先妣	대 구
1275	辛 萬 節	朴濟恩華 先妣	영 도	1305	沈 相 庚	沈 建 永 先考	남 가 좌
1276	白 道 明	白寶善華 先考	대 방	1306	金 相 玉	沈 建 永 先妣	남 가 좌
1277	宋 桂 筍	白寶善華 先妣	대 방	1307	辛 鍾 習	辛 泰 義 先考	화 곡

1308	沈明根華	辛泰義先妣	화곡	1338	林富仁華	卞世潤先妣	도곡
1309	신봉규	辛敬悟先考	원평	1339	李化淑	李無念華先考	부산진
1310	이순금	辛敬悟先妣	원평	1340	朴先伊	李無念華先妣	부산진
1311	成丁哲	成寶榮先考	정토회	1341	梁재찬	梁奉眞先考	서면
1312	李七星	成寶榮先妣	정토회	1342	김또점	梁奉眞先妣	서면
1313	宋秉鏞	宋基東先考	용신	1343	柳龍元	柳南仁華先考	영도
1314	金一問廈	宋基東先妣	용신	1344	金鳳淑	柳南仁華先妣	영도
1315	徐永濟	徐清一先考	군남	1345	尹貴局	尹俊根先考	청학
1316	成大願心	徐清一先妣	군남	1346	이도인행	尹俊根先妣	청학
1317	宋光允	宋仁泉先考	청주	1347	李相德	李敬主先考	부산진
1318	金順伊	宋仁泉先妣	청주	1348	安安聖華	李敬主先妣	부산진
1319	徐應三	徐法莊華先考	청주	1349	溫樂雲	溫致仁先考	부안
1320	金順禮	徐法莊華先妣	청주	1350	崔貞仁行	溫致仁先妣	부안
1321	유경노	柳春源先考	장수	1351	尹仁坤	尹慈慧先考	정주
1322	李姓女	柳春源先妣	장수	1352	鄭仁濟玉	尹慈慧先妣	정주
1323	鄭學榮	鄭萬中先考	관촌	1353	李允執	李慧月行先考	대구
1324	李仁春	鄭萬中先妣	관촌	1354	卜先伊	李慧月行先妣	대구
1325	方孝鎮	方聖歡先考	남원중앙	1355	李成祥	李良知行先考	대구
1326	黃氏	方聖歡先妣	남원중앙	1356	金敬順	李良知行先妣	대구
1327	梁泰祿	梁圓寂華先考	금평	1357	李元鎮	李圓教先考	대현
1328	張氏	梁圓寂華先妣	금평	1358	宋三泰	李圓教先妣	대현
1329	洪欄杓	洪益聖先考	대전	1359	李相鎮	李仁道先考	봉덕
1330	李姓女	洪益聖先妣	"	1360	吳允鎮	吳正印先考	봉덕
1331	金完洙	金聖華先考	"	1361	김지혜광	吳正印先妣	봉덕
1332	李氏	金聖華先妣	"	1362	李聖燁	李敬中先考	서문
1333	李炳夏	李鳳蓮華先考	"	1363	具聖化	李敬中先妣	서문
1334	李月龍	李鳳蓮華先妣	"	1364	九成九	吳光圓先考	서성로
1335	박영기	朴興德先考	"	1365	姜임정	吳光圓先妣	서성로
1336	金珍丘	金性蓮先考	"	1366	李文卿	李玄妙行先考	강남
1337	卞榮歡	卞世潤先考	도곡	1367	宋無漏成	李玄妙行先妣	강남

1368	李圭夏	李忠信華 先考	강 남	1398	李龍碩	李虛藏 先考	봉 동
1369	金南原	李忠信華 先妣	강 남	1399	吳聖泰	吳正敏華 先考	수 계
1370	梁在球	梁志浩 先考	공 항	1400	鄭氏	吳正敏華 先妣	수 계
1371	황연녀	梁志浩 先妣	공 항	1401	李奭器	李正教 先考	진 북
1372	范在豊	范正仁 先考	서 울	1402	李相道	李宗道 先考	전주양노원
1373	崔宗智華	范正仁 先妣	서 울	1403	李允德	李宗道 先妣	전주양노원
1374	李敎常	李德男 先考	은 평	1404	禹鏞其	禹博進 先考	진 영
1375	李仁	李德男 先妣	은 평	1405	李順伊	禹博進 先妣	진 영
1376	吳尤鉉	吳利均 先考	사 직	1406	황인정	黃法淨行 先考	진 영
1377	李善淑	吳利均 先妣	사 직	1407	주순정화	黃法淨行 先妣	진 영
1378	유준기	柳忠眞 先考	광 주	1408	尹자원	尹玄智行 先考	은 천
1379	정명원	柳忠眞 先妣	광 주	1409	金애기	尹玄智行 先妣	은 천
1380	尹奉夏	尹春和 先考	광 주	1410	李順賢	李東福華 先考	동 래
1381	崔淑明	尹春和 先妣	광 주	1411	朴任祚	李東福華 先妣	동 래
1382	이정상	李虛精 先考	광 주	1412	이재희	李南洲華 先妣	부 산
1383	이정숙	李虛精 先妣	광 주	1413	김분이	李南洲華 先妣	부 산
1384	李達周	李正光 先考	서 광 주	1414	林在文	林達運 先考	남 부 민
1385	曹南淑	李正光 先妣	서 광 주	1415	서성덕화	林達運 先妣	남 부 민
1386	李斗秀	李仁昌 先考	서 광 주	1416	李鉉奭	李士正 先考	사 직
1387	韓昌斗	李仁昌 先妣	서 광 주	1417	李宗明行	李士正 先妣	사 직
1388	尹種夏	尹光一 先考	농 성	1418	王世櫛	王在明 先考	원 남
1389	金順禮	尹光一 先妣	농 성	1419	禹明玉	王在明 先妣	원 남
1390	吳頭山	吳亨斗 先考	교 동	1420	柳百豊	柳聖源 先考	중 로
1391	金用智華	吳亨斗 先妣	교 동	1421	權貴禮	柳聖源 先妣	중 로
1392	吳正烈	吳順覺 先考	교 동	1422	林敎眞	林玄眞 先考	중 로
1393	李圓輪	吳順覺 先妣	교 동	1423	柳忠根	柳三空 先考	중 곡
1394	吳明烈	吳權文 先考	마 령	1424	李성녀	柳三空 先妣	중 구
1395	朴富局	吳權文 先妣	마 령	1425	李謹雨	李靈安 先考	중 구
1396	柳昌日	柳法根 先考	봉 동	1426	玉般時華	李靈安 先妣	중 구
1397	李珠湖	柳法根 先妣	봉 동	1427	吳在勳	吳光碩 先考	중 구

1428	유 치 환	劉 秀 安 先考	송 천	1458	全 周 榮	全 光 順 先考	전 주
1429	김 고 분	劉 秀 安 先妣	송 천	1459	全 敬 根	全 大 堯 先考	전주양노원
1430	李 法 峻	李 徹 遠 先考	중 로	1460	張 桂 信	全 大 堯 先妣	전주양노원
1431	韓正寶華	李 徹 遠 先妣	중 로	1461	丁 在 健	丁 中 善 先考	통 영
1432	李 守 寅	李 南 權 先考	중 로	1462	李 開 洙	丁 中 善 先妣	통 영
1433	김 수 향	李 南 權 先妣	중 로	1463	朱 基 孝	朱 壽 安 先考	온 천
1434	유 순 태	柳 智 性 先考	강 동	1464	박 호 순	朱 壽 安 先妣	온 천
1435	양원의화	柳 智 性 先妣	강 동	1465	金 閔 庸	全 興 蓮 先考	광 안
1436	李 昌 淳	李 三 慶 先考	동 이 리	1466	劉大法華	全 興 蓮 先妣	광 안
1437	崔 光 德	李 三 慶 先妣	"	1467	全 夏 植	全奉德行 先考	연 산
1438	이 윤 옥	李 滿 淑 先考	"	1468	李一品華	全奉德行 先妣	연 산
1439	김 부 열	李 滿 淑 先妣	"	1469	崔 東 澈	崔 德 修 先考	울 산
1440	李 宗 厚	李 主 仁 先考	원 평	1470	李 福 壽	崔 德 修 先妣	울 산
1441	朱 正 男	李 主 仁 先妣	원 평	1471	張 性 揮	張九品華 先考	동 래
1442	李 東 仁	李 周 完 先考	정 토 회	1472	徐 德 伊	張九品華 先妣	동 래
1443	趙修德華	李 周 完 先妣	정 토 회	1473	趙 禎 協	趙 鏡 清 先考	동 래
1444	林 官 澤	林 春 信 先考	"	1474	金正見華	趙 鏡 清 先妣	동 래
1445	崔 氏	林 春 信 先妣	"	1475	조 갱 석	曹 善 默 先考	부 산
1446	崔 永 三	崔 正 信 先考	"	1476	정 재 순	曹 善 默 先妣	부 산
1447	金 基 永	崔 正 信 先妣	"	1477	曹 善 行	曹 萬 現 先考	구 포
1448	최 경 국	崔 修 安 先考	만 성	1478	河法寶華	曹 萬 現 先妣	구 포
1449	朴 氏	崔 修 安 先妣	만 성	1479	鄭 祚 永	鄭 順 基 先考	부 안
1450	安 錠 鎬	安 性 行 先考	원 평	1480	高至誠心	鄭 順 基 先妣	부 안
1451	金 氏	安 善 行 先妣	원 평	1481	晋 在 應	晋 寶 權 先考	서 울
1452	吳 炯 錫	吳南正行 先考	이 리	1482	문 혜 근	晋 寶 權 先妣	서 울
1453	辛 順 愛	吳南正行 先妣	이 리	1483	鄭 淳 洪	鄭 眞 寶 先考	원 효
1454	李 源 生	李基善行 先考	이 리	1484	權 明 守	鄭 眞 寶 先妣	원 효
1455	沈 氏	李基善行 先妣	이 리	1485	朱 濟 園	朱 正 宣 先考	중 구
1456	鄭 鎮 洙	鄭 滿 水 先考	수 계	1486	奇麟瑞華	朱 正 宣 先妣	중 구
1457	이삼중화	鄭 滿 水 先妣	수 계	1487	張 東 植	張 相 根 先考	원 평

1488	殷 氏	張 相 根 先妣	원 평	1518	朴法淨月	許雲松華 先妣	초 량
1489	전 의 섭	全 隱 德 先考	중 로	1519	黃 鍾 入	黃 聖 陀 先考	소 성
1490	이 주 옥	全 隱 德 先妣	중 로	1520	洪 姓 女	黃 聖 陀 先妣	소 성
1491	曹 基 星	曹 明 亮 先妣	동 이 리	1521	洪 亨 通	洪 正 觀 先考	상 주
1492	李 大 輪	曹 明 亮 先妣	"	1522	尹理順華	洪 正 觀 先妣	상 주
1493	張 平 準	張如善華 先考	"	1523	韓 暲 錫	韓 振 權 先考	원 효
1494	鄭 氏	張如善華 先妣	"	1524	李 暲	韓 振 權 先妣	원 효
1495	鄭 法 雲	鄭 道 仁 先考	정 토 회	1525	韓 建 周	韓 安 息 先考	화 곡
1496	陳 彩 珍	鄭 道 仁 先妣	정 토 회	1526	朴萬德華	韓 安 息 先妣	화 곡
1497	秋 鏞 憲	秋 塵 捲 先考	광 주	1527	韓 澤 東	韓修性華 先考	원 남
1498	金 點 樂	秋 塵 捲 先妣	광 주	1528	張 淑 子	韓修性華 先妣	원 남
1499	崔 慶 心	崔 正 實 先考	전 주	1529	韓 松 雲	韓 清 泉 先考	이 문
1500	張 道 奉	崔 正 實 先妣	전 주	1530	崔德恩華	韓 清 泉 先妣	이 문
1501	許 然 旭	許 法 均 先考	효 자	1531	河 智 泓	河 遠 鏡 先考	중 로
1502	金 氏	許 法 均 先妣	효 자	1532	徐 廷 鳳	河 遠 鏡 先妣	중 로
1503	蔡 忠 順	蔡茂盛華 先考	통 영	1533	崔 成 集	崔 孝 舜 先考	동 이 리
1504	朴 洪 禮	蔡茂盛華 先妣	통 영	1534	任 氏	崔 孝 舜 先妣	동 이 리
1505	河 機 洛	河清蓮華 先考	사 직	1535	洪 中 의	洪 德 和 先考	동 이 리
1506	李 氏	河清蓮華 先妣	사 직	1536	이보경화	洪 德 和 先妣	동 이 리
1507	許 墳	許 鎔 先考	울 산	1537	李 氏	李 仁 淑 先考	영 산
1508	曹 氏	許 鎔 先妣	울 산	1538	김 하 옥	李 仁 淑 先妣	영 산
1509	崔 聖 鳳	崔 賢 普 先考	동 래	1539	崔 玉 圭	崔 忠 仁 先考	정 토 회
1510	劉 順 今	崔 賢 普 先妣	동 래	1540	趙 仁 德	崔 忠 仁 先妣	정 토 회
1511	崔 純 澤	崔 法 龍 先考	구 포	1541	白 道 明	白 知 變 先考	용 신
1512	文 必 順	崔 法 龍 先妣	구 포	1542	宋 桂 順	白 知 變 先妣	용 신
1513	최 호 성	崔 恩 珠 先考	부 산	1543	한 찬 오	韓正寶華 先考	원 평
1514	박 대 연	崔 恩 珠 先妣	부 산	1544	전 찬 엽	韓正寶華 先妣	원 평
1515	崔 斗 鉉	崔 淨 善 先考	영 도	1545	朴 東 局	朴 一 春 先考	이 리
1516	金 鍊 光	崔 淨 善 先妣	영 도	1546	金 海 月	朴 一 春 先妣	이 리
1517	許 文 浩	許雲松華 先考	초 량	1547	吳 一 泳	吳 正 教 先考	이 리

1548	宋 鳳 儀	吳 正 教 先妣	이 리	1578	鄭 在 福	鄭 東 潮 先考	부 산
1549	하 재 운	河 聖 奉 先考	정 토 회	1579	조 순 희	鄭 東 潮 先妣	부 산
1550	金香山玉	河 聖 奉 先妣	정 토 회	1580	劉 鳳 完	劉 昌 玉 先考	이 리
1551	탁 원 백	卓 普 信 甲 先考	영 산	1581	李 文 淑	劉 昌 玉 先妣	이 리
1552	김 동 중	金 亨 悟 先考	영 산	1582	朴 寅 鉉	朴 正 失 行 先考	익 산
1553	李 台 哲	李 權 永 先考	군 남	1583	金 昌 奎	朴 正 失 行 先妣	익 산
1554	金恩施華	李 權 永 先妣	군 남	1584	崔 元 鎭	崔 濟 輪 先考	익 산
1555	鄭 경 조	鄭 佛 光 華 先考	불 갑	1585	鄭 成 秋 華	崔 濟 輪 先妣	익 산
1556	김 필 암	鄭 佛 光 華 先妣	불 갑	1586	고 병 학	高 慧 林 華 先考	중 로
1557	牟 홍 권	牟 運 種 華 先考	영 광	1587	이 씨	高 慧 林 華 先妣	중 로
1558	金 相 鎬	金 德 一 華 先考	군 산	1588	박 주 훈	朴 興 運 先考	함 라
1559	禹 鍾 鎬	金 德 一 華 先妣	군 산	1589	승 인 흥	朴 興 運 先妣	함 라
1560	韓 瑛 教	韓 貴 錫 先考	대 야	1590	한 병 열	한 원 심 화 先考	정 토 회
1561	宋 氏	韓 貴 錫 先妣	대 야	1591	오 음 전	한 원 심 화 先妣	정 토 회
1562	秦 남 용	秦 智 完 先考	남 군 산	1592	金 炯 南	金 基 玉 先考	서 청 주
1563	金觀音華	秦 智 完 先妣	남 군 산	1593	李 氏	金 基 玉 先妣	서 청 주
1564	李 在 郁	李 修 明 先考	오 수	1594	李 永 德 華	李 典 圓 先考	총 부
1565	임 순 덕	李 修 明 先妣	"	1595	成 義 正 華	李 典 圓 先妣	총 부
1566	李 옥 여	李 在 植 先考	"	1596	金 秉 運	金 淨 勤 先考	중앙수양원
1567	이 성 여	李 在 植 先妣	"	1597	李 德 味 華	金 淨 勤 先妣	중앙수양원
1568	金 成 泰	金 利 德 先考	"	1598	朴 性 天	朴 哲 性 先考	광 주
1569	조왕법화	金 利 德 先妣	"	1599	閔 一 新 華	朴 哲 性 先妣	광 주
1570	房 擇 圭	房 始 圓 先考	수 지	1600	張 洪 燮	張 炳 道 先考	전 주
1571	朴 性 女	房 始 圓 先妣	"	1601	梁 本 村	張 炳 道 先妣	전 주
1572	朴 敏 植	朴 諸 相 先考	"	1602	金 炯 鏞	金 普 明 月 先考	동 래
1573	趙 姓 女	朴 諸 相 先妣	"	1603	金 福 善	金 普 明 月 先妣	동 래
1574	安 瑀 烈	安 在 道 先考	동 전 주	1604	金 性 奎	金 出 塵 玉 先考	원 남
1575	정 씨	安 在 道 先妣	동 전 주	1605	宋 道 伊	金 出 塵 玉 先妣	원 남
1576	李 文 浩	李 千 甲 先考	신 흥	1606	朴 性 寬	金 法 珍 先考	중 구
1577	이 씨	李 千 甲 先妣	신 흥	1607	盧 光 明 華	金 法 珍 先妣	중 구

1608	田 聖 春	田永眞行 先考	이	리	1630	高 在 昊	高 孝 根 先考	총	부
1609	吳 得 春	田永眞行 先妣	"	"	1631	吳有善行	高 孝 根 先妣	"	"
1610	韓 致 善	韓 舜 行 先考	"	"	1632	金 昌 訓	金 正 信 先考	"	"
1611	鄭 姓 女	韓 舜 行 先妣	"	"	1633	趙永實行	金 正 信 先妣	"	"
1612	金 順 端	金安定華 先考	"	"	1634	盧 正 鉉	盧三九華 先考	부	산
1613	張 氏	金安定華 先妣	익	산	1635	文積善行	盧三九華 先妣	"	"
1614	李 萬 奉	李 明 善 先考	"	"	1636	金 京 泰	金 亨 眞 先考	"	"
1615	金 福 德	李 明 善 先妣	"	"	1637	李 氏	金 亨 眞 先妣	"	"
1616	金 權 心	金水精月 先考	"	"	1638	安 氏	安慧三華 先考	좌	포
1617	朱 敬 順	金水精月 先妣	"	"	1639	許 氏	安慧三華 先妣	좌	포
1618	李 學 京	李 賢 權 先考	"	"	1640	田 誠 久	田 現 關 先考	대	현
1619	崔常山玉	李 賢 權 先妣	"	"	1641	金 氏	田 現 關 先妣	대	현
1620	陳 晚 頌	陳 永 田 先考	"	"	1642	辛 宗 弼	辛大明華 先考	총	부
1621	吳 양 님	陳 永 田 先妣	"	"	1643	권 하 동	辛大明華 先妣	"	"
1622	金 聖 壽	金 滿 中 先考	정	토 회	1644	朴 喜 純	朴 虛 周 先考	"	"
1623	辛佛緣華	金 滿 中 先妣	"	"	1645	柳 氏	朴 虛 周 先妣	"	"
1624	尹 東 鎭	尹 聖 圭 先考	"	"	1646	金 鍾 聲	金 仁 悟 先考	"	"
1625	金安定華	尹 聖 圭 先妣	"	"	1647	盧德頌玉	金 仁 悟 先妣	"	"
1626	金 德 先	金 聖 潤 先考	"	"	1648	유 치 상	柳 精 局 先考	"	"
1627	소 性 女	金 聖 潤 先妣	"	"	1649	배대수화	柳 精 局 先妣	"	"
1628	朴 昌 云	朴 敬 德 先考	총	부	1650	沈 道 清	沈 慧 寬 先考	"	"
1629	金 龍 山	朴 敬 德 先妣	"	"					

附 錄

I. 원불교사 연표／228

II. 각종 법규／319

III. 보도자료／391

I. 圓佛敎史 年表(1891~1987)

년	월일	교 단 내 주 요 사 항	월일	일 반 주 요 사 항
원기전 25 (1891) 辛卯	5. 5	· (음三二七)화요일 오후 2시, 소태산대중사,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영촌에서 父 밀양박씨(糾正公派 成三), 母 강릉유씨(法名: 定天)의 4남 2녀중 네째(三男)로 탄생. 아명 鑲變. 족보명 喜變	7.25 9. 11.	· 한성부에 일어 학당 개설 · 강원 高城에서 민란 · 언더우드, 윤치호 美 내시빌신학생 연합전도회에서 한국선교현황 강연 · 강증산 결혼(21세), 서당 훈장노릇하기 시작, 유불선 술서 잡서 탐독.
원기전 24 壬辰 (1892)	5. 5	· 진섭 만1세	6.22 12. 6 ○	· 韓·壤 수호통상조약체결 조인 · 美·남장로교 7인 선발대 제물포 도착 · 함경도 함흥·덕원·회령·종성, 평안도 성천·강계, 강원도 남천, 경상도 예천 등지에서 民亂
원기전 23 (1893) 癸巳	5. 5	· 진섭 만2세 · 진섭, 엄마등에 업혀 「노루목 달따러 가자」 놀라댈	1.18 3.16 3. 4.26 夏 ○ ○	· 동학교도 삼례집회 敎祖伸冤 진정 · 레이놀드 선교사 남장로회 미선회 조직 · 동학교도 박광호 손병희 등 40여명 敎祖伸冤 위해 광화문에서 三日三夜 伏閣上疏 · 동학교도 보은집회 斥洋斥倭 주장 · 兩湖宣撫使 魚允中을 파견하여 동학교도를 설득 해산케 함. · 淸나라로부터 新式銃砲 구입 · 仁川府吏民 수백명이 작당하여 관공서 습격 · 載寧, 淸風, 黃澗 등지에서 民亂 · 開城, 黃州, 中和, 江界, 鐵島, 會寧, 鍾城, 統營, 雲山, 楊州 등지에서 민란

원기전 22 (1894) 甲午	4. 3 · 영광민란, 관청부수고 軍校 죽임 5.16 · 동학군 영광 진입 5. · 진섭, 부친 꾸지람 듣고 「동학군 온다」는 거짓말로 놀라게 함. 6. 8 · (五·五) 李東震華(六陀圖),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에서 출생 · 曹頌廣, 동학농민운동에 참여 12.23 · (十一·二十七) 曹頌廣, 왜병에 패퇴하여 순창군 피노리 산중에 은신. 7~8일 뒤 전봉준, 김경천의 밀고로 관군에 포착	초 · 전봉준 등 고부군민·군수 조병갑에게 만석보 水稅의 면세 등 虐政 시정을 진정 2.15 · (正·十) 전라도 고부군민, 전봉준 영도하에 고부관아 점령 2.27 · (正·二十二) 한성부 거주 일인 『한성신보』 창간 3.29 · (二·二十三) 김옥균 上海에서 피살 5.11 · (四·七) 동학군 황도현에서 전주 병영군·보부상군 격파 5.13 · (四·九) 농민군 무장현 점령, 창 의 문 발표 5.17 · (四十三~二十二) 농민군 영광, 함 평, 장성 점령 5.27 · (四·二十三) 농민군 장성에서 京 軍 격멸 5.31 · (四·二十七) 농민군 전주성 점령 6. 8 · (五·五~七) 淸軍 2,100명, 아산만 상륙 6.10 · (五·七) 全州和約, 농민군 전주성 철수(八日) 6.12 · (五·九) 일본군 인천 도착 7.23 · (六·二十一) 일군 경북군 침입, 반 일적인 민씨정권 타도 대원군 정 권 수립 7.25 · (六·二十三) 청·일 양군 수원부근 풍도에서 충돌, 청군대패 7.31 · (六·二十九) 開國 기원 사용 8.15 · (七·十五) 제1차 김홍집 내각 성 립 9.16 · (八·十七) 평양에서 청군, 일군에 게 대패 · (九月) 동학농민군, 일군 축출 위 해 각지에서 재봉기 11.19 · (十·二十二~十一·十二) 농민군 공주접전에서 일군에 대패 12.28 · (十二·二) 전봉준, 순창피노리에서 체포되어 경성으로 압송 ○ · 淸, 孫文 홍증회 창립, 李鴻章에게 부국강병책 건의
-------------------------------------	--	--

원기전 21 (1895) 乙未	5. 5	· 진섭 만4세	4.17 · 淸·日강화조약(下關조약) 조인, 일본이 요동반도와 대만을 領有 4.19 · 乙未개혁단행 4.23 · (陰三.二十九)東學黨의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성두환, 김덕명 등 서울에서 처형됨 9. 9 · 太陽曆 使用. 음력·개국504년 11월 7일부터 개국505년 1월 1일로 결정 10. 8 · 小學校令공포 시행 · 乙未사변(閔妃 피살) 10. · 기독교 남감리교의 李德목사 내한 · 일련중 승려인 사노의 전백서를 계기로 인조때 알려졌던 승니 入城금지령이 풀림 12.30 · 斷髮令공포 ○ · 俞吉濬의 『서유견문』 간행 ○ · 伊, 마르코니, 無線電信 발명.
원기전 20 (1896) 丙申	5. 5	· 진섭 만5세	1. 1 · (음十一·十七) 年號제정. 開國 505년을 建陽元年으로 함 · 國母殺害 및 단발령에 반발하여 각지에서 義兵일어나기 시작(第一次의병) 2.11 · 俄館播遷. 公館 호위를 이유로 露軍入京 ○ · 백정을 免賤하여 갖쓰는 것을 허락함 3. 9 · 金九, 일본 육군중위 격살 4. 7 · 『독립신문』 창간 · 호남지방 최초교회, 전주서문교회 창설(테이트 목사) 6. · 露語학교 개설 · 露·日協商으로 露·日軍 撤收 7. 2 · 徐載弼, 尹致昊 등 독립협회 결성 · 學部, 銅峴, 安國洞에 각각 官立學校설치 8. · 전국 府를 道로 개편 11.21 · 獨立門 건립 12. · 『大朝鮮獨立協會會報』 창간 (月2회) ○ · 제1회 국제올림픽대회 개최 (아테네) ○ · 시오니즘운동 일어남 ○ · 聖書公會에서 福音書, 『使徒行傳』 26,000부 발행 ○ · 서병호, 최초의 幼兒세례 받음 ○ · 친일파 승려들 日僧과 합동으로 無遮大會 개최 ○ · 『그리스도신문』 창간

I. 원불교사 연표

원기전 19 (1897) 丁酉	2.19	· (음正.十八) 친제 漢碩(六山朴東局) 출생 · 「저 하늘이 왜 푸를까」 자연현상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 · (음三.二十七) 이완철,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에서 출생	1. 5. 8. 10.12 12. 12.24 ○ ○ ○	· 서울 최초 가로등(석유등) 등장 · 官立 漢語學校 설치 · 年號를 光武로 고침 · 고종황제 즉위식 거행, 대한제국선포. · 미국 장로회 선교사 베어드, 평양에 숭실학당 설립 · 목포항 개항 · 전국 人口 발표(5,198,248명) · 손병희, 동학의 제3대 교주가 됨 · 영국인교사, 게일, 『조선어영어 옥편』 발행 · 淸,康有爲 등의 變法自強운동 일어남(~1898) · 강증산, 도사 술객 찾아 편력시작(27歲)
원기전 18 (1898) 戊戌	5. 5	· 진섭 만7세	2. 3. 3. 2 4 4. 4. 9 5.29 6. 7.20 8. 8.10 9 10.29 ○ ○	· 淸, 독일이 膠州灣 조차. 러시아 旅順·大連 조차 · 미국·스페인 전쟁(~12월) · 淸, 프랑스 廣州만 점령. 福建, 불합양조약. 雲南·廣西 불항조약 · 美國·스페인전쟁, 美國이 하와이, 괌, 필리핀을 領有 · 『京城신문』 창간(4.6, 대한황성신문으로 改題) · 최초의 日刊紙 『매일신문』 창간 · 서울 鍾峴聖堂(명동성당) 준공 · 日本의 요구로 군산, 마산, 城津을 개항하고 평양을 開市 · 淸, 영국이 九龍반도 威海衛 조차 · 동학 제2대 교주 海月 崔時亨, 좌포청에서 교수형 받음 · 淸, 戊戌政變(光緒帝의 개혁실패) · 순한글일간지 『제국신문』 창간(~1919) · 프랑스 단편영화 「가스등」 국내최초 상영 · 독립협회, 萬民共同會 개최 · 퀴리부부 라듐 발견 · 주시경 『국어문법』 간행
원기전 17 (1899) 己亥	○	· 「엄마와 아버지는 어째서 다정하실까」 인간사에까지 의심	2. 3. 3.	· 전라도 홍덕에 민란, 군수 축출 · 전주·임피 등지 小作人들의 均田 요구로 민란 · 官立醫學校 設立(교장 池錫永)

원기전 17 (1899) 己亥	5. 5	· 진섭 만8세	· 濟生醫院(세브란스), 종합병원으로 서 산부인과, 소아과 내외과, 안과 등의 진료시작 4. 4 · 中學校 官制公布시행 5.30 · 裁判所 구성법 개정 공포시행 · 서울 서대문, 청량리간 첫 電車개통, 暴民에 의해 전차소각됨 ○ · 고부에 동학잔당 英學黨 봉기 6. · 商工學校 설립 8. · 대한제국 國制 반포 9.11 · 韓·淸商條約 체결 18 · 仁川-노량진간 철도개통 12. · 『獨立신문』 폐간 ○ · 美·中國의 門戶개방, 기회균등 제창 ○ · 淸·의화단 사건(북청사변) 일어남 (~1901) ○ · 南阿전쟁(1902)
원기전 16 (1900) 庚子	○	· 한문서당(구호동 훈장 李華叔)에 다니기 시작	2. · 日人이 설립한 日語학교 全國에 11개교
	5. 5	· 진섭 만9세	4. · 한성전기회사, 민간 최초로 종로에 가로등 3개시설
	8.28	· (음八.四)宋道君(鼎山)출생	5. · 『신약전서』 완역 수정으로 橫濱에서 인쇄, 37,000부 발행
			· 세계교회운동 일어남
			· 강증산(30세) 모악산 대원사에서 90일간 기도전념
			7. 5 · 한강철교준공, 京仁철도 완전개통, 京仁간 시외전화 개통
			9. · 中學校규칙, 鑛務學校 官制공포시행
			· 武官學校 관제공포시행
	12	· 진섭, 나무벼늘에 불질러 서당훈장 놀라게 함	12. · 태극기 규정 발표

I. 원불교사 연표

			12.	· 전국 기독교인의 학살이 朝廷一部에서 음모되었으나 선교사들의 민첩한 조치로 사전 예방. · 淸, 義和團, 北京에 들어가 외국인 살해, 列國派兵
원기전 15 (1901) 辛丑	夏 11.25 冬	· 여름, 영춘마을 큰물져 가옥 浸水 됨 · (음十.十五)군서면 마을리 선산에 시재 지내러 갔다가 山神이야기 듣고, 산신을 만나 의심 해결하기로 결심 · 구수산 삼발재 마당바위에 山神만 나기 위한 기도하러 다니기 시작	3.23 6.28 8.17 8.18	· 한·일 수호 통상조약 조인(10.17 비준) · 제주도민 天主教徒 700여명 학살 · 서울시내 電燈始點式 · 기독교 장로교에서 신학생 김종섭, 방기창 등 2명을 教授하기 시작함. · (음 七.五)강증산(31세) 모악산 대원사에서 得道
원기전 14 (1902) 壬寅	○ 5. 5	· 삼발재 기도 계속 · 전집 만11세	1.19 4. 8. 10. 12.22 ○ ○	· 印札紙 사용 제도화 · (음三月) 의암, 人材양성을 위해 학생 24명을 日本으로 유학시킴. · 日帝의 진종대곡파가 서울 남산에 本願寺 세움 · 강증산(32세) 원평장에서 김형렬 만남, 금산사 청도리 구리골 중심으로 기행 이적 나타냄 · 國歌(에케르트 작곡) 제정 · 콜레라창결 · 제1차 하와이 이민 121명 출발 · 시베리아 철도 완공 · 美, 라이트형제 비행기 발명
원기전 13 (1903) 癸卯	○ 5. 5	· 삼발재 기도 계속 · 전집 만12세	1.23 4.21 10.28 ○ ○ ○	· 博文院 신설 · 러시아, 압록강 하구 龍岩浦 強點 (~1903) · 황성기독교청년회 창립(YMCA) · 미국 장로회 선교사, S.A모펏, 평양에 崇義女學校 설립 · 러시아 正敎會 한국교회 창립 · 프랑스에서 종교단체 해산령, 교회 재산몰수

			10.28	· 이보담 등 「사원 및 불교관리권 자치」를 청원함.
원기전 12 (1904) 甲申	○ 5. 5	· 삼발재 기도 계속 · 진섭 만13세	2.10 23 3.18 5. 6. 8. 11.10 12.21 ○ ○	· 日, 러시아에 선전포고 · 한·일의정서 조인 · (음二二) 진보회와 일진회 병합 · 한용운 出家入山, 이듬해 수계 · 안식교 유은현 등 3명이 최초로 세례받음 · 第一次 한·일협약, 재정·외교 등에 외국인 고문을 두기로 함. · 경부철도 완공 · 대한적십자사 발족 · 미국 장로교회에서 한국 장로교회 의 독립을 반대해 음 · 장로교회 독립일치의 민족교회 설립을 계획
원기전 11 (1905) 乙巳	○ 4.19 ○ ○ ○	· 구호동 새집으로 이사 · (음三十五) 백수면 홍곡리 장기촌 제주梁씨와 결혼, 자를 處化라함 · 작은형 萬玉 18세로 죽음 · 金華天에게 『통감』 배움 · 글공부 그만둠	3. 6 4. 6. 9. 10.10 11.17 18 30 12.26 12. ○ ○ ○	· 멕시코이민 1,033명 인천 출발 · 경의선 철도개통 · 러시아 제1혁명 · 『대한매일신보』 창간 · 이용익 보성학원 설립, 이후 한인 사립학교 설립이 활발해짐 · 대한적십자사 병원 개원 · 을사보호조약 · 장지연 황성신문에 「是日也放聲大哭」 발표 · 시종무관장 민영환 자결 · 손병희, 동학을 天道敎로 개칭 · 美·日밀약과 英·日 제2동맹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보장 · 세브란스의전 창설 · 프랑스 敎政分離法 제정 · Einstein 상대성이론 發表

원기전 10 (1906) 丙午	2. ○ ○	· (음正月) 處化, 처가에서 고대소설 듣고 道士 만나 의심 해결하기로 결심, 山神기도 중지 · 異人, 隱士 등 도사 만나기 위해 헤매 · 이상한 거지, 초빙하여 극진히 대우, 道를 물음	2. 9 · 日, 헌병대, 행정·사법경찰 장악 · 日本 통감부 설치 3. 2 · 日本 초대통감 이토오 부임 31 · 윤효정, 장지연 등 大韓自強會 조직 4. · 최익현 의병거사, 대마도에서 죽음 (12月) 7.22 · 이인직의 新小說 「血의 淚」 『만세보』에 연재시작 8. 7 · 만국적십자조약 가입 · 學制개혁, 各及 학교령을 제정공포 · 日·韓國駐劄 군사령부 설치, 日 헌병 경찰권 장악(~1919) 9. 1 · 통감부 기관지 경성일보 창간 10.29 · 이준, 이동휘 등 漢北興學會 조직 ○ · 全印度 이슬람교도 연맹 결성 ○ · 한국사원관리규칙 공포 ○ · 羅喆, 大宗教 창설 ○ · 안식교와 장로교, 진남포에서 충돌 ○ 하기 시작
원기전 9 (1907) 丁未	5. 5	· 처화 만16세	1.26 · (음十二.十三) 侍天敎 창립 · 국채보상운동, 신민회 조직 16 · 『대한매일신보』에 한·일조약부인 칙서 게재 3. · (음二.十) 천도교본부를 중앙총부로 공식명칭 확정 5. · 각지에 금융조합 설치되기 시작함 · 이완용 내각 성립 6. ·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밀사사건, 이준 순국 7.19 · 高宗퇴위 8.27 · 純宗즉위, 年號를 隆熙로 함. 31 · 軍隊해산 詔勅 발표 · 侍衛隊兵 日人습격

원기전 9 (1907) 丁未	12.23	· (음十一.十九) 경북 성주에서 宋道悅(主山) 출생	8.31 9. 12. ○ ○	· (음六.) 강증산, 차경석의 친척인 고씨를 제2부인으로 맞아들임 · 韓·日 실험약 체결, 內政에 통감승인을 요하게 됨 · 한·일 비밀결사 신민회 발족 · 인도 排英운동 격화 · 안창호, 평양에 대성학교 設立 · 許薦, 李康午 등의 의병 활발해짐 · 倭僧 다께다, 일진회의 이용구와 어울려 「勸佛教再興書」를 만듦
원기전 8 (1908) 戊申	5. 5	· 처화 만17세	1. 1.28 3.24 4. 7. 5 8. 10. 1 11.11 12.28 ○ ○ ○	· 경기, 강원도를 비롯하여 각지 항일무장 봉기 · (음丁未 十二.二十五) 강증산, 고부 신경재 家에 대규모 천지공사하다 의병모의 혐의로 日警에 구속 40여일간 옥고 · 창경원 동물원 개원 · 高等女學校令 공포 · 露領의병, 국내침투작전 개시 · 이인직, 원각사 개설 · 私立學校令 공포 · 學會令 실시 · 최남선 『少年』 창간 · 어업령 公布 · 최초의 신극 『은세계(이인직)』 공연 ·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 구세군, 호가드正領 내한, 대한본영설치 · 조선승려52인 불교연구회 해체, 圓宗 중무원세움(중정 이회광). · 康洪斗, 승니의 嫁娶를 청허함
원기전 7 (1909) 乙酉	1.23 ○	· (음一.二) 만딸(昆禮：法名 吉善) 출생 · 부친 處化 위해 삼발재에 초당지어줌. 아주 집을 나와 기도함	2.23 3. 4 6.	· 出版法 공포 · 民籍法 공포 · 조선통감 이또오히로부미 퇴임, 曾補荒助 취임

I. 원불교사 연표

	8. 2	· (음六.十七) 전음광,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모사실에서 출생	7. 9. 9.21 22 10.26 29 12. 4	· 사법권, 日本政府에 넘어감 · 전국 콜레라 퍼짐 · (음八.八) 강증산, 의통공사 행함 · 강증산, 김형렬家에서 기숙중 39세로 급서 · 청·일협약의 북간도, 淸나라 영토가 됨 · 안중근, 이또오히로부미 암살 · 한국은행 설립 · 일진회회장 이용구, 합방 상소문 제출
원기전 6 (1910) 庚戌	5. 5	· 처화 만19세	2. 3. 7. 8.22 29 9.11 29 10. 6 11. 12.	·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 등 大韓人國民會조직 · 한용운 대처제로 합법화를 중추원과 통감부에 건의 · 日人의 토지 대량 취득을 위한 토지조사사업 시작(~1918) · 조선통감 寺內正毅 부임 · 韓·日합방조약 조인 · 合邦조약 발표, 讓位조서 내림 · 『매일신보』, 日文판 『경성일보』 영문판 서울 프레스 외에 전신문 폐간 · 일진회, 조선협회 등 10개 결사 해산 명령 · 조선총독부 관제공포 · 황현 자결 · 이회광, 국내 72개 사찰 위임장 가지고 일본 曹洞宗대표와 7個條의 굴욕적인 연합맹약 체결 · 한국인 저작 및 학교 교과서 몰수 · 안명근 寺內총독 암살미수, 105인 사건.
	11.30	· (음十.二十九) 처화, 父親喪당함. 소태산 후일 부친 法名을 晦傾이라 함. ○ · 家勢가 기울어져 채무 독촉당함	○ ○ ○ ○ ○ ○	· 會社令 공포, 회사설립허가제 · 한용운, 『불교유신론』 집필 · 이화학당 대학부 신설 · 구세군 사관학교 設立 · 에딘버러 국제선교협의회(IMC)에 윤치호 참석
원기전 5 (1911) 辛亥	○	· 處化, 바랭이네(李願華)만남. 길룡리 귀영바위로 거쳐 옮겨 주막집 차림	1. 3.	· 日警, 寺內총독 암살 미수사건을 계기로 民族주의자 체포 착수 · 박한영, 진진용, 한용운, 장금봉 등이 입제종을 설립하여 원종과 맞섬

원기전 5 (1911) 辛亥	6	· 탈이 波市 장사 갔다 10월에 돌아 옴. 債務상환	3. · 원종 중무원 폐지, 30本寺 창립 4. · 朝鮮醫學會 창립 5. · 잡지『少年』폐간 7.20 · 嚴妃죽음. 梁起鐸, 安明根 등 30여 명 기소됨 8.23 · 朝鮮교육령 公布 9. · 성균관을 폐하고 經學院을 설치 11. 1 · 압록강 鐵橋완성, 釜山·長春間 열 차 직통 운행 · 新文館에서 金邦翰의 『鰲亭逸稿』 朴趾源의 『熱河日記』 등 간행 · 徐一 등 북간도 汪淸에 重光團조직 · 『구약성서』 완역 出刊 · 이성결교 「福音歌」, 안식교 「讚美 歌」 발행 12. · 釜山·下關間 정기연락선 운항시작 · 淸·辛亥革命, 革命 軍南京 점령, 임시 대총통에 孫文(∼1912) · 노르웨이 아문센, 남극정복
원기전 4 (1912) 壬子	○ ○ 5. 5	· 道士만날 생각 단념, 번민방황 · 「이 일을 어찌할꼬」 心思未定 방 황하며 근심과 의문이 깊어짐 · 처화 만21세	1. · 孫文, 南京에서 대총통 취임선언, 中華民國 성립 2.12 · 宣統帝 퇴위, 淸王朝 멸망 3.12 · 孫文, 난국타개위해 대총통직 양보, 袁世凱, 북경에서 임시 대총통에 취임 · 장로교 총회조직 3.18 · 이승만, 미국 세계감리교대회에 한 국 대표로 참석 · 韓鮮民事令 및 刑事令 공포 6. · 尹致昊 등 新民會員 120여명 寺內 총독 암살음모 사건으로 起訴됨. (105人사건) 7. · 申圭植, 朴殷植 등 상해에 同濟社 창설

I. 원불교사 연표

			7.	· 全廷芸, 百道敎를 창시 · 答刑令(∼1920), 官吏에 무관복장, 佩劍(∼1919) · 日人 서울에 첫 영화상설관 세움 · 南京에 중화민국 정부성립
			10.	· 제1차 발칸전쟁, 발칸동맹제국이 터어키에 宣戰布告(9. ∼12.3). · 승려 鏡虛 입적 · 조선佛敎『月報』창간 · 능인보통학교 設立 인가
원기전 3 (1913) 癸丑	5. 5	· 처화 만22세 · 여름 장마비에 귀영바위집 무너져 노루목으로 이사	2. 5 5.25 8. 10. 12. 1	· 이인직 每日新報에 「牧丹峯」연재 · 한용운, 불교강구회 총재로 취임하고 『佛敎唯新論』을 발표 · 中國 第2革命, 대총통에 袁世凱(∼1915), 원세개와 국민당 대립. 孫文일당 日本으로 망명, 袁世凱 정식으로 大總統됨. · 救世軍, 「救世軍歌」발행 · 박한영, 장금봉, 한용운 등 佛敎宗務院 설립 · 한용운, 조선불교회 회장에 피선 · 府制公布 · 蔡祺中 등 光復團을 조직 · 在美 한국인의 조국광복운동단체로서 〈興士團〉조직 · 「長恨夢」『매일신보』에 연재 · 신파극단 〈文秀星〉창립 · 儒林系의 獨立義軍府사건 일어남
원기전 2 (1914) 甲寅	3.	· 고창 심원면 연화봉에 갔다가 6월 귀가	1. 3. 4.	· 湖南線 개통 · 府郡面 폐합(97郡을 폐합) · 朝鮮船舶令 공포

원기전 2 (1914) 甲寅	○ 4.11	· 入定이 깊어지고 「이 일을 어찌할 꼬」하는 한 생각 마저 잊어버림. (頓忘入定) · (음三.十六)金榮瀨(大山) 出生	4.30 7.28 8. 15 23 9. 11.	· 한용운, 『佛敎大典』을 범어사에서 발행 · 고등佛敎講塾 설립 · 승려13人 일본유학 · 世界一次大戰 발발 · 京元線 개통 · 파나마운하 完成 · 日本,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세계대 전에 참전 · 하와이 교포의 기독교동지회 기관 지 『韓國太平洋』 창간 · 農工銀行令 및 지방 금융조합령 발표 · 佛敎 振興會 각황사에서 設立
원기전 1 (1915) 乙卯	○ ○ 6. 6 8.15	· 行住坐臥간에 分別力조차 없어짐 · 腹中에 큰 積, 온몸에는 종기, 해 수증 發病 皮膚相接 · (음四.二十四) 李敬順(恒陀圓), 경 북 금릉군 구성면 상원리에서 出 生 · (음七.五) 장남 吉眞(崇山) 出生	1. 2. 4. 1 5. 7. 9. 12. 1 ○ ○ ○ ○ ○	· 日, 中國에 山東省의 일본권익확보 를 위한 對中 21개條 요구. 원세개 이를 승인 · 佛敎中央學林 설립 · 民籍法개정, 호적사무를 경찰로부 터 府尹, 面長에게 이관 · Y.M.C.A에 경신학교 대학부 설치 (교장 : D.R.에이비슨) · 제주도, 울릉도에 島廳설치 · 언더우드 목사, 연희전문학교 설립 · 조선물산 공진회 개최 · 박물관 개관 · 中·陳獨秀 등 『新靑年』 창간 · 레닌, 『제국주의론』 간행 · 佛敎 30本山 주지회의원 해체, 30 本山 연합사무소 각황사에 설치 · 한용운, 영호남 사찰순례 강연회에 열변, 청중 감동시킴 · 장로교, 감리교 기관지 『기독신보』 창간
원기 원년 (1916)	4.28	· (三.二十六)金曜日, 處化, 出定悟 道. 義兄 金光旋, 外叔 劉巾, 朴東 局(親弟), 金永一, 姉兄 徐奇采,	1. 3.18	· 총독부, 植民地교육을 위한 敎員心 得공포 · 진해 요항부 설치

I. 원불교사 연표

丙辰	8	梁夏雲(婦人), 李顯華 入門 · 스스로 이름을 重彬이라 함	3.18	· YMCA 간사, 미국인 ‘반허어트’ 농구·배구 보급시작
	5. 8	· (四.七) 새벽 『金剛經』 현몽	4.	· 이능화, 『조선 불교계』 창간
	21	· (四.二十) 이웃동네 친구 金幾千 入門	5.	· 고등보통학교 관제공포
	30	· (四.二十九) 군서면 학정리 李載喆 소태산 만남	6.	· 袁世凱, 稱帝 획책하던 끝에 죽음, 부총통 黎元洪이 계승
	6.	· (五月) 이재철 佛甲寺에서 『금강경』 구하여 소태산께 드림	7.	· 露·日 비밀조약체결
		· 諸宗教 經書 열람, 先聖의 깨친바가 자신의 깨달음과 一致함을 알게됨	8.	· 영친왕 李垞과 일황족 梨本宮과 혼인결정
		· 社會보신 첫 감상을 돛드레미 李氏제각에서 발표	10.16	· 日 육군대장 長谷川好道 총독됨
	8.	· 증산교파의 선전원 불러 7일 치성하여 開眼通靈한 체 함	11.	· 日 육군 조선상주 2개사단 편성 착수
	10. 5	· (九.九) 學山里 친구 吳昌建 入門	○	·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원리 完成
	10.28	· (十二) 집안 조카딸 朴世喆 입문	○	· 만주에서 大倭敎人 31명 체포. 그중 10명 옥사
	11. 5	· (十.十) 이웃동네 知友, 李旬旬 입문	○	· 기독교, 협성신학교 『신학세계』 창간,
	12.	· 따르는 사람 40人中 8人 선발	○	· 대구에 나병원 설립
	○	· 得道하기까지 심경을 『탄식가』로, 깨친뒤의 기쁨을 『정축가』로 읊음		
원기 2 (1917) 丁巳	2.	· (正.十四) 이재철, 少太山門下에 정식으로 귀의	3.11	· 露 2월혁명으로 로마노프왕조 멸망, 케렌스키 임시정부 성립
	○	· 天祭치성	5. 6	· 미국, 1차대전에 참전
	夏	· 宋奎, 전라도에 와 선돌댁 모서가 星州 본가에서 치성	6	· 李王 일본 건너감
	9.	· (七.二十六) 少太山 十人一團 組團法 강구	8.	· 孫文, 廣東에서 軍정부 수립, 대원수취임
	○	· 少太山 수시로 가사, 한시 읊어 『法義大典』 편집케 함		· 소비에트 정권 성립
	秋	· (八月) 저축조합을 창설하고, 조합원들에게 근검저축 실시, 저축금 800원으로 木炭 구입	10	· 한강 인도교 완성
		· 宋奎, 다시 전라도에 와서 求道, 車京石 만남	11	· 러시아 10월혁명, 볼셰비키 집권
	冬	· 宋奎, 모악산 대원사에서 석달간 공부		· 東京, 조선기독교청년회 기관지 『기독청년』 창간
	12.	· 소태산 會上 創立한도 내정	12	· 文昌範 등, 雙城에서 全露韓族會 중앙총회 설립
			○	· 한용운, 五藏庵에서 좌선중 득도
			○	· 歐美에 심령학, 神知學유행, 스타이너의 人知學 성행
			○	· 러시아, 에스토란트 신교교회 성립, 정교회 총주교좌 부활 그리스도교 박해

원기 3 (1918) 戊午	春	· (正月) 송도군, 거처를 정읍 화해리에 정함 · 木炭 방매하여 8~900원의 자금 확보	1. 8	· 중국, 남북 軍閥항쟁시작(~1928) · 美, 윌슨대통령 14개조의 평화원칙 발표
5.13 春	春	· 吉龍里 干拓事業 시작 · 소태산, 김성섭을 대동하고 무장, 고창, 홍덕을 경유하여 정읍 화해리에서 宋道君 만남 · 소태산 송도군과 결의형제 함	2. 6.27 7.	· 공산당, 한국지부(이르쿠츠크파) 창립 · 書畫協會 결성 · 聖經雜誌 창간 · 각도에 금융조합연합회 설치. 시·군으로 확대
8. 2		· (六.二十六)宋道君, 少太山문화에 귀의하여 師弟의 義 맺음		· 조선 기독교회의 金庄鎬목사 장로 교에서 停職처분, 金庄鎬의 자유주의와 관련된 미국선교사 공위량 출국
9. 4		· (七.二十九) 宋道君, 수위단 중앙단원이 됨		· 소련 교회재산몰수, 종교교육 금지
12.		· 옥녀봉 아래 조합실 건축 착수, 少太山 조합실 상량에 「梭圓機日月織春秋法呂」 한시 씀		· 李能和『朝鮮佛教通史』 발간
○		· 송두군에게 「一圓」韻 주어 시 짓게 함	8.	· 여운형 등 상해에서 新韓青年黨 조직
			9.	· 불교잡지『唯心』 창간
			10. 1	· 식산은행 설립
			11.	· 토지조사사업 완료(1910~)
			11.11	· 제1차 세계대전 종료
			○	· 東三省의 독립운동자 呂準 등 39명 독립선언서를 발표
			○	· 대구의 李萬葉목사, 白治를 주장
			○	· 中, 魯迅,『狂人日記』 발간
원기 4 (1919) 己未	1. 2	· 李東安, 이재철의 인도로 소태산의 제자가 됨 · 조합실준공, 조합실기둥에「大明局靈性巢左右通達萬物建判養生所」라는 간판을 걸음	1.21 2. 8	· 고종황제 일제에 의해 독살당함 · 동경유학생 600여명, 조선기독교 청년회관에서 獨立宣言
	4.26	· 吉龍里干拓事業 준공 · (三.二十六)단원기도 시작	3. 1	·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 일어남. (3·1운동) · 서울에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이 3·1독립선언, 전국에 시위파급 4월중순까지 최고조에 달함

원기 4 (1919) 乙未	5.	· 소태산, 방언공사 자금출처 및 독립지사와의 관계혐의로 日警에 연행되어 일주일 후 풀려남	· 長監연합협회의 결의로 예수교사회에서 『찬송가』 발표
	春	· 소태산 변산 맑은 기운 관하고 月明庵에 가 白鶴鳴스님 만나 장래 일을 기약함	4. 2 · 제3인터내셔널 성립
	7.22	· (六·二十五)송벽조, 아들 송도군의 인도로 소태산에 입문	4. · 臨政憲章 10조 공포,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정부조직
	8.21	· (七·二十六)法認聖事, 9인 단원들에게 法名을 줌	5. 4 · 中, 5·4운동시작, 북경학생 反日示威
	9.	· 송규를 월명암에 보내어 있게 함	5. · 金奎植을 파리평화회의에 파견하여 독립을 청원케 함.
		· 송규 일가 전라도 영광으로 이사함	6.28 · 파리 강화회의의 베르사이유조약 체결
		· 소태산, 김광선과 같이 金山寺에 가 얼마간 머물음. 一圓相그림	8. · 상해에서 임시정부기관지 『독립신문』 창간
	10.13	· (八·二十)증산교도 송찬오(赤壁), 김성규(南天) 송규 연원으로 입문	· 조선총독 齊藤實(~1927) 부임, 정무총감에 水野鍊太郎
		· 소태산 미륵불출현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일주일 후 풀려남	· 日, 조선에 대한 소위 文化政治를 선전하기 시작
	11.26	· (十·六)단원기도 해제식	9. · 姜宇奎, 서울역에서 신임 齊藤實총독에게 폭탄을 던짐
		· 저축조합 이름을 佛法研究會 期成組合으로 고침, 모든 기록에 佛法의 명호를 쓰기로 함	· 露領, 상해, 한성의 各 臨政을 일원화하여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임시헌법 공포, 임시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李東輝
	12.11	· (十二·二十)소태산, 朴世喆 대동 부안변산 월명암 감	· 서간도, 북간도, 露領 등지의 무장 독립운동단체(독립군)의 국내진입 작전 시작됨, 점차 대단위로 집결
			10. · 中華革命黨을 중국국민당으로 改組
			11. · 金元鳳등 吉林에서 義烈團을 조직
			11. 1 · (九·十九) 김형렬, 신도 수십명을 데리고 금산사 미륵전에서 치성, 금산사 주지 김윤창은 비밀결사 조직하여 독립운동한다고 허위 밀고, 김형렬 등 수십명 체포당함
			11.5 · (대한승려연합회 선언문) 발표
			12. · 여운형, 일본정부 방문

원기 5 (1920) 庚申	1.10	· 송적벽의 인도로 증산교 여신도 宋月守, 具南守, 張正守 입문 · 증산교신도(송적벽, 김남천, 김혜월父女와 외손녀 이청풍 등) 변산의 少太山문화에 찾아오기 시작	1.10	· 국제연맹결성
	2.	· (己未,十二月) 소태산, 월명암에서 실상사 뒤 초당으로 거처 옮김. 김혜월·이청풍 모녀가 시봉	2.	· 서울에 大同團, 儒林振興會, 尙武研究會 革新黨 등 결성
	5.	· (三月)가사 『回性曲』 발표, 春夏間 性理·入定에 관한 법문을 주로 실험 · 四恩四要, 三綱領 八條目 등 敎綱制定	3.	· 『조선일보』 창간 · 培花학당 학생 만세운동 일으킴
	6.	· 『朝鮮佛教革新論』, 『修養研究要論』 초안	4.	· 『東亞日報』, 『시사신문』 창간 · 會社令(회사설립허가제) 폐지
	6.15	· (四月末)송규 아우 도열, 소태산문화에 입문, 道性이란 법명 받음	5.	· 滿洲 柳河縣에 광복군 총영조직 · 『開闢』 창간
	秋冬	· 秋冬 이후로 新制교강으로서 교화의 주체를 삼음	6.26	· 李商在 등 조선교육협회 조직 · 洪範圖의 독립군 江清縣 鳳梧洞에서 일본군 1개대대 격파
	○	· 이동안, 고향 신흥에 저축조합 본따 친족계를 守信組合으로 발전시킴	7.	· 중앙학림 학생들 중심으로 〈조선불교청년회〉 발족 · 청년승려들 각처에서 야학 강습소 개설
			9.	· 安徽派군벌(段祺瑞)과 直隸派군벌(曹錕)의 전쟁인 이른바 安直전쟁 일어남
			10.	· 감리교 여자신학원 설립, 김활란전도대 창설 · 金佐鎮, 李範奭 등 靑山里에서 일본군 대격파
				· 柳寬順 獄死 · 日軍, 彈春事件을 빙자하여 만주에 출병, 독립군과 韓人 非戰鬥員에 대한 대량 학살시작 · 총독부, 產米増殖계획 시작 (~1934)
			12.	· 吳祥根, 張德秀 등 조선청년회 연합회 조직
원기 6 (1921) 辛酉	7.24	· 장적조의 안내로 원평에서 한약방하는 서동풍 입문 · 신도의 내왕 더욱 빈번	1.	· 서재필, 미국에서 하대통령과 조선문제에 요담 · 李得季 등 좌익계, 서울청년회조직. 이로부터 국내에 공산주의 집착 유력해지고 左右로 分裂됨
	7.	· 영광지방 남자 1단 조직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6 (1921) 辛酉	8.	· 石頭菴 기공(10월준공) 實相草堂 과 石頭菴을 아울러 蘊萊精舍라 하고 소태산 石頭居士라 자처함	3.	· 임정, 국무총리 대리에 이동영
	9.	· 영광, 김제, 전주 등지 합하여 남1 단, 여1단 조직	3. 8	· 申翼熙 등 중국 長沙에서 韓中互 助社를 조직
원기 7 (1922) 壬戌	10.	· 宋奎, 월명암에서 봉래정사로 내려 옴		· 蘇·新經濟政策(IVEP) 채택 (~3.16)
	10. 1	· (九.一)李春風. 송벽조의 연원으로 봉래정사에서 입문	4. 5	· 코민테른 「식민지 혁명운동」 테제 채택
	秋	· 소태산, 송규에게 창립인연 찾게 함. 송규 진안 만덕산 미륵사에 머 물음	5. 1	· 『천도교서』 출간
	○	· 김기천, 백수면 천정리에 지축조합 본따 天定組合설립(시창8년 해 체).		· 廣東에 중화민국 정부수립
			6.	· 천도교 소년회 창립
			7.	· 임정, 국무총리 대리에 申圭植
			9.26	· 黑河事變, 蘇領 알렉세프소프市에 집결한 한인독립군, 무장해제를 강 행하는 蘇軍과 충돌하여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11.12	· 露領 新韓村 블라디보스톡에 천도 교 傳敎堂설치, 해외포교시작
			12.	· 중국공산당 성립, 제1회 전국대표 대회
			○	· 부산부두 석탄운반 노동자 5천여 명, 임금인상 요구하면서 총파업 (~30일, 최초의 대규모 총파업)
			○	· 워싱턴 군축회의(~1922.2)
			○	· 조선어 연구회 창립
			○	· 윤백남, 최초의 극영화 「月下의 盟 誓」 제작
			○	· 한용운을 중심으로 〈佛敎唯新會〉 발족, 사찰령폐지와 정교분리주장
			○	· 禪學院 창건됨
원기 7 (1922) 壬戌	1.22	· (辛酉,十二.二五)李春風일가 소태 산 명 받들어 부안군 보안면 신복 리 종곡으로 이사. 영광·변산 노정 간의 留宿處됨	1.	· 김규식, 모스크바의 極東無產者大會 참석
		· (正月)미륵사에서 송규, 최도화 만남	2.	· 조선교육령 공포
			28	· 英, 이집트보호권 폐지

원기 7 (1922) 壬戌	3. 春	· 송규, 봉래정사로 돌아옴 · 미륵사 화주 최도화, 송규 뒤따라 봉래정사에 와 소태산에 입문	2.28 4. 3	· 이집트 군주국으로 독립 · 소련공산당 서기장 레닌 사퇴, 스탈린 선임 · 中, 奉天派(張作霖)와 直隸派 군벌 전쟁(제1차 奉直전쟁).
	8.17	· (六.二五)최도화 인도로 변산에서 田參參입문	5. 6.20 6.	· 방정환 중심으로 5월 첫 공일을 어린이날로 정함 · 손병희 사망 ·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개최
	12.18	· (十一.一)宋道性出家, 소태산 시봉	8. 10. 12. 30 ○ ○ ○ ○	· 南滿의 17개 독립군단체 통합하여 大韓統軍府(총장 金東三)로 개편 · 김구, 여운형 등 上海에서 韓國勞兵會 개최 · 伊, 무솔리니의 파시스트정권 성립(~1943) · 조선훈적령 발표 · 안창남, 일본서 모국방문 비행 · 유성준 등 조선물산장려회운동 시작 · 제1회 전연방 소비에트대회 개최, 蘇聯邦 성립 · 오성월, 김남전, 백학명 등 선학원에서 禪友共濟會 창립 ·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YWCA)연합회 창립 · 조선기독교 중교파 설립 · 친일주지들「조선불교선교양종 중앙종무원」설치, 30本山연합사무 봄
원기 8 (1923) 癸亥	2.	· (壬戌十二月末)소태산, 오창건, 송도성 대동하여 만덕산에 감	1.	· 신채호,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 작성
	2.16 初春	· (正初)14세 소년 전음광, 만덕산 김씨산재당에서 소태산 뵈고 靈父侍子女 결의 · (二月)전음광일가 소태산 뜻 받들어 전주완산정으로 이사	2. 7	· 임정 국무총리 노백린 · 각지에서 小作爭議 일어남 · 블라디보스톡 新韓村에 고려공산당 중앙총국 조직 · 조선물산장려회 창립 · 中, 경한철도파업(2.7사건)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8 (1923) 癸亥	4. 4.26 · (三月)소태산, 봉래정사로 돌아옴 · (三.十一)李完喆, 兄 동안의 인도 로 입문 6. · (四月)이춘풍, 「大圓圖後說」草한 大圓之圖·節目(10개과목)을 논함 7.14 · (六.一)김제 한의원 徐中安, 형 동 풍의 안내로 내변산에가 소태산을 뵈고 師弟之義 맺음 8. 8 · (六.二六)서중안, 소태산께 교통편 리한 장소로 옮길 것을 간청 · 모친 환후 급보듣고 소태산 영광 향발, 서중안과 동지달 전주서 만 나기로 약조 26 · (七.十五)소태산 모친상 당함. 모 친 劉氏 법명을 定天이라 함 9. · 옥녀봉 아래의 會室이 협착하여 뚫드레미 뒤산에 조합실(九間道 室) 신축, 11월 준공 · (九月)최도화, 전주에서 박사시화 만남 12. · (十一月)소태산 이리경유 전주에 감 · (十一.二十)전주, 이청춘 입문 12.27 · 회상 창립준비 임시회의. 전주신도 들의 주선으로 大正町에 임시출장 소 마련 · 회상창립에 대한 준비 서중안에게 위임	· 의열단원 김시현 등 폭탄밀수사건 으로 체포됨 · 연희전문학교 설립 3. 1 · 백광운 등 암록강을 중심으로 臨 政陸軍駐滿 참외부 조직 3. 7 · 천도교 『어린이』 창간 4.25 · 진주에서 형평사 창립 · 東三省, 한인교포의 3대세력이 됨 9. 1 · 일본 關東대지진에 재일교포 5천 명이상 참살 2 · 천도교 청년단 창립. 유소년, 청년 학생, 여성, 농민, 상민, 노동자 등 7부문 운동 전개 · 천도교 『신여성』 창간 10. 5 · 천도교 『農民』 창간 · 무정부주의자 李烈 음모사건으로 도오교경시청에 검거 10.29 · 터키 공화국 성립, 케말파샤대통 령 취임 ○ · 기독교, 민립대학기성회 발족 ○ · 조선불교 중앙총무원이 천도교로 부터 보성고보인수
원기 9 (1924) 甲子	1. · 소태산, 봉래정사로 돌아옴(1月20 日 이후). · 백학명, 내장산 고내장에 강원설립 을 권유 · 백학명 내장사 주지부임. 소태산 제자 5인을 내장사에 보내고 過歲 後에 만나기로 함 1. 3 · (癸亥十二.八)소태산 이리경유 내 장산에 감	1.20 · 中, 제1차 國兵合作 · 中, 黃埔군관학교 개학 · 奉直交戰 直軍敗 21 · 蘇, 레닌사망, 트로츠키 집권(~ 1925.1.15)

원기 9 (1924) 甲子	1.28	· (癸亥十二二三)영광, 차남 吉珠 출생	2.	· 군산에 어음교환소 설치
	2. 4	· (癸亥除夕)이춘풍, 「讀中庸以心傳心法」 草함, 인도상요법 十二字綱領(三學)논함	3.	· 최남선, 『시대일보』 창간(∼1925)
	19	· (正.十五)내장사에서 송상현 입문, 法名을 萬京이라 함	4.	· 임정 국무총리 李東寧
	19	· 소태산, 내장사에서 회상 창립 포기결정 京城가기로 함	5. 2	· 경성제대 예과 개강
	3.30	· 소태산, 제자 3인 대동 上京	7.	· 박한영 등 『佛敎』誌 창간
	4.	· 최도화 연원으로 朴四時華, 박사시 화 연원으로 朴孔明善 입문	7. 9	· 전남 무안군 암태도 소작쟁의
	29	· (三一)이동진화 만남	11.	· 北風會, 火曜會발족, 서울청년회와 함께 국내 공산주의운동의 3대 세력을 이루어 勞農, 靑年, 女性운동의 爭霸
	3	· 金三昧華, 成聖願 입문	○	· 中, 廣東에서 국민당 전당대회 개최
	5.	· 당주동에 1개월간 임시 출장소 마련	○	· 기독교 金敎臣, 無敎會主義 제창
	3	· (三三三)이리경유 전주 완산동 전 음광家에 도착	○	· 長老敎, 감리교, 조선기독교연합회 창립
	19	· 불법연구회 창립 발기인 모임. 회관(총부) 설립지 익산으로 定함	○	· 캐나다 연합교회 창설로 L.Young 떠나고 자유주의적인 스코트 맥도날드, 베이커 등 내한 선교활동
	6. 1	· (四.十六)원평교회장로 曹工珍(頌廣), 송적벽의 안내로 전주 한벽루에서 소태산 만남	○	· 한용운, 조선불교청년회 총재로 취임
	6. 7	· (四.二十九)이리 보광사에서 佛法研究會 창립총회 소태산 총재로 추대, 회장 서중안, 회규 제정. 7부서 정함		
	7.	· 영산출장소장 김기천 선임		
	9.29	· 종래 기성조합을 상조조합으로 개편		
	6. 7	· 소태산, 진안 만덕산 입산 삭발		
	7.	· (五.六)盧德頌玉, 손자 金大舉와 입회		
		· (六.二十)李東震華, 만덕산에 찾아와 정식 제자됨		
	9.29	· 본관기지 확정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9年 (1924) 甲子	9.29 · 익산군 북일면 신룡리 344-2번지 柳氏소유 3,495평 매입 · 영광제자 김광선, 오창진, 이동안, 이준경 전무출신함. 송학리 朴元石 家에 기하며 東拓토지 빌려 농사 10. 8 · (九.十)박원석家에서 제1회 평의원 회, 총부분관 건축결의. 서무부장 오창진, 연구부장 송규, 본관건축 주력 11.20 · (十二四)소태산 2차 상경 22 · (十二六)李共珠 입회 24 · (十二八)김영신, 소태산 만남(원 기10년 11월입회). 12. · 최초본관 준공, 목조 초가 2동 17 간 12.11 · (十一.十五)太乙道교주 趙天子의 누이 趙氏 장적조의 인도로 入會, 범명 昌煥 22 · (十一.二六)창환의 시모 孫學敬 入會 · 창립 전후 文書 정비	
원기 10 (1925) 乙丑	1. · (甲子臘月) 이춘풍 「三才合德說」 草함, 大圓圖 10종교과서 번역을 논함 16 · (十二.二十二)태을도 조철재의 모 閔何覺, 제수 徐東覺, 차석간부의 처 孫元初 입회 2. 6 · (正.十四)소태산 3차 상경, 각황사 (주지 백용성)의 신도 민자연화, 이성각 입회 26 · (正.二十四)서동풍 입적, 신정의례 에 준하여 치상함 4. · 훈련법 제정발표 · 익산본관에 최초로 전음광 私家지 음. 제1회 정기훈련선방으로 제공. 夏禪지도교무 송규, 여자 6명 入禪 初夏 · 전음광 일가 본관으로 이사. 전음 광 임시상조부 서기역 봄	3. · 金燦, 金佐鎭, 李範允 등 新民府를 조직. 하르빈, 무단장일대를 중심으로 東三省 韓僑의 3대세력의 하나가 됨 · 臨政,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탄핵, 후임에 朴殷植 선출 12 · 中, 孫文사망 4. · 金在鳳, 曹奉岩 등 서울에서 조선 공산당 조직 5.30 · 中, 5.30사건, 上海조계에서 반제 시위에 영국관헌이 발포 · 천도교, 신구파 분열 · 梨花학당을 이화여자전문학교로 개칭 6. 8 · 朝鮮史編修會 설치

원기 10 (1925) 乙丑	- 정식수위단 개편, 9인선진중 전무출신하지 못한 3인에 대해 10대 소년 전무출신 3인(전음광, 송도성, 조갑중)이 보결 단원으로 선정 5. (四.一)제2회 평의원회 서무부장 이동안 선임 6.26 (五.六)제1회 정기훈련(初禪~9.23) 여자회원 6인 입선. 지도교무 宋奎. 8.10 (六.二十一)조창환의 시동생 成丁喆 입회, 成氏一門 무너리됨 9. 옛장수 그만둠 9. 1 (七.十四)조공진 장로, 총재 소태산 모친 문상코자 영광 길릉리 찾아가 제자됨. 범명 頌廣 10. 학력고사, 學位等級法제정 11. 9 (十.十三)경기고녀생 金永信 입회 12. (十一.六)제2회 정기훈련(乙丑冬禪), 지도교무 李春風. 선객 20여명 17 (十一.十三)소태산의 3남 吉然 출생. 신정의례에 의해 出生의 禮 행함	6. 8 · 총독부 대표와 만주대표 張作霖, 瀋陽에서 在滿韓人의 단속을 협정(三失協定) · 聖公會 修女學院을 設立 7. · 한국79位 致命者 諡福式이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에서 비오 11세 주례로 거행됨 · 廣東에 국민당 정부수립 · 각황사에서 대립하던 중앙총무원과 중앙불교원이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으로 통합. 종립학교 보성고보와 동광학교 병합됨 · 제1차 공산당사건, 朴憲泳, 金若水이하 간부 다수 검거됨 · 臨政, 임시헌법을 개정, 대통령, 국무총리제 폐지, 國務領을 선출키로 함 8.29 · 한용운, 백담사에서 『님의 沈默』 탈고 9. · 臨政 國務領에 李相龍
원기 11 (1926) 丙寅	3. · 新定儀禮, 四紀念 제정발표 4. · 조갑중, 경성부기 학원에서 6개월간 교육받고 원기12년부터 상조부 업무 담당 5. 7 (三.二十六)제3회 평의원회, 전음광 상조부서기(부장대리), 지방순회원(설교인)으로 송규 선임 6.15 · 제3회 정기훈련(丙寅 夏禪), 여선객 10여명. 지도교무 이춘풍 7. · 회원중 의무불이행자 13인 黜會 · 송도성, 경성지부 초대교무로 부임 (~1927. 4) 10.21 (九月보름)신정의례에 준하여 八山の 장남 김홍철, 이보응화와 결혼 11. 1 (九.二十六)제4회 평의원회 규약개정	1. · 朝鮮水電 주식회사 설립 2. · 臨政, 國務領 이상룡 組閣실패로 사임, 후임에 梁起鐸이 선출되었으나 자퇴 4. 1 · 천도교 『新人間』 창간 · 梁基鐸 등 吉林에서 고려혁명당 조직 4.26 · 경성제대, 의학부 업무학부 신설 5. · 융희황제 순종 죽음 6.10 · 조선박람회 개최 7. 7 · 6·10만세사건 발생 7. 9 · 洪震, 臨政 國務領에 선출됨 · 中, 蔣介石의 국민당 북벌시작됨(~1928.6)

I. 원불교사 연표

	12.10	· (十一.六)제4회 정기훈련(丙寅冬禪) 남녀 합 30여명. 지도교무 송만경(남), 이춘풍(여)	8. 11. 12. ○ ○	· 『개벽』 강제폐간 · 『中外日報』 창간 · 金九 臨政국무령에 취임 · 羅錫疇, 조선은행 東拓會社에 投彈 · 京城放送局(JODK) 설립(1927.2.방송개시). · 기독교의 崔泰塔, 무교회주의운동 전개 · 불교 대처제도가 합법화됨
원기 12 (1927) 丁卯	2. 3. 4. 27 5. 6. 7 8.26 10.20 11. ○ 간행	· 有功人대우법 발표(貞男貞女, 전무출신, 재가유공인, 회사위). · 身分檢査法 발표 · 신흥 分會所 설치 · (三.二十六)제5회 평의원회, 임원 개선, 회장대리에 서무부장, 서무부장 이재철, 교무부장 송만경 선임 · 평의원회 會中 土地명의자(재산등기자)로 宋道悅(도성) 가결 · 경성교무 송규 부임 · 相助部本支店 확정(본점: 영광 길룡리지부) · 박대완 입회 · (七.二十九)五山 朴世喆 入寂 · 조송광의 딸 曹專權 入會 · (十月) 이춘풍 내변산에서 『山中風景』 편성 · 조전권 출가 전무출신하기 위하여 丁卯 冬禪나러 익산총부에 옴 · 김영선·박길선 경성부기학원 이수 · 『佛法研究會規約』 발행, 국판한장본, 39쪽(3) · 少太山述『修養研究要論』 발행, 국판양장본 73쪽(5).	2.15 2.25 3.29 4. 4.12 5. 5.20 7. 10. 11. 12.10	· 민족운동 단일체 新幹會 조직 · 대한민국 新임시約憲 공포. 임시정부 국무령제 대신 국무위원회의제 채택 · 이상재 사망 · 新民府, 正義府, 參議府 등 재만 독립군의 軍政府(대표: 金東三), 吉林에서 통합 곧 와해됨 · 蔣介石, 反共쿠데타 감행(4.12사건) 南京에 국민정부 수립, 國共分裂 · 여성 좌익계단체 權友會성립 · 野口재벌, 興南에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 설립 · 日, 山東반도에 불법 派兵 · 린드버그, 대서양 횡단 비행 성공 · 朱德, 南昌에서 무장봉기 · 毛澤東, 井岡山에서 혁명군거지 건설 · 이상협 등, 『中央日報』 창간 · 無敎會主義, 聖書연구회 창립 · 인도 통치에 관한 사이먼 위원회 설치 · 山梨半造대장, 조선총독에 임명 · M.L 조선공산당 조직 · 裡里시민들, 在만주 한인에 대한 중국관헌의 박해에 항의, 중국인 상품 불매운동 전개, 이후 전국 확산 · 함경선 개통

원기 13 (1928) 戊辰	3.27	· 조전권, 최초 貞女 문열이 됨. 농공부 공양원	3.	· 이동녕, 이시영, 김구 등 上海에서 한국독립당 조직
	4. 6	· (二.十六)농업부기성연합단, 인재 양성부기성연합단 발기	25	· 부산항 축항 제2기공사 준공
	16	· (閏二.十六)소태산, 서울계동 이공주家에서 「弱者가 强者되는 法」 說함	4.	· 中, 紅軍결성
		· 두번째 여자 전무출신 金永信 출가. 서무부서기일 봄	5. 3	· 日本軍, 濟南에서 양민 대학살
		· 成丁喆 전무출신 농공부 근무	6.	· 코민테른, 조선문제 테제 채택
	5. 5	· (三.十六)제6회 평의원회		· 中, 張作霖 폭사
		· 임원의 급료 상조부 저축하여 공부비용으로 쓰도록 결의	7.	· 제4차 공산당사건으로 10월까지 170명 검거
		· 임원개선: 서무부장 김기천, 상조부장 이재철, 영광교무 송규, 경성교무 이춘풍, 연구부서기 송도성, 교무부서기 전음광	8.27	· 켈로그, 브리앙 부전 조약 조인
		· 의무불행회원 40여명 제명처분 가결	9.	· 함경선 철도 개통
	15	· (三.二十六)제1회 기념총회 제1회내 회세 회원 총 373명, 전무출신 22명 2대 佛法研究會 會長 조송광 선임 신축강당(迎春軒: 현 구조실) 준공,사무실로 씀	10. 1	· 소, 제1차 경제5개년 계획 시작
	17	· 학위 승급식	8	· 中, 국민당 북벌 완료, 주석에 蔣介石
		· 『月末通信(주간 송도성)』, 목사본 5부씩 창간	10. 9	· 가가날 변경 「한글날」 제정
	6. 2	· 이춘풍, 경성교무로 부임	11.15	· 伊, 무솔리니 독재체제 확립
	22	· 祖室(금강원)준공	12.27	· 코민테른, 조선공산당 승인 취소하고 재건명령(12월 체제)
	11. 8	· (九.二十六)공동제사기념일, 소태산 「金剛山과 그 主人」 法說	○	· 美, 토오키 영화 출연
	25	· 『東亞日報』2766호. <세상風塵 벗어난 淡湖畔의 理想의 生活>이란 題下로 본회 소개됨.	○	· 佛教 전수학교 개교

	秋	· 三山 김기천, 소태산총재로부터 見性認可		
12. 6		· (十二.二十五)三山 김기천 「夢見詩」 발표<月末通信 8號>.		
21		· (十一.十一)임시원의회, 총재사택 (송학리와 도치동 주택)을 회중 자산에 편입키로 결정		
원기 14 (1929) 己巳	1.	· 서무부장에 오창건 선임(대리)	1.	· 紅軍이 江西와 福建에 소비에트區 건설
		· 전음광 正月부터 『월말통신』 회설 반 기자로서 매월 논설전담 집필		· 陳獨秀 공산당으로 부터 제명
	2. 25	· 佛法研究會총재 소태산에 대한 호칭 <종사주(宗師主)>로 통일함	1.14	· 元山 부두노동자 대과업 단행
	3. 20	· (二十)朴大完, 마령출장소 설립차 주무로 파견(~15.2)		· 각황사에서 선교양종 승려대회 개최
		· (三.)신룡리 산판 3,000평 개간	3.	· 汝矣島, 蔚山 비행장 개장
	4.	· 양잠실 9간(九龍軒;공회당) 건축		· 정의부·창의부·신민부 등 在滿 독립군의 軍정부 吉林에서 통합, 國民府와 조선혁명당을 조직(대표: 玄益哲).
	4.29	· (三.三十)「三綱領 總論」 발표		· 인도의 타고르 『동아일보』에 詩 「朝鮮은 아세아의 燈燭」을 기고
	5.	· 용화체육단 조직		
	5. 7	· 김기천 禪時 敎務로 선임	3.27	· 승려 白鶴鳴 입적
	5.11	· 교무부, 「내가 본 本會의 要法」 설문조사 모집(月末通信 18號)	4.	· 최현배 『우리말보』 제1집 간행
		· 『동아일보』3133호 「益山佛教大會」 소개	7	· 『조선일보』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표어를 제창, 문맹퇴치운동 전개(~1934).
	6.21	· 진안 마령면 평지리 631번지에 마령회관 신축. 첫 법회	8.17	· 齊藤實, 총독 재취임
	8. 3	· 소태산, 마령 행가	9.	· 조선박람회 경복궁에서 개최
	8.	· (七月)길룡리지역내 인륜강기 숙정하고자 矯風會조직	10.24	· 뉴욕, 주식대폭락. 세계 大恐慌시작됨(~1934).
	9.	· (八月)李敬順 전무출신, 공부비용 마련하고자 이리 澤田제사공장에 3개월 나감. 원기15년 二月 전주제사공장으로 옮겨 6년간 근무		· 英 플레밍, 페니실린 발명
	10.29	· (九.二十七)이리 남중리 한길에서 소태산 「대우주의 本家를 찾아 초인적 생활을 하라」 법설(월말통신 21호)	10.31	· 영국, 인도에 대해 원탁회의 제안
			11. 3	· 光州學生운동

	11.20	· (十.二十)남원인, 藥商 梁日之 입회하루만에 제명 · 교무부 「四恩四要」 교법제정안 발표		
	11.18	· 김광선, 김영신, 경성출장소 주재원으로 부임		
	12.21	· 소태산의 장녀 길선과 연구부 서기 송도성 신정의례에 준하여 결혼		
원기 15 (1930) 庚午	4.15	· (正月)소태산 「大地江山과 삼라만상이 다 내것이다」 법설(월말통신 23호) · 제8회 평의원회. 서무부장 오창건, 교무부장 김기천, 농업부장 이동안, 영광교무겸 상조회장 이재철, 경성지부교무 이공주, 김제교무 조송광, 영광교무겸 신흥출장소교무 송규	1.24	· 金佐鎭, 북만주 山市역전에서 공산주의자에게 암살당함
	18	· (三.二十)李完喆 전무출신함. 총부 농업부 근무 · 회중 최초장학금으로 박광전 배재고보 입학	4. 9	· 印度, 국민회의과 불복중운동 전개
	24	· (三.二十六)교무부 「訓綱, 教綱, 法綱」 제정, 사업보고서에 발표	22	· 런던해군 군축조약 조인
春		· 양잠실 6간 건축	5	· 한용운, 항일 비밀결사 근당 조직
5.28		· 소태산종사주 금강산 여행(~6.5) · 이공주 「종사주 금강산 行啓日記」 기행문 『월말통신』 27,28,30호에 발표	7.	· 함남 신흥군 장풍탄광 갱부 200여명 폭동
6. 2		· 추산 서증안 입적	9.	· 부전강 수력발전 댐 완공
夏		· 원평에서 조송광회장이 중심이 되어 법회보기 시작	10.	· 천도교, 조선농민공생조합 창립
9.12		· (七.二十)종사주 육영부 승급조항 개정	11.	· 조선남북 감리교회 합동하여 조선감리교회 성립
10. 3		· 전음광 『단규』 편찬차 영광 길룡리에 감(~12.23)	12.	· 中, 국민당軍, 소비에트民 포위 토벌개시(~1936)
19		· (八.二十六)박공명선 별세	○	· 지방제도 개정 邑 面 道制 공포
11.15		· (九.二十五)소태산, 3강령 훈련등 급제정, 十一月동선중에 고시시행, 입격자 수료증 증	○	· 여수-광주 철도완공
			○	· 間島공산당 사건(사형 40명).
			○	· 하와이 범태평양 불교대회 열림

	12.	· 월말통신 34호로 휴간(15개월 뒤 복간)		
	12.15	· (十二十六) 종사주와 은부시자녀 결의 남녀구분없이 허용. · 경성지부에서 성성원, 김영신, 조전권과 종사주 은부시녀 결의식 ○ · 마령출장소, 萬德山 너부실 산판 17만여평 매입		
원기 16 (1931) 辛未	1.	· (庚午,十二)소태산, 경성에서 경성지부 학력고시 시행	4.18	· 임시정부, 對外宣言을 발표하고 三均制度의 건국원칙을 밝힘
	2. 9	· (十二二十二)상조부 이재철, 조갑종 타부처 전직함에 따라 상여금지급	5.	· 新幹會 해산
	2.10	· (庚午,十二二十三) 蕪山이춘풍 입적	6.	· 宇垣一成대장 총독에 임명됨 · 한용운, 『佛敎』誌 사장에 취임
	13	· (庚午,十二二十六)익산지부에서 김대거, 정라선 종사주와 은부시자녀 결의식 · (二月)조단착수, 남녀 합조를 남녀별로 분조	7. 2	· 萬寶山 사건 발발 · 동아일보사, 브나로드 농촌운동전개(~1934).
	4.	· (三月)여자수위단 시보단 내정. 건방 이동진화, 감방 장적조, 간방 최도화, 진방 양하운, 손방 전삼삼, 이방 이청춘, 곤방 정세월, 태방 박사시화, 중앙 이공주	8.	· 만주사변을 계기로 서간도 방면의 조선혁명당군(梁世奉등). 牧丹江방면의 한국독립당군(李靑天등) 중국인 의용군과 연합하여 유격전강화(~1933).
	4.24	· (三.七)전음광의 수정 단규 감정완정	9.18	· 日, 만주를 점령하기 시작(만주사변, 9.18~1932) · 천주교, 조선교구설정 백주년기념대회 · 한용운, 「조선불교개혁안」 발표. 근당 영수로 추대됨
	5. 7	· (三.二十)六名簿(범위등급)공개. 법마상전부 7인, 특신부 48인	10.	· 中外日報, 『中央日報』로 개편됨
	5.13	· (三.二十六)조송광 제3대회장으로 재선	11.	· 경성제국대생들, 反帝同盟사건으로 검거됨 · 총독부, 産金政策을 강화
	7.30	· 『통치조단규약』 발행 · 전음광, 『육대요령』 편찬차 閑寂處인 영광지부로 감	27	· 中共, 瑞金에서 중화소비에트 임시정부수립, 毛澤東 주석에 취임
	9.	· (八月)소태산, 부산 행가		
	10.	· 종사주, 경주불국사, 석굴암 탐방하고 자칭 不侶居士라 함. 구미용담 수운묘 참배 · 회가 가사 내용의 불순혐의로 정산(영광지부장) 광주형무소에 25일간 수감		

	10.	· 부산 하단에서 張寂照가 법회보기 시작		
	11.	· 조송광회장 일본 오사카로 이주 교포교화 시작		
	○	· 三山『綴字集』저술		
원기 17 (1932) 壬申	1.28	· (辛未,十二,二十一) 전무출신 權大鎬 21세로 입적, 최초의 貞男	1. 8	· 李奉昌, 東京에서 日天皇에게 수류탄 투척 실패
	5. 2	· 제9회 평의원회에서 회장 유고시 직무대리할 총무직 증설. 임원개선:총무겸 연구부장 전음광, 교무부장 송도성, 영광지부장겸 교무송규, 영광서무부장 조갑중, 영광상조부장 이동안	28	· 上海사변, 일본군 上海 무력침공
		· 원평출장소 초대교무로 朴大完 부임	3. 1	· 만주국(일본괴뢰정권) 건국선언, 長春에서 宣統帝薄儀를 執政으로 세우고 연호를 大同이라함
	5. 6	· 부산지방 초대교무로 金幾千 부임	4.	· 천도교 다시 분열
	10	· 『月末通信(35호)』 15개월만에 복간(주간:전음광). 등사본으로 50부씩 발행시작		· 이광수, 장편『흙』 동아일보에 연재
	6.	· 마령출장소 초대교무로 金光旋 부임	29	· 尹奉吉, 上海 紅口공원에서 거행된 日天皇생일 경축식장에서 폭탄을 던져 白川義則대장 등을 죽임
	6.	· 월말통신, 『月報(36호)』로 改題하여 발행	5.	· 임시정부, 日軍수색을 피하여 상해에서 浙江省杭州로 옮김. 활동부진해짐
	7. 4	· 학원 교무직 신설, 이완철 임명	15	· 日, 장교단쿠데타(五.一五사건)
	8.	· (七月)송규 가사 「圓覺歌」(월보38호)발표	6.	· 中·蘇국교 회복
	9.28	· (八,二十八)이보국, 봉래정사 수호주임으로 부임	7.21	· 대영제국 경제회의 개최(21~8.20)
	11.24	· (十二,二十七)柳虛一, 이재철연원으로 입회, 18년 전무출신(총부학원교무)함.	10.	· 기독교 교육연맹 창립
	○	· 영광지부, 영산학원단 학원교육실시	12.	· 기독교『宗教時報』창간
	간행	· 『六大綱領』(4.1)	10	· 조선 小作調停令 공포
			20	· 산미증산계획 중지
원기 18 (1933) 癸酉	1.30	· (正,五)조송광연대기 『曹沃政百年史』 편성(17.11.5~18.1.30)	1.	· 日, 세브란스 의전 졸업생 의사면허시험 폐지
		· (正月)金幾千가사 『教理頌』(월보44호)	1.30	· 獨, 히틀러의 나치정권 성립
	4.20	· (三,二十六)제5회 정기총회 공익·인재양성·통신부 증설(통신부장은 보류), 임원개선:총무 송규, 교무부장겸 연구부장	2.	· 이승만, 제네바에서 열린 國際聯盟에 한국대표로 참석. 일본의 만주 침략 논박
				· 『中央日報』, 『조선중앙일보』로 개편(呂運亨)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18 (1933) 癸酉	4.20	· 전음광, 공익부장겸 인재양성부장 겸 상조부 익산지점장 이재철, 영 광지부장겸 교무부장 송도성, 상조 부장겸 영광서무부장 이동안, 경성 지부 교무 이완철, 이동진화	3.27	· 日, 국제연맹 탈퇴
	5.10	· 경성교무로 이완철·이동진화 부임	3. 9	· 美, 뉴딜정책성립(∼6.16)
	7.	· 『月報』 48호 무허가 출판물이라는 이유로 도경에 압수당함	4.	· 천주교, 閔德孝대주교 별세
	7. 5	· 서무부장 이재철, 경성회관 신축위 원 오창건 선임	4.	· 京城放送局, 제2방송(韓語)개시
	8.	· 月報, 『會報』로 題號바꾸 발행	5.	· 長津江 水電會社 창립
원기 19 (1934) 甲戌	11. 3	· 경성지부 창신동에서 돈암동으로 신축이전봉불	5.	· 총독부, 지방의회 설치, 첫 道議會 議員선거
	春	· 영광 묘량면 신천리 소재 이흥果 園지기 매입	8.	·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발표
	5. 9	· 제6회 정기총회 새 會規시행, 중법 사 會長下에 二院十部制시행. 임원 개선: 조송광 회장 재선. 교정원장 송규, 서정원장 이재철, 교무부장 겸 감찰부장 송규, 연구부장겸 통 신부장 이공주, 재무부장겸 산업부 장 송혜환, 공익부장겸 육영부장겸 상조부 지점장 이동안, 공급부장겸 서무부 서기 이진양, 영광지부장겸 교무부장 송도성, 영광 서무부장겸 상조부장 오창건, 신흥분회 교무 조원선, 김제출장소 교무 박대완, 진안출장소 교무 김광선	9.	· 총독부 圖書課 검열제 실시
	6.14	· 五月부터 익산총부 例會를 음력 三·六예회에서 日曜예회로 전환	11.	· 中, 福建인민혁명 정부수립 蔣介石 8개성에 있는 공산당기지 멸절위해 대대적 캠페인 시작
	8.	· 김영신, 남부민출장소 교무로 부 임. 최초의 여자교무 됨		
간행	간행	· 부산출장소, 하단지부로 이름고침		
		· 합자회사 보화당약방 설립		
		· 『규약』(5), 『三大要領』(12)		
			3.	· 溥儀, 만주국 황태자로 즉위
			4.11	· 朝鮮農地令 공포, 英親王 서울에 음
간행			5.	· 총독부, 토지개량사업중지 공식발 표
				· 네루를 중심으로 인도 회의파 사 회당 결성
				· 신사참배 거부로 木浦 永興中學校 폐쇄
			5. 7	· 이병도·김윤경·이병기 등 震檀學 會 창립
			6.	· 전북지방에 공산주의 활동혐의로 56명 체포
간행			8. 2	· 獨, 히틀러총통 취임(∼1945. .30)
				· 佛, 퀴리부인 사망(1867∼)
			10.15	· 중국 紅軍, 瑞金을 탈출하여 西遷 을 개시(∼1936.10).
			11.	· 釜山∼長春間 직행열차운행 개시
				· 평양 숭실전문학교(교장 매륵)에 서 신사참배거부운동 시작
간행				· 中共근거지 瑞金, 國府軍에게 함락 됨
			12.	· 日, 워싱턴 軍縮條約 폐기

	冬	· 남부민출장소에서 초량에 出張例會 보기시작		
원기 20 (1935) 乙亥	1. 2	· (甲戌,十二,二十七)吳宗順 21세로 입적	1.	· 여자농촌운동자 崔容信 죽음 · 신사참배 거부로 한국교회 시련 시작
	1. 4	· 『會報』 13호부터 인쇄하여 발행하기 시작(주간 이공주)	2.	· 臨政, 前국무총리 李東輝, 블라디보스톡에서 사망(1873~)
	30	· 교포들 중심으로 日本 오오사카 지부 창립	3.	· 獨, 베르사이유조약의 軍事條項을 폐기, 再軍備선언
	2.19	· (正,十六)소태산, 吳宗順 종재에서 「정식 貞女부에 승급시켜 이후 貞女の 原始가 되게 하라」 교시. · 전주출장소 창설	4.	· 텔레비전 실용화하기 시작
	4.	· 최초 육영장학생 朴光田, 동양대 철학과 진학(~40.3)	7.	· 경복궁 苑內에서 산업박람회 개최 · 한독당 등 5당대표, 南京에 모여 민족혁명당 조직
	4.28	· 제7회 정기총회, 임원개선:교무부장 전음광, 연구부장 서대원, 산업부장 김광선, 영광상조부장 오창진, 육영부장겸 공익부장 조갑종, 보화당감독겸 상조부지점장 이동안, 전주교무 이청춘, 영광교무 이균일, 신흥교무 김홍철, 진안교무 송벽조, 남부민교무 김영신 · 익산총부 대각전 준공, 「四恩位牌」 奉安	9.	· 심훈 「상록수」 『동아일보』 현상소설 당선
	6.20	· 오오사카 교무로 박대완부임, 7월 7일 첫 예회	10.	· 최초의 발성영화 〈춘향전〉 단성사에서 개봉
	10	· (八,十二)제1회 수위단 조직위원회, 三山입적으로 수위단 보궐선거에 유허일피선, 이동안 정식보결원, 송도성, 전음광, 조갑종 정식대리단원으로 승인	11.	· 臨政·江蘇省 嘉興에서 재건, 주석에 李東寧 · 平南 기독교계학교 교장 신사참배 거부 · 羅南港 개항, 雄基, 羅津間 철도개통
	9.10	· 島山安昌浩 총부내방 소태산 만남 · 박창기 총부 「靑少年會」 활동전개 · 교무부 주관 노동청소년 대상으로 야학원 「修道學院」설치. 이후 각지방에 야학운영 확산됨	12.	· 吉善宙목사 별세 · 金泰治 주간으로 『佛教時報』 발행 · 조선일보사, 한글교재 10만부를 배부 · 복음교회 창설(초대감독: 최태용) · 中共·延安에 정착 · 中共·항일 민족통일 전선 제창

I. 원불교사 연표

	교당 입적 간행	· 초량(12.8) · (八·九) 三山 김기천(9. 6) · 『朝鮮佛教革新論』 발행(4.29)		
원기 21 (1936) 丙子	春 4.17 5. 7. 9.11 9. 10. 7 교당 입적 간행	· 三山遺稿 「心月頌」 『회보』 24호에 소개 · 송도성, 시 「眞境」 「오, 四恩이시여」 『회보』 24호에 발표 · 임원개선: 연구부장 김형오, 산업부장 이동안(보화당 감독겸), 상조부장 이재철(서정원장 겸임), 육영부장겸 공익부장 이진양, 학원교무이귀생 · 연구실터에 산업부 가옥 독립신축, 과원, 축산, 원예 등 운영 · 소태산종사주 부산 초량서 강습주관(24~30) · 초량지부 신축회관 완공(7.16~) · 오오사카 회관 일정 당국에 의해 중단 당함 · 박대완교무 귀국 · 日警, 총부 구내 내사하기 위해 주재소 설치 · 장적조, 함경북도 청진에서 교화활동 전개 · 관촌, 용신(12) · 박이석(4.5), 文正奎(6.2) · 『會員須知』 발간 · 『略報』 발간(12)	1. 2.26 6. 7. 8. 10. 23 11.25 12. 12.12	· 숭실전문학교장 G.S매켄 신사참배 거부로 校長職인가 취소 · 日, 退役장교단 쿠데타(2.26사건) · 장항제련소 완성 · 안익태, 애국가 작곡 · 스페인 내란 시작 · 李源讓장로 주력으로 『구약성서』 개역 발행 · 하나님의 교회, 성결교에서 분열 창립 · 孫基禎, 伯林올림픽대회 마라톤 우승, 『동아일보』 일장기말소사건 일어난 · 紅軍, 長征완료, 山西省에 근거지 건설 · 文世榮, 『조선어사전』 간행됨 · 漢江인도교 개통 · 日·獨 방공협정 체결 ·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공포 · 中, 西安事件, 張學良이 對日抗戰 무시하는 蔣介石 감금 · 日, 런던 軍縮會議 탈퇴
원기 22 (1937) 丁丑	4. 5. 6	· 소태산 계룡산하 신도안 답사 · 총부구내 申永基私家 회사받아 수리공사후 사무실로 이용(현 구정원) · 제9회 정기총회 임원개선:3대회장	2. 3. 봄	· 일본어 사용을 강제 · 白白敎사건, 柳寅浩 등 150여명 서울에서 검거 · 최현배, 『우리말본』 간행 · 臨政 江蘇省 鎮江으로 옮김

원기 22 (1937) 丁丑	5. 6	이용광, 교정원장겸 교무부장 송도성, 연구부장겸 통신부장 이공주, 감사부장 서대원, 상조부장 송혜환, 공급부장겸 육영부장 이진양, 공익부장겸 선원교무 유허일, 학원교무 김혜식, 원평교무 조갑중, 용신교무 박대완, 경성여자교무 성성원, 남부민교무 조전권, 초량교무 김영신, 제2회 결산위원 전음광	봄	· 11월에 湖南省 長沙로 옮김
	6.	· 『朝光』誌 6월호에 유사종교 소굴 탐방 폭로기사에 「교주를 生佛삼는 佛法研究會정체」라는 허구기사로 물의	6.	· 修養同友會 홍사단 회원들 검거됨 · 白白教간부 孫海珠 등 경북에서 검거(제2白白教사건).
	8.10	· 『朝光』誌 허위 취재기사 해명으로 『조선일보』에 「佛敎革新실천자 佛法研究會 朴重彬씨」 제하의 기사 소개	7. 7	· 蘆溝橋사건, 중·일전쟁시작(~1945), 中·日전쟁을 계기로 南京에서 한국광복전선(金九 등)과 「조선민족전선」(金光鳳 등) 등 연합체조직
	10.	· 『朝光』誌 10월호, 오보기사에 대한 해명으로 불법연구회 탐방기사 나감	8.	· 조선어학회 『표준말 모음』 발간 · 총독부, 各道에 사범학교 1校씩 두기로 결정 · 고등보통학교 학과목에서 漢文을 폐지
	12.	· 김영신교무, 개성 이천륜 고모의 집에서 범회보기 시작 · 박광전 동양대학 재학중 불법연구회 전수학원장 발령반응	9.	· 대한소년단 해산 당함
	교당	· 대마, 도양(2), 개성출장소 개설	23	· 中, 제2차 국공합작 성립
원기 23 (1938) 戊寅	3.	· 음력으로 시행하던 각종 기념일을 양력으로 개정. 생일기념 3월 31일 오후로 개정	11. 6	· 惠山線 철도 개통 · 독일, 일본, 이탈리아 방공협정 체결
	4.26	· 제10회 정기총회에서 생일기념일 4월 25일로 재개정 · 임원개선:서정원장 대리겸 상조·육영·공익부장 송혜환, 교감겸 교무부장 유허일, 교정원장겸 감사부	12.	· 日皇의 寫眞을 각급학교에 배부 敬拜케 함 · 中, 국민정부 重慶을 임시 首都로 함 · 천도교 靑友黨 해체
			12	· 일본군 南京함락
			14	· 北京에 중화민국 僞정부성립
			1.	· 총독부, 전 국민에게 일어강습 지시
			2.26	· 조선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 창설
			3.	· 조선 교육령 개정공포.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를 소학교·중학교로 개편. 조선어 교육폐지, 일어상용강요
				· 안창호, 病保釋중 사망

원기 23 (1938) 戊寅	4.26	장 송도성, 서무·공급부장 이견양, 산업부장 오창건, 선원교무 김대거, 학원교무 이귀생, 법무 전음광, 개성교무 김영신, 초량교무 오종태·정라선, 부산교무 조전권, 좌포교무 송봉환	3.18 28	· 독일·오스트리아 합병 · 남경에 중화민국 유신정부 수립 · 조선기독교회가 추진하던 「미성년자 금주 금연법」 일본제국의회통과 칙령으로 발효 · 평양 숭실전문학교, 신사참배 반대로 폐쇄 · 경성제국대학 理工學部 설치 · 기독교 皇道宣揚聯盟 출현 · 임시정부, 廣東으로 옮김. · 총독부, 전국교원·관공리에 대해 제복착용 강요 · 원혜회담, 히틀러·뮌헨리니·체임벌린·다리디에가 독일군의 주테덴진주에 동의 · 金元鳳 등 漢口에서 조선의용대 조직 · 임시정부, 군사학 편수위원회 설치
원기 24 (1939) 己卯	○	· 교정원, 일반회원 가정에 心佛奉安권장. 서정원, 지방교당에도 일률적으로 八封會旗 계양토록 지시	1. 3. 9. 1	· 총독부, 소학교 교과서 전면개정 · 임시정부, 四川省 夔江으로 옮김 ·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독일, 폴란드 침입
	2.26	· 제2회 남자 정수위단 조직위원회에서 八山 보결시보단원에 박대완 피선	10	· 일본으로의 노동자 공출시작 · 국민징용령 실시(1945년까지 45만명 동원) · 『인문평론』 창간 · 쌀값 폭등으로 조선백미 취체규칙 제정, 7분도 이하 백미 판매 금지 · 만포선 철도 개통 · 산업증식계획 재강행
	4.	· 소태산, 「薦度法門」 발표(『회보』54호). · 서대원, 「一圓相의 由來와 법문」 발표(회보54~56호) · 상가 작곡의퇴	○	· 친일단체 「조선문인협회」 결성 · 박현영 등, 경성 COM그룹을 조직 · 천도교, 일본경찰의 압박으로 천덕송·용담가 1·2절 삭제 · 교황 피우스12세 취임(1958), 최초의 흑인주교 탄생 · 영국, 유대인의 팔레스티나 이민과 토지취득제한 발표
	26	· 제11회 정기총회 임원개선, 교정원장 유허일, 교감 송도성, 교무부장 김대거, 연구부장 유성렬, 총부이사겸 감사부장 이동안, 서무부장 이사국, 상조부장 박도원, 공급부장 김정중, 공익부장 박수권, 보화당 이사 송해환, 학원교무 정일성, 부산교감 조전권	○	
	6. 3	· 소태산, 개성 행차(1965)		
	7.	· 진안교무 송벽조, 日天皇에 대한 不敬罪로 1년반동안 구속		

원기 24 (1939) 己卯	11.20 교당 입적 간행	· 정읍 운암강 연안에 임시선원 宗 聖寺 마련 · 운봉·이리 출장소 창설 · 八山 김광선(1.3) · 『勤行法』帖 발행	12.	· 소작료통제령 공포, 소작쟁의 일체 봉쇄함
원기 25 (1940) 庚辰	4. 교당	· 총대회 기하여 제1회 지방교도 교 리강화회 개최 · 임원개선: 서정원장 대리 전음광, 연구부장 이공주, 감사부장 김형 오, 서무 및 공급부장 이진양, 육 영·공익부장 박도원, 학원교감 송 도성, 선원교감 서대원 6. · 『會報』 65호로 정간 당함 9. · 몇 제자에게 명하여 초기교서 통 일 수정케 함 ○ · 총부 도서실마련 ○ · 創氏改名에 응함, 소태산 「一圓證 士」라 하고, 이후 회원들 一圓○○ 등으로 창씨개명함 ○ · 개성교당, 회가 가사 혐의로 김영 신교무 경찰에 연행 교당 · 남선(8) 호곡출장소(10), 신태인 (10) 개설	2.11 3.30 4. 4 5. 9 6. 8.10 9.17 27 10. ○ ○ ○ ○ ○ ○	· 創氏제도 시행 · 汪兆銘을 주석으로 하는 일본괴뢰 정권 南京정부수립 · 천도교 신구파 합동정립하여 기관 명칭을 《천도교총부》라 함 · 한국국민당(金九)·조선혁명당(李 靑天)·한국독립당(趙素昂) 통합하 여 신당 韓國獨立黨 창립(중앙집 행위원장 金九) · 소련군, 新疆진주 ·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 · 임시정부, 重慶으로 옮김, 한국광 복군 창설. 11월 延安으로 옮김 · 독일, 이탈리아, 일본 3국 군사동 맹 체결 · 임시정부, 헌법개정, 主席에 김구 선출, 부주석 김규식 · 皇國新民化운동 강행 · 기독교인의 신사참배 반대로 대량 검거 · 중앙불전을 해화전문으로 개칭하 고 교장에 다카하시가 취임하는 등 日人교수 대거 기용 · 승려 백용성 入寂 · 침례교단 강제 해산 · 외국선교사 대거 출국 시작
원기 26 (1941) 辛巳	1.25 25 4. 5. 8	· 불교전수학원 수속서, 당국에 제출 · 소태산, 대중에게 계승 내림 · 임원개선: 서정원장 전음광, 교무 부장 박재봉, 감사부장 김대거, 교 감 서대원·송도성, 학원교무 박광 전·박장식, 예식부장 김형오 · 道山 李東安 入寂	1. 7 2. 5 3.	· 신문, 잡지 등 掲載制限令 공포 · 국민당군, 제2차 反共공세. 院南에 서 紅軍무참히 학살. 국내어론 국 민당 부패상 지탄 · 임시정부, 金九주석이 루즈벨트대 통령에 성명서 보냄 ·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공포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26 (1941) 辛巳	5.11	· 제3회 정수위단 조직위원회, 도산 이동안 보결단원에 서대원 피선	3.	· 국방 보안령 공포
	12.19	· 소태산의 차남 吉珠. 만17세로 요절. 49제시 범명을 光靈이라함(27. 2. 6)	4.	· 太古寺를 조선불교 총본산으로 결정
교당 입적	○	· 장적조, 만주 목단강시에서 교화활동 전개	13	· 日·蘇 中立조약 조인
	○	· 총부 유년회(子供會) 창립(김영신·박창기 지도).	6.	· 하와이 在美 韓族연합위원회 성립
	○	· 장적조, 만주 牧丹江市 중심으로 교화활동 전개		· 중앙선 개통
		· 화해(4)	22	· 獨逸軍, 소련에 진격. 獨蘇戰 시작
		· 金南天(7.28)	8.	· 농산물 공출제도 강행
				· 압록강 수풍담 발전 시작
				· 루즈벨트·처칠 대서양 회담. 대서양헌장 발표
			11.	· 「生産報國운동」 강행됨
			12. 8	· 일본군 진주만 공격. 태평양 전쟁 발발
			12. 9	· 임시정부 對日선전포고
				· 중국 국민당정부, 독일·이탈리아·일본에 선전 포고
			○	· 서양인 신부 67명 일경에 피살
			○	· 시인 타골 사망
			○	· 方漢岩, 중정이 됨. 진진웅 입적
			○	· 천도교, 日帝의 압박으로 천덕송, 안심가 3·6가 몽중 노소문답가 및 대신사탄신기념가 전면 삭제
			○	· 천주교 35神父 피검
			○	· 백백교사건의 간부 10명에게 사형
원기 27 (1942) 壬午	4. 5	· 소태산 탁아소겸 보육원으로 慈育園 설립 발의, 고아 15명 수용	3.	· 미국, 中 국민당에게 5억불 차관
	14	· 총부 야학생 30여명 졸업, 신입생 70명 입학	4.	· 중화민국 정부 국방최고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26	· 2원10부제를 5부제로 축소, 회무총장 박중빈, 총무부장 박장식, 교무부장 박광전, 서무부장겸 공익부장 전음광, 산업부장 이재철, 교감 송규, 예감 유허일, 학원교무 박창기	5.	· 조선총독 小磯國昭, 정무총감 田中無雄 부임
	5.10	· 회중 소유토지 공증증명원 완료	7. 1	· 중앙교무원 「재단법인 조계학원」으로 개칭
	5.18	· 소태산종법사, 최후지방순시(~28. 4.11)		· 金料奉 등, 延安에서 조선독립동맹 조직
			8.23	· 스탈린그라드 공방전(~1943.2)
			9.	· 외국선교사 전원 추방
			10.	· 조선어학회 사건 발생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29 (1944) 甲申	3.	· 日帝의 生産報國강화 정책에 의해 남자 사무원의 대부분이 산업부에 종사. 여학원이 대리사무복	1.	· 긴급학도 근로동원방책 요강 발표 1. 9 · 소련군, 동부전선 대공세 개시 2. · 총동원법으로 전면 징용실시 · 臨政 議政院, 임시회 소집하고 개 헌안 통과
	3.	· 증길출장소 창설	3.	·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 됨
	4.26	· 수위단 제7회 보결조단. 전방 이재 철 보결에 김대거, 서무부장겸 산 업부장 김홍철 · 징병·징용·정신대 면하기 위해 구 내거주 전무출신들 공장 또는 병 원에 분산 취업	4.	· 朱基徹·李榮漢·田珪·崔鳳奭목사등 순교 · 선교계사립학교 재산을 敵産으로 差押. 한인교수 다수 추방
	4.28	· 송도성, 영산에서 『대중사 약전』 집필시작	22	· 보성전문학교를 경성척식 경제전 문 등으로 개편
			6. 6	· 대한민국 임시헌장 수정공포
			29	·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
			7.	· (陰5.9) 한용운 입적
			8.	· 조선총독 小磯國昭 일본수상으로 전임. 후임에 阿部信行
			9. 9	· 각지 교회, 천주교당을 군대용으로 강제접수
			10.	· 佛, 드골을 수상으로 한 임시정부 수립
			11.	· 美공군, 동경을 처음으로 폭격
			11.	· 王兆銘, 일본 나고야에서 병사. 난 징정부 후임으로 陳公博 승계
원기 30 (1945) 乙酉	1.25	· 여자수위단 보결 실무조직. 전방보 결에 김영신, 감방보결에 조전권, 간방보결에 조일관, 진방보결에 서 대인, 순방보결에 오종태 선임	2.	· 상해 임시정부, 일본 및 독일에 대 해 선전포고
	2.	· 총무부장 송도성, 서무부장 성정철	2. 4	· 알타회담개최(~11)
	○	· 총부 학원을 중심으로 중산대 조직	4.	· 延安에서 일본 패배 앞두고 중국 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회의 개최 (~6.11) 모택동論 연합정부발표
	○	· 전북지구 사령관 牧소장과 이리유 지 中村의 策謀로 본회를 皇道佛 教化 추진	7.26	·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의 재확인
	○	· 日帝, 『正典』과 『會規』를 일제의 國體에 맞게 개편강요	8. 6	· 미군 日本·廣島에 원자탄 투하
	○	· 교화단 조직, 위험시하여 금지당함	8. 8	· 소련, 對日선전포고
	○	· 정산종법사 지방순회 청하여 부산 서 시일 천연	8. 9	· 소련군, 북한으로 진격

원불교총람 부록편

원기 30 (1945) 乙酉	4. 2	· 여자 수위단 실무보결조단 시행	8.14	· 日本 포츠담선언을 수락
	7.25	· 일본군 총부주둔 양잠실 대각전 장악	15	· 日本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
교당 입적	8.	· 총부, 북한피난민 이리역전에서 구호사업 전개		·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
	9.	· 전재민 원호사업회 발기, 경성·이리·전주·부산 등지에서 귀환동포 구호사업 적극 전개	9. 2	· 연희전문학교에 신학원 설립
	10.	· 정산종법사 『建國論』 발표		· 맥아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 조선분할점령책 발표. 연합군환영준비위 조직(金性洙·趙炳玉·李仁)
	12.	· 日人사찰 若草觀音寺 불하받아 한남동에 고아원 보화원 설립	9. 9.	· 金日成·金策·金一 등 소련군과 함께 入北
	○	· 日人사찰 龍光寺 불하받아 서울지부이전	9.11	· 朴憲永 朝共 재건발표 서울人委 결성
		· 송부·진영출장소 창설	9.14	· 京城을 서울로 개칭
	○	· 서울에서 시국의 혼돈을 근심하여 방송설교 가두전단배포 등 정신계몽 적극전개	10.16	· 李承晚, 미국에서 귀국
	○	· 부산서정 일본신사 「出雲大社」 불하받음	10.20	· 미국무성, 한국의 신탁관리 의사표명
		· 진영	10.24	· UN헌장 발효로 正式성립
		· 圓山서대원(5.2)	11.23	· 신의주반공학생의거
				· 在 重慶 임시정부 제1진(金九 등), 개인자격으로 귀국
			12.27	· 모스크바 미·영·소 3相 회의에 한국 5개년 신탁통치실시 결정발표
원기 31 (1946) 丙戌	1. 1	· 박창기 「불법연구회 교육정책」案 발표	12.31	· 신탁통치 반대시위 전국각지로 확산
		· 한글보급운동, 각지방 회관 통하여 한글강습실시. 문맹퇴치운동 적극 전개	○	· 천도교 청우당 재건부활(50만명)
	2.	· 서울지부 돈암동교당 매각. 용산구 소재 적산가옥 龍光寺로 이전	○	· 불교청년당 결성
	4. 1	· 제8회 수위단회 보결조단. 중앙 송도성 보결에 유허일, 간방 유허일 보결에 박장식, 이방 전음광 보결에 김홍철	1.10	· 런던에서 제1회 UN총회 개막
	2	· 청년 전무출신 「금강」단 조직		· 중국, 國共停戰
			12	· 안전보장 이사회 성립
			2. 8	· 소련군의 지휘로 평양에 북한 각 지방 정훈단체 대표를 소집
			3. 5	· 英수상 처칠 「철의 장막있다」고 연설(미·소대립 표면화).
			5	· 북한,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발표
			20	·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5. 4	· 민간인의 38선 월경을 무조건 금지
				· 중공 자체정비 시작
			6. 3	· 이승만,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즉시 자율적 정부를 확립해야 한다」고 연설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31 (1946) 丙戌	4.21	· 남부민지부 발전적 해체. 부산시내 서정(出雲大社)으로 이전 《경남지부 총부》라 이름함	7.	· 國共전면 내전시작
		· 총부 임원개선: 총무부장 유허일, 교무부장 이공주. 서무부장 조희석, 공익부장 조갑중, 산업부방 조원선, 서울출장소장 김대거, 보화원장 황정신행	29	· 파리 강화회의 개막
	5. 1	· 唯一學林 개학(학장 박장식)	8. 1	· 미군정, 제주도 道로 승격
	11.	· 총부구내 전기 가설	10	· 북한 소위 중요산업 국유화에 대한 법령 발표
	입적	· 主山송도성(3.27), 一陀圓박사시화(4.18)	9. 7	· 남한의 공산당 지하운동으로 들어감
			10. 1	· 대구폭동발생(~12)
			12.12	·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남조선과도 입법의원」 개원
			○	· 慶南老會에서 高麗神學校 설립
			○	· 해화전문, 동국대학으로 승격
			○	· 수덕사 宋滿空 입적
원기 32 (1947) 丁亥	4.27	· 교명을 《圓佛敎》로 협의 개정하고, 교헌도 개정하여 1年뒤 총대회때 발표하기로 함	2. 5	· 미군정 民政장관에 安在鴻 임명
	5. 4	· 이리 동산동 일본인 神社 불하반음	28	· 국민당, 대만주민 수천명 학살
	7. 8	· 개성교당, 북한동에 이안봉불	3.12	· 美, 트루만 독트린 발표
	9.	· 문교부에 《재단법인 원불교》 설립 허가 신청	5.21	·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재개(第2차 미소共委)
	교당	· 삼례(3), 임실(12)	7.10	· 미소공동위원회 사실상 결렬
	기관	· 당리수양원(9)	19	· 근로인민당수 여운형 피살
			8.26	· 蘇대표, 미·소양군의 3개월간 撤退를 제안
			9.17	· UN총회에서 마이살 미국무장관 한국문제의 UN상정건의
			10. 5	· 歐洲공산당 정보기관으로 코민포름(공산당정보국) 결성
			30	· 미 군정장관 러치소장 퇴임. 후임에 윌리엄 F.딘소장 임명
			11.14	· UN총회, 한국의 산타통치 없는 즉시독립과 UN한국임시위원단 파견 결의안 가결
			12. 2	· 한국민주당 정치간부 장덕수 피살
			○	· 김경봉, 강석주 등 조선불교 총본원 설립

원기 33 (1948) 戊子	1. 6	· 문교부로부터 《재단법인 원불교》 설립인가	1. 9	· 북한 김일성. UN한국위의 入北을 거부
	4.26	· 총대회개최. 敎憲통과	17	·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휴전협정
교당	27	· 《圓佛敎》개교식	30	· 印, 간다 피살
	7.30	· 교정원장 유허일, 감찰원장 오창건 선임	2.	· UN소총회. UN한국위원회가 접근 할 수 있는 지역 남한에서만 임무 를 수행할 것을 결의
○	11.22	· 만석들 수재민 300여명 총부에 수 용	3. 8	· 金九, 남북협상 제의 向北 평양에 서 남북대표자 연석회의 참석(4. 19~23)
		· 유일학림 자체운영키로 결의. 유일 학림생, 지방순회 모금	4. 3	· 제주도 폭동시작
교당		· 부안 봉래정사 개축	16	· 서구16개국 경제협력기구조약 파 리에서 조인
		· 함라, 춘천	5.10	· UN한국위의 감시하에 첫 국회의원 선거
			15	· 이스라엘 공화국 성립. 곧 아랍연 맹과의 팔레스타인 전쟁발발
			6.26	· 소, 베를린 봉쇄. 연합국 공수시작
			7. 1	· 국회, 국호를 大韓民國으로 결정
			7.17	· 대한민국헌법공포
			20	·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선 출
			8.15	·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무총리 李範 奭,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 병로
			26	· 한·미 暫定군사협정성립
			9. 8	·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성 립을 선언. 수상 김일성
			13	· 미군정의 행정권, 한국정부에 이양 완료
			10.20	· 제주도 폭동진압에 출동한 국군일 부, 여수·순천에서 반란에 가담. 27일 진압
			12.10	· 한미 경제협조 협정
			12	· UN총회. 한국정부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34 (1949) 己丑	4. 7	· 유일학림 제1기생 졸업(전문부38, 중등부51)	1. 1	· 美, 한국정부를 승인
	4.26	· 제1대 성업봉찬회 발족	8	· 북한 慈江道(江界)를 신설
교당	5.	· 산업부 별립(부장 조희석)	3. 8	· 학도호국단 결성
	7.31	· 원광사설립, 교단기관지 『원광』 창간(주간 이은석)	4.15	· 해병대 창설
입적	8.	· 朴光田, 「西洋의 圓相思想」 『원광』 창간호에 발표	4	· NATO(대서양조약기구)조약 승인
	10.	· 개성금강청년단 자남동에 개성수양원 설립	5.20	· 남로당 국회 프락치 사건
교당	○	· 대중사성탐준공(4.25~)	6.21	· 농지개혁법 공포
	○	· 개성지부 여자금강청년단 조직 착수	26	· 前임시정부 주석. 한국독립당 당수 김구 피살
입적	○	· 정산종법사, 교정·감찰원장 겸임 서무부장 성정철, 감사·사서부장 이운권 선임	29	· 주한 미군철수 종료
	○	· 왕촌·삼례·광주(5), 오수·송부(5), 춘천(6),정읍(9)	8. 6	· 장개석 국민당 총통 來韓, 원군 협조 구함
입적	○	· 成陀園 전삼삼(1.30)	9. 7	· 독일연방공화국(서독)확립, 수상 아데나워
	○		10. 1	· 공군창설
원기 35 (1950) 庚寅	3.	· 금산요양원(원장 이동진화) 발족	10	· 中共, 중화인민공화국 정부확립선언
	4. 4	· 이리시대 동산동 적산가옥(마면공장), 유일학림 교사로 완전 등기 끝내고 입주	7	· 독일인민공화국(동독)확립
교당	26	· 유일학림, 대학인가 신청논의	11. 7	· 國府, 대만을 수도로 결정
	27	· 원의회에서 대학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교당	27	· 창립 제1대 3회기념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이공주) 구성		
	5. 2	· 중앙총부 친구임원 사무인계인수, 신임교정원장 박광전, 감찰원장 조갑중, 교무부장 조전권, 서무부장 조희석, 재무부장 정광훈, 산업부 방성정철, 3회준비위원장 이공주		
교당	6. 24	· 부산 3지부연합, 연극 「이차돈의死」 부산극장서 공연(~26)		
	7.19	· 공산군 총부 진입. 9월 27일 철수		
교당	○	· 개성교당(이순식교무) 교화중단		
	○	· 교도들과 南下		
원기 36 (1951) 辛卯	1.26	· 한미 방위 경제협조협정에 조인		
	31	· 투르만 미국대통령 수소폭탄 제조 명령		
교당	2.14	· 중·소 우호동맹 및 상호협조협약 조인		
	4. 6	· 농지개혁 실시		
교당	21	· 국무총리 이범석 퇴임, 서리에 신성모		
	5.30	·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교당	6.25	· 북한군, 38선 전역에서 대규모 남침 개시		
	27	· 정부 대전으로 이전		
교당	○	· 연합군 지상부대 부산상륙		
	○	· UN안보리, 통합군(UN군) 사령부 설치를 결의		
교당	7. 19	· 미군폭격기, 이리역기관고를 적지로 오판 폭격		
	○			

원불교총람 부록면

원기 35 (1950) 庚寅	10. 2	· 총부 교정원 전지사무태세 정비결 의. 사무시작	7.16	· 정부, 대구로 이전
	29	· 박창기 추도식. 총부 대각전에서 거행	9.15	· UN군 인천상륙
원기 36 (1951) 辛卯	12.26	· 서울보화원 총부 유일학림교사로 이전	28	· UN군 서울수복
	입적	· 전무출신 공동 열반식	10. 1	· 국군 38선을 돌파 北上
원기 37 (1952) 壬辰	교당	· 이강련화(7.17), 홍재완(7.), 박창기(10.29), 六山박동국(9.21)	19	· UN군 평양점령
		· 불갑(1.26), 군산(6.11), 익산·다대(10)	25	· 중공군, 한국전쟁 개입
원기 38 (1953) 癸巳	4. 3	· 정산중법사 『예전』 증보 개편에 착수	11.	· 국무총리에 장면, 서리에 허정 임명
	4.26	·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聖文大學長에 박광전, 부학장 이운권으로 내정		· 기독교 『합동찬송가』 발행
원기 39 (1954) 甲午	4.27	· 양하운사모, 전무출신 이동진화, 광주교도 이성덕화 등 합동회갑 축연	1. 3	· 정부, 부산으로 이전
	30	· 중앙총부 임원결정. 교정원장서리 조갑중, 감찰원장서리 조전권	4	· 서울 재被侵
원기 40 (1955) 乙未	5.15	· 중앙총부 사무간소화 단행. 9월말 까지 사무요원 겸무제 실시	2.14	· 서울 재수복
	6.29	·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校名을 圓光大學으로 결정, 문교부에 대학설립 허가신청함	11	· 거창 양민학살사건
원기 41 (1956) 丙申	7. 9	· 유일학림 중등부, 圓光中學校로 인가됨	14	· 승려 方漢岩입적. 제3대 교정에 송만암
	8. 5	· 정산중법사 수제지부행가, 『신정예전』 全3편 탈고(8월~9.4)	4.11	· 미대통령. 유엔군총사령관 맥아더 해임, 후임 미8군사령관 리지웨이
원기 42 (1957) 丁酉	9. 4	· 이리시 북창동 157번지에 《三昌公社》설립	5.15	· 국회, 부통령에 김성수를 선출
	9. 5	· 정산중사, 총부귀관 『대종경』 편집 착수. 교서편집위원회 구성(9.20)	6.23	· 말리크, 소련유엔대표 휴전제의
원기 43 (1958) 戊戌	10. 1	· 교학과 單科로 원광초급대학 설립 인가	7.10	· 개성에서 정전 본회담 개시
	4	· 원광 초급대학 개교식 거행	19	· 金潤根 등 국민방위군 6간부에 사형선고
원기 44 (1959) 己亥	15	· 중앙총부 사무체제 원상복귀. 三·六예회를 日曜예회로 개정	9. 8	· 대·일강화조약, 미·일안보조약, 태평양 안전보장조약에 각각 조인. 미군의 일본점령 종료
	입적	· 임시중앙교의회개최, 제1대성업봉찬기념행사 1년연기. 성업봉찬회 발족(회장 이공주)	10.	· 美, 상호안전보장법 제정
원기 45 (1960) 庚子		· 임원보선:교정원장 조갑중, 감찰원장 이운권	20	· 한·일 국교확립을 위한 화담 개막
		· 久山 송벽조(10.11)	25	· 휴전회담 장소 판문점으로 변경
원기 46 (1961) 辛丑			○	· 기독교 軍宗제도 창설
			○	· 한국신학대학, 문교부에서 인가령
원기 47 (1962) 壬寅			○	· 고려신학교파, 소위 고려파장로회 분리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37 (1952) 壬辰	1.13	· 사변이후 조난당한 有主無主 원혼을 위한 합동위령제	1.19	· 인접해양 주권 선언
	1.17	· 총부, 교무禪中에, 사변이후 출정 군경과 행방불명자 기원식 거행	4.24	· 국무총리 장면 퇴임. 서리에 李允榮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학생회 조직	28	· UN사령관 리지웨이 해임, 후임 클라크
	3.	· 원광중학 제1회 졸업생 30명 배출. 신입생 480명(8학급)소집	5. 6	· 국무총리에 장택상
	4.	· 원광대학 學舍신축추진위원회 구성. 校舍기지로 총부 도로 건너 연구실터로 확정	19	· 부산 정치파동 시작
			25	·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전라남북도 에 계엄령
	12	· 창립36년 1代결산을 위한 자료수집의 일환으로 총지부의 교세현황 조사 실시	27	· 歐洲방위공동체(EDC)조약 조인
	27	· 총부임원보선: 재무부장 조희석, 서무부장 성경철, 감사부장 정광훈	29	· 부통령 김성수 해임
	6.	· 원광대 校誌《曙苑》창간	7. 4	· 대통령직선제를 내용으로 한 제1차 개헌
	7.	· 新定『예전』 교화용으로 200부 프린트	8. 5	· 정부통령 선거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함태영 당선
			10. 9	· 국무총리 장택상 해임. 서리에 白斗鎭
	12.13	· 교학과, 국문과 2과로 구성된 4년제 대학 개편요구 문교부에 신청	11. 1	· 미국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
	교당	· 장수(7.13), 창평(8.8), 마산(9.15)		
원기 38 (1953) 癸巳	○	· 도양지부 원광중학원(70여명) 개설		
	○	· 운봉지부 원광학원(50여명) 개설		
	1.29	· 원광대 4년제 대학설립인가. 신설학과 2과(교학과, 국문과)	1.20	· 아이젠하워 미대통령 취임
	3.	· 군산교당. 군산시로부터 원광애육원 인수하여 운영	27	· 덜레스 미국무장관 룰백정책언명
	14	· 중·고등학생 위주의 학생회 해체.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학생회 조직	2.15	· 긴급통화조치(제1차 화폐개혁)
		· 유일학림 전문부 2기생 20명졸업	27	· 독도영유권을 성명
	○	· 이리 적산가옥 東本願寺 종각매입, 대각전옆에 건립(2.9~)	3. 5	· 소, 스탈린沒 후임에 말렌코프
	4.16	· 정산중벌사 위석	4.21	· 국무총리에 白斗鎭
	26	· 제1대성업봉찬기념총회 거행	6. 8	· 포로교환협정조인
			18	· 한국정부, 반공포로 27,092명 석방
			7. 27	·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조인
			8. 8	· 한·미상호방위조약 서울에서 가조인

원기 38 (1953) 癸巳	4.26 · 조전권, 김영신 정녀연화장수여. 중 법사 연임추대. 시창연호 「원기」사 용 · 제2대 1회수위단원 총선거. 단장 정 산, 중앙 김대거·이공주, 건방 박장 식, 감방 이운권·이정순, 간방 송혜 환·김영신, 진방 조갑중·조전권, 손 방 유허일·서대인, 이방 김홍철·서 공남, 곤방 박광전·양도신, 태방 이 완철·이동진화 28 · 중앙총부 임원개신: 교정원장 김대 거, 감찰원장 이공주, 교무부장 김영 신, 재무·서무·산업부장 조희석 5.28 · 이리보육원, 이리시로부터 인수하여 운영 6. 1 · 대중사기념비 제막식 2 · 동산동에 이리고등선원 개원(교감 이운권) 12 · 정읍지부, 원광유치원 설립인가 · 금산요양원(과수원) 수리조합지구로 편입되어 매각처분 12. 교당 · 총부 정문 長7尺의 황동석 門柱세움 · 산동(120), 산서(215), 영광(4), 부 안(426), 보절(5), 함라(1215) 입적 · 四山오창전(123)	8. 8 · 소련, 수소폭탄 보유성명 15 · 정부, 서울 환도선언 10.26 · 휴전협정에 의한 정치회담. 예비회 담을 판문점에서 개시 11.30 · 자유당 최고위원에 이기붕
원기 39 (1954) 甲午	1.17 · 교학과생 2인 출가식 거행 2. 2 · 원광대 법학과 신설인가 23 · 원광고등학교 설립인가 3. · 원광대학 第一校舎(전평 210평 6교 실)완공 4. · 중앙요양원 발족(금산요양원 이전) 24 · 제2대 제1회 정기수위단회 방위배정 25 · 개교축하식 겸하여 이동진화, 김보 성화 합동회갑식(첫) · 교무부장 정광훈, 재무부장 조희석, 서무부장 성경철, 감사부장 서대 인, 사서부장 김윤중 선임 4.20 · 『원광』 6호부터 복간. 임시편집실 동산선원에 설치(발행인 송혜환, 주간 이운권, 기자 이종원) 9. 6 · 이리방송국을 통하여 매주 방송교 화 실시 12.20 · 산업부 과수원터에 益山普和園 신 축이전 간행 · 『佛敎正典』 후편 3,000부 재판(12)	3. · 정비석 소설 『自由夫人』 사회문제 화 4.26 · 제네바에서 19개국 극동평화회담 (~7.22) 5.13 · 이승만대통령의 불교정화 유시로 비구·대처승의 분쟁 표면화 6.15 · 제네바에서 한국참전 16개국 공동 성명. 한국문제 토의종결과 UN감 시하 統韓을 선언 27 · 국무총리 변영태 임명 28 · 인도차이나의 완전독립 등 네루. 조우언라이 평화 5원칙 발표 9. 8 · 동남아 집단 방위조약(SEATO). 마닐라에서 조인 10. · 북한 황해남도(해주) 황해북도(사 리원) 양강도(혜산)신설 11.17 ·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29 · 국회 사사오입개헌안 통과 · 불교, 대처승과 비구승 암투 폭발 12. · 천도교, 혁신파와 보수파 난투, 독 립주장 · 동국방송국(HLKY) 개국 · 세계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조직 (대표 문선명) · 통일교, 피가름으로 사회 물의. 연 세대, 이대교수, 학생 퇴교 처분

I. 원불교사 연표

	교당	· 화포(4.10), 용각(4.26), 아영(8.16), 목포(4), 순창(5), 서면(7.3)	○	· 한국신학대학교에 대학원 설립 · 서울에 기독교 중앙방송국 개국 · 박태선 전도관 창설
원기 40 (1955) 乙未	1.15	· 제1회 合同成年式거행	2. 8	· 소련수상 말렌코프해임. 후임 불가 닌
	1.16	· 교현연구회조직(위원장 박장식)		
	1.17	· 교무대표 연합회에서 중앙직할 3 대선원 설립공고(동산·중앙·영산 선원).	4. 5	· 처어칠 영국수상 해임. 후임 이든
	3.	· 교학과생 기숙사설치 집단훈련 · 원광대학(4년제) 제1회 학위수여 식(교학과 3명, 국문과 25명).	18	· 반둥에서 제1차 A.A(亞.阿)각국회 의
	4.20	· 『원광』 9호부터 총부로 이관(주간 이공전, 편집장 이종원)	5.11	· 바르샤바 조약 조인
	4.23	· 여자수위단 보결조단. 이방 서공남 보결에 이태연 선임 · 영모전 부지 확장공사	18	· 비구승 묵언단식 정화기도
	4.25	· 水德會 창립총회(회장 朴光田) · 교학과생 기숙사설치. 구보화원숙 개수 확보	5.31	· 한·미 잉여농산물 원조협정 조인
	5.	· 새말(新洞)에 북일진료소를 겸한 중앙요양원 신축 이사		· 나운용長老 구속. 산상기도 빙자 2천만원 착복 혐의
	6. 1	· 익산보화원에 원광고등공민학교 개교	6.	· 박인수 여대생 70여명 간음혐의로 구속 · 한·미 잉여농산물 원조 협정조인
	9.12	· 혈인기념 특별기도식 거행(陰7月 26日)	7.18	· 조계사에서 비구·대처 충돌. 이대 통령, 대처승에게 불교계 퇴진요청 담화발표
	10.20	· 정관평제2방언공사시작(~45. 1)	25	· 4巨頭 제네바회담(~22)
	12. 1	· 추기 대항기념 각 기관 친목 배구 대회 · 부안지부 변산해상의 하섬 매입. (완전귀속 54.12.21)	8.12	· 통도사 대처승 160명 집단이혼 단 행 · 통일교교주 문선명 구속
교당 입적		· 부산진(5) · 李貴生(1.9), 韓貴智華(2.26), 五陀 圓李青春(7.14)	9.	· 佛教 제4대 종정에 河東山 추대. 비구측이 전국사찰 장악
간행		· 교학연구회편 『한글금강경』 간행. 국판 372쪽(10.9) · 『요람』 개정판 발행(11.5)	12.	· 호헌 동지회의 자유민주화 民主黨 창당(최고대표위원 신익회) · 私娼단속 시작

원불교총람 부록편

원기 41 (1956) 丙申	1.25	·종법사 유시로 「세계평화 및 도운 웅창 정례기도」를 실시키로 함(매 陰1월 보름).	1.30	·육군 특무부대장 金昌龍피살
	1.28	·교무연합회에서 敎樹 보리수, 敎花 연꽃으로 제정	2.14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 흐루시초 프, 스탈린 비판, 평화공존제창(~ 25).
		·미국무성 초청으로 원광대 朴光田 학장 歐美시찰(1~3月).		·경북도내에 絶糧農家 17만호
	3.	·원광대 제2교사(건평380평 2층8교 실) 완공	4.	·경주박물관 신라 금관 도난
	4.10	·원광여자고등학교 개원	4.28	·서울시내에 댄스홀 7개소 허가
		·도양지부 원광고등학교, 원광고등 국민학교로 승격 발족	5. 5	·프랑스군 베트남 철수 완료
	5.	·총부, 신생활 운동안 현상모집	5. 5	·민주당 대통령후보 신익희 유세도 중 이리에서 급서
	5.21	·대중경편수위원회 발족(총재 정산 중사)	15	·제3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장면 당선
	28	·대각전 증축, 종각 보수공사 준공	12	·첫 TV방송국(HLKI) 개국. 6.16방 영시작
	30	·원광대 교학과·국문학과에 교직과 목 설치인가	7.26	·나세르, 수에즈운하 국유화 선언
	6. 9	·원광대 원불교학연구회 발족(회장 박광전)	27	·선거에 관련 개입 문제화 시작
	10	·원광대 전무출신학생 친목회 창립	10.23	·헝가리에서 반공봉기
	7.	·교역자 생활개선방안연구위원회 구성	11.10	·진보당(대표 조봉암) 창당
	7.26	·신룡양로원 원사 신축 이사		
	8.	·서울 한남동 正覺寺 대지 및 산림 일부 불하받음		
	9.	·중앙요양원(북일진료소)착공 (52평)		
	10. 1	·원광대 개교 10주년 행사		
	10.20	·『원대학보』 창간		
	11. 6	·중앙선원 개원. 원장 이완철		
	12.11	·남자수위단 보결조단 간방 송혜환 보결에 성정철		
	교당 입적	·동래(3.21), 대구(3.24), 종로(4.26) ·公山宋慧煥(12.6)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42 (1957) 丁酉	2. 3 19 · 군산지부 화재, 교당전소 · 문교부에서 「교학과」 명칭이 불합리하다는 통보음 · 교학과 19명 졸업 3.31 · 중앙선원 제1회 졸업식 12명 4. · 중앙요양원 완공 이전(52坪). 23 · 법무실 설치 26 · 법훈증 수여(대봉도: 주산, 팔산, 구타원. 대호법: 팔타원) · 서무·재무부장 성정철, 보화당이사 조희석 선임 · 공비생제도 강화위해 장학회 발족 · 원광여자고등학교, 원광고등학교로 옮김. 원광여중과 병합 7.26 · 혈인기념일 7월 26일로 확정하여 시행 8.20 · 교무부장 김근수 선임 9. · 교학과 교수들 『교학개설』 집필완료 9. 1 · 동화결핵요양원착공(전평220평, 2층)(~44.10月) 10. 1 · 원광사 활판 인쇄시설 완료 10. · 복일진료소 「동화병원」으로 인가 11. · 총부유지대책위원회 발족 12. · 총부 특선 전기가설 ○ · 公山중재 기념비로 전무출신 공동묘지(알봉) 정비 교당 · 밀양(3), 제원(4), 금산(4.26), 대신(5) 입적 · 김창준(1.13), 김원명화(5.5), 慶山 조송광(재가: 10.15), 박재봉(10.29), 김인현(10.29)	3. · 유럽공동시장(EEC)조약 조인 · 이기붕 장남 이대통령 양자로 입적 4.10 · 서울법대생, 이강석의 법대입학 반대 맹휴 5. 5 · 어린이현장 제정 반포 7. 1 · 미 국동군 재편으로 UN군초사령부 동경에서 서울로 이전 8. 5 · 전국에 수재로 사망 247명. 이재민 6만명 발생 · AFKN-TV 방송개시 9 · 『우리말 큰사전』 전6권 30년만에 완간 9.15 · 소,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제1호 발사성공 10. 4 ○ 불교정화 30년계획 수립 ○ 통일교 『原理解說』 발행
원기 43 (1958) 戊戌	1.20 · 원광사, 부산교도 김백련의 회사로 인쇄시설 총부에 설치 2.19 · 원광대 상학과 신설인가. 교학과를 불교학과로 명칭 변경 4.19 · 교정원장대리 이완철 피임 5. 5 · 대중경 편수위원회 발전적 해체, 正化社 발족(사무장 李畚田) 12 · 영광 정관평 재방언 浙江공사준공	1.31 · 미 인공위성 익스플로러號 발사성공 29 · 주한미군 핵무기 도입발표 2. 1 · 통일아랍공화국(UAR) 성립 16 · KNA여객기 拉北 3.27 · 소, 불가닌 해임. 흐루시초프 제1서기가 수상 겸임 31 · 한·미 국군 6만감군에 합의

원기 42 (1958) 戊戌	8. 5	· 제1회 학생 교리강습(150명 참석) · 원광대 본관 준공(3층, 640평 20교실)	5. 2	· 제4대 민의원 총선거
	10. 9	· 미국불교학자 리차드 가드박사 총부내방	8.	· 북한 개인상공업 소멸, 소위 농업협동화로 농토사유 소멸. 里단위 집단노동
	10.12	· 敬老愛幼사상 선양을 위한 경로애유 범죄 총부대각전에서 개최(교무부 주최)	10. 5	· 佛, 제5공화국 성립. 대통령 드골 당선(12.21)
	11.	· 태국 제5차세계불교도우의회대회(WFB)에 교단대표로 朴光田 참석 · 총부 유지답 확보	26	· 중공군, 북한 철수완료 발표
	12.	· 이은석「敎學講座」『원광』 31~38호에 발표	11.28	· 美, 대륙간 횡단유도탄 아틀라스 성공
	○	· 한남동 정각사대지 및 산림 불하 계획 성립. 산림지대 공유화문제 대두	12.24	· 국회, 야당의원 축출하고 여당의원만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
	○	· 신도안, 종법사 특명으로 가옥매입. 원기41년까지 대지 1,069평 매입	○	· 한국대학생선교회(C.C.C)창립. 루터교선교회 소속
	교당	· 군남(4), 통영(4.13), 춘천(再創立), 동산(7.26), 김해(12.15), 서성로(12.20)	○	· 교화 요하네스23세 취임
	입적	· 靈山朴大完(1.4), 柳山柳虛一(12.17)	○	· 이화여대에 기독교학과 설치
원기 44 (1959) 己亥	2. 9	· 원광대에 경제학과, 가정교육과 증설	1. 2	· 소련, 우주로켓 달에 발사 성공
	4.25	· 중앙교의회, 교헌개정안(11장81조) 통과(47.1.23발행). · 2회수위단 보결단원 간방 성정철, 손방 정광훈 · 정산종법사 연임추대. 양원장인준(교정원장 이완철, 감찰원장 이공주). 임원개선: 총무부장 정광훈, 교무부장 이은석, 재무부장 이병은, 육영부장 서대인, 사업부장 성정철 · 길룡리 노루목(대각지) 매입	5.	· 佛敎, 비구대처분쟁 종결을 위한 성명서 발표
	5.14	· 개정교헌에 의해 원의회 구성. 제1회 정기원의회	3. 3	· 미, 우주로켓 달에 발사 성공
	10.	· 유기현「信仰論」『원광』30호에 발표 · 정부보조로 동화병원(2층, 220평) 완공(42.9.1~).	22	· 티벳, 反共봉기
	교당	· 전무출신 권장부 모임. 正土會발족	4.30	· 경향신문 폐간
	입적	· 소성(5.4), 대전(12.20)	7.17	· 부산공설운동장의 시민위안의 밤. 대혼잡으로 67명 사망
	간행	· 湖山李君一(5.) · 유허일 유고『국사』4·6배판, 36쪽 발행(1)	9.12	· 소, 우주로켓 1호발사. 인류최초의 로켓트 月面통과. 달 표면 촬영
			15	· 흐루시쵸프 소련수상 訪美(~26)
			17	· 삼남지방에 사라호태풍 엄습(사망 924명)
			11.15	· 서독 사회민주당, 고데스베르크강령 채택.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전환
			12.14	· 재일교포 강제복송시작
				· 佛敎 중앙총림원 개원

I. 원불교사 연표

			12.14	· 교황, 전체교회 회의를 통고. 프로테스탄트교회에 재일치를 호소
원기 45 (1960) 庚子	1.	· 정관평 재방언공사 준공. 농지 20 정보 확보. 성지사업회 구성	2.15	· 조병옥 민주당대통령 후보, 미국에서 사망
	19	· 교무연합회 해체. 제1회 임시교정위원회	3.15	· 제5대 정·부통령선거
	1.31	· (陰1.4)정산종법사 회갑일 하례생략. 전무출신 요양재단으로 법은재단 발족결의(법은재단 46. 4.26발족).		·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시민데모, 경찰서 등 점거
	2.17	· 원광여중 설립인가	16	·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 당선 공포. 야당의원들 무효선언
	24	· 원광여자 상업고등학교 설립인가	4.19	· 4월혁명시작. 서울에서 2만이상의 학생데모
	7.21	· 惠山全飲光입적. 사면복권조치. 전무출신복귀	25	· 서울의 대학교수단, 시국수습선언을 발표하고 데모시작
	9.21	· 동화병원, 운영난으로 시내(중앙동 57번지)로 이전개업	27	· 이대통령 사임서 국회에 제출.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
	10. 8	· 총무부장 직무대리 김운중선임	5. 2	· 국회의장에 郭尙勳 선출
	11.	· 구내 私宅(惠山家) 매입하여 여기숙사로 전용	29	· 이승만부부 하와이로 망명
	11.24	· 해외포교연구회 발족(회장 박광전)	6.15	· 내각책임제 개헌. 제2공화국 설립
	16	· 교학과, 중앙선원, 동산선원 친목기구로 중앙교우회 창립	6.19	· 아이젠하워 미대통령 내한(~20)
		· 제1회 중앙교우회 교리강연대회	23	· 미·일 안보조약 발효
		· 총부구내에 국민주택 5동건립(대각전 숙직실, 권동화 사택2동, 동화병원, 보화원)	8.12	· 국회, 제4대 대통령으로 윤보선 선출
		· 원광대학 정문건립(현 보건대정문)	15	· 김일성 남북한 연방제 제창
교당		· 감곡(4), 태인(5), 함양(6), 진안(9)	23	· 장면 내각성립
입적		· 惠山全飲光(7.21), 二陀圓張寂照(12.21)	11.	· 박태선장로 장면정권에 의해 실행연도받음
			○	· 로마주교회의 최초의 흑인 추기경 라울리안 루가무바 서임
			○	· 크리스찬 신문창간
			○	· 한국예수회, 서강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여대 설립

원기 46 (1961) 辛丑	1.29 · 임원개선: 기획위원회 구성(위원장 박광전) 교정원 업무관장 4. · 총무부장 김운중, 교무부장 김근수, 재무부장 성경철, 감찰원 사무처장 송원철 26 · 법은재단 발족 27 · 은산 육영사업재단 발족 6.14 · 총무에 도서실 설치 위하여 도서모집 실시 7. 6 · 국가재건 최고회의 포고 제6호에 의한 종교단체 등록신청 15 · 중앙총무에 유년회 재발족 10. · 신도안에 대지 900여평 매입 11. 2 · 육영재단 설립과 장학회원 모집 18 · 사립대학 정비령에 의해 대학 정비대상이 됨 20 · 문교부에 원광초급대학 설립 신청 교당 · 영도(4.9), 백수(4.26), 동이리(10.1)	1. 3 · 미, 쿠바와 단교 20 · 미대통령 케네디 취임 4.12 · 소, 사상처음의 인간우주선(보스토크 1호) 발사에 성공 16 · 미, 쿠바난민 1,400명으로 구성. 쿠바 피그만 침공작전 실패(~19). 국제여론 악화 5. 5 · 미, 최초의 인간우주선 발사에 성공 16 · 5.16혁명 일어남. 군사혁명위원회 설치. 의장 장도영, 부의장 박정희 19 · 군사혁명위원회,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칭 6.30 · UN사령관 매그루더 퇴임. 후임 델로이 7. 2 · 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퇴임. 후임 박정희 22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 성결교 예수교파와 기독교파로 분열 · 장로회 신학대학 문교부인가
원기 47 (1962) 壬寅	1.22 · 정산종법사 「三同倫理」 계승 내립 1.23 · 정산종법사 열반. 발인식(28) 2. 2 · 각종학교 圓光大學校 설립을 문교부에 신청 2. 8 · 문공부에 종교단체 등록신청 공인 21 · 교헌개정안 기초위원회 발족 21 · 수위단회에서 정전·대종경 습本하여 『교전』으로 발간키로 결의 23 · 신임종법사에 大山金大擧 취임. 교정원장 박장식, 감찰원장 이완철, 중앙교의회 의장 문동현, 사업부장 송원철, 감찰원사무처장 오종태 선임 2.28 · 문교부로부터 원광초급대학 설립 승인 3. 6 · 문교부로부터 정식 대학정비 통고 19 · 각종학교 원광대학립 설립인가. 불교교육과 동양철학과 설치	1. 1 · 공용 연호를 「서기」로 변경 13 · 박정희 의장, 불교내분 자율적 해결 담화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성안 2. 1 · 울산공업센터계획발표 3.22 · 윤보선대통령 퇴임.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권한대행 4. 1 · 불교재건비상총회. 제5대종정 이효봉 추대. 비구·대처 화합중단 구성 5.31 · 불교재산관리법제정. 시행령 제정(8.22) 6.10 · 통화개혁(100환→10원) 10.22 · 쿠바위기. 케네디 쿠바에 소련 미사일기지 건설중이라고 발표. 해상 봉쇄성명 11.12 · 김종필 중앙정보부장·太平 일본의 상·한·일관계 체결원칙에 합의 메모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47年 (1962) 任寅	4. ·수위단보결조단: 단장 대신, 중앙 보결 박광전, 곤방보결에 조희석 선임 ·동래수양원 설치 ·육영분과위원회 장학생 26명 선발 5. ·총부 교무부, 전주교도소 출장교화 시작 7 ·중앙선원, 교학과 기숙사에서 분리 운영 6. 5 ·육영재단 창립이사회 구성 7.26 ·종교단체등록 문교부장관명의 197호로 등록 공인 8.25 ·총부산하 각 지방교당 「교우회연합회」 발족 12.22 ·불교재산관리법에 본교를 제외. 사회상임이 천명됨 30 ·원광여중. 원광여상 시내 창인동 152번지로 교사이전 교당 간행 ·총부유지담 2필지 매입 ·봉동(4), 구포(5.1) ·『기념사진첩』 발행(7.26) ·정화사, 『원불교 교전』 4·6판 462p (9.26) ·『정산종사 법설집』 4·6판 363쪽 발행(9.30) ·『성가집』 49곡 3,000부(9.30) ·영문판 해외포교지 『Won Buddhism』발간(12.30)	11.12 12.17	·국민투표로 제5차 개헌을 확정 ·노기남, 서정길 대주교가 됨 ·『한글대장경』 발간 착수
원기. 48 (1963) 癸卯	1.24 ·인사분과위원회, 예비전무출신자 49명 인증 3. ·김근수, 「三學回轉工夫」 발표(『원광』 42, 43호) ·교학과 기숙사 《학림사》 상량 4. 2 ·4회졸업식. 교학과14, 선원7명 19 ·청남정녀 휴양기관 수도원 발족 결의 ·교정원 교화3대목표운동 추진전개 (48~55년). ·총무부장 김근수, 교무부장 박은국 4.28 ·교화3대목표추진운동 전개. 연원달기, 교화단분리기, 연원교당만들기, 반백년대회까지 추진	1. 2.26 4.25 5.14 6. 7.18 8. 1 8. 5 9. 3 10.15 11.22 11.26 12.17	·부산, 직할시로 승격 ·민주공화당(총재 정구영) 창당 ·동양방송(DBS) 개국 ·民政黨 창당(대표 김병호, 대통령 후보 윤보선) ·월간 『世代』 창간 ·民主黨 창당(총재 박순천) ·국민의 당발에 ·미·영·소 3국 외상 모스크바에서 부분해금지조약 조인 ·自民黨 창당(위원장 김준연, 대통령 후보 송요찬) ·제5대 대통령선거 공화당 박정희 후보 당선(윤보선후보와 15만여표차) ·미대통령 케네디 암살. 후임에 존슨 부통령 취임 ·국회의원 선거 공화당 압승 ·제3공화국 발족. 제5대 대통령 박정희 취임

원불교총람 부록편

원기 48 (1963) 癸卯	5.11	· 동산선원, 중앙선원으로부터 분립	12.16	· 문교부 대학정상화 방안 발표
	20	· 교단 숙덕 111인 법호증여		
	6. 2	· 중법실주관 경로법회 개최		
	7.	· 청년회 발족		
	25	· 교학과생 교화봉사활동전개		
	30	· 미국인 Ralph. L. Goggin 첫 입교, 법명 圓一光		
	10. 1	· 수위단 이방보결단원에 황정신행 선임		
	10. 4	· 개교55주년 기념사업회 발족(회장 박광전)		
	11.25	· 박광전일행 일본불교계 방문(~ 27).		
	12. 7	· 서울대 공대, 교우회 창립		
	12. 9	· 사업부주관, 자선기관연합회 발족 (회장 조감중)		
	교당	· 지곡·화천(5), 불목(5.10), 진주(6. 20)		
	입적	· 이태연(2.21) 七山유건(재가 2.22) 大陀圓이인의화(3.11) 김현관(재가 8.9)		
	간행	· 총무부, 4·6배판 『교보』(월1회)발 간 (5)		
원기 49 (1964) 甲辰	1. 4	· 선학원졸업생 4주간 합동수련 실시	3.23	· 연세대학내에 교파 합동 연합신학 대학원 개원
	5	· 일본『佛敎타임즈』誌에 원불교 소개		
	21	· 원광대학립 폐지인가. 4년제 정규 대학으로 복귀	3.24	· 서울대·연세대·고대생 약 5,000여 명, 대일 굴욕외교반대 데모
	2. 1	· 법은재단운영위, 신도지부에 요양 실 마련		
	2.	· 황등밤발 대각		
	2.10	· 『원광』지 편집을 교무부편수과로 임시이관(50년 환원)	5. 2	· 민주·자민·국민 3당 통합 선언
	3. 3	· 영산선원 중·고등반 분리재편(선 원생 70여명).	5. 9	· 崔斗善 내각총사직. 후임 丁一權
	25	· 원광대 교우회 결성	6. 3	· 서울, 대일굴욕외교 반대데모 서 울지구에 비상계엄선포(6.3 사태)
	3.28	· 원광학원재단으로 분리. 수익사업 으로 보화당, 수계농원, 정미소, 원 광소로 통합		· 『신동아』 28년만에 복간
	4.27	· 총부식당(86평) 준공	9.	· 소련에 정변 흐루시초프 실각. 당 서기 브르즈네프, 수상 코시킨
	28	· 총부대각전에서 합동회갑식 거행		
	29	· 교헌개정(총10장 90조)	10.15	· 국군 파월에 관한 한·월협정
	30	· 제1회 정기감사위원회 개최		
	5.22	· 총부유선방송시설	31	· 창가학회. 사회에 큰 물의 일으킴
	6.30	· 원광중·고 신교사 완공(14개교실)		
	7.	· 원광대(교학과) 봉사대 대통령상 수상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49 (1964) 甲辰	7. 2 · 제1회 청년회강습(4일간, 148명 참석) 26 · 독일여인 린다 스페세 입교 法名 圓正覺 · 미, 미조리주 로버트 데이비드 이워 (24세 대학생) 입교 범명 圓實道 8. 1 · 총부사무실, 신축식당으로 이전 3 · 제1회 기관임원 및 부교무 강습회 (~13), 신도지부에서 개최 21 · 교무부, 학생교리실력경진대회 및 성가콩쿨대회 9.10 · 원광사(사장 김홍철) 인쇄시설 구동 화병원으로 이전 9.12 · 총부 대각전에서 제1회 정토회원 강습회(~14) 19 · 삼중제약사인수. 보화당약품제조인 가. 보화당제약사 창설 12.23 · 제1회 총부어린이 졸업법회 · 학원 21명, 선원 13명 졸업 교당 · 의정부(1.18), 서광주(4.10), 원남(5), 흥덕(5.27), 술산(6.15)	11.13 · 미대통령에 존슨 당선 12. 7 · TBC-TV개국 ○ · 동국역경원, 대각선원 개원 ○ · 용문산기관지『복음신보』창간
원기 50 (1965) 乙巳	1. 5 · 원광대에 약학과 신설인가 1.17 · 서울TV에 원불교 시간 방영 1.30 · 학교법인 원광학원 설립인가(초대이사장 成丁哲) 2. 4 · 제1회 전무출신 자격 검정고시 시행. 합격자 23명 · 교무부, 시청각 교화 실시 3.26 · 대각개교 기념식 및 총대회를 3월 26일로 당겨시행 4. 8 · 이리보육원, 익산보화원 통합. 익산 보화원터는 원광대캠퍼스로 편입 4.11 · 총부 서울출장소 업무 재개 4.18 · 크리스찬아카데미 주최 六大종교연합회 참가 7.15 · 청년회, 3대운동(배지달기, 청소하기, 교서보내기) 전개 7.15 · 육영부 주최 원대장학생 특별 강연회(~30). 11. · 원광여중·상고 6층교사 18교실 준공 · 교도법위사정 실시(~51.3)	1. 8 · 정부, 비전투원 약 2,000명 월남파견 결정 2. 7 · 미군 공군 월맹 폭격 개시 2.20 · 韓·日 基本條約, 서울에서 假調印 4.13 · 서울시내 대학생 대일굴욕외교 반대 데모 다시 시작 5. 6 · 『신아일보』 창간 6.22 · 한·일 협정 정식조인 7. 2 · 정부, 월남에 전투사단 파견 결정 19 · 이승만, 하와이에서沒 8. · 야당 불참속에 전투사단 파월안,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통과 · 만병통치 내걸고 일본 天理教 침투 8.25 · 무장군인 고려대 난입, 서울지구 위수령 발동(8.26) 9. 4 · 정부, 연대·고대에 무기한 휴업령 9.22 · 『중앙일보』 창간 12.18 · 한·일조약 비준서를 서울에서 교환. 한일국교 정상화 됨 ○ · 전국신학대학 협의회(KAATS)창립 ○ · 전국복음화운동 전개. 전국신도대회

원불교총람 부록편

원기 50 (1965) 乙巳	11.21 ○ ○ 교당 입적 간행	· 여성회관에서 열린 한국종교협의회 창립총회에 교단대표 10인 참가 · 大山宗法師 재추대 · 성가 12曲, 레코드 LP판 500매 제작 · 김재(4), 여수(4.6), 합천(5), 교동(5.31), 안동(6), 남부민(8.29) · 四陀圓 李願華(4.17) · 應山李完喆(10.6). · 中·獨·日 『요람』 팸플렛 · 프린트본 『원불교학연구』 4·6배판 창간(9.25) · 교무부, 『원불교요람』 문고판 16p (10.6) · 『불조요경』 4·6배판(12.8) · 『宗教界』誌 월간창간(10.8)		
원기 51 (1966) 丙午	1. 1 21 2. 1 3. 6 3.12 3.16 3.25 28 4.15 5.23 6. 2 6. 8 8. 9.15	· 圓法光의 부인 기누코, 일인으로서 최초 입교(법명 圓明蓮) · 교역자 자격검정고시 12명 합격 · 박광전 원광대학장, 동국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 · 원광광 연원으로 「허른」 캐나다인으로 최초 입교(법명 圓法正) · 서세인 일본포교 기반담기 위해 도일(~5.23) · 원광중·고 교사신축으로 인한 부채, 교단문제로 대두. 교장경질 · 도양고등공민학교, 해룡농업기술학교로 전환 인가 · 제1회 장학회원 총회 · 제1차 신작성가 발표회 · 수위단 보결조단. 태방 이완철 후임에 안이정 · 교학연구회에서 「대학생 종교재」 주최(~5.25). · 교학과생 창립정신 고취운동 전개 · 원광대, 종합대학교 승격을 위한 행정체제로 대학기구개편. 교학처신설. 초대교학처장 김정용 선임 · 북일우체국의 교환대시설로 총부구내 전화 5대 가설 · 『교보』 60호로 발전적 폐간.	1.19 2. 3 2.28 3. 6. 3 6.14 7.27 8. 8 8.12 8. 10.15 12.13 ○ ○	· 인도수상에 간디여사 당선 · 제간 『창작과 비평』 창간 · 소련, 로켓트 루나9호 달표면 착륙 · 국군월남증과 의결 · 모악산 龍華敎主 서상일 신도에 피살 · 중공, 홍위병선풍으로 整風 · 제1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관료회담(ASPAC) 개최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중공, 문화혁명과 관련 61항목 발표 · 북한, 소련·중공의 영향을 배제하는 자주노선을 선포 · 중공, 문화대혁명 등리 경축대회, 홍위대선풍. 전국적 규모로 확대 · 이효봉 입적 · 미군기 처음으로 하노이 폭격 · 이청담 6대 종정이 됨. · 불교 임시중앙총회에서 WFB와 같이 佛紀를 통일토록 결의. 오색기채택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51 (1966) 丙午	10.15 11. 6 12.27 교당 간행	· 한국종협. 제3차 공동연구회 「원불교 이해의 밤」 대각전에서 개회 · 태국, 치엔마이시에서 열린 WCRP8 교단대표로 황정신행 참석 · 원광초급대학 폐지인가. · 기장(2.16), 곡성(4.10), 문장(4.28), 고창(6.2), 강화(9.5) · 『청년회보』 월1회 창간(9.15) · 육영부, 『육영통신』 창간(9.1)		
원기 52 (1967) 丁未	2. 3 3. 1 3.24 4. 7. 5 8. 12.15 교당 입적 간행	· 새 교역자 14명 출가식 ·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소장 유기현) 발족 · 법복, 여름에는 흰색. 겨울에는 회색 복으로 정합(수위단회) · 원대불교교육과 유병덕교수 「제통산하 종교단체와 모악산하 종교단체의 비교연구」로 문교부 학술연구지원비 1백만원 받음 · 법은재단 후원회. 법은회 발족 · 유학생 정유성 미국교무로 발령 · 교전, 정도천에 의해 중국어로 번역. 프린트판 간행 · 원광대학 대학원 설립인가. 석사과정 불교교육과 설립 · 朴光田, 「一圓相研究」 발표(원대논문집 3집). · 特科교육추진 승인(종교철학, 비교철학, 교육심리학, 영문학, 한의학, 약학, 국문학 등) · 칠보(4), 김천(4.26), 겸면(5.3), 도곡(5.6), 고부(8.3), 돈암(8.16), 송천(8.23), 삼천포(8.28), 창원(12.7), 해운대(12.9) · 準陀圖李雲外(8.28) 김현허(7.5) · 한정식 『佛敎概論』 국판126p. 간행	2. 7 2.27 3.22 4. 1 5. 3 6. 5 6. 17 7. 1 7. 8 10.16 ○	· 신민당 통합야당으로 정식 발족(당수 유진오) · 불교계 대처승측, 비구승과 분리를 선언 · 북한 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 판문점에서 위장 귀순 · 구로동 수출공업단지 준공 · 제6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 · 제3차 중동전쟁 발발 · 제7대 국회의원 선거(6.8) 서울법대생 68 부정선거 규탄데모 시작 31개대학 135개교교 휴교 · 중공, 최초의 수목실험에 성공 · 유럽공동체(EC) 발족 · 중앙정보부, 동베를린 거점 북한 대남공작단사건 전모발표 · 워싱턴에서 베트남 반전 대집회(~10.23) · 서울에서 국제기독교교장로대회(OCU) EACC교회와 신화대회. 새번역 『신약성서』 출간 · 제7대 중정에 윤고암 추대
원기 53 (1968) 戊申	2.15 3.25 교당 3.26 6. 1	· 새 교역자 37명 출가식 · 여자수위단 보결조단. 태방 이동진화, 보결에 정양선 · 교학과 여학생 기숙사 「貞和院」 마련 · 교학연구회 주최 十相을 주제로 단막극, 성가, 그림 발표 · 새법률 제정 · 김대현, 대만 순교무로 발령. 국립대만대학원 동양철학 석사과정 유학	1. 9 1.21 23 4. 1 4. 4 7.29 9.11	· 미, 서베이어 7호 달에 연착 · 북한의 무장공비 31명 서울 침입 ·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원산 앞바다에서 북괴에 피납 · 대전에서 향토예비군 결단식 · 미국 흑인지도자 킹목사 피살로 전국에 흑인폭동 · 로마교황, 인공산아제한 금지 회칙 발표 · 軍僧제도 실시

원불교총람 부록편

원기 53 (1968) 戊申	9. 이운권교령. 대만 불교협회 초청으로 대만불교계 시찰 秋 11. 교단기구연구회(회장 정광훈) 발족 12. 문화공보부로 부터 독립종단 인증 12. 미국인 교도 가정에 첫 법신불 봉안. 뉴욕 케네즈 달리하이드(圓慈光)씨 집 ○ 보스턴 종교학회에서 강위조박사 「한국의 원불교와 한국사회」 발표 ○ 충부, 황등가도 대로변 300m 조립식 재건담 축조 ○ 충부 산업원 신설 교당 원광대 농학관, 중강당, 연주실 완공 간행 금구(3.3), 청계(3.20), 백운(4.21), 신촌(4.23), 안양(5), 인월(5.3), 고성(6.26), 삼성(7), 추부(9), 진해(11.27) 정화사 『예전·성가』 4·6배판(3.26) 정화사 『고교총간 1권-월말통신·월보편』 4·6배판(10.26) 『현규집』 발행(12.20) 한정석 프린트판 『敎史』 『正典노트』 간행 이종원시집 『별을 가꾸는 山』	11. 5 · 닉슨, 미국대통령에 당선 · 대구 임미누엘 교단이 예수교 장로회에 복귀
원기 54 (1969) 己酉	2. 4 · 중앙상주선원 발족 12 · 새 교역자 34명 출가식 3. 1 · 『교보』 60호, 『청년회보』 26호로 발전적 해체. 원불교신보사 설립 4. 3 · 원광사, 창인동 원광여지중·고등학교 부속건물로 이전 4.13 · WFB9 쿠알라룸푸르 대회에 교단대표 김정용 참가 5. 5 · 교화재단 설립 6 · 수위단사무처(처장 김윤중) 독립발족 · 충부구내에 수운등 가설 6. 1 · 『원불교신보』 순간으로 창간 7.15 · 원불교출판사 설립 7.29 · 미 종교학자 강위조박사 충부방문 8. · 중앙요양원에 한약방 개설 8.20 · 교단대표 대통령 면담. 종합대승적·한남대 대지반환문제 건의 · 원광지 종전의 격월간제를 계산으로 등록변경(주간 이종원)	1. 9 · 문교부 7개市的 교교·대학생 군사훈련 실시 결정 2. 5 · 서울시내 중학 무시험 추천진학 실시 3. 3 · 정부, 가정의례준칙 선포 16 · 강원도 주문진에 무장공비 출현 28 · 천주교 김수환 서울 대교구장. 우리나라 첫 추기경에 서임 5. · 아폴로 10호 LM으로 달착륙시험에 성공 6.10 · 교황바오로6세, 5세기만에 신교연합체인 세계대회 회의에 참석 7.20 · 미국 아폴로11호 달에 착륙. 암스트롱 인류최초로 달표면에 내림 7.21 · 경인고속도로 개통 9.14 · 국회 3선개헌안. 국회투표법안. 변칙 통과 10. 2 · 코펜하겐 성 박람회 10.17 · 삼선개헌 국민투표 실시. 가결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54 (1969) 乙酉	9.15	· 개정 수위단회법 공포	11.18	· 대입예비교사 실시
	10.25	· 서울지구 원불교청년 연합회. 성가대 조직		
교당	11.10	· 송대 뒤 입야 1,170명 매입		
	12.21	· 반백년기념사업회 구성. 건설위원회 총부신축건물배치도 확정		
입적 간행	12.21	· 예비교역자 합동수련실시(1주간).		
	교당	· 하섬(총3만평) 완전히 본교에 귀속 · 사직(1.1), 약대·강경·김재(4), 제주(4.13), 인천(4.15), 해리·괴산(5.16), 구례(5.26), 봉덕(9.1), 경주(10.7), 서귀포(10.15), 수원(11.10), 순천(12)		
		· 이형원(11.26)		
		· 영문판 『요람』(4.30)		
		· 『원불교신보』 창간(6.1)		
		· 정화사, 『교고총간2-회보편』(6.26)		
		· 원광사 포켓용축소판 『교전·성가』 합본		
		· 『교고총간3-회보편』(8.26)		
원기 55 (1970) 庚戌	1.18	· 백운선교소 화재로 전소	2.3	· 전국 10개 도시에 중학무시험진학 추천 실시
	1.25	· 종법실 완공	3.17	· 고위층 상대 접대부 정인숙, 한강변에서 살해
교당	3.1	· 서울보화당 발족	4.8	· 마포, 와우아파트 도괴 33명 사망
	2.21	· 새 교역자 40명 출가식	5.8	· 한국불교 태고종(대처승측) 문공부 등록
	26	· 제1회 불교교육학과 석사배출. 서경전 「원불교 교화방법에 관한 연구」	6.2	· 김지하 시집 「五賦」 필화사건
	28	· 영모전·기념관 기공식. 반백년 기념사업회 위원총회	6.19	· 부산 下關間 연결선 취항
	3.31	· 서울출장소장 이운권, 중앙선원장 안이정 임명	7.1	· 우편번호제 실시
	4.4	· 전주교당에서 종교심포지엄 개최 (불교·천주교·기독교 참가)	7.7	· 경부고속도로 개통
	5.7	· 원로예우법 통과	7.8	· 주한미군의 삭감 정식통고
	10	· 중앙선원 재훈련기구로 개원 결재	8.15	· 남북통일에 관한 8·15선언 발표
	27	· 원광대학 종합대학교 추진위원회 결성	9.27	· 신민당 전당대회서 대통령후보에 김대중 지명
	6.1	· 해룡중학교 설립인가.	9.29	· 문화공보부 『사상계』 등록취소
	7.	· 교학과생 학년별 봉사활동 실시	11.13	· 평화시장 종업원 전태일 노동조건개선 요구하고 분신자살
	8.26	· 영산성지 개발협의회 구성	12.31	· 호남고속도로(전주-대전) 개통
			○	· 기독교, 통일교 정통문제 시비 논란
			○	· 종교협의회 발족
			○	· 세계불교지도자대회(WFB)가 서울에서 열림

원불교총람 부록편

원기 55 (1970) 庚戌	9. 6	· 재가교도 범위사정 위한 교리시험 실시	
	20	· 동화병원 재개원(원장 조채기)	
	10.13	· 서울 흑석동 한강변에 원불교회관 기공식	
	16	· 제1차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 교오토대회에 교단대표로 박광전 참석	
	11. 1	· 전주교당 청년회관 개관	
	12.	· 재가교도 범위사정 실시	
		· 선학원생 합동수련 실시	
	교당	· 성주(1.10), 유성(2.10), 안천·영암(4), 정릉(4.2), 무주(4.22), 진농(4.23), 화곡(5.6), 만경(6.25), 덕천(7.23), 거제(11.19), 남광주(12)	
	교우회	· 교우회 숙명여대(11.19), 전남대(11.22)	
	입적 간행	· 전현벽(2.1) · 『교고총간-초기교서편4』(9.26)	
원기 56 (1971) 辛亥	1.17	· 신용조합창설	2. 9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확정 발표
	20	· 총부구내전화 교환대 설치(인터폰 공전식 30회선)	2.23 · 대학교련을 필수로 하는 교육법시행령 개정
	2.10	· 원광 남녀 중·고교 부교장제 실시	2.25 · 닉슨, 독트린 발표
	15	· 원광선물센터 개업(청우회)	3.31 · 서울-부산간 장거리 자동전화 개통
	26	· 새 교역자 37명 출가식	4. 5 · 수운회관 개관
	28	· 선·학원 졸업생 특별훈련 실시	4. 7 · 중공, 미국 탁구팀 초청
	3. 1	· 교정원에 기획실 신설	27 · 제7대 대통령선거 박정희 당선
	5	· 해룡중학교 개교	6. 3 · 개각단행. 국무총리에 김종필
	28	· 서울 圓樂會 창립	7. 9 · 키신저, 미국대통령보좌관, 극비리 중공방문
		· 교학과, 원심합창단 발족	7.28 · 사법파동(~8.28)
	31	· 제4회 수위단 총선거. 단장 대신, 중앙 박광전·이공주, 건방 박장식·오종태, 감방 이운권·이경순, 간방 성정철·김영신, 진방 김근수·조전권, 손방 정광훈·서대인, 이방 김홍철·황정신행, 곤방 조희석·양도신, 태방 안이정·정양선	8.12 ·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 남북 적십자회담 제의
		· 大山宗法師 재추대, 교정원장 이운	11.15 · 이청당 입적
			12. 6 · 국가비상사태선언
			9 · 주월청룡부대 6년만에 철수
			12.10 · 광복후 최초로 전국에 민방공훈련
			12.17 · 국가보위법, 국회에서 변칙통과
			○ · 범어사에서 세계합동 고승대법회 열림
			○ · 신구교공동번역 성서간행

원기 56 (1971) 辛亥	3.31	권, 검찰원장 서대인, 중앙교의회 의장 문동현 선임
	4.	· 교정원 전면 개편: 총무부장 김중 목, 교무부장 이은석, 재무부장 정 성덕, 육영부장 송원철, 공익부장 송자명, 검찰원 사무처장 이공전 · 기관장: 서울사무소장 박장식, 훈 련원장 조전권, 동산선원장 안이 정, 원광사사장 이백철, 이리보육 원장 이서오
	4. 1	· 법은회·법은재단 통합
	22	· 지방교무 인사이동
	5. 1	· 청년회 사무장 서경전 임명
	29	· 전일본 세계연방촉진대회(일본불 교연맹주최) 교단대표 다수참석
	6.13	· 서울교육회관에서 圓樂발표회
	7.24	· 제1회 원불교청년지도자대회
	8. 8	· 총부·기관 임원훈련 실시(1주간)
	9. 1	· 영산, 대각기념비 준공
	18	· 원불교사상대강연회 부산국도극장 에서 개최
	24	· 서울맹아학교 학생회 결성
	10. 7	· 반백년기념대회 개최. 정산증사성 탑, 영모전, 기념관 준공(~10.12)
	11.24	· 검찰원기강협의회 발족
	12.29	· 원광대, 종합대학교로 개편 인가. 불 교교육과, 원불교학과로 과명 변경
교당		· 장성(2), 압해(3), 청학(3.15), 서 진주(4.24), 중구(4.28), 외령·보성 · 청주·동전주(5), 동광주(5.3), 울 산(5.13), 양산(5.17), 법성(5.24), 불광(5.26), 남중(6.1), 신마산·원 효·삼덕·포항(6), 제기(6.20), 변산 (7.5), 지사(12.9), 봉황
입적 간행		· 義山趙甲鍾(9.8) · 원불교개교반백년기념사업회 『기 념문총』 4·6배판 896p(10) · 영역판 『교전』(10.) · 종교문재연구소 『한국종교』 창간 (12.1)

원기 57 (1972) 壬子	2.26	· 새교역자 32명 출가식 · 원광대학교 초대총장 朴光田(吉眞) 취임	2.12	· 태고종에서 『佛敎聖典』 간행 · 조제종에서 『佛敎聖典』 간행(11.30)
	3. 8	· 사직교당에서 맹아학교 출장법회	2.21	· 북경에서 美·中정상회담(~27)
	23	· 인사: 법무실장 이병은, 기획실장 장정일, 수위단회사무처장 김윤중, 중앙요양원장 변중선, 신탁이사장 이병은		· 남북적십자회담 첫 실무회의
	4.	· 검찰원 제1차 기강협의회	3.14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장치 등 대통령령 공포
	5. 7	· 부산지구 합동법회	5.15	· 오키나와 반환협정 발효. 미, 27년 만에 일본에 반환
	29	· 동화병원 휴업. 동화병원 운영위원회 발족(8명)	6.17	· 닉슨 미국대통령, 재선회책한 워터게이트 사건
		· 원불교청년회장에 조정근, 사무국장에 김도웅 선출	7. 4	·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공동성명 발표
	7. 5	· 이재성 도미. LA순교무 발령	8. 3	· 박대통령 기업사채 동결령 발표
	7.22	· 제1회 원불교대학생 전북연합회 하계수련대회	30	· 남북적십자 1차회담 평양
	26	· 일본 오사카 불교회장일행 총부내방	9.18	· 남북적십자 2차회담 서울
	8. 4	· 전무출신 자녀들의 모임체 원친회 창립	29	· 日, 자유중국에 외교관계 단절 통고
	10. 1	· 천도교. 최덕신교령 총부방문	10.12	·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1차 회의의 판문점에서 개최
	15	· 재가교도 요양원 양정원 이리 동산동에 개원	10.17	· 대통령 특별선언 발표(十月維新). 국회해산, 대학휴교. 비상계엄선포
	11. 1	· 보화당 역전지점 개설	11. 2	· 평양에서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담
	5	· 로스앤젤레스 교당창립 발기총회	11.21	· 개헌안 국민투표실시
	18	· 동산선원 제1회 원화제 개최	12.15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2.11	· 박광전총장 중국문화학원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 취득	27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
		· 원광대 한의학과 인가	○	· 동국대 僧伽學科설치
	○	· 총부 원예원. 원광원 발족		
	○	· 유기현, 「원불교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논문 발표(원대논문집 6호)		
	교당	· 이문(5.16), 남순천(6.26), 시흥(7.31), 함열(7.26), 홍천(8), 장항(9.6), 천안(10.24)		
	교우회	· 고려대(5.25), 서울상대(6.17), 전북연합회(6.18), 동국대(9.20)		
	간행	· 정화사 『정산종사법어』 4·6판 379쪽(1.24).		

I. 원불교사 연표

		· 원불교학과, 『學林』 창간, 프린트 판 격월간(3~12월간) · 『설화집』(9.20) 격월간		
원기 58 (1973) 癸丑	1.12	· 미국 시카고 순교감, 정자선 발령	1.17	· 문공부, 사찰운영 공동관리를 발표
	20	· 원대 「원광의 향연」 도내 8개도시 순회공연	1.24	· 닉슨대통령 베트남 평화협정 조인
	27	· 원대장학회 발족	3. 3	· 한국방송공사 발족
	3.25	· 미국 가주교당 대각개교절 기념 종교강연	10	· 유정회 창립총회
		· 원청, 서울·경기연합회 창립	14	·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에서 2차 회의, 서울에서 3차 회의(6.12)
	28	· 교정원 전면인사개편. 교정원장 김근수, 총무부장 김인철, 교무부장 이광정, 재무부장 정도운, 육영부장 박제현, 공익부장 오회원	29	· 주월미군 최종철수로 월남개입 종료
	4. 6	· 나성교당 법인인가	5.	· NCC주최로 빌리그래함 한국전도대회 여의도에서 개최
	4.29	· 대각개교절 경축, 기관대항 배구대회	6.23	· 평화통일 외교정책 7개항 발표(6.23선언)
	5. 3	· 한국불교회 창립(회장 송경산, 이사장 문동현)	7.	· 박형규·권호경 목사 등 南山 부활절 연합예배 행사시 政府전북 시도협의로 구속
	7	· 교학연구회, 원불교·카톨릭 예비교역자모임 「창조적 대화」 개최(~5.9)	3	· 포항종합제철공장 준공
	11	·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주최 한·일불교학자대회	1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시행령 공포
	20	· 빌리그래함 전도협회 하워드박사 내방	8. 8	· 일본에서 김대중 피납사건
	26	· 제1회 원청 서울·경기지구 교리학 교 개강	9.	· 전국에 장발족 단속
	6. 8	· 미연방, 원불교법인 인가	10.	· 제4차 중동전쟁
	6. 9	· 『점자 정전·성가』 완역	11.14	· 호남·남해 고속도로 개통
	17	· 광주지구 사상 대강연회	12. 5	· 고암종정, 중회기능 유보 발표
	18	· 서울회관 기성회 발족		
	7.14	· 군교화 추진위원회 발족		
	26	· 육영부주최 어린이지도자 강습		
	8. 1	· 해룡고등학교 인가		
		· 서울회관 호안공사 착공		

원불교총담 부록편

원기 58 (1973) 癸丑	8. 7 · 청년지도자 제1기생 수료 31 · 미국 나성교당 새법당 마련 8.31 · 원대 한의대 6년제로 승격 9.10 · 원불교학과 여학생교복 검은색 원 피스로 제정 9.30 · 어린이 노래 작곡발표회 11.13 · 성지개발 준비위원회 발족 12.11 · 원광대학교, 한의대 농대 단과대학 으로 승격 29 · 원광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신설 교당 · 대연(3), 언양(3.18), 구로(4.14), 시카고(4.22), 남해(5.11), 장산도 (5.24), 무장(5.26), 광안(5.28) 교우회 · 성동고교(3.21), 서울 각대학 교우 회원 교화문제 세미나 개최 입적 · 十陀圓양하운(1.7), 오미산(1.15), 신도형(1.30), 백지명(5.13), 이준경 (5.18), 박진오(10.8) 간행 · 정화사, 『교고총간5권-기본사료 편』 4·6판 451p(5.26). ·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교』 국판 345p(5.30). · 『점자정전·성가』 완역(6.9) · 종교문제연구소 『원불교』 국판 345p(6.10). · 한정원 『한국불교사상』 국판 395p (7.20). · 교무부 『설화집 2집』 4·6판 284p (9.20).	10.23 · 미국하원, 닉슨대통령 탄핵결의안 제출
원기 59 (1974) 甲寅	1. 6 · 교무부, 교화사업회 창립 2.21 · 육영장학생 243명 선발 26 · 출가식 45명 3. 5 · 해룡고등학교 개교 9 · 원광여중·고에 교내법당 마련 3.10 · 『점자 대중경』 출판 13 · 용신교당서 제1회 남자교무회의 개최	1. 8 · 박대통령 긴급조치 1호·2호 선포 14 · 박대통령 긴급조치 3호 28 · 중공, 孔子비판 절정 1.29 · 로스엔젤레스법원, 닉슨법정출두명 령 4. 3 · 긴급조치 4호. 민청학련 사건 8. · C.C.C주관으로 여의도에서 「엑스 플로74」 기독교세계 복음화 대회

원기 59 (1974) 甲寅	30	· 후생사업회 발족 · 성지사업회 봉고식		
	31	· 감찰원, 제1회 상록수, 호법자, 법 규준수자 인도실천자 포상 · 중앙훈련원 개원 · 정화단 총회		
	4. 7	· 제1회 전국학생 교리경연대회, 서 울 경기지구 청년회주최		
	18	· 숙덕26명(출가18, 재가8)		
	19	· 총부 원광원예원 기관으로 발족 · 교무부, 교화4대운동 전개(연원지 도, 교화단, 교당불리기, 문화봉사 교화운동)	8. 9	· 낙슨, 미대통령 사임. 10일 포드 부통령 38대 대통령에 취임
	5.18	· 원광중·고 교내법당 마련	8.15	· 박대통령 저격미수, 육영수여사 피 격 사망
	26	· 원불교학과, 기숙사 식당 준공		· 서울지하철과 수도권 전철개통
	6. 4	· 하섬에서 남자정화단 결성	22	· 신민당 전당대회, 당수 김영삼
	16	· 부산지구 합동법회		
	7. 1	· 행정구역 개편으로 중앙총부 이리 시에 편입		
	4	· 원대부설연구소 《원불교사상연구 원》 발족		
	18	· 교화부, 해외포교담당 교감으로 전 팔근 발령		
	21	· 중앙청년회 제1회 하계성지봉사활 동		
	28	· 부산보화당 개설		
	8.14	· 大山종법사 천도교 방문		
	21	·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백제 시대 풍탁발굴		
	26	· 원광대 송천은교수 『원불교사상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	9.	· 현대조선 근로자 2,500명, 능률봉 급제 실시와 해고에 합의 집단유 혈폭동
	9.30	· 서울사무소 주최 망향제(임진각).	10.24	· 동아일보기자일동, 자유언론 실천 선언
	10. 9	· 세계평화 특별기원 및 성지순례	11.15	· 유엔군 비무장지대에서 땅굴발견 발표
	16	· 영산성지 원광원 신축봉불		
	27	· 여자정화단 선서식		
	31	· 서울회관기성회 해체		

원불교총람 부록편

원기 59 (1974) 甲寅	11. 2	· 서울, 종교인 축구대회 첫 우승		
	13	· 원광사(사장 조정근) 사옥을 남중 동 구 천일고무공장으로 전세이전		
	11.14	· 원불교사상연구원, 제1회 월례연구 발표회 한정석·송천은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	11.17	· 윤보선 등 71명, 민주회복 국민회 발족
	12.24	· 로스앤젤레스 교무로 박성기 출국	12. 6	· 동일일보 광고, 무더기 해약사태 발생. 이후 7개월간 계속됨
	교당	· 창녕·속초(4), 사천(4.1), 만성(4. 26), 무산(4.30), 장계·양정(5), 대 야(5.13), 담양(5.26), 황등(10)		
	교우회	· 한양대(4.21), 성균관대(6.12)		
	입적	· 양장숙(2.15), 민도연(2.25), 정자 선(12.20)		
	간행	· 신도형 『교전공부』 신국판 797p (1.31). · 교화부 『교화용참고문헌부』 신국 판 4×6판 172p(3.7). · 서경전설교집 『일원의 광장』 국판 288p(3.31). · 백지명 유고시집 『조각사』 210p (5.13). · 종교문제연구소 『한국불교』 국판 395p(8.30). · 종교문제연구소 『원불교事典』 신 국판, 652p(10.30). · 정화사 『교고총간6권-각항자료 편』4·6판 p.420(12.26)		
원기 60 (1975) 乙卯	1. 3	· 수위단회, 『원불교전서』 간행 결의	1.14	· 〈부처님오신날〉공휴일로 제정
	13	· 완도농장 설립 인준	2. 4	· 세계인구 38억6천만명으로 유엔에 서 추계
	2. 5	· 교정원2부 교화부·교육부로 명칭변경	4. 5	· 장개석 자유중국 총통 서거
	2.24	· 미, 뉴욕주 원불교법인 인가	8	· 박대통령 긴급조치 7호
	26	· 출가식 54명	4.21	· 월남 티우대통령 「미국에 배신당 했다」 연설하고 사임
	28	· 대만大 전만시교수, 『교전』 중국어 번역 완료	4.30	· 월남정부, 베트남에게 무조건 항 복. 30년 전쟁종식
	3.17	· 원광대 교내법당 운영	5.11	· 라오스, 좌파가 실권장악
	4.18	· 미주교령 박장식, 뉴욕교감 송영봉 발령	5.13	· 박대통령 긴급조치 9호
	5. 6	· 미, 시카고주 원불교법인 인가	9. 1	·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5.18	· 부산에서 구국기원식 거행	15	· 초충련계 재일교포 700명 추석성 묘차 모국방문
	24	· 영산정관평 확장공사 준공(3.20 ~)	22	· 민방위대 발대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60 (1975)	5.25	· 영광·광주교구 조국평화 기원식	
	6.15	· 군·육지구합동법회, 부산원지회 주 최 사상강연회	
乙卯	20	· 청년회 주최, 사상강연회	
	22	· 전주연화무용단 창단	
	8.24	· 충·남북지구 합동법회	
	9.23	· 정읍교구 합동법회	
	29	· 신보사, 해외 및 교도소에 교서보 내기운동 전개	
	30	· 양정원 기관인준	
	10.17	· 공익부 주최, 자선바자회	10.13 · 김옥선의원, 체재비판발언과련 의 원직사퇴
	19	· 구 동화병원에 원대한의과대학 부 속으로 원광병원개원	10.14 · 영동·동해고속도로 개통
	10.27	· 남자교무회 발족	12.19 · 김종필 총리사임. 후임 최규하
	12. 3	· 교화부산하 대전보화당 개원 봉교 식	12.23 · 태고종을 중심으로 불교통합운동 일어남
	14	· 서울교구 어머니 합창단 발족	· 조제중, 김대심사건 발생
교당		· 영동(1.27), 송정(4), 대현(4.15), 상주(4.29), 군서(5.4), 가야(5.6), 중화(5.14), 마포(5.29), 부천(6. 10), 방배(7.25), 논산(11.14), 괴정 (12.26)	
입적		· 박덕제(7.10), 刑吉祥(8.21), 강현 수(11.7)	
간행		· 박영식 『一圓相大意』 4·6판, 292p (5.1). · 손정윤 『소태산대종사전기』 4·6판 381p(7.10). · 교화부, 李殷哲역 일본어판 『원불 교교전』(7.30) · 『웅산문집—佛法의 妙用』 4·6판 325p.(8.20). · 교화부 김찬 만화 『그림대종사』 (9.1) · 정화사 『원불교 교사』 4·6판 189p (9.26). · 崇山華甲기념 『한국불교사상』 4 · 6배판 1227p(10.30).	

원기 61 (1976) 丙辰	1. 4	· 서울, 퇴숙전무출신자의 모임체 募 源會창립총회	1.15	· 박대통령 영일에서 석유발견. 매장 량 조사중이라고 언명
	2. 1	· 일본주재 순교무 양현수 발령	15	· 로마교황청, 성윤리선언 발표. 혼 전교섭인정 안함
	15	· 교화부, 성가녹음테이프 제작 배부	2.29	· 전국 98개대학 교수 재임명
	26	· 출가식 44명	3.	· 명동성당에서 救國宣言文발표
	3.20	· 원광대, 외국인대학생회 창립	4. 7	· 중공 등소평해임. 화국봉을 당 재 1부주석 수상으로 결정
	4. 2	· 이리교당, 이리노인대학 개교	28	· 보건사회부, 임신중절을 합법화하 는 모자보건법안 마련
	5	· 영산선원부설 청년부야학원 개설	30	· 내무부, 매달 말일을 반상회날로 결정
	5.20	· 김해교당 부녀상담소 설치	8. 1	· 양정모, 몬트리올 올림픽 레스링 금메달 취득
	6. 7	· 청년회사무국장 강운상 발령	9. 9	· 毛澤東 중공당 주석 병사(82세)
	7.21	· 대구어머니성가대 결단	16	· 신민당, 양파 합동전당대회. 대표 최고위원에 이철승 선출
	25	· 전주46개교당 어린이여름학교 개설	10. 7	· 중공 4인방 등 30여명 체포 숙청
	8.29	· 전주보화당 개업	11. 3	· 미국대통령에 민주당 후보 카터 당선
	9.29	· 이리보육원 신축준공	12.24	· 일본, 후쿠다 내각 발족
	11. 1	· 원불교교헌 개정공포, 법사단구성, 종법사증심제 강화 · 교역자호칭 「교무」로 통일		
	7	· 뉴욕주 재단이사회 발족		
	25	· 공익부산하 대구원광한의원 개원		
	○	· 원불교학과 1976학년도부터 졸업 논문제 실시		
교당		· 영산(2.10), 공주(4.5), 남대전(4. 18), 신용(4), 제천·하동(5.18), 성 남(5.20), 평택(5.22), 공항(6.17), 충주(6.26), 군북(6), 충주(6.26), 금정(8.8), 덕산(9), 나주(12.7)		
입적		· 이대기(1.6), 李六途華(1.31), 曹滿 植(2.15), 牟成哲(2.18), 劉慧根(2. 27), 空陀圓曹專權(5.24), 이형국 (5.31), 亨陀圓오종태(9.6)		

원기 61 (1976) 丙辰	간행	· 교화연구소 『심고문집』 4×6판 143p(3.26). · 교화연구소 『教化通信』 4·6배판 4면 창간(5.20) · 교화부 『어린이 교전공부』 국판 147p(6.26). · 박해명 『신앙실록1—저푸른하늘을 보라』 4·6판 405p(7.1). · 종교문제연구소 『천도교』 국판 324p(9.10). · 청하문총2 『서한문집—세계가 함께보는 구슬』 4·6판 461p(10.1). · 이운권주해 『三家精髓』 국판 435쪽.	
원기 62 (1977) 丁己	1. 5 24 3. 4 3.29	· 원광대 한의대부속 광주시 월산 2동에 광주병원 개원 · 원광보건전문학교 설립인가 · 교규개정. 교당규정 개정에 따라 지부장 명칭 교도회장으로 변경 · 종법사 선거인단 법사15명 확정 · 수위단법 개정. 원로13명, 새수위단 16명 선출. 단장 大山, 중앙 박광전·이공주, 원로수위단: 박장식 이운권 성경철 김홍철 조희석 이경순 김영신 서대인 양도신 황정신행. 신임수위단: 전방 박동현·박제권, 감방 이철행·김지현, 간방 이병은·정진숙, 진방 김근수·이정은, 손방 김정용·박은국, 이방 이공진·정양선, 곤방 김윤중·송영봉, 태방 안이정·전이창 · 종법사 선거인단(법사단15, 수위단 29) 대산종법사 재추대 · 교정위원회, 교당 의식수입을 교금화하기로 통과	

원기 62 (1977) 丁巳	30	· 대산종법사 추대식		
	4.	· 교정지구 1실3부 확장(기획실·문화·산업·훈련부). 총무부장 이보원, 교화부장겸훈련부장 박정훈, 산업부장 윤치성, 수위단사무처장 김인철, 중앙훈련원장 안이정, 동산선원장 양도신, 영산선원장 윤주현, 이리보화당 회장 조희석 원광사사장 이광정	4.17	· 鄧小平, 전 중공부수상, 실권이전의 직위로 복권
		· 교구체제 확립. 11개 교구장 임명. 서울교구장 박은국, 대전교구장 이성신, 이리교구장 박재현, 전주교구장 유성일, 광주교구장 정진숙, 부산교구장 이경순, 마산교구장 이정은, 미주교구장 송영봉	5.17	· 카터대통령, 「미군이 철수하면 북괴가 남침한다」고 주장한 주한 미군 참모장 싱글러브 소장을 소환
	23	· 300여 교역자 대폭인사이동	6.16	· 소련, 브레즈네프를 국가원수로 선출
	6. 1	· 서울, 재가불공회 모임 靑耘會창립	19	· 국내 최초의 고리원자력 발전소 1호 발전기 점화
	6. 4	· 동산선원 여학생 복장변경, 검은원피스, 머리컷 허용	22	· 전 중앙본부장 김형욱, 미국 청와대 도청사건과 관련 반국가적 발언
	24	· 원불교사상연구원, 제1회 학술발표회 「한국의 일본사상」 종로교당서 개최	8.	· 기독교, 여의도에서 民族福音化聖會
	29	· 종법사주재 첫번째 전국교구장 회의	9. 6	· 미 국무성, 박동선을 기소
	7.13	· 왕궁면 공원묘지, 왕궁면 동봉리에 42,000평 확보		
	9.11	· 총부, 교학과, 서울교구 연합봉사대 안양수해지구 봉사활동 전개 (~17)		
	23	· 부산교구교의회 창립		
	10. 8	· 도시새마을 평가단 총부방문		
	10.15	· 이제성교무 캐나다 토론토 교화차 부임		
		· 마산수양원 불불		
		· 원불교학과 4학년 제1회 타종교 탐방 및 예비교역자 모임시작		
	11. 4	· 정토회 실업공장 낙성		
		· 제2대 2회 기념총회 법훈장 수여식		

원기 62 (1977)	11. 4	종사장 : 三山, 應山, 六陀圓, 空陀圓 대봉도장 : 一山, 四山, 道山 대호 법장 : 송경심, 오철환	
	丁巳 11. 6	· 중앙훈련원 신축봉불(61.9.10)	11.11 · 이리역에서 화약수송열차 폭발로 대참사 발생
	13	· 광주, 원광신협조합 설립	
	14	· 이리역 폭발사고 열반인 합동위령 제	12.17 · 구마고속도로 개통
	15	· 한·일 종교협의회 대표16명 총부 방문. 종법사, 세계종교기구 창설 제창	
	교당	· 석포(1.6), 대명(2.25), 서문(4.7), 동군산·서군산·남군산(4.26), 개봉 (4.25), 망미(4.28), 진북(4.29), 신 림(4.30), 대방(5.2), 성동(5.4), 서 동·남지(5.5), 홍제(5.9), 해남(5. 12), 도봉·덕진·남가좌(5.15), 전포 (5), 중국(6.3), 함평(6.6), 득량 (10.11), 차황(11.25), 토성	
	입적	· 中山정 광훈(1.17), 김연봉(4.6), 圓 陀圓송원철(9.14), 조준곡(10.6), 박영인(12.6)	
	간행	· 교화연구소 프린트판 『성국 각본』 4·6배판 173p(1.10). · 손정윤편 『대종사일화』 4·6배판 359p(2.1). · 『원불교학 개론』 국판 371p(2.25). · 공익부 『법은통신』 창간(5.1) · 김정용 『익산문화권의 연구』 국판 (10.15) · 원불교학과학년지 복사판 『佛脈』 4·6배판 4면 창간(원기64년 5월까 지(12호)냄(10.1) · 정화사 『원불교전서』 4·6배판 1610p(10.26) · 대산종법사법문집 『정전대의』 4·6 배판 314p(11.1). · 정자선 『예화집』 4·6배판 758p(12. 25). · 중앙교우회 회지 『한길』 창간	

원기 63 (1978) 戊午	1.31	· 총부 상조조합해제. 원불교중앙신 용협동조합 창립		
	2.15	· 교화부, 전국에 교리학교 개설키로 함		
	27	· 인사: 원광보전전문학교장 전팔 로, 상주선원장 장성진, 기획실장 에 김인철(수위단회사무처장 겸 임)		
	3.12	· 중앙총부 상주선원 개원	3.30	· 호남선(대전-이리)철로복선개통
	4.16	· 부산교구 합동 대법회	4.14	· 세종문화회관 개관
	23	· 제주교구 합동 대법회	6.3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
	5.10	· 대전원광한의원 화재로 전소	7. 6	· 박정희,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
	5.13	· 일본교구 사무장 오끼를 비롯한 일본교도총부방문	25	· 영국에서 세계최초의 시험관아기 탄생
	6. 8	· 이공주법사 소장품 한남동 수도원 에서 전시회	8. 6	· 로마교황 바오로 6세 급서
	11	· 광주원광신용협동조합 개설	26	· 요한 바오로2세 교황으로 선출됨
	8.15	· 삼동수양원, 정진원 준공 및 반만 일 기도회향	9. 6	· 미국·이스라엘·이집트 3국 수뇌, 중동평화회담 개시
	21	· 제1회 기관임원 훈련	10. 5	· 자연보호헌장 선포
	9. 1	· 원광대 원광의료원(한방) 이리시 내 중앙동에 신축 개원	10. 7	· 충남 홍성에 강도4의 지진 발생
	7	· 전국재가교도 합동교리훈련	11.19	· 북경에 모택동 비판 대자보 등장
	29	· 도오교 築 本願寺에서 열린 WFB 12에 박광진, 전팔근, 유기현, 김정 관, 문동현 참석	20	· 가이아나 인민사원에 집단자살사 건 발생. 신도 800명 자살
	10. 7	· 원광대 교학대학 신설, 초대학장 송천은	12.12	· 국사편찬회 『한국사』 전24권 완간
	10.12	· 서울교구 보은바자회	12.17	· OPEC, 석유가 5%인상 결정
	24	· 로마교황청 「도세니」대주교 내방 · 한·일종교협의회회장 三宅씨 내방		
	11. 1	· 교화부, 정산중사 추모음반 제작		
	4	· 총부합동회갑식에 TBC장수무대 공연		
	12.12	· 대전원광한약방 신축 개업		
	○	· 송천은교수外 「원불교신앙관 연 구」로 문교부 학술연구비 지원받 음		
	13	· 교화부, 각교구 교리학교 고시실시		
	교당	· 가수(2.3), 소록(2), 서천·경산(3), 면목(5.27), 사상(6.12), 애월.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63 (1978) 戊午	입적	· 喜山 조희석(1.2), 이순권(2.6), 안혜삼(3.2), 박동현(4.3), 노삼구(4.29), 中陀圓 여청운(10.16), 恒陀圓 이경순(11.11), 박남수(11.14)		
	교우회	· 충남대(3.21), 조선대(3. 8), 전남대(3.15)		
	간행	· 유기현 『원불교와 한국사회』 신국판 423p(3.5). · 교화부 『염송문』 4·6판 32p(3.10). · 총무부 『원불교 교보』 복간(3.15) · 박혜명 『신앙실록2—은혜의 꽃은 피고』 4·6판 392p(6.1). · 송천은역, 존하크 『종교철학』 신국판, 202p(9.10). · 축쇄판 『원불교전서』(9.26) · 청년회대학생연합회보 『캠퍼스교화』 4·6배판 33p 창간(11.30).		
원기 64 (1979) 己未	1.25	· 의식기관 永慕院발족	1. 1	· 미국 중공과 국교수립(대만과는 국교단절)
	2. 4	· 보화당연합회 발족, 회장 김윤중	16	· 팔레비 이란국왕 이집트로 망명, 이란 혁명지도자 호메이니 귀국(2.1)
	26	· 하와이 선교소 설립인가		· N.C.C. 6教團長,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성명, 남대문교회에서 통일교비판 강연중 통일교도들 난동
		· 교육부, 성지순례버스구입	4.11	· 우간다 민족해방전선, 아민대통령 축출
	3. 5	· 영산고등공민학교 인가		
	10	· 정유성 교무,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원불교윤리연구」로 철학박사학위 취득	5.30	· 신민당 전당대회, 총재에 김영삼선출
	4. 5	· 영산성지사업회주최 개교64년기념 평화통일기원대법회 및 북한교회위원회 발족	6. 1	· 흑인다수파 지배의 짐바브웨, 로디지아공화국 독립
	6	· 영산성지 순환도로 개통	2	· 교황 요한바오로2세, 모국 폴란드 방문
	15	· 제1회 교정원장기쟁탈 전국교구대항 친선경구대회		
	21	· 제1회 원청대학생연합회 주최, 교정원장배쟁탈 전국청년 교리강연대회		
	5.15	· 원불교학과 제1회 학림제(~17)		
	7. 1	· 중앙청년회 사무국과 서울교구 보		

원기 64 (1979) 己未	7.23	· 은회에서 결혼상담소 개설 · 원광여중·종합고교 모현동으로 이전	7.25	· 가톨릭안동교구, 오원춘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다고 발표
	8.19	· WCRPⅢ. 뉴저지대회 참석차 박광전 전팔근 도미	28	· OPEC, 기준원유가격을 평균 59%인상
교당	25	· 교화부주관, 영산성지에서 한국방송작가초청 세미나	8.6	· 안동에서 가톨릭신부·신도 900여명 가두 데모 · YH무역 폐업공고
	9.30	· 원불교의료인협의회 발족		· N.C.C. YH사건성명, 정부의 산업선교 왜곡보도 중지요청
간행	10.21	· 전국 개척·신설교당 기관·도시교당 자매결연식		· 예수교장로교총회 「산업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성명, 구속자 석방요구
	11.18	· 문화회관준공식(3.11~) 원광사, 신보사, 문화회관으로 이전(10월) · 원대에서 이리역까지 4차선 남북간선도로 개통	8.9	· YH여공 마포신민당사에서 농성시작
교당		· 화순(1), 신현(1.25), 군위(2.20), 삼랑진(3.5), 의성(3.15), 청도(3), 서목포(4.16), 화포(5), 무안(7.13), 남천(8), 사직(11.6)	8.20	· 천주교 정의평화를 위한 기도회. 기도뒤, 김수환추기경 등 참석자 가두시위
		· 하일성 『美學의 諸問題』 신국판 498p(1.10).	10.4	· 국회,신민당 김영삼총재 제명변칙처리
간행		· 이광정 『방송설교집』 국판 193p(5.1).	10.16	· 부산대생 5천여명, 유신철폐 외치며 가두시위. 부산대·동아대생 시민합세 파출소, 공공건물 파괴
		· 교화부편수와, 원불교첫동화집 『아홉선생의 이야기』 4·6판 243p(5.15).	10.18	· 부산에 비상계엄령선포 계엄하에 부산·마산 경북대생 데모
간행		· 교화부 편수와 『공타원법설집-행복자는 누구인가』 4·6판 390p(5.24).	20	· 마산·창원에 위수령 선포
		· 원불교학과 계간지 복사본 『새담』 창간(65년 4월부터 『學林』으로 재호 바뀌 간행)(6.28)	26	· 박정희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격사망
간행		· 김중묵 『因果의 世界』 국판 271p(7.20)	11.4	· 이란회교도학생, 테헤란주재 미국대사관 점거
		· 송천은 『宗教와 圓佛敎』 신국판 576p(8.15).	12.12	· 박대통령 시해사건 관련혐의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
간행		· 전팔근역, 『원불교 교사』 일어판 (9.20)	12.21	· 최규하 10대 대통령 취임
		· 서경전, 『敎化學』 국판 353p(9.15).		
간행		· 교화부편수와 『대종사가사집』 국판 p.100		
		· 교화부편수와 『恒陀圓宗師文集』 4·6판 458p (11. 11) .		
간행		· 이종원시집 『萬古日月』 국판 265p(11.11).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65 (1980) 庚申	1.	· 춘천, 청주 준교구로 승인	1.	· 석유류값 평균 54.4%인상. 환율금의 대폭 인상
	2. 4	· 새마을연수원 교관단 훈련	2.25	· 김대중·김영삼·김종필 회동하여 개헌·복권 등 의견교환
	26	· 출가식 44명	4.21	· 강원도 정선군 사북탄광 광부 700명 임금·어용노조에 반발 폭동
	27	· 교립원광대 기구확대 개편. 부총장직, 기획실 신설.	5. 4	· 티토 유고대통령 서거
	3.26	· 정승섭화백, 소태산대종사 실상 완성	15	· 전국대학생 가두시위 격렬
	4.27	· 미주교구청 봉불, 미주교구통합이사회 결성	17	· 정부,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
	30	· 원광대 전무출신 상조협의회 발족	18	· 광주 민중 민주항쟁 발생
	5. 9	· 향원사업회 발족	31	· 제엄하 대통령보좌기관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발족(삼임위원장 전두환 정보부장)
	11	· 선산재단 발족	6.12	· 오히라 일본수상 서거. 신임수상에 스즈키 피선(17)
	28	· 성남보화당 개원	7.19	· 제22회 모스크바 올림픽 개막
	6. 5	· 광주민중항쟁 부상자 위문		· 문교부, 사회정화 일환으로 172개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7.17	· 변산성지 석두암터에 「一圓大道」비건립	8.	· 문교부, 전국 2597개 출판사중 617개 출판사 등록 취소
	7.31	· 원광대 직제, 사무처를 총무처로 경리과를 재무처로 변경.	8.27	· 전두환 제11대 대통령에 당선
	8.18	· 미국 뉴욕교당 어린이학교 개설	11. 5	· 레이건, 제40대 미국대통령에 당선
	27	· 자선사업회 발족	14	· 신문·방송협·언론기관 통폐합 결정
	9. 6	· 제1회 원불교 의료인 수련회	12. 1	· KBS 컬러 TV 첫 방영
	10. 1	· 원광대 대학교당교무로 김성훈교무발령. 첫주 월요일마다 전무출신 기도, 법회 실시	12.31	· 정부, 언론기본법 공포
	10. 2	· 원광대 의예과 신설인가		
	10.12	· 정읍교구 대법회		
	12. 3	· 부산신용협동조합 개설		
	6	· 『원불교신보』 旬刊발행		
	12.15	· 이리시 동산동 소재 기독교 시그레이브병원 인수, 원대부속병원으로 개원		
	교당	· 모현(1.13), 영등·북일(1), 대정·평화·온양(1.16), 북청주·서청주(3.9), 부곡(3), 거창(4.14), 잠실(4.20), 동순천(5.2), 구서(5.11), 오등(5), 흥농·문산(5.27), 수성(6.28), 오산(7.		

원불교총람 부록편

원기 65 (1980) 庚申	교당	30), 후포(7), 영천(8.10), 장흥(8), 역촌(9.14), 여의도(9.28), 백산·물 금(9), 개금(10.7), 구미·영양(10. 21). 일본나라(10.22)		
	입적	· 최수인(1.16), 김일현(1.24), 정관 음행(2.1), 이병은(8.8)		
	간행	· 『대산종법사 법문집 2권』, 4·6판 551p(1.1). · 교화부편수과 『主山宗師文集』 4·6 판 435p(5.1). · 김성철 『원불교사상論考』 신국판 435p(7.15). · 손정운 『원불교용어사전』 4·6판 743p(7.30). · 전팔로역 일어판 『원불교예전』 4· 6판 179p(8.30). · 전팔로역 일어판 『원불교교전』(10. 5) · 장성진 『大道論』 4·6판 346p(10. 25). · 교화부 편수과 『원불교 입문서－ 원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문고판 26p(10.30). · 한정석편 『한국근대민중불교의 이 념과 전개』 신국판 372p(12.25). · 이광정 펴프렛 『가훈』 문고판 28p · 『교리개요』 문고판 50p(12.).		
원기 66 (1981) 辛酉	1.25	· 제1회 어린이 지도자훈련 (교화부 주관)	1. 4	· 연합통신 창간, 5일부터 뉴스공급
	27	· 대종사탄생백주년기념사업준비위 원회(위원장 박광전) 결성	15	· 민주정의당창당대회(총재 전두환)
	2.10	· 해룡농업기술학교 폐교	1.20	· 민한당창당(총재 류치송)
			2. 3	· 전두환·레이건 한·미정상회담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66 (1981) 辛酉	2.19	· 교화사업회 「교전읽히기 운동」 전개	2.16	· 교황 요한바오로2세 아시아순방길에 오름
	3.12	· 교정원 국제부 신설(부장 전팔근)	2.19	· 한국전력공사, 전남 영광에 원자력 발전 7·8호기 기공
	4. 1	· 교화부, 《교리통신강좌》 개설		· 철도청, 호남선(이리-송정리간)복선공사 기공
	23	· 원불교 사진동우회 창립	25	· 제12대 대통령에 전두환 당선
	5.14	· 교학대 기숙사 「학림사」 신축봉불	4.25	· 신화사통신, 중공은 농업개혁을 단행하여 시영농지면적을 전국적으로 확대중이라고 보도
	19	· 대중사 탄생가 복원 및 영산영모전 낙성봉불, 조국대흥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5. 3	· 노벨평화상 수상자 테레사수녀 내한
	20	· 세계종교연합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14	· 교황 요한바오로2세 피격, 부상
	7. 5	· 전국교도회장단 〈원덕회〉 창립	6.16	· 정부, 해외여행 자유화방안 확정 발표
	26	· 제1회 예비교무 교육기관 합동 세미나	6.27	· 가톨릭여자광신도 채진숙, 순결 잃었다고 딸 셋 모두 질식 살해.
	9. 1	· 불목요양원 설립	6.30	· 중공, 마오쩌둥사상을 폐기, 덩샤오핑 중심의 실용주의 지도체제를 선언
	9.20	· 이리·익산지구 합동법회	7.28	· 정부, 교육세 징수결정
	28	· 대구교구 동명훈련원 개원봉불	8.18	· 대검찰청, 불국사·월정사 분류 관련 승려 8명 구속
	10.20	· 교학대에 사회복지학과 신설, 1987년에 사회과학대로 소속변경	27	· 치안본부, 섹스교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 등 6명조사후 출국 명령
		· 이리교구청 및 교당신축 봉불	9. 3	· 구마고속도로 개통
	10.25	· 교화부 편수과 三山유교 「六日歌」 「雪中 박노래」 「착심해탈가」 등 가사발굴	30	· 84차 IOC총회에서 88올림픽 서울 개최 의결
	11. 6	· 뉴델리 개최 ACRP.Ⅱ 교단대표 박광전 전팔근 참가	10.18	·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기념 신앙대회 개최
	7	· 제1회 〈원덕회〉 대의원 총회		
	8	· 총부 수도원 신축봉불		

원기 66 (1981) 辛酉	11.17 12. 1 13 교당	· 원불교 의료인협회의 정기총회 및 정기훈련 · 자선원 개원 · 청운회 전국연합회 발기인 모임 · 한림·도원(1.16), 중흥(2.16), 신광(3), 반여(4.15), 장학(4.26), 도림·초강(4.30), 송학·북광주(5.7), 남원중앙(5.15), 강남(6.14), 동마산(6), 용호·금암(6.28), 도순(7.11), 인후(7.19), 현화(8.31), 안락(9.4), 신창원(9.13), 영주(9.20), 이평(9.21), 동전주(9), 효자(11.6), 산외(11.18), 팔복(12.28).		
	입적 간행	· 김정희(10.2), 恩陀圖조일관(11.7) · 교화부편수와 어린이용가로쓰기 『정전·성가』 국판 177p(2.1). · 서경전 『원불교의 진리와 인간회복』 신국판 410p(7.20). · 한정석 『불교와 유교의 현실관』 신국판 456p(8.10). · 교화부편수와 『應山宗師文集』 4·6판 468p(9.1). · 문화부 『문화핸드북』 문고판 74p(9.1). · 김일상 『원불교이해의 첫걸음』 4·8판 167p(9.30). · 손정운 『원불교 입문』 303p(9.20). · 문화부 노래집 『일원가족의 합창』 문고판 277p(10.31).		
원기 67 (1982) 壬戌	1. 1	· 교화부, 가로쓰기 『교전』 초판 발행. 전국 초·중·고등학교 사회담당 교사에게 배포	1. 3 5	· 문교부, 중·고생 두발 및 교복자율화 결정(83년부터 시행) · 정부 야간통행금지 전면해제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67 (1982) 壬戌		· 교화부, 통신강좌(敎史班) 신설	1. 5	· 미국 스탠포드대학팀, 유전자(DNA)의 자체증식법 개발성공
	1.17	· 원광마을금고 「11억돌과 기념법회」	2.10	· 정부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우대제 실시
	18	· 광주보화당한의원 개원	28	· 레이건과 趙紫陽, 상하이 성명기념 천서교환
	27	· 제1회 전국 학생 교구연합회장단 훈련	3. 1	· 소련 무인우주선 비너스3호, 금성에서 사상 첫 컬러사진 송신
	30	· 영산성지고등학교 설립	18	·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발생
	31	· 완도 마을금고 설립	4.26	· 경남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우범곤 순경 총기난동사건 발생(사망 56명)
	2. 2	· 원불교사상연구원, 제1회 원불교사상 총발표회	5. 7	· 대검찰청 이철희·장영자부부 외국환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7	· 원불교대학원 재학생회 창립	20	· 대검찰청 이철희·장영자부부 거액사기혐의 사건 추가
	10	· 교정원청사에 세계불교도회 현판식	5.29	· 한국원정대 허영호, 히말라야 마칼루봉 정복
	11	· 진영교당 화재		· 요한바오로2세 영국성공회 캔터베리성당 방문
	13	· 대학교당 전무출신 세미나	6.15	· 아르헨티나군 포클랜드점령 75일만에 영국에 항복
	18	· 교립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 인문고와 상업고로 분리	7.16	· 미국 맨하탄연방 지방법원 통일교 문선명에게 탈세혐의로 징역 18개월 선고
		· 임시원의회 교화일선에 인사발령 우선키로 결의	27	· 정부 역사교과서 왜곡의 진상규명을 일본정부에 공식요구
	19	· 제1차 원불교사상 정립 발표회	8.28	· 각계대표로 독립기념관 건립준비위원회 구성
	21	· 서울교구 〈종로신협〉 창립		· 조오련, 도버해협 수영횡단 성공
	23	· 사회복지법인 창필재단 설립	9.22	· 대치영국수상, 중공방문
	26	· 출가식 54명		
	3. 8	· 제91회 임시수위단회에서 대각개교절·법인절을 양력 제날자인 4·28과 8·21로 확정		
		· 서울 경동보화당 한의원 개원		
	4. 6	· 제92회 임시수위단회 사정 정사 126명 탄생		
	7	· 동아문화센터에 원불교강좌 개설		
	5.13	· 원대한방병원 법당 봉불		
		· 전주교구 제1회운동회 원불교사상 강연		

원불교총람 부록편

원기 67 (1982) 壬戌	5.31	· 영산출장소 김현교무 시국사범 은 닉혐의로 첫공판		
	6. 6	· 서울교구, 제1회 어린이성가합창 경연대회		
	27	· 서울교구 성가대 발대		
	7. 5	· 김현교무석방(징역1년, 집행유예 2년)		
	13	· 제198회 임시원의회에서 미주교구 동·서부로 분리		
		· 교화부, 통신강좌 〈禮典班〉신설		
	8.21	· 교학과 학생 법인절기념 禪步대행 진		
	9. 2	· 제93회 임시수위단회 수위단 선거 법 개정		
	21	· 이리교구 제1회 보은바자		
	9.23	· 원광이리마을금고 중앙시장취급소 개설	9.26	· 스즈키 일본수상 북경방문
	10.10	· 서울회관 신축봉분 및 대법회	10. 8	· 금성사 국내최초로 미국에 컬러 TV생산공장 설립
	13	· 대산종법사 정래혁국회의장과 환 담	11.10	·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 사 망
	30	· 원불교청운회 전국연합회 창립	12	·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안드로포프 피선
	11. 5	· 수위단선거 신임단원 : 이광정, 송 천은, 윤주현, 박성경, 김이현	25	· 일본 새수상에 나카소네 선출
	6	· 종법사 선거인단, 대산종법사 재추 대(5차중임)		
		· 수위단회 특임수위단원, 박제현· 송영봉·점성숙·전팔근 임명		
		· 종법사 양원장임명, 교정원장 김운 중, 감찰원장 이정화		
	7	· 제9대 대산종법사 취임		
	8	· 총부간부 임원진구성, 교정원 제1 부원장 김인철, 제2부원장 유정완, 제3부원장 전팔근, 감찰원부원장 이중정, 수위단사무처장 김범중, 감찰원사무처장 송순봉, 교화부장 김이현, 총무부장 장응철, 재무부 장 서성범, 훈련부장 나도국,		

원기 67 (1982) 壬戌	11. 8	문화부장 김은준, 산업부장 유정완, 부속실장 이성은
	12.12	· 군산원광광한의원 개원
	○	· 학교부지 3,786평, 총부용지 1,441평 회사, 원대에서 도치동까지 4차선 확장 및 포장
	교당	· 방학(1.6), 남울산(2.16), 사창(2.18), 영보(4.9), 노송(4.11), 구의(5.30), 염산(6.14), 제주남원(8), 서진주(10.16), 월래(11.21), 강서(11.26)
	유치원	· 성덕·황등·창평·강화(3.8), 성주·총부중앙(3.9), 이리원광(3.11), 현화·골목(4.1), 종로·누상동새마을(8.3)
	입적 간행	· 김계옥(1.11) · 교화부편수와 『원불교교전』 가로쓰기 초판간행(1.1) · 교화부편수와 『三山宗師文集·六陀圓宗師文集』 4·6판 501p(1.18). · 원불교미술인대학생회 『圓美』 창간(5.10) · 유기현 『脫종교시대의 종교』 신국판 372p(5.25). · 원불교신보사편 『인생 그리고 종교』 신4·6판 238p(7.5). · 교화부편수와 동화집 『하늘나라 하늘사람』 신국판 273p(7.10). · 교화연구소편 『원불교프로그램 모음』 4·6배판 293p(7.10). · 이공전 『大宗經選外錄』 국판 200p(10.26). · 수위단회사무처편 『원불교사상試論』 국판 251p(10.30). · 신흥교학회 논문집 『정신개벽』 신국판 178p(11.1). · 박혜명 신앙실록 3집 『내일을 여는 서원』 4·6판 315p(12.5). · 김일상설교집 『정은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니』 231p(12.25).

		· 문화부편 『새희상 詩歌모음』, 국판 185p(12.31).		
원기 68 (1983) 癸亥		· 교화부, 가로쓰기 『원불교교전』 교 립학교 신입생에게 배포	1.14	· 80년도 우리나라 인구 및 주택센 서스 발표인구 3,743만6천명. 인구 밀도 세계3위
	1.21	· 중앙문화원 개원(원장 이공전)		
	23	· 기획위원회 개최		
	27	· 제1차 유아교육 세미나		
	29	· 제1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2.21	· 전국 유아 교수협의회 발족		
	22	· 대중사 탄신 백주년 및 제2대성업 봉찬회 발족		
	26	· 원광고등공민학교 폐교(40.6.1~)		
	3.23	· 총부 제1차 행정훈련 실시		
	4.18	· 재가교역자 양성 위한 상주선원 제1회 결제식	4. 1	· 검찰, 한일합섬그룹 김근조이사를 고문치사한 김만회경위 구속
	24	· 정주교구 합동법회	13	· 미국 시카고 시장에 최초의 흑인 시장 해럴드워싱턴 당선
	28	· 정산중사 유적지 확보	27	· 한·일 정기항로 재개
		· 청주교구 합동법회 성가대회	5. 5	· 중공여객기 6명의 납치범에 의해 춘천 ○○기지에 불시착
	5. 1	· 전주·부산교구 사상강연회	6.11	· 한국은행 새지폐 발행
		· 대전교구 대법회	20	· 정부, 계룡산 신도안 주민 이주사 업 추진결의
	6	· 동산선원 개원30주년 기념대회	30	· KBS 이산가족찾기 TV생방송 시 작
	20	· 훈련부, 교리통신강좌 《초급·이해 ·연구반》 개설	7.29	· 우리나라 인구 4,000만명 돌파
	6.17	· 재단법인 영모원 인가	8. 6	· 설악산 신흥사에서 새 주지부임과 관련 집단난투로 윤진수승려 사망
	10	· 훈련부, 《통신강좌 교사반》개설	9	· 치안본부, 전국 111개 기도원 전면 수사
	7.26	· 미국 동·서부교구 연합교무회의	9. 1	· KAL기, 소련전투기에 피격, 탑승 자 269명 전원사망
	29	· 문화원, 연화봉 초당터 확보	22	· 대구 미문화원에서 사제폭탄 폭발
	8. 1	· 계룡산하 신도안 주민 이주작업 시작(8.1~84.6.30)	10. 9	· 버마 랭군암살 폭발사건, 정부 각 료 및 요인 17인 사망
	8.13	· 제1차 청운회 훈련		
	17	· 로스앤젤레스교당 청년회 창립		
	9. 9	· 청운회 도덕발양대회(서울)		
	13	· 광주교구 제1회 바자		
	10.30	· 원광상사 창립		
	11. 6	· 성업봉찬 1차사업안 확정		
		· 제1회 문화사업회 운영위원회		

원기 68 (1983) 癸亥	11.12	· 전국대학생연합회 연극공연	11. 8	· 동아건설그룹, 리비아에서 대형 수로공사수주(공사비 32억 9,700만달러) 단일공사로는 세계최대
	12. 5	· 제1회 청년지도자 훈련	11.15	· 북괴군하사 민흥구, 일본화물선에 잠입하여 탈출한 뒤 정치적 망명 요청, 일본 제3국 추방결정
교당	○	· 총부와 원대도로변 담장공사 완공	11.18	· 조계종 이성철종정 종단사태 수습 비상대권을 발동. 총부행정 집행유보
		· 북신·산수(1.13), 강동(1.16), 대치(2.20), 동대전(2.27), 의창(2), 서대전(3.14), 남산(3.17), 남서울(3), 삼기(4.1), 영등포(4.3), 만덕·서이리(4.10), 고흥(5.5), 판교(5.16), 석문(5.22), 영등(6.10), 샌프란시스코(8.13), 농성(10.26), 과천(12.6), 서산(12.16), 여천(12)		
유치원		· 안동(3.26), 한림(3.26), 마산(4.8)유아원, 대구(3.4), 서울(3.9)유아원, 청학(3.10), 남원(3.10), 감곡(4.1), 원평(4.8), 서울(12.2)새마을 유아원		
	입적	· 김인석(1.6), 이성각(1.9), 김경완(1.22), 이선경(2.10), 신명교(3.31), 최인수(4.9), 이철성(6.24), 이윤희(8.16), 김대훈(10.13)		
간행		· 교화부편수와 원불교입문서2 손정운 저 『교리문답』 문고판 125p(4.25).		
		· 박광전 『대중경강의』 국판 332p(5.20).		
		· 손정운 『심고문례집-텃비어 가득 차게하소서』 국판 329p(6.15).		
		· 김정용 『한국미륵신앙의 연구』 신국판(7.30)		
		· 문화부 어린이노래집 『정다운 친구』(10.15)		
		· 이종진설교집 『합장하는 마음』 신국판 309p(10.20).		
		· 이형기유고 『方山文集』 4·6판 250p(11.29).		
		· 청년회 『원청운동의 이념과 실제』 4·6판 246p(12.25)		
원기 69 (1984) 甲子	2. 3	· 원광대 부속치과병원 개원	1. 6	· 조계종 이성철 종정, 종단분쟁을 막기위해 7인제도 개혁위원회 구성
	13	· 영산고등공민학교 마지막 졸업식	13	· 문교부, 로마자 표기를 표음주의 표기법으로 통일 채택
	18	· 삼동야학(교장 박운철) 1회 정토회관에서 80명 졸업식	5. 3	· 교황 요한 바오로2세 내한.
	4. 7	· 광주교구청년연합회 주관 호남지역 원청임원훈련, 지리산에서 개최		· 여의도에서 한국순교자 103위 시성식 집전
	29	· 대전교구, 개교기념민속대잔치	6. 4	· 인도시크교도 성역에서 정부군과 총격전. 정부군, 시크교도 260명 사살

원기 69 (1984) 甲子	5. 5	· 교화부주최 전국어린이 그림잔치	25	· 천주교 노기남 대주교 사망
	6	· 대산중법사 교황 요한바오로2세 면담	7.28	·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23회 하계올림픽 개막
	6. 6	· 교구·기관 테니스대회	8.15	· 독립기념관 신축공사 기공
	22	· 전주소년원 44명 입교식	22	· 교황, 해방신학의 아프리카주 침투를 경고
	23	· 제1기 재가교무자격고시 실시 9명 합격	9. 6	· 전대통령, 일본방문 히로히토천황한·일관계 유감 표명
	30	· 삼동원 대지, 논산군 벌곡면 양산리에 403,149평 매입, 삼동원이전 완료	9. 8	· 보사부, 보신탕 판매금지 지시.
	7.11	· 원광의료원 준공에 따라 동산동구병원을 신경정신과병원(원광대부속제2병원)으로 개원	10.16	· 84년도 노벨문학상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종교지도자 데스몬드엠피로 투투 주교선정
	7.23	· 원광의료원 준공 및 개원	31	· 인디라 간디 인도수상피살. 새 수상에 라지브간디 취임
	8. 2	· 콜롬보 WFB 14에 교단대표 박광전 전팔근 참석	11.15	· 사상 처음으로 남북경제회담 판문점에서 개최
	15	· 교육부, 유아교육자 세미나 개최	16	· 충남 서산 대호방조제 완공
	8.22	· 나이로비 WCRP.4에 교단대표 박광전 전팔근 참석	27	· 미국 FBI, 통일교 박보희 납치되었다 풀려난 사건 발표
	8.29	· 학생연합회 제1회 종합작품전 「草田祭」전시	12. 3	· 인도중부 보팔시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2,000여명 사망
	11	· 감찰원장에 정진숙 임명		
	15	· 충부정문준공식		
		· 원광의료원법당 봉불		
	28	· 뉴욕교당 심원훈련원 봉불		
	12. 3	· 성주 소성동에 사적비 건립		
	7	· 제주 원광한의원 개원		
	교당	· 문화촌(3.25), 신제주(5.10), 당감(5.20), 과천(6.24), 개포(6.28), 강릉(7.110), 북신(12.5), 안산·이천·경장·임피(12.21), 서촌(12,24)		
	유아원	· 청주(3.6), 상주(3.9), 군산(3.18), 북광주(4.17), 약대(3.12), 종로(3.27), 강서(4.12), 좌포(9.4), 동산미술학원(5.1)		
	입적	· 김장권(1.12), 達陀圓이정화(8.23), 融陀圓김영신(12.7)		
	간행	· 제주교당 『週報集－佛地를 向하여』 국판 331p(2.2).		
		· 청년회 격월간 『원불교청년』 4·6배판 8p. 창간(3.1)		
		· 선진문집 『空陀圓 宗教文集』 4·6판 468쪽(3.15)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69 (1984) 甲子	간행	· 청년회 『원불교청년』 4·6배판 8p. 창간(3) · 김일상外편, 『경강설교자료집』 64p (5.10). · 청하문총1 『詞華集—금강산의 주인』 4·6판 289p. · 청하문총3 『일대기—한마음 한길로』 4·6판 333p.(6.20) · 손정운 『소태산대종사 생애와 사상』, 신국판 665p(7.1). · 『승산법사 예화집』 4·6판 200p(8.1). · 원광사편 『원불교자료총서』 전11권(9.1) · 서울교구 교리학교강의 모음 『한동그러운 세계』 국판 331p(9.30). · 崇山교회기념 『한국근대종교사상사』 4·6배판 1,288p(10.30).	
원기 70 (1985) 乙丑	2. 4 2. 7 16 3.22 26 4.10 11 27 5. 5 11 12 24 7. 1	· 제1회 봉공직 전무출신 훈련(~2. 11) · 교립원광중 교리강좌 실시 · 제1회 대의원회 훈련(서울) · 재가교무 8명 첫발령 · 선영열위, 영모묘원(왕궁)으로 이장봉행 · 교화부어린이노래 카세트 제작 · 제1차 훈련자문위원회 · 출가교화단 향단장 선정 · 법사단 승급봉고식(총부·영산) · 초급교무 출가식 · 대구교구 세계평화 및 남북통일기원식 · 영광교구 조국통일 및 교운융창기원 대법회 · 서울 원불교 예술인 공연 · 교화부, 대중사일대기 슬라이드 제작 · 문화부 주최 제1회 숨리어린이 민속큰잔치 · 제1회 민족종교심포지엄, 부산교구 청년회 · 삼동청소년 상담실 정토회관에 개설 · 원광상사, 기관으로 발족 · 교헌개정요강 및 일정확정	1.18 2. 8 12 13 3. 6 10 15 5.28 7.20 8.17 24 27 9.20 22 · 상주선원 제1기 수료식 신한민주당 창당 총재에 이민우 선출 · 김대중 삼엄한 경비하에 미국에서 귀국 ·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 · 3金씨 포함한 정치활동 피규제자 4년4개월만에 전면해금 · 소련의 새서기장 고르바초프 취임 · 김대중·김영삼 해금후 첫 공식회담에서 야권통합 합의 ·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 이산가족 방문단, 예술공연단 8월 15일 교환에 합의 · 경찰 「민중예술」 처음으로 규제 · 고려대 의대 국내최초의 냉동수정아 탄생 발표 · 중공폭격기, 전북 이리시에 불시착 · 남북적십자 9차 본회담 개최 · 남북 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 서울·평양 교환 방문 · 멕시코시티 지진참사로 28,000명 사망 실종

원불교총람 부록편

원기 70 (1985) 乙丑	7.17	· 해산국제 교화운영사업회 발족	10. 2	· 미국배우 록히드는 AIDS로 사망
	8.19	· 만덕산 초선지 기념비 입비		미국에 <에이즈> 공포 만연
	20	· 4축2재 성가카세트 제작	17	· 충주다목적댐 준공
	9.14	· 양주에 한국보육원사 준공	11. 8	· 동두천에 첫 AIDS증세 여자환자 발생
	21	· 교화연구소, 제1차 교리실천강좌		
	10.17	· 이리 삼정원 개원	15	· 호남선 복선화공사 이리·정주간 완공
	11.10	· 제9대 중앙교의회 의장 정도진 선 임	13	· 콜롬비아 네바도델루이스 화산폭 발로 2만여명 사망
	12	· 이리자선원 준공 및 봉불		
	17	· 서울교구 청년합창단, 제1회 등근 소리 발표회		
	29	· 원광의료원 C.T. 도입		
	12.24	· 원로원 준공 개원		
		· 총부·기관 인사이동:영모원장 신 제근, 재가교령 문동현, 서울사무 소장 이철행, 수계농원장 이백철, 문화부장 겸 교화부장 김이현, 산업부장 겸 재무부장 서성범, 훈련 부장 겸 교육부장 김복환, 공익부 장 이해정, 수위단사무처장 김은준		
	26	· 중앙문화원 제1회 출판문화대상 발표 『원불교자료총서』 수상		
교당		· 구성(1.6), 영주(2), 반송(3.3), 문 현(3.6), 동두천(3.24), 반월(4.17), 원주(6.5), 여천(6.6)		
유치원		· 장산도(3.5), 밀양(3.6), 연산(3.5)		
입적		· 김달성(1.8), 하한선(5.27)		
간행		· 『中山文集-호수에 달 잠기듯』 신 국판 422p(1.7).		
		· 박창기 유고집 『默山正師文集』 국 판 276p(1.20).		
		· 청년회 프린트판 『원청프로그램의 실제』 4·6배판 351p(2.1).		
		· 원광문고 I 손정운 『대종사일대기 -萬古日月』 문고판 115p(4.1).		

원기 70 (1985) 乙丑		· 문화부 일역 『요람』(4월) · 박광전 『一圓相과 人間』 신국판 517p(5.5). · 이은석 유고집 『正典解意』 4·6배판 780p(7.1). · 貞和團 『貞和文集－雲兄水弟』 국판 212p(8.15). · 손정윤편 『대산종법사 경륜에 따른 교단의 6대지표』 문고판 137p(8.20). · 서울교구 『한두렷한 누리』 국판 95p(9.30). · 文山 김정용 화갑기념 『한국문화와 원불교사상』 4·6배판 1,179p(10.25). · 김정용 수상집 『창조를 위한 여백』 신국판 310p(10.30). · 유기현편 『한국민중종교 사상론』 신국판 442p(10.10). · 김지정편저 『원불교여성70년사－개벽의 일꾼』 177p(11.10). · 한정원 『선과 무시선의 연구』 신국판 523p(11.10). · 원불교청년회 『원불교청년회 20년사』 4·6배판 675p(12.20). · 훈련원 『청소년문화문헌연구Ⅱ』 4·6배판 604p.		
원기 71 (1986) 丙寅	1. 6 8 16 2.13	· 원도에서 제1기 대학생 선방 개설(10일간) · 제1회 하섬수양원 겨울선 · 전국 20개교구로 분할, 서울·부산·동·서부로 분리. 군산, 목포, 수원, 진주교구 신설 · 교구장 및 일부인사이동. 교구장: 군산교구 이성신, 대구교구 이정은, 대전교구 박성경, 마산교구 김지현, 목포교구 박혜순, 부산동부교구 김대관, 부산서부교구 박은국, 서울동부교구 이광정, 서울서	1.28 2.24 25 3.13 3.28 4. 5	·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발사직 후 폭발, 탑승자 7명 전원사망 · 필리핀 민중 민주화 혁명 군중가세 · 필리핀 마르코스 미국 망명 · 최은희·신상옥 북한 탈출 · 고려대 28명의 교수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란 제목으로 시국 선언발표. 이후 전국 대학으로 확산 · 교황청, 해방신학 주창자인 보프신부의 함구령 해제

원기 71 (1986) 丙寅	2.13	부교구 양혜경, 수원교구 이정무, 이리교구 오회원, 정주교구 정경호, 진주교구 김성주, 춘천교구 한재선, 일본교구 박제권, 기관: 원광요양원장 유정완, 삼정원장 김서오(이리보육원장 겸임) · 법은사협회, 중앙요양원 신축준공	4. 7	· KBS시청료 거부운동 전국 확산
	14	· 교무 40명 교감 발령	8	· 고대 김용옥교수 「한국의 오늘을 사는 한 지성인의 양심선언」 발표후 교수직 사임
	3. 3	· 영산선원 4년제 개편후 첫 결제	26	·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재발생, 방사능 대량누출로 13만명 대피
	4. 8	· 원불교출판사, 원광사와 별립 독자 운영(∼73. 1)	28	· 서울대생 2명 「전방입소결사반대」 외치고 분신자살
	5. 6	· 이리시 신동 73-8번지 소재 기독교 병원 인수. 1년뒤인 8758 원광대부속 제3병원(신소아과병원)으로 개원	5. 3	· 신민당 인천지역 대통령직선제 개헌 추진대회전에 일부재야단체 인사를 포함한 군중의 격렬한 시위로 172명 연행
	5. 9	· 원의회에서 총부유지 및 해외교화개척, 교역자 생활안정을 위한 「圓昌會」 설립 결의	20	· 서울대 5월제 행사에서 문익환목사 연설도중 이동수군 석유뿌리고 분신자살
	6.11	· 수위단위, 법회식순 일부 수정	7. 3	· 부천경찰서에서 권인숙양 성고문 당했다고 폭로고소, 인권문제 야기
	6.17	· 제3차 아시아 종교자대회(ACRP.) 서울에서 개최	28	· 고르바초프 소련서기장 블라디보스톡에서 소련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아시아 안보구상 제의
	21	· ACRP.대표단 33명 성지순례차 중앙총부 방문(∼22)	8. 4	· 독립기념관 개관 11일 앞두고 화재 발생.
	24	· 원창회(회장김윤중교정원장·당연직) 훈련	9. 7	· 해인사 전국승려대회에서 불교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25	· 박광전 WCRP. 중공 베이징 실행위원회 참석	11	· 서울 개운사에서 「불교관계악법 개선과 폐지에 관한 운동 추진위원회」 결성
	28	· 원불교한인사회(회장 박병렬) 창립	9.20	·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 서울에서 개최(∼105)
	7.15	· 제1회 서울서부교구 남자출가교화단 교리토론회		· 정부 28개 부실기업 정리
	8.21	· 중앙훈련원에서 교립고등학교 학생 간부 훈련(∼22)		· 신민당 헌법특별활동 중단 선언
	10. 6	· 전주교구청 낙성봉불		
	11.19	· 제1회 교육심의위원회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71 (1986) 丙寅	11.27	· 네팔개척 W.F.B.I.S에 교단대표 참석	10.28	· 성 1,288명 구속(~30)
	12. 6	· 청운회 연합이사회에서 「보은동산회」 발족	30	· 「북한 금강산댐 건설 중지하라」 건설부장관 대북성명 발표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산하 자선기관 연합회 결성	11. 4	· 미국 민주당,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석 다수 확보
	19	· 인사이동 : 수위단 중앙에 박장식, 교단창립 제2대 및 대중사탄생 백주년성업봉찬회 회장 이공주, 일본교령 이운권, 교정원부원장 김인용, 원광대총장 김정용 선임	16	· 북한측 휴전선 대남방송에서 김일성 사망설 발표로 세계이목 집중
	교당	· 대천(1.16), 옥포(1.18), 부평(2.16), 명륜(2), 서김해(3.9), 산청(4.7), 조치원(4.24), 가락(5.11), 홍성(5.18), 성산(5.22), 온천(5.27), 동해(6.9), 유린(6.15), 대천(10.3), 성지곡(10.12), 광양(12.19)	25	· 88학년도 대입제도, 선지원후시험, 전·후기별 공동출제, 논술고사 폐지 등 개선안 발표
	교우회	· 효성여대(3.23), 기전여전(4.16), 제주전문대(6.5), 관동대(6.13)	12. 4	· 중공 安徽省 省都 合肥에서 학생 민주화데모 촉발 이후 요동·길림·흑룡강성등 東北 3省을 제외한 전국 各省으로 확산
	유아원	· 울산(3.6), 강남(3.7), 상주(7.11), 금산(9.6), 우아새마을(3.5), 유린새마을(6.15)		
	입적	· 崇山박광전(12.3), 德陀圓정양선(3.29), 고혜선화(11.17), 오철환(3.29)		
	간행	· 간사회 회지 『해돋이』 국판 105p 창간(1.1)		
		· 유기현 『한국신흥종교』 신국판 412p(3.10).		
		· 불법연구회 會說集 『惠山文集-밋은東方에서』 신국판 470p(4.28).		
		· 원광신서1 라다크리슈난 『전환기의宗教』 4·6판 238p(6.5).		
		· 원광사 『사진으로 본 오늘의 원불교』 국배판 120p(6.15).		
		· 대신종법사 『교리실천도해』 국배판 54p(6.24).		
		· 원광문고2 김영수 『원불교사적-새 회상 거룩한 터』 문고판 240p.		

원기 71 (1986) 丙寅	간행	· 김정연여사의 신앙과 삶 『구도의 길로 매진하세요』 국판 149p(7.31). · 박재윤시집 『한 생 벗겨지는 소리』 국판 200p(8.21). · 월간 『원광의료원소식』 타블로이드 판 창간(10.1) · 이공주편 『원불교 제1대창립유공인 역사』 전6권 · 김인강 설교집 『은혜와 고통으로 크리라』 신국판 229p(10.26) · 동인지 『靑林』 문고판 103p(12.28). · 교화연구소 『가정교화자료모음』 4·6배판 409p.		
원기 72 (1987) 丁卯	1. 9 25 2. 1 3. 3 19 4.25 27 5. 8 14 24 6. 5 18 25	1. 인사이동. 기획실장겸 문화부장 조정근, 광주교구장 유성일, 전주교구장 송영지, 삼정원원장 강운상 2. 서독 프랑크푸르트교당 교무로 최성덕 부임 3. 일본교구 교구장에 박제권, 관동교당 박삼순교무 부임 4. 동산선원 첫 초급교무훈련 실시 5. 교단 제3대 설계특별위원회 발족보고 및 1차 본회의 개최 6. 숭산기념사업회 발족 제1차 위원총회 7. 원광사진동호회 제1회 사진전시회 문화회관에서 8. 원광대 부속 산·소아과 병원, 구 기독교병원으로 이전 개원 9. 서울교구, 원광아동상담실 개설 10. 서울회관, KBS국악관현악단 초청 성가특별연주회 11. 원광대 박물관 신축개관 12. 교무 240명 6·18, 4·13조치철회, 민주개헌 등 6개항 촉구하는 시국성명 발표하고 총부대각전에서 민주화실현 위한 철야기도회 13. 서울동·서부교구, 한강 水沒有主無主孤魂천도제	1.14 17 21 2.12 4. 8 13 19 5. 1 10 6. 9	· 서울대생 박종철군 경찰의 물고문으로 질식사. 이후 전국 각계 각층에 인권문제로 확산 · 부산형제복지원생 강제노역, 원생구타치사로 원장 등 5명 구속 정치문제야기. · 북한주민 김만철씨일가 11명 정치적 망명요청 일본상륙 24일만에 대만경유 한국도착 · AIDS항체 양성반응자 윤모씨 내국인중 첫 사망 · 김영삼·김대중 신당 창당 선언, 신민의원 73명 탈당 · 전대통령, 개헌논의 유보 발표(4.13호헌조치) · 범양상선 박건석회장 유서남기고 투신자살, 정치문제로 비화 · 통일민주당 창당, 총재에 김영삼 선출 · 섬머타임제 실시 · 연세대생 이한열군 학내시위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중태

I. 원불교사 연표

원기 72 (1987) 丁卯	6.30	· 한마음운동 청원인 152명, 교정당국에 교단발전 위한 저해요인 해명 요구	6.10	· 민정당전당대회개최, 차기대통령후보로 노태우 대표위원 지명
	7. 3	· 동산선원, 동산훈련원으로 개칭		· 국민대회 경찰봉쇄, 전국 18개 도시에서 가두시위, 이후 연일 전국 주요도시에서 민주화 요구 격렬한 시위
	8	· 교학과생 3인 선천성심장병어린이돕기 국토순례 대행진(~8.10)	29	·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 8개항 선언(6·29선언)
	10.12	· 중앙신탁, 사회교육센터 개설	7.10	· 김대중 등 2,335명 사면 복권
	17	· 원광대 변산에 임해수련원 준공	15	· 대만, 대중공 개방
	11.16	· 교단제3대를 향한 출가교역자 총화 모임		· 태풍셀마 집중호우 전국강타, 사상 유례없는 피해 초래
	12.17	· 교헌개정 심의 확정	31	·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순례자와 경찰 충돌 402명 사망
교당		· 무동(3.25), 부여(3), 일본관동(3.28), 동안양(4.23), 필라델피아(8.2)	8	·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등 근로자들에 농성돌입, 이후 전국적으로 노동쟁의 노사분규 확산
입적		· 황명조(2.20), 지해원(3.7), 誠山성정철(4.26), 이정인(7.3), 김광창(11.17), 亭山김홍철(12.15), 이정만(12.21)	15	· 독립기념관 개관
간행		· 凡山文集 『凡凡錄』 국판 841p(1.26).	29	· 사이버종교, 오대양주식회사 사장 박순자와 추종자 32명 집단 변사사건
		· 원광문고3 김일상 『정산종사의 생애와 사상』 문고판 222p(4.28).	9. 7	· 동독공산당 서기장 호네커 서독방문(~11), 양독관계 새 지평개막
		· 양해관 『부모육강의-눈이 큰 아이, 귀가 큰 어른』 신국판 213p(5.20).	9.29	· 양승씨 후보단일화 담판 결렬
		· 『원광보전전문대10년사』 국판 396p(5.15).	10.19	· 미·뉴욕 증시 주가 대폭락
		· 김인강 『심고문 모음-큰 힘 되게 하소서』 228p(6.18).	20	· 일본, 다케시타 내각 출범
		· 김홍철편 『한국 지성이 본 원불교』 국판 417p(6.20).	25	· 중공당 제13차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총당서기에 趙紫陽선출(~11.1)
		· 아타원 전팔근박사 화갑기념 『원불교사상론 집』 국판 1,043p(6.30).		·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93.1% 찬성으로 직선제 개헌안 확정
		· 이광정편 『전등요결』 문고판 55p(7.5).	12	· 평민당 창당대회, 총재·대통령후보로 김대중 추대
		· 교화부 어린이교리학습서 『고마우신 대종사님』(7.21)		
		· 김찬 만화 『효부가 된 며느리』(7.25)		
		· 서울지구 대학생연합회 지도교무편 『학생운동의 이해를 위하여』 4·6배		

원불교총람 부록편

원기 72 (1917) 丁卯	판 74p(10.15) · 손정윤편 『허공 저 달빛』 국판 313p(115). · 교화부 어린이교재 『대중경 이야기』 5권(11.30) · 『원광대학교 40년사』 4·6배판 1, 300p(12.3). · 부여교당 『白江』 타블로이드 4명 창간(12.15) · 원광문고4 『대산종법사 신년법문모음-하나의 세계』 문고판 196p(12.20). · 박혜명 신앙실록 제4집 『생명의 의미 깨달으며』 국판 336p(12.30).	10.29 12. 2 12. 3 12. 8 16 20 22	· KAL기 버마상공서 추락, 탑승자 115명 사망 · AIDS 전세계에 급증 71,551명 · 중부고속도로 개통 · 미·소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 협정 · 제13대 대통령선거, 노태우 당선 · 필리핀 국내여객선, 유조선과 충돌 대참사 · 허영호, 에베레스트 정상 무산소 등정
------------------------------------	--	---	--

II. 各種法規

1 역대 불법연구회 규약 수록

가. 불법연구회 규약(최초 제정)

(원기9년 4월 제정)

〈本會의 由來〉

본회의 유래는 조선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 거주하시던 박중빈선생께서 불법의 진리를 연구하온 바 정신수양 하기를 주장하시며 사리연구 하기를 주장하시며 모든 일에 취사하기를 주장하시며 신·분·의·성으로 진행력을 삼고 불신·탐욕·나·우로 사연건을 하여 일업난대에 일오고 보면 연구와 수양을 뜻치 아니 하시며 일잇난대를 당하고 보면 취사를 뜻치 아니 하시며 의식생활상으로도 구속이 업시 엇더한 직업이든지 직업을 뜻치 아니하시며 또는 대정 5년도에 불법연구기성조합을 설치하시니 동지자난 8, 9인이요 저축금은 7~8,000원이라 매일 조합원이 중빈선생의 지휘를 받아 낮에난 토지를 개척하여 생활의 근원을 삼고 밤이되면 불법의 진리를 연구하여 지식의 근원을 삼음으로 안락한 생활이 되어 모든 일에 의뢰가 없어지고 자유와 자재를 세우며 부처님의 일의신 복족의 근원과 혜족의 근원을 이해하여 모든 사람의 이목을 열어 알게함이 있음으로 여러사람이 상종됨에 자연 불법연구회가 성립되었다.

〈本會의 趣旨說明〉

혼몽중에 잇든 우리. 취중에 잇든 우리. 사농공상의 차서잇난 교육을 밋지 못한 우리. 상당한 사람을 쓰지 안이하고 권세와 재산형식을 쓰는 시대에 잇든 우리. 외방문명과 물화를 보지 못한 우리. 발원업고 연구업난 우리. 직업없이 놀고 먹든 우리. 매일 수입지출을 알지 못하고 예산없이 지내든 우리.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물론이고 융통하여 믿어 나오난 종교가 업든 우리. 문벌잇고 가세잇고 문필이 유여한 사람이라야 종교인이라 하든 우리. 천인이면 천마음이 각각이요 만인이면 만마음이 각각된 우리. 박애심이 업고 합자심이 없고 감화심이 업든 우리. 일만 물건의 근본과 곳을 알지 못한 우리. 일만인의 시종과 선후를 알지 못한 우리. 선악 귀천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시비와 이해를 알지 못하고 한탄 원망에 굶쳐든 우리. 직심잇고 覺心잇난 우리로서 감각업난저 무정지물의게 소원 앙축하든 우리. 나의 일신하나도 제도 못한 우리로 여러 사람의 호주되야 여러 사람의 전정을 망해준 우리. 자리아타가 화하지 못하

야 내가 리를 취하면 저 사람이 해가 되고 저 사람이 리를 취하면 내가 해를 입난고로 서로 상충하여 서로 의리가 끈어지고 자행 자지로 백발이 다 된 우리. 우연하신 천지의 은혜신가. 생육하신 부모의 은혜신가. 상조하는 동포의 은혜신가. 만민을 교화하는 법률의 은혜신가. 이제 이미 次序잇난 교육이 생겨나서 상당한 교육자로 모든 법을 유지케 하며 종교 도학으로도 유무식 귀천 차별이 업시 융통하난 모든 교회가 방방곡곡에 라열하여 모든 사람을 화하게 하며 전문이 서로 생겨나서 감화심도 생겨나며 박애하여 합자심도 생겨나며 발원업난 자가 발원도 차차 새겨나며 의식용도에 수입 지출 모르난 서람이 수입지출도 차차 알아지며 배우난 성심과 가라치난 마음이 화하여 변화기질이 차차 되야지나 아직도 유감되난 바는 신선한 생각, 새로운 태도가 모든 세상에 골라지들 안이하며 또는 수양력이 충분치 모함인지 분수 직하 난대에 안정한 태도가 적으며 또는 연구력이 완실치 못함인지 사실을 눈코 혀위에 걸이난 바가 만흐며 또는 응용하난데 주의심이 적어서 그러하난지 실행하난 바가 드무니 교육을 받지 못하난 청년이며 변경할 수 업난 우리 교인은 화피초목회급만방 이 시대에 자행자지 랑유세월로 무료도일을 하지말고 정신이나 수양하여 부처님의 일의신 생명의 생사업다는 리치와 복죽혜죽이라 하난 리치와 고되고 락되난 리치를 녀넉히 연구하여 우리의 기저동작 응용할때 취사하기를 단련하여 실행을 얻은 후에 수양의 안정하일난과 연구의 진리엇난 일과 취사의 실행엇난 일을 모든 우리 동지자의게 광고하여 괴로운 고는 다- 바리고 즐거운 락으로만 피차가 업시 영원토록 안락하기로 본회가 성립된바 「취지, 규약, 경전을 연습하기 위하여 교무부를 설립하고 일과 리치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부를 설립하고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부를 설립하고 공부인 무산자를 위하여 농업부를 설립하고 공부인 공부하난 비용과 회원의 자녀교육비와 본회를 창립하난 비용에 충용하기 위하여 저축조합부를 설립하오니 본회 제씨는 유시 무종이 안되도록 모든 욕심과 모든 생각과 모든 정성을 이에 다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모든 일에 표준이 되야 주시기를 빌고 비나이다.」

〈本會의 規約〉

第1章 總 則

제1조 본회란 불법연구회라 칭함

제2조 본회란 정신을 수양하며 사리를 연구하며 작업을 취사하기 위하여 신·분·의·성을 세우고 불신·탐욕·나·우를 제거 하기로써 목적함

제3조 본회란 본회의 목적을 찬성하난 자로써 조직함

제4조 본회의 본부란 전라북도 익산군 북일면 신동리 344번지의 2에 치함
단, 필요한 지방에 지부를 설립함도 득함

제5조 본회란 좌의 철부를 치하야 부무를 분장함

1. 서무부의 직무

직인을 보관하며 사회를 응접하며 회금을 수입하야 각방면에 지출하며 다른 부에 관계치 않는 각항 사무를 처리함

2. 교무부의 직무

본회의 취지, 규약, 경전을 가리쳐 연습식하며 동하 6개월에 공부인의 일기를 감정하며 연설과 산술을 가라치며 필요한 역사를 강습하기로 함.

3. 연구부의 직무

염불도 하고 좌선도 하여 정신을 수양케 하며 각항 문목을 연구케 하고 연구한 문목을 감정하여 주며 그 문목으로 강연하여 연마 하기로함

4. 상조조합부의 직무

조합금을 증수하여 토지를 매입하며 자본을 확창하여 장차에 조합원의 공부시 비용에 곤란함이 업도록 하며 학교를 설립하여 조합원의 자녀를 교육하기로 함.

단, 자본금이 확창하기 이전과 조합 성립한도가 되기전에난 지불하지 아니하기로 함.

5. 농업부의 직무

농업에 근무하며 농업원의 매년 수입지출을 대조하여 상조조합에 저축하며 농무인 자본업난자를 보호하기로 함

6. 식사부의 직무

철부내 거주인과 각처에서 내왕인의 식사를 공급함

7. 세탁부의 직무

철부내거주인과 각처에서 내왕인의 의복을 제조, 세탁 하기로 함

第2章 任 員

제6조 본회의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좌의 임원을 치함

1. 총재 1인 2. 회장 1인 3. 부장 7인 4. 평의원 약간인 5. 간사 약간인

제7조 총재는 불법에 정통하고 범사에 모범이 될만한 자로 총회에서 선정하여 본회를 지도 감독하기로 함

제8조 회장은 불법에 독실하고 매사에 주밀하며 공사에 전력하여 본회를 관리할 만한 자로 총회에서 선정함

제9조 평의원은 각처 회원내에 시비리해를 분간하며 공의시에 언론할만한 자로 총회에서 선정함

부장급 간사난 출가회원 내에서 선정이되 공사에 전력하며 자기의 임무를 능히 처리 할만한 자로 평의원에서 추천하여 총재와 회장이 임명함

제10조 총재와 회장의 임기는 3개년으로 정하고 부장급 간사난 2개년으로 정함

단, 보결로 피임된 자는 전임자의 잔기로 함

제11조 회장은 총재의 명을 승하여 회무를 장리하며 회의에 의장이 됨.

단, 회장이 사고가 유한시난 서무부장이 차를 대리함

부장은 총재와 회장의 명을 승하여 부무를 처리함.

평의원은 중요한 사항을 평의함. 간사는 부장의 명을 승하여 회무를 처리함

第3章 會 議

제12조 회의난 좌의 4종으로 정하고 회장이 此를 소집함.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평의원회 4. 월례회

정기총회는 음력 3월 26일, 임시 총회급 평의원회는 필요로 인하시, 월예회난 매월 3·6일로 개최함

제13조 총회급 평의원회는 총원 반수이상 이 출석치 안이하면 의사 개최함을 부득함.

단, 동일사항에 대하여 소집 하기를 再度에 及하되 출석 반수에 미달 한시난 此限에 不在 함.

제14조 총회급 평의원회의 의사난 출석원 반수이상 동의에 의하여 결정함.

단, 가부 동수되난 시난 출석원 반수이상 동의에 의하여 결정함.

단, 가부 동수되난 시난 결정 한바에 의함

第4章 會員의 權利 義務

제15조 본회원은 좌의 권리와 의무가 유함

1. 임원의 선거급 피선거 2. 회의 비부장부난 하시든지 열람함을 득함. 3. 회의 유지비를 담당할사 4. 본 규약을 준수할사.

第5章 加入及 脫退

제16조 본회외에 가입코자 하난자난 좌기 양식 신입서에 입회금 1원을 첨부 제출함을 요함

加入 申入 書				
본인이 귀회의 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코자 입회금 1원을 첨부 신입함.				
년	월	일		
본적지	도	군	면	리
현주소	도	군	면	리
				씨명 ㉠
불법연구회		귀중		

제17조 본 회원은 회비로 년액 3원 40전을 부담할 자로함 본조의 회비 3원 40전은 춘기 음력 3월 10일, 추기 10월 10일에 납입하되 일기분에 1원 70전씩 분납하기로함

제18조 본회에 가입한 자난 좌기 양식 회원증을 교부함

재	호			
군	면	리		
				씨명
會員之證				
년	월	일		
불 법 연 구 회				

제19조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시에 10계문과 3강령, 8조목과 술성요론과 재가 응용주의법과 출가공부인 책임사항을 전수함

II. 각 종 법 규

제20조 좌기에 해당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함으로 회장이 평의원의 가결에 의하여 제명 하기로 함

1. 회비 1개년이상 납입치 안이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예회에 불참한 자 3. 본회의 제면을 오손케 한 자 4. 본 취지와 규약을 3차 위반한 자.

第6章 會計及 其他

제21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양력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0일로 함.

제22조 본회의 유지비난 좌로써 충용함

1. 입회금 2. 년연금 3. 의연금 4. 농작식리금

〈本會의 細則〉

1. 說法禮式

1. 법사가 설법 할때에 시자가 먼저 설법전에 법상을 차리고 鐘頭는 法鍾을 치면 각방 대중이 설법전으로 모은 후에 시자가 법사전에 가례배하고 설법하기를 고희

2. 법사가 출석하여 법상에 올으시면 시자는 법사에게 茶를 올리고 마치면서 대중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함

3. 법사가 법을 罷하야 법상에 나리시면 대중이 법사의 설하신 법을 들어 서로 연습하고 罷席하기로 함

2. 會員奉名 順序

1. 회원이 입회한 후로 연구를 영원히 하기로 하면 법명 바깥다는 좌기 양식 청구서를 제출함

法名 請求樣式

본인이 본회의 취지와 규약을 준수하여 연구를 영원히 하기로 맹서하온바 만일 취지와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제명을 하여도 여한이 업사오니 법명을 정하여 주시기를 요구함

		년	월	일
본적지	도	군	면	리
현주소	도	군	면	리
출생년월일				
신청인		씨	명 ㉠	
보호인 주소	도	군	면	리
보호인		씨	명 ㉡	
불법연구회교무부		귀중		

2. 본회에 법명을 청구한 자란 左記 樣式 法名證을 交付함

제	호
법명하모	
출생년월일	
출명년월일	
전라북도 익산군 북일면 신통리	
불 법 연구 회 교 무 부	

3. 起寢食事及 清潔規約

1. 오후 10시에 鐘頭가 침종을 치면 각방 대중이 일제히 침소에 들기로 함
2. 오전 5시에 鐘頭가 기침종을 치면 각방 대중이 일제히 일어나 2시간 공부하고 각기 사무를 집행 함
3. 대중이 밥을 먹기로 하면 각기 명패를 밥하기 전에 식당에 걸기로 함
4. 식당 주인은 밥할 때에 밥먹을 사람을 찾지말고 식당에 명패만 조사 함
5. 밥을 안 먹기로 하면 식당에 명패를 걸지 안이 함
6. 식당주인은 대중의 밥을 하되 대중의 소원을 좇차 등수를 정하여 차례대로 주기로 함
7. 밥먹은 사람은 식가를 지체함이 업시 지불하기로 함
8. 식당 주인은 밥을 식당에 設席하고 식종을 치면 각방 대중이 일제히 식당에 출석 함
9. 매월 3·6일로 청결을 하되 청결조사원이 일일검사 함

4. 任員選舉規約

10. 회무소나 연구소나 임원이 대소가 있으니 중임은 범강항마부에 등록한 연구인에서 선정하고 보통 임원은 특신부이상과 유공안과 시봉안과 혜시안과 저축안에 등록한 사람으로 자격을 擇取하여 선정하기로 함

5. 事務人處理事項

1. 공부할 비용금이 염여 업난 사람이 공부를 하기로한바 사무불 사람이 무하야 사무를 보기로 하면 부득이 형편에 의지하야 그 사무를 처리할만한 사람이 잇난후에 그 사무를 전임하고 공부를 하되 그 사무 본 임금은 사업 성적에 기재하기로 함
2. 공부할 비용금이 업난 사람이 공부하기 위하야 사무를 보기로 하면 사무를 보되 그 사무 계속 할만한 사람이 잇고 그 임금이 공부 비용이 될만한 형편을 따라 공부 비용을 회중에서 지불하면 그 사무를 전임하고 공부하기로 함

6. 賞罰規約

1. 상이라 하는 것은 보통부에 등록한 연구인이라도 진행한 정도를 보아서 각 명부에 대조하야 적당한 대로 이상명부에 승급하기로 함
2. 벌이라 하난것은 범강항마부에 등록한 연구인 이라도 진행한 정도를 보아서 본회의 규약과 제문을 위반한 죄가 1, 2, 3차에 범하야 改過함이 업고보면 각 명부를 대조하야 적당한

II. 각 종 법 규

명부에 등을 내려주든지 나뉠 등이 없으면 할명하기로 함

3. 割名하야 나간 사람이 상이한 改過를 하고 개과한 증거가 자기 家中에 나타나며 동리에 나타나며 본회에까지 나타난후에 자기가 와서 입회 하기를 청구하면 허가하기로 함

7. 任員名義順序

1. 총재 1. 회장 1. 서무부장 1. 교무부장 1. 연구부장 1. 농업부장 1. 상조조합부장 1. 식사부장 1. 세탁부장 1. 신분검사원 1. 문부검사원 1. 재무 1. 서기 1. 빈객응접원 1. 감원 1. 간병 1. 가산수찰원 1. 物品藏主 1. 공양주 1. 물품구입원 1. 종두 1. 監浴 1. 水火監任 1. 會中使者

8. 會館內 各房名號

1. 조실 1. 설법전 1. 대방 1. 회의실 1. 서무부 1. 교무부 1. 연구부 1. 농업부 1. 상조조합부 1. 식사부 1. 세탁부 1. 응접실 1. 대중각침실 1. 勞動休息通用室 1. 治病室 1. 열반실

9. 會館內 居住人出入規約

1. 회관내 거주인이 출입을 하되 회중주임의 허가를 얻은 후에 출입하기로 함

10. 選入及 罷禪日字

1. 입선정한 일자는 매년 음력 5월 6일에 결재하야 동년 8월 6일에 해재하고 당년 재회는 11월 6일에 결재하야 익년 2월 6일에 해재함

2. 연구인이 입선을 하기로하면 40일전에 선원에 통지하야 허가를 득 함

3. 연구인 회집은 결재일자 5일전으로 함

11. 入禪時禁忌事項

1. 자기 家中 관계인의 허가가 무한자

2. 자기 의식비용 준비가 무한자.

3. 鮮漢文內에 일건도 무한자.

4. 당시 법률에 범죄자

5. 전염악질이 유한자.

연구인 입선시 家中 관계인 허가양식

許 可 證 書			
불법연구에 대하여 본인의 子면 子妻면 妻隨其 關係位次하야 記載 3개월 家中을 여의고 선 원에 입선하여도 이의가무하기로 허가함 년 월 일 도 군 면 리 씨 명 ⑤ 불법연구회 귀중			

12. 研究人入禪後禁止事項

1. 대관사외에 서신래왕 금지
2. 대관사외에 본가출입 금지

13. 解制時檢査規約

1. 연구인의 3개월 수양력을 검사하며 연구력을 검사하며 마음작용과 육신작용을 검사하며 3개월 비용금을 검사하여 검사증을 연구부에 접수 함

14. 研究人出家規約

1. 연구인이 본가를 떠나 선원에 영원히 거주하기로 하면 12개월 입선후에 회중 공의를 어 더 출가원서를 받기로 함
2. 출가원서를 제출 할때에 출가인의 생장의 시종을 알만한 자로 보증인을 세우고 자기 생활 방침의 사유서와 당인의 관계인 허가증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만일 일건이라도 부족한 경우가 잇고보면 출가원서를 반려 함

나. 불법연구회 규약

(원기19년 3월 개정)

〈本會의 由來〉

前과 동일하므로 수록을 생략함

〈本會의 趣旨 說明〉

前과 동일하므로 수록을 생략함

〈本會의 原則〉

第1章 總 則

제1조 본회는 불법연구회라 칭함

제2조 본회는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으로 공부하여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로써 제생의 세하기를 목적함

제3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찬성하는 자로써 조직함

제4조 본회의 본부는 전라북도 익산군 북일면 신흥리 344 번지의 2에 치함 단, 필요한 지방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립함도 得함

第2章 機 關

제5조 본회는 左의 2院과 10部를 치하여 회무를 分掌함.

教 政 院

교정원은 본회공부계에 속한 좌의 교무부 연구부 통신부 감사부 사부를 강라하여 공부계의 일체사무를 총관함

庶 政 院

서정원은 본회사사업계에 속한 좌의 서무부 상조부 산업부 공익부 육영부 공합부 육부를 강
라하여 사업계의 일체사무를 총관함

第3章 各部의 職務

제6조 각부의 직무는 여좌 분담함

1. 教 務 部

교무부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장려감독하며 법실 역사 과학서와 각종예문을 편집하고
회원입회 수속과 특별 통상회원 각부급 단명부와 일체도서를 관리하며 공부의 승강급과 각종
예식을 관리함.

2. 研 究 部

연구부는 공부인의 감각·감상·간묵·의견·처리안 등을 모집편성함.

3. 通 信 部

통신부는 본회 공부 사업 양방면의 사업재료와 진행상황을 수집하여 기관지를 발행하며 기
타 타부에 속치않은 본회 각종 통신사무를 관리함.

4. 監 督 部

감사부는 일반회원의 공부사업의 선불선을 조사하여 상벌을 전형함.

5. 庶 務 部

서무부는 회산을 관리하고 세입세출급 경비예산과 회원의 사업성적을 편성하며 타부에 속
치않은 일체사무를 관리함.

6. 產 業 部

산업부는 농공상의 각종 기관을 설치하고 본회 무산공부인이 그 업에 종사하여 그 수익으
로써 정기공부에 전력케함

7. 相 助 部

상조부는 본회 각부의 자산과 경비예산금을 저축식리하며 회원의 근검저축을 장려하여 공
부·사업·생활·삼방면에 편리를 득케함

8. 公 益 部

공익부는 본회신제년 사기념과 제사독기념에 대한 헌공비와 혼례급상장시 절약금이며 성수
의 수익과 불은미 등 기타 소비절약을 장려하여 그 저축금이 상당할 시는 양노원 양유원 병
원 기념관등을 설립하여 본회 유공한 무자력자를 보호하기로함

9. 育 英 部

육영부는 회원의 매월 단금과 매년 공동 작농을 장려하여 그 저축금이 상당할 시는 본회의
교리와 제도를 발전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에 주력하기로 함.

10. 供 給 部

공급부는 회원내 거주인과 각처에서 내주인의 의복을 제조선택하며 식사를 공급함.

단, 각부의 강령직무는 이상과 여히 정하였으나 하부를 물론하고 부의 기관이 확장할 시는
부내의 세밀규약은 별로 제작함을 득함.

第4章 任 員

제7조 본회의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좌의 임원을 치함.

1. 중법사 1인 2. 회장 1인 3. 원장 2인 4. 부장 10인 5. 순교무 약간인 6. 교무 약간인 7. 순교 약간인 8. 간사 약간인 9. 총대 약간인

제8조 중법사는 도리에 정통하고 법사에 모범이 될만하며 일반회원이 존립을 올릴만한 인물로 총대회에서 선정하여 본회공부 사업 양방면을 지도감독함.

제9조 회장은 불법에 신성이 독실하고 매사에 주밀하며 공사에 전력하여 중법사의 사무를 능히 보좌할만한 인물로 총대회에서 선정하여 중법사계서 임명함.

제10조 원장은 공사에 전력하며 능히 자기의 임무를 이행할 인물로 총대회의 선정과 중법사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회장이 임명함

제11조 부장 순교무 교무는 자기의 임무를 이행할 인물로 중법사와 회장의 허인가를 득하여 부장이 임명함.

제12조 순교급 간사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부장이 임명함.

제13조 총대는 각호 회원내에 시비이해를 분간하며 본회 전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할만한 자로 해지방 회원이 선거함.

단, 각지방에 대한 총대의 인원정함과 지방회원의 총대선거방식은 중법사계서 수기지정함.

제14조 각지부장급 출장소장의 선거는 해지방 요인회의 보고를 득하여 중법사와 회장의 인가로 원장이 임명하고 기이하의 임원은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부장급 출장소장이 임명함.

제15조 중법사의 임기는 하시든지 그 임무를 대행할 자격자가 유할 시 교체하며 회장 원장 부장 순교무 교무의 임기는 총히 삼개년으로 하고 순교급 간사는 이개년으로하되 지부급 출장소임원의 임기도 총부임원과 동일함.

단, 중법사 이하의 임원도 총지부를 물론하고 그 임무를 대행할 자격자가 무할 시는 편히 선거를 요치않고 仍任함을 득하며 또는 하임원이나 補欠로 被任된 자는 전임자의 殘期로함

제16조 회장은 중법사의 명을 승하여 회무를 장리하며 회의에 의장이됨.

단, 초창기에 처하여 회장의 자격자가 무할시는 명예회장을 치하여 此에 대하고 기 사무는 중법사계서 親覽하시며 若會長이 사무 집행중 사고가 유할 시는 2원장중 책임자가 此를 대리함.

원장은 중법사와 회장의 명을 승하여 원무를 장리함.

부장 순교무 교무는 원장의 명을 승하여 임무를 처리함.

순교급 간사는 부장의 명을 승하여 임무를 처리함.

總代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審議함

第5章 會 議

제17조 회의는 左의 삼종으로 정하고 회장이 此를 소집함.

1. 정기총대회 2. 임시총대회 3. 월례회

정기총대회는 음력 3월 26일 임시총대회는 필요로 인한 시일 월례회는 매월 26일로 개최함.

단, 도회지의 회당에 한하여는 중법사의 인가를 득한후 월례회를 매월 일요일로 개최함을

得함.

제18조 총대회의 의사는 총원 반수이상인 출석치 아니하면 의사개최함을 부득함.

단, 동일사항에 대하여 소집하기를 재도에 급하되 출석 반수에 미달할 시는 차한에 부재함.

제19조 총대회의 의사는 출석원 반수이상 동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약가부동수 되난 시는 의장의 결정한 바의 의함.

단, 공부 방면에 대한 법규제정과 賞罰감정은 이상 각회의를 경유치 않고 종법사의 지중으로 함을 得하며 총대회에서 결정한 안이라도 종법사의 승인을 부득할 시는 기안건을 편히 총대회에 회부하여 재심의함을 명함.

第8章 會員의 權利義務

제20조 본 회원은 좌의 권리와 의무가 유함.

1.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 2. 회의 비대장부는 하신든지 열람함을 得함. 3. 회의 유지비를 담당함 4. 회의 규약을 준수함 5. 매인하구인식 지도함.

第7章 加入及 脫退

제21조 본회에 가입코조 하난者는 별지신입서에 入會金壹圓을 첨부 제출함을 요함.

제22조 본회에 가입한 회원내에는 특별 회원과 통상 회원 2종을 치하되 특별회원은 회비년액 3원 40전 통상회원은 년액일원을 부담한 자로함. 본조의 회비는 춘기 음력 3월 10일에 납부하되 단기에 납부하기가 불능한 자는 추기 10월 10일 2기로 분하여 반액식분납하기로 함.

제23조 본회에 기압한 자는 별지회원증과 범명증을 교부함.

제24조 회원에게 회원증과 범명증을 교부시는 담임교무가 초입자의 공부방식을 설교하며 적당한 교과서를 전수함.

제25조 左記에 해당한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함으로 회장이 총대회의 가결에 의하여 제명함을 得함.

1. 회비 2개년 이상 납입치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1개년 이상 예회에 불참한 자. 3. 본회의 체면을 오손케 한자 4. 본취지와 규약을 3차 위반한 자.

단, 이상 탈진조항에 해당한 자라도 종법사의 재량에 의하여 或信徒簿에 유안함도 得함.

第8章 本支部及 出場所間의 權限

제26조 본회의 사업을 일률 통제하기 위하여 좌와 여히 본지부급 출장소간의 권한을 정함.

1. 지부급 출장소의 설립은 해지방 회원의 청원이 유할 시 회장이 실력을 조사하여 공식으로 인허함을 得함.

단, 허가가 무할 시는 설립함을 부득함.

2. 지부급 출장소는 공부 사업 하방면을 물론하고 총부의 명을 승하여 진행함.

3. 지부급출장소의 자산은 필히 총부에 편입하며 매년 세입세출금 경비예산과 기타 중요사항은 총부의 결재를 득하여 실행함.

4. 지부급 출장소는 매년도말에 해지방 공부 사업의 진행상황과 회원의 각항성적과 내년도 진행방침을 상세히 기록하여 총부에 보고함.

단, 보고의 조건은 이하 세칙에 재함

5. 지부 관할구역내에 출장소가 설립될 시는 해지부에서 관리함.

第9章 會計及 其他

제27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양력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로 하여 공부와 사업에 대한 성적을 총히 결산하며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함.

제28조 본회의 유지비는 左로써 充用함.

1. 입회금 2. 년손금 3. 의손금 4. 농작식리금

제29조 본규약의 증명 혹개정은 총대회의 찬성을 得하여 중법사 회장 각원장의 연합협의로써 결정함.

〈本會의 細則〉

第1章 管内常規

제1조 회관내 일용상규는 左와 如함.

1. 기침금취침 2. 신혼경례 3. 식사 4. 청결 5. 거주 인 출입 6. 사무원시간생활 7. 신호종

제2조 기침은 오전 5시로 하고 취침은 오후 10시로 함.

제3조 신혼경례는 기침후와 취침전에 호각의 신호를 따라 일제히 하되 1번은 종사주임에게 1번은 동거 대중에게 상호간 인사로 함.

제4조 식사는 左의 사항으로 함.

1. 식사는 일정한 식당으로 하되 식사 책임자는 식사설비의 완료후 식중을 쳐서 대중을 회집함 2. 식사 책임자는 밥먹는 사람의 명패를 식당에 걸어서 그 수효를 알며 만일 밥먹는 사람의 출입이 잇슬시는 반드시 명패를 정돈함 3. 식사책임자는 대중의 소에 의하여 식사를 등급으로써 제공함 4. 밥먹는 사람은 실체 식비로 지체없이 지불하고 월수로써 기식한 사람은 반드시 선금으로 지불함.

제5조 청결은 左의 사항으로 함

1. 구내의 일반소제는 대중이 각각 부역을 정하여 每朝定例로써 함 2. 매주 토요일은 특별청결일로 정하고 인원이 총동원하여 평일 미급한 처를 전부 刷新케 함. 3. 청결조사원을 치하여 일일 검사함.

제6조 거주인 출입은 반드시 감독자의 허가를 얻은후 출입함.

제7조 사무원 시간생활은 左의 2항으로 함.

1. 시간생활은 공부 사무 휴식 운동 혹 노동 오종으로 하되 시간표제정은 임원회의 草案으로 중법사의 감정을 得한후 시행함.

단, 외부원과 상무노동원에 한하여는 此에 구속치 아니함.

2. 시간표를 揭示하고 대중이 일제히 준수하되 晝夜長短에 의하여 춘추로 일차식 변경함.

단, 공무복잡할 시와 정기공부할 시는 時限附로써 임시변경함을 得함.

제8조 신호종의 종별은 기침종 침종 식종 공부종 공사종 집회종 노동종 휴식종 비상종 구종으로 하고 대중이 그 종의 구분을 따라 일제히 동작함.

단, 타종의 예는 별책구식부에 재함.

第2章 定期工夫

제9조 정기공부에 관한 규정은 좌와 如함

1. 결제급해제일자. 2. 결제전준비 3. 결제시수속 4. 결제후금지 5. 해제시검사

제10조 정기공부는 매년 2회로 하되 1회는 음력 5월 6일에 결제하여 동년 8월 6일에 해제하고 2회는 11월 6일에 결제하여 익년 2월 6일에 해제함.

제11조 결제전 준비는 공부할 사람이 결제 신입서를 일개월 전에 교정원에 제출함.

제12조 결제시 수속은 좌의 2항으로 함.

1. 신입자는 당인의 관계인 허가서 1통과 공부비용 전액을 豫히 본사무소에 납부하되 만일 이상 수속이 업는 자는 결제가입함을 부득함.

단, 관계인 허가증서는 결제가입 제2회부터는 수부치 아니함.

2. 교정원에서는 신입서를 조사하여 만일 당시 법률에 범죄가 유하거나 또는 전염성악질이 유한 자는 가입치 아니함.

제13조 결제후 금지는 좌의 2항으로 함.

1. 대관사외에는 서신래주금지 2. 대관사외에는 대가출입금지.

제14조 해제시 검사는 좌의 3항으로 함.

1. 3개월간 공부인의 훈련성적 검사.

2. 1개년간 공부인의 신분검사.

단, 검사에 관한 내역은 별책양식부급 신분검사 조례에 재함.

3. 검사표를 각 2통씩 작성하여 1통은 당인에게 出給하고 1통은 교정원에 접수함

第3章 出 家

제15조 출가의 규정은 좌와 如함

1. 출가원서 2. 원서제출시수속

제16조 회원이 본가를 떠나 출가할 지원이 유할 시는 교정원에 원서를 제출함.

제17조 출가원서를 제출할 시는 소관교무의 분신보증서 1통과 당인의 생활계획서 1통과 당인의 관계인 허가증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함.

단, 교정원에서는 우기서류를 조사하여 만일 1件이라도 부족한 점이 잇고 보면 차원서를 반려함.

第4章 任員規定

제18조 임원에 관한 규정은 좌와 如함

1. 임원의 자격 2. 임원의 처리

제19조 임원의 자격은 특신부 이상에서 선택이되 중임은(부장급이상)법강행마부이상 자격으로 함

제20조 임원의 처리는 좌의 2항으로 함.

1. 공부할 비용준비가 잇난 자로서 전무출신하여 임원이 된 사람은 그 임무에 대한 급료는 매년사업성적에 기재하기로 함.

2. 공부할 비용준비가 업는 자로서 전무출신하여 임원이 된 사람은 그 급료를 매년 사업성

적에 기재할 시 정도에 의하여 다소간 저축하였다가 당인의 사무를 전임하고 공부할 시 지불하여 주리로 함.

第5章 各機關職務行事

제21조 각기관의 직무행사는 좌와 여함

1. 결재제도 2. 제안의 방법 3. 직무의 인수인계 4. 직무의 위임반임 5. 직무의 처리방법 6. 직무의 분담조례 7. 영수증 8. 회람인 9. 공문

제22조 결재의 제도는 공부 사업 하방면을 물론하고 대소사간에 시설과 중지와 변경등류가 잇슬시는 반드시 관계임원이 안을 제출하여 종법사의 결재를 받은후 시행함.

단, 결재의 내역은 별책감정부에 左함.

제23조 제안의 방법은 하부를 물론하고 중요안이 될시는 당부 임원회의 재량을 얻어 중앙임원 연합회에 제출하고 임원 연합회는 此를 심의한후 종법사의 결재를 인함.

단, 보통제안에 한하여는 제안당자가 이상감독자의 동의를 어더 직접 종법사에게 제출함도 得함.

제24조 각임원의 직무에 대하여 인수와 인계가 유할시는 반드시 인수인계의 문부를 제작하여 쌍방날인후 전임자의 인계와 후임자의 인수를 행하고 경험담과 의문처를 서로 문답함.

제25조 각임원의 직무에 대하여 임시위임이 유할시는 그 위임사건을 一一明記하여 위임하고 위임을 수한자가 반임할 시는 필히 명세 보고한후 반임함.

제26조 각임원의 직무처리는 항상관할 직무의 범위내로 하되 관할직무라도 중요사는 반드시 이상감독의 허가를 득한후 처리함.

제27조 각임원의 관할직무에 대하여 그 조항을 一一明記후 2통을 작하여 당사임원급 감독임원이 각지 1통하고 매일 직무이행 부역을 성찰하며 임원회시 성적조사도 此로써 대조함.

제28조 회금을 사용한 사람은 반드시 상대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감정을 득한후 그 회계를 당일내로 당계원에게 회부함.

단, 부득이한 처리로써 영수증을 첨부치 못할 시는 검사가 此를 고감후 검사의 날인과 당사자의 날인으로 인증서를 작성하여 첨부함

제29조 회람인은 공부 사업 하방면을 물론하고 종법사의 결재를 수한건과 공문이 거래할 시는 회장과 각원장급 당사 부장이 논회날인하여 증명하기로 함.

제30조 본회의 통신상 중요사항은 공문으로써 하되 공문은 필히 본소에 1통을 치하여 수발한 증거를 후일빙고하기로 함.

第6章 常務會議

제31조 상무회의는 좌의 사중으로 함.

1. 매야공사회 2. 정기임원회 3. 임시임원회 4. 임원총대회

제32조 매야 공사회는 각부의 관계임원이 회집하여 1. 당일금전 수지를 대조하며 2. 당일회무를 대조하며, 3. 익일집무할 것을 예정하며 4. 비망부를 성찰하여 제출 또는 실행케 하며 5. 출장임원과 재가임원이 서로 처리 한 일을 보고 또는 토의함.

제33조 정기임원회는 매월 1일로 정하고 각부의 관계 임원이 회집하여 본회의 공부 사업

양방면의 행사를 의론하되 그 순서는 좌와 여함.

1. 개회사금출석원점명 2. 사은전목도 3. 선서문량독 4. 전회록량독 5. 거월분성적조사 6. 당월분진행방침제출급토의 7. 감상담 8. 개회

제34조 임시임원회는 필요로 인한 시 각 관계 임원을 소집하여 그 진행방침을 토의함.

제35조 임시총대회는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총지부금출장소 대표를 강라(綱羅) 소집하여 그 진행방침을 토의함.

제36조 임원회금 임원총대회는 총원반수 이상이 출석치 아니하면 의사개최함을 부득하며 약소집하기를 재도에 급하되 출석 반수에 미달할 시는 차한에 부재함.

제37조 임원회의 가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장과 2원장을 수석단이라 칭하고 각의원의 변론이 있은후 결정을 수석단에 일임함

단, 임원 총대회는 지방 수석단 2인을 增選하여 결정함.

제38조 수석단이 처리는 종다수로 하되 약가부동수되난 시는 의장의 결정한 바에 의함

第7章 金融及 重要印章書類

제39조 각부의 금전출납을 통일하기 위하여 좌와 여히 금융제도를 정함.

1. 입금수속 2. 출금수속 3. 금융원

제40조 입금수속은 좌의 2항으로 함.

1. 하부를 물론하고 금전수입이 잇는시는 당부 제원이 입금전표에 기재 날인후 지참인으로 하여금 현금과 아울러 출납계원에게 인도케함. 2. 출납계원은 그 전표와 현금을 수취대조한 후 출납장부에 기재하고 전표에 날인하여 검사에게 인도하며 검사는 此를 상세감정후 날인하여 해부계원에게 인도함.

제41조 출금수속은 좌의 2항으로 함.

1. 하부를 물론하고 금전지출이 잇는시는 당부제원이 출금전표에 기재날인하여 검사에게 인도하고 검사는 此를 상세감정후 날인하여 출납계원에게 인도함.

단, 검사가 전표의 내용을 검사하여 의향에 부합할시는 검인을 날치안코 해부계원에게 전표 그대로 회송함.

2. 출납계원은 검사에게 전표를 수취한후 출납장부에 기재하고 전표에 날인하여 해부계원에게 인도하며 현금은 당사관계자에 지불함.

제42조 금융원은 회중금고를 맞게 하며 출납계원의 매일 회계를 수불함.

단, 금융원의 자격이 무할시는 서정원장이 차를 관리함.

제43조 본회의 이해관계상 중요인장급서류는 종법사의 지정인에 의하여 보관함.

단, 보관인은 종법사의 허가업시는 타인에게 절대위임함을 부득함.

第8章 檢査及 賞罰

제44조 사업진행사 검사금 상벌규정은 좌와 여히 정하고 당사원장이 차를 관리함.

1. 전표검사 2. 장부검사 3. 금융검사 4. 기구검사 5. 서류검사 6. 직무검사 7. 상벌.

제45조 전표검사는 하시든지 기재동시에 행함.

단, 검인이 업는 전표는 공인치 아니함.

제46조 장부검사는 매월 30일로 함.

단, 부득이한 사고로 유기일내에 장부정리를 말료할시는 당계원이 그 사유로써 기일간 연기 신청을 하면 검사는 차를 고감해후 거가하기로 함.

제47조 금융검사는 장부 검사와 동시에 함.

제48조 기구검사는 년중 사기념후 사차로 함.

제49조 서류검사는 매년 2기로 하되 1기 4월 5일, 2기 10월 5일로함.

단, 우기 각종 검사에 대하여 필요로 인한 시와 또는 검사원의 자의에 의하여 배상검사함도 得함.

제50조 직무검사는 매월 임원회시 공개로써 하되 선히 당인의 보고를 청취한후 평의로써 그 등급을 정함.

제51조 상벌은 이상 검사를 행한후 당사원장이 그 선불선을 종법사에게 보고하여 결정함.

단, 소소한 선불선이 잇는 시는 임원회에서 그 상벌을 처리함도 得함.

第9章 簿 錄

제52조 사업진행상 각부의 모든 기관을 총찰하기 위하여 좌의 명부록을 치하고 당사원장이 차를 감독함.

1. 총감부 2. 임원성적부 3. 공문수발부 4. 서류출납부 5. 인계인수부 6. 감정부 7. 회의록 8. 공사부 9. 비망부 10. 출장기사 11. 기구조사부 12. 회중일지 13. 양식총람부 14. 서류총람부

제53조 총람부는 본회의 공부사업 양방면을 통치하는 일절목록을 기재함.

제54조 임원성적부는 각임원의 직무이행 선불선을 기재하여 상벌의 자료를 삼게함.

제55조 공문수발부는 총지부급 출장소간 공문 거래를 기재하여 후일의 빙고를 하기로 함

제56조 서류출납부는 각종서류 출납을 기재하여 그 출납급 현재진수를 알게함.

제57조 인계인수부는 임원의 교대가 잇슬시 그 수수목록을 일일명기하여 후일을 빙고케 하며 또는 그 임원중 공덕 유무를 알게함.

제58조 감정부는 종법사의 감정하신 사건을 기재하여 그 감정여부를 증명케 함.

제59조 회의록은 대소 각회의의 의안을 기술하여 일반의 증명을 삼게함.

제60조 공사부는 각간부의 기일일 행사할 것을 등록하여 대조케 함

제61조 비망부는 각간부의 제출한 미결사항을 등록하며 또는 필요잇는 기일급 기타가고될 사를 등록하여 비망케 함.

제62조 출장기사부는 임원의 출장시 그 사건을 등록하고 반환시 그 처리부여를 등록하여 대조케 함.

단, 시장출장급 임시사에 대하여는 此를 등록치 아니함.

제63조 기구조사부는 각부분의 일반 기구를 등록하여 기구조사의 자료를 삼게함.

제64조 회중일지는 본회의 매일경력을 등록하여 참고케 함.

제65조 양식총람부는 각부에 설계된 일절양식을 등록하여 통일 참고케 함.

단, 종법사급 임원회의 승인이 업는 양식은 차에 등록함을 부득함.

제66조 서류총람부는 부별로 설비된 일체서적급 장부서류 각부를 기재하여 통일 관람케 함.

제67조 좌의 각부록에 대하여 통치상편사가 잇슬시는 수기증멸함을 득하되 임원회의 결정을 얻어 써 증멸함.

단, 지부급 출장소에 한하여는 형편에 의하여 설치함.

第10章 書類整理

제68조 서류정리는 좌의 2종으로 함.

1. 서류보관 2. 서류청산

제69조 서류보관은 그 장치를 구별하여 서로 혼잡치 안케하며 그 장치 외면에 각각 서류명 부급 책임자의 씨명을 기록하여 출납급 조사시 편의를 득케 함.

단, 서구양식은 투기제작이되 그 대략모형은 별책양식부에 재함.

제70조 서류청산은 매년 1차식 행하되 장구히 보관할 서류와 기한부로 보관할 서류를 구분하여 참고상 편의를 득케하며 보관의 필요가 무한 서류는 전부 소각청산하는 동시에 서류총람부 급소관부록에 그 명목을 삭제함.

단, 서류청산 일자는 서류검사 기일일로 하되 보통 서류는 검사와 관계임원의 협의로 청산하고 미상한 서류는 중법사급 수석단의 승인을 득한후 청산함.

第11章 立法委員會

제71조 본회의 제정된 각종 규약의 실행장려 또는 해이한 점이 업게하기 위하여 입법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으로 하여금 차를 감시 또는 감려케 함.

단, 위원장은 수석단중에서 선거하고 위원은 총부급지방을 물론하고 간부요인을 강라하여 조직함.

제72조 입법위원회는 매년 정기총대회 경과후 제3일로 하고 1년간 성적을 보고하는 동시에 진행방침을 토의하며 또는 차입법에 대한 공노자급 모범자가 잇는시는 차를 중법사에게 금고하여 표상케함.

第12章 本部及 地方의 連絡方式

제73조 본부급 지방의 연락방식은 원칙제팔장에 의하되 그 내역은 좌의 2종으로 함.

1. 본부임원의 책임 2. 지방임원의 책임

제74조 본부임원의 책임은 좌의 오항으로 함 1. 본회의 공부사업 하방면을 물론하고 교리범도에 대하여 중법사의 신제 혹변경이 게설시는 각기관을 통하여 신속키 통고함 2. 총부급 지방을 강라하여 소개할 사항이 잇슬시는 회보에 의하여 광고하며 기지령조회등 일체 공문도 항상 그 거래를 조밀히 하여 사업진행상 유루가 업게함 3. 지부급 출장소의 임원 교대가 잇슬시는 반드시 출장하야 전임자의 공덕유무를 조사하며 인제인수부를 감정함.

단, 인제인수부는 2통을 작하야 1통은 본부에 보관하고 1통은 소지부에 보관함 4. 각관할임원은 1년 1차식 출장하야 각문서를 통일케 하며 회산이 실물을 대조하며 공부사업의 진상을 조과함 단, 필요로 인할시는 수기출장함을 득함 5. 지방을 출장한 임원은 그 상황을 중법사에게 보고하야 사무처리와 상벌감정을 하실시 참고를 삼게 함.

제75조 지방임원의 책임은 좌의 6항으로 함.

1. 교무부에 속한 상시 훈련과 정기 훈련의 일반상황과 개인성적을 조사하야 연말에 본부로

보고함 2. 연구부에 속한 제반접수서류가 잇슬시는 신속히 본부로 발송함 3. 사업제에 속한 각부의 제반상황금 개인성적을 조사하여 연말에 본부로 보고함 4. 회원금 간사를 강라하여 소개할 사항이 있거나 특별한 변동금상벌의 자료가 잇슬시는 필히 신속히 본부로 보고함 5. 공부 사업 하방면을 물론하고 중요사는 반드시 제출하여 중법사의 허가를 득한후 실행함 6. 본부의 지령조회등 공문이 잇슬시는 반드시 신속히 응대함.

다. 불법연구회 회규(2차 개정)

(원기27년 4월 개정)

第1章 總 則

제1조 본회는 불법연구회라 칭함.

제2조 본회 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344-2번지-2에 치함.

제3조 본회는 불조정전의 심인 즉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에 근본하여 그 교리와 제도를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 시켜서 正覺正行 知恩報恩 佛教普及 無我奉公의 四大綱領을 선양하므로써 그 본지로 함.

제4조 본회는 불조정전의 심인을 오득하고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실천하므로써 그 교의로 함.

제5조 본회는 우주만유의 근본이 되는 법신불(淸淨法身毘盧遮那佛)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과 진리적 신앙의 대상으로 본당정면에 안치하고 석가모니 불을 교주로 숭배함.

제6조 본회는 선리에 입각하여 있으므로 광범한 경론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중 요제를 취하여 불교정전을 편성하고 차로써 일사수지케 하며 기타 경론을 총히 참고로함.

佛教正典編次

第1卷

改善論

教 義

修 行

第2卷

金剛經

般若波羅密多心經

四十二章經

罪福報應經

賢者五福德經

業報差別經

第3卷

修心訣

牧牛十圖頌

休休庵坐禪文

疑頭要目

第2章 教義의 宣布及 儀式의 執行

第1節 教義의 宣布

제7조 본회는 불조정법에 의존하여 불교정전을 化導의 표준으로하고 진실한 국민연성을 포교의 목적으로 함.

제8조 본회는 포교는 좌의 각호에 의하여 此를 행함.

1. 본부포교 2. 지방포교

제9조 본부 포교는 종법사순화급 특파포교의 2종으로 하고 종법사의 발의 또는 지부 출장소의 신청에 의하여 차를 행함.

제10조 종법사 순화는 종법사가 직접 각 지방을 순화하고 특파포교는 종법사가 포교사를 파송하여 각지에 포교를 행함.

제11조 특파포교에 종사할 포교사는 회무총장의 추천으로 종법사가 차를 명함.

제12조 지방포교는 지부 출장소에서 상주한 포교사가 차를 행함.

제13조 본부급 지부 출장소에서는 월 3회 이상 정기로 월례회를 개최하여 설교를 행함.

제14조 본회의 포교는 설교강연 문서 등에 의하여 교의를 선포함.

제15조 포교에 대한 사무는 본부에서 통감하고 포교사로써 차를 분장케 함.

第2節 儀式的 執行

제16조 본회의 법요의식은 정례급 임시의 2종으로 함.

제17조 중요한 정례법요의식은 좌와 여함.

1. 三佛會 2. 入經念

제18조 중요한 임시법요의식은 좌와 여함.

1. 昇師禮 2. 結制解制 3. 得度式 4. 四會禮 5. 法階昇級禮 6. 各種祈願法要

제19조○○ 또는 ○○에 경우가 유한시는 수시법요의식을 엄수함.

제20조 법요의식은 예감이 此를 행함.

단, 포교사가 차를 대행함을 득함.

第3章 機 關

第1節 宗 法 師

제21조 종법사는 법강항마위 이상의 정수위단원을 피선거인으로 본지부 연합회의에서 선정하여 차에 취임함.

제22조 종법사의 임기는 6개년으로 함

단, 제1대 종법사는 하시든지 그 임무를 감능할 자격자가 유한시 교체함.

제23조 종법사는 본회를 통리하고 차를 대표함.

제24조 종법사는 결위될시는 회무총장이 종법사의 대무를 행함.

제25조 종법사는 총대회를 소집하고 그 개최 폐회 정회급 해산을 명함.

제26조 종법사는 본지부 연합회급 수위단회를 소집하고 차를 주재함.

제27조 종법사는 총대회의 협찬을 경하여 회규를 제정 또는 변경함.

제28조 종법사는 본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會令訓示及命令을 발하고 또는 발케 함. 단, 회령으로서 회규를 변경함을 不得함.

제29조 종법사는 긴급한 사건이 유하여 총대회를 소집키 불능하시는 원의에 자문하여 회규에 대한 회령을 발함.

단, 차회령은 차기총대회에 제출함을 요함.

若總大會의 승인을 부득한시는 종법사는 장래에 그 효력상실함을 고시함.

제30조 종법사는 직원의 임면급 기타의 진퇴를 행함.

제31조 종법사는 지부 출장소의 중격을 정하고 또는 차를 승강함.

제32조 종법사는 회원에게 포교급 교육을 행하고 그 법제의 승급을 행함.

제33조 종법사는 회원에게 대하여 보상을 행함.

제34조 종법사는 회원에게 대하여 징계급 그 면제 또는 경감케 함.

第2節 本 部

제35조 본부사무소를 불법연구회 회무원이라 칭함.

제36조 본부에 고문 약간인을 치하여 종법사의 자문에 응케함.

제37조 본부에 좌의 직원을 치함.

會務總長 1인, 部長 5인, 教監 약간인, 禮監 약간인, 理事 약간인, 教務 약간인, 巡教 약간인, 書記 약간인

제38조 회무총장은 범강항마위 이상에서 종법사 차를 임명함. 회무총장은 종법사를 보좌하고 회무를 총할함.

회무총장의 임기는 4개년으로 함.

제39조 회무총장이 결원된시는 종법사 차를 겸임함.

단, 중요직원중 적임자로서 회무총장 대무자를 명함을 득함.

제40조 회무총장은 총무부장을 겸임함.

단, 형편에 따라 별치함을 득함.

제41조 부장 교감 예감 이사는 범마상전급 이상에서 회무총장의 추천으로 종법사 차를 임명함.

제42조 부장은 회무부장의 지휘를 수하여 주관사무를 장리함.

제43조 교감은 교무부장의 지휘를 수하여 교화에 전임하고 소관지방 교무를 지도감독함.

제44조 예감은 교무부장의 지휘를 수하여 의례에 대한 사무를 장리함.

제45조 이사는 소속부장의 지휘를 수하여 그 임무를 취급함.

제46조 교무 순교 서기는 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종법사 차를 임명함.

제47조 교무는 교감의 지휘를 수하여 교화에 전임함.

제48조 서기는 각 상사의 명을 수하여 사무에 종사함.

제49조 순교는 교감급 교무의 지휘를 수하여 포교에 조력함.

제50조 사무의 형편에 의하여 필요가 유한시는 제37조에 정한 외에 임시직명을 치함을 득함.

제51조 본부에 총무부, 교무부, 서무부, 공익부, 사업부의 5부를 치하고 그 사무를 분장함.

제52조 총무부의 소관사항은 좌와 여함.

1. 종법실 내명에 관한 사항. 2. 회규급 회령에 관한 사항. 3. 총대회 본지부 연합회 수위단회 원의급 기타 중요 회의에 관한 사항. 4. 선거에 관한 사항. 5. 인사에 관한 사항. 6. 본부급 지부 출장소 제반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 7. 감사급 상벌에 관한 사항. 8. 제반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 중요공인 보관급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10. 중요대외에 관한

사항

제53조 교무부의 소관사항은 좌와 여함.

1. 선원 강원 강습회급 예회에 관한 사항. 2. 교화단에 관한 사항. 3. 법계에 관한 사항. 5. 의식에 관한 사항. 6. 각종 명부에 관한 사항. 7. 도서에 관한 사항. 8. 경론번역 법설기록급 기타일체 교재편집에 관한 사항. 9. 예문급 역사(본회 역사급 요인 역사) 편집에 관한 사항.
10. 감상급 해오건 수집에 관한 사항. 11. 문목, 의견급 처리건 수집에 관한 사항.
12. 기타 포교급 교육에 처리건 수집에 관한 사항.

제54조 서무부의 소관사항은 좌와 여함.

1.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급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비수납급 사업성적에 관한 사항. 4. 도량수축급 청소에 관한 사항. 5. 위생보건급 체육에 관한 사항. 6. 수부응접급 통신에 관한 사항. 7. 거주인의 의식주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무에 관한 일체 사항

제55조 공익부의 소관 현공 및 저축에 관한 사항

1. 각종 기념급 현공 및 저축에 관한 사항. 2. 혼장제사급 기타 절약급 저축에 관한 사항
3. 양노양유 육영구료급 기타 공익사업에 관한 사항. 4. 각부 재산운동에 관한 사항

제56조 산업부의 소관사항은 좌와 여함.

1. 농사조립급 원예에 관한 사항. 2. 상공업 경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업에 관한 사항.

제57조 본부에 주재한 중요 직원으로써 원의를 조직함.

제58조 원의를 구성하는 직원의 자격은 종법사의 지정에 의함.

제59조 원의는 회무총장이 차를 주재하여 좌의 사항을 심의하고 각부간의 연락의 통일 도함.

1. 예산급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산에 지출급 예산초과 지출에 관한 사항. 3. 대외 중요 사항. 4. 특별 상전에 관한 사항. 5. 징계급 경멸면제에 관한 사항. 6. 재무에 관한 중요 사항. 7. 직원 진퇴이에 관한 중요 사항. 8. 기타 종법사급 회무총장이 필요로 인한 사항.

第3節 支部出張所

제60조 각지에 지부 출장소를 설치하고 교지를 선포하는 도장으로 함.

제61조 본지부간 연락의 편의와 당지부 회세상황을 참작하여 수반지부를 지정함.

제62조 수반지부에는 회무소를 치하여 지부장이 회무소장을 겸임하고 관구내 각지부 출장소를 통할함.

제63조 지부급 출장소에 교무계를 치함.

단, 지부의 사업이 확장할시는 그 형편에 따라 본부 직제에 존하여 적당히 각계를 분치함.

제64조 지부급 출장소에는 지부장 주무 교감 또는 교무를 치하고 기타 직원은 시사에 따라 본부직제에 준하여 적당히 배치함. 지부장급 주무는 지방요인회(중앙단장회)의 추천으로 종법사 차를 명함.

제65조 지부장급 주무는 당해지부 출장소 유지의 책에 임함.

교감은 소관지방의 교화에 전임함.

제66조 각계사무는 본부직제에 준하여 분담함.

제67조 출장소 소속재산은 필히 본부에 편입하고 매년 세입세출급 경비예산과 기타 중요 사항은 회무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처리함.

제68조 지부 출장소 재산은 당해지부 출장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사용함.

단, 본부에 특수사업이 유한시는 그 책임을 분담함.

제69조 지부 출장소에 소속치 아니한 선교소는 관리자를 치하고 특별한 규정이 무한시는 총회 지부 출장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제70조 수반지부의 소관사항은 좌와 여함.

1. 회규법 회령의 전달에 관한 사항. 2. 서류의 전달급 진퇴에 관한 사항.
3. 관내지부 출장소 감독급 포교에 관한 사항 4. 포상급 징계의 구장에 관한 사항 5. 수반 지부의 경비로 지변할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십기급 문서보관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내 회무에 관한 일체 사항.

제71조 수반지부의 유지경비는 관구내 지부 출장소 차를 분담함. 단, 그 분담방법은 회무총장의 지시에 의함.

第4節 總大會

제72조 총대회는 총대로써 차를 조직함.

제73조 총대는 지부 출장소에 주재한 지부장급 주무자에 당함.

단, 연령이 만 20세 이상자에 한함.

제74조 총대회는 매년 4월 26일 차를 소집하고 임시 긴급의 필요가 유한시는 정회외에 임시회를 소집함.

제75조 총대회의 회기는 종법사 차를 정함.

제76조 총대회 의장급 부의장은 총대회에서 선거하고 종법사 차를 임명함.

의장 부의장이 임명될시까지는 서기가 의장의 직무를 행함.

제77조 의장은 의장의 질서를 유지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총대회를 대표함.

제78조 총대회에 서기 1인을 치함.

서기는 본부 중요 직원중에서 회무총장이 차를 임명함.

제79조 서기는 의장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정리하고 서무에 종사

제80조 총대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좌와 여함.

1. 회규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급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의 제 공에 관한 사항. 4. 차재에 관한 사항.
5. 기타 종법사가 필요로 인한 사항.

제81조 총대회 의안은 회무총장이 차를 제출함.

총대는 5명 이상의 찬성을 득한시는 의안을 제출함을 득함.

제82조 의장은 의사일정을 정하여 차를 대회에 보고함.

의사일정은 회무총장의 제출한 의안을 고결함.

제83조 총대회는 총대전원의 가반수가 출석치 아니하면 개회함을 득함.

의사는 출석총대의 과반수로써 차를 결정함.

가부동수 된시는 의장의 결정한 바에 의함.

제84조 총대회의는 차를 공개함.

단, 회무총장의 요구 또는 총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함을 득함.

총대회의 의안은 삼독회를 경하여 차를 의결함. 단, 회무총장의 요구 또는 총대 5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출석총대 3분지 2이상의 동의를 득할시는 삼독회를 생략함을 득함.

제85조 의안의 수정동의를 제출하려 할시는 10명 이상의 찬성을 득함을 요함.

제86조 회무총장은 하시라도 기히 제출할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함을 득함.

제87조 의결된 의안은 의장급 회무총장을 경유하여 차를 종법사에 상신함.

제88조 총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종법사의 결재를 경치아니하면 집행의 효력이 무함.

제89조 총대회에 의원을 치하고 총대회에서 차를 호선함.

위원은 예산결산급 청원사항을 심의함.

위원의 임기는 당회기중으로 함.

위원은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 1명을 정함.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를 정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함.

제90조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함을 득함.

단, 표결에 입함을 부득함.

제91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경과급 결과를 총대회에 보고함.

제92조 회무총장 부장 교감 예감급 이사는 하시라도 총대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출함을 득함.

제93조 총대회는 중요한 회무에 관하여 의견을 종법사에 건의함을 득함.

제94조 건의는 문서로써 의장이 차를 상신함.

건의의 동기는 5명 이상의 찬성이 무하면 의제로 함을 부득함.

제95조 총대회에 제출할 청원서는 총대의 소개에 의하여 총대회 차를 처리함.

제96조 청원에 대하여 총대 5명 이상의 요구가 유한시는 총대회의 부함.

총대회에서 청원채택 할 것을 의결할 것을 의결한 시는 의견서를 부하여 당 청원서를 회무원에 회부함.

第5節 本支部聯合會

제97조 본부급 지부 출장소에 주재한 중요 직원으로서 본지부 연합회를 조직함.

제98조 본지부 연합회에 출석할 직원의 자격은 좌와 여함.

本 部	教 務
宗 法 師	支部出張所
會務總長	支 部 長
部 長	主 務
教 監	教 監

禮 監
理 事

教 務

제99조 본지부 연합회는 필요가 유한시에 임시로 종법사 차를 소집함.

제100조 본지부 연합회는 종법사 차를 주재함.

제101조 본지부 연합회는 좌의 사항을 의결함.

1. 종법사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위단원 선정에 관한 사항 3. 본지부간 연락의 통일을 도하기 위하여 종법사가 필요로 인정할 사항.

제102조 본지부 연합회에 관한 세칙은 별로 정함.

第6節 首位團會

제103조 수위단회는 본지부 연합회에서 선정한 수위단원으로써 차를 조직함.

제104조 수위단원은 범강항마위 이상인 중에서 선정함.

단, 창립기한중은 범마상전급인도 피선거자격이 유함.

제105조 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함.

단, 재임함을 득함.

제106조 수위단은 남여별로 그 단을 조직하고 정원은 단장을 합하여 각 10인으로 함.

종법사는 남여 각 단의 단장이 되어 차를 통솔함.

제107조 수위단 정회는 매년 4월 28일에 차를 소집하고 임시 필요가 유한시는 임시회를 소집함.

제108조 수위단은 종법사를 보좌하는 최고 기관으로 하고 좌의사항을 의결함.

종법사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일로 인정한 사항.

제109조 기타 수위단에 관한 세칙은 별로 정함.

第4章 布 教 師

제110조 포교사는 지조가 견고하여 종신포교에 종사할 소지가 유한자에 대하여 종법사 이를 보임함.

제111조 포교사의 등급을 좌의 9종으로 정함.

1. 大教師

6. 3種教師

2. 大教正

7. 4種教師

3. 教 正

8. 5種教師

4. 1種教師

9. 6種教師

5. 2種教師

제112조 포교사로서 좌의 각항의 1에 해당한자 유한시는 그 포교를 정지하고 탈직 또는 상당한 처분을 행함.

1. 본회 교리 또는 국책에 위배된 설교를 행한다. 2. 궤타적 언설을 배하여 교도의 본지를 실케한자 3. 언행이 비외하여 포교사의 위신을 실타한자. 4. 기타 교문풍속을 문난케 한 행위가 유한자.

제113조 포교사는 그 본분을 지키고 회무총장의 지휘에 복종함.

제114조 포교사는 호상기맥을 통하고 편의에 의하여 직접 응원하여 포교의 진흥에 노력함.

제115조 포교사는 좌의 권한이 유함.

1. 지정한 지방에 포교를 행함. 2. 포교상 또는 회무상 필요로 인한시는 해지방지부 장급포교사와 협의함. 3. 도장의 유지 보호 주재직원의 근수포교급 일반교화의 성적을 조사함. 4. 회원의 공부 사업 진행사항을 조사함. 5. 기타 중법사의 지정사무를 행함.

제116조 포교사는 지방에 주재 또는 순회하여 지정사무를 종료한시는 명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무총장을 경유하여 중법사에게 복명함.

제117조 중법사는 필요에 의하여 포교사를 소집하고 포교 강습회를 개최함.

제118조 포교사로써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는 포상 규칙에 의하여 차를 포상함.

第5章 會 員

第1節 總 則

제119조 회원을 구분하여 좌의 2종으로 함.

1. 재가회원 2. 출가회원

제120조 재가회원이라 함은 재가하여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는 자로 재가회원 명부에 등록된 자를 운함.

출가회원이라 함은 출하여 봉사적으로 본회무에 전임하는 자로 출가회원 명부에 등록된 자를 운함.

제121조 회원은 회규 또는 중법사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할 의무가 유함.

제122조 회원은 본회규에 의치 아니하고는 그 분한을 박탈함을 부득함.

제123조 회원은 회규의 정한바 자격에 응하여 선거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124조 회원은 교육회무급 기타의 직원이 됨을 득함.

제125조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 유지의 책임이 유함.

제126조 회원은 본회 교화단 규칙에 의하여 1인당 9인식 지도의 의무가 유함.

제127조 회원은 그 수행의 실력에 따라 좌의 법계부에 등록함.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여래위

第1節 出家會員

제1항 총 칙

제128조 출가회원을 전무출신자라 칭함

제129조 전무출신자는 정식 육신 양방면으로 오로지 본회를 창립키 위하여 출가한 자로 함.

제130조 전무출신자를 좌의 4기로 분하여 등록함. 1. 정식전무출신자 전무출신 예비급 훈련기를 경하여 전무출신 정식부에 등록된 자.

단, 본회 공부사업에 대한 실력을 참작하여 회무총장의 인증이 유한자는 예비급 훈련기를 경치아니하고 정식부에 등록함을 득함.

2. 훈련전무출신자 전무출신의 허가를 수하여 전무출신 훈련부에 등록된자.

3. 예비전무출신자 전무출신 서원서를 제출하여 전무출신예비부에 등록된다.
4. 기성전무출신자 장래 전무출신 하기를 예약한자로 전무출신 기성부에 등록된다.

제131조 구원수학금 실무훈련을 종료하고 정식 전무출신부에 등록할시는 등사급 대중 열석 하에 식을 거행함.

제132조 수학금 실무훈련 기한은 3개년으로 함.

단, 본인의 실력에 의하여 회무총장이 차를 신축함을 득함.

제133조 훈련부자는 본회에 대한 각종 지식을 훈련케 함.

제134조 훈련부 재적중에 열반시라도 그 신용이 여일한 자는 훈련부 등록일로부터 정식 부자로 취급함.

제135조 예비부자는 본회에 대한 기초지식을 수확케 함.

제136조 예비부 재적중에 열반한시라도 신성 또는 실력이 특수한 자는 사후에 정식 부로 추인함.

제137조 기성전무출신의 예약년한은 1년이상 10년이하로 함.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내 출가의 형편이 불능할시는 회무총장의 인증을 득하여 연기함을 득함.

제138조 정식부 전무출신자는 그 의무이행 성적의 우열을 따라 1종으로부터 5종까지 등급을 치함.

제139조 전무출신자의 다년 경험을 보아서 좌의 5항이 충실하여 소호도 흠이 무한자는 1종이요 다음은 그 우열을 따라 2종-3종-4종-5종으로 정함.

단, 5종에도 불급한자는 비록 현임직무가 유할지라도 종별로 취급함.

1. 사가의 구속이 없이 그 임무를 전일 이행하는 자.
2. 의무이행의 취지가 금료를 받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의무감으로써 실행한자.
3. 본회 명령에는 호악을 부태하여 함시 그 지정 임무에 노력하자.
4. 정신과 힘을 다하여 본회되는 달리 마음이 흐르지 아니한자.
5. 공부사업 양방면으로 공덕이 항시 드러나는 자.

제140조 전무출신자로서 공중의 인증이 유한자는 공부에 큰 지장이 무한정도로 사가사를 조력함을 득함

제141조 전무출신 중도에 사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중의 인증을 수할 지장이 생활시는 일정한 기한 사가사를 정리한후 편히 전무출신을 계속함을 득함.

제2항 수 속

제142조 전무출신을 원하는 자는 총무부에 좌기 서류를 제출함을 요함.

1. 전무출신 서원서 2. 출가동기서 3. 관계자의 출가승락서. 4. 출신지방 관할교무의 의견서. 5. 의사의 건강증명서 6. 호적등록 7. 이력서급사진

단, 의사의 건강증명서는 회무총장의 인정이 유한시는 성약함을 득함.

제143조 전무출신은 원의를 경하여 회무총장이 차를 결정함.

제144조 좌기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무출신으로 수리를 부득함.

1. 국민학교 이상의 졸업증이 무한자. 또는 동 정도 이상의 학력이 무한자.
 2. 국민학교 이상 학력이 무한자로 순한문의 문리를 통하지 못한자.
 3. 전염 악질이 유한자.
 4. 세상에 들어난 악행이 유한자.
 5. 연령이 만 15세미만 된자, 또는 16세 이상 된자.
- 단, 전기 각항에 해당하는 자라도 종법사의 인증이 유한자는 차한에 부재함.

제3항 대 우

제145조 본회는 전무출신자의 공로등급을 따라 노쇠시의 봉양과 사후에 제사를 담당함.

제148조 본회는 전무출신자중 생자녀자 무한자, 또는 독신자에게 법자녀를 정하여 주고 교육비를 부담함.

제147조 대각여래인의 부모는 대회사 출가위인의 부모는 중회사 법강함마위인의 부모는 소회사로써 대우함.

제148조 전무출신자로 3등 이상의 사업성적과 정식법마상전급의 법에 승위를 못한자라도 그 부모를 소회사로써 대우함.

단, 창립기한중에 한하여 정식 전무출신자의 부모를 회사로써 대우함.

제149조 전무출신자의 상조기관을 치하여 친목을 도모함.

제4항 전무출신 권장자

150조 전무출신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 사가사를 담당한 자를 전무출신 권장가로 대우하여 그 공로를 표창함.

제151조 전무출신 권장자는 전무출신자의 희망에 의하여 정함.

제152조 전무출신 권장자를 3종으로 구별하여 제 139조의 항목을 완전실행케 한자는 1종이요 혹 소소한 구애는 있을지라도 큰 구애를 주지 않는자는 2종이요 크게 구애될 일만 보아주는 자는 3종으로 함.

제153조 전무출신자가 전무출신을 해제할시는 권장자도 당일부터 같이 제명함.

제154조 전무출신 권장자중 10년이상 1종 또는 2종의 인증을 수 한자는 사후에 전무출신으로 대우함.

제5항 제 명

제155조 좌기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무출신 명부에서 삭제함.

1. 사망자 2. 3년이상 행방이 불명한자 3. 본인의 원에 의한자. 4. 회원 징계규칙에 의하여 제적된자.

第3節 居塵出塵者

제156조 재가회원으로서 진세의 향락을 끊고 오직 본회의 공부와 사업에 락을 가진 자를 거친출진자라 칭함

제157조 거친출진자는 공부와 사업에 대한 정도가 전무출신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으나 형편에 의하여 본회로부터 직접 직무임명의 책임이 무한자로 함.

제158조 거친출진자는 다년간 경력으로써 좌의 5항이 충실해야 소호도 흠이없는 자는 1종

이요 그 다음은 우열을 따라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정함.

1. 호의호식을 불고하고 혐의악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공부이 사업을 영구히 계속하는 자.
2. 재색의 락을 불고하고 담박한 생활을 할지라도 이 공부 이 사업을 영구히 계속하는 자.
3. 명예와 권위를 불고하고 이 공부 이 사업을 영구히 계속하는 자.
4. 안일을 불고하고 육신과 정신에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본회 규칙 생활을 영구히 계속하는 자.
5. 공부계와 사업계에 항상 성심으로 조력하여 래왕간에 공덕이 많이 들어나는 자.

第4節 敎 化 團

제1항 총 칙

제159조 본단은 불법연구회 교화단이라 칭함.

제160조 본단은 회원에게 본회의 교리와 제도를 능률적으로 훈련시켜서 그 의무적 실행을 추진하며 의견제출을 장려하여 허위를 버리고 사실에 즉한 정당한 생활을 개척하기로써 목적함. 단, 형편에 의하여 혼합하여 조단함을 득함.

제161조 본단은 본회원중에서 남녀별로 각각 조직함. 단, 형편에 의하여 혼합하여 조단함을 득함.

제162조 본단 사무는 본회 교무부에서 취급함.

제163조 본단 세칙은 별로 정함.

제2항 조단방법

제164조 단원정수는 단장을 가하여 10인으로 함. 단, 인원 또는 구역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함을 득함.

제165조 단원이 정수에 미달하여 단장이 결원된시는 지방형편을 따라 타단에 부속하여 지도 감독케하고 타단에 부속시키지 못할시는 해지방 교무부에서 직접 관리함.

제166조 지방별로 단위 순번을 정하여 그 명칭을 구별함.

제167조 단을 조직한시는 소정의 레식을 거행하고 단중을 교수함.

제3항 단원급 단장의 권리와 의무

제168조 단원은 좌의 권리와 의무가 유함.

1. 단원은 매월 단회시 공부 사업 생활 3방면에 관한 자유의견 해오감상 문목처리건 등을 제출함. 2. 단원은 단장의 지도에 순응하며 부득이한 사고가 유한외에는 필히 단회에 출석함을 요함. 3. 단원은 용도에 근검 저축하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며 정신육신으로 본회 창립에 조력하기로 함. 4.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실천하여 인도 정의를 개척함. 5. 최초범어를 일일이 실행하기로 함. 6. 모든 국한을 타파하고 후진을 지도하며 공중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함. 7. 공부사업의 목적을 달성함에는 모든 역난에 흔들리지 않기로 함. 8. 본단규를 준행하여 단원의 의견, 해오, 감상, 문목, 처리 등을 감정하여 등급을 제정함.

제169조 단장은 좌의 권리와 의무가 유함.

1. 단장은 해단원의 공부사업의 성적을 조사하여 지도 감독함. 2. 매년말에는 단원의 1년간 공부사업의 성적을 조사하고 신분검사를 시행하여 상황을 교무부에 보고함. 3. 단장은 소속단

원의 특별한 이상과 중대한 사항을 필히 교무부에 보고함. 4. 소속단원이 타지방으로 이주한 시는 해지방 단장 또는 교무에게 교섭하여 공부사업의 지도를 위임함. 약위임할 단장이 없는 시는 서면으로써 직접 지도함. 5. 단장급 중앙은 해지방 지부장 또는 주무급 교무와 같이 요인 회를 조직함.

제4항 회 의

제170조 단회는 관할단장이 매월 일차식 정기로 개최하고 필요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최함.

단, 단원이 타지방에 거주해야 매월 정기회를 개최치못할시는 차한에 부재함.

제171조 단회시는 단장이 소속단원의 공부 사업 성적을 조사하여 일기월계 조사표에 기재 하며 단원의 의견, 해오, 감사, 문목처리안이 유한시는 동단원의 동의로써 등급을 정하고 그 안건은 교무부에 제출함.

第5章 行解法階

제172조 공부인의 계율 선정을 행이라 하고 지혜를 해라함.

제173조 정을 수하기 위하여 수양과, 혜를 수하기 위하여 연구와, 계를 수하기 위하여 취사 과를 치함.

제174조 수양과의 고시과목은 염불과 좌선으로 하고 8급부터 특급까지와 정으로부터 3정까 지의 계급을 치함.

제175조 연구과의 고시과목은 경전, 강연, 회화, 교화, 법저술법, 타종 타교의 교리제도급 기 타 임시 지정한 과목으로 함.

제176조 연구과는 그 실력에 따라 7급으로부터 특급까지와 1각으로부터 6각까지의 등급을 치함.

제177조 취사과의 고시과목은 계율과 선행으로 함.

제178조 취사과는 계율과 선행의 정도에 따라 7급으로부터 특급까지와 1선으로부터 6선까 지의 등급을 치함.

제179조 수양과 취사과는 동정무시로 수행하고 연구과는 상시로 수학함.

제180조 동하양선시는 필히 3과 과목으로써 훈련함.

제181조 수양과 연구과 취사과에 발하여 간 3년 1차식 고시를 행하여 수업중을 수부함.

제182조 회원의 법계는 좌의 3급 3위로 함.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여래위

제183조 보통급인은 좌기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함.

1. 처음으로 입회하여 보통급 10계를 수한자.

제184조 특신급인은 3과 등급이 좌기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함.

1. 修養科 自 3級 至 特級 2. 研究科 自 3級 至 特級 3. 取捨科 自 3級 至 特級

제185조 법마상전급위는 3과 등급이 좌기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함.

1. 修養科 自正 至2正 2. 研究科 自1覺 至4覺 3. 取捨科 自1善 至4善

제186조 법강항마위인은 3과 등급이 좌기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함.

1. 修養科 3正 2. 研究科 6覺 3. 取捨科 6善

단, 3正 4覺 6善의 수업증이 유한자라도 중법사의 인증이 유한시는 법강함마위에 승급함을 득함.

제187조 법강함마위인으로 좌기 조건이 구비한 자는 출가위인으로 함.

1.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하는 자.
2. 원근친소의 지경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 합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을 만한자.
3.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에 정통한 자.

제188조 출가위인으로 좌기 조건이 구비한 자는 대각여래위인으로 함.

1. 대자대비로써 일체생명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한 자.
2.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침이 없고 교화받는 자로써 그 방편을 물으게 할만한 자.
3.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으며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자.

제189조 정과 각에 대한 고시는 매년 동선식 일차식 행하고 6명급 승급고시는 매 3년에 일차식 행함.

제190조 중법사의 지명으로 3인내지 5인의 고시위원을 선정하여 회원의 행해를 고시사정함.

제191조 법제적임에 대한 의식은 예전에 별로 정함.

第6章 禪 院

제192조 선원은 본회원의게 대하여 6과정 정기훈련으로써 수행에 정진하여 선품을 선양할 법기를 양성함을 목적함.

제193조 선원은 본부급 지부 출장소에 치함.

제194조 선원에서 회원에게 훈련시키는 6과정은 여좌함.

염불, 좌선, 회화, 강연, 경전, 일기.

제195조 선원에 좌의 직원을 치함.

교감 1인, 교무 2인, 수좌 2인, 서기 약간인, 종두 1인.

교감은 선원을 교화감독함.

단, 지방에는 교무가 교감사무를 취급함.

교무는 교감의 지위를 수하여 선원의 교화에 종사함.

수좌는 선원에 관한 사무를 장려함.

서기는 상장의 지휘를 수하여 기록에 종사함.

종두는 공사급 기침취침과 선시간의 타중에 종사함.

제196조 선원은 매년 동하2기에 궁하여 차를 개최함.

동선은 12월 6일에 결제하여 익년 3월 6일에 해제하고 하선은 6월 6일에 결제하여 9월 6일에 해제함.

단, 시선에 따라 적당히 신축함을 득함.

제197조 선원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와 성적표를 수여함.

제19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회원은 입선을 불허함.

II. 각 종 법 규

1. 연령 만15세 미만된 자 2. 전염악질이 유한자 3. 기타 대중교화에 장애를 준 우려가 유한자.

제199조 입선지원자는 별로 이력서를 첨부하여 선원개기 2주일전에 선원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수합을 요함.

제200조 선원은 별로 정한 선원 부를 엄수함을 요함.

약 위반된 행위가 유한자는 퇴원을 명할 수가 유함.

第7章 講 院

제201조 강원을 본회원의게 불법의 지식을 함양시키고 또는 본회 포교사 양성함을 목적함.

제202조 강원에 직원을 치함.

원장 1인, 강수 약간인.

제203조 강원에서 강의과목은 여좌함.

1. 불경학, 2. 교화법, 3. 기타

제204조 강원수료 기한은 3개년으로 함.

단, 1기를 3개월로한 단기강원을 설치함을 득함.

제205조 강원장은 매수입 기초에 교수과목 시간단임 강사급 입학자의 임명 등을 총부에 보고함.

제206조 강원입퇴의 수속급 기타 세칙은 별로 정함.

第8章 褒 賞

제207조 회원의 좌에 계한 종류의 선행이 유한자는 그 차등에 따라 차를 보상함.

1.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본회의 창립급 유지발전에 공노가 유한자.

2. 사회공익사업 또는 본회 특수사업에 공노가 유한자.

3. 신앙이 탁월하고 수행에 정진하여 덕행이 발군하여 타인의 모범이 된 자.

제208조 임시 보상의 필요가 유한시는 중법사 차를 행함.

제209조 보상은 지부장 주무급 교감 교무의 신청에 의하여 총무부장이 차를 조사하고 중법사에게 상신함.

第9章 懲 戒

제210조 회원으로서 비위의 행위가 유한자는 此를 징함.

제211조 징계과목을 좌의 6종으로 함.

1. 제적 회원명부에서 삭제함. 2. 탈계 법계의 분한을 박탈함. 3. 강계 법계를 하강함. 4. 정교 설교를 정지함. 5. 근신 개과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근신을 명함. 6. 견책 그 행위를 견책하고 장래를 계식함.

제212조 제적의 계목에 처할시는 여좌함.

1. 불조에 대하여 불공의 행위가 유한자. 2. 중법사의게 불손한 행위를 하고 회풍을 문난케한자. 3. 교육에 또한 이설을 주창하고 중법사급 중직자의 교유에 불손한 자. 4. 개교분과를 도하여 도훈을 작한 자. 5. 정치에 관론하거나 또는 정사에 가입하여 회원의 본분을 수한 자. 6.

강제의 처분을 수하고 오히려 그 비행을 부정한 자. 7. 본회의 체면을 오손시킨 자. 8. 정당한 사유없이 3개년이상 예회에 불참한 자. 9. 기타 중요한 범행이 유한자.

제213조 탈계의 제목에 처할자는 여좌함

1. 회원신분에 위반한 행동이 유한자. 2. 부정한 행위를 하여 회산에 손해를 끼친자. 3. 고의 또는 은연중 타인의 신성을 타락케 한자. 4. 고의로 본회중직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규약에 위반하여 자행자지의 행동이 유한자. 6. 타인에게 권하여 본회의 규율을 무난케 한자. 7. 성질이 불미하여 중법사이하 대중의 심신을 심히 썩롭게 한자. 8. 허가없이 도장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케 한자. 9. 강제의 처분을 수하고도 개과치 아니한 자

제214조 강제의 제목에 처할시는 여좌함.

1. 법제조항에 위반한 자. 2. 회유재산을 본회 유지발전이외에 소비한 자. 3. 도량을 황폐케 할 우려가 유한 행위를 한 자. 4. 중요한 회유 재산의 압수를 수할 채무계약을 한자. 단, 행위가 중한자는 제적에 처함. 5. 정교처분을 수하고도 언행을 불개한 자.

제215조 정교의 제목에 처할자는 여좌함.

1. 수행이 미숙하여 교지에 반한 설교를 행한자. 2. 야비한 언사로 설교를 하여 회원의 체면을 손상케한 자. 3. 파렴치의 행위를 하여 회원의 체면을 손상케한 자. 4. 회원간의 분의를 양하여 화합한 회풍을 상한자.

제216조 근신의 제목에 처할자는 여좌함.

1. 품행이 불량하여 행화수재의 덕을 상케한 자 2. 회중 규율을 복종치 아니하여 사무 집행상 방해한 자. 3. 직무 책임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한자. 4. 본회무에 대하여 이유없이 비방한 자. 5. 본회 임원의 명령에 이유없이 불응한 자. 6. 권한외의 일을 자행하여 회산의 손해를 끼친자. 7. 본회 임원으로 회퇴를 수수하여 편파의 조치를 한자. 8. 직명급 법계 등을 사칭한 자. 9. 의제에 위반한 범의를 파착한 자. 10. 행지작법에 위반하여 회원의 위신을 모독한 자.

제217조 단책의 제목에 처할자는 여좌함.

1. 과오로 실화하여 도량건물을 소실한 자. 2. 과오에 의하여 반칙한 자.

제218조 징계처분을 수한자가 전죄를 회오한 실상이 현저한시는 그 정상에 따라 중법사 그 처분을 경멸 또는 면제함을 득함.

단, 세칙은 별로 정함.

제219조 이상 각조에 특수한 사건이 유한시는 중법사 적의히 처리함을 득함.

제10章 會育財產管理規則

제220조 회유재산을 좌의 6종으로 함.

제1종 지소 전답 산림 등 본회소유에 속한 토지

제2종 건물 본회소유에 속한 건물

제3종 불구급 십기 불구급 일용 일체기구

제4종 십물금 영구보존의 목적으로 적립한 자재급 유가증권

제5종 도서 경권 기타 일반도서

제6종 전각종에 속치않는 재산

II. 각 종 법 규

제221조 본부 지부 출장소는 전조의 유별에 의하여 회유재산의 명칭 품질 수량급 내력 등을 기재한 회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해지방 관할 포교사를 경유하여 본부에 제출하고 해지부 출장소에 1통을 비치함.

전항의 회유 재산목록에는 지부장(또는 주무) 교무의 연서를 요함.

제222조 회유재산에는 해지부 출장소의 명의를 표시하여 개인 소유와 혼동치 아니하게 함.

제223조 회유재산은 좌기 각항에 해당한시를 재하고는 매각 양흥교환 또는 담보에 공함을 부득함.

1. 공용징수 또는 징발을 수할것. 2. 본부급 지부 출장소 유지경영상 특히 필요한 시. 3. 공익상 부득한 것. 4. 지부 출장소의 이적 또는 합병에 의하여 특히 그 필요가 유한것. 5. 기타 지부자 또는 출장소 주무의 신청이 유하여 종법사의 승인이 유한시 또는 종법사의 명령이 유한시.

제224조 회유재산급 재산에서 생한 과실은 본회 유지발전의 이외에 사용함을 부득함.

제225조 본회소유의 지소를 타인의 소유지와 교환하려는 시는 양지의 가격급 수익이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시이외는 교환함을 부득함.

제226조 제4종에 속한 재산급 회유재산에서 생한 과실이 용도는 별로 정한 방법이 유한시는 그 방법에 종하고 별로 방법이 무한시는 해지부 출장소의 유지존속에 필요한 시를 제외하고는 종법사의 승인을 경하여 사용함을 득함.

제227조 회유재산에 증감 멸실 훼손 기타 이동의 유한시는 해관리 책임자는 지체없이 회유 재산목록을 타정하고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총부에 제출함을 요함.

제228조 지부장 주무는 매년 1회 그 현황을 본부에 보고함을 요함.

제229조 지부장 주무 또는 회산관리자 교대할시 전임자는 2개월 이상내에 주무 총대(1인) 입회하여 재산목록과 대조하여 그 재산을 후임자에게 인제함을 요함.

후임자가 전항의 인제를 종료할시는 인계명세서에 제221조에 의한 관계자 연서하여 회무총장에게 제출함을 요함.

제230조 종법사는 회유재산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로 인하시는 此보관법을 지정명령할 시가 유함.

제231조 제2종 제3종 재산은 평소보관법에 주의하여 국시의 재해를 피할 용의는 물론이요 또는 무고이 내외에 제출치 아니함을 요함.

제232조 제2종 제3종의 재산은 상시청결을 위주하고 보리수선을 해치지 아니함을 요함.

제233조 제4종의 재산은 보존방법을 엄밀히 할 것은 물론이요 식리증자에 노력함을 요함.

제234조 제5종의 재산은 결손산일이 없도록 주의함을 요함.

제235조 종법사는 본부 직원 또는 해지방 전임 포교사의게 명하여 재산을 점전시킴을 득함.

제236조 지부장 주무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보관중의 회유재산을 감실 또는 훼손한시는 그 책임을 부함.

제237조 본규칙에 위반할시는 회원 징계조규에 의하여 처분함.

第11章 會 計

제238조 본회 회계년도는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종함.

제239조 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수지 사무는 회계년도가 종료된 만 2개월 이내에 완결함.

제240조 전조 기한내에 완결되지 못할 세입세출은 익년도에 조월함.

제241조 예산세입이라 함은 회비 기타 일체 수입을 운하고 세출은 일체 지출을 운함.

제242조 예산은 세입부 세출부로 분하여 관목을 설함.

제243조 예산 세출은 각관의 유용을 불허함.

제244조 총대회의 결의를 경치 아니하고는 부채를 신기하거나 혹은 본회금 전체의 부담이 될시의 계약체결을 불허함.

단, 예산에 정한 경비의 지출하기 위하여 년도내의 세입으로써 변상할시의 차입은 차한에 부채함.

제245조 특별히 필요가 유한시 총대회의 의결을 경하여 예히 년한을 정하고 계속비로 예산을 설함을 득함.

제246조 결산은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조제하고 설명서급회계 감사원의 보고서를 부하여 차년도 7월 30일 한 회내에 고시함.

제247조 결산보고서에는 좌의 사항을 명기함을 요함.

세 입 부

1. 세입예산총액
2. 세입개수액
3. 세입미수액
4. 전년도 초월금액
5. 예산외 수입금액

세 출 부

1. 세출예산총액
2. 세출지불총액
3. 세출미불총액
4. 예산외지불액
5. 익년도에 조월금액

제249조 총대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할시에 예산은 본칙에 중함.

第12章 附 則

제250조 본회규를 변경하려할시는 중법사의 발의로써 총대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함.

2 역대 원불교교헌

가. 圓 佛 教 教 憲(최초제정)

(원기33년 4월 26일에 전문을 제정 공포함)

第1編 教 政

第1章 總 綱

제1조 본교는 원불교라 한다.

제2조 본교는 우주의 원리요 제불의 심인인 즉 일원의 대도에 근본하여 정신, 정각, 정행을 중지로 한다.

제3조 본교는 인생의 요도 사온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를 제정하여 재생의세의 교재로 한다.

제4조 본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과 무치선 무처선의 도리를 선포하여 전세계를 불은화하고 그 일체대중을 선법화하기로 목적한다.

第2章 儀 式

제5조 본교는 일원상을 본존으로 한다.

제6조 일원은 법, 보, 화 삼위의 대상이오 석가모니불과 본교 대종사의 정전심법이심을 신봉하여 이를 진리로써 숭배한다.

제7조 본교의 의식은 사실에 근거하고 간편을 주로 하여 대중적 행사에 맞도록 한다.

제8조 본교는 개교의칙에 의하여 정례 또는 수시의 법회를 베푼다.

第3章 教 法

제10조 본교는 불교정전을 본경으로 한다.

제11조 본교는 광범한 경론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요령을 선택하며 현실에 필요한 교서를 적절히 편정하여 이를 전수하게 한다.

제12조 본교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두 과정을 두어 이를 수행의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본교는 매월례회와 동하수선과 연한수학과 기타 특별강습회 등을 개최하여 이를 전문훈련의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본교의 도장은 도시향촌을 물론하고 교도집중지에 설치하여 일상생활에 접근하도록 한다.

제15조 본교는 선원과 학림을 설치하여 이를 전문훈련의 기관으로 한다.

제16조 교도의 생활은 의퇴의 구습을 폐지하고 근로 정신을 발휘하게 하며 영혼제도와 인도실천을 병진하여 영육쌍전을 기한다.

제17조 본교는 일원의 단위로 각지방에 교화단을 배치하여 일반교화의 원활을 기한다.

제18조 본교는 재가와 출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행의 고하를 따라 각등별을 정한

다.

제19조 본교는 남녀포교사를 양성하여 남녀교화에서 서로 지장이 없게 한다.

第4章 敎團及敎徒

제20조 본교는 본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교도로서 교단을 구성한다.

제21조 교도는 입교원서를 제출하고 교도증을 받아 이를 향유한다.

제22조 교도는 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1. 본교단을 추지할 의무 2. 본교리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의무 3. 매인당 구인씩 지도할 의무 4. 교헌과 교규를 준수할 의무 5. 소정법규에 의한 선거와 피선거의 권 6. 소정법규에 의한 교정상 참의의 권

제23조 교도는 전무출신과 재가출도의 방로를 두어 각자의 지원에 따라 실행하게 한다.

제24조 교도는 공부등위와 사업등급의 별을 두어 그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

제25조 전무출신과 재가교도 수행과 사업에 관한 법규는 본헌 제2편 교도에 이를 정한다.

第5章 敎政기구

제26조 본교는 본교의 교정을 통변하기 위하여 중법사 일인을 두고 교단내 일체의 결의급 집행기관을 이에 직속시킨다.

제27조 결의기관은 중앙에 중앙교의회 지방의회를 각각 두고 집행기관은 중앙에 중앙총부 지방에 교관부와 지부 지소를 둔다.

第6章 宗法師

제28조 중법사는 본교를 대표하여 교단을 통리한다.

제29조 중법사는 원정사이상 수위단원을 피선거격으로 하고 수위단회의 추천으로 중앙교회에서 추대한다.

단, 원정사이상 자격이 없을때에는 정사중에서 추대할 수도 있다.

제30조 중법사의 직위기간은 6개년을 일기로 한다.

단, 수위단회의 의결로써 중앙교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중법사가 께워된 때에는 십일이내에 수위단회의 추천을 얻어 일개월이내에 중앙교회회를 소집하여 추대한다.

단, 보임기간은 전중법사의 잔임기에 한한다.

제32조 중법사는 퇴위후라도 전직위에 준한 예우를 보장한다.

제33조 중법사는 교서를 편정하고 교화를 주재한다.

제34조 중법사는 교정을 총관하고 상벌을 시행한다.

제35조 중법사는 필요한 교규를 제정하여 중앙교의회의 협찬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36조 중법사는 교헌과 교규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단, 교령으로서 교헌과 교규를 변경할 수는 없다.

第7章 中央敎議會

제37조 중앙교의회의는 교관부장, 국장, 지부장, 지소장, 주무와 교감, 예감, 순무, 순교와 특의원으로서 조직한다.

특선의원은 수위단회의 추천으로써 종법사가 위촉한다.

제38조 중앙교의회는 교단의 최고결의기관으로서 좌기사항을 의결한다.

1. 법규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것. 2. 예산심의에 관한 것. 3. 결산보고에 관한 것. 4. 교산의 처리에 관한 것.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 중앙교의회는 매년 사월중에 종법사가 소집한다.

단, 종법사가 필요로 인정할때 또는 재직위원 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도 있다.

제40조 중앙교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정하여 의회의 사무를 총리하게 한다.

의장은 교정원장이 이에 당하고 부의장은 의원중에서 선정한다.

부의장의 선거방식은 의회에서 결정한다.

제41조 중앙교의회 특선의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한다.

제42조 중앙교의회는 의장이 이를 통제한다.

의장이 유고할때에는 부의장이 이에 당한다.

제43조 중앙교의회는 재적의원 반수이상의 출석이 아니면 개최할 수 없다.

제44조 중앙교의회의 제반 의결은 출석의원의 과반수으로써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45조 중앙교의회는 필요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의 선거방식은 의회에서 결정한다.

제46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정하고 위원장은 해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임된 업무를 이행한다.

제47조 중앙간사나 의결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중앙교의회에 건의안을 제출할때에는 의원 1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써 제출함을 요한다.

第8章 中央總部

제48조 교단의 최고집행기관으로 중앙에 총부를 둔다.

제49조 중앙총부에 교정원과 감찰원을 둔다.

제50조 교정원에는 좌의 부서를 둔다.

1. 교무부 2. 서무부 3. 산업부 4. 재무부 5. 각부에는 과와 계를 적절히 설치한다.

제51조 각부의 소관사항은 좌와 같다.

교 무 부

1. 교도의 입교에 관한 것 2. 전무출신 양성에 관한 것 3. 교화단에 관한 것 4. 선원, 학림과 일반훈련에 관한 것 5. 교화선전에 관한 것 6. 의식에 관한 것 7. 부속사업과 단체 등의 교도에 관한 것 8. 제반교제의 편정과 연구에 관한 것 9. 도서에 관한 것 10. 기관지에 관한 것 11. 기타 교화에 관한 일체사항.

서 무 부

1. 도장수호에 관한 것 2. 대중의 생활경리에 관한 것 3. 외교와 응접에 관한 것 4. 위생보건에 관한 것 5. 부속사업 운영에 관한 것 6. 교정의 일반회의에 관한 것 7. 기타 타부에 속

하지 아니한 일체사항.

산 업 부

1. 농업에 관한 것 2. 공업에 관한 것 3. 산업에 관한 것 4. 기타 식산에 관한 일체사항.

재 무 부

1. 교산관리에 관한 것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것 3. 각기관의 재산수지에 관한 것 4. 교도의 의무금 기납금 회사금 등 수납에 관한 것 5. 기타 재무에 관한 일체사항.

제52조 감찰원에는 좌의 부서를 둔다.

1. 감사부 2. 사서부

제53조 각부의 소관사항은 좌와 같다.

감 사 부

1. 교도의 감찰과 상벌에 관한 것 2. 회계의 검사에 관한 것 3. 교세의 조사와 통제에 관한 것 4. 기타 일체감사에 관한 것.

사 서 부

1. 종법사 내명에 관한 것 2. 교령에 관한 것 3. 인사위면에 관한 것 4. 법계 승강의 절차에 서류보관에 관한 것 5. 전무출신 거진출신의 절차와 서류보관에 관한 것 6. 지부 급지사정에 대한 서류보관에 관한 것 7. 중앙교의회 수위단회 원의회의 서류보관에 관한 것 8. 기타 기밀서류보관에 관한 것 9. 감찰의 일반회의에 관한 것.

제54조 교정원에는 좌의 직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장 4인 3. 각부에는 적의히 과장, 주임 및 소속직원 약간인.

제55조 교화와 교육에 전임하는 직원은 좌와 같다.

1. 교감 약간인 2. 교무 약간인 3. 순교 약간인 4. 학림장 및 학림교수 약간인.

제56조 의식에 전임하는 직원은 좌와 같다.

1. 예감 약간인 2. 서기 약간인.

제57조 감찰원에는 좌의 직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장 2인 3. 감사원 약간인 4. 서기 약간인.

제58조 과장급이상 직원의 임기는 중히 3개년으로 하고 보결로 피임된 때에는 전직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9조 2원장은 종법사를 보좌하여 교단을 총리하되 교정원장은 교정의 전반을, 감찰원장은 감찰의 전반을 각각 전임한다.

제60조 종법사가 유고할때는 교정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 원장은 정사이상을 피선거격으로 하고 수위단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중으로 중앙교의회에서 선정한다.

제62조 부장과 과장은 교정이상을 피선거격으로 하고 수위단회에서 추천하여 종법사가 임명한다.

제63조 주임급이하의 교선이상을 피선거격으로 하고 원의회에서 추천하여 종법사가 임명한다.

II. 각 종 법 규

제64조 교감, 예감, 학림장, 학림교수, 감사원에 대한 선거방식, 임기, 대우 등은 부장과 동례로 하고 교무는 과장과 동례로, 순교는 주임과 동례로 한다.

제65조 각원과 부에는 사무형편을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차장은 선거방식, 임기 등은 원은 원장, 부는 부장과 동례로 한다.

제66조 직원후보자로서 소정 법제에 상합한 자격이 없는 때에는 종법사가 임시 그 제한을 지정한다.

제67조 직원의 임기중 혹 특별사고가 있어 법규에 의한 회의소집이 곤란할때에는 종법사가 임시 그 대리를 임명한다.

제68조 이원의 사무통제는 좌와 같다.

1. 부장은 소관원장의 명을 받아 해부사무를 주관한다 2. 과장은 소관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3. 주임이하의 각기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4. 감사원은 감사부장의 명을 받아 교단내 선악을 감사한다 5. 교감, 예감, 학림장은 교정원장의 명과 교무부장의 지휘를 받아 교화, 의식, 교육을 각각 주관한다 6. 교무는 교무부장과 교감의 명을 받고 순교는 교무의 명을 받아 각기 교화에 전무한다.

제69조 교무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양원의 과장급이상 직원으로써 원의회를 조직한다.

제70조 원의회는 사무진행상 수시 개최한다.

제71조 원의회내에 입법위원회와 경제위원회의 과별을 둔다.

제72조 입법위원회는 교내의 모든 법규를 기안하고 교단의 기강을 부식하며 경제위원회는 경제운영상 중요사항을 연구하고 심의한다.

제73조 원의회는 의견의 성질을 따라 이원장이 수의 주관한다.

第9章 首位團會

제74조 수위단회는 중앙교의회에서 선정한 수위단원으로 조직한다.

제75조 수위단원은 정사이상을 피선거격으로 한다.

단, 정사자격이 없을때에는 교정중에서 선정할 수도 있다.

제76조 수위단원의 임기는 6개년으로 하고 보결로 피선된 때에는 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7조 수위단은 남녀별 2단을 두고 정원은 단장을 합하여 각 10으로 하되 종법사가 2단의 원장이 되어 이를 통솔한다.

제78조 수위단회는 4월중에 종법사가 소집한다.

단, 필요가 있을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79조 수위단회의 개최 및 의결의 방법은 중앙교의회에 준한다.

제80조 수위단회는 종법사의 최고자간에 응하고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법사 추천에 관한 것 2. 중앙교의회 특선위원 선정에 관한 것 3. 직원선정에 관한 것 4. 법제승강에 관한 것 5.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증하는 사항.

第10章 教 區

제81조 본교는 지방교정상 완전을 도하기 위하여 교구제를 둔다.

제82조 교구는 지부 30개소 이상으로써 조직한다.

단, 중법사의 특인이 있는 때에는 본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83조 교구사무소의 명칭은 교관부라 한다.

제84조 교관부는 중앙총부의 지시를 받아 관내 각지부와 지소의 교정을 총관한다.

제85조 교구에는 교구교의회를 두고 해교구의 매년 예산결산과 기타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86조 교구교의회는 해교구내 지부장, 지소장, 주무와 교감, 예감, 순교로써 조직한다.

제87조 교구교의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되 교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88조 교구교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정하여 의사를 장리하게 한다.

의장은 교관부장이 이에 당하고 부의장은 의원중에서 선정한다.

부의장 선거방식은 의회에서 설정한다.

제89조 교관부에는 교정국과 감찰국을 두고 국내에는 적의히 계를 둔다.

제90조 교관부에는 좌의 직원을 둔다.

1. 부장 1인 2. 국장 2인 3. 주무 약간인 4. 교감 약간인 5. 예감 약간인 6. 부내 소속직원 약간인.

제91조 교관부장은 교구를 대표하여 부무를 총관한다.

제92조 국장은 교관부장을 보좌하여 국무를 처리하되 교정국장은 교정에 전임하고 감찰국장은 감찰에 전임한다.

제93조 교관부장이 유고할때에는 교정국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94조 주임은 각기국장의 명을 받아 소관 계무를 처리한다.

제95조 교감과 예감은 교관부장을 협조하여 교구내의 일반교화와 의식을 주관하며 교정을 순찰한다.

제96조 교관부에는 고문 약간인을 두고 교관부장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한다.

제97조 교관부장은 정사이상, 국장은 교정이상으로 수위단회의 추천을 얻어 중법사가 임명한다.

단, 소정 법계에 상합한 자격이 없을때에는 부장은 교정국장을 교선중에서 선정할 수도 있다.

제98조 주임급이하의 교선이상으로 교구교의회의 추천을 얻어 중법사가 임명한다.

단, 교구교의회를 소집하기 곤란할때에는 교구직원회의 추천으로 이에 대행할 수도 있다.

제99조 고문은 교관부장의 추천으로 중법사가 위촉한다.

제100조 교구가 성립되기 전에는 각지방을 중앙총부에서 직할하며 또는 지부중 수반지부를 두어 교관부 사무를 행하게 할 수도 있다.

제101조 교구내 국장이상 직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하고 보결로써 피선될때에는 전직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第11章 支部及 支所

제102조 본교는 대중교화의 도장으로 지부와 지소를 둔다.

제103조 지부는 교도 오백명 이상이 있는 지방에 설치한다.

단, 기성지부나 종법사의 인증이 있는 때에는 본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04조 지부는 교세발전에 따라 일급지로부터 오급지까지의 등별을 둔다.

제105조 지부에는 지부교의회를 두고 해지부의 매년 예산결산과 기타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106조 지부의회의원은 교선이상으로 관납교도가 선정한다.

제107조 지부교의회는 매년 일회이상 개최하고 부장들이 이를 소집한다.

의장은 의사형편에 따라 지부장과 교무가 수의 이에 당한다.

제108조 지부에는 지부장과 주무를 두어 당지부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교감 교무 순교를 두어 교화를 담당하게 한다.

단, 형편에 따라 부지부장을 둘 수도 있다.

제109조 지부에는 형편에 따라 고문 약간인을 두고 지부장과 교무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한다.

제110조 지소는 교도 백명이상이 있는 지방으로 선법상 필요에 의하여 둔다.

제111조 지소에는 교화단 단장회를 두어 해소 각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12조 지소에는 지부승격의 의무가 있다.

제113조 지부에는 지소장과 주무를 두어 해소 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주무와 순교를 두어 교화를 담당하게 한다.

제114조 지부장, 부지부장, 지소장, 주무는 해지부교의회 또는 해지소단장회의 추천을 얻어 종법사가 임명한다.

제115조 고문은 지부장과 교무의 추천을 얻어 종법사가 위촉한다.

제116조 지부장과 부지부장은 교정 이상으로 하고 지소장과 교무는 교선 이상으로 한다.

단, 지부장과 부지부장의 후보자로서 교정자격이 없는 때에는 교선중에서 선정할 수도 있다.

제117조 지부장, 지소장, 주무와 지부교의회의원의 임기는 총히 3개년으로 하고 보결로써 피임될 때에는 전직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8조 지부와 지소는 교법의식제도 명칭을 일률로 중앙총부에 준하여 시행한다.

第12章 附屬事業及 團體

제119조 본교는 유치원, 학교, 수양원, 요양원, 병원, 양노원, 고아원 등을 수의설치한다.

제120조 유아원, 학교는 일반교육기관으로 수양원, 요양원, 본교유공인의 수양과 요양기관으로 병원, 양노원, 고아원은 일반자선기관으로 한다.

제121조 각 사업기관에는 원장 교장 원장 등 주관자를 두고 그 소속하에 각직원을 적의히 배치한다.

제122조 각 사업기관 주관자는 교정이상으로 수위단회에서 추천하여 종법사가 임명하고 소속직원은 주관자의 추천으로 종법사가 임명한다.

단, 교도중 자력으로써 사업을 전영하면서 본교의 각침을 원대하는 자는 감찰원장의 조사에 의하여 본조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고도 종법사가 이를 인증할 수 있다.

제123조 본교는 소년단, 청년단, 장학회, 상애회 등을 조직할 수 있다.

제124조 소년원 청년단은 교화추진단체로 장학회는 교육수호단체로 상애회는 교도의 상호 간 애호단체로 한다.

제125조 각 사업기관과 단체는 중앙총부의 직속하에 두고 그 기관에 따라 소당부장의 지휘를 받아 각각 사무를 진행한다.

단, 사업확장에 따라 교구 또는 지부의 관리하에 둘 수도 있다.

제126조 각 사업기관과 단체의 주관자의 임기는 총히 3개년으로 하고 보결로써 피임될 때에는 전직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第13章 教 產

제127조 중앙총부, 교관부, 지부, 기소와 부속사업급단체의 소유인 토지, 산림, 건물동산을 본교의 재산으로 한다.

교도의 회사한 재산도 포함한다.

제128조 본교의 재산은 본헌 제38조항의 절차를 지나 종법사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처분하지 못한다.

第14章 會 計

제129조 본교의 재산은 본교의 유지발전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30조 중앙총부의 세입은 중앙총부의 소유재산에서 생한 소득과 일반교도의 의무금, 회사금과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제131조 중앙총부는 매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중앙교의회의 결의를 요한다.

제132조 본교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33조 교관부의 경비는 해교관부 소유재산에서 생한 소득과 소정의 물에 의한 관내 지부급 지소의 부담으로써 충당한다.

제134조 지부와 지소의 경비는 해소소유재산에서 생한 소득과 교도의 부담으로써 충당한다.

제135조 교관부는 매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교구교의회의 의결을 요하고 그 결의안을 중앙총부에 보고한다.

제136조 지부와 지소는 매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부교의회 또는 지소단장회의의 결을 요하고 그 결의안은 교관부를 경유하여 중앙총부에 보고한다.

第15章 賞 罰

제137조 교도로서 공부사업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종법사는 승급 또는 표상을 행한다.

제138조 교도로서 부정패행이 있을때에는 감찰원장의 보고서를 요하여 종법사가 그 정상에 의하여 제적, 탈계, 분한정지, 근신, 단책등의 처벌을 행한다.

단, 본교헌급교규에 의하지 않고는 박탈하지 못한다.

第2篇 教制

第16章 專務出身

제1절 자 격

제139조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본교에 공헌한 자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제140조 전무출신은 우의 조항으로써 그 자격을 인증한다.

1. 사가에 구속이 없이 그 임무를 전일이행하는 자. 2. 임무의 취지가 급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의무감으로써 이행하는 자. 3. 본교의 명령에는 호악을 가리지 아니하고 항시 그 지정임무에 노력하는 자. 4. 신성이 전실하여 본교외에는 달리 마음이 흐르지 아니하는 자. 5. 공부사업 양방면으로 항시 공덕이 들어나는 자. 6. 기타 전무출신 관한 모든 규정을 일일이 준수하는 자.

제2절 종 별

제141조 전무출신의 방로를 널리 열기 위하여 우의 이종과 삼기의 별을 둔다.

1. 일종, 이종 2. 일기, 이기, 삼기

제142조 일종은 의식비용을 자담한 자와 의식비용은 교중에서 우용하나 달리 급료지불을 받지 않는 자로 한다.

제143조 이종은 생활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지정료금을 받는 자로 한다.

단 급료를 받을지라도 타처의 가봉을 취하거나 또는 다른 업무를 겸한바가 없고 정신이 전일하여 조급도 사리에 끌리지 아니하며 급료중 이할과 특별시상의 료는 본교사업에 편입하는 자는 제140조 2항의 실행자로 인증한다.

제144조 일기는 보무기간 만칠개년을 오로지 헌신한 자로 한다.

단, 일기이상의 전무출신을 서원하고 만3년이상을 충실활동중 열반한 자는 입법위원의 결의를 경유하여 종법사가 이를 일기로 인증할 수 있다.

제145조 2기는 보무기간 만14개년을 오로지 헌신한 자로 한다.

제146조 3기는 집행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오로지 헌신한 자로 한다.

제3절 절 차

제147조 전무출신을 원하는 자는 좌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무출신서원서 2. 관계자의 전무출신승낙서 3. 관할지방교무의 추천서 4. 이력서와 사진 5. 호적등본 6. 의사의 건강증명서

단, 전기각항중 감찰원장의 승인이 있는 건은 생략할 수도 있다.

제148조 좌기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무출신으로 수리할 수 없다.

1. 중등학교졸업정도의 학력이 없는 자. 2. 중등학교졸업정도의 학력이 없는 자로서 한문의 문리도 통하지 못한 자. 3. 전기1, 2항의 학력이 없는 자로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도 없는 자. 4. 본교리에 대하여 신근이 서지 못한 자. 5. 전염악질이 있는 자. 6. 세상에 들어난 악행이 있는 자. 7. 연령이 20세 미만된 자와 60세 이상된 자.

단, 전기각항에 해당하는 자라도 종법사의 특인이 있는 때에는 본조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제149조 전무출신 서원서와 서류는 본인의 관할지부에 제출하며 지부에서는 그 서류를 전부 수리한 후 정본과 부분을 작성하여 정본은 감찰원에 제출하고 부분은 해지부에 보관한다.

제150조 감찰원은 그 서류를 심사한 후 입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종법사의 인증으로써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제151조 전무출신으로 수리된 자는 본교의식에 의하여 선언식을 행한다.

제152조 감찰원은 전무출신의 각부를 별로 두어 매년 그 성적을 사정한다.

제153조 전무출신에 예약의 원이 있는 자는 준비기간 6개년 이내에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제4절 특우급징벌

제154조 전무출신은 가증가기를 물론하고 본교에 나타난 실공적으로써 등급을 정한다.

제155조 등급은 공부성적과 사업성적을 합하여 원등급으로 한다.

제156조 본교는 전무출신의 공등급을 따라 노쇠시에 봉양하며 사후에 상장을 부담하고 영모전에 봉안하여 영원히 조상으로 향례한다.

제157조 본교는 생자녀가 없는 전무출신자에게 은자녀를 정하여 노쇠시 편의를 공여한다.

제158조 전무출신자로서 좌기의 일에 당한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로 한다.

1. 사회에 들어난 죄악을 지은 자. 2. 본교의 종계를 범한 자. 3. 전무출신의 본원을 망각하고 병공영사 하는 자. 4. 전무출신의 규율을 무시하고 자지하는 자. 5. 기타 여러 방법으로 본교에 손상을 주는 자.

제159조 전무출신자로서 전조각항 중에 해당되는 범위가 있을 때에는 감찰원장이 이를 조사하여 경한 자는 단책, 근신, 징계의 법으로써 해개하게 하고 중한 자와 중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입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중법사의 인증으로 전무출신의 각부에서 삭제한다.

제160조 전무출신부에서 제명된 자로서 전과를 뉘우치고 본원에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3년 이상 회개한 증거를 대중앞에 나타내며 전자법과로 인한 피해처를 보충한 후 감찰원에 복직원서를 제출한다.

제161조 감찰원장은 이를 심사한 후 입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중법사의 인증으로써 다시 등록하되 전무출신 초입자와 동대우한다. 단, 대우방법은 중법사의 특인으로써 흑임시 사정할 수도 있다.

第17章 居塵出塵

제1절 자 격

제162조 재가교도로서 공부와 사업에 출중한 자를 거진출진이라 한다.

제163조 거진출진은 좌의조항으로써 그 자격을 인증한다.

1. 10년이상을 대조하여 세간에 많은 고락과 도문에 많은 고락을 경우하되 도심이 여일하여 그 환경에 끌리지 아니한 자. 2. 10년이상을 대조하여 선원과 강습에 연중 루석이 없고 예회 성적이 여일한 자. 3. 총부지부름 물론하고 10년이상의 공로가 있는 자. 5. 10년이상 전무출신을 보호하여 근장이 있게한 자. 6. 3년이상과 7년이하의 의무노력이 있는 자. 7. 전무출신에 공헌하기 위하여 적당한 인재의 학비를 10년이상 담당한 자. 8. 특신급이상의 법제와 오등이상의 사업성적이 있는 자.

단, 이상 각항중 1건에만 해당하여도 거진출진으로 인증한다.

제164조 거진출진은 각지부교의회에서 그 자격을 선택하여 감찰원에 보고한다.

제165조 감찰원장은 그 보고를 수리한 후 입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중법사의 인증으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166조 감찰원은 거진출진의 각부를 별로 두어 3년 혹은 오년에 1차씩 그 성적을 사정한다.

제2절 대우급징벌

제167조 거진출진은 제163조의 8개항목중 하항의 자격임을 물론하고 본교에 나타난 실공적으로써 등급을 정한다.

제169조 본교는 거진출진의 공노동을 따라 상장시 차례의 절차를 정하며 영모전에 불안하여 영원히 조상으로 향례한다.

제168조 등급은 공부성적과 사업성적을 합하여 원등급으로 한다.

제170조 거진출진으로서 노쇠시에 혹 자녀의 의탁이 없을 때에는 본교에서 그 시봉을 부담할 수도 있다.

제171조 거진출진으로서 혹 중도에 과실이 주하여 본교에 탈선적 행동이 있는 때에는 해지방교의회에서 그 사유를 감찰원에 보고한다.

제172조 감찰원장은 이를 심사한 후 과실이 경한 자는 단책, 근신, 징계의 범으로써 회개하게 하고 중한 자와 중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입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종법사의 인증으로써 거진출진부에서 삭제한다.

제173조 거진출진부에서 제명된 자로서 전우를 뉘우치고 본행실에 회복하는 자는 3년이상 경우를 대조하여 모든 조건이 충실한 후에 해지부교의회에서 그 사실을 감찰원에 보고한다.

제174조 감찰원장은 이를 심사한 후 입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종법사의 인증으로써 다시 등록하되 거진출진부에 처음 등록한 자와 동시대우한다.

第18章 喜捨位

제175조 본교에 정사이상이 된 자의 부모를 회사위라 한다.

제176조 그 자녀가 정사인 시는 소회사라하고, 원정사인 시는 중회사라 하고, 대원정사인 시는 대회사라 한다.

제177조 회사위에 해당하는 자라도 그 자녀의 공부와 사업하는데에 구속과 방해하는 행동이 많은 자는 회사위로 인증하지 아니한다.

단, 처음에는 비록 이해가 적었을지라도 나중에 다시 근장한 실적이 있는 자는 이를 용인한다.

제178조 감찰원장은 회사위의 자격을 심사한 후 입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종법사의 인증으로써 이를 결정한다.

단, 회사위의 추존은 본인의 열반후로 한다.

제179조 본교는 회사위의 각부를 별로 두고 영모전에 불안하여 영원히 조상으로 향례한다.

第19章 工夫等位

제180조 공부등위는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각여래위의 6등위로 한다.

제181조 6등위의 승급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비특신급, 예비법마상전급, 예비법강항마위, 예비출가위, 예비대각여래위의 중간급을 둔다.

제182조 공부등위의 승급조항은 불교정전 수행편 제50장 원문에 의한다.

단, 특별사정법을 별로 정할 수도 있다.

제2절 승 감

제183조 공부등위의 승강급은 감찰원장이 각지방책임자와 연락조사하여 고시위원의 심사를 거쳐 수위단회에 회부하여 이를 결정한다.

고시위원은 교정원장과 감찰원장의협의하에 3인내지 5인으로써 이를 구성한다.

제184조 공부등위승강급의 결정은 법강함마위이하의 수위단단회에서 행하고 출가이상은 수위단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법사가 행한다.

제185조 공부등위의 성적은 점수로써 계산하여 대각여래위는 백20점이상 출가위는 100점, 법강함마위는 80점, 법마상전급은 60점, 특신급은 40점으로 하며 중간급은 10점의 차로 한다.

단, 고시기간 전에라도 승급의 자격자가 열반할때에는 임시고시위원을 선정하여 종법사가 직접 그 승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6조 공부등위의 승강급고시는 3년 혹은 5년에 1차씩 행한다.

제187조 승급은 원칙에 의하여 순서적으로 하되 혹 특진적공부가 있는 자에게는 초등으로 할 수도 있다.

제188조 승급자로서 중도에 수행이 감퇴하여 승급조항에 위반되는 일이 있을때에는 차회고시시에 고시위원의 심사와 양원장의 의견을 근거하여 수위단회에서 그 강급을 결정한다.

제189조 본교는 승급자에 대하여 별로 법계의 칭호를 봉헌하며 법강함마위부터는 예전에 의하여 승급 예식을 거행한다.

제190조 법계의 칭호는 특신급은 교신, 법마상전급은 교정, 법강함마위는 정사, 출가위는 원정사, 대각여래위는 대원정사로 한다.

단, 예비급은 우에 준자를 부쳐서 칭호한다.

法 階 等 級 表

法 號	大圓正師		圓 正 師		正 師		教 正		教 選		
法 階	大覺如來位	豫備	出家位	豫備	法強降魔位	豫備	法魔相戰級	豫備	特信級	豫備	普通級
成績點數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第20章 事業等級

제1절 등급의 별

제191조 사업등급은 5등, 4등, 3등, 2등, 1등 특등의 6등급으로 한다.

제192조 사업등급은 좌의 각항을 표준하여 그 성적과 등별을 사정한다.

1. 정신노력으로써 본교에 공적이 들어난 것.
2. 내신노력으로써 본교에 공적이 들어난 것.
3. 물질의손으로써 본교에 공적이 들어난 것.
4. 명예와 특행으로써 본교에 공적이 들어난 것.

제193조 정신과 육신의 노력은 노력대상을 금액으로써 환산하고 물질의손은 실금액을 계산하며 명예와 특행은 시상을 금액으로써 환산한다.

제2절 승 감

제194조 사업등급은 교정원에 기록된 실성적과 감찰원에서 심사한 시상성적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95조 감찰원의 시상성적은 각지방의 보고를 수리한 후 정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종법사의 인증으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196조 교도의 성적사정은 중앙과 지방을 물론하고 매년말 본교의 회계결산시에 행한다.

제197조 사업등급의 성적은 점수로써 계산하되 특등은 120점 이상으로 하고 1등은 100점, 2등은 80점, 3등은 60점, 4등은 40점 5등은 20점으로 한다.

제198조 사업등급의 금액정함과 점수환산은 수위단회에서 수시 재정한다.

제199조 사업자로서 중도에 혹 비행이 있어서 본교에 손실이 있게 한 자는 그 손실된 대액을 계산하여 강등 또는 등외로 하되 감찰원의 심사에 의하여 입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종법사의 인증으로 이를 결정한다.

事業等級表

事業等別	特等	豫備	一等	豫備	二等	豫備	三等	豫備	四等	豫備	五等	豫備
成績點數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第21章 法 系

제1절 법계와 대수

제200조 본교는 교조 소태산대종사로 위시하여 법계를 계산한다.

제201조 교조 이하는 인적단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수로써 하되 매대수를 36년으로 한다.

제202조 매 대수내에 동참한 교도는 전부 형제행으로 하되 기중 중통은 하시를 물론하고 당대내에 최고법계자로 한다.

단, 최고법계자가 다수될 때에는 소정법규에 의하여 그 선후를 따라 심호로써 구별한다.

제2절 묘 위

제203조 본교는 대종사이하 역대제위현성의 법은을 영원히 사모하기 위하여 묘우를 건설하고 묘호를 영모전이라 한다.

제204조 영모전에 봉안하는 위차는 좌와 같다.

1. 대종사의 성위는 중앙에 봉안한다. 2. 대종사의 좌보처에는 역대제위 최고법위자의 공동위비를 봉안하고 우보처에는 역대제위 특등호법자의 공동위비를 봉안한다. 3. 일반을 하하여 좌측일열에는 전무출신 일등으로부터 오등까지의 공동위비를 각각 봉안하고 우측일열에는 거진출진 일등으로부터 오등까지의 공동위비를 각각 봉안한다. 4. 좌우말단에는 전무출신등외와 거진출진등외에 있는 역대무명교도의 공동위비를 각각 봉안한다. 5. 회사위의 위비는 별좌에 봉안한다.

제205조 영모전내에는 매대에 법보를 작성하고 각등위에 해당하는 제위현성의 명호, 역사, 영상 등을 보관한다.

제206조 영모전 향례는 연중 1차씩 거행한다.

단, 향례에 관한 제반절차는 별정예전에 의한다.

第22章 淵 源

제207조 각 교도의 본교에 대하여 서로 인도의 특색이 있는 자를 연원이라 한다.

제208조 연원은 입교연원과 견성연원의 이종으로 구분한다.

제209조 연원은 일생을 통하여 특별한 정의를 가지며 본교의 공부와 사업하는데 권장의 정신을 잊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210조 입교연원은 당인에 한하고 견성연원은 계통으로써 계산할 수도 있다.

제211조 본교는 각 교도의 연원을 조사하여 연원의 수가 많은 자와 연원내에 특별한 공부와 사업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정도를 따라 시상한다.

第23章 恩 族

제212조 각 교도사이에 특별한 은혜가 깊어서 가족의 의를 결성한 자를 은족이라 한다.

제213조 은족은 은부모와 은자녀가 있고 따라서 은형제가 있다.

제214조 은족은 은부모와 은자녀의 결의로써 시작된다.

제215조 은부모와 은자녀의 결의는 연령 만14세 이상의 차로 한다.

제216조 은족결의는 정신적상합 물질적 피온의 이종으로 한다.

제217조 은부모는 은자녀에 대하여 정신적 지도와 물질적 원조(교육비등)의 의무가 있고 은자녀는 은부모에 대하여 노병시 시봉과 열반후 상주의 의무가 있다.

제218조 은족결의에 남자는 은녀를 두지 못하고 여자는 은자를 두지 못한다.

제219조 은족에 대한 대수계산은 4촌까지 한하며 남자는 남자에만 한하고 여자는 여자에만 한한다.

제220조 본교 전무출신자중에서 공의로 특정한 은자녀는 그 은부모에 대한 의무를 교중에서 원조 또는 담당할 수 있다.

제221조 본교내에서 대중적 숭배를 받는 자는 따로 은자녀를 두지 아니한다.

단, 각자의 정의에 의하여 부모로써 칭호하는 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22조 본교에서는 각 결의자의 실황을 조사하여 특별한 신의적 미행이 있는 자는 공의에 의하여 표창한다.

第24章 附 則

제223조 교헌개정의 제안은 중법사나 또는 중앙교의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하고 개정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중법사의 인증으로써 한다.

제224조 본교헌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이를 별로 정한다.

제225조 본교헌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나. 圓 佛 教 教 憲 (제1차개정)

(원기44년 4월 25일에 전문을 개정 공포함)

第1章 總 綱

제1조 원불교는 우주의 원리요 제불의 심인인 즉 일원의 대도에 근본하여 정신·정각·정행을 중지로 한다.

제2조 본교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를 제생의세의 교재로 한다.

제3조 본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과 무시선, 무처선의 도리로써 전세계를 불은화하고 일체 중생을 선법화하기로 목적한다.

第2章 教 儀

제4조 본교는 법신불 일원상을 본존으로 한다.

일원은 사은의 본원이요 석가모니불과 소태산대종사의 정전심인이심을 신봉하여 진리로써 숭배한다.

제5조 본교의 의식은 사실에 근거하고 간편을 주로하여 대중적 행사에 맞도록 한다.

일절의식과 정례 또는 수시의 법회는 예전의 정한 바에 의하여 행한다.

第3章 教 法

제6조 본교는 정전을 본경으로 하고 기타 보조경전을 편정하여 이를 전수하게 한다.

제7조 본교의 도장은 교도의 집중지에 설치하여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

제8조 본교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제9조 본교는 교도로 하여금 직업에 근심하고 수행에 정진하여 영혼제도와 인도실천으로 영육을 쌍전케 한다.

제10조 본교는 10인 1단의 단위로써 단을 조직하여 통치와 교화의 원활을 기한다.

제11조 본교는 남녀 포교사를 두로 양성하여 남녀교화에 서로 지장이 없게 한다.

第4章 教團及教徒

제12조 본교는 본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교도로써 교단을 구성한다.

입교의 절차를 밟아 교도증을 받은 자를 교도라 한다.

절차를 밟지 아니한 신봉자는 신도라 한다.

제13조 교도는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1. 교리에 대하여 훈련을 받을 의무 2. 교헌과 교규를 준수할 의무 3. 교단을 유지발전케 할 의무 4. 구인이상의 입교연원이 될 의무 5. 법의 정한 바에 의한 선거와 피선거의 권 6. 법의 정한 바에 의한 교정상참의의 권

제14조 교도는 재가교도와 출가교도의 2종이 있다.

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등위와 사업등급의 별을 두어 그 실속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

第5章 中央總部

제15조 본교는 중앙에 중앙총부를 둔다.

중앙총부에는 교정을 통변하기 위하여 중법사 1인을 두고 결의기관으로 수위단회와 중앙교의회, 집행기관으로 교정원, 검찰기관으로 검찰원을 둔다.

전항 결의, 집행, 검찰의 3기관은 중법사에 직속한다.

제1절 중법사

제16조 중법사는 본교를 대표하며 교단을 총통한다.

중법사가 유고할 때에는 교정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7조 중법사는 출가위이상 수위단원을 피선거자격으로 하여 수위단회에서 선거하고 교정위

원회의 인준을 얻은 후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한다.

출가위이상 자격이 없을때에는 법강함마위에서 선거할 수도 있다.

제18조 종법사의 직위기간은 6년을 1기로 한다.

제19조 종법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10일이전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제20조 종법사가 결위될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고 1개월이내에 소정절차에 의하여 추대하여야 한다.

단, 보궐임기는 전종법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종법사는 교서를 편정하고 교화를 주재한다.

제22조 종법사는 상벌을 시행하고 영전을 수여하며 사면복권을 명한다.

제23조 종법사는 법의 절차에 의하여 인사를 임면한다.

제24조 종법사는 필요한 교규를 제정하여 시행케 한다.

제25조 종법사는 교헌, 교규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단, 교령은 교헌과 교규에 저촉될 수 없다.

제26조 종법사는 퇴위후라도 전직위에 준한 예우를 보장한다. 퇴위한 종법사는 상사라 칭한다.

제2절 수위단회

제27조 수위단회는 수위단원 전원으로 구성된 교단 최고 결의기관이다.

제28조 수위단은 남녀 각 구인의 단원과 단장 1인으로 조직된다. 수위단의 단장은 종법사가 이에 당한다.

제29조 수위단원은 법강함마위이상을 피선거격으로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하여 중앙교의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법강함마위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마상전급 중에서 선거할 수도 있다.

제30조 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보궐임기는 전 단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1조 수위단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법사선거에 관한 사항 2. 수위단 보궐단원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3. 교정원장, 감찰원장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4. 각부의 장, 교령, 교감, 교무, 법감, 예감, 감찰위원, 각 사무처의 장, 각 시설기관의 장 및 기타 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교정위원회 위원선정에 관한 사항 6. 중앙교의회 특선의원 선정에 관한 사항 7. 법강함마위 이상의 법계승강에 관한 사항 8. 교서편정과 교헌, 교규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수위단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종법사가 소집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 수위단회의 의장은 단장이 이에 당한다.

중앙단원은 원장을 보좌하고 수위단회의 부의장이 된다.

제34조 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시는 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31조의 1항, 7항 및 8항은 재적단원 3분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35조 수위단원을 역임한 자를 원로라 칭하고 원로로써 원로원을 구성하여 종법사의 자문에 응하게 한다.

제3절 중앙교의회

제36조 교단의 결의기관으로 중앙에 중앙교의회를 둔다.

중앙교의회 의원의 선거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37조 중앙교의회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8조 중앙교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법사 추대에 관한 사항
2. 수위단원 인준에 관한 사항
3. 교정원장, 감찰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4. 교헌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교산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 중앙교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종법사 또는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40조 중앙교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의장, 부의장은 의원중에서 선거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1조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그 사무를 감독하며 의회를 대표한다.

의장이 유고할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2조 중앙교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3조 의원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중앙교의회에 건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함을 요한다.

제44조 중앙교의회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 사무처를 둔다.

제4절 교정원

제45조 교정원은 교단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교정원장이 이를 대표한다.

제46조 교정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승하여 집행 각부를 통리감독하며 교정전반의 책에 임한다.

교정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그 서리를 선정하여 당무케 한다.

제47조 교정원장은 법의 절차에 의하여 종법사가 임면한다.

제48조 교정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궐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9조 교정원장 관리하에 집행각부를 둔다.

각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는 교규로 정한다.

제50조 교정원장과 각부의 장 및 교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원으로써 원의회를 조

직하고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원의회에 관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절 교정위원회

제51조 교정위원회는 수위단회에서 선정한 교정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정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2조 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3조 교정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교정원장이 소집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종법사의 승인을 얻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54조 교정위원회의 의장은 교정원장이 이에 당한다.

제55조 교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정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교화의식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종법사 인준에 관한 사항 4. 수위단원 선거에 관한 사항 5. 교정원장, 감찰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 6. 중앙교의회에 부의할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6조 교정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방법은 중앙교의회에 준한다.

제6절 감찰원

제57조 교단의 최고 감찰기관으로 중앙에 감찰원을 둔다.

감찰원은 원장 1인과 수위단회에서 선정한 감찰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제58조 감찰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승하여 교단감찰 전반의 책에 임하며 감찰원을 대표한다.
감찰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감찰원장이 지명하는 감찰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9조 감찰원장은 법의 절차에 의하여 종법사가 임명한다.

제60조 감찰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궐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1조 감찰원장과 감찰위원 전원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한다.

감찰원장은 감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62조 감찰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규 교령의 위헌여부에 관한 사항 2. 공포된 교규 교령의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3. 각 급회의에 중요의결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일반교도의 선행포상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및 비행징벌에 관한 사항 6. 문서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7.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감찰위원 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감찰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제63조 감찰위원회는 감찰위원전원의 3분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사항은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교정원장에게 이송하여 집행케 한다.

제64조 감찰원의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감찰원사무처를 둔다.

第6章 敎區 및 支部支所

제65조 본교는 지방교정의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구제를 상시하고 교구에는 교구교의회와 교관부를 둔다.

제66조 본교는 대중교화의 도량으로 지부, 지소를 두고 출장교화의 장소로 선교소를 둘 수 있다.

第7章 事業機關及 團體

제67조 본교는 사업기관으로 농공상의 農業시설과 교육 자선 등의 공익시설을 수의 설치한다.

제68조 본교는 원호, 장학, 친목, 수양 등을 목적하는 각종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제69조 각 사업시설기관 및 단체는 중앙총부의 관리하에 사업을 진행한다.

단, 운영의 편의에 따라 교구 또는 지부, 지소의 관리하에 둘 수 있다.

第8章 敎產及 會計

제70조 본교의 중앙총부, 교구, 지부, 지소 및 각 기관단체의 소유인 토지, 산림, 건물, 동산과 교도의 회사한 재산을 본교의 교산이라 한다.

교산은 본교의 유지발전의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교헌 제38조 6항의 절차를 거쳐 종법사의 재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71조 본교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말일까지로 한다.

제72조 교정원장은 매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교의회에 제출한다.

第9章 賞 罰

제73조 교도로서 공부, 사업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종법사는 법의 절차에 의하여 승급 또는 포상을 행한다.

제74조 교도로서 위법행위나 비행이 있는 자에게 종법사는 법의 절차에 의하여 강급 또는 징벌을 행한다.

第10章 敎 制

제75조 출가교도로서 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본교에 공헌한 자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제76조 재가교도로서 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본교에 공헌한 자를 거진출진이라 한다.

제77조 법강함마위가상이 된 교도의 부모를 회사위라 한다.

단, 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특별유공교도의 부모를 회사위로 추존할 수 있다.

제78조 교도의 공부등위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함마위, 출가위, 대각여래위의 6 등위를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예비등위를 둔다.

제79조 교도의 사업등급으로 5등, 4등, 3등, 2등, 1등, 특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예비등급을 둔다.

제80조 본교는 소태산대종사로 위시하여 법계를 계산한다.

대종사이하는 법계를 인적단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년수로써 하되 매 36년을 1대로 한다.

제81조 본교는 대종사이하 역대종사제위와 유공제위의 법은을 영원히 추모하기 위하여 조우를 건설하고 정례로 향례를 행한다.

제82조 교도간에 인도의 특언이 있는 자를 연원이라 한다.

제83조 교도간에 특별한 은의로 공부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은부자·은모녀의 의를 맺

을 수 있다.

第11章 附 則

제84조 교헌 각 조항의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85조 교헌개정 의안은 법의 절차에 의하여 교정원장 또는 중앙교의회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한다.

교헌개정 의결은 중앙교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교헌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종법사는 재가한 후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부하여 중앙교회에 환부하여 재의케 한다.

재의한 후에도 종법사의 재가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개정안은 실효된다.

제86조 이 교헌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 원 불 교 교 헌(제2차개정)

(원기49년 4월 29일에 전문 개정 공포함)

제1장 총 강

제1조(종지) 원불교는 우주의 원리요 제불의 심인인 즉 일원의 대도에 근본하여 정신, 정각, 정행을 종지로 한다.

제2조(목적) 본교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로써 전세계를 불은화하고 일체대중을 선법화하여 재생의세하기로 목적한다.

제2장 교 의

제3조(본존) 본교는 법신불 일원상을 본존으로 한다.

일원은 은의 본원이요 석가모니불과 소태산대종사의 정전심인이심을 신봉하여 진리로써 숭배한다.

제4조(의식) 본교의 의식은 사실에 근거하고 간편을 주로하여 대중적 행사에 맞도록 한다. 일체의식과 정례 또는 수시의 법회는 예전의 정한바에 따라 행한다.

제3장 교 화

제5조(본경) 본교는 교전을 본경으로 하고 기타 보조경전을 편정하여 이를 전수하게 한다.

제6조(교당) 본교의 교당은 교도의 집중지에 설치하여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

제7조(훈련) 본교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제8조(영육쌍전) 본교는 교도로 하여금 직업에 근심하고 수행에 정진하여 영혼제도와 인도 실천으로 영육을 쌍전하게 한다.

제9조(단조직) 본교는 10인 1단의 단위로써 단을 조직하여 통치와 교화의 원활을 기한다.

제10조(교역자) 본교는 남녀교역자를 두루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에 당하게 한다.

제4장 교단과 교도

제11조(교단교도) 본교는 본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교도로써 교단을 구성한다.

절차를 밟아 입교한 사람을 교도라하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신봉자는 신도라 한다.

제12조(재가출가) 교도는 재가교도와 출가교도의 2종으로 한다.

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속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

제13조(의무권리) 교도는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1. 교리에 대하여 훈련 받을 의무
2. 교헌과 교규를 준수할 의무
3. 교단을 유지발전하게 할 의무
4. 9인이상의 입교연원이 될 의무
5. 법의 정한바에 따라 선거와 피선거의 권
6. 법의 정한 바에 따라 교정상 참의의 권

제5장 중앙총부

제14조(총부) 본교는 교단을 총할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둔다.

중앙총부에는 교정을 주재하는 종법사 1인과 수위단회, 교정위원회, 중앙교의회 및 교정원과 감찰원을 둔다.

제15조(출장소) 본교는 필요한 곳에 총부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절 종법사

제16조(종법사) 종법사는 교단을 주재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종법사가 유고할 때에는 교정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7조(선거와 추대) 종법사는 출가위이상 수위단원을 피선거자격으로 하여 수위단회에서 선거한다.

출가위이상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강함마위에서 선거할 수도 있다.

선출된 종법사는 교정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한다.

제18조(임기) 종법사의 직위기간은 6년을 1기로 한다.

제19조(선거시기) 종법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10일 이전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제20조(보궐) 종법사가 궐위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고 50일 이내에 헌규의 절차에 따라 추대하여야 한다.

보궐임기는 전종법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교화·교서편정) 종법사는 교화를 주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교서를 편정한다.

제22조(상벌)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상벌을 시행하고 영전을 수여하며 사면복권을 명한다.

제23조(인사) 종법사는 헌규의 정한 바에 따라 인사를 임면한다.

제24조(교규제정)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교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한다.

제25조(교령) 종법사는 교헌, 교규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교령은 교헌과 교규에 저촉될 수 없다.

제26조(자문) 종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약간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상사예우) 퇴위한 종법사는 상사라 칭한다.

상사는 종법사에 준하여 예우한다.

제28조(법무실) 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실을 둔다. 법무실의 규정은 교규로

써 정한다.

제2절 수위단회

제29조(기능)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다.

제30조(조직) 수위단은 남녀 각9인의 단원과 단장 1인으로 조직한다.

수위단의 단장은 종법사가 이에 당한다.

제31조(선거) 수위단원은 법강항마위 이상을 피선거격으로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하여 중앙 교의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법강항마위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마상전급중에서 선거할 수 있다.

수위단원의 보궐선거는 수위단회의 추천을 얻은후 1항의 절차에 따라 한다.

제32조(임기) 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보궐임기는 전단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3조(의결사항) 수위단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법사선거에 관한 사항
2. 수위단 보궐단원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3. 교정원장 감찰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
4. 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교정위원회 위원선정에 관한 사항
6. 중앙교의회 특선의원 선정에 관한 사항
7.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계승강에 관한 사항
8. 교서편정과 교헌교규의 제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9.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회의 소집) 수위단회의 정기회는 매년 3월중에 종법사가 소집한다.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35조(의장단) 수위단회의 의장은 단장이 이에 당한다.

중앙단원은 단장을 보좌하고 수위단회의 부의장이 된다.

제36조(정족수) 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단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33조 1항, 7항 및 8항은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37조(원로) 수위단원을 역임할 분을 원로라 칭한다.

원로는 수위단원에 준하여 예우한다.

제38조(사무처) 수위단회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수위단회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3절 교정위원회

제39조(기능) 교정의 의결기관으로 교정위원회를 둔다.

교정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40조(임기) 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1조(회의 소집) 교정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3월중에 교정원장이 소집한다.

필요에 따라 종법사의 승인을 얻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42조(의장) 교정위원회의 의장은 교정원장이 이에 당한다.

제43조(의결사항) 교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정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종법사 인준에 관한 사항 3. 수위단원 선거에 관한 사항 4. 교정원장, 감찰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5. 중앙교의회에 부의할 사항 6.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개회와 의결방법) 교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절 중앙교의회

제45조(기능) 교단의 결의기관으로 중앙교의회를 둔다.

중앙교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46조(임기) 중앙교의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7조(의결사항) 중앙교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수위단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교헌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교산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추대) 중앙교의회는 제17조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 종법사를 추대하여야 한다.

제49조(회의소집) 중앙교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3월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종법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50조(의장단) 중앙교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의장 부의장은 의원중에서 선거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1조(의장의 기능)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그 사무를 감독하며 회의를 대표한다.

의장이 유고할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2조(개회와 의결방법) 중앙교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청원) 중앙교의회는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아닌 개인 또는 단체의 청원을 접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54조(사무처) 중앙교의회의 사무를 장리하여 중앙교의회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절 교정원

제55조(기능) 교정원은 교단최고집행기관으로서 교정원장이 이를 대표한다.

제56조(임면) 교정원장은 헌규의 정한바에 따라 종법사가 임면한다.

제57조(책임) 교정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집행 각부를 통리감독하며 교정전반의 책에 임한다.

제58조(임기) 교정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9조(집행각부) 교정원장관리하에 집행각부를 둔다.

각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는 교규로 정한다.

제60조(원의회) 교정원장과 각부의 장 및 교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역자로서 원의

회를 조직하고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원의회에 관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6절 감찰원

제61조(기능과 조직) 감찰원은 교단의 최고감찰기관으로서 감찰원장이 이를 대표한다.

감찰원은 원장 1인과 수위단회에서 선정한 감찰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제62조(임면) 감찰원장은 헌규의 정한바에 따라 종법사가 임면한다.

제63조(책임) 감찰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감찰위원 및 사무처를 지휘감독하며 교단감찰 전반의 책에 임한다.

제64조(임기) 감찰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5조(회의) 감찰원장과 감찰위원 전원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한다.

감찰원장은 감찰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6조(권한) 감찰위원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규, 교령의 위헌여부에 관한 사항 2. 교헌, 교규, 교령의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3. 각 급회의의 중요의결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4.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선행포상에 관한 사항 5.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및 비행징벌에 관한 사항 6. 문서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7.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감찰위원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감찰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제67조(의결방법) 감찰위원회의는 재적감찰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사항은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교정원장에게 이송하여 집행하게 한다.

제68조(사무처) 감찰원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감찰원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6장 교구와 지부지소

제69조(교구) 본교는 지방교정의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구제를 실시하고 교구에는 교구 교의회와 교관부를 둘 수 있다.

제70조(교당) 본교는 대중교화의 장소로 지부, 지소를 두고 출장교화의 장소로 선교소를 둔다.

제7장 사업기관과 단체

제71조(기관시설) 본교는 사업기관으로 교육자선 등의 공익시설과 농공상의 산업시설 및 기타 특설기관을 수의설치한다.

제72조(단체) 본교는 원호, 장학, 친목, 수양 등을 목적하는 각종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제73조(기관과 단체의 관리) 각 사업시설기관 및 단체는 중앙총부의 관리하에 사업을 진행한다. 운영의 편의에 따라 교구 또는 지부지소의 관리하에 둘 수 있다.

제8장 교산과 회계

제74조(교산) 본교의 중앙총부, 교구지부 지소 및 각 기관단체의 소유인 토지, 산림, 건물, 동산과 교도의 회사한 재산을 본교의 교산이라 한다.

교산은 본교의 유지발전의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교헌 제47조 4항의 절차를 거쳐

종법사의 재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75조(회계년도) 본교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6조(예산결산) 교정원장은 매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산서를 작성하여 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교의회에 제출한다.

제9장 교 제

제77조(전무출신) 출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사람을 전무출신이라 한다.

제78조(거진출진)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사람을 거진출진이라 한다.

제79조(종사, 대봉도, 대호법) 출가위 이상된 분과 종법사를 역임한 분을 종사위, 원성적 특등인 전무출신을 대봉도, 원성적 특등인 거진출진을 대호법이라 한다.

제80조(회사위) 법강항마위 이상이 된 교도의 부모를 회사위라 한다. 법의 정한바에 따라 특별유공교도의 부모를 회사위로 추존할 수 있다.

제81조(공부등위) 교도의 공부등위로 대각여래위, 출가위, 법강항마위, 법마상전급, 특신급 보통급의 6등위를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예비등위를 둔다.

제82조(사업등급) 교도의 사업등급으로 특등, 1등, 2등, 3등, 4등, 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예비등급을 둔다.

제83조(원성적) 교도의 원성적은 공부등위와 사업등급을 합하여 정한다.

원성적은 특등, 1등, 2등, 3등, 4등, 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준등급을 둔다.

제84조(법계) 본교는 대종사로 위시하여 법계를 계산한다.

종법사 이하는 법계를 인적단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년수로서 하되 매 36년을 1대로 한다.

제85조(향례) 본교는 대종사이하 역대종사제위와 유공제위의 법은을 영원히 추모하기 위하여 정례로 향례를 행한다.

제86조(연원) 교도간에 인도의 특연이 있는 사람을 연원이라 한다.

제87조(은족) 교도간에 특별한 은의로 공부와 사업을 근장하기 위하여 은부자 은모녀의 의를 맺을 수 있다.

제10장 부 칙(원기33년 4월 26일 제정, 원기44년 4월 25일 개정)

제88조(시행규정) 교헌 각 조항의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교규로 한다.

제89조(개정) 교헌개정의 제한은 법의 절차에 따라 교정원장 또는 중앙교의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한다.

교헌개정의 의결은 중앙교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교헌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종법사가 재가한 후 공포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부쳐 중앙교의회에 환부하여 재의하게 한다.

재의한 후에도 종법사의 재가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개정안은 실효된다.

제90조(공포) 이 교헌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기49년 4월 29일 개정)

이 교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원기49년 5월 1일 공포).

라. 원 불 교 교 헌(제3차개정)

(원기62년 3월 1일에 전문을 개정 공포함)

전 문(前文)

일원세계(一圓世界) 전설의 기연(機緣)에 응하여 원기원년(圓紀元年) 3월 26일, 소태산 대종사(少太山大宗師)의 대각(大覺)으로 개교(開教)되고, 물질이 개벽(開闢)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 아래 영산방언(靈山防堰)과 법인성사(法認聖事)로 창립(創立)의 정신이 다져진 사회상(會上) 원불교(圓佛敎)는,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종지(宗旨)로 하고 신앙(信仰)과 수행(修行)을 병진(並進)하며, 영(靈)과 육(肉)을 쌍전(雙全)하고, 이(理)와 사(事)를 병행(並行)함으로써, 광대하고 원만한 교단(敎團)의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에, 남녀와 재가 출가(在家出家)가 다함께 주인이 되어, 한 없는 세상에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사명을 원활히 수행(遂行)하기 위하여, 원기9년에 제정한 불법연구회 규약(佛法研究會規約)을 연원(淵源)해서 원기33년에 제정한 원불교 교헌(圓佛敎敎憲)을 원기61년 10월 28일에 다시 개정하는 바이다.

제1장 총 강(總綱)

제1절 종지(宗旨)와 목적(目的)

제1조(종지) 원불교(이하 본교라 칭한다)는 우주의 원리요 제불(諸佛)의 심인(心印)인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종지로 하고, 이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제2조(목적) 본교(本敎)는 전조(前條)의 종지 아래 인생의 요도 사온 사요(四恩四要)와 공부의 요도 삼학 팔조(三學八條)로서 전세계를 불은화(佛恩化)하고 일체대중을 선법화(禪法化)하여 제생의세(濟生醫世)하기로 목적한다.

제2절 교의(敎義)

제3조(본존) ① 본교는 법신불 일원상을 본존으로 한다. ② 일원(一圓)은 사온(四恩)의 본원이요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과 소태산 대종사(少太山大宗師)의 정전심인(正傳心印)이심을 신봉하여 진리로써 숭배한다.

제4조(의식) ① 본교의 의식은 진리와 사실에 근거하고 간편을 주로하여 대중의 행사에 맞도록 한다. ② 모든 의식과 정례(定例) 또는 수시(隨時)의 법회(法會)는 예전(禮典)의 정한바에 따라 행한다.

제3절 교화(敎化)

제5조(교전) 본교는 정전(正典)과 대중경(大宗經)을 교전으로 하고 기타 교서(敎書)를 편정(編定)하여 이를 전수(專修)하게 한다.

제6조(교당) 본교는 교당을 교도의 집중지에 설치하여 일상생활에 응(應)하도록 한다.

제7조(훈련) 본교는 정기훈련법(定期訓練法)과 상시훈련법(常時訓練法)으로 훈련을 실시한

다.

제8조(영육쌍전) 본교는 교도로 하여금 직업에 근실(勤實)하고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여 영(靈)과 육(肉)을 쌍전하게 한다.

제9조(교화단) 본교는 십인일단(十人一團)의 단위로써 단(團)을 조직하여 통치와 교화의 원활을 기(期)한다.

제10조(교역자) 본교는 출가·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두루 양성하여 교화 사업에 당하게 한다.

제2장 교단(敎團)과 교도(敎徒)

제11조(교단·교도) ① 본교는 본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교도로서 교단을 구성한다. ② 절차를 밟아 입교한 이를 교도라 하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신봉자(信奉者)는 신도(信徒)라 한다.

제12조(재가·출가) ① 교도는 재가교도와 출가교도로 구분한다. ② 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

제13조(의무·권리) 교도는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① 교리에 대하여 훈련을 받을 의무. ② 교헌(敎憲)과 교규(敎規)를 준수할 의무 ③ 교단을 유지 발전시킬 의무 ④ 9인 이상의 입교연원(入敎淵源)이 될 의무 ⑤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선거(選舉)와 피선거(被選舉)의 권(權) ⑥ 법의 정한 바에 따라 교정 참의(敎政參議)의 권(權).

제3장 교 제(敎制)

제14조(전무출신) ① 출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한 이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② 전무출신으로서 평생을 독신(獨身)으로 공헌한 이를 정남·정녀(貞男貞女)라 한다.

제16조(법훈) 출가위(出家位) 이상된 이와 중법사(宗法師)를 역임한 이를 종사(宗師), 원성적(元成績) 특등인 전무출신을 대봉도(大奉道), 원성적 특등인 거진출진을 대호법(大護法)이라 한다.

제17조(회사위) 대각여래위(大覺如來位)의 부모는 대희사(大喜捨), 출가위의 부모는 중희사(中喜捨), 법강항마위의 부모는 소희사(小喜捨)라 하며, 법의 정한 바에 따라 특별 유공교도(有功敎徒)의 부모를 회사위(喜捨位)로 추존할 수 있다.

제18조(공부등위) 교도의 공부등위로 대각여래위(大覺如來位)·출가위(出家位)·법강항마위(法強降魔位)·법마상전급(法魔相戰級)·특신급(特信級)·보통급(普通級)의 6등위를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예비등위(豫備等位)를 둔다.

제19조(사업등급) 교도의 사업등급으로 특등·1등·2등·3등·4등·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준등급(准等級)을 둔다.

제20조(원성적) ① 교도의 원성적은 공부등위와 사업등급을 합하여 정한다. ② 원성적은 특등·1등·2등·3등·4등·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준등급을 둔다.

제21조(법계) 본교는 교조(敎祖) 소태산 대종사(少太山大宗師)로 위시하여 법계는 인적 단전(人的單傳)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수(年數)로 하되 매(每) 36년을 일대(一代)로 한다.

제22조(향례) 본교는 대중사 이하 역대 법훈제위(法勳諸位)와 유공제위(有功諸位)의 법은(法恩)을 영원히 추모하기 위하여 예전(禮典)의 정한 바에 따라 정례로 향례한다.

제23조(연원) 교도간의 인도(引渡)의 특연(特緣)이 있는 이를 연원이라 한다.

제24조(은족) 교도간에 특별한 은의(恩義)로 공부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은부자(恩父子), 은모녀(恩母女) 의(義)를 맺을 수 있다.

제4장 중앙총부(中央總部)

제25조(中央總部) ① 본교는 교단(敎團)을 총할(總轄)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둔다. ② 중앙총부에는 종법사(宗法師)와 수위단회(首位團會)·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교정위원회(敎政委員會) 및 교정원(敎政院)과 감찰원(監察院)을 둔다.

제26조(총부출장소) 본교는 필요한 곳에 총부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절 종법사(宗法師)

제27조(종법사) ① 종법사는 교단을 주재(主宰)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② 종법사가 유고(有故)할 때에는 교정원장(敎政院長)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8조(선거와 추대) ① 종법사는 출가위(出家位) 이상을 피선거격(被選資格)으로 하여, 수위단원과 법강함마위 이상의 법사(法師)로 구성된 선거인단(選舉人團)에서 선거한다. ② 전향의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강함마위에서 선거할 수도 있다. ③ 선출된 종법사는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한다.

제29조(임기) 종법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30조(선거시기) 종법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수위단원 총선거(總選舉) 후 늦어도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제31조(보궐) ① 종법사가 궐위(闕位)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고, 50일 이내에 추대하여야 한다. ② 보궐임기는 전(前)종법사의 잔임기간(殘任期間)으로 한다.

제32조(교화·교서편정) 종법사는 교화를 주재(主宰)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교서(敎書)를 편정한다.

제33조(상벌)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상벌을 시행하고, 영전(榮典)을 수여하며 사면 복권(赦免復權)을 명한다.

제34조(인사) 종법사는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인사(人事)를 임면(任免)한다.

제35조(교규제정)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교규(敎規)를 제정한다.

제36조(교령) ① 종법사는 교헌·교규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敎令)을 발한다. ② 교령은 교헌과 교규에 저촉될 수 없다.

제37조(자문) 종법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諮問委員)을 위촉(委囑)할 수 있다.

제38조(상사) ① 퇴위(退位)한 종법사는 상사(上師)라 칭한다. ② 상사는 종법사에 준하여 예우한다.

제39조(법무실) ① 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실을 둔다. ② 법무실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2절 수위단회(首位團會)

제40조(기능)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最高決議機關)이다.

제41조(조직) ① 수위단회는 18인 이내의 원로단원(元老團員), 남녀 각 8인의 선거에 의한 단원(團員), 중법사가 특임(特任)하는 해외단원(海外團員) 및 단장(團長) 1인으로 조직한다. ② 단장은 중법사가 이에 당한다.

제42조(선임) ① 원로단원은 선거에 의하여 2기(보궐임기제외)를 역임한 이가 된다. ② 선거에 의한 단원은 법강항마위 이상을 피선거자격으로, 수위단원 후보 추천위원회(候補推薦委員會)에서 추천하여, 교정위원회(敎政委員會)에서 선거하며, 법강항마위 자격이 없을 때에는 예비법강항마위 중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③ 수위단회 후보추천위원은 원로단원이 이에 당한다. ④ 특임단원(特任團員)은 해외교구(海外敎區)의 교감(敎監) 이상중에서 중법사가 특임한다. ⑤ 선거에 의한 단원의 보궐(補闕)선거는 2항에 의한다. ⑥ 수위단원 선임절차(選任節次)는 교규로 정한다.

제43조(任期) ① 전조 1항·2항의 수위단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② 전조(前條) 4항의 단원은 해외 재직중에 한하여 재임(在任)한다. ③ 전조 2항 단원의 보궐임기는 전(前)단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4조(의결사항) 수위단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법강항마위 이상의 범위승강(法位昇降)에 관한 사항 ② 교서편정(敎書編定)과 교헌·교규의 제정 및 개폐(改廢)에 관한 사항 ③ 교정원장(敎政院長)·감찰원장(監察院長)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④ 감찰위원(監察委員)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중요인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⑥ 중앙교의회 특선의원(特選議員) 선정에 관한 사항 ⑦ 교정위원(敎政委員) 선정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중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회의 소집) ① 수위단회의 정기회(定期會)는 매년 11월중에 단장이 소집한다. ② 필요에 따라 임시회(臨時會)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46조(의장단) ① 수위단회의 의장은 단장이 이에 당한다. ② 중앙단원(中央團員)은 단장을 보좌하고 수위단회의 부의장이 된다.

제47조(개회와 의결) 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단원 과반수(過半數)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단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44조 1항·2항은 재적단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48조(법사) 수위단원을 역임한 이와, 수위단원 및 법강항마위 이상된 이를 법사라 하고 동등히 예우한다.

제49조(사무처) ① 수위단회의 사무를 장리(掌理)하기 위하여 수위단회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3절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제50조(기능) ① 교단의 결의기관(決議機關)으로 중앙교의회를 둔다. ② 중앙교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1조(임기) 중앙교의회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2조(의결사항) 중앙교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교헌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③ 교산(敎産) 처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3조(추대) 중앙교의회는 교헌 제28조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 종법사를 추대하여야 한다.

제54조(회의 소집) ① 중앙교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종법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5조(의장단) ① 중앙교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의장·부의장은 의원중에서 선거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6조(의장의 기능) ①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義事)를 정리하고 그 사무를 감독하며, 중앙교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有故)할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7조(개회와 의결) ① 중앙교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決定權)을 가진다.

제58조(청원) 중앙교의회는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同意)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의 청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9조(사무처) ① 중앙교의회의 사무를 장리(掌理)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4절 교정위원회(敎政委員會)

제60조(기능) ① 교정(敎政)의 결의기관(決議機關)으로 교정위원을 둔다. ② 교정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61조(임기) 교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2조(회의 소집) ① 교정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중에 교정원장이 소집한다. ② 필요에 따라 종법사의 승인을 얻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63조(의장) 교정위원회의 의장은 교정원장이 이에 당한다.

제64조(의결사항) 교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교정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수위단원 선거에 관한 사항 ③ 중앙교의회에 부의(附議)할 사항 ④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5조(개회와 의결) ① 교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절 교정원(敎政院)

제66조(기능) 교정원은 교단의 중앙집행기관(中央執行機關)이다.

제67조(조직과 직제) ① 교정원에 원장(院長) 1인을 두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副院長)을 둘 수 있다. ② 교정원의 조직과 직제는 교규로 정한다.

제68조(임명) 교정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임명한다.

제69조(책임) 교정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집행각부(執行各部)와 산하기관(傘下機關)

및 재단(財團)을 통리(統理) 감독하며, 교정 전반의 책(責)에 임(任)한다.

제70조(임기) 교정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1조(위원회) ① 교정원장과 부원장 및 각부의 장(長)과, 교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역자로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6절 감찰원(監察院)

제72조(기능과 조직) ① 감찰원은 교단의 중앙감찰기관(中央監察機關)으로서 감찰원장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감찰원은 원장 1인과 수위단회에서 선정한 감찰위원(監察委員)으로 구성한다. ③ 감찰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부원장은 감찰위원이 된다.

제73조(임명) 감찰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임명한다.

제74조(책임) 감찰원장은 종법사의 명(命)을 받아 교단감찰 전반의 책(責)에 임(任)하며, 감찰원 사무처장을 지휘감독한다.

제75조(임기)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6조(회의) ①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으로 감찰위원회의(監察委員會)를 구성한다. ② 감찰원장은 감찰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7조(권한) 감찰위원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교규(教規)·교령(敎令)의 위헌여부(違憲與否)에 관한 사항 ② 교헌·교규·교령의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③ 각급회의의 중요 의결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④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선행 포상(善行褒賞)에 관한 사항 ⑤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違法)행위 및 비행 징벌(非行懲罰)에 관한 사항 ⑥ 사무 감사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 ⑦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감찰위원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감찰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 사항.

제78조(의결) ① 감찰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된 사항은 종법사의 재가(裁可)를 얻어 교정원장에게 이송(移送)하여 집행하게 한다.

제79조(사무처) ① 감찰원의 사무를 장리(掌理)하기 위하여 감찰원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장 교구(敎區)와 교당(敎堂)

제80조(교구) ① 본교는 지방 및 해외 교정(敎政)의 완전(完全)을 기(期)하기 위하여 교구제(敎區制)를 둔다. ② 교구의 편제는 교규로 정한다.

제81조(교당과 선교소) 본교는 교화의 장소로 교당을 두고, 출장 교화의 장소로 선교소(宣敎所)를 둔다.

제6장 기관(機關)과 단체(團體)

제82조(기관) 본교는 교화(敎化)·교육(敎育)·자선(慈善)·산업(産業) 및 훈련(訓練)·복지(福祉)·문화(文化)·봉공(奉公)의 각 기관과 기타 특설기관(特設機關)을 설치할 수 있다.

제83조(단체) 본교는 원호(援護)·장학(獎學)·친목(親睦)·수양(修養) 등을 목적하는 각종 단체와 청소년 단체 등을 조직할 수 있다.

제84조(기관·단체의 관리) ① 각 기관 및 단체는 중앙총부의 관리하에 사업을 진행한다.
② 운영의 편의에 따라 교구 또는 교당의 관리하에 둘 수 있다.

제7장 교산(敎產)과 회계(會計)

제85조(교산) ① 본교의 중앙총부·교구·교당 및 각 기관·단체의 소유인 토지·산림(山林)·건물(建物)·동산(動產)과 교도의 회사한 재산을 교산이라 한다. ② 교산은 본교의 유지 발전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교헌 제52조 3항의 절차를 거쳐 종법사의 재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처분하지 못한다.

단, 중앙교의회의 폐회중에는 원의회의 결의로써 대행하되, 차기 중앙교의회의 추인(追認)을 얻어야 한다.

제86조(법인) ① 본교는 교산의 전부 또는 일부로 법인을 구성한다. ② 교정원장은 법인의 이사장(理事長)이 되며, 법인 정관(定款)과 교규에 따라 교산을 관리 운영한다.

단, 해외교구법인의 구성과 이사장은 교규로 정한다.

제87조(회계년도) 본교의 회계년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88조(예산·결산) 교정원장은 매년 세입·세출 예산안(歲入歲出豫算案)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교의회에 제출한다.

제8장 부 칙(附則)

제89조(시행규정) 교헌 각 조항의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90조(개정) ① 교헌개정의 제안(提案)은 법의 절차에 따라 교정원장 또는 중앙교의회의 원 3분의 1이상의 연서(連書)로써 한다. ② 교헌개정의 의결은 중앙교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교헌 개정이 의결되면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公布)하여야 하며,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異議書)를 붙여 중앙교의회에 환부(還付)하여 재의(再議)하게 한다. ④ 재의(再議)한 후에도 종법사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개정안은 실효(失効)가 된다.

제91조(시행) 이 교헌은 원기6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 圓 佛 敎 敎 憲

제 정	33.	4.	26
1차개정	44.	4.	25
2차개정	49.	4.	29
3차개정	62.	3.	1
4차개정	72.	11.	15

前 文

一圓世界 建設에 機緣에 應하여 圓紀元年 4月 28日(丙辰 陰 3月 26日) 少太山 大宗師의 大覺으로 開敎한 圓佛敎는 「物質이 開闢되니 精神을 開闢하자」는 標語아래 法身佛 一圓相의 眞理를 宗旨로 하여 信仰과 修行을 並進하고 靈과 肉을 雙全하며 理와 事를 並行함으로써 廣大

無量한 樂園世界 建設을 指向한다.

우리는 敎祖께서 九人弟子와 더불어 貯蓄組合을 設立하고 靈山防堰과 法認聖事로 敎團創立의 基本을 다져준 精神을 이어받아 敎化·敎育·慈善의 三大事業을 계승 발전시켜 濟生醫世의 사명 완수에邁進한다.

이에 在家·出家 全敎徒가 다 같이 主人이 되어 一圓主義思想에 입각하여 共和制度의 體制와 十人一團의 敎化로 참 文明世界 建設의 기틀을 더욱 다지기 위하여 圓紀33年 4月 26일에 제정한 圓佛敎 敎憲을 3次 改正에 이어 圓紀72年 11月 15일에 다시 改正한다.

제1장 總 綱

제1절 宗旨와 目的

제1조(宗旨) 원불교(이하 본교라 칭한다)는 宇宙萬有의 本源이요 諸佛諸聖의 心印이며 一切衆生의 本性인 一圓相의 眞理를 중지로 한다.

제2조(目的) 본교는 전조의 중지 아래 眞理의 宗教의 信仰과 事實의 道德의 訓練으로써 일체衆生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敎 儀

제3조(信仰의 對象) 본교는 法身佛 一圓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한다.

제4조(淵源佛) 본교는 釋迦牟尼佛을 연원불로 한다.

제5조(敎祖) 본교의 교조는 少太山 大宗師이다.

제6조(法系) ① 법계는 少太山 大宗師로부터 비롯된다. ② 법계는 人的單傳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 36년을 1代로하여 共同傳受한다.

제7조(儀式) ① 본교의 의식은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다. ② 정례 및 수시법회와 모든 의식은 禮典의 정한 바에 따라 행한다.

제3절 敎 化

제8조(敎典) 본교는 正典과 大宗經을 敎典으로 하고 그밖의 敎書를 편정하여 이를 專修하게 한다.

제9조(敎役者) 본교는 출가·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

제10조(敎堂) 본교는 대중교화의 장소로써 교도와 인구의 집중지에 교당을 설치하고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한다.

제11조(訓練) 본교는 定期訓練法과 常時訓練法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제12조(敎化團) 본교는 十人一團의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와 통치의 원활을 기한다.

제13조(靈肉雙全) 본교는 교도로 하여금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고 직업에 근심하여 靈과 肉을 쌍전하게 한다.

제2장 敎團과 敎徒

제14조(敎團·敎徒) ① 본교는 본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교도로서 교단을 구성한다. ② 절차를 밟아 입교한 이를 敎徒라 하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신봉자는 信徒라 한다.

제15조(在家·出家) ① 교도는 재가교도와 출가교도로 구분한다. ② 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

제16조(基本義務·權利) 교도는 다음 의무와 권리가 있다.

1. 조석심고의 의무 2. 법회출석의 의무 3. 보은헌공의 의무 4. 입교연원의 의무 5. 선거와 피선거의 권리 6. 교정 참여의 권리

제3장 敎 制

제17조(圖紀) 본교의 紀元은 원기라 하고 少太山 大宗師의 大覺年度를 圖紀 元年으로 한다.

제18조(事務出身) ① 출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이를 전무출신이라 한다. ② 전무출신으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공헌하는 이를 貞男·貞女라 한다.

제19조(居塵出塵)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이를 거진출진이라 한다.

제20조(法位等級) ① 교도의 법위등급은 普通級·特信級·法魔相戰級·法強降魔位·出家位·大覺如來位の 6등급을 두고 보통급을 제외한 각 등급에는 예비등급을 둔다. ② 法階人호칭은 특신급을 敎選, 법마상전급을 敎正, 법강항마위를 正師, 출가위를 圓正師, 대각여래위를 大圓正師로 호칭한다. 다만 예비등급은 그 아래 등급으로 호칭한다.

제21조(事業等級) 교도의 사업등급은 특등·1등·2등·3등·4등·5등의 6등급을 두어 그 중간에 각각 준등급을 둔다.

제22조(元成積) ① 교도의 원성적은 법위등급과 사업등급을 합하여 정한다. ② 원성적은 특등·1등·2등·3등·4등·5등의 6등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각 准等級을 둔다.

제23조(法勳) 出家位 이상된 이와 종법사를 역임한 이를 宗師, 원성적 특등인 전무출신을 大奉道, 원성적 특등의 거진출진을 大護法이라 한다.

제24조(喜捨位) 대각여래위의 부모는 大喜捨, 출가위의 부모는 中喜捨, 법강항마위의 부모는 小喜捨라 하며 법의 정한바에 따라 특별 有功敎徒의 부모를 소회사로 추존할 수 있다.

제25조(大齋) 본교는 대종사 이하 역대 法勳諸位와 有功諸位の 法恩을 영원히 추모하기 위하여 禮典의 정한바에 따라 정례로 亨禮한다.

제26조(淵源) 교도간에 引導의 特緣이 있는 이를 연원이라 한다.

제27조(恩族) 교도간에 특별한 恩義로 공부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恩父子·恩母女の 義를 맺을 수 있다.

제4장 中央總部

제28조(中央總部) ① 본교는 교단을 總管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둔다. ② 중앙총부에는 宗法師와 首位團會, 中央敎議會, 敎政院, 監察院을 둔다. ③ 본교는 중앙총부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사무소의 운영은 교규로 정한다.

제1절 宗 法 師

제29조(地位) 종법사는 교단의 主法으로서 교단을 主宰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30조(權限代行) 종법사가 有故할 때에는 원로수위단의 중앙단원중 最高法臘者順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1조(被選資格) ① 종법사는 圓正師 이상을 피선거격으로 한다. ② 전항의 자격이 없을 때에는 正師중에서 선거할 수도 있다.

제32조(選舉) ① 종법사는 수위단회에서 선거한다. ② 종법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수위단원 총선거후 늦어도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③ 종법사가 關位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시 그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거하지 아니한다.

제33조(任期) 종법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4조(推戴) 선출된 종법사는 50일 이내에 중앙교의회에서 추대된다. 다만 궐위시 선출된 종법사는 당선과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35조(敎化·敎書編定) 종법사는 교화를 主宰하고 수위단회 의결을 거쳐 교서를 편정한다.

제36조(敎規制定) 종법사는 수위단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교규를 제정한다.

제37조(人事) 종법사는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인사를 任免한다.

제38조(賞罰)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榮典을 수여하고, 赦免과 復權을 명하며, 법의 정한바에 따라 상벌을 시행한다.

제39조(諮問) 종법사는 원로 수위단원을 역임한 이와 이와 동등한 자격인으로 元老會議를 구성하고 자문에 응하게 한다.

제40조(上師) ① 퇴위한 종법사는 상사라 칭한다. ② 상사는 종법사에 준하여 예우한다.

제41조(法務室) ① 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실을 둔다. ② 법무실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2절 首位團會

제42조(機能) 수위단회는 교단 最高決議機關이며 最上位 敎化團이다.

제43조(構成) 수위단회는 종법사인 단장 및 원로수위단원과 남녀 각9인의 정수위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4조(元老首位團員) 원로수위단원은 정수위단원 2기 역임자로 한다.

제45조(正首位團員) ① 정수위단원은 정사이상을 피선거격으로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中央敎議會의 中央委員과 현역 4급이상 교역자가 선거한다. ②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원로수위단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종법사가 이에 당한다. ③ 정수위단원의 보궐선거는 제1항에 의한다.

제46조(任期) ① 원로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重任할 수 없다. ② 정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 보궐단위의 임기는 전 단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가 4년이상일 경우에는 1期로 인정하고 1년미만일 경우에는 선거하지 아니한다.

제47조(議決事項) 수위단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2. 교서 편정과 교헌·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법감항마위 이상의 法位昇降에 관한 사항 4. 교리의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5. 교헌·교규의 판정에 관한 사항 6. 교정원장·감찰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7. 중요 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會議召集) 수위단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중에 단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49조(議長團) ① 수위단회의 의장은 단장이 이를 맡는다. ② 수위단회의 부의장은 원로수위단 중앙단원 남녀 각 1인과 정수위단 중앙단원 남녀 각 1인으로 하여 의장을 보좌한다.

제50조(開會와 議決) 수위단회는 재적단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7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51조(事務處) ① 수위단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수위단회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3절 中央敎議會

제52조(機能) 중앙교의회는 교단의 議決機關이다.

제53조(構成) ① 중앙교의회는 4급이상 출가교역자와 교구·교당의 재가대표로 구성한다. ② 중앙교의회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4조(中央委員會) 중앙교의회에 부의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 안에 중앙위원회를 둔다. 中央委員은 150인 이상 200인 이내로 한다.

제55조(議決事項) 중앙교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교헌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중요敎產 처리에 관한 사항 4. 교단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6조(推戴) 중앙교의회는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 종법사를 추대하여야 한다.

제57조(議會召集) 중앙교의회 및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중앙교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중앙교의회는 종법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중앙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4. 중앙위원회는 교정원장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58조(議長團) ① 중앙교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약간인을 둔다. ② 의장·부의장은 의원중에서 선거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중앙교의회 의장단은 중앙위원회 의장단을 겸한다.

제59조(開會와 議決) 중앙교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請願) 중앙교의회는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의 청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事務處) ① 중앙교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교의회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4절 敎政院

제62조(機能) 교정원은 교단의 中央執行機關이다.

제63조(組織과 職制) ① 교정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교정원의 조직과 직제는 교규로 정한다.

제64조(任命) 교정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65조(任期) 교정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6조(責任) 교정원장의 종법사의 명을 받아 집행 각부와 교구, 교당, 기관, 단체 및 법인을 통리 감독하며 교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7조(敎令) 교정원장은 院議會의 의결을 거쳐 교구의 시행상 필요한 교령을 발한다.

제68조(院議會) ①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원의회를 둔다.

② 원의회는 교정원장과 부원장, 실장, 각 부의 장 및 각종 법인의 외사와 교정원장이 위촉하는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③ 원의회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69조 ① 敎政의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무회의를 둔다. ② 교무회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절 監 察 院

제70조(機能) 감찰원은 교단의 監察機關이다.

제71조(構成) ① 감찰원은 院長 1인과 監察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감찰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부원장은 당연직 감찰위원이 된다. ③ 감찰원의 조직과 직제는 교규로 정한다.

제72조(任命) 감찰원장은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73조(任期)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4조(責任) 감찰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교단 감찰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찰원 사무처장을 지휘 감독한다.

제75조(會議) ①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으로 감찰위원회의를 구성한다. ② 감찰원장은 감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76조(權限) 감찰위원회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구·교령의 위헌여부에 관한 사항 2. 교헌·교규·교령의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3. 각급 회의의 중요 의결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4.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선행포상에 관한 사항 5.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및 비행징벌에 관한 사항 6. 직무감찰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7. 교구와 교령에 의하여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감찰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제77조(議決) ① 감찰위원회의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된 사항은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교정원장에게 이송하여 집행하게 한다.

제78조(事務處) ① 감찰원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감찰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5장 敎區와 敎堂

제79조(敎區) ① 본교는 지방 및 國外敎政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구를 둔다. ② 교구의 편제는 교규로 정한다.

제80조(敎堂과 宣敎所) 본교는 교화의 장소로 교당을 두고, 출장교화의 장소로 선교소를 둔다.

제6장 機關과 團體

제81조(機關) 본교는 교화·교육·자선·산업 및 훈련·복지·문화·봉공의 각 기관과 기타 특설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82조(團體) 본교의 재가·출가교도는 전국 조직의 호법단체와 원호·장학·친목·수양 등을 목적하는 각종 단체 및 청소년 단체 등을 조직할 수 있다.

제83조(機關·團體의 管理) 각 기관 및 단체는 교정원장의 감독하에 그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운영의 편의에 따라 교구 또는 교당의 관리하에 둘 수 있다.

제7장 敎產과 會計

제84조(敎產) ①본교의 중앙총부·교구·교당 및 각 기관·단체의 소유인 토지·산림·건물·動產과 교도의 회사한 재산을 교산이라 한다. ②교산은 본교의 유지 발전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교산처리 절차는 교규로 정한다.

제85조(法人) ①본교는 교산의 전부 또는 일부로 법인을 구성한다. ②교정원장은 법인의 이사장이 되고, 부장은 각각 관련 법인의 이사가 되며, 법인 정관과 교규에 따라 교산을 관리 운영한다. ③특정법인이나 국외법인은 전항에 불구하고 별도 교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6조(會計年度) 본교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87조(豫算·決算) 교정원장은 매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교의회에 제출한다.

제8장 敎憲改正

제88조(敎憲改正) ①교헌개정의 제안은 법의 절차에 따라 교정원장 또는 중앙교의회 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한다. ②교헌개정의 의결은 중앙교의회의서 재적의원 3분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교헌개정이 의결되면 중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公布하여야 하며, 異議가 있을 때에는 異議書를 붙여 중앙교의회에 還付하여 再議하게 한다. ④再議한 후에도 중법사의 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개정안은 失効된다.

제9장 附 則

제89조(施行規程) 교헌 각 조항의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

제90조(經過措置) ①이 교헌 개정당시의 중법사와 원로수위단원의 在任期數는 이 교헌에 의하여 새로 起算한다. ②이 교헌 시행이전에 선임된 교헌기관원의 임기제 임원은 이 교헌에 의하여 역임한 것으로 본다. ③이 교헌이전의 首位團 選舉團員과 특임단원은 이 교헌의 正首位 團員을 역임한 것으로 본다.

제91조(施行) 이 교헌은 원기 7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Ⅲ. 보도자료

1. 관계보도자료 목록

번호	일 자	신 문 명	제 목	비 고
1	13(1928). 11. 25 (소화 3)	東亞日報	세상풍진 벗어나서 淡湖畔의 이상적 생활	
2	19(1934). 5. 28 (소화 9)	大阪朝日新聞	불교의 진리에 입각 근검력행, 실천동지 오백명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반도의 새로운 마을	
3	19(1934). 8. 3 (소화 9)	朝鮮日報 (4732호)	지방단체의 쫓기 —익산불법연구회지부동원, 현금 오십원모 집 기탁—	
4	20(1935). 5. 9 (소화 10)	매 일 신 보 (9929호)	익산군 북일면에 불법연구회	
5			조선의 유사종교—불법연구회 (전북 익산군 북일면)	
6	22(1937). 3. 4 (소화 12)	전 북 일 보 (8894호)	記事取消	
7	22(1937). 8. 1 (소화 12)	조 선 일 보	불교혁신실천자 불법연구회 박중빈씨	
8	22(1937). 9. 11 (소화 12)	중 앙 시 보	불교의 혁신운동과 불법연구회의 장래	
9	22(1937). 10 (소화 12)	조광10월호	불법연구회의 탐방기	
10	22(1937). 10. 26 (소화 12)	조 선 일 보	불법연구회에서 문자보급 운동	
11	22(1937). 11. (소화 12)	조선경찰신문	재래의 조선불교계에 경종을 울린다. 조선 불법연구회를 방문해서	
12	26(1941).10.21~23 (소화 16)	경 성 일 보 (제12206~8호)	생활화된 조선불교	

13	30(1945). 6. 25 (소화 20)	매 일 신 보 (제10706호)	심전계발과 자력갱생
14	35(1950). 7. 6	신 아 일 보	교의담론-생활속에서 종교를 체득 불섬 기는 마음으로 인생 만들자 〈柳聖一〉
15	43(1958). 11. 1	전 북 일 보	단기강습실시
16	43(1958). 12. 8	한 국 일 보	세계불교도 대회에 다녀와서-박길진-
	43(1958). 12. 30	조 선 일 보	불과 60년의 역사 표정은 극히 활동적
17	44(1959). 4. 29	동 아 일 보	정계 (의원의 위풍도)
18	44(1959). 7. 5	전 북 일 보	종교인회의와 그 과제
19	44(1959). 9. 28	전 북 일 보	위문금 10만원
20	47(1962). 1. 26	전 북 일 보	송규종법사 열반
21	47(1962). 2. 4	한 국 일 보	사온을 몸소 실천 故 송규선생을 추모한 다.-金東成
22	48(1963). 9. 4	동 아 일 보	원불교의 입장을 밝힌다. 이경호의 「類似 宗教」云云을 읽고, 〈柳炳德〉-六大宗教人 의 對話
23	49(1964). 9. 24	전 북 일 보	신도들도 호응
24	50(1965). 3. 6	동 아 일 보	해외로 뻗는 원불교 본국 돌아가 포교에 앞장선 외국인들
25	50(1965). 7. 6	신 아 일 보	교의담론-원불교의 사온, 〈柳聖一〉
26			「불법시생활 생활시불법 무시선 무처선」 생활속에서 종교를 체득, 佛섬기는 마음으 로 인생 만들자.
27	50(1965). 7. 25	코리아타임즈	46회 기념일을 맞이하여 원불교 신자들
28	50(1965). 8. 10	신 아 일 보	교의담론-개교의 현장 정신개벽 시급하 고 소중한 「마음의 공부」 〈金成珠〉
29	50년(1965). 9. 30	신 아 일 보	교의담론 사회진화의 강령 정신계에-대 전환에 있어야 대등한 존경으로 공존공영 의 사회로
30	50(1965). 9. 23	신 아 일 보	여성 이력서 한국보육원장 황은순여사
31		신 아 일 보 제169호	교의담론-원불교의 삼동유리 〈徐世仁〉
32	50(1965). 10. 19	신 아 일 보	진리상징한 원으로써 생활의 이념 확립하 자. 형식-명분 내세울 때는 이미 지났다. 교의담론(圓佛敎)
33	50(1965). 11	종교계11월호	六大宗教人의 대화

34	50(1965). 11	종교계11월호	삼동윤리를 바탕으로 黃溫順(한국보육원장)
35	50(1965). 11. 16	전 북 일 보	手記의 박동혁군에 전학길
36	50(1965). 11. 19	경 향 신 문	종교계 일본에 수출되는 원불교
37		사 상 계	한국불교의 진로—일원불교의 입장에서 본 불교혁신운동 (柳炳德(원광대학교 조교수))
38		女 苑	한국의 종교(화보)
39	50(1965). 11. 21	전 북 일 보	학해 마침내 트여(박동혁 입학)
40	51(1966). 5. 21	동 아 일 보	원불교 총본부 서울 이전설은 낭설
41	51(1966). 5. 24	전 북 일 보	初有의 宗教祭典
42	51(1966). 11. 26	불 교 신 문	대화를 잃은 사회(원불교 서울 사무소 교무부장).〈李運徹〉
43	51(1966)		각 종교간 대화 가능
44	53(1968). 10. 24 (불기2512)	대 한 불 교	한국육대종교의 대화—가로놓인 벽 무너질까
45	53(1968). 11. 14 (불기2512)	대 한 불 교	한국 육대종교—종교협의회 구성
46	53년(1968). 12. 26 (불기2512)	대 한 불 교	한국종교 연구협회 발족—종교사상 최초의 공동광장 6대종교 모여 출구를 모색
47	54년(1969). 5. 13	서 울 신 문	「세계의 불교서적 통일」 대표 2명 귀국
48	54(1969). 5. 27	전 북 일 보	종교 초월한 종교제
49	54(1969). 8. 24	중 앙 일 보	원광대를 종합대로
50	54(1969). 12. 3	전 북 일 보	고학생들에 배움의 길 마련
51	54(1969). 12. 3	동 아 일 보	sketch. 교회양식에 판송도입
52	55(1970). 2. 1	전 북 일 보	주경야독의 본보기—이리보육원의 경우 만국의 석학이 모인 「세계 종교자 평화회의」—대한인식 새롭게—
53	55(1970). 3. 27	신 아 일 보	종교계—불교 원불교 반백년 기념사업추진
54	55(1970). 10. 10	한 국 일 보	원불교회관 건립 2천5백평 내년완공
55	55(1970). 10. 12	중 앙 일 보	원불교회관 13일 기공 55돌 기념사업—71년 9월 완공
56	55(1970). 10. 14	서 울 신 문	15층—원불교 회관기공
57	55(1970). 10. 14	대 한 일 보	漢江邊에 원불교회관 지상 14층(메머드빌딩)

원불교총람 부록편

58	55(1970). 10. 14	신 아 일 보	메머드 원불교 회관 기공
59	55(1970). 10. 14	중 앙 일 보	원불교 회관 기공
60	55(1970). 10. 18 (불기2514)	대 한 불 교	원불교 서울회관 기공 「漢江邊」에 4억4천만원들여 14층으로
61	55(1970). 10. 27	주 간 시 민	한강변에 맨션아파트 3층까지 원불교 회관으로 사용 원불교 반백년 사업추진위서 계획
62	55(1970). 10. 31	경 향 신 문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하나-세계 종교자 평화회의
63	55(1970). 11. 13	한 성 일 보	「십자로」, 원불교와 반백년
64	56(1971). 6. 29	동 아 일 보	맹인에 복음을... 新約 원불교 요람 점자화
65	56(1971). 10. 6	대 한 일 보	원불교 개교 반백년
66	56(1971). 10. 8	전 북 일 보	원불교 역사홀러 반백년
67	56(1971). 10. 11	동 아 일 보	원불교 개교 50주년 신도 20,000명모여 기념대회
68	56(1971). 10. 11	신 아 일 보	종교-과학. 원불교 개교 반백년기념 대회 개막. 이리 중심 신도대표 2만명 모여 과학문명 선용하는 주인공역
69	56(1971). 10. 13	한 국 일 보	「메아리」
70	56(1971). 10. 15 (소화 46년)	월간, 世界連邦宗教新聞	「세계는 하나」를 교단의 표어로 한국 원불교 개교 55주년 식전 성료
71	56(1971). 10. 20	주 간 종 교 (15호)	원불교 반백년 기념대회 8일. 전북 이리 총본사 원광대학교에서 성료
72	56(1971). 10. 24	대 한 불 교	원불교 개교 반백년 기념
73	58(1973). 5. 10	전 북 일 보	제1회 한·일 불교 학술회의
74	58(1973). 9. 17	동 아 일 보	盲人들에 -識學眼과 心眼을
75	58(1973). 9. 18	전 북 일 보	원불교 동산선원 준공
76	58(1973). 11. 24	전 북 일 보	마한 백제문화 연구소 설립의 의의
77	58(1973). 12. 1	전 북 일 보	제1회 마·백문화 학술연구회
78	60(1975)	주 간 종 교	개교 60주년 원불교
79	60(1975). 3. 28	총 서 신 문	「생활속의 종교로 성장」
80	61(1976). 3. 7	동 아 일 보	마음을 바르고 착하게-원불교 60주년 맞아
81	61(1976). 3. 18	신 아 일 보	대각개교절 경축행사
82	61(1976). 3. 19	한 국 일 보	원불교 개교 60돌
83	61(1976). 3. 19	서 울 신 문	원불교 60돌
84	61(1976). 3. 20	중 앙 일 보	원만한 인간지향의 생활불교

85	61(1976). 3. 22	경 향 신 문	대중화 표방 원불교 개교 60돌
86	61(1976). 3. 23	동 아 일 보	원불교 창교 60주년
87	61(1976). 3. 25	중 앙 일 보	한마음으로 살자-원불교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88	61(1976). 3. 26	신 아 일 보	원불교의 신앙관
89	61(1976). 3. 28	일 요 신 문	은혜로 맺어진 생명의 윤리관
90	61(1976). 4. 11	일 요 신 문	신앙일가(金弘準)
91	61(1976). 4. 19	경 향 신 문	원불교 개교 60주년 - 서울교구 대법회-
92	61(1976). 4. 19	중 앙 일 보	서울교구 대법회-원불교 개교60주년기념
93	61(1976). 4. 20	한 국 일 보	원불교 개교 60주년 서울서 대법회
94	61(1976). 4. 20	조 선 일 보	원불교 개교 60주년 서울교구 대법회
95	61(1976). 4. 25	주 간 한 국	옥색치마 140명 어머니 성가대 이채
96	61(1976). 5. 2	주 간 경 향	새 국민생활 운동을 제창
97	61(1976). 12. 30	동 아 일 보	원불교 김종법사 신년법설
98	61(1976). 2. 27	동 아 일 보	원불교 중법사 새해 메세지 - 진리와 함 께 참다운 발전
		조 선 일 보	원불교 김대산 중법사 신년사
99	62(1977). 3. 23	주 간 종 교	원불교 정기총회 27일 중앙총부서
100	62(1977). 3. 23	주 간 종 교	법치체제 강화키로 원불교서
101	62(1977). 6. 9	동 화 신 문	민족의 종교「원불교」
102	62(1977). 6. 15	주 간 종 교	적극교화 예상. 원불교 서울교구
103	62(1977). 7. 13	주 간 종 교	한일 불교신앙 형태의 비교 원광대 종교 문제연구소
104	62(1977). 7. 13	주 간 종 교	교화청년공동주최 원불교 하계훈련
105	62(1977). 7. 20	주 간 종 교	공부하는 종단-원불교의 교학 협동운동을 보고
106	62(1977). 7. 27	주 간 종 교	원불교 서울 교구 안양수재민에 구호활동 펴
107	62(1977). 8. 24	주 간 종 교	종교상식-원불교의 성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08	62(1977). 11. 8	신 아 일 보	『원불교전서』 정화사간
109	62(1977). 11. 13	독 서 신 문	『원불교 전서』 정화사간
110	62(1977). 11. 15	중 앙 일 보	원불교 중앙총회도 재해 열반인 위령제
111	62(1977). 11. 15	동 아 일 보	전화위복의 새 도시를
112	62(1977). 11. 16	주 간 종 교	원불교 정화사서 원불교 전서 발간
113	62(1977). 11. 16	조 선 일 보	원불교 전서 출간
114	62(1977). 11. 17	조 선 일 보	만물상

원불교총람 부록편

115	62(1977). 11. 18	동 아 일 보	원불교 개교기념 『원불교 전서』출간
116	62(1977). 11. 22	중 앙 일 보	민중속의 원불교를 구명
117	62(1977). 11. 30	주 간 종 교	이리에서 다각적 봉사활동 구호 및 의료 봉사 등-원불교
118	62(1977). 12. 4	독 서 신 문	한국최초의 원불교 진리구명 「원불교와 한국사회」
119	62(1977). 12. 30	중 앙 일 보	원불교 김대산 종법사 신년사-마음의 미 혹 진리의 광명으로 밝히자
120	63(1978). 1. 27	중 앙 일 보	문공부에서 국내종교 교세 현황 집계
121	63(1978). 1. 29	주 간 종 교	『원불교 전서』
122	63(1978). 2. 1	주 간 종 교	정신계발에 종교계가 앞장
123	63(1978). 3. 4	중 앙 일 보	교리학교 4월 개설
124	63(1978). 3. 5	중 앙 일 보	새마음 갖기 운동과 개벽
125	63(1978). 3. 18	중 앙 일 보	원불교 26일부터 한달동안 대각개교절 맞 아 기념행사
126	63(1978). 3. 22	주 간 종 교	대각개교절 26일부터 한달간 경축행사
127	63(1978). 3. 22	주 간 종 교	이해의 모임-실무자협 원불교 방문
128	63(1978). 3. 24	동 아 일 보	원불교 대각개교절 26일 전국에서 기념식
129	63(1978). 3. 25	조 선 일 보	대각개교절 경축
130	63(1978). 3. 25	코 리 아 신 문	원불교 대각개교 63주년. 法身佛一圓相가 最高宗旨
131	63(1978). 3. 26	주 간 조 선	원불교 창립 63돌
132	63(1978). 3. 26	주 간 중 앙	개교63년 맞는 원불교-보국하는 마음으 로 인간근본을 찾는다.
133	63(1978). 4. 2	주 간 경 향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 사상강연회
134	63(1978). 4. 2	주 간 한 국	자유 슬기 덕을 얻어라. 원불교 63회 대각 개교절
135	63(1978). 4. 3	전 북 일 보	신전북기 원불교와 소태산
136	63(1978). 4. 7	조 선 일 보	원불교 사상강좌
137	63(1978). 4. 19	주 간 종 교	脫 종교시대의 종교
138	63(1978). 4. 19	주 간 종 교	원로와의 대화-李共珠法師
139	63(1978). 4. 29	주 간 조 선	脫 종교시대의 종교
140	63(1978). 5. 10	주 간 종 교	가정과 종교
141	63(1978). 5. 24	주 간 종 교	사회변화와 종교
142	63(1978). 5. 24	주 간 종 교	교헌 법규 개정 작업 펴
143	63(1978). 5. 24	주 간 종 교	제5회 종교제-원광대 종교부

144	63(1978). 5. 24	주 간 종 교	동산선원 개교 25주년 원불교 원화제
145	63(1978). 5. 24	주 간 종 교	연구소 탐방-원광대 부설 종교문제연구소
146	63(1978). 6. 3	중 앙 일 보	교리학교 개설-원불교 서울교구 종로교 당에
147	63(1978). 6. 11	조 선 일 보	80고령할머니의 이색취미
148	63(1978). 6. 12	중 앙 일 보	이공주 법사의 이색전시회
149	63(1978). 6. 21	주 간 종 교	80고령에 이색 전시회
150	63(1978). 7. 5	주 간 종 교	연구소 탐방-원광대 부설 해외포교연구소
151	63(1978).	중 앙 일 보	원불교 학생훈련대회
152	63(1978). 7. 30	조 선 일 보	원불교 학생 수련
153	63(1978). 7. 30	중 앙 일 보	사색의 공원-등가불과 산부처
154	63(1978). 8. 2	주 간 종 교	삼동윤리에 관하여
155	63(1978). 8. 16	주 간 종 교	분열과 발전-종교 30년사
156	63(1978). 8. 30	주 간 종 교	대학생 전원연 창립
157	63(1978). 9. 2	동 아 일 보	신팔도기-영광
158	63(1978). 9. 21	동 아 일 보	지옥보다는 덕육을-박길진 원광대 총장
159	63(1978). 10. 7	중 앙 일 보	서울교구 보은바자
160	63(1978). 10. 10	한 국 일 보	서울교구 봉공회 보은바자
161	63(1978). 10. 10	조 선 일 보	서울교구 봉공회 보은 바자회 성황
162	63(1978). 10. 25	주 간 종 교	종교인의 삼대요소
163	63(1978). 10. 25	주 간 종 교	서울교구 봉공회 보은바자회 성황
164	64(1978). 11. 20	중 앙 일 보	종교계소식-원불교 내년예산 2억.
165	63(1978). 11. 20	동 아 일 보	신 팔도기-이리 익산
166	63(1978). 12. 1	주 간 종 교	지상설교-자비심
167	63(1978). 12. 29	경 향 신 문	중법사님 신년사-인정미 넘치는 사회이 록
168	64(1979). 2. 19	중 앙 일 보	한국의 종교인구 2,800만명 돌파
169	64(1979). 2. 21	주 간 종 교	원불교 교리학교 수강생 모집중
170	63(1979). 2. 28	조 선 일 보	월요법회 개설-원불교 종로교당
171	63(1979). 3. 7		원불교 서목포 교당 봉불식, 원불교 서울 교구 청년회 정기총회
172	63(1979). 3. 21	주 간 종 교	원불교 서울교구 교무회의
173	64(1979). 3. 21	동 아 일 보	원불교 개교 64주년
174	64(1979). 3. 22	한 국 일 보	원불교 서울교구 봉공회장에 주정일씨
175	64(1979). 3. 24	중 앙 일 보	원불교 개교 64주년
176	64(1979). 3. 24	신 아 일 보	원불교 대각개교절

원불교총람 부록편

177	64(1979). 3. 25	일간스포츠	원불교 대각개교절
178	64(1979). 3. 25	한국일보	원불교 개교63주년 행사
179	64(1979). 3. 27	일요신문	원불교 대각개교절
180	64(1979). 3. 28	조선일보	원불교 대각개교절
181	64(1979). 3. 28	조선일보	원불교 종교UN 창설제의
182	64(1979). 3. 31	중앙일보	원불교 문화회관 이리에서 건립기공
183	64(1979). 4. 4	주간종교	원불교 개교 63주년
184	64(1979). 4. 6	동아일보	서해 비안도어린이 꿈의 서울구경-서울 교구 봉공회 주최
185	64(1979). 4. 7		사는 것에 한없는 고마움을-다산 김근수 법사님
186	64(1979). 4. 13	한국	원불교 서울교구 청년회강연
187	64(1979). 4. 16	중앙	원불교 개교기념 주정일교수 강연
188	64(1979). 4. 24	조선일보	통일기원 법회
189	64(1979). 7. 14	주간종교	원불교 학생청년 훈련실시
190	64(1979). 7. 21	동아	원불교 법인절 60주년 기도법회
191	64(1979). 7. 23	중앙	원불교 법인절 60돌 맞아기도 법회
192	64(1979). 7. 25	경향	원불교 법인절 60주 기도법회
193	64(1979). 7. 25	신아	"
194	64(1979). 7. 28	조선	원불교 법인절 60주년 기도법회-김도강 교수의 주제강연 요지
195	64(1979). 8. 4	중앙	원불교 대만에 분회를 설립
196	64(1979). 8. 15	중앙	종교-신도의 급격히 팽창
197	64(1979). 8. 29	주간종교	큰 서원을 세워라
198	64(1978). 8. 30	동아	수재의연금
199	64(1979).	중앙	수재의연금
200	64(1979). 9. 29	중앙	원불교 복지회관 건립기금 마련 바자회
201	64(1979). 10. 4	동아	원불교 복지회관 건립기금 마련 바자회
202	64(1979). 10. 30	동아	전화위복의 기틀 마련해야 박대통령 애도 성명
203	64(1979). 10. 30	중앙	전화위복기틀 마련해야 박대통령 애도 성 명
204	64(1979). 10. 30	한국	"
205	64(1979). 11. 1	중앙	박대통령 서거 추모법회봉행-원불교 서 울교구
206	64(1979). 11. 3	조선	명복빌고 난국극복 다짐

207	64(1979). 11. 14	주 간 종 교	원불교 문화회관 준공
208	64(1979). 11. 16	한 국	원불교 행사 재개
209	64(1979). 11. 28	주 간 종 교	서울에 회관건립확정
210	64(1979). 11		박대통령 애도 종교계 행사
211	64(1979). 12. 22		신년메세지
212	64(1979). 12. 26	조 선	신년메세지 복지사회 이룩해야.
213	64(1979). 12. 27	동 아	신년 메세지
214	64(1979). 12. 30	한 국	신년 메세지-복지사회 이룩해야
215	65(1980). 1. 2	주 간 종 교	신년사-공도주의자가 많이 배출되는 사회가
216	65(1980). 2. 1	한 국	원불교 대학생 수련회
217	65(1980). 2. 2	중 앙	원불교 향후 3년간 교정 8대시책 확정
218	65(1980). 2. 4	일간스포츠	해외교화 적극추진
219	65(1980). 2. 17	카톨릭시보	라자로 공동생일 잔치
220	65(1980). 2. 17		상식으로 알아둬야 할 한국종교
221	65(1980). 2. 24		원불교의 상징은 「○」
222	65(1980). 3. 2		이광정 문화부장
223	65(1980). 3. 26	동아·조선 중앙·한국	독립 유공자 변극씨 별세
224	65(1980). 3. 26	조 선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행사
225	65(1980). 3. 26	한 국	"
226	65(1980). 3. 27	경 향	"
227	65(1980). 3. 27	중 앙	원불교 개교 65주년 맞아 원종회에서 기념 강연회
228	65(1980). 3. 28	한국일보	종교와 工學관련 있다.
229	65(1980). 4. 2	주 간 종 교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행사
230	65(1980). 7. 27	조 선	원불교의 대종사 십상도 제작 전시
231	65(1980). 7. 31	경 향	원불교 전북 부안에-일원대도비 건립
232	65(1980). 8. 4	신 아	신앙과 생활사이
233	65(1980). 8. 6	주 간 종 교	脫 종교시대의 종교
234	65(1980). 8. 6	주 간 종 교	원불교 소태산 교조일대기 그린 십상도 제작 전시
235	65(1980). 8. 9	조 선	원불교 전북 부안에 일원대도비 건립
236	65(1980). 8. 18	동 아	호국안보기원 대법회 원불교 300여 전국 교당서

원불교총람 부록편

237	65(1980). 9. 3	중 앙	불교 각 종단에서 교리해설서 등 출간- 사상적 체계를 정리
238	65(1980). 9. 10	주간종교	도덕적 정의복지 국가구현을...
239	65(1980). 9. 12	조 선	원불교 보은바자
240	65(1980). 9. 16	중 앙	원불교 서울 교당서 바자회
241	65(1980). 9. 17	경 향	원불교 자선사업회 발족시켜
242	65(1980). 10. 8	한 국	원불교 사상학술회의
243	65(1980). 10. 9	중 앙	원불교 사상학술회의
244	65(1980). 10. 11	중 앙	원불교 사상학술회의
245	65(1980). 10. 12	한 국	원불교 사상학술회의
246	65(1980). 10. 13	동 아	원불교 사상학술회의
247	65(1980). 10. 13	동 아	원광대 학술회의-전통 사상에 원불교 큰 기여
248	65(1980). 10. 14	경 향	"
249	65(1980). 10. 14	조 선	원불교 사상학술회의
250	65(1980). 12. 17	중 앙	성역으로 다듬는 원불교 영산성지
251	65(1980).12.30~31	조선·한국·동아	신년사-강자와 약자의 대립 풀어야
252	66(1981). 1. 5	경 향	살며 고행하며-다산 김근수법사
253	66(1981). 1. 5	경 향	신년사-마음의 장벽 헐고 상생의 관계
254	66(1981). 2. 7	중 앙	원불교 울 사업 확정
255	66(1981). 3. 21	경 향	화동정신을 삶의 지표로
256	66(1981). 3. 24	동 아	원불교 대각개교 65년
257	66(1981). 3. 25	중 앙	"
258	66(1981). 3. 26	한 국	"
259	66(1981). 3. 26	중 앙	"
260	66(1981). 3. 26	서 울	원불교 개교 65년
261	66(1981). 3. 28	동 아	현대문명병은 자아지상주의
262	66(1981). 3. 28	조 선	원불교 종교UN 창설제의
263	66(1981). 3. 30	조 선	만물상
264	66(1981). 4. 8	중 앙	장수의 샘-황은순여사
265	66(1981). 4. 8	주간종교	원불교 대각개교절
266	66(1981). 4. 8	주간종교	종교UN 공동시장 심전제발 있어야-대각 개교절 기념법어
267	66(1981). 4. 22	주간종교	나의 종교관-이런 종교사회가
268	66(1981). 4. 9	주간종교	신앙의 강단
269	66(1981). 5. 3	일요신문	교주열전-원불교 박중빈

270	66(1981). 5. 10	일 요 신 문	교주열전-원불교 박중빈
271	66(1981). 5. 17	일 요 신 문	"
272	66(1981). 5. 24	일 요 신 문	교주열전-원불교 송규
273	66(1981). 9. 11	한 국	원불교 동명훈련원 개원
274	66(1981). 9. 3	동 화 신 문	종교UN 심전계발로 세계 평화, 김대거
275	66(1981). 9. 11	경 향	뿌리다져가는 정신구원의 이념
276	66(1981). 9. 17	경 향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277	66(1981). 10. 2	한 국	고녀와 무명
278	66(1981). 10. 2	중 앙	원불교 보은바자
279	66(1981). 10. 2	중 앙	원불교 동명훈련원 개원
280	66(1981). 10. 3	한 국	원불교 동명훈련원 개원
281	66(1981). 10. 7	서 울	영원한 내생
282	66(1981). 10. 14	주 간 종 교	회관건립 특별바자
283	66(1981). 10. 21	주 간 종 교	원불교 동명훈련원 개원
284	66(1981). 11. 5	동 화 신 문	생, 신앙, 영원-종교인의 독선과 편견에 대해서
285	66(1981). 11. 7	경 향	참마음의 뿌리를 찾자-다산 김근수법사
286	66(1981). 11. 18	주 간 종 교	종교UN 창설제의-ACRP 대회서
287	66(1981). 10. 27	중 앙	종교UN 창설제의-ACRP 대회서
288	66(1981). 12. 3	동 아	원불교 이리에 자선원 개원
289	66(1981). 12. 25	중 앙	신년사 정신의 힘길러 마음의 병 고치길
290	66(1981). 12. 25	한 국	신년사 정신의 힘길러 마음의 병 고치길
291	66(1981). 12. 29	동 아	신년사 정신의 힘길러 마음의 병 고치길
292	66(1981). 12. 30	경 향	신년사 정신의 힘길러 마음의 병 고치길
293	67(1982). 1. 6	주 간 종 교	전체의식 공익 우선을 훈련하자.
294	67(1982). 1. 6	주 간 종 교	신년사
295	67(1982). 1. 6	서 울	먼저 은혜를 베풀자
296	67(1982). 1. 8	전 우 신 문	원불교 서울 교구봉공회 육군 6620 부대 위문
297	67(1982). 7. 11	동 아	원불교 사상 발표회
298	67(1982). 1. 15	중 앙	원불교 어린이 지도자 훈련-이리에서
299	67(1982). 1. 15	조 선	"
300	67(1982). 1. 20	주 간 종 교	무아봉공
301	67(1982). 1. 29	중 앙 일 보	때묻은 사람이 남의 부정탕 할 수 있나.
302	67(1982). 2. 3	동 아	원불교 사상모아 총정리
303	67(1982). 2. 4	동 아	원불교 사상 발표회

원불교총람 부록편

304	67(1982). 2. 4	경 향	원불교 사상 발표회
305	67(1982). 2. 17	주 간 종 교	원불교 신앙의 특징
306	67(1982). 2. 17	"	원불교 사상 발표회
307	67(1982). 2. 24	주 간 종 교	실험활동 적극권장. 원불교 종로교당서
308	67(1982). 2. 26	조 선	성지고 3월에 개교-원불교 전남 영광에 설립
309	67(1982). 2. 26	한 국	원불교서 고교설립
310	67(1982). 3. 10	주 간 종 교	원불교 총부 기관 직원 감축 교무부족 대 처키로
311	67(1982). 3. 21	서 울	큰 은혜와 작은 은혜
312	67(1982). 3. 23	경 향 신 문	생일노크 박길진씨
313	67(1982). 3. 25	중 앙	미문화원 방화 용의자 정순철검거
314	67(1982). 3. 25	동 아	"
315	67(1982). 3. 26	조 선	"
316	67(1982). 3. 26	동 아	"
317	67(1982). 3. 26	동 아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
318	67(1982). 3. 26	경 향	원불교 67돌 교도 백만돌파 대각개교절 맞아 알아본 교화활동
319	67(1982). 3. 26	중 앙	원불교 대각개교절맞아 각 교구별로 기념 대법회
320	67(1982). 5. 26	광 주 일 보	엠티. 원불교 대각지
321	67(1982). 3. 26	조 선	원불교 대각개교절 67주년 기념법회
322	67(1982). 3	한 국	원불교 67주년 정남 정녀 헌신적 포교로 신도 백만명
323	67(1982). 4. 2	한 국	종교단체이용 전국 참행
324	67(1982). 4. 3	동 아	교육협 초대 회장 박길진
325	67(1982). 4. 2	경 향	"
326	67(1982). 4. 3	조 선	"
327	67(1982). 4. 3	서 울	"
328	67(1982). 4. 3	서 울	"
329	67(1982). 4. 7	조 선	Desk 칼럼 최신부사건의 성격
330	67(1982). 4. 7	주 간 종 교	원불교 67주년 대각개교절
331	67(1982). 4. 15	전 북 일 보	원불교서 성명문-국민의식 환기 결의
332	67(1982). 4. 22	한 국	원불교 보은바자
333	67(1982). 5. 5	주 간 종 교	원불교 합동 회갑안
334	67(1982). 5. 5	주 간 종 교	원불교 인사 형평 원칙 준해 대규모 교무

			인사 이동 계획
			원불교 서울 회관서 불수노인 경로장치
335	67(1982). 5. 7	한 국	군옥지구 합동법회-대산 중법사 설법
336	67(1982). 5. 7	한 국	한울안 한이치에 출간
337	67(1982). 5. 19	주 간 종 교	원불교 합동회갑식
338	67(1982). 5. 21	한 국	원불교 합동회갑연
339	67(1982). 5. 22	중 앙	원불교 합동회갑식
340	67(1982). 5. 22	조 선	한울안 한이치에 출간
341	67(1982). 5. 23	서 울	평상심은 우주의 대도
342	67(1982). 6. 9	주 간 종 교	원불교 교당 사무감사
343	67(1982). 6. 11	중 앙	원불교 서울교구 울 교리학교 개설
344	67(1982). 6. 18	경 향	대종경 수행품 52장-말씀과 인생
345	67(1982). 6. 25	조 선	원불교 정녀 1호 김영신법사
		전 북 일 보	해탈, 만남의 기쁨, 자력양성
346	67(1982). 6. 25	한 국	소록도에 원불교 교당
347	67(1982). 5. 26	주 간 종 교	한울안 한 이치에 출간
348	67(1982). 6. 28	한 국	정녀1호 원불교입문 60년 융타원 김영신 법사
349	67(1982). 7. 5	한국·동아·경향	정순철 피고에 5년6월 선고
350	67(1982). 7. 15	동 아	원불교 교화사업회, 학교 등에 교전 배포
351	67(1982). 7. 16	중 앙	원불교 교화사업회-학교 등에 교전 배포
352	67(1982). 7. 16	한 국	종교단체 다투어 여름철 수련
353	67(1982). 7. 16	경 향	수련 정진으로 무더위 잊는다-종교계 여 름철 신앙집회 강좌 등 러시
354	67(1982). 7. 22	동 아	각급교생 여름훈련 원불교
355	67(1982). 7. 23	중 앙	한국종교의 현주소-소태산과 원불교
356	67(1982). 7. 27	중 앙	일원상 정신의 원불교
357	67(1982). 8. 11	동 아	민중속의 성직자들 타고난 자선사업가 金 西悟 원불교 교무
358	67(1982). 8. 18	주 간 종 교	신앙가족-원불교 교수협 부회장-고윤석 박사 가정
		주 간 종 교	종교인열전-원불교교조 소태산 박중빈 1 ~7회.
359	67(1982). 8. 20	중 앙	원불교 기초교리 강좌-중앙문화 Center 서
360	67(1982). 9. 1	주 간 종 교	사랑이 풍성하여

원불교총람 부록편

361	67(1982). 9. 10	중 앙	원불교 보은 바자회-23일부터 서울회관
362	67(1982). 9. 17	경 향	원불교 보은 바자회-23일부터 서울회관
363	67(1982). 9. 18	한 국	원불교 보은 바자회-23일부터 서울회관
364	67(1982). 9. 21	주 간 중 교	원불교 보은바자회
365	67(1982). 9. 24	동 아	원불교 서울회관 10월 10일 준공-대규모 기념사업 행사계획
366	67(1982). 9. 26	서 울	23일부터 서울회관
367	67(1982). 9. 27	일간스포츠	원불교 서울교구 내일 보은바자회
368	67(1982). 10. 6	주 간 중 교	원불교 서울회관 준공
369	67(1982). 10. 8	중 앙	원불교 서울회관 10일 준공 평생교육장으로 널리 개방
370	67(1982). 10. 8	한 국	흑석동엔 원불교 회관
371	67(1982). 10. 10	경 향	원불교 종법사 서울회관 봉불식에서 설법
372	67(1982). 10. 10	중 앙	원불교 서울회관을 준공
373	67(1982). 10. 10	서 울	원불교 서울회관 기공 12년만에 오늘 낙성식
374	67(1982). 10. 27	주 간 중 교	원불교 종법사 선거에 관심 집중
375	67(1982). 11. 3	한 국	원불교 총회
376	67(1982). 11. 5	경 향	원불교 전국총회 열어
377	67(1982). 11. 5	주 간 중 교	사설-제2의 도약기로 원불교 김대산 종법사 취임에 부쳐
378	67(1982). 11. 5	중 앙	신앙의 길목, 끝없는 가시매로 다스려
379	67(1982). 11. 8	중 앙	원불교 종법사 추대식
380	67(1982). 11. 13	동 아	민중속의 성직자들-노인들과 함께 20년 원불교 권성천 교무
381	67(1980). 11. 14	서 울	원불교 종법사에 김대거법사 재추대
382	67(1982). 11. 17	주 간 중 교	원불교 김대거 종법사 재추대
383	67(1982). 12. 8	주 간 중 교	원불교 대폭 인사이동 단행
384	67(1982). 12. 8	주 간 중 교	신앙가족-원불교 봉공회장 김석근 박사 가정
385	67(1982). 12. 10	중 앙	실천 통한 교화만이 세상밝힌다-원불교 서울이문동교당 강순상. 대행 교무자매
386	67(1982). 12		원불교 송년 자선음악회
387	67(1982). 12. 15	주 간 중 교	원불교 송년 자선음악회
388	67(1982). 12. 17	중 앙	원불교 인사-수위단 단원도 대폭 교체
389	67(1982). 12. 23	중 앙	신년사-탐진치 독녹일 방법을 터득하자.

390	67(1982). 12. 28	서 울	신년사 참회의 해 새마음 새 종교를 이룩
391	67(1982). 12. 29	동 아	신년사-진리 깨달아야 비극없어
392	67(1982). 12. 30	한 국	신년사-올바른 생활에 바른 앞길이
393	68(1983). 2. 4	중 앙	교무 220명 전보-원불교 대폭 인사단행
394	68(1983). 2. 11	중 앙	원불교 소록도 교당 김혜심교무-나환자 들에게 삶의 용기를
395	68(1983). 4. 13	주 간 종 교	대각개교절 거교적 행사로
396	68(1983). 4. 14	중 앙	원불교 강남교당 박청수교무-나환자 돕 는 일에 종교가 다르면 어때요.
397	68(1983). 2. 23	주 간 종 교	꿈을 편다-원불교 중앙총부 장응철 총무 부장
398	68(1983). 4. 27	주 간 종 교	더 큰 사명을 기대한다-원불교 대각개교 절에 부처 수요논단-도가 온누리에 퍼지게-조정근 서울교구 순교감
399	67(1983). 4. 27	중 앙	사상대강연회 개최-5월 1일 원불교 부산 교구
400	68(1983). 4. 28	중 앙	원불교 대각개교절 맞아 각종행사
401	68(1983). 4. 28		원불교 대각개교절
402	68(1983). 5. 11		광주교구-‘오 사은이시여’ 공연 이리교구-노인학교 입학식
403	68(1983). 5. 25	주 간 종 교	원불교 대각개교절 경축식
404	68(1983). 5. 25	주 간 종 교	신앙의 강단-죄악과 고통 이광정 서울사 무소장
405	68(1983). 6. 9	주 간 종 교	하늘사람 크는 소리
406	68(1983). 6. 15	주 간 종 교	원불교 개교 68주
407	68(1983). 7. 6	한국경제신문	잊을수 없는 사람들-김정수:원광대 스승 대산종법사
408	68(1983). 7. 13	한 국	원불교 보은 수련회
409	68(1983). 8. 3		원불교원로 황은순법사 근황 -제 갈길을 잘 가면 돼요-
410	68(1983). 8. 17	주 간 종 교	지역봉사 활동 전개
411	68(1983). 9. 7	조 선	원불교 규탄대회 결기 성명 발표-KAL피 격 만행
412	68(1983). 9. 8	중 앙	일원상 부처님
413	68(1983). 9. 8	중 앙	아웃돕기 보은 바자회

414	68(1983). 9		원불교 정운회연합회 도덕발양대회-개인 보다 전체 앞세워
415	68(1983). 9. 28		집념에 산다 과업인-조정화씨
416	68(1983)	주 간 중 교	종탐-신앙심을
417	68(1983). 10. 7	한 국	원불교 청운회 도덕발양대회
418	68(1983). 10. 7	한 국	여기사랑이...
			원불교 강남교당 박청수교무. 도덕발양대 회 개최, 청운회 중법사님 설법
419	68(1983). 10. 13	중 앙	원불교 인간 회복 도덕발양 운동
420	68(1983). 11. 5	동 아	상극의 대립을 상생의 은으로-김대거
421	69(1984). 1. 26	중 앙	바다가 한달에 두번씩 열린다. 전북 부안 마포리-하도사이
422	69(1984). 1. 27	한 국	원불교 교리 강좌
423	69(1984). 2. 15	주 간 중 교	신앙의 강단-종교적 편견
424	69(1984). 3. 11	서 울	원불교 제1기 결산공고
425	69(1984). 3. 18	서 울	원불교 교리학교 개설-원불교 서울교구
426	69(1984).		대각개교 69돌 행사 개교절 경축사 발표
427	69(1984). 4. 22		종탐-합리와 불합리
428	69(1984). 4. 25		원불교 대각개교절 행사다채 중법사 「정 법세계 건설」 강조
429	69(1984). 4. 27	중 앙	원불교 대각개교절 행사다채 중법사 「정 법세계 건설」 강조
430	69(1984). 4. 28	서 울	신 동국여지승람-전북 이리시
431	69(1984). 5. 5	조 선	만물상
432	69(1984). 5. 6	서 울	작은것 잡으려다 큰것 놓치다-이정택교 무님이 한 말씀
433	69(1984). 5. 7	서 울	종교를 넘은 종교모임 교황방한 4일째
434	69(1984). 5. 7	중 앙	불탄 2528년. 원불교 김대산 중법사 인간 구원의 원천은 「마음의 발」 계발
435	69(1984). 5. 8	동 아	교황-타종교 지도자와의 만남
436	69(1984). 6. 9	동 아	청소년 가정파괴범과 극형-가교 장응철 교무
437	69(1984). 6. 18	대 한 일 보 (New York)	독자논단-우리것의 푸대접(이광정)
438	69(1984). 6. 21	중 앙	파한잡기-우리것 푸대접
439	69(1984). 6. 27	주 간 중 교	신앙의 강단-낙원세계 건설

440	69(1984). 7. 4	서 울 신 문	모든 종교의 본질은 하나-기독교, 원불교 중심 「화해-일치」모색
441	69(1984). 7. 5	중 앙	원불교 청년회창립 20주년 기념대회 「개벽의 함성 온누리에」 주제
442	69(1984). 7. 7	조 선	원불교 청년회 창립 20주년 기념대회 「개벽의 함성 온누리에」 주제
443	69(1984). 7. 24	중 앙	원광대 병원 개원식 참석-김정례 보사부장관
444	69(1984). 8. 1		분단 40년의 벼랑에서-이광정
445	69(1984). 8. 16	중 앙	원불교 법인절맞아 전국 교당 기념행사
346	69(1984). 8. 8	주 간 종 교	원불교 기관지 「원광」 월간으로 개편 발행
447	69(1984). 8. 8		속박과 자유-이광정
448	69(1984). 8. 9	중 앙	원불교 종합의료센터. 원광의료원 준공 개원
449	69(1984). 8. 18	중 앙	세계 종교지도자회 참석-박길진 원광대 총장
450	69(1984). 8. 18	조 선	국제연수회의 참석 박길진 원광대 총장
451	69(1984). 8. 21	서 울	국제종교회의 참석 박길진 원광대 총장
452	69(1984). 8. 22	주 간 종 교	원불교 제66회 법인절
453	69(1984). 8. 28	중 앙	원불교 4회 보은바자-원불교 서울 교구
454	69(1984). 9. 2	서 울	원불교 보은 바자회 원불교 서울교구 봉공회
455	69(1984). 9. 4	조 선	종교계에 수재민 돕기 “불길”
456	69(1984). 9. 5	중 앙	수재민을 도움시다.-원불교 서울교구 봉공회
457	69(1984). 9. 5		원불교 가을 보은바자회-원불교 서울교구 봉공회
458	69(1984). 9. 9	서 울	이 한밀씀-서광원교무-정성으로 기원하면 뭐든지 이루어라
459	69(1984). 9. 13	중 앙	원불교 보은바자회 27~28일 서울회관서
460	69(1984). 9. 14	The Korea Times	Women Expand Won Buddhism
461	69(1984). 9. 18	"	원불교 보은바자회-원불교 서울교구 봉공회
462	69(1984). 9. 19		신앙의 강단-권도갑교무-길흉이 없는 도

463	69(1984). 9. 26		원불교 국제훈련원 제주서 상량기원식
464	69(1984). 9. 26		교화우선 시책모색-원불교 간부회의
465	69(1984). 10. 3		보은바자 개최 원불교 이리교구
466	69(1984). 10. 4	The Korea Herald	Women at heart of Won Buddhism Indafece religion shouped by its fenirist adherents
467	69(1984). 10. 7	서울	이한말씀-권도갑교무-원망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468	69(1984). 10. 10		원불교 보은 바자
469	69(1984). 10. 16	서울신문	新東國輿地勝覽 朴重彬대중사가 세운 원 불교 요람. 국내 14교구 미·일·가에도 교 화장
470	69(1984). 10. 21	조선일보	「대화의 길」 트는 종교계-원불교서 제의 6개 청년회호응
471	69(1984). 10. 31	주간종교	종교간의 대화 가능성 보여-원불교 청년 회 제의 6개
472	69(1984). 11. 2	중의일보	제주도에 국제훈련원-한국의 원불교 가 깎게 본관이 완성
473	69(1964). 11. 2	한국일보	종교계 화합의 첫걸음-원불교서 「종교간 의 협력 방안」 심포지엄
474	69(1984). 11. 8	중앙일보	교회 논문집을 출간-원광대 총장 송산 박길진 박사
475	69(1984). 11. 11	서울신문	한국종교도 선진화를-원광대 학술강연 : 각 종교 대표들 발표
476	69(1984). 11. 15	중앙일보	한국종교 변신이 급하다-원광대 학술강 연회 : 각 종교 입장 밝혀
477	69(1984). 11. 18	서울신문	종교서적-韓國近代宗教思想史
478	69(1984). 11. 22	중앙일보	80대가 말하는 나의 인생 나의 건장-황 온순여사
479	69(1984). 12. 5	주간종교	평화는 어디서 오나-김대거 원불교 중법사
		주간종교	종교계 지도자 성탄절 신년메시지-사람농 사(인농)에 노력을:김대거 원불교 중법사
480	69(1984). 12. 5	주간종교	원청 부산회보 창간 진리의 소식을 전달
481	69(1984). 12. 5	불교신문	박길진박사 교회논총-종교사상 총망라
482	69(1984). 12. 19	주간종교	나의 진정한 종교는 연극-연극인 秋松雄 씨
483	69(1984). 12. 21	중앙일보	올해 소파상에 황온순여사 결정

484	69(1984). 12. 21	서 울 신 문	올해 소파상에 황온순여사 결정
485	69(1984). 12. 12	동 아 일 보	고아 3천여명 손수키워 일꾼으로-올해 소파상받게 된 황온순여사
486	69(1984). 12. 23	한 국 일 보	내 인생은 외롭지 않다-올 소파상 받는 황온순 할머니
487	69(1984). 12. 23	서 울 신 문	폭발적 교세: 한국은 종교국가
488	69(1984). 12. 27	중 앙 일 보	불교 지도자들의 새해 법어-나라지킬 새 싹 키우는데 정성을 원불교 김대산 종법사
489	69(1984). 12. 30	서 울 신 문	교계 지도자들의 신년 메시지-어린 새싹에 무위자연의 심성심어야
490	70(1985). 1. 11	조 선	성직봉사 공로로 표창-김서남 교무
491	70(1985). 1. 12	한 국	"
492	70(1985). 1. 16	주 간 종 교	성직생활통해 사회봉사-원불교 김서남교무
493	70(1985). 1. 16	"	종교계인사 5명에 국민포상 동백장 수여
494	70(1985). 2. 21	중 앙	12대 국회의원 55%가 종교인
495	70(1985). 1. 23	주 간 종 교	사설-소신있게 산 종교계 이들의 행적은 금지와 보람의 샘터다.
496	70(1985). 1. 23	"	교당 교화단장 훈련-원불교 서울교구
497	70(1985). 2. 10		中興다지는 원불교-교단훈련원 삼동원 논산 이전 계기로
498	70(1985). 2. 28	중 앙	일원상 상징 원불교 새 교당을 세운다-원불교 강남교당
499	70(1985). 3. 1		이 한말씀-강남진교무-감사생활을 하면 늘 진리의 도움을 받는다.
500	70(1985). 4. 4	중 앙	원불교 개교 70주 기념 11일 교역자 60명 출가식
501	70(1985). 4. 7		개교 70주년 출가식
502	70(1985). 4. 10	중 앙	원불교 개교 70주년 행사
503	70(1985). 4. 19	경 향	원불교에서 합동 결혼식 불우이웃돕기바자
504	70(1985). 4. 22		원불교 봄철 바자 열어-원불교 서울 교구 봉공회
505	70(1985). 4. 23	한 국	계화도효부 외롭지 않다-어제 원광대 병원 입원무료치료

원불교총람 부록편

506	70(1985). 4. 25	중 앙	원불교 개교 70주년 기념 행사무집
507	70(1985). 4. 26	서 울	원불교 70주년-圓卽空 空卽眞:정신의 개 벽을
508	70(1985). 4. 26	동 아	원불교 창립 70주년 잔치-세상에 참된 天心 설법
509	70(1985). 4. 27	서 울	원불교 종법사 원기 70년 맞아 메시지
510	70(1985). 4. 27	조 선	원불교는 혁신의 종교-개교 70돌 김대산 종법사가 밝힌 실체
511	70(1985). 4. 27	조 선	원불교 아동그림 잔치-교도 1인 입교 원 불교서 추진
512		주 간 종 교	모여라 꿈나무 어허덩더꿍-원불교 어린 이날 잔치 민속축제 열어
513	70(1985). 4. 28	조 선	이규태 코너-원불교 70년 중·고교생에 장학금-서울 원불교 봉공회
514	70(1985). 5. 3	한 국	蝦島 濟扶島서도 모세의 기적
515	70(1985). 5. 3	제 주 신 문 불 교 회 보	인터뷰-원불교 종법사 한국불교 근세사 발굴을 위한 문제의 논 문-등상불 숭배를 불성 일원상으로
516	70(1985). 5. 16	중 앙	심전계발의 도량 원불교 제주국제 훈련원 개원
517	70(1985). 5. 11		민족 종교 심포지엄-원불교 부산교구청
518	70(1985). 5. 12	주 간 조 선	선으로 마음의 때 씻는 살아있는 부처님 -원불교와 61년 김대산 종법사
519	70(1985). 5. 16	제 주 신 문	청소년 지도가 바로 구국운동-조정근 원 불교 광주교구장 세미나서 주제 발표
520	70(1985). 5. 17		원불교 국제훈련원 문열어
521	70(1985). 5. 18		원불교 제주 국제훈련원 완공-경축성가 의 밤. 대법회 등 기념행사도
522	70(1985). 6. 20	중 앙	파한잡기-박청수교무-산골의 음식
523	70(1985). 7. 6		22일부터 보은수련회
524	70(1985). 7. 20	한 국	민족종교단체 연합기구 발족
525	70(1985). 7. 13	스포츠허울	민족종교 교새 커진다.
526	70(1985). 7. 24	주 간 종 교	보은일념으로 정치에 참여-최용안의원. 원불교 「원미술대전」 제정 작품공모
527	70(1985). 7. 27	한 국	활짝 열린 전국 사찰-수련법회 한창
528	70(1985). 8. 1	서 울	원불교 원미술대전 제정-작품공모

529	70(1985). 8. 14	주 간 종 교	원미술대전 작품공모—원불교문화부—일반·종교부로 나뉘
530	70(1985). 8. 14	중 앙	파한잡기—박청수교무, 마음의 이끼
531	70(1985). 8. 21	주 간 종 교	청년 선보대행진—원불교 서울교구 법인절 맞아
532	70(1985). 8. 21	주 간 종 교	남의 발을 기쁘게 씻는다—원불교 서울교구 학생 교리학교 열어
533	70(1985). 8. 26		이 한말씀—서광덕교무—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534	70(1985). 9. 10	전 북 일 보	원미술대전 마련
535	70(1985). 9. 18	주 간 종 교	원불교 동래수양원—여생을 일원상과 함께
536		주 간 종 교	탈색하는 신앙—한기두
537	70(1985). 10. 13		○상징 원불교 새교당 중공
538	70(1985). 10. 16	중 앙	원형으로 꾸민 원불교 교당이 섰다.
539	70(1985). 8. 3	한 국 일 보	원미술대전 4개부문 작품공모
	70(1985). 10. 17		
540	70(1985). 10. 23	주 간 종 교	종협 활성화에 최선—박길진 종협회장. 원불교「원미술대전」제정
541	70(1985). 10. 25	주 간 종 교	원미술대전 4개부문 작품공모
542	70(1985). 10. 25	서 울	원미술대전 4개부문 작품공모
543	70(1985). 10. 30		여성단체서 특강 원불교 이종진 교무
544	70(1985). 10. 30	주 간 종 교	신앙의 강단—이현도교무—하나에로의 진리
545	70(1985). 11. 13		청년합창 정기발표회—원불교 서울 교구 청년회. 북일교당 봉불식—원불교 이리교구
546	70(1985). 11. 13	주 간 종 교	처음 교헌개정으로 관심모아 원불교 44회 총회—정화단장 등 교체
547	70(1985). 11. 17		좌우명—장웅철교무
548	70(1985). 11. 20		길따라 마음따라—이리 원불교 중앙총부 전법성지—영육쌍전 수행
549	70(1985). 11. 20		임기만료 교정 대표 선출
550	70(1985). 11. 20	주 간 종 교	의장에 정도진법사.
551	"		원불교 24년만에 중앙 교의회 의장교체: 정해영씨 등장. 원불교 정화단 다채로운 행사가져
552	"		태평선생—만화(4cut)

원불교총람 부록면

553	70(1985). 11. 20		사설-대사회 활동을 기대한다. 원불교 제 3기 출범에 부쳐
554	70(1985). 11. 20		25주년 기념 정화제 개최
555	70(1985). 11. 27	주간종교	종협 20년 침체 벗어날지-종협 새회장단 선출
556	"	"	함께 한다는 생각 -女心信心-유은희
557	70(1985). 11. 29		원불교 자선음악회
558	70(1985). 12. 4		圓佛教が 定期總會 教政. 監察院長を 再選 (ソウル國際訓練院) 新發足
559	70(1985). 12. 11	전 북	원미전 대상 작품
560	70(1985). 12. 11	중 앙	원불교 「원미술대전」 입상자
561	70(1985). 12. 12	동 아	원불교 1회 「원미술대전」 대상결정
562	70(1985). 12. 15	조 선	원불교 미전 대상발표-종교부 정진환 작품-인간의 굴레, 일반부 고선준 작품 갓 내음Ⅱ
563	70(1985). 12. 18	주간종교	원불교 두교당 준공식 부산 해운대, 당리 교당
564	70(1985). 12. 18	"	원청 20년사 출판기념 20일 원불교 청년회
565	70(1985). 12. 18	"	원청 지도자 훈련 20일 원불교 청년회
566	70(1985). 12. 18		원불교 「원무회」 창단공연
567	70(1985). 12. 25	주간종교	송년문화 행사 풍성-원불교 학생회 원악제:민족문학의 밤도
568	"	"	제1회 대학선방 개강-원불교 원도 소남 훈련원
569	71(1986). 1. 1	주간종교	신년사세계-圓滿成就 최선다하자
570	71(1986). 1. 10	중외일보	원불교 종법사 대산 신년사
571	71(1986). 1. 14	동 아	원불교 주최 「원미술대전」
572	71(1986). 1. 15		교정원 인사 개편 원로원 개원식
573	71(1986). 1. 21	전북일보	원불교 교구조정 원미술대전 대상에 정진환-인간의 굴레 원불교 「정녀상」 재정립 모색 원기 70년 맞아 갖가지 추모 기념사업
574	71(1986). 1. 23		지팡이-기지개 켜는 민족종단들
575	71(1986). 1. 23	중 앙	조계종 美北加洲 三寶寺 원불교 미주재단에 회사

576	71(1986). 1. 24		원불교 자선음악회
577	71(1986). 1. 24		원미술대전개최 ソウル에서 수상식
578	71(1986). 1. 27	전북일보	노인요양원 건립—원불교 원의회서
579	71(1986). 1. 29	주간종교	원불교 대학선방마쳐, 하섬수양원 겨울 참 선, 신륵교학회 연구발표
580	71(1986). 1. 31	전북일보	원불교 사상발표회 2월 1일 원광대서
581	71(1986). 2. 5		김삼룡저『창조를 위한 여백』
582	71(1986). 2. 5		禪ブーム下, 期待の書 『禪と無時禪の研究』 韓基斗
583	71(1986). 2. 6	충청일보	도학과 과학이 겹쳐지는 시대—원불교 김 대산 중법사에게 듣는다.
584	71(1986). 2. 8	한 국	원불교 교리강좌 개설—원불교 서울교구
585	71(1986). 2. 12	주간종교	진리는 하나 서로 물을 트고 만나야—원 로에게 듣는다. 중법사
586	71(1986). 2. 12		원불교 70년 좌표토론—원불교 사상연구 원
587	71(1986). 2. 12	주간종교	「원대연」 지도자 훈련 전국 대학생 간부 참가
588	71(1986). 2. 22	주간종교	신앙의 강단—박청수교무—보람의 잉태
589	71(1986). 2. 23	조 선	생활과 성언—장도영교무—강자의 길, 약 자의 길
590	71(1986). 2. 5		고3 오리엔테이션 원불교 서울교구 대학 생 연합회
591	71(1986). 2. 26	주간종교	각급 지도자 훈련 계속—원불교 서울회관서. 중앙요양원 신축—원불교 이리 신용동에
592	71(1986). 3. 1	중 앙	백제의 익산 遷都 연내 定説化—원광대 부설 마한·백제 문화연구소 김삼룡 소장
593	71(1986). 3. 12	주간종교	종교법인법의 필요성—류명덕
594	71(1986). 3. 12	주간종교	서울 동서부 교구로 분할—원불교 2일 교 구장 취임식
595	71(1986). 3. 12	주간종교	영세 어린이에 푸른 꿈을—머릿돌—원광 새마을 유아원(서울회관)
596	71(1986). 3. 13	중 앙	서울 동서부 교구로 분할 원불교 2일 교 구장 취임식
597	71(1986). 3. 15	한 국	"

원불교총람 부록편

598	71(1986). 4. 2	주간종교	원불교 교화 예술단 창단-단장에 민속연구가 운병하씨
599	71(1986). 4. 2	"	일반 교리학교 개설-원불교 서울교구
600	71(1986). 4. 8	전북일보	원불교 대각개교절 행사무집
601	71(1986). 4. 16	주간종교	임기만료 위원선임-원불교 수위단회 교정원 조직법 개정
602	71(1986). 4. 19	한 국	대각개교절 기념봉축 행사
603	71(1986). 4. 20	한 국	원불교 靑靑會 도덕발양대회
604	71(1986). 4. 24	중 앙	원불교 28일 개교 71주년
605	71(1986). 4. 26	한 국	원불교 교리강좌-원불교 서울 화국교당
606	71(1986). 4. 27	동 아	원불교 개교71주년 다채로운 기념행사
607	71(1986). 4. 27	서 울	원불교 개교일 경축 큰 행사
608	71(1986). 4. 28	전북일보	월요칼럼-무아봉공의 정신으로-김팔곤교수
609	71(1986). 4. 30	전북일보	바른도 생활화를 다짐-원불교 대각개교절 봉축 행사
610	71(1986). 5. 5	전북일보	제2회 숨리어린이 민속큰잔치
611	71(1986). 5. 7	주간종교	한국사회와 종교의 역할-원불교 사상연, 학술회의
612	71(1986). 5. 13	조 선	원불교 1백 20명 교단 특별기도회
613	71(1986). 5. 14	주간종교	여심신심-김성자-어린이들 위한 기도
614	71(1986). 6. 23	광주일보	원불교 성지순례-아시아 지역 종교대표 40여명
615	71(1986). 6. 28	한 국	21일부터 북경서 「5차 세계종교인 평화회의」
616	71(1986). 7. 2	주간종교	대화가 평화의 가교-ACRP
617	71(1986). 7. 2	"	원불교 성지순례-ACRP참석자 40여명
618	71(1986). 7. 2	"	대학생 청년 하기 수련준비 민족종단-원불교 영산서 보은수련
619	71(1986). 7. 2	주간종교	여심신심-김원녀-부모님의 은혜
620	71(1986). 7. 9	불교신문	기획취재 「원불교는 불교인가 아닌가」-국내서는 신흥종교, 외국서는 혁신불교
621	"	"	증언, 대은스님께 들어본 원불교의 뿌리
622	71(1986). 7. 17	중 앙	故 홍진기 회장 회사장 지내던 날-원불교 의식따라 발인
623	71(1986). 8. 6	한 국	원불교서 보은바자회

624	71(1986). 8. 20	주간종교	길따로 마음따라-원불교 하섬수양원
625	71(1986). 8. 30	중 앙	故 홍진기회장 49제
626	71(1986). 9. 3	주간종교	교당 교정지도 사무-원불교 6개 교구에
627	71(1986). 9. 10	주간종교	남의 자녀를 내 자녀같이-한국 보육원
628	"	"	가을철 모금 바자회
629	71(1986). 9. 17	주간종교	공육진씨 일본공연 극찬
630	71(1986). 10. 1	주간종교	신앙의 강단-김광인교무-인간의 삶과 영 육
631	"	"	중협 청년부 조직-회장에 박선태씨. 원불 교 이리교구 보은바자회 개최
632	"	"	원불교 성가공모-대종사 탄생 백주년기 념
633	71(1986). 11. 12	주간종교	원불교 서울 합창단-14일 정기연주회 개 최
634	"	"	원불교 어린이 성가대회-원불교 서울꿈 밭 개최
635	71(1986). 11. 19	주간종교	예산안등 확정(상정안)-원불교 수위단회
636	"	"	총화 법치의 교단상정립-원불교 총회
637	71(1986). 12. 3	중앙·동아	원광대 총장 박길진씨 별세
638	71(1986). 12. 3	주간종교	한국종교학회 추계학술발표회-김홍철교 수-민족주체 사상강조 공통점
639	"	"	예비교역자 문심강화-원불교 교육심의회 종교문제연 학술발표-4일 원대 교학과
640	71(1986). 12. 3	경 향	원광대 박길진총장 별세
641	71(1986). 12. 4	조 신	원광대 총장 박길진씨 별세
642	71(1986). 12. 4	한 국	원광대 총장 박길진씨 별세
643	71(1986). 12. 4	중 앙	원광대 초석다진 종교학자-입적한 승산 박길진총장
644	71(1986). 12. 4	광주일보	곡! 박길진 원광대 총장 영전에 민준식교 수
645	71(1986). 12. 4	서 울	원광대 박길진총장 별세
646	71(1986). 12. 5		살신성교의 이론가-입적한 원광대 박길 진총장 영광출신-원불교 2인자
647	71(1986). 12. 10	주간종교	박회장 열반에 애도 학자종교인으로 원사 상정립 기여

원불교총람 부록편

648	71(1986). 12. 10	불교신문	원광대 박길진총장 별세
649	71(1986). 12. 17	주간종교	박길진총사 원불교장 인사 말씀
650	"	"	예에 사는 신앙인-김월하여사-불우아동 에 사랑의 손길펴
651	71(1986). 12. 30	"	신년사-부모님 마음 본받아 살아가자
652	71(1986). 12. 21	한 국	원광대 2대 총장에 김삼룡부총장 선임
653	71(1986). 12. 24	한 국	원광대 김삼룡총장 승인
654	72(1987). 1. 28	주간종교	원불교 인사이동 총 185명
655	"	"	故 박광전총사 종재
656	"	"	엄마사랑음악회-원불교 서울 원음합창단
657	"	"	원불교 교감급 185명 대폭 이동
658	72(1987). 2. 11	전북일보	전북에 민전탄생-미술계 활기
659	72(1987). 2. 15	한 국	종교인 칼럼-김윤중-개벽의 새 생명으 로
660	72(1987). 2. 18		원불교 혼인상담소 문열어
661	"		종교 학제에 새바람 일어야-원광대총장에 취임한 김삼룡박사
662	72(1987). 2. 25	주간종교	신앙의 강단-황영규교무-인생과 신앙
663	72(1987). 3. 2	중 앙	원불교 혼인 상담소 서울회관에 개설
664	72(1987). 3. 4	주간종교	정치토론 종교인 6명 참가-문상환 (원불 교)
665	72(1987). 3. 4	주간종교	신용학회 연구발표회-원불교와 사회 주 제로
666	72(1987). 3. 25	주간종교	교당 교구 정기감사-원불교 來 13일부터
667	"	"	원불교 서울회관에 불 부속건물 내부전소
668	72(1987). 3. 26	전북일보	원불교 교당 신축에 논회사
669	72(1987). 4. 5	한 국	종교인 칼럼-김삼룡총장-실천이 앞서는 사회를
670	72(1987). 4. 19	한 국	원불교 대각개교절 행사
671	72(1987). 4. 23	중 앙	원불교 보은봉공 인정을 나눈다
672	72(1987). 4. 23	조 선	원불교 72주 대각개교절
673	72(1987). 4. 28	전 북	원광학원 설립이사장 성산 성정철총사 열반
674	72(1987). 4. 29	한 국	"
675	72(1987). 5. 4	전북일보	숨리어린이 민속큰잔치-어린이날 원광대 서 열려
676	72(1987). 5. 5	동 아	이리서 어린이 민속잔치

677	72(1987). 5. 6	전북일보	어제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숨리어린이 민속큰잔치
678	72(1987). 5. 6	주간종교	원불교 원로수위단원 성정철종사 열반
679	72(1987). 5. 13	조 선	원광아동 상담실 문열어-서울회관
680	72(1987). 5. 15	동 아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4. 13비난 성명
681	72(1987). 5. 20	주간종교	이렇게 산다-원불교 수양원 윤치원원장
682	72(1987). 5. 20	주간종교	교무 정예화 등 논의-원불교 교육개혁위
683	72(1987). 6. 3	중간종교	원불교 교단 창건사(2)
684	72(1987). 6. 10	중간종교	원불교 교단 창건사(3)
685	"	"	원불교 서울 혼인상담소 상담
686	"	"	원불교 사상 강연회-31일 제주시민 문화 회관서
687	"	"	한민족 진로모색-민족종교협
688	"	"	소태산 대중사 44주기-원불교 부산동부 교구기념
689	"	"	종교 민속자료 2천점 전시 원광대 박물관 개관
690	72(1987). 6. 17	"	원불교 교단 창건사(4)
691	72(1987). 6. 18	동 아	원불교 교무 239명 시국성명 발표
692	"	중 앙	"
693	72(1987). 6. 19	한 국	"
694	72(1987). 6. 24	주간종교	일원대도 선양. 공도자 승배, 원불교 청운 회
695	72(1987). 6. 24	"	원불교 교단 창건사(5)
696	72(1987). 6. 26	전북일보	이리에 「원무용단」 창단-원무춤터도 동 시 개관
697	72(1987). 7. 8	주간종교	원불교 교정지도-광주등 7개 교구 대상
698	"	"	국조반들기 전국 협의회 창립 2주년 행사 -원불교 서울회관서
699	"	"	개벽 알리는 상두소리-양혜경교무
700	"	"	신흥종교 연구특장-19일까지 새 종교연 구원
701	72(1987). 7. 8	주간종교	원불교 교단 창건사(7)
702	72(1987). 7. 8	주간종교	한국 종교 현장 이렇다-취재기자방담- 시국 어려워져 상황에 모두 민감
703	72(1987). 7. 11	전북일보	심장병 어린이 돕기-원대생 銀輪대장정

원불교총람 부록편

704	72(1987). 7. 15	주간종교	원불교 교단 창건사(8)
705	"	"	자전기 순례-원광대 예비교역자 4명
706	72(1987). 7. 22	주간종교	원불교 교단 창건사(9)
707	"	"	신앙의 강단-장혜성교무-마음을 비우면
708	"	"	원불교 출판문화대상공모
709	72(1987). 7. 31	전북일보	수재민돕기 문화 행사 줄이어
710	72(1987). 8. 5	주간종교	원불교 유아교육 세미나-창조하는 유아 교육 주제
711	"	"	수재민 방문위로-원불교 서울동서부 교 구
712	"	"	원불교 교단 창건사(10)
713	"	"	모금 구호품 전달-피해도 커
714	72(1987). 8. 5	주간종교	보은동산부지 금년에 확보키로-원불교 청운회 2천만원 모금
715	72(1987). 8. 12	주간종교	원불교 교단 창건사(11)
716	72(1987). 8. 12	주간종교	유아교육 세미나
717	72(1987). 8. 13	중앙일보	유아교육 세미나
718	72(1987). 8. 19	주간종교	원불교 교단 창건사(12)
719	72(1987). 8. 26	주간종교	심장병 어린이 돕기 성금 700만원 모금- 원불교 예비비교역자
720	72(1987). 8. 26	주간종교	원불교 교단 창건사(13)
721	72(1987). 8. 31	전북일보	대내외적 정비사업 활발
722	72(1987). 9. 2	전북일보	원불교 교단 창건사(14)
723	"	"	창생구제 앞장다짐-원불교 법인절 68주 년 기념
724	72(1987). 9. 2	전북일보	종단 친선방문 이해넉히-한·일 종교청년 회의 우호증진 다짐
725	72(1987). 9. 16	주간종교	서경전 교무 교학대학장 임명
726	72(1987). 9. 16	주간종교	타종교이해 계기마련-원불교문화 강좌 개설
727	72(1987). 9. 16	주간종교	원불교 교단 창건사(15)
728	"	"	한국불교 연구원 학술발표회-김순금씨 강연
729	72(1978). 9. 23	"	한국신흥종교의 이해-류병덕교수 발표- 새로운 믿음의 집단을 의미

730	72(1978). 9. 23	주간종교	예에 사는 신앙인-무용가 이매방씨-타고난 춤꾼 무용의상도 제작
731	"	"	원불교 사상강연-원불교 대전시민 회관서
732	"	"	수해지구서 치과진료-원불교 돈암교당 10년간 전개
733	72(1987). 9. 26	주간종교	길따라 마음따라-원불교 부산교당-소태산 족적 어린 교구수반교당
734	72(1987). 10. 28	주간종교	수위단회 기능 대폭 강화-원불교 교단3대 출발대비 교헌개정
735	"	"	진달래동산 발족-원불교 서울청년회
736	"	전북일보	이리시민의 장 수상자 결정-김환열(공익장)
737	72(1987). 11. 4	주간종교	이렇게 산다. 원불교 서울회관 소장 예산이철행법사-사은에 감사. 참나 찾는데 노력
738	72(1987). 11. 4	주간종교	교헌개정안등 심의-원불교 11일부터 총회
739	72(1987). 11. 6	전북일보	임실 원불교 교당 1억들여 신축봉불
740	72(1987). 11. 7	전북일보	원음 정기연주회-8일 원광대서
741	72(1987). 11. 10	전북일보	원음 오케스트라 성황-3천여 시민참석
742	72(1987). 11. 11	주간종교	자선기관 방문 원불교 방배교당
743	72(1987). 11. 16	중앙일보	「인생과 종교」강좌-원불교 청운회, 김동길교수 연사
744	72(1987). 11. 18	주간종교	내년예산 10억원 책정-원불교 수위단회서 확정할 듯
745	72(1987). 11. 27	전북일보	류병덕교수 회장선임-한국종교학회
746	72(1987). 11. 30	sports seoul	원불교 성지성역화 활발
747	72(1987). 12. 2	주간종교	회장 류병덕교수-한국종교학회 총회 역할논의
748	72(1987). 12. 6	동 아	원불교 「공명선거」 성명
749	72(1987). 12. 9	주간종교	명절대재 봉행-원불교 각교당서
750	72(1987). 12. 16	주간종교	2억투입 교당신축-원불교 초량교당 봉불식
751	72(1987). 12. 30	"	2대말 총회일정 내년 11월 초순에-원불교 교정원

752	72(1987). 12. 30	경 향	신년사—도덕관왕의 성년세계 이뤄야	
753	"	동 아	독선 아집 버리고 서로가 한 마음을	
754	72(1987). 12. 31	서 울	거듭난 새마음으로 대정진 대보은을	
755	72(1987). 12. 31	주간불교	도덕관왕의 성년세계 이뤄야	

2. 보도기사 습수록

• 東亞日報 원기13년(昭和三年) 11월 25일(2966호)

제목: 世上風塵 벗어나서 淡湖畔의 理想의 生活.

(精神修養, 事理研究, 作業取捨의 三大綱領下에 움직이는 四百會員)

◇ 益山 佛法研究會의 特別한 施設.

裡里驛에서 大田行 列車를 搭乘하고 驛構內를 벗어나서 四·五分 동안 北進하면 西便으로 聳立한 湖南絶勝 益山の 雄姿가 漸漸 가까워 오고 東便으로 八十里 周圍를 가진 大海然한 腰橋한 淡湖銀渡가 凸凹無常한 小山넘어로 보일락 말락하며 裡里黃登의 街道가 白蛇形으로 굽으러 들어 오다가는 사그라지고 또 松林이 茂蒼한 그속에 前者에 보지 못한 大小瓦草家の 村落이 粉粧한 牆壁으로 籠城하여 있고 여기 저기 반듯 반듯한 田圃가 開拓되어 있어 無心히 來往하는 旅客들의 好奇心을 誘發케 하는 바가 있나니 이곳 益山郡 北一面 新龍理區內에 新說된 朝鮮의 名物이요. 또는 理想郷이라는 別稱을 가진 益山 佛法研究會의 本部이며 또한 그 施設의 一部分이다.

◇ 이 研究會는 오로지 佛法에 根旨하여 精神修養 事理研究 作業取捨의 三大綱領의 旗幟下에서 움직이면서도 他類와 같이 佛像을 가지지 않고 가장 現代의이며 現實化인 것이 特色이니 至今에 京城과 靈光에 支部가 있으며 京鄉을 通하여 信實한 男女會員이 四百余요 目下本部 施設構內 共同居住者만이 五十余로 算하며 또 基本 資産이 十萬巨金에 近하여 現狀態로는 何等의 窘塞을 感치 않는 터이요. 앞으로의 三年을 期하여 雄壯한 洋制의 修道院을 建築키 爲하여 이미 腰橋湖畔絶勝地帶에 廣闊한 基地까지 占卜하여 있고 또 大農園의 設計와 其他萬般의 計劃이 착착 進行되는 中이라 함은 누구나 그저 看過할 수 없는 讚賞의 的이라 한다.

◇ 그들의 秩序있고 規模있는 組織의인 部門과 具體의인 設備는 實로 喫驚치 않을 수 없을 만 하다. 그리고 各自는 누구의 指揮를 기다리지 않고 모름지기 그 할바의 職能을 如實히 發揮躬踐하여 一舉手一投足이 한가지도 尋常한 바가 없으며 一個의 「鳴鐘」으로써 잠자고 일하고 먹고 工夫하며 무엇에나 動하고 靜하는 것을 如一嚴守하나니 境內에는 오직 念佛과 時間 마다의 打鐘소리만으로 그쳐지지 않는다.

一. 午前五時 起寢. 工夫

一. 午前八時 就食

一. 午前九時 至十二時 勞動. 工夫

一. 正午 午食休息

一. 午後一時 至五時 勞動. 工夫

一. 午後六時就食

一. 午後八時 至十時 工夫. 念佛

一. 午後十時一齊就寢

◇ 이렇게 數多大衆은 鍾울리는 대로 오직 和氣靄靄裡에서 每日의 課程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리고 每月 三·六日은 靜體로 하여 保健을 힘쓰며 研究를 加하여 一回式的 講演이나 討論會를 開催하고 男女會員이 大房에 會集하여 各各大氣焰을 吐하는 것이 定例이다. 그리하여 自由롭게 教養하고 自在롭게 勞働하여 崇高團樂한 共同生活의 極致를 如實히 體驗하고 있음은 果然 보는 者로 하여금 由然自在함을 感게 한다.

◇ 會員된 大衆은 어느 곳에 있으나 信條인 一. 研究의 綱領件. 二. 進行件. 三. 括損件. 四. 三十條의 戒文 五. 率性要論과 오직 「南無阿彌勒佛」이라는 一句의 念佛만은 必須로 하며 더욱 教養訓練을 加하게 爲해서는 每年 陰 三月 二十六日의 定期모임이 있고, 此外에도 必要로 認할 時마다 隨時會合 할 수 있을 뿐더러 特히 每年 夏三月 冬三月은 男女 禪院을 開放하고 各項工夫를 進行하나니 卽 入禪은 每年 陰 五月 六日에 結制하여 同 八月 六日에 解制하고 再回는 十一月 六日에 始하여 翌年 二月六日에 終了하며 會員으로서 萬一 工夫할 費用이 困難한 者는 그 程度를 보아 給費로 한다하며 機關紙도 不遠間 刊行키 爲하여 이미 이 方面에 對한 準備도 着手하여 오는 터 이라 한다. 質的으로 날로 隆盛의 實을 擧하여 萬進하나니 이 施設의 主人公은 果然 누구인가? 오로지 佛法研究會의 會主로 總裁格인 朴重彬 先生의 抱負의 一端이라 한다. 先生은 四百餘 大衆의 唯一한 指導로서 四十年 前에 靈光郡 白岫面 吉龍里에서 出生하였다. 神童이라 하든 그는 十三 歲時에 踪跡을 감추어 彌來入山修道하여 數十星霜을 一日 같이 研究磨를 加하여 오다가 뜻을 決한바 있어 去已未春에 下山하여 同志 八, 九人을 규합하여 비로소 佛法研究會期成組合을 設始하고 七, 八千圓의 資金을 貯蓄하여 土地를 開拓하여 生活의 根源을 삼고 밤이면 佛法의 眞理를 研究하여 知識의 根源을 삼은 것이 原因하여 資第 同志共鳴者들이 相從되매 自然 今日의 隆盛을 보게 되었으며 前途는 實로 洋洋하여 日進月就의 勢로 發展되어 나간단하다. —裡里— —記者— (寫眞은 會主 朴重彬氏)

• 대판조일신문 원기19년(소화9년) 5월 28일

불교의 진리에 입각.

—근검력행을 실천하고 동지 5백명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반도의 새로운 마을—

〈경성〉「반도의 새로운 마을」을 표방하는 채 변화의 종교단체가 나타났다.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에 본부를 둔 불법연구회는 대정 5년 3월 현 교주 박중빈이 불교의 진리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동지 8명을 규합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을 조직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에는 기본재산 6만여원. 정회원도 익산, 김제, 전주, 진안, 경성, 영광, 익산각지에 약 5백명을 가지고 있다. 이 회의 특색은 불교에 있어서 불상숭배는 일종의 미신 행위라고 해서 배격. 불교의

진리를 검토해서 현대사회 생활에 적합한 취사 선택으로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자력본원의 교육을 세우고 근검력행을 실천해 가는 것으로서 본부에는 연구, 교무, 서무의 상호조합계, 농업, 식사 세탁의 7부가 있고 엄숙한 규율 아래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논 3정보, 밭 3정보의 경작지에는 농가의 정·부업을 망라한 다각적 영농법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것은 그 수익분배이며, 정액을 소작료로서 본부에 납입. 그 나머지는 각 회원의 노동능률에 따라서 평등하게 분배 각인의 생활을 보증해 주는 것이며 식사는 특등. 1등. 2등의 3부분으로 나누어 농번기에는 농업부원에 특등식. 간부에 1등식. 사무원에 2등식이라고 하는 상태로 농업원을 우위하고 있다. 본월 상오에 총회를 연 결과 본년 시월까지에 일반의 각출금(돈)을 가지고 본부를 신축한다고 하며 신앙에서 출발한 물심양방면의 굳은 결합은 크게 기대되고 조선 유일의 새로운 마을로서 장래가 촉망되고 있다.

* 朝鮮日報 원기19년 8월 3일(제4732호)

地方團體의 蹶起

益山佛法研究會本支部動員—현금五十圓募集寄託—

이재민구제의 소리는 이번 수해에도 경을 너머 혹은 뜰을 격하여 겨우 면한재지의 이웃에게도 일어나고있다. 익산군 북일면에 본부를 두고 김제, 전주, 진안, 영광, 부산, 경성 각지에 지부를 둔 朴重彬氏가 지도하는 호남의 이채「아름다운 촌락」인 佛法研究會에서 출선하여 이재민구제의 연금을 출연하였다. 우선 시간관계로 각 지부까지 전부 참가하지는 못하고 總本部에서 삼십원, 영암지부로 부터 십원, 김제출장소와 진안출장소에서 각각 오원씩 합계 오십원을 모아서 아래의 편지와 함께 보내왔으며 앞으로 다른 각 지부도 독려하여 각각 남김없이 출연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금번 수재로 인하여 참경에 빠진 동포를 생각할 때 아무리 빈약하고 소소한 미성이나마 그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아무리 가난한 중에서도라도 양심상 안녕히 앉아서 볼 수가 없음으로 우선 이 작은 금액을 준비하였나이다.」 李載喆, 宋奎, 柳虛一, 宋慧煥, 陳貞華, 李共珠 등.

* 毎日申報 원기20년(소화10년) 5월 9일(제9929호)

益山北一面에 佛法研究會.

「裡里」益山郡 北一面 新龍里 佛法研究會는 距今十九年前에 創設되어 現在 京城, 大阪, 釜山, 靈光, 金堤, 全州, 新興, 鎭安 等地에 支部가 設置되고 會員이 八千餘에 達한다는 바 同會의 趣旨는 朝鮮 由來의 佛法即 佛像에게 福을 빌면 佛像은 大慈大悲하여 罪를 지은 사람에게도 福을 준다. 하며 佛法을 信仰하는 者는 반드시 社會를 떠나 山谷으로 드러가 職業도 없고 妻子도 없어야 淸淨이나 일컫는 弊를 矯正하고 自己의 職業을 힘써가며, 餘暇에 佛法의 眞理를 探索하여 毎日行事가 佛意를 體得하여 福을 求하고 福을 避하는 것으로 佛像의 慈悲에 依賴치 말고, 自己의 몸에 求하자는 卽 時代에 適應한 佛法을 만들자는 것이요. 同會의 行事는 會內에는 敎務部, 研究部, 通言部, 監査部를 두고 庶政院內에 庶務部, 產業部, 相助部, 公益部,

育英部를 두어 會員을 指導함에도 各部門에서, 그 部의 일을 指導하여가는 바 主로 農事의 改良, 産業의 發展, 畜産의 増殖等を 獎勵하여 會員의 生活를 安定케 하고 其他 清潔의 保持와 思想의 善導 子弟의 教育 등을 힘써 理想의 生活를 營爲하는 同時에 冬三朔 夏三朔에는 熱心으로 作業의 餘暇를 利用하여 佛理를 研究한다는 것이다.

• 全北日報 원기22년(소화12년) 3월 4일(제8894호)

기사 취소

지난 1월 8일 부터 귀보 제 8848호 제 2면

「약동의 봄에 종교 유사단체 완전히 붕괴」 기사중에 보천교 기타 유사종교 몰락 운운하는 기사에 관해서 불교연구회와 혼동하기 때문에 당 회원 신도간에 있어서 상당충돌을 받았고 장래 회운에 적지 않는 미혹에 다다라 있음에 대하여 당 불법연구회와는 사실 하등 관계 없는 일임을 취소하기를 천명한다.

원기22년(소화 12년) 3월 2일

불법연구회 회장 조송광. 전북일보 사장전.

• 朝鮮日報 원기22년(소화12년) 8월 1일

제목: 佛教革新 實踐者

佛法研究會 朴重彬氏

氏는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출생으로 현재 益山郡 北一面 新龍里 佛法研究會의 宗法師이다. 氏를 理解하자면 먼저 佛法研究會를 분석하는 것이 쉬운 길이나 同會의 合理的 분석은 到底히 적은 紙面으로는 불가능한 일에 屬한다. 고로 이곳에는 다만 氏의 生活一端에만 그쳐둔다.

氏는 一見 政治學의 타입이다. 그러나 哲理에 深奧한 宗教家로서 웅대한 抱負를 가진 철저한 活動家이다. 氏는 二十年 前에 在來佛教의 時代의 경험에 立脚하여 과거의 諸段階를 合理的으로 分析한 후 斷然革新을 高揚하여 불법연구회를 조직하였으나 同會가 표방하는 바 宗教의 時代化, 大衆化, 物心양면의 개발, 一切 迷信의 打倒, 精神修養, 事理研究, 作業取捨 등 실로 民衆의 현실적 意識을 反映하여 在來宗教의 形而上學의 神秘的 形態에서 完全 탈피한 大衆的 종교라 아니할 수 없나니 이 의미에 있어서 氏는 朝鮮佛教史에 루-텔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氏는 如上의 新宗教를 創設하고 多數大衆을 包容한 佛法研究會의 총지도자의 지위에 있건마는 勤儉質素하며 私를 忘却하여 寸土의 所有와 一分의 私蓄이 없나니 그 부인 양씨는 尙今도 밭을 파며 淸貧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 中央時報 원기22년(소화12년) 9월 11일

—佛教의 革新運動과 佛法研究會의 將來—

—記者

(一)

距今 二十一年前 全南 靈光에서 朴重彬氏의 創始로 佛法研究會라는 것이 있었으니 이것은

朝鮮 固有의 佛敎는 時代와 背馳되는 超人間的 生活을 함으로써 宗旨를 삼어 왔는 바 그것이 결코 佛敎의 宗旨가 아니요, 또한 從來의 朝鮮佛敎는 조선의 불교가 되지 못하고 外邦의 불교를 모방한 불교임으로 此를 革新하여 永久不變한 無上大道下에 조선의 實情에 則하는 純全한 조선의 불교를 또는 초인간적인 불교를 時代에 相應한 大衆의인 불교가 되게 하여 世間生活에 必要한 人生의 要諦를 闡明하며 敎理運轉의 制度와 方便을 時代人心에 適應하도록 刷新하여 불교의 大衆化를 圖하자는 것이 同研究會의 趣旨이었다. 그리하여 十五年 前에 益山郡 北一面으로 本部를 移轉하는 同時에 健全한 發展을 遂하여 現在 會員 約 四千名이라 하며 동연구회의 宗旨와 敎理는 其源을 佛에 發하였으면서도 現下 朝鮮人 生活에 가장 適應한 修養機關으로 되어 있음에 妙味가 있는 것이다. 그 例로써 一. 世上은 곧 經典이다. 一. 萬法을 通하여 한마음을 밝히라 一. 物質이 開闢되니 精神을 開闢하자 一. 일을 앎는 자 먹지를 말자 一. 感謝生活을 하자 一. 靈과 肉을 아울러 밝히자 一. 產業是佛法이요 佛法是產業이다 등 自力更生運動의 基幹이요. 心田開發의 要法이라 앎을 수 없다.

다시 동연구회는 京城 東大門 外에 支部를 두고 지부장에 李完喆氏를 推薦하여 현재 同支部 會員은 無慮 二百餘名 信徒 五十餘名을 算하는 一方 修養院을 비롯하여 一般 敎化事業에 主力하는 바 크며 李完喆氏의 活躍에는 相當한 期待를 갖은 바 있다고 믿는다.

동지부에서는 동연구회의 敎義의 一層 새로운 실천을 目標하여 運動을 提起하였으니 곧 外邦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山中 僧侶의 불교를 大衆의 불교로 과거의 불교를 현재와 미래의 불교로 革新을 策하였다. 이는 곧 佛敎復興運動의 急先鋒이라 칭할 수 있으며 過般來提唱되든 佛敎復興策과 相呼應하여 朝鮮佛敎有史以來의 획기적 大運動이라 하겠다.

(二) 朝鮮佛敎革新論이란 小冊子에서 그 內容을 보건대 經典佛敎에 不過하든 종래의 조선 불교를 生活에 적응하도록 改革한 것이 그 內容으로 어려운 外邦의 속어와 한문으로 編成된 經典을 가장 平易한 조선글과 말로 改編하고 在來의 多大한 經費를 要하든 經典을 簡易한 것으로 普及을 圖謀한다는 점. 또 산중 승려들의 佛經佛敎를 大世의 불교로 시대에 상응하도록 혁신한다는 바, 一. 敎堂을 街頭에 세우고, 一. 재래 승려의 徒食主義를 有識制로 하고, 一. 인간생활의 본능을 존중히 하여 禁慾生活을 해탈할 것, 一. 재래의 靈魂濟度만 主體로 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추종하여 인간생활의 要道를 修業할 것, 一. 敎化科目의 統一, 一. 재래의 虛禮制度를 變改할 것, 一. 等像佛崇拜를 變改할 것 등을 그 要旨로 하고 있다.

即 平和와 安樂은 감사생활의 소산이요. 破壞와 亂離는 怨望의 소산이라고 天地恩, 父母恩, 同胞恩, 法律恩의 四大恩을 알아야 千萬事에 오직 感謝生活을 하는 法과 男女權利同一을 主張하여 自力更生의 法과 智愚差別을 주장하고 子女의 敎育을 주장하여 向學熱을 돋우며 公道獻身을 주장하여 동연구회의 취지와 敎義內容으로 하고 있다.

一圓相이란 재래불교의 等像佛단을 佛像으로 숭배할 것이 아니라 天地의 온갖 有情無情을 모두 佛로 天으로 神으로 崇敬하자는 것을 말함이니 一圓相은 곧 부처(佛)의 마음을 대표한 것으로 인간은 진리적 생활에서 佛意를 섬기고 佛意를 따르라는 의미인즉 재래와 같이 盛宴의 佛供이 아니라 實心으로서 기도하는 法으로 삼고 있다.

소위 재래조선불교의 교리제도 時代化의 내용을 들어보면, 精神修養, 事理研究, 作業取捨 上

三項에 끝였으니 精神修養이라 함은 邪心을 버리고 一心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事理研究란 大小有無의 이치를 究明한다는 것이요, 作業取捨는 곧 知行을 對照實行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최초의 법어인 동시에 修身의 要諦로 삼았다. 그리고 여기 追隨하는 齊家の 要法으로는, 一. 實業과 衣食住의 完全準備 二. 量入計出과 근검절약 三. 자녀교육의 方策 四. 上奉下率의 責務 五. 가족의 和睦과 의견의 교환 六. 내면의 心理를 밝혀주는 도덕을 師友로 할 일 七. 외면의 現則을 밝혀주는데 服從할 일 등 유교의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云道를 引用하기까지의苦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그 刷新한 교리의 내용은 끝까지 空想的 架空의인 것에서 實際的 時代的인 것으로 大衆化를 꾀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偶像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것과 같은 이 會의 특징은 동시에 찬양할 만 한 것으로 믿는다.

이제 동회의 機構를 一瞥하면 二院十部로 分하여 하겠으니, 敎政院=敎務. 研究. 通信. 監査, 庶政院=庶務. 相助. 産業. 公益. 育英. 共給으로서, 敎務部는 分類에서 보는 바와 如히 敎理訓練 敎科書 편찬 도서관리 등을 行하고, 研究部는 각종 研究材料의 蒐集 編成, 通信部에서는 會報發行, 監査部는 회원의 素行의 조사와 賞罰 銓衡, 庶務部는 會의 財産管掌, 相助部는 會의 財産運轉 회원의 근검저축장려시설을 위주로 하고, 産業部는 相助部의 施設事業을 실제 활용케 한 것이니 亦是 동회에서 注力하는 것은 前述과 같이 산업부 활동의 積極如何에 있을 것이다. 또한 公益部는 각종 獻貢費를 收受하여 養老院. 養幼院. 病院. 紀念館 등을 세워 會의 有功한 無自力者를 보호하는 中이라는 바 이미 養老養幼事業은 行中이며 育英部는 會의 每月 〇金과 共同作業으로 人材養成을 실행중이며 供給部는 各處 來往人의 衣服洗濯食事辨當을 하는 責務가 있다. 그리고 이 外에도 회원의 定期短期訓練이 있으며 一般 아동의 야학설치가 있다.

(三) 上에서 본 바와 같이 平和와 安락은 감사생활의 소산이며 破壞와 亂離는 怨望이나 不平生活의 소산이라 할지나 현실의 모든 생활은 감사생활이 적고 원망생활이 많은 까닭에 이 世上을 불러 병든세상이라 부르고 있으나 이제 이 許多한 病理狀態를 살피면 첫째, 依賴生活者가 많으며 文盲의 生活者가 不少한 것, 敎育하고저 하는 사람이 적고 利己慾에서 他를 害하고 自己一身의 利를 貪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써 이런 現實의 病徵을 根治함에는 不平不滿을 圓滿으로 즉 怨望生活를 感謝生活로 營爲하고 이와 함께 懶怠의 생활 態度에서 나오는 依賴生活를 自力으로 생활할 수 있는 自立生活로 文盲은 이를 打破하고 識者奮發하여 他人을 敎育하고 利己主義를 共存榮의 社會풍으로 하는 곳에 즉 전술한 현실사회의 病理 처방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上述한 凡俗한 眞理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眞實한 人生觀을 捕捉할 것이고 감사생활의 提唱은 亦是 處世道의 基幹이라 이를 수 있으리라. 이와같이 同研究會의 根本精神은 먼저 現實의 生活者를 요구했으며 自主生活의 根底를 解剖하여서 治産肉身을 養하고 治心靈魂을 養하여 靈肉雙全, 人生의 眞理를 絶行하는 자이라 하겠다. 아울러 佛法研究會의 存在는 當局의 心田開發, 自力更生運動과 相應應하는 者로 實로 그의 實踐者로서 自任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특히 吾人의 同感을 喚起하는 점은 同研究會의 「禮典」일 것이니 他 宗教團體의 虛禮制度를 革新하여 時代適應을 主眼으로 當局의 儀禮準則을 追隨制定한데 있을 것이다. 대체로

實生活을 위주로 하고 虛飾과 高調한 그 精神에 吾人이 다같이 敬慕하지 않을 수 없다.

禮典은 出生. 成年. 婚禮. 喪葬. 祭禮. 有印人喪葬. 四紀念禮. 學位昇級禮. 說法禮 등으로 成文된 것인 바. 一例를 出生에서 보건대, 第一로 受胎前後의 衛生을 論하야 子孫發願巫卜 등을 論難하고 始經科學的 견해에서 그 攝生衛生을 說示하였고, 出生兒에 대한 기도 등을 排擊하여 그에 대한 教育費用의 蓄積獎勵한 점 등 실로 완벽한 禮度라 않을 수 없다.

또 한 例에서 婚禮를 보더라도 明白한 感銘을 일으키는 점은 婚需品の 簡略化 목표하고, 外華廢止, 經費縮小를 도모한 점 등, 喪葬에 이르러서도 服制期間을 短縮하야 實生活의 現狀을 고려한 것 등, 종래의 觀念的 忌避를 放擲한 것 등은 可히 稱揚할 바 있는 일이 아닐까?

그中 활용할 바는 四紀念禮이니 즉 기념례라면 生日紀念. 名節紀念. 共同祭祀紀念. 換世紀念 등을 말함이고 각 日字를 制定하야 各人이 各己 自家에서 거행하던 生日宴 등을 폐하고 共同 出費하야 每年 이를 教堂에서 合同生日紀念式禮를 올리는 것이니 이 어찌 合理라 아니하겠는가. 名節紀念 역시 一年 數回式 各自가 할 것이 아니라 一年中 名節을 一刮하야 制定日에 合同으로 一回를 舉하야 마치는 것이다.

* 朝光 十月호 원기22년 10월호

佛法研究會의 探訪記

裡里 小湖生

最近 當局에 把罪史上 前代 未開의 超起錄悽慘한 光景을 모한 邪教「白白教」를 비롯하야 此에 類似한 宗教團體의 徹底的 撲滅을 疾風迅雷의으로 斷行하고 있는 것은 世人의 周和하는 바이어니와 이로 因하야 朝鮮에 있어 宗教史上의 全線的 變更과 아울러 社會及 民衆의 宗教 思想에 甚대한 變革이 齊來될 것도 必至의 事實이다. 如上의 巨大한 社會的 朝鮮 卽 宗教非常時期의 重要한 「모멘트」에 直面하야 現下 朝鮮의 在來及 新興宗教의 諸 分野를 合理的으로 檢討하는 것은 社會的 視角에서 意義있는 일의 하나이다. 이제 그의 一端으로서 全北에 二十餘年の 긴歲月을 가지고도 오히려 그 眞面이 掩蔽되어 있는 「佛法研究會」를 考察하고자 하나니 大體로 類似宗教團體 더욱 嚴密正確히 말하면 邪教가 많기로 有名한 全北은 所謂「東天子教(一名 普天教)를 筆頭로 「趙天子教」等 무려 十餘個教에 達하야 惑世誣民의 函鹿戰을 演하은바 前記 兩教는 昨夏에 當局의 彈壓으로 因하야 그 正體가 白日下에 消滅이 되어 버렸으나 某方面 消息에 依하면 此에 類似한 團體를 處置할 것이 앞으로 相當 多數에 生하리라고 한다. 如斯한 雰圍氣에서 發表하고 있는 「佛法研究會」는 吾人의 注目을 끄는 것이다.

×

×

×

如可한 由來를 가졌느냐? 大正 五年 三月에 全南 靈光에서 同會 現宗法師인 少太山 朴重彬氏가 同志 九人으로 더불어 「佛法研究期成組合」을 創立하고 靈肉雙全 晝夜禪을 標榜하야 共同生活을 開始한 것이 「佛法研究會」의 嚆矢라 한다. 元來 物心兩面卽 낮에는 農耕에 從事하야 生活의 資源을 삼고 밤에는 佛法의 眞理를 研究하야 知識의 源泉을 삼는 同組合員들은 信條實行의 經濟的 根據를 樹立하기 爲하야 朴重彬氏 指導下에 前記 九人이 結束한 後 于拓地 十餘町步를 開拓할 새 千辛萬苦를 다하야 今日에는 六千의 會員과 信徒를 算하며 瓦屋의 草堂이 巨閣의 會館이 되었으며 同會의 支部가 京城을 비롯하야 十二個所에 達하고 基本金이

實로 二十餘萬圓이라는 巨額을 합하여 오히려 破竹의 勢로 發展을 하면서 있다.

X

X

x

그러면 「佛法硏究會」는 如何한 理論의 根據에 서 있느냐? 一言以弊之하면 朝鮮在來佛法에 立脚하여 그 敎理와 制度를 時代化하고 大衆化한 者이니 「過去의 佛敎를 現在와 未來의 佛敎로 山中僧機個人的 佛敎를 一般 大衆의 佛敎로 革新하되」 「世間生活에 必要한 人生의 要道를 더 밝히려 할 것이며, 모든 敎理를 運轉하는 制度와 方便도 時代와 人心을 따라서 刷新하여야 할 것이 다라는 것이다。」

그러데 그 構成을 一替하면

一、教政院(教務部, 研究部, 通信部, 監查部)

二、庶政院(庶務部、相助部、產業部、育英部、公益部、供給部)

第二院十二部로 宗法部 一人及其他苦于의 重要幹部는 總代會에서 此를 選舉하고 總代會는 各地方의 會員이 此를 選舉組織케 되어 있다. 그리하여 總本部를 前記住所에 두고 十二個의 支所를 全鮮各處에 分置하여 細密한 組織과 機敏한 聯絡을 하는데 本會의 構成分子는

一. 會員과 二. 信者로 區別되어 있나니. 會員이라 함은 同會에 對한 全權利와 義務를 다 가진 者로 特別會員과 普通會員 兩者로 區分하여 特別會員은 會費年額三圓 四十錢也를 普通會員은 年額一圓也를 負擔한다. 信者라 함은 同會에 對하여 宗教만을 信奉하는 者이니 規定된 負擔額은 없다하며 그러나 信者로서나 會員으로서 同會를 爲하여 特別義損은 있다고 한다. 外에 農業, 牧畜, 副業等의 收入으로써 同會의 維持費는 充用되는 것이다.

x

x

x

이제 그들은 大宗教의 生活을 하는 同時 ——히 分業的으로 일을 하는데 그의 事業을 概略하며,

一、產業部

産業部에서는 農業, 牧業, 其他副業等 生活方法을 研究獎勵하여 會員의 生活向上을 目的하

二、育英部에서는 有用한 人材養成에만 注力하느니라 그 學資의 造成方法은 會員의 集團居地에 共同作農을 實施하여 그의 所持金을 積立한 것을 運用한다.

三. 公益部는 在來 朝鮮의 冠婚喪祭를 同會의 新定禮式으로 革新하여 그 虛用濫費를 公益部 基金으로 造成한다는 바 二百內外的 會員으로서 蓄積된 基本金이 抵今 十年間에 一萬數千圓에 達하는데 此額에 定할 時에는 養老院, 養幼院, 遯養院等을 設立할 計劃을 樹立하고 있다.

x

x

x

會는 이와같이 事業과 生活樣式方面으로 考察할 時에는 一種의 產業團體的 振興團體的 外觀을 呈한다. 다시 理想과 敎理方面으로 보아서는 훌륭한 宗教團體이다. 이제 會員及信者의 宗教的 訓練方法을 보면 前記 四恩四要에 對한 工夫要道의 實踐的 方法으로써 定期禪院과 常時訓練을 設置하여 前者는 修養研究에 그 中心을 後者는 作業取捨에 그 中心을 두어 兩者 交互作用하여서 完全訓練을 期하고 修養則으로 各種의 戒律을 嚴守한다.

x

x

x

以上에서 「佛法研究會」는 如何한 由來로 어떠한 敎理를 內容으로 하며 그의 實踐은 어떻게 하는 가를 概括的으로 論하였거니와 紙面關係로 이만 그친다.

「朝光」誌 개관

1920년대의 왕성한 잡지발간은 조선잡지사의 전진적 자세를 확립시켰다고 말한다면 1930년대에 있어서의 잡지발간의 성격이나 양상은 이제 본격적 정치 작업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경영형태가 개인경영에서 대자본을 배경으로 한 회사경영으로 바뀌었다는 점. 둘째, 과거의 잡지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내용과 체재의 혁신을 기해 독자 대중에게 보다 더 접근했다는 점. 셋째, 개인의 주의주장이 일소되고 하나의 공기(公器)로서 즉 민족의 공기로서 폭 넓은 구실을 했다는 점. 넷째, 시대요청이나 현실에 적합한 편집태도를 취하여 시사적 지식 전달을 위한 「매스컴」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성격과 사명을 지니고 1930년에 와서는 『新東亞』를 비롯하여 종합지로서 『批判』 『新家庭』 『中央』 『四海公論』 『朝光』 『女性』 등 각종의 종합지가 출현하여 잡지는 「매스 미디어」로서 독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갔다.

「朝光」誌의 창간은 「新東亞」보다 만 4년 뒤인 1935년 11월 1일부터 창간호가 나왔다. 체재는 菊版 400여 페이지였으며 발행인은 方應謨. 發行所는 朝鮮日報社 출판국으로 되어 있다. 誌齡은 한국잡지사상에서도 특이 할 만큼 130호 정도까지 발간되었으며, 일제말기 조선일보가 강제 폐간된 뒤에도 「朝光」誌만은 명맥을 잇고 갖은 고난과 치욕 속에서도 민족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안간힘을 다해 온 것이다. 「朝光」은 처음부터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朝光」誌는 곧 민족사상의 표현 기관이며 새 학설의 倡道기관이고 사회의 비판지임을 자부하고 출발한 것이다.

「朝光」은 「新東亞」와 더불어 본격적 종합지로서의 생벽을 이루는 동시에 민족사상사에 던진 영향은 자못 컸다. 정치 사회 등 각 부문의 문제가 제시되고 또한 비판되어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공급해 주는 셈이었으며 또한 學術 論文 등을 게재하여 귀중한 資料集으로서의 구실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誌面을 할애하여 現代文學에 기여한 바를 무시할 수 없으니 당시의 사정으로서의 作品 發表의 광장이 극도로 좁아진 때에 이 「朝光」誌는 유일한 作品投稿의 광장이며 수련장으로서 이어서 얻어진 作品 수확장체가 곧 韓國文學史에 중요한 점철을 이룬 것을 보아 「朝光」誌의 성격은 여러 모로 크게 평가되어질 문제라고 본다.

2. 「朝光」誌의 1937년(원기22년) 6월호(제3권 제6호)목차 中 類似宗教 巢窟探訪 기사 내용 기재 배경

당시 6월호 「朝光」은 소화12년 5월 15일 인쇄. 소화12년 6월 1일에 발행된 잡지이다. 44쪽부터 시작된 유사종교 巢窟探訪은 佛法研究會. 關聖敎 總本部. 이름좋은 正道敎, 明滅하는 靑森敎, 紫雨門어구 「굿당」집을 탐방 취재하여 기사화한 내용이다. 6월호 「朝光」에서 類似宗教 巢窟探訪안을 통해 유사종교를 파헤친다는 명목하에 갑오경장 이후에 일어난 신종교현상을 종교의 유사성과 사이비성에 대한 학문적 식견을 배제한채 모든 신종교운동을 유사성의 종교로 규정지었다는 사실에 문제성이 있고 또한 당시 백백교사건에 대한 편견으로 모든 신종교운동을 취재하고 기사화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朝光」 6월호에 「白白敎 事件의 正體」란

제목으로 金大觀기자에 의해 기고된 내용으로 부터 신흥종교에 대한 탐방기사가 기고되었다.

3. 類似宗教 巢窟探訪記—教主를 生佛삼는 佛法研究會의 正體 又夢人

雲淡風輕—日氣조차 좋은 어느날 기자는 東小門을 넘어 駱駝山 北麓에 있는 佛法研究會를 찾게되었다. 계곡을 끼고 左右의 松林을 바라보며 얼마 쯤 올라가니 山 밑에 豪華한 新築瓦家가 방금 滿開한 桃花梨花에 싸여 대궐같이 버티고 있다. 門에는 「佛法研究會京城支部」라는 看板이 걸려있고 다시 한편에 「修養院」이라고 이상야릇한 문패가 쌍으로 붙어있다. 기자의 호기 있는 목소리에 개들이 야단법석으로 짖어대고 사무실에서는 靑年 몇 명이 눈이 동굴하여 내다보며 다시 저 편 교당에서는 유리창을 조금 열고 젊은 아씨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내다본다. 기자는 직업적 유혹에 「좀 이상한 곳이로구나!」하고 먼저 사무실로 들어가서 「신문사에서 왔습니다.」하고 來意를 말하였더니 半남아, 일간인 듯한 젊은 사무원은 적지않게 唐惶하며 「敎務先生님이 총회에 가시고 안계신데요.」하고 방어선을 친다. 「총회라니요.」 「전북 익산에서 只今 佛法研究會의 총회를 하는 중입니다.」 「그럼 대리로 말씀해 주실 분은 없습니까?」 이때 사무원은 會堂으로 들어가서 조금 있더니 젊은 아씨들측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던 좀 「모던」인 듯한 애송이 청년 한 분을 데리고 와서 기자에게 인사를 시킨다. 이름은 朴昌基라고 하며 매우 똑똑해 보인다. 기자는 요 어린 說法師를 단단히 뿌리를 빼놓 작정을 하고 「佛法연구회란 뭐하는 곳이오?」 좀 실례인 듯하나 그의 痛處를 쏘았다. 이 청년 나이는 어리나 말은 靑山流水다.

「종사님이 佛教에 大悟覺醒을 하시고 佛法의 眞理를 宣揚하여 不信貪慾을 除하고 精神修養을 하여…」하며 그동안 暗誦했던 그럴듯한 文字는 모두 꺼내려 한다. 그러나 기자는 이런 말을 듣고자 온터가 아니라 「그런 主旨는 총독부 조서록에 의하여 다 알고 있오.」하고 일격을 가했더니 「네, 그렇습니까?」하고 청년은 머리를 숙인다. 기자는 좀 더 일대맹격을 加하기 위하여 「이 불법연구회에서 一千圓을 내면 극락세계 일등급에 가고 三千圓을 내면 극락세계 특등급에 간다고 하며 愚氏들의 돈을 뺏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하였더니 청년은 당황하여 우물쭈물하며 「불법연구회에는 極樂世界가 없다고 하는데요.」하고 겨우 꼬리를 빼려 한다. 「그러면 風說로나 또는 내 아는 친구들의 事實談으로나 千圓 二千圓하고 돈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 돈은 뭐하는 돈입니까?」하고 다시 巨彈을 보내었다. 「一回一等到 四千圓, 二回一等到 八千圓, 三回一等到 一萬六千圓. 이렇게 三回까지 내게합니다.」하고 청년은 비로소 本意를 吐한다. 기자는 눈이 동굴해 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저금을 건어서 무엇을 합니까?」 「네, 그 돈으로 好衣好食하는 것이 아니고 育嬰部, 公益部를 두어가지고 無依無托한 자손을 교육시키고 또는 불쌍한 會員을 구제합니다.」 「그러면 只今까지 三等壹萬八千圓을 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四千圓 낸 사람이 다섯 분이 있지요. 그리고 一般會員은 입회금 一圓과 年會費 三圓을 냅니다.」하고 구수하게 구렁이 담너머가듯이 대답하는 것이다.

「只今까지 무슨 公益事業이나 育英事業을 경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전북 이리에서 보화당약방을 경영하고 또는 東洋大學에 朴吉眞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공부시킵니다.」하고 재주 좋게 대답한다. 기자는 단단히 맘에 간직하고 왔던 一大비수를 꺼내어 「徐大圓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네…」 「그이가 불법연구회에 入會한 후 財産을 모두 蕩盡하고 自己누이를 處女로

바치고 나중에는 손목까지 끊어 바쳤다는데요.]하고 그들의 痛處를 찢었다. 「그 사람이 그저 미쳐서요…」하고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며 그를 狂人으로 돌리려 한다. 이 一問에는 분명히 降服을 한 셈이다. 「그 뿐만 아니고 貞女를 바치라고 하여 처녀들이 여기 많이 모여서 가진 醜行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하고 기자는 수단종게 넘겨짚었다. 「네, 처녀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 경성지부만 하여도 百여명의 회원이 있으나 그 中에 男子는 두 사람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女子들이지요. 처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醜行이란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름이면 敎主 옆에 수십명 처녀떼가 모여서 부채질을 하고 야단이라는데요.」 기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 청년을 쏘아보았다. 「敎主先生께서 몸이 肥大한 뚱뚱보이시라 여름이면 땀이 많이 나시니까 혹은 부채질을 해드리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처녀떼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기자와 청년은 처녀떼라는 말에 한번 웃고 「佛法연구회가 佛教보다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네, 첫째 士農工商間에 대대로 직업을 가지게 하는 것과 불상 대신에 一圓像을 숭배하는 것과 결혼에 구속이 없는 것과 불경 대신에 要旨만 가르치는 것과 敎堂을 산간에 두지 않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러면 왜 이 교회는 산간에 두었습니까?」 「허허. 그저…」하고 청년은 말끝을 웃음으로 흐린다.

기자는 食堂內部를 좀 구경시켜달라고 하여 실지 내부를 보게 되었다. 먼저 들어간 곳이 응접실. 그 다음이 會堂 그리고 壁門을 열고 비밀실을 들여다보니 一圓像이라고 하여 큰 木牌에 푸른 빛으로 圓形을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쪽에는 敎主(宗師님)의 사진이 있는데 敎人들은 반드시 이 사진 앞에 절을 한다고 한다. 風采가 좋고 얼굴이 뚱뚱한 양반이 로이드안경을 쓰고 生佛처럼 버티고 있다. 「교인들이 저 분을 生佛이라고 하여 밤낮 절을 한대지요.」 「선생님이니까 절을 하는게지요.」 「이 밖에 또 비밀실이 없습니까?」 「천만에…」

會堂을 나와서 저쪽으로 한 間을 넘야시니 젊은 부인들이 사오명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우글우글한다. 「여기서도 찬미를 하고 강연을 합니까?」 「네.」 「그러면 그 찬미가를 한 절 보여주세요…」 「여기는 찬미가가 아니요. 會歌입니다.」 하며 붓으로 베낀 冊을 내어준다. 회가니! 경축가니! 단원가니 六日歌니 週日歌니 誕生歌니 하고 이상야릇한 노래가 많으나 문장과는 담을 쌓았는지 하나도 잘된 것은 없다. 그 中에 會歌 一節을 보면, 物慾充滿이 世上에 위기 많아서 교주이신 우리 宗師 誕生하셨네. 自修成覺하신 후에 法音 전하니 有緣衆生 모여들어 도문열도다. 하고 소위 종사님을 生佛처럼 칭찬한 會歌이다. 이리하여 종사를 생불로 꾸며가지고 온갖 재주를 피우기에 종도록 되었다. 기자는 이것으로 이야기를 끊고 그 곳을 떠나게 되었다.

* 朝鮮日報 원기22년(소화12년) 10월 26일(제 5910호)

佛法研究會에서 文字普及運動

「이리」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에 있는 佛法研究會에서는 종래부터 통학 불능한 무산 아동의 교양을 목적하고 주야학을 경영하여 이래 우수한 성적을 내어 오던 바 금년 겨울 농한기에는 현재 夜學아동 70명을 200명으로 대증가시켜 문맹에서 해매이는 일반 아동을 적극적으로 교양하리라는 데 벌써 부터 참가자는 답지한다 하며 교재로서는 국어, 산술, 조선어, 작문 등의

보통학교 일학년으로 부터 사오학년 정도의 것이라는 바 일반의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한다.

• 朝鮮警察新聞 원기22년(소화12년) 11월 1일(제 400호)

재래의 조선불교계에 경종을 울린다.

조선불법연구회를 방문해서

근래 조선불교는 아주 침체해서 세간과 일반민중과 점점 멀어지는 감이 있다. 그 반면 善德을 가장하고 민중을 위반하는 사고가 당국의 날카로운 메스에 의해서 검거되어 없어지고 있다. 금일 불법연구회를 방문해서 친히 연구의 실재를 견학한 일은 여러가지 의미에 있어서 뜻이 있다. 즉 종래의 조선불교에 있어서 나타난 것의 폐해, 즉 시대와 관계가 끊어진 교리를 혁신하고 모든 교리를 포교한다. 제도나 방법도 현대인의 실생활에 맞도록 활용하는 것이 불법연구회의 혁신 요항이다. 원래 불교는 인도로 부터 지나를 경유해서 조선에 수입된 것으로 그 경전을 보면 지형, 인명등 모든 숙어나 명사가 인도나 지나의 숙어 그대로 해서 조선의 숙어와는 서로 맞지 않고 순 한문이며 그런 고로 좀 처럼 해석 할 수가 없고 따라서 포교상 폐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우선 조선인에 맞는 숙어및 경전을 더욱 평이한 것으로 하는 일이다.

종래에 조선에 있던 불교는 승려가 산중에 있는 사원에서 공부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일반 사회와는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포교의 과목등도 한편에 편중해서 다대한 장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사원을 민중이 많은 곳으로 옮기자! 포교의 방법등도 병진주의에 불성일 원상의 제도로 개혁하자! 등이다. 또 교리에 있어서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3강령 팔조목 및 영육쌍전의 필요 등이 있고 사은이라는 것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요라는 것은 남녀 권리동일, 지우차별, 무자녀타자녀교양, 공도헌신자이부사지이다. 또 3강령으로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등이며, 8조목은 신·분·의·성·불신·탐욕·나·우 등이 있다.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국가를 위해서 설립 일하는 인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연구회에는 기관으로서 교정 및 서정의 2원이 있고 교정원은 4부 서정원에는 6부를 두고 또 역원으로서 중법사 및 회장 각 1명, 순교무, 교무, 순교, 간사, 총재등 약간 명을 임명하고 있다.

회원이 있고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본부는 전라북도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이며, 경성지부는 돈암정에 두고 지부장 이완철씨 및 수양원 책임자 서대원씨가 같이 손을 잡고 지부 창설을 어느 정도 이루고 금일 오백여명 정도의 회원을 획득하여 원만하다.

두사람의 인격은 일반대중에게 자부와 같은 숭배를 받고 요원의 불과 같이 이회는 발전하고 조선 불교계에 다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上田生)

• 京城日報 3面 文化欄 원기26년(소화16년) 10월 21~23일 (제1220~8호)

生活化된 朝鮮佛教(1)

上田龍男

이리에서 차를 내려 동북방면으로 약 십리쯤 걸어 가면 망망한 평원 가운데 아담한 근대식

건축물이 줄서있는 하나의 작은 부락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최근 경성의 일부 지식계급 사람들 가운데 여러가지로 화제에 오르고 있는 불법연구회 익산총부인 것이다. 조선에서는 각종 유사종교가 많은 고로 혹시 그 중의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연구회의 회장인 박이라는 사람도 어쩌면 감언이설로 모지한 민중을 농락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인식은 금번 이 본부를 실지로 보게 됨으로써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전남 영광에서 출생한 가난한 청년 박중빈은 세상에 흔히 있는 청년들과 같이 너무나도 무의미한 생활에만 젖어있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벌써 인생의 근본문제를 생각하고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가 결심한 고난의 생활과 인생문제의 고뇌에서 하나의 소신을 얻어 자기의 생활을 전혀 새롭게 재건하는 제일보를 내딛게 된 것은 한일합방후 사년만인 그 나이 이십육세 때 였다. 그 당시 그가 개척한 진리는 인생은 불법에 의해서만이 완전히 구제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불법은 완전히 비리에 가득차 있지 않은가. 스스로 청렴을 자부하는 자들은 산중으로 은둔하여 그들의 존재는 인간의 실사회라는 하등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중생을 구제하여야 할 불법이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 본성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현금의 승려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라. 그들은 외모만 근사할 뿐 실은 절인과 무엇이 다른가. 중생들은 교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생들에 추종하기에 급급한 꼴이 아닌가. 그들은 과연 불상을 예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 오백년간 비록 유교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지만 과연 조선불교도들은 불상다운 불상을 모신 일이 있는가. 진리는 평범한 곳에 있다 불법의 진리도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실생활속에 있는 것이다. 불법을 생활화하고 생활을 불법화하여야 한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실재생활속에 있을 뿐이다. 불법을 설교하기 전에 먼저 바른 행동이 있어야 한다. 그의 신념은 이상과 같았다. 그가 이러한 소신으로 영광 일우의 초가에서 고고의 소리를 울렸을 때 한일합방 직후의 불안으로 동요하고 있던 민심은 그를 바보 미치광이로 취급하여 버렸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기 않고 그 결과 아홉 사람의 동지를 얻었다. 구인의 동지와 함께 제일 먼저 착수한 사업은 너무나도 독특한 것이었다. 그는 먼저 자기집을 팔았다. 가재도구 일체를 팔아 시작했다. 그리하여 오백원의 현금을 손에 쥐고, 그 중 백원은 새로운 가재도구를 준비하였다. 자기와 동지들이 비바람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초라한 초가 한채와 얼마만의 필요한 생활도구가 그것이었다. 그리고 남은 사백원으로 그는 괴상스러운 사업에 착수하였다.

원기26년(소화16년) 10월 22일(제12207호)

영광의 해변에는 누구도 관심을 갖거나 돌보는 일이 없는 늪지가 있었다. 수천년간 바닷물이 들고 날고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삼각주로서 이것은 경작에는 하등 사용할 수 없는 늪지였다. 박청년은 여기에 착안한 것이다. 그렇다. 저 늪지를 경작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는 구인의 동지를 독려하여 늪지의 매립작업에 착수하였다. 현금과 같이 기계가 발달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어려운 공사는 아니었을지 모르나 당시에는 다만 지게만으로 근소한 흙을 운반하여 해수와 늪지 사이에 제방을 쌓는 수 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저 짧은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뭘, 들리는 말로는 바닷물을 막는다는 소문인데」 「미친 바보짓을」 이렇

게 마을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공사는 성공하여 마침내 버려져 있던 늪지가 훌륭한 경작지가 되어 그로부터 오륙년후에는 삼백석의 미곡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 박중빈을 비롯한 九人의 동지들은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영광의 경지는 일부의 동지들에게 맡기고 새로운 주거를 전북 이리의 교외에 잡았다. 물론 임시로 지은 판자집이었다. 그리하여 한 평에 이리(二理) 정도로 넓다란 언덕땅을 매입한 그들은 마침내 이상적인 佛敎왕국을 건설하고자 佛法研究會의 간판을 처음으로 내걸어 보았다. 과연 山林佛敎一派의 공격과 民衆의 물이해로 그들의 사업은 어찌했든 실패를 거듭할 뿐이었다.

佛敎의 四大恩을 설교할 때 그들은 天地恩, 父母恩, 同胞恩, 法律恩 등 네가지를 들었다. 앞의 삼자는 별로 새로운 바 없었지만 네번째의 法律恩의 설교에는 그들로서도 상당히 고심한 바 있었다. 그들이 佛法研究會를 창설한 시기는 朝鮮思想界가 日本的인 方向을 진지하게 추종하는 시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法律恩을 설교하는 眞實한 目的은 그들이 국가온을 설교하고 싶은 점에 있었던 것이다. 民心이 악화되고 있는 시기에 갑작스레 국가온을 설교하는 것은 布敎政策上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여서였다.

그리고 法律恩은 우리들의 衣食住의 生活原理를 비롯하여 森羅萬象 모든 것이 「法」의 힘에 의해 生成發展하는 것이라 하였다. 고로 우리들 모두는 「法」의 소산이며 우리들의 生活은 法律의 은혜에 의해서만이 成立되는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암암리에 우리들이 法的으로 日本國民임을 가르친 것이었다. 그들 설교의 이러한 방향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우리 帝國憲法의 精神을 生活化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친일파종교」로 매도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 허다한 고난이 계속되었다.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궁핍에 허덕였다. 궁여지책으로 마침내 옛장수 행상을 시작하였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줄지어 다니며 엿을 팔면서 佛法을 설교하였다.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들은 결코 장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주거지 주변의 산에는 사과나무 배나무를 심었다. 저지대에는 논을 치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十七年을 경과한 오늘날 그들은 주택지 경작지 산림 기타 合計하여 약 백만평의 土地를 소유하고 이리의 本部에는 學校, 僧侶의 주택 집회장 등 수십동의 큰 건물이 줄서 있으며, 백오십여명의 宗教예비군이 엄숙한 禪的 訓練을 받고 있다.

원기26년(소화16년) 10월 23일(제12208호)

이 교단에 入敎하는 사람을 在家信者와 出家信者의 두 종류로 나눈다. 재가신자는 全鮮 도처에서 生計를 영위하며 결혼하고 모든 人間的 生活에 엄격한 계율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가신자는 주거를 이 敎團의 本部안에 두고 결혼을 하지 않고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으며 술과 담배가 금지되고 三十조목의 戒律을 엄수하여야 하며 아침 四時 半에 일어나 종일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입무에 종사하고 일모이후 저녁에는 經典을 탐독후 열시에 취침한다. 내가 방문했을 때도 宗師 自身부터 삼을 들고 발에 서 있었으며 男신도들은 경작노동에, 女신도들은 양잠 등 육내작업에 종사하며 저녁에는 일부 교당에서 국어보급의 야학까지 하고 있었다.

본부에서 좀 떨어진 곳에 産業部 소관의 모범부락이 있어 청년승려들이 먹을 양식의 준비

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의 實踐이 이와같이 進步됨에 따라 敎理와 信條 등의 理論部門도 크게 진전되고 있다. 현금의 그들은 二大主恩과 四大屬恩을 설교한다. 皇室恩, 佛陀恩이 二大主恩이고 전술한 四恩이 그 속은이다. 네개의 속은을 해석하면 天地는 天皇의 天地, 父母는 天皇의 子女, 同胞는 天皇의 臣民, 法律은 天皇의 敎訓으로 본다. 二大主恩을 실제의 세계라 하고 네개의 속은계를 우리들 일상의 생활 현상계라 한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이와같이 실재와의 因果關係에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天皇은 法心佛이 인간화되어 나타나신 神이시라고 믿고 있다. 이상의 信條를 구체화하기 위해 그들은 定覺正行, 知恩報恩, 盡忠報國, 佛教普及의 실천강령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佛像을 그들 信仰의 표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동근 원을 그런 형상을 그들 신앙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의 가슴에 원형의 표장을 부착하고 간부들은 모두 一圓으로 일반 姓氏와 별도의 氏를 創하고 朴重彬師는 일원증사라는 이름을 창정하고 있다. 一門의 교단에서는 그에게 宗師님이라는 존칭을 드리고 있다. 이미 나이 오십세를 지난 宗師는 아직도 그 건장한 기력이 청년을 능가할 정도다. 나는 그를 대면하였을 때 말할 수 없는 친근감을 느꼈다. 그는 세상에 흔히 있는 수양가형의 인물이 아니다. 담화내용은 참으로 평범하였으나 그 가운데 말할 수 없이 깊은 眞理가 담겨있었다. 나는 현 시국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을 하여 보았는데 어떠한 질문에 대하여도 그의 대답은 적극적이고 명쾌하고 확신에 차있었다. 이러한 시골에 어찌면 이러한 時代의 선구자가 있는 것일까 하는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를 昭和年代의 선구자, 조선이 낳은 일련(日蓮), 二宮尊德으로 부르고 싶다. 二宮翁이 成田山에 입산수도하여 不動의 信念을 체득하여 저 어려운 개간의 난공사를 준공한 것과 一圓증사의 젊은 시절에서 오늘날까지의 행동은 매우 흡사한 점이 많다. 또 그의 佛教에 대한 革新意識과 國家에 대한 信念은 참으로 日蓮上人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었다. 外來思想에 오염된 宗教, 범죄의 魔窟化된 類似宗教만이 판을 치던 과거의 조선에서 어찌면 이렇게도 반갑고 즐거운 宗教의 生活集團이 생겨났을까. 기특하게 생각되며 皇民化되어가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精神的 財産으로서 이 運動을 영구토록 보호, 신장시켜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毎日申報 원기30년(소화20년) 6월 25~28일(제10706~9호)

心田開發과 自力更生

將來가 期待되는 益山 佛法研究會

全州一 記者

一. 朝鮮의 現狀은 物質의 疲弊에 아울러 精神이 缺乏을 招來하여 物心兩面으로 貧弱한 것은 지금에 비롯한 새삼스러운 問題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宇垣總督이 赴任以來 自力更生에 依한 農山 漁村의 振興으로서 的振興을 圖하는 동시에 信仰의 培養에 依한 心田開發로서 心的 開發을 策하여 모든 기관의 總動員으로 此運動에 전력을 경주하게 된 것은 조선의 現황에 鑑하여 또는 조선인의 將來를 위하여 실로 善意의 善政임은 누구나 거부할 자가 없을 것이다.

自力更生運動에 대하여 諸般計劃과 施設로서 착착 실효를 擧揚하는 중이다. 다만 心田開發

에 就하여는 각자의 信仰心에 의한 形而上에 속한 문제임으로 別般 効績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못 遺憾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무릇 信仰이란 善良을 의미하여야 될 것이니 그릇된 신앙은 도리어 害毒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善良한 宗教 및 이에 유사한 종교에 대하여는 심전개발운동에 動員參加케 하는 一方社會에 해독을 끼치는 일체 邪教에 대하여는 撲滅을 단행하는 中으로서 임의 다수한 망량輩가 白日下에 妖體를 소멸하게 된 것은 近來初有의 痛快事라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런데 距今 二十一年 前 전남 영광에서 朴重彬氏의 創始에 의한 佛法研究會란 것이 있었으니 이것은 조선 고유의 佛敎는 시대와 背馳되는 超人間的 生活를 함으로써 宗旨를 삼아 왔는 바 그것이 결코 불교의 중지가 아니요 또한 종래의 조선불교는 조선의 불교가 되지 못하고 外邦의 불교를 모방한 불교임으로 이를 혁신하여 永久不變하는 無上大道下에 조선의 실정에 則하는 순전한 조선의 불교 또는 超人間的인 불교로부터 시대적 大衆의 불교가 되게하여 世門生活에 필요한 인생의 要諦를 闡明하며 敎理運轉의 제도와 방편을 時代人心에 적응하도록 刷新하며 불교의 대중화를 圖하자는 것이 동연구회의 취지이었다 한다.

그리하여 十五年 前에 익산군 북일면으로 본부를 이전하는 동시에 건전한 발전을 遂하여 현재 회원 약 四千여명에 달한다는데 이 불법연구회의 宗旨와 敎理는 其源을 佛에 發하였으면서도 現下 조선인 생활에 가장 적절한 修養機으로 되어있음에 妙味가 있다는 것이다. 一例를 들면 「宗教도 먹어야 信仰할 수 있다. 먹자면 일하여야 한다. 일하자면 근면실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은 과연 自力更生을 하여야 할 것이요 自力更生이 되는 동시에 心田開發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신앙의 대상이 없어서는 아니 될지니 그의 대상을 佛法에 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회에서는 靈肉雙全의 필요를 역설하고 있다. 즉 육신생활의 三綱領으로 의·식·주를 말하고 정신생활의 三綱領으로 一心과 아는 것과 실행을 들어서 靈肉雙全의 六大綱領을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불교를 생활의 方便化하고 利用化하여 物心兩面의 擴充으로서 現下 朝鮮人の 生活方途로 삼겠다는 것이 朴氏의 抱負요 때마침 爲政當局의 부르짖는 心田開發과 自力更生運動이 始作되기 十五年前에 임의 朴氏는 此에 着眼하여 佛法研究會라는 것을 창시한 氏의 先見에는 多少 肯定할 바 不無함에 鑑하여 同會의 장래를 企待하는 나머지 本文을 草하게 되는 바이니 이제 朴氏의 抱負經綸과 아울러 佛法研究會라는 것은 如何한 것인가를 紹介하고자 하는 바이다.

二. 불법연구회를 창시한 朴氏는 如何한 人物인가, 暫間 말하고 다음 同會의 敎理 制度 機關에 대하여 說明을 試하고자 한다.

朴氏는 아직 五十未滿의 壯年으로서 二十여년전에 物心兩全의 불법연구회를 目的하고 同志 八, 九人으로 더불어 불법연구회 期成組合을 說始하고 組合員과 더불어 낮에는 未墾土地를 개척하여 생활의 근원을 삼고 밤에는 佛法의 眞理를 연구하여 精神의 食糧을 삼아서 드디어 成家가 되어 연구회가 조직되고 宗法師로 추천되어 今日에 至한만치 氏는 一見 宗教人으로서의 靜寂超然한 태도가 아니요 關志滿滿한 意志實行的 活動人物로 보인다. 氏는 익산에 본부를 설치한 十五年間에 오로지 自立의 精神下에 會員, 卽 敎徒와 같이 투박한 토지를 開墾하여 沃土를 만들고 산야를 개척하여 果樹植栽하며 養蠶 養豚 등 축산에 전력하는 一方 佛敎의 大衆化

에 전력하여 甚至於 엿장사까지 하여 근검저축한 것이 현재 二千여만원의 會의 재산을 造成 한 一面 氏의 兩手에는 「공이」가 박혀서 농부 이상의 현상국은 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氏를 宗教人으로 待하는 것보다는 自力更生의 活模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氏는 佛法을 深奧한 學理의 究明에 依하지 아니하고 오직 精神一到 何事不成的의 堅固한 意志로 信仰實行하여 產業是佛法 佛法是產業의 自家佛教를 創始한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氏의 佛教說法이 蓮花 臺上이나 極樂世界를 標榜하는 理想 空想的이 아니고 모두가 현실적이며 실제적이어서 實踐 窮行에 治家治産을 主眼으로하여 이것이 즉 無量大道임을 說破한다는 것은 과연 吾人이 傾聽을 許하는 所以가 된다.

그의 宗旨의 一端을 窺視하면 等像佛을 廢하고 一圓相制를 쓰는 것이니 그는 等像佛을 가르쳐 人形이라 하였고 一圓相을 가르쳐 天地萬物 虛空法界가 모다 그 中에 包含되었음으로 이것이 佛性이 되는 동시에 一切衆生은 人形인 等像佛의 恩惠를 입는 것이 아니라 天地萬物 虛空法界의 恩惠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會에는 절대로 佛供이라는 것이 없다 한다. 그 佛供할 物資가 있거든 그것으로 自身에 대한 佛供을 하라는 것이다. 自身的 佛供이라 함은 父母에게 孝養을 한다든가 受恩者에 報恩을 한다든가 이것이 즉 佛供이요 等像佛에 대한 佛供은 승려에 대한 음식제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도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찾는 것이 아니라 天地에 대하여 父母에 대하여 同胞에 대하여 法律에 대하여 기도를 한다고 한다. 於千萬事를 모두다 「부처」에게 발원하지 아니하고 天地萬物 虛空法界를 包含한 一圓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同胞에 대한 소원이면 同胞應鑑之位에 부모에 관한 소원이면 父母下鑑之位에 心告와 기도를 한다는 것이니 말하자면 實際所管處에 발원한 것이 지 열도당토 아니한 人形에게 「나무아미타불」만 찾은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佛性에다가 귀결한 것은 즉 우리가 佛에 利用者가 되고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 人生生活의 方便으로 信仰의 생활에 佛性을 利用하여야 됨으로써 이라고 氏는 말한다.

三. 불법연구회의 소위 在來 朝鮮佛教의 敎理制度를 時代化하여 大衆의 敎化함에 在한 敎理制度 機關은 如何한가 하면 爲先 그 敎理라는 것은 精神修養 事理研究 作業取捨라 한다. 以上 三項에 긋지었으니 精神修養이라 함은 邪心을 버리고 一心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事理研究라 함은 大小有無의 理致를 究明한다는 것이요 作業取捨라 함은 知行을 對照實行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最初의 法語인 同時에 修身의 要諦를 삼았다. 그리고 여기 附隨하는 齊家의 要法으로 一, 實業과 衣食住의 完全準備 二, 量入計出과 勤儉貯蓄 三, 子女教育의 方策 四, 上奉下率의 責務 五, 家族의 和睦과 意見의 交換 六, 내면의 心理를 밝혀주는 道德을 師友로 할일 七, 外面의 規則을 밝혀주는데 服從할 것 등은 유교의 修身齊家 治國平天下之道를 引用한 것은 유교의 大衆化에 얼마나苦心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制度로는 一, 종래 佛教의 山林隱遁主義를 街上進出主義로 二, 在來僧侶의 無識制를 有識制로 三, 종래의 等像佛崇拜를 心佛一圓相으로 四, 在來佛教의 代數繼統制 撤廢 五, 난해한 從來佛經을 平易한 말글로 고친 것 六, 從來寺院에는 等像佛 奉安法堂을 주체로 하였으나 연구회에서는 一般會員의 工夫하는 강당을 주체로 한 것 등이 普通佛教團體와 趣意를 懸殊히 한 점이

니 刷新의 精神點은 모두가 空想的이 아니요 實際의임에 있다. 따라서 偶像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自身의 心靈을 대상으로 한 것과 같은 것은 이 會의 特長이라 할만한 동시에 稱讚을 不惜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제 同會의 기관으로는 二院 十部가 있으니 敎政院=敎務研究, 通信, 監査, 庶政院=庶務, 相助, 産業, 公益, 育英, 供給으로서 敎務部는 敎理訓練, 敎科書 編纂, 圖書管理 등을 행하고 研究部에서는 각종 연구교재의 蒐集編成, 通信部에는 회보발행, 監査部는 회원의 善不善 조사와 賞罰銓衡, 庶務部는 會의 財産管掌을 取扱하며 相助部는 會의 資産運轉 會員의 근검저축 獎勵施設을 위주로 하고 産業部는 상조부의 시설사업을 실용활용하게 되었으니 이제 同會에서 일층 주력하는 것은 前述과 如히 산업부의 적극적 활동이 그것이다. 즉 의료기관 설치의 전제로 이리시내에 한약방 경영과 각지에 植栽하여 此의 每年 수천여원의 收入을 보게 되는 一方 本部內에 産業部屋舍를 신축하고 附近土地에 苗木, 養豚, 畜牛, 養兔를 大的으로 계획하는 中이요 또는 共同耕作田畠이 十餘町步에 달한다고 한다. 공익부는 각종 獻貢費를 收金하여 양노원, 養幼院, 병원 기념관을 설립하여 會의 有功한 無自力者를 보호하는 中이라는데 임의 양노양유는 實行中이며 育英部는 會員의 매월 團金과 共同作農으로 인재양성을 실행중이며 供給部는 각처 來往人의 衣服洗濯 食事提供을 하는 책무가 있다 한다. 그리고 此外에도 회원의 정기 단기훈련이 있으며 일반아동의 야학기관의 설치까지 있다.

完, 평화와 안락은 감사생활의 소산이요.

* 朝鮮의 類似宗教

佛法研究會(전북 익산군 북일면)

본 會는 현재 同會의 宗法師요,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출신인 朴重彬이 佛法을 研究한 결과 동지와 상의하여 創始한 것이다.

가. 敎主의 경력

朴重彬은 어려서 부터 비범한 인물로서 칠세 때 부터 佛法을 공부하였고 나이 먹으면서 위대한 存在와의 상봉을 갈망하던 中 매마침 十一세 당시 어느 날 문중의 시향제에 참례하여 시향제에 앞서 산신제를 지내는 것에 의심을 품은 바, 그 후 山神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산신이 그 묘지의 主宰者로서 그 造化能力이 말할 수 없이 偉大한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 산신이야말로 종래 자기가 찾고 있던 분이라 생각, 반드시 이 산신을 만나보겠다고 결심하였다. 그 후 그는 깨끗한 음식과 과일을 준비하여 백수면 구수산에 올라 그 산정의 바위위에 이것을 진열하여 팔방을 向하여 종일 예배하고 일모에 귀가하는 것을 일과로 하면서 이와같이 十五세 까지 계속하였으나 결국 山神에 遭遇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산신을 만나지 못해 실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中 어느날 마을사람이 읽고 있는 古代小說을 듣고 그 小說의 主人公이 도사를 만나 수도한 결과 탁월한 道力을 얻어 偉大한 事業을 成就하였다는 내용을 알고서 그 후로는 山神을 만나겠다는 희망을 포기하고 새로이 道士를 만나보겠다는 결심으로 불철주야 전심전력으로 여러 곳을 찾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道士의 소재를 물어 보았으나 이것 역시 전혀 그의 期待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그리하여 매일같이 번민을 거듭

하던 차에 二十三세 때에는 몸에 병을 얻어 전신에 부스럼이 가득했고 극도로 쇠약한데다가道士와의 상봉에 專念한 결과 가산은 기울어져 生活도 困難하게 되었다. 이런 상태로 約三年을 경과한 후 그는 때때로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하여 어디를 가도 가는줄을 몰랐고 말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며 음식을 먹으면서도 무엇을 먹는지 모르며 하등의 판단력도 없고 전혀 천치나 살아있는 송장과 같아 이웃사람들로 부터 완전한 폐인으로 취급될 정도였다. 그러자 二十五세 때 이웃마을사람 수명이 天道敎의 「東經大全」 中에 있는 「吾有靈符, 其名仙樂, 其形太極, 又形弓弓」이라는 문자의 뜻을 알기어렵다고 서로 담론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나도 모르게 靈感的 충격을 느낀 후 이 文字내용에 專念 中 스스로 그 참뜻을 해득. 生命의 生老病死와 富貴貧賤의 道理 몇 古書에 「大人은 天地와 그 德을 같이하고 日月과 그 明을 같이하고 四時와 그 序를 같이하고 鬼神과 그 吉凶을 같이한다.」라고 써있는 그 구절의 참뜻도 완전히 크게 해득하여 이제 人道正義의 法을 정리하였다. 이 整理가 完成된 時는 大正 五年. 그의 나이 二十六세 때의 三月 二十六日이었다.

이리하여 마음의 決定을 얻자 지금까지 형편없이 초췌하였던 몸은 점차 회복되어 血肉도 充滿하여지고 울적한 病症은 약을 복용하지도 않고 점점 없어져버렸다. 그리고 현하의 宗敎를 관찰하건데 모든 것이 開闢이요. 革新이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시기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修身의 要法이요. 齊家의 要法이요. 團體進展의 要法이다. 이 要法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는 이것을 佛法에서 구한 것이다.

나. 佛法研究會의 由來

生活開闢의 要道를 佛法에서 구한 朴重彬은 그 眞理를 研究한 結果, 精神의 修養, 理論과 事實의 일치. 及 萬事에 取捨선택의 중요함을 주장하면서 즉 信·念·疑·誠을 進取實行要件으로 이것을 취하고 不信·貪慾·懶·愚를 退嬰排除要件으로 이를 버려 일 없을 때는 修養과 研究에 전념하고 일에 당하였을 때는 그 取捨에 적정을 기하고, 의식에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직업도 싫어할 일이 아님을 신조로 하여 大正 五年 同志 八人과 전라남도 영광에서 「佛教研究期成組合」을 창설하고 干拓地 百步를 共同出資로 經營하면서 그들의 신조의 實行을 계획하였다. 그로부터 조합원들은 朴重彬 지도하에 주간에는 농경에 종사하여 生活의 資源으로 삼고 밤에는 佛法의 眞理를 研究하여 知識의 源泉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組合員의 生生은 安樂하게 되고 모든 일을 남에게 의지하는 생각을 버리고 自由와 自在의 眞의를 체득하여 佛教의 소위 福足 慧足의 根源을 理解하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은 바도 있다. 이리하여 점차 組合에 加入하는 사람이 많아졌던 고로 大正 十三年 組合員 三十名의 決議에 의하여 전라북도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에 연구소를 건설하여 「佛教研究會」라 칭하고 전담 약 六町을 小作하면서 修行의 研究에 힘써 점차 회원수가 증가됨에 따라 昭和 三年 六月 이를 「佛法研究會」라 개칭하고 오늘에 이르러 현재 재산 약 七萬圓, 支部數 八개소(大阪支部 포함). 회원수 男女 合計 八百여의 교세를 보이고 있다.

다. 敎義信條

本 會의 宗旨은 종래와 같은 偶像崇拜에 依하지 않고 宇宙의 實在를 天地·父母·同胞·法律의 四者로 집약하고 우리의 生活은 이 四者의 恩惠에 依하여 成立되는 것임으로 이 四恩에

보답하는 것이 社會生活의 本義인 바 그러기 위해서는 自己修養에 힘써야 하며 이 修養은 올바른 實行에 依해서만이 체득됨으로 인간은 마땅히 四恩報謝를 목표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物心兩面으로 安心立命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本 會에서는 별다른 崇拜의 대상이라는 것은 없고 修養研究道場의 上部에 白地에 靑絲로 수놓은 一圓圖 아래 天地恩·父母恩·同胞恩·法律恩의 四恩字 四行을 수놓은 一枚의 縱額을 걸어놓고 이것을 修養, 反省의 對象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음에 그 교의 信條를 좀 더 자세히 적어본다.

(A) 會의 趣旨

「우리들의 生活은 混夢 中에 醉 中에 있었다. 士農工商의 別이 있어 教育도 고루 받을 수 없었다. 適材를 등용하지 않고 다만 權勢와 財産에 따라 등용하였다. 外邦의 文明도 物質도 받을 수 없었다. 發願도 研究도 없었다. 職業도 없고 遊食할 뿐이었다. 收支도 모르고 예산도 없고 하루살이 生活의 그것이었다. 有識無識 男女老少 善惡貴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신봉될 道學이 없었다. 門閥·家勢·文筆이 있는 자 만을 道學君子라 하였다. 千人은 千의 心, 萬人은 萬의 心일 뿐이었다. 博愛心도 없고 合資心도 없고 感化心도 없었다. 만물의 本主를 모르고 萬事의 始終先後도 몰랐다. 善惡貴賤의 根本도 모르고 是非와 利害를 모르고 오직 고난속에서 원망으로 시종하였다. 感覺에 理性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감각없는 저 우상들에게 祝願하고 있었다. 자기 몸 하나 濟度 못하는 者가 戶主가 되어 家族의 前途를 그르치고 있었다. 自他간에 화합할 수 없고, 서로 이해가 상충되고 의리를 단절하고 사리사욕에만 골몰하다가 백발노구에 이르게 된다. 우연한 天地가 恩惠일까, 만민을 教化하는 法律의 恩惠인가 이제야 질서있는 教育이 시행되고 상당수의 교육받은 자들로 하여금 모든 법규를 유지시키고, 道學에 있어서는 有識 無識 貴賤의 差別없이 함께 공동으로 融通할 수 있는 수많은 教會가 各地에 있어 많은 사람들을 教化하는 바람에 전문은 열리고 感化·博愛·合資의 心도 생기고, 所願하는 者도 점차 發願하고 衣食用道에 收支의 계획도 세우는 등 정성스런 교화노력은 점차 그들의 기질을 좋게 변화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유감스런 것은 참신한 思考와 진취적인 기풍이 전 사회에 태동되지 못하고 修養의 不充分이라 할까. 처신에 안정된 태도가 없고 연구력이 충실치 못한 탓인지 진실을 돌봄없이 허위에 빠지는 수가 많으며 應用에 注意가 적고 實行을 매우 등한히 하였다. 이 修養, 研究, 應用의 三大力에 있어 아직도 미흡하고 완전치 못한 사람은 모름지기 道德·學文에 중사하여 정신수양의 힘, 사리연구의 힘 및 작업취사의 힘을 얻어 四恩四要의 明法으로서 모든 사물에 대처할 때는 이 三大力을 作用함으로써 세상만인의 모범이 되고 세상만사의 좋은 標準이 되기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 신아일보 원기35년(1950年) 7月 6日

敎義談論—生活속에서 宗教를 體得 佛섬기는 마음으로 人生받들자.

柳 聖 一

圓佛敎의 四恩

원불교에서는 信仰의 門인 四恩이라는 말을 敎理로 하고 있습니다. 이 四恩이란 우주와 인

생의 相互倫理관계를 開明하여 준 도리인 것입니다. 우주와 인생의 상호관계가 과거세상에는 그 單位가 극히 적고 좁아서 家庭·家門·部族·民族 등 좁은 테두리 안에서 살던 세계가 변하여 이제는 현대문명이 세계인류로 하여금 가깝게 보고 느끼고 돕고 의지하도록 세계의 통로가 단축되었기에 이 다양한 세계의 형상과 조직이 가장 원단하고 互惠平等하게 共存共榮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서 놓여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四恩(天地·父母·同胞·法律)이란 우주와 인생이 생존하는 그날부터 相互別離할 수 없도록 天質의으로 倫理가 맺어있는 原理를 밝혀 그를 自覺하게함으로써 感謝를 발견하여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원불교에서는 佛法是生活이요, 生活是佛法이며 無時禪 無處禪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既成宗教의 교리와 같이 도덕과 생활이 거리가 있어서 道德一邊倒 혹은 生活一邊倒하는 지난 종교의 歷史를 개선하여 종교계발당시의 인류구제와 사회정화의 본래 使命 그대로 佛法(종교)으로서 생활을 더욱 빛나게 하고 생활하는 속에서 佛法의 참된 힘을 修練하고 체득하여 활용하자는 것. 이것이 바로 佛教에서 말하는 禪이란 修行法입니다.

禪이란 千萬가지 흩어진 우리들의 마음(精神)을 收拾하여 고요하고 깨끗하고 바른 우리의 根本精神 혹은 良心을 자각하자는 것입니다. 이 本來의 自己마음을 찾고(守護), 알고(自覺), 쓰느(活用) 法을 우리들 생활 하나하나에 修道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원불교의 用語로 無時禪(어느 때든지 가질 수 있는 禪의 心境), 無處禪(어느 곳에서든지 가질 수 있는 禪의 心境)이라고 합니다.

또 원불교에 가보면 事事佛供 處處佛像이란 교리가 생활의 信條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생활의 전부가 우주와 인생을 對應하는 속에서 對人관계가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一切宇宙와 人生을 대할 때 佛(眞理)임을 볼줄 알라(達觀)는 말임과 동시에 우주와 인생이 나에게 應하여질 때 나를 위하여 좋도록 되기를 바라기에 앞서 佛을 받들고 섬기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주와 인생을 받들자는 것입니다. 우주와 인생을 부처로 보고 부처로 섬기자는 것은 우주와 인생의 구석구석에 생성약동하고 있는 참된 理致를 볼줄 알아서 對應하는 우주와 인생에게 알맞도록 받들고 섬기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教理와 信條 밑에서 이제 50여년간 실천교화한 결과 6천여만의 교도를 얻어 敎化·敎育·慈善·産業 등 사업이 한국 일반에 앞서 示範이 되고 정신적인 빛이 되어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이르게 되어 현대문명에 지쳐버린 사회와 인류에게 아직 반딧불일지 모르지만 歷史的 轉回의 즈음에 세계인류를 向하여 새로운 싹이 움트며 자라고 있다고 소개하는데 그치고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원불교 서울지부교무〉

* 短期講習實施 전복일보 원기43년(1958) 11월 1일

「任實發」

圓佛教 任實支部에서는 빈곤한 農民들의 子女가 進學못함을 애석하게 여겨 實施하고 있다. 今般講師에는 圓佛教 任實支部 教務 金敬和 女史 文玄滿(圓大生) 柳貴判(임실국교)교사 姜信滿(임실국교)教師 四代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단기 강습은 지난 10월 1일 부터 금년 말까지 3개월간이라고 하며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등을 습득시키며 수강생은 남녀 50명이라고 한다.

＊ 한국일보 원기43년(1958) 12월 8일

世界佛教從大會에 다녀와서

朴 吉 眞

全 世界 各 佛教徒代表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佛教의 발전과 制度改良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제 五次 세계불교도대회는 태국에서 열렸다.

떠나기앞서 우리 한국대표일행은 여러가지 事情으로 旅券이 늦게되어 태국입국 査證을 받지 못하고 香港經田「비자」만을 가지고 日本 東京으로 떠났던 것인데 일본정부는 입국을 거부하고 即時로 香港으로 떠나버리라고 불친절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사정을 이야기해가지고 비행기회사에서 전책임을 지기로 보증하고 태국「비자」를 받을 二十四日까지 軟禁상태로 있기로했다.

二十四日부터 회의는 시작되는데 우리일행은 二十五日 夜半에야 겨우 태국에 당도해서 二十六日부터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十二月이라면 그 中 기온이 낮은 계절이지만 역시 여름된 옷을 입어야 하는 常夏의 나라다. 농사도 세번까지 할 수 있지만 한번 경작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다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거지도 눈에 안된다. 건물도 일기가 더운관계로 地上의 반사열을 피하기 위해 지붕 가운데다 居所를 만들고 시냇물주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많다.

이 곳은 常夏의 나라인 동시에 佛教의 나라다. 盤谷市內 거리에는 황색복장의 승려가 가득하다. 男子 二十세가 되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전부 軍에 입대하듯이 寺院에 가서 승려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런 후에야 信用을 하게 되며 취직도 하게 된다. 승려에겐 국왕도 절을 해야 할 정도니 불교의 세력과 信仰의 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常夏의 나라, 佛教의 나라인 盤谷에 參加國 二十六國과 참가인원 二百五十名이 모여서 佛教大會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불교도대회는 信徒가 주가 되는 大會인 만큼 比丘보다 교도가 훨씬 많았는데 인종전람회와도 같았다.

회의는 국제연합 아세아경제위원회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는데 규모와 의식이 실로 놀랄만하다. 日本人이 의장이 되어 日本말로 한 뒤에 영어로 통역이 되기도 하고 영어만으로 할 때도 있다. 主로 각 국「메세지」朗誦를 수 없이 읽는다. 안건은 五個分科 위원회에 미리 제출되어 그 위원회에서 審査決議된 것을 본 회의에서 결정한다.

今般의 결의안은 각 국에 센타를 一個支部씩 두되 넓은 지역에는 一個以上을 둘 수 있다. 自由, 平和, 正義의 근본이 되는 것이 佛教이니 어린이에게 僧伽達磨를 가르칠 학교를 만들자, 全世界학생이 석가를 모르니 불교를 연구할 수 있는 課目을 갖도록 하자. 佛教道德을 各種 國어로 小冊子刊行物을 만들자. 각국 단체가 대학을 세워서 불교에 대한 각종 학문 예술을 가르치고 각 학교간에 선생의 교환을 하자. 小乘과 大乘이 서로 미워하지 말고 친하게 하자. 「룸비니」공원을 각국이 협력해서 美化하자. 이러한 것 등을 결의하고 위원선거에 들어가 「버마」의 大法院長 「우장농」氏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세계불교협회사무국을 「버

마]에 두기로 했다. 今般大會에는 中共, 소련 등 공산국가는 초청도 하지 안했고 동남아세아 불교도가 결속하여 佛教宣傳에 노력함과 함께 世界平和에 이바지하는 단체가 되기를 원하였다.

끝으로 盤谷市民政府 각료왕실이 하나가 되어 금번 이 大會에 參加한 각국 대표들의 숙식 일체와 교통일체를 담당하여 주었는데 감사의 뜻을 表하고 싶다.(원광대학장)

* 조선일보 원기43년(1958) 12월 30일

제목: 不過六十年的 歷史

表情을 극히 活動的

이리(裡里)는 기적소리와 더불어 자라온곳이다. 호남선(湖南線)이 개통 되면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곳이다. 불과 六十여년의 역사를 지닌곳이기에 거리는 활기가 있다. 상점들의 「쇼·윈도우」는 화려하다. 고급사치품이나 일용집화들이 풍부하고 상거래도 많다. 이웃도시인 전주(全州)는 고도(古都)로서 안온한속에 잠겨있지만 이리의 표정은 젊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속에 힘이 넘친다. 금은방이 많고 「카메라」시계점·재봉틀상점·포목점등 손님이 그치질 않는다.

이리시의 인구는 七만二천여명 그렇지만 호남지방의 곡창을 배경으로 살찌가는 도시이다. 중앙동(中央洞)의 거리는 밤도 낮같이 밝다. 자동차는 많이 다니지 않지만 길손은 넘쳐날 지경이다.

이 고장 사람들의 성격은 펴 개방적이다. 신흥도시에 알맞는 진취성이 강하다. 도시로서 형성되면서 여러곳에서 모여들어 살기때문에 토착인이 없고 그래서 양반 행세하는 사람도 없다.

성미가 팔팔하고 때로는 오히려 화도 잘내고 그러다가도 타협도 잘짓고 부지런하고 말하자면 상인의 거리다. 거리의 집들은 거의 다 왜식이다. 관공서도 상점도 주택도 새로지은 집들도 종전의 모양을 본떠서 왜식 지붕을 하고 있다. 호남평야의 비옥한 땅을 탐내서 자리잡고 행세하던 자취이다.

호남선의 중심지인 이리에서 갈라지는 철도선이 셋이다.

호남선 열차로 목포(木浦)로 가다가 잠깐 생각을 바꾸어 여수(麗水)로 갈양이면 이곳을 기점으로 하는 전라선(全羅線=裡里=麗水)을 갈아타면 되며 전라북도의 외항적인 군산(群山)이 바로 六十리 밖이다. 그러니까 이리의 거리는 철도 여객들의 잠깐동안의 여수를 셋기에 알맞는 곳ियो. 틀이 짙 잠혀진 거리는 잠깐 머무르는 길손의 휴식을 맛보기에도 좋다. 그래서 이리에는 다방이 많고 역전에는 음식점이 즐비하다.

討論 즐기는 市民들

解放後는 文化都市

한때 그러니까 일제때 전라도 쌀이 일본과 중국등으로 수출이 성할때 이곳은 철도편으로 모여드는 쌀의 집산지였다. 군산항에서 배에 싣리는 쌀은 모두 이곳을 거쳐 나갔고 그래서 이곳은 부유한 거리로 번성되었다. 철도와 쌀 이 두가지로써 배가 불려서 나태해지지 않는 근면함이 이곳을 발전시켰을 것이다. 본동 뒷거리에는 요정들이 많다.

쌀수출이 한창일때 호남평야의 지주들이 쌀판 돈으로 흥청대던 잔해이다.

그러나 큼지막한 요정들도 이제는 거의 문을 닫았다. 퇴색한 간판만이 덩그렇게 달려있는 왜식 고급요정은 찾는 손 없는 채 옛날의 화려했던 때를 고요히 회상 하려는것 같다. 그리고 이리는 상업의 거리만은 아니다. 전라북도의 문화도시로서의 모습을 해방되면서부터 갖추기 시작했다.

기름진땅을 위해서 농과대학이 있고 앞날의 기계문명에 대비키위해서 공과대학이 세워졌으며 중앙농업기술원 생약시험장들이 발전해가는 이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역사는 짧지만 많은 좋은 조건을 구비한 이고장 사람들은 꿈많은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 하다. 그러나 모두가 좋은 일만 있는것도 아니다. 「숨리」라고 불리워 지던 옛날부터 여름만되면 홍수에 시달려온곳이다. 이리남쪽 약 2키로 지역을 흐르는 만경강(萬頃江)이 해마다 이리 사람들에게 물벼락의 선물을 주었다. 만경강은 하류가 상류보다 바닥이 높아 물이 조금만 불어도 넘치게 되어 웬만함 비가와도 五·六十 정도가 물에 휩쓸려들게 되니 이고장 사람들의 큰두통거리다. 모든것을 젖혀놓고 만경강의 범람으로부터 이리를 지키는 일이 보다 큰 소원이요 노력도 된다. 생선국밥—조기국에다 미나리를 많이 썰어넣은 국밥을 먹으며 이고장사람들은 토론을 잘한다. 결론 없는 토론을 하면서 이고장 사람들은 이리의 장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特色은「圓佛教」

新興宗教의 本山

이고장의 새로 일어나는 모습을 말해주는 듯 신흥종교의 본산이있다. 재래불교의 운둔적이며 비현실적인데서 탈피해서 새살림에 알맞고 새세대와 호흡을 같이 하자고 부르짖고 일어선 원불교(圓佛教)가 그것이다. 이리시에서 한 오리쭈 떨어진곳에 자리잡고 있는 원불교 중앙총본부는 술밭에 싸인 아담한 마을이다. 원광(圓光)대학의 거대한 건물이 버티어 서있는 마을어귀에는 불교도의 마을답지않은 활기와 명량한 분위기가 서려있다. 공동작업 공동식사로써 일종의 이상적인 공유생활을 영위하는 이마을의 인구는 二백명 정도이다.

공유생활이라고는 하지만 공동작업에서 얻어지는것만이 공유될 뿐 공동작업이외의 노동에서 얻어지는 재산은 개인재산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재래불교의 시대화 생활화를 표방하는 원불교의 요점은 교당을 도시와 향촌에두고 신앙의 대상을 법신불일원상(法身佛—圓相)에다 두고 영혼구제에만 치중하지 않고 현실생활에 필요한 법(敎理)을 만들어 물심양면의 풍족을 기하자는 것이다.

하루 정하여진 시각에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획에 따라 공동작업에 종사하고 난 다음시간은 각자의 자유이다. 술·담배·대처등은 교리로써 막지않으며 다만 각자의 신앙심에서 삼가고 있지만 거의다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여자들은 검정 치마저고리가 정복이며 남자는 회색도포가 정장(正裝)이다.

또한 원불교는 모든의식을 간편히 하며 신도들의 재가 출가의 구별을 두지 않는것이 특색이다. 단기 四二四九년 四월에 원불교의 교주 소태산대종사(少太山大宗師) 박중빈(朴重彬)씨가 창설하여 전라남도 영광(靈光)에서 처음으로 포교한 후 현재까지 약五十만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다.

물질문명의 발전에 발맞춰 신앙을 신앙만으로 돌리지 않는 원불교도들은 그들 자신의 교양을 높이기위해서 원광대학 원광고등학교 원광여자고등학교 원광중학교 원광공민학교등을 설립했다. 과수원 농장 병원 약국등을 운영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으로써 지금의 원불교도들의 마을을 확장하겠다고 희망에 부풀어 있다. 원불교는 신도들로 부터 공양미나 성금을 강요하지 않고 자체의 사업으로써 운영해 나간다는 원칙이 서 있다. 원불교 마을에 들어서면 술밭사이에 과수원농장등이 펼쳐져 있고 장식도 간소하게 차린 교당앞에 커다란 종이 걸려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두손을 모아 합장하는것만이 불교도와 같은뿐 재래의 불교처럼 웅장한 사원이나 그러한 규모는 없다.

중앙선원(中央禪院)을 가운데로 하고 초가집 지붕들이 처마를 나란히 서있고 술밭속에 성령탑이 단정히 서 있다.

사친관이 있고 매점이 있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용품등에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

부의 다과 자리의 고하가 없는 이상촌이다. 공동으로 세탁부를 만들어 옷까지 공동으로 빨래하는 이 마을의 주민들의 표정은 평화롭다. 낮으막한 목소리로 웃는 낮을 지우지 않는 원광마을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 전북일보 원기47년(1982) 1월 26일

圓佛敎의 宋奎 宗法師涅槃

〈이리〉...이십사일상오 九時三十分 원불교 종법사 鼎山宋奎씨가 열반하였다. 오랜 노환으로 신음하다가 이날동교 중앙총부 宗法院에서 입적(入寂)한 鼎山宋奎종법사는 향년六十二세로 교적생활 四十三년을 끝마쳤다. 임기六년으로 선출되는 종법사직위는 鼎山宋奎선생이 대종사가 열반할적에 유언하신대로 一九四三年 六月一일에 취임하여 연三선 추대되었는데 앞으로 四년간의 임기를 두고 입적한 것이다.

鼎山宋奎종법사는 慶北성주군출신으로 재래의 불교를 혁신개요하고 시대화와 현실생활화할 것에 뜻을 두고 二十세에 입교한 것이다.

원불교는 법신불일원상을 최고 중지로 삼고 강령을

一. 정각정행 二. 지은보은 三. 불교활동 四. 무아봉공 등 四항을 세워 실천하고 있으며 인생의 요도(要道)를 四恩(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四要(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동자승배)에 두고 있는 것이다.

鼎山宋奎종법사는 전기교리를 실천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여서 一九四六년에 원불교라 교명을 개칭 명명하고 요도실천으로 해방후에는 전채동포구제에 정력을 다하였다.

四要를 수행키 위하여 청년교육사업을 중점에 두고 원광대학을 비롯하여 원광중·고교 등 七개의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지력을 양성하였다.

사회복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선기관을 많이 설치했는데 그것은 「서울」保兒院을 비롯하여 三개의 고아원과 신용 양노원등 二개의 양노원 그리고 하도 요양원을 두어 사온을 실천케 한 것이다.

현재 전국각지에 약五十만명의 교도를 보유하고 있는 전기 원불교는 전국적으로 八十개의

지부가 산재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자선기관 그리고 산업기관등 四十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鼎山宋奎宗법사는 끊임없이 이를 교리에 입각하여 통솔하고 수행했는데 빛난 그 업적에 교도들은 한결같이 추모하고 찬양하였다.

지금은 鼎山宋奎宗법사의 열반하였다는 비보를 듣고 애도키 위하여 전국에 산재한 지부에서 열을지어 모이고 있는데 영위를 안치하고 있는 宗法院은 엄숙한 침묵이 지키고 있었으며 법의를 입은 교도들은 슬픔에 잠겼었다.

원불교 中央總部에서는 故鼎山宋奎宗법사의 장례를 五일장으로 정하고 이를 추모하기 위하여 원불교 전체葬으로 거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종법사의 궐위에는 교칙에 의하여 새로 선출될때까지 敎政院長(李完喆)이 대행케 되는 것이며 궐위기간은 궐위시부터 一개월 이내에 새로운 종법사를 선출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어 그 기간동안에 선출할 것이라 한다. 교칙에 의하면 종법사는 동교의 首位團(男九女九)에서 선거하여 敎政위원회에 제청되어 인준을 받으면 중앙교의회에서 정식으로 추대되는 것이다.

(사진은 故鼎山宋奎宗법사)

• 한국일보 원기47년(1962) 2월 4일

四恩을 몸소 實踐

—故 宋奎先生을 追悼한다.

金 東 成

원불교 종법사 정산 宋奎先生께서는 享壽 六十三세로 一月 二十四日 同敎中央總部 宗法院에서 涅槃에 들었다.

원불교는 一九一六年 少太山大宗師께서 同志九인과 더불어 佛教의 時代化 生活化를 내 걸고 全南 영광에서 처음 발족된 新興佛教團이다. 法身佛 一圓像을 最高宗旨로 하는 圓佛教는 正覺正行, 知恩報恩, 佛教普及, 無我奉公의 四大綱領을 實踐하는 것으로 정산선생이 入敎한 것은 二十세의 약관이었으며 以來 平生을 원불교 창업에 바친 것이다.

先生은 그 사이 원불교 교주인 소태산선생의 遺志를 받들고 信徒들의 推戴를 받아 宗法師任에 重任하기 三次였으며 二十餘星霜을 敎勢의 발전을 위해 바친 보람 헛되지 않아 오늘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五十萬敎徒를 헤아리게 되고 그 동안 이룩한 育英 및 社會事業만 해도 원광대학을 비롯한 七개의 中·高校와 三개의 유아원 및 기타 양노원, 의료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세워 同敎가 말하는 이른 바 天地, 父母, 同胞, 法律의 四恩을 몸소 이누리에서 실천했던 것이다.

先生께서는 평소에 대중에게 이끄기를 도덕의 會上을 건설하여 온 세계에 公道의 주인이 되라 하더니 떠나던 날에는 각지에서 운집한 在家出家의 男女大衆에게 모든 宗教가 同源道理요, 모든 生靈이 同氣連契요, 모든 사업이 同拓事業이라는 이른 바 三同倫理의 大法門을 최후로 說하고 大世界主義인 一圓大道로 天下를 한 집안 만들자고 당부한 후 홀연히 入寂했다고 들린다.

정산법사의 晩年說法인 이 三同倫理는 첫째, 同源道理란 온 우주가 한 이치에서 建設된 原理임을 알라는 말이다. 특히 모든 宗教와 宗派가 그 근본은 다같은 한 근원의 道理인 것을 알

아서 大同和合하자는 것이다. 둘째, 同氣連契이란 모든 생명들이 한집안 한권속이라는 것을 알라는 말이다. 모든 인종과 民族이 근본은 다같은 한기운으로 連契된 同胞임을 알아서 大同和合하자는 것이요, 셋째, 同拓事業이란 전인류는 모든 사업과 主張이 다같이 세계를 개척하려는데 動力이 됨을 알라는 것이며 世上을 개척하는 한일터의 한일꾼임을 알자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主義와 체제는 나열되어 있으나 그 근본을 追求해본다면 원래 목적은 다같이 이 세계를 보다 좋은 세계로 개척하자는 것이다.

정산법사의 永訣을 맞아 哀悼의 마음 禁할길 없으나 이 大乘法의 높은 뜻이 누리에 널리 퍼지고 정산법사의 靈이 應化할 것을 또한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 동아일보 원기48년(1963) 9월 4일

圓佛敎의 立場을 밝힌다.

—李慶鎬의 「類似宗教」云云을 읽고—

柳 炳 德

지난 8월 9日 東亞日報 五面に 발표된 李慶鎬씨의 「鷄龍山에 類似宗教…」記事를 읽고 圓佛敎교도의 한 사람으로서 「펜」을 들게 되었다.李씨가 쓴 글은 어느모로 보나 어떠한 종교를 교집고 들어간 티는 없어 보인다.李씨 스스로가 고백한 바와 같이 自身の 입장에서 한국 종교를 연구하는 자세가 아니고 地理를 전공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만 어느 특수지대를 연구해보겠다는 心算으로 탐구된 그 일부를 발표한데 불과한것이었지만 그가 취급한 대상이 文字 그대로 신흥종교가 群集된 특수지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周到綿密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을 너무 경솔하게 취급한것 같았다.李씨는 圓佛敎를 유사종교의 부류속에 넣고 있는데 도대체 유사종교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유사종교란 말로 남의 종교를 알아보려하기전에 그 올바른 개념을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되지않을까. 유사종교란 말의 규정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지적한다면 다음 두가지 뜻으로 규정할 수 있을것이다.

첫째로 似而非宗教란 뜻이다. 그 모습은 심히 既成宗教의 형태를 닮아있으나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실을 캐어들어가보면 종교와는 다른 방향에 서있다는것이 유사종교의 첫째번 규정일 것이다.

둘째로 유사종교란 신앙의 對象處를 뚜렷하게하여 어떠한 인간에게든지(특히 知性人) 개방할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을 갖지않고 다만 低級한 사람들의 종교적 심리만을 자극함으로써 蟹氣樓속에 머무르게하는 소위 「閉鎖된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유사종교란 한마디로 말해서 惑世誣民하는 점에서는 두가지 규정이 일치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圓佛敎中央總部를 한번도 방문해 본 일이없음은 물론 몇마디의 교리조차도 「터취」해본 일이 없는 사람으로서 다만 新都內에 있는 支部하나를 상대로 그나마 支部를 통한 조사도 없이 글을 썼다는 것은 李씨자신의 경솔함을 暴露한 것이 아니라고 볼수 있겠는가.

圓佛敎란 「法身佛 一圓相」을 宗旨로 하여 우주적 진리를 體받아서 四恩四要를 실천하고 三學八條를 修行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로서 四十八년의 역사와 五十만의 교도들이 다 함께 세계평화를 지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씨가 쓴 그 글을 보면 圓佛敎는 新都內에만 있는 하나의 유사종교로 간주해버린 것 같은 인식을 주게 하였다는 점은 무의식중이라

하더라도 큰 과오를 범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기회에李씨뿐만 아니라 일반 市民의 圓佛敎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圓光大學 助敎授〉

• 동아일보 원기50년(1965) 3월 6일

海外로 뻗는 圓佛敎

—本國 돌아가 布敎에 앞장선 外國人들—

미국 공군사관학교 교수 및 「뉴욕」의 저명한 실업인·대학생 등 미국의 「인텔리」수 명과 한국에 다녀간적이 있는 한 독일여인이 우리나라의 신흥종교(圓佛敎)에 귀의하여 각각 본국에서 在家 선교사 및 포교사로서 포교사업에 나서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인물들은 미공군사관학교 교수였던 「랄프·L·고긴」(54=콜로라도·덴바시)씨, 뉴욕의 저명한 실업인 「스티븐·레즈비치」(46)씨, 대학생인 「라버트·데이빗·이워즈」(24=로스엔젤레스)씨 그리고 지난 해 우리나라에 다녀간적이 있는 서독여성 「린다·S·스페스」여사 등 인데 이들은 모두 재교장에 원불교의 포교소를 마련, 포교사업에 전념하며 신앙의 조국인 韓國 소개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

원불교의 해외포교잡지를 통하여 一圓相을 표상으로 하는 원불교교리에 감명을 받은 「고긴」교수는 지난 60년 미국인으로서는 원불교에 귀의 圓一光이라는 법명까지 받고 현재 미국 「콜로라도」주 「덴바」시에서 재가선교사로 있으며 일요일엔 그 지방사찰에 포교소를 열고 교리강좌를 펴는 등 포교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한다.

고긴교수는 처음 얼마 동안은 전혀 이해가 없던 이웃들도 점차 「동방의 새 빛에 감명되어 가고 있다」는 편지를 전북 이리시 원불교총본부에 보내오고 그의 일생을 「빛을 전파하는데 바치겠다」는 글을 전해왔다.

뉴욕의 실업인 「레즈비치」씨와 「라버트·데이빗」씨 등은 일본에서 출간되는 「영이스트」지와 홍콩에서 간행되는 「源泉」이라는 잡지에 소개된 원불교교리를 읽고 원불교에 입문. 각각 圓法光 圓道實이라는 법명을 받고 계속해서 원불교교리를 공부하며 포교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는데 특히 「레즈비치」씨는 올 해에는 기어코 신앙의 조국 한국에 찾아가 성지를 순례하겠다는 뜻을 원불교총본부에 전해왔다 한다.

한편 서독에서 대학을 마치고 지난해 한국에 다녀간적이 있는 「린다·S·스페스」여사는 한국에 있는 동안 원불교교리를 깨치고 입교, 圓正實이라는 법명을 받고 이리에 있는 원불교총본부에서 4개월간 그곳 수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다 하는데 근래 독일에 원불교 포교소를 열겠다는 뜻을 전하고 허락을 청해왔다 한다. 원불교총본부는 이들 모두에게 선전책자, 격려의 편지와 함께 원불교의 상징인 「일원상」을 보냈다.

현재 전북 이리시에 중앙총본부를 두고 있는 원불교는 재래불교의 진리를 그 본원으로 하고 있으나 재래불교를 비사회적 승려 중심이라고 비판하고 종교의 사회적 사명과 적응을 강조하고 나선 신흥종교로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1백50여개의 포교소를 두고 이리시에 원광중·고교·원광대학 등을 경영하고 있다.

〈基〉

신아일보 원기50년(1965) 7월 6일

敎義談論 - 圓佛敎의 四恩

柳 聖 一

佛法是生活 生活是佛法 無時禪 無處禪 生活속서 宗教를 體得

佛심기는 마음으로 人生받들자

圓佛敎에서는 信仰의 門인 四恩이라는 말을 敎理로 하고 있습니다. 이 四恩이란 우주와 인생의 相互倫理關係를 闡明하여준 도리인것입니다. 우주와 인생의 상호관계가 과거 세상에는 그 單位가 極히 적고 좁아서 家庭·家門·部族·民族등 좁은 테두리안에서 살던 세계가 변하여 이제는 현대문명이 세계人類로 하여금 가깝게 보고 느끼고 돕고 의지하도록 세계의 통로가 단축되었기에 이 다양한 세계의 형상과 조직이 가장 圓滿하고 互惠平等하게 共存 共榮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새로운 課題로서 놓여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四恩(天地·父母·同胞·法律)이란 宇宙와 人生이 생존하는 그날부터 相互別離할수 없도록 天質的으로 倫理가 맺어있는 原理를 밝혀 그를 自覺하게함으로써 感謝를 발견하여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圓佛敎에서는 佛法是生活이요, 生活是佛法이며 無時禪 無處禪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既成宗教의 敎理와 같이 도덕과 생활이 거리가 있어서 道德-邊倒 혹은 生活-邊倒하는 지난 종교의 역사를 개선하여 宗教계발당시의 인류救濟와 사회淨化의 본래使命 그대로 佛法(宗教)으로써 생활을 더욱 빛나게하고 생활하는 속에서 佛法(宗教)의 참된 힘을 修鍊하고 體得하여 활용하자는것, 이것이 바로 佛敎에서 말하는 禪이란 修行法입니다.

禪이란 千萬가지 흩어진 우리들의 마음(精神)을 收拾하여 고요하고 깨끗하고 바른 우리의 根本精神(마음) 혹은 良心을 自覺하자는 것입니다. 이 本來의 自己마음을 찾고(守護) 알고(自覺) 쓰는(活用) 法을 우리들 생활 하나하나에 修道가 되도록 가르치는것이 圓佛敎의 用語로 無時禪(어느때든지 가질수있는 禪의 心境), 無處禪(어느곳에서든지 가질수있는 禪의 心境)이라고 합니다. 또 圓佛敎에 가보면 事事佛供 處處佛像이란 敎理가 생활의 信條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생활의 전부가 우주와 인생을 對應하는 속에서 對人關係가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一切宇宙와 인생을 대할때 佛(眞理)임을 볼줄알라(達觀)는 말임과 동시에 宇宙와 인생이 나에게 應하여질때 나를 위하여 좋도록 되기를 바라기에 앞서 佛을 받들고 섬기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주와 인생을 받들자는 것입니다. 우주와 인생을 부처로 보고 부처로 섬기자는것은 우주와 인생의 구석구석에 生成약동하고 있는 참된 理致를 볼줄알아서 對應하는 우주와 인생에 알맞도록 받들고 섬기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敎理와 信條밑에서 이제 50여년간 실천敎化한 결과 6천여만의 敎徒를 얻어 敎化·敎育·慈善·산업등 사업이 韓國一般에 앞서 示範이되고 정신적인 빛이되어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이르게 되어 현대문명에 지쳐버린 사회와 인류에게 아직 반딧불일지 모르지만 역사적 轉回의 즈음에 세계인류를 향하여 새로운 싹이 움트며 자라고 있다고 소개하는데 그치고 다음의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圓佛敎 서울支部敎務)

★ 코리아 타임즈 원기50년(1965) 7월 25일

46회 기념일을 맞이하는 원불교 신자들

1919년 그 해는 매우 중대한 두가지 사건이 발생했기에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다. 즉,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민족독립운동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한국민에게 원불교라고 일컬어지는 문화적 소산이 유출되었다(한자로 圓은 원(circle)을 의미하고 그원은 圓의 교훈과 교리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내일 7월 26일은 46번째 원불교 기념일인 축제의 날이다. 이런 경사스런 날을 계기로 필자는 이 근래의 종교에 관해서 쓰고자 한다. 원불교란 무엇인가? 원불교는 과거 50년동안 한국에서 자라온 문화적 소산이다. 따라서 한국에는 Kubi승과 결혼한 승, 두종류의 불교도 외에 세 번째로 불교신자가 있다.

원불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나 붓다, 노자 그리고 공자를 터득한 동양학자, 박중빈이라는 사람은 부처의 가르침을 깨우쳤고 1916년에 광명을 얻었으며 다른 기도예절을 재현한 불교정설을 기본으로 독립종교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청동 부처상을 숭배하는것을 철폐하고 대신 한 선으로 그려진 원에 고개를 숙인다. 서양식에 맞추 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외국곡에 맞추어 성가를 부른다. 동양불교의 기본원리에 몇가지 항목을 첨가하였는데 그것은 서구의 윤리사상 움직임과 부합된다. 현재 이 종교는 전라북도 이리에 중앙본부를 두고 있으며 남한 전국에 걸쳐 250개 이상의 교당과 300,000보다도 더 많은 신자가 있다.

그러나 이 종교는 전통불교의 나머지는 아니다.

현재 법인기념일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종교에 의해서 축제일로 정해지게 되었는가? 원불교의 법인 기념일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1919년 7월 26일 이 종교의 교조이자 원불교의 창시자인 박중빈님은 많은 제자들중에 가장 믿을 만한 제자를 그에게 불러 100일동안 기도회를 갖었다. 이 기도회를 마친다음 박중빈님은 부처를 위하여 자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보았고 즉시 9명의 제자들은 만장일치로 그들의 교조에 충성하기로 하고 죽는것에 동의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하므로 집안일을 처리키 위해 교조는 제자들 각각의 집에 보냈다. 제자들이 교조에게 돌아온 후에 제자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제자들은 영광산에 올라 9개의 봉우리에 무덤자리를 만들었고 그들 교조의 무덤자리인 봉우리 하나를 더했다. 산에 오르기전 제자들은 그들 교조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맹세하는 의미로 흰종이 위에 그들의 엄지지문을 눌렀다. 산에 오른 즉시 박중빈님과 같이 그들 각각은 칼을 가졌는데 박중빈님은 엄지지문이 붉게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시 제자들은 집에 되돌아 오게되고, 그들의 교조 박중빈님의 말을 듣는다. “너희들의 충의와 충성은 酬을 감동시켰다. 보아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였다. 너희들의 엄지지문이 붉게 되었다. 너희의 확고한 결심으로 너희는 이미 죽은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너희 각각에게 이름을 주겠다. 지금까지 붙여졌던 그 이름 사용을 포기해야만 한다.”

원불교신자로 머무를때 새 이름을 채택하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새 제도의 기원이 된다.

이것은 “東은 東이고 西는 西다”라는 사실 사이에 있는 대조의 예이기도 하다. 서양에서 자살을 도덕적인 죄로 간주되어지는 반면에 동양에서 자살은 훌륭한 죽음을 위한 확고한 결심의 표시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사스런 일을 기념하여 나는 영어로 다음과 같은 공식적 기록을 만들고 싶은데, 이것은 Kubi승, 결혼한 승 그리고 원불교신자들 사이에서 평상시에 사용되던 것으로 이것들 중 두가지는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영어권 학생에게 흥미로운 것이고 세번째 항목은 서양에서 온 동양학생에게 뛰어난 자료가 될 것이다.

1. 나는 단절을 위해 붓다에게 간다.
2. 나는 단절을 위해 교리에 들어선다.
3. 나는 단절을 위해 Sanghas에 간다.

(4가지 중대한 맹세)

1. 지인이 무수히 많으므로 나는 그들 모두에게 봉사하기를 맹세한다.
2. 우리의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아 나는 그것 모두를 없애기로 맹세한다.
3. 교리는 측정될 수 없으므로, 나는 그것을 공부하기로 맹세한다.
4. 부처의 길은 이르기가 어려우나 나는 그 일에 이르기를 맹세한다.

그다음은 영어로 된 유명한 브라야나-바라미다(Prajna-Paramita)인데, 전체 60권으로 이루어진 훌륭한 초록으로 영어로는 369단어로 요약되어있다. 한문본에서 이것은 260한자로 더 많이 축소되었다. 이 경전은 죄인의 사형을 집행할 때 종종 죄인에 의해서 암송되어진다. 그리고 불교 성직자들 또한 사형집행하는 곳에 와서 목메달린 사람을 위해 이것을 암송한다.

Maha-Prajna-Paramita-Hridaya

이것은 내가 들어본 것이다. 한번은 성인이 다수의 으뜸가는 보살. 그리고 Bhikshus 일행과 함께 Gridhrakuta 산에 있는 Rajagaha에 머무르고 있었다. 성인은 멀리 떨어져 Samadhi에 몰두하였으며 Avalokitesvara님은 심오한 브라야나-바라미다를 명상하고 있었다. Samadhi에 몰두했던 성인(성자)으로 부터 영향을 받은 존경하을 Sariputra는 이러한 것을 보살 Avalokitesvara님에게 말했다. “만약 아들 혹은 딸이 브라야나-바라미다를 공부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Avalokites님은 존경하을 Sariputra에게 답하였다. “만약 아들 혹은 딸이 심오한 브라야나-바라미다를 공부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자아에 대한 모든 생각을 없애야만 한다.” 그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생각해 해보자. 존재? 존재가 무엇인가? 실재의 지속인가? 아니면 소멸하는 요인들을 형성하는 것인가? 존재는 남득할만한 5개의 정점이 형성되어진다. 외형, 감각, 인지, 판단, 의식, 이러한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다른 어떤 본질을 비우는 것이다. 외형은 쏘이고 쏘은 외형과 다르지 않으며 외형 또한 쏘과 다르지 않다; 사실 쏘이 외형(形)이다. 또한 감각은 쏘이고 쏘은 감각과 다를바 없으며 감각 또한 쏘과 다르지 않다. 실로 쏘은 감각이다. 인지는 쏘이고 쏘은 인지와 다르지 않으며 인지 또한 쏘과 다를바 없다. 실로 쏘은 인지이다. 판단은 쏘이고 쏘은 판단과 다르지 않으며 판단 또한 쏘과 다를바 없다. 실로 쏘은 판단이다. 의식은 쏘이고 쏘은 의식과 다르지 않으며 의식 또한 쏘과 다를바 없다. 실로 쏘은 의식이다.

오 Sariputra, 공이라는 성격을 가진 이러한 모든것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완전함도 불완전함도 아니고 결점이 있음도, 결점이 없음도 아니다. 공에는 외형도, 감각도, 인지도, 판단도, 의식도 없다. 공에는 눈도, 귀도, 코도, 혀도, 감성도, 마음도 없다. 공에는 볼것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정신과정도, 목적도, 지식도, 무지도 없다. 공에는 대상의 파괴도 없고, 앎의 정지도 없으며, 무지의 정지도 없다. 공에는 4배나 되는 귀중한 진리도 없다. 고통도, 고통의 원인도 고통의 성지도, 고통을 멈추게 하는 지름길도 없다. 공에는 썩음도, 죽음도, 죽음과 부패의 관념을 파괴하는 것도 없다. 공에는 Nirvana(열반)의 지식도 없으며 열반에 이름도, 열반에 이르지 않음도 없다.

왜 공에는 열반에 이름이 없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무체(無體)”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만약 존재의 영혼이 실재의 지속이라면 이것은 열반에 이를 수 없다. 단지 존재는 사라져 가는 요인들을 만들 뿐이며 그 존재는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인간이 가장 지고하고 완전한 지혜만을 찾은 인간은 여전히 의식의 영역속에 머무를 뿐이다. 인간이 열반에 이르려면 의식을 넘어서야만 한다. 초월적 의식이 있는 최고의 Samadhi에서 판단과 지식, 그리고 변화의 범위 내지 공포를 넘어서야 한다. 그는 이미 열반을 즐기고 있다. 열반의 완전한 이해와 이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임은 가장 완전한 지혜가 되며 이것이 바로 브라야나-바라미다(Prajana-Paramita)이다. 최고의 Samadhi에 이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붓다들은 브라야나-바라미다에 이르는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깨어났다.

그러므로, 오 Sariputra, 모든 인간은 Prajna-Paramita를 실현하는 자아를 구해야만 하는데, 초월적 진리, 탁월한 진리, 바로 그 진리가 모든 고통을 멈추게 하며 그 진리가 영원한 진리이다.

오 Prajna-Paramita!

오 초월적 진리는 생과 死의 苦海에 다리를 놓는구나! 모든 구도자들은 광명이 있는 곳에 안전하게 옮기는구나!

중생에게 귀 기울여라. 위대하고 신비로운 중생에게 Gatte, gate, Paragate, Parasangate, bodhi, Svaha! 사라졌도다! 사라졌도다. 다른 곳으로 사라졌도다.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사라졌도다. 오 브라야나-바라미다! 그렇게 될지어다.

* 신아일보 원기50년(1965) 8월 10일

開敎의 憲章...精神開闢

時急하고 所重한 「마음의 공부」

〈圓佛敎의 三學〉

金 成 珠

圓佛敎에서는 修道의 綱領을 마음공부라고 말하고있다. 이 마음공부란 人間의 공부, 人間이 면 하지않을 수 없는 공부. 人間이기때문에 해야할 공부로서 人間必須의 공부라고한다.

人間이라고할때 마음을 除外하고는 人間일 수 없고 마음없는 人間을 생각할수 없으며, 또는 日日時時로 作用하고있는 人間의 主體가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부(學問) 가운데 이보다 所重함이 없고 이 공부만은 缺수가 없는 공부인 것이다. 그러기에 圓佛敎 大宗師님께

서「精神開闢」을 開敎의 憲章으로 宣布하신 것이다.

이 마음공부없이 人格이 이루어질수없고 大人 偉人 聖인이 될 수 없음은 너무도 自명한 일이다. 世上에서 사람의 人格의 基準을 어떠한 富에나 貴에나 權力에나 美貌에 두지않고 그 人間이 지니고 있으면서 풍기는 참되고 싹답고 고운마음씨인 것이다.

이 마음을 일러 佛敎에서는 佛心이라 하나니, 이 佛心을 깨쳐 活用하신분이 부처님이요. 그 마음을 承繼하여 받은 이가 佛祖의 正傳인 것이다. 우리 大宗師께서 覺證하신 眞理가 바로 이 佛心이시기에 이 본래의 自己를 喪失한 人類에게 自己를 되찾도록하는 學問의 세가지 길을 敎示하셨으니 이것이 圓佛敎의 三學이다. 世上에서 口號같이 외어대는 人間改造니 良心을 찾자느니 精神을 開發하자느니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方案이없는 口頭禪같은 이 社會에 누구나 할 수 있고 自己를 改變해 나가는 길로서 말씀하신 三學이니, 첫째 마음을 찾는 精神修養의 공부이니 不義가 되었는지 貪慾이 되었는지 熾然히 作用하고 있는 마음의 所在를 모를 뿐만아니라 찾아보지도 못하는데서 보는데로 듣는데로 생각하는데로 作用하고있는 마음을 찾아보는 공부를 하여보자 이것이 精神修養의 要諦로서 市中에서 장사를 하든지 政界에서 政治를 하든지 敎室에서 學問을 하든지 부질없이 치달리는 마음을 쉬고 스스로 自己를 찾고 本來의 마음을 反照하여 하고있는 일밖에 雜念을 갖지않도록 마음을 찾아보는 공부로서 이를 쉬지않고 活用하여 自己改變의 主體確立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둘째 마음을 아는(覺) 事理研究공부이니宇宙生成의 原理와 人間社會의 道理가 다 마음의 理致를 깨달으면 바로 天道의 理致와 人事의 道理를 體悉할 수 있으니 우리는 不斷히 事理를 배우고 窮究해서 靈實正邪 올바르게 判斷할줄아는 智慧를 얻는 공부이니, 이것이 곧 남보다 한가지를 더 알고 더 내다보는 先覺者로서 人類社會의 앞잡이가 되자는 것이다.

세째 마음쓰는(活用) 作業取捨 공부이니 人類가 있고 社會가 構造된이상 善과 惡 正과 不正이 相值되어있는 社會秩序속에 人間의 마음을 아무 法度와 義制없이 放縱하지말고 스스로 마음을 챙겨 不義와 싸워 이겨보고 貪慾과 싸워 이겨보는 克己의 공부를 하여 正義어든 기어이 實行하고 不義어든 기어이 容納하지 않는 공부를 하여 自制力을 키워서 不義와 不正이 없는 明閑한 社會秩序確立에 支柱처럼 示範되어보자는 것이다.

이 三學공부는 마음공부이기때문에 또는 自己改變의 공부이기에 남을 위하는 공부가 아니요, 自己를 새롭게하는 공부이므로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골돌하게 정성스레 공을 들여 쌓아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混濁한 社會와 멍든人類의 良心을 慨歎하기보담 내마음에 멍이 풀리고 내人格에 改變이 이루어지도록 이 공부를 통하여 人類救濟의 길잡이가 되어야겠다. (圓佛敎 苑南支部 敎務)

* 신아일보 원기50년(1965) 9월 3일

敎義談論—精神界에 一大轉換있어야.

대등한 尊敬으로 共存共榮의 社會로

李 閑 山

社會進化의 綱領

원불교의 發祥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낙후된 社會를 進化시키려는 基本綱領을 敎義로

내세워 그를 四要라고 합니다.

世稱 현대를 文明的 危機라 하고 末世社會라 개탄을 하고 있으나 原子文明의 극치에 이른 현대문명이 왜 그다지 조소를 받아야 하며 위협시하는가에 이르러서는 異口同聲으로 현대문명 만을 받아들이는 精神的 자세 즉 정신문명의 萎縮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世界人類가 다같이 念願하고 있는 理想社會는 個人과 個人끼리, 民族과 民族끼리 國家와 國家사이에서 서로 對等하게 尊敬하며 自由와 平和를 享有할 수 있고 共存共榮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회의 達成은 우리 人類의 精神界에 一大轉換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룩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우기 오늘의 한국사회는 너무도 거창한 民族中興이다. 祖國近代化다. 民族改造이다로 과업이 한꺼번에 엉켜져 몸부림치면서 그에 대한 健全한 理念의 터전을 닦지 못하고 左衝右突하는데에서 오는 陣痛인가 봅니다. 그러므로 圓佛敎에서는 距今 50年前에 날로 발달해가는 서양의 物質文明이 東漸하면서 낙후된 동양의 後進性, 특히 한국의 사회상을 看破한 社會進化의 基本綱領으로 다음의 四要를 宣布한 것입니다.

첫째, 自力養成 즉 힘을 기르라고 외치셨으니 이 힘이란 他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自主하여 自立하는 힘인 것입니다. 개인·가정·사회·국가에서 思想·政治·經濟·文化에 이르기까지 남보다 먼저 앞서서 내다보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소위 主體意識을 喪失한 모든 사상이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는 物質文明만이 발달되면 될수록 인류에 불행만을 招來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先行해야 할 일이 自主하고 自立할 수 있는 自力の 양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 智者本位, 즉 모든 힘의 원천은 배워 아는 것입니다. 모든 學問과 技術뿐만 아니라 原子文明을 料理해 갈 수 있는 精神的 敎養입니다. 不條理한 社會秩序나 구세대의 감정을 초월해서 他에 依存하지 아니하고 先進文明에 대등하게 兩肩을 겨눌 수 있도록 배우자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배우고 경제인은 경제를, 학생은 학문을 올바르게 배워 알자는 것입니다. 세째, 他子女敎育, 즉 가르치자는 것이니 敎育均等を 부르짖는 이때에 自他的 國한을 초월해서 진화된 理想社會達城이란 公同課業을 위해서 다만 後進性만 개탄하지 말고 힘이 미치는대로 가르쳐서 나 自身부터 후진성을 극복하는 隊列에 서서 하나에서부터 가르침을 통해 닦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네째, 公道者崇拜. 즉 公益心을 갖자는 것이니 현대문명에 대한 부질없는 危懼心을 버리고 文明的 利器가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정신적 자세를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純一한 공익심을 바탕으로 하여 政治를 하고, 產業을 하고 經濟를 구축하고 學問을 하고 혼한 데모도 救國哀情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以上 네가지 강령이 비록 平凡한 것 같으나 낙후하여 混亂하기만한 한국사회를 文明으로 진화시키는 基本綱領일 것이요. 이 기본적 精神敎育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건전한 政治風土와 社會正義가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원불교순교감)

신아일보 원기50년(1965) 월 23일

女性 履歷書

韓國保育院長 黃溫順여사

이를 악물고 20年

“내가 안하면 아무도 못할것같애”

青春을 고스란히 投資

○…映畫「戰頌歌」로도 널리 알려진 韓國保育院이 오는 10월 17일로 설립15주년을 맞는다. 院長 黃溫順(61)女史가 韓國保育院을 맡게 된 것은 1950년, 「해스」大領에 의해 空輪된 戰爭고 아들의 어머니가 된때 부터다.

○…黃海道 延安이 고향인 女史가 梨花女高를 거쳐 梨花女專을 졸업할때만해도 고아원이란 전국에 몇개 되지도 않았고 女史자신도 고아원을 경영하리라고는 생각도 안했었다.

그러나 17세때의 初婚이 실패하고 圓佛敎에 歸依한후 농촌어린이의 탁아소를 맡아본것이 계기가되어 해방되던 해부터 본격적인 고아원 경영을 시작했다.

○…「이런일을 하다보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안하면 아무도 못할것같아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女史의 조용한 말속에는 오랜 경험을 통한 自信과 信念이 깃들어있다. 「요즘 여성들의 꿈중의 하나가 사회사업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육원으로 많은 편지가 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보면 석달을 견디지 못해요. 고아들은 「물망초」와 같아요. 뿌리가 없습니다. 군중심리가 작용하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으로 건설보다는 파괴적인 면에 열을 뽐니다. 이런 단순한 感傷에서 온 여성들이 실망해버리지요. 세상의 고초를 겪은 사람, 고생을 이겨나갈 사람, 그러니까 나이도 30은 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다시피한 保育事業에는 난관이 너무나 많다.

18세가 넘으면 保育院을 떠나야 하고, 정치없는 그들은 때로는 불량아가 되어 黃女史를 괴롭힌다. 「정말 고아들이 말썽을 일으켜 유치장으로 재판소를 불러 다녔을 때는 누가 죽었을 때보다 더한 기분이었습시다.」

그러나 곤란은 經濟的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예산의 78%를 食費가 차지하고 18세를 넘은 고아들의 대책도 마련되어있지않다.

女史자신의 10만평이 넘는 땅을 保育院에 바쳤고, 국수공장, 목장경영으로 노력은 하지만 여의치 않다는 것.

○…보육원엔 이미 成年한 고아들의 대책을 위해 초급대학 수준의 실업학교 건물이 세워져 개교를 서두르고 있다.

「앞으로 이 실업학교만 잘되고 저 앞뜰에있는 5천평의 땅을 정부가 이 보육원에 불하해준다면 큰목장을 세워 고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줄텐데…」 넓은들을 바라보는 女史의 눈엔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넘친다.

* 신아일보 원기50년(1965) 10월 19일

眞理象徵한 圓으로써 生活의 理念確立하자.

形式·名分내세울 때는 이미 지났다.

敎義談論

〈圓佛教〉

圓佛教의 法堂에 들어서면 佛壇에 모셔있어야 할 釋尊의 等像佛이 모셔있지 않고 둥그런 圓의 相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를 法身佛 一圓相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 疑問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法身佛 一圓相을 信仰의 대상으로 모시는 데에는 몇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人智가 발달됨에 따라 지금까지 있었던 壯嚴한 敎理나 神格化된 敎義나 완고한 形式이나 名分을 내세울 때는 이미 지났기에 이젠 이를 超脫하여 세계공통의 普遍된 眞理를 찾아가고 있고 또는 모든 人類가 다함께 歸依할 수 있는 眞理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지는 此際에 그 참된 眞理의 象徵으로써 ○(圓)을 그리 信仰의 대상으로하여 모든 人類에게 疑問의 열쇠를 던져주어 그 참된 모습을 찾아 알려도록 하기 위한 宿題인 것입니다.

둘째는 信仰의 대상으로 그 圓의 相을 대상으로 모셨으니 이는 참달을 가르치기 위해서 必要한 손가락으로서 정작 그 참달인 法身佛 一圓相은 이 世界內에 存在하고 있는 萬物의 生成의 모습 卽 잘 살고있는 幸福된 모습이든지 못살고 있는 不幸한 모습이든지간에 千差萬別로 살고 있는 까닭을 밝혀서 事實적으로 幸福하게 하고 不幸하게 하는 機能이 있는 것을 法身佛 一圓相을 통해서 眞理의 眞理로 믿어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고 믿어왔던 바와같이 幸 不幸의 機能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어느 神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던 信仰을 이젠 次元을 높이하여 事實적으로 幸 不幸의 直接的인 機能의 所有者인 自我의 發見인 것입니다.

卽 一切가 自己 스스로 지어가며 만들어 간다는 主體的 信仰의 對象으로서 心性의 象徵인 法身佛 一圓相을 信仰하자는 것입니다.

세째는 宗教의 啓發이 人類의 救濟와 사회의 淨化에 그 사명이 있다고 할때 人類의 한사람인 나의 救濟가 사회의 一分子인 나를 淨化하는 열쇠가 어느 集團의 領袖나 一國의 元首나 一家의 家長에게 責任지워야 할 問題가 아니라고 한다면 마땅히 宗教를 통해서 또는 信仰을 통해서 또는 修道를 통해서 自我의 改變이 이룩되어야 할 것입니다 惡人이 變하여 善人이 되고 衆生이 變해서 佛菩薩이 되고 混濁한 社會가 變해서 淨化된 社會가 이룩되도록 이 法身佛 一圓相이 人類生活의 指標가 되고 社會正義의 基準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이 肉身만 있고 精神이 없다면 完全한 人間이 아닌 不具者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生活에 信仰이 없다면 精神이 없다면 完全한 人間이 아닌 不具者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生活에 信仰이 없다면 精神이 空虛해버려 不具의 生活이 되고 맙니다. 萬有가 서로 對하고 應해 이루어지는 生活을 眞理의 信仰에 根據하여 波瀾萬丈의 苦海火宅을 超脫하고 克服하기 위해 不斷한 宗教的 修行의 生活이 아니고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社會混亂속에 處해 있을수록 우리들 애기는 生活의 指標가 뚜렷해야 하고 生活의 理念이 確立되어야 하며 또는 그의 實現을 위하여 이 法身佛 一圓相을 標本으로 하여 貪내고 震怒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圓의 眞理가 敎示해주는 깨끗하며 執着됨이 없는 마음을 鍛鍊하여 生活에 具現해보고 또 圓滿하여 天下를 實容하는 具足한 마음을 鍛鍊하여 生活에 具現해보고 또는 지극히 公正하고 無私한 마음으로 鍛鍊하여 生活에 具現하여 內面의 精神生活에서 부터

圓의 眞理를 體得하고 나타나는 行爲가 참되고 實다워서 이 社會가 허황이 없고 거짓이 없는
明朗하고 信義가 어린 참된 社會를 建設하자는 것이다.

新都支部 敎務

張 正 一

六大宗教人の 對話

1965年 10月 18, 19日 양일은 韓國宗教人들의 한결같은 思索과 平素의 珠玉같은 理想을 모
아 무언가 한가지 所望을 이룩했다. 宗教, 그것은 꿈많은 少女가 선망하는 한쪽의 그림이 아니
면서 그 標識 밑에 무엇을 救할 것인가? 그렇다. 宗教가 必是 人類組織속에서 울렸고, 그 속에
서 成長한 것이라면 都是 宗教란 人間의 것이리라. 크리스찬·아카데미의 主宰아래 이룩된 이
날의 행사는 「宗教人の 共同課題」를 이룩하는 「六大宗教 代表者들의 심포지움」이란 것이다.
그래서 첫 대화는 다소곳이 「六大宗教協議會」라는 「한아름」광장의 構築作業까지 손을 대게
된 것이다. 여기 六大宗教代表들의 심포지움은 全世界 宗教人들의 소망으로 「씨알」을 심어 본
다.

◇ 佛教代表

이능가스님(曹溪宗總務院事務處長), 김운학스님(曹溪宗總務院社會局長), 서경수교수(東國大
學校敎授), 박성배교수(동국대교수), 이기영博士(동국대大學院敎務課長), 이규대 선생(교우사
社長)

◇ 圓佛教代表

황온순 先生(한국보육원장), 이운권先生(원불교서울사무소장), 이공전先生(圓佛教正化社事
務長)

◇ 儒敎代表

유승국교수(성균관대학교교수), 유정동교수(성균관대학교교수)

◇ 天道敎代表

백세명선생(天道敎中央總部宗務委員), 김경태선생(천도교중앙총부宗務院長), 조기주선생(천
도교중앙총부敎化館長)

◇ 天主教代表

박양운박사(카톨릭대학교교수), 박도식신부(카톨릭時報論說委員), 김몽은신부(대방동大敎主).

◇ 基督教代表

김재준박사(한국신학대명예학장), 강신명박사(새문안교회목사), 유동식교수(감리교신학대교
수), 김동수목사(성광교회목사)

◇ 其他代表

김용구先生(한국일보논설위원), 채기은목사(크리스찬신문사편집국장).

六大宗教人の 對話

三同倫理를 바탕으로

黃 溫 順(한국보육원장)

오늘날 우리 韓國의 多數의 宗教가 分離되어 聯合되지 못하고 分散된채 一定한 近代의 整

備자세를 갖추지 못한 原因을 究明하여 본다면 모두 우리 社會가 傳統的으로 가난하고 貧困하기 때문입니다.

多幸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韓國宗教의 對話의 廣場이고 世界宗教의 축소판인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宗教의 모임이 벌써 오래 前에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對話의 廣場이 진작 있었다라면 우리 韓國의 歷史는 좀더 달라졌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宗教界의 悲劇의 現實은 없었을 것입니다.

現在까지 우리 韓國社會의 宗教는 글자 그대로 죽음(死)의 宗教이었습니다.

宗教自體가 存在하면서도 일반 대중과 對話를 상실한채 宗教는 宗教대로 大衆은 大衆대로 고독과 現實도피에로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宗教人들은 團結을 몰랐고 참된 宗教의 目的은 하라는 것을 모르고 各己 異質의 自己類의 고정만을 유지함으로써 宗教에 對한 대중의 希望은 사라져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宗教의 現實은 저마다 分散되대로 되어 우리 宗教는 대중에게 하등의 方向提示를 가르치지 못함으로써 宗教에 對한 대중의 不信度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以上과 같은 오늘의 現實을 時急히 解決하기 위하여 우리 宗教의 모임은 벌써 오래 前에 시도되었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며 지금 이순간 부터서라도 다시 시작한다면 과히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시작은 반이라고 지금의 이 시작은 가장 적당하게 選擇된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함으로써 우리 目的의 半을 達成한 것입니다.

宗教의 目的은 하나로서 모든 人類는 한 氣運으로 因해서 造成된 이 地球上에 똑같은 作用에 依해서 生成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作用에 依해서 生成된 같은 人類의 目的을 위한 宗教의 方向은 결국 모든 宗教가 同一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모임을 時點으로해서 한 동포요 한 덩어리로서 우리 六大宗教의 사이에 장벽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六大宗教는 장벽을 開放해서 하나의 目的을 向해서 전진하여야겠습니다.

國家의 體制를 보더라도 國家內에 여러個의 部處가 있어서 제 各己 自己대로의 專擔分野를 區別해서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國家라고 하는 하나의 目的을 위해서 活動하고 있는 것입니다.

世界의 宗教도 마찬가지로서 이 地球에는 數많은 宗教가 存在하지만 모두가 全世界人類의 共同目的인 單一살림의 方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즉 한 氣運에 依해서 태어났으니 한 살림한 食口로 살아 보자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얼마 前까지도 他教같은 宗教를 볼 때에 대단히 경원시하고 무시하여 왔고 對話를 나눌 수 있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宗教만이 제일이고 내 宗教의 敎理만이 가장 위대하다고 느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時點을 계기로 해서 나는 새로운 모든 事實을 올바르게 認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든 宗教人이 모두 제각기의 自己主義 解析과 主張을 버리고 오늘부터 새로 마련된 이 共同的 廣場으로 뛰어들어 우리 宗教의 참된 方向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宗教人의 共同的 廣場이 마련될 때 멀지 않아 우리 韓國의 政治한다는 사람들도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따를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圓佛敎의 先師이신 鼎山宗法師께서는 三同倫理를 說하신 바 있습니다.

이 世上 모든 眞理는 同源道理요 모든 人類는 같은 起源을 지닌 同氣連契이요 한가지로 指向해야 할 우리들의 事業을 同拓事業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世界모든 潮流가 하나의 世界로 指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歷史的으로 마련된 宗教間의 對話가 一時的인 運動과 行事가 되는 것보다 나아가서 全宗教人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宗教人이 지닌바 使命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더우기나, 우리들은 이 時間부터 서로의 障壁을 허물고 같은 宗教人으로서의 指向할 바, 共同目標를 向해 邁進할 것을 굳게 約束드리면서 頭序없는 말씀을 略할까 합니다.

* 韓國佛敎의 進路(사상계)

—圓佛敎의 立場에서 본 佛敎革新運動—

柳炳德(圓光大敎學科 助敎授)

불교는 佛陀의 敎說을 믿고 파악하여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꾸준히 계속되므로서 불교는 발전해왔고 마침내 세계적인 종교로서의 불교가 된 것이다. 불교의 진리와 方便은 浩大하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여 많은 善知識들이 배출되며 그들은 이를 이용하므로서 各種各派가 분립되었고 따라서 多樣的인 방식으로 포교의 문을 개방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다. 그러나 각종각파의 분립한 시일이 오래되고 또한 여러 종파의 주장과 방편이 다르므로서 信者도 또한 상호간에 시비가 불분하여 도리어 포교를 서로 방해하며 필경에는 적대시까지 하여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나 무종교인들의 비평, 조소를 면치 못하게 된 일도 간혹 있다.

이는 모두가 각종각파의 所從來를 알지 못하는데에서 생기는 폐단인 것이다.

물론 여러 종파의 주장과 시대변천을 따라 서로 다른 점은 있을 지언정 불타의 근본적인 敎義에 있어서는 다르지 아니한 同根佛弟子로서 不睦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 한말로 지적해서 法이 오래되므로서 폐단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불교가 세계적 종교로 널리 퍼져 나간다는 것은 매우 좋은 면이지만 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걱정이 있으니 다름 아니라 불타정신의 근본을 망각하기 쉽다는 점이다. 근본불교가 무엇인가. 「불타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운동은 한국 아닌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이미 문제된 지 오래다. 혹은 緣起思想이 佛陀敎義의 근본정신이라고도 주장하며 혹은 中道的 實踐이 그의 근본정신이라고도 주장한다.

연기사상은 그 당시 印度思想界의 二大潮流였던 積聚說과 轉變說의 전통적 正說에 대하여 간파한 佛陀 독자적 입장의 세계관인 것이며 중도적 실천설은 그 당시 인도인에 있어서 修定

主義나 苦行主義와 같이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인생관에 대하여 불타는 이를 일찌기 체험하고 이것을 부정함으로서 高次的의 인격을 완성하게 된 바 이것 역시 불타의 독자적 입장으로서의 인생관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유력한 두 가지 견해는 보다 더 근본적인 추구를 가한다면 불타정신은 「否定性」인 것이다. 인간은 自己狀況의 집착에서 해방하는 일이다. 阿含經에는 이를 「無記」의 태도로서 밝혀 놓았다. 自己라는 입장마저 부정하는 태도, 그러므로 전개하는 세계는 모두가 自我요 主我라는 自體性마저 부정되는 것이며 인연에 의하여 모였다. 또한 다른 인연에 의하여 모였다. 또한 다른 인연에 의하여 흩어지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밝혀 永久不變의인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力說한 것이니 이것이 곧 緣起說이다.

그러므로 불교계에서 궁극개념으로 잘 쓰는 苦, 涅槃, 解脫 등의 술어는 부정을 통하여 본 인생의 진리인 것이요, 集, 無常, 空이라고 하는 등의 술어 또한 부정을 통하여 본 궁극적인 세계의 표현이다. 따라서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초월하는 부정이요, 또한 되돌아오게 하는 부정이다. 다시 말하면 오도록 하는 知去의 부정인 것이다. 如來란 如去의 과정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도록 하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 불타이기 때문이다.

이상에 말한 것은 주로 불타 敎說을 통하여 본 근본불교의 파악이다. 이와 같은 근본불교의 정신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삼천년전에 인도에 나타난 불타와 지금 여기에서의 불타가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불타가 되기 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불타를 파악하는 일이다. 불타는 결코 하나만의 종교가 아니다. 나도 불성이 있고 너도 불성이 있다. 그 뿐인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生靈들은 모두가 佛이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졌다」(一切衆生皆有佛性)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最靈한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 없이 불타의 인간을 體得하는 일이다. 불타는 역시 불타가 되기 전에 인간이었다. 인간이 되지 못한 생명들은 우선 인간되는 일이요, 인간된 자는 또한 불타가 되기 위하여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나(我)라고 하는 인간이 인간다움게 되었느냐……하는 자각과 반성이 없다면 그 인간은 중생이다.

중생이 변하여 出衆한 불타의 지위에 도달하려면 「나는 인간이로되 과연 인간다운 인간이 될려고 하느냐 또는 있느냐 또는 되었느냐」하는 생각이 끊임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불타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는 과정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타를 닦아가는 일이다. 닦아가는 생각과 행동은 결국에는 그와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중생에 두가지 커다란 병이 있다. 하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자가 자기의 된 모양을 肯止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지도 못하고 불타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불타가 된 지혜와 능력을 말하여 보겠다.

첫째는 현실적인 자기를 부정하는 데에서 인간불타가 되었다. 이것이 불교의 無我思想이 된 것이다. 우리 중생으로서의 현실적인 자아를 위하여 주어진 환경에 집착되나 인간불타는 끊임 없는 자기 부정을 통하여 현실에 머무르는 일이 없이 움직일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현실의一點에서 볼때 불타는 固定化한 것이 없었다. 이것이 무아다.

이러한 무아정신은 곧 현실에 집착한 중생을 전부 包容할 수 있는 능력이 발현된 것이었다.

둘째는 다른 생명들을 존중하려는데에서 인간불타가 되었다.

이것이 불교의 大慈大悲思想이 된 것이다. 우리 중생들에 있어서는 약한자의 생명을 살해하 고라도 나의 생을 보다 건실하게 보존한다는 생각인데 인간불타는 그와 정반대의 생각이었다.

나를利롭게 하기 위하여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생명을 위협한다거 나 해를 준다면 차라리 그 해를 스스로가 받을 지언정 다른 생명을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 왜 나하면 생명은 그 존재가 크고 작고간에 죽음을 싫어하는 점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自利利他的 圓滿한 지혜가 발현될 수 있었다.

自利利他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나의 利로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셋째는 고풀 참고 번뇌를 끊어버리는 결단성이 인간불타를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 衆生들에 있어서도 고풀에 부딪치면 먼저 이것이 정당히 받아야 할 것인지 피할 것인지를 판단하려 하지 않고 무 조건 고풀하면 피하고 또 樂이면 무조건 收用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인간불타께서는 正當한 고락인가, 부당한 고락인가를 먼저 판단한 然後에 부당한 고라면 피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나 아가서 정당한 고라면 받을 줄도 알고 부당한 樂이라면 피할 줄도 알았다. 이는 곧 「정당한 고풀끝에는 영원한 樂이 따르며 부당한 樂끝에는 영원한 고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언제나 영원한 樂을 收用하는 능력을 가졌었다.

또한 우리중생들은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 속을 언제나 요란스럽게 하고 있으나 그러는 줄 도 모르고 마음을 태우는데 인간불타께서는 소위 「내 마음을 능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 다」 이것이 곧 解脫의 심경인 것이다. 그리하여 중생의 最後障礙은 「죽음」인데 인간불타는 이 죽음을 자유자재 할 수가 있었다.

在來韓國佛教의 맥박.

이로서 나는 근본불교의 이념을 되살리는 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불타를 파악하는 일이 오늘날의 불교계에 있어서 그 얼마나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급선무인가를 示唆한 셈이다. 따 라서 불타는 결코 인간과 거리를 두고 超越해 있어서 그 正體를 볼 수가 없다는 神도 아니며 또한 존엄한 그대로 말이 없이 壁上에 앉아만 있는 等像佛도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 한 관념은 도리어 佛教徒로 하여금 迷惑에 빠뜨리는 위험한 사상인 것이요, 참으로 존재해 있 던 인간불타를 모독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불타에 대한 신앙심이 저락될 아무런 이유 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在來한국불교를 살펴 보기로 하자. 고려시대의 불교를 極讚하고 있지 만 其實은 한국불교가 오늘날과 같이 시드러져 존속의 이유마저 한가닥의 의욕으로 휘몰아 넣게 된 커다란 원인은 이조시대의 「抑佛崇儒」때문만이 아닌 것이다. 자고로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지만 특히 종교문화란 역경에서 발전하였었다. 외부로부터의 박해는 거기에 자주성만 있 다면 도리어 보다 세척하게 향상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진리는 현대의 종교가요, 文化史家인 영국의 아놀드·토인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史觀을 보면 문화는 역경에서 발생했고 또한 「적절한 역경」이 계속적으로 도전해 오는 데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一般史家들이 규정하는것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그의 구체적인 論調를 더듬어 보면 결코 파라독스는 아니다. 인간에게 역경이란 부정을 통 하여 극복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풍부한 의욕과 비상한 움직임이 있어야 비로소 진

보 발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불교사의 裏面을 고찰한다면 그들 승려가 굳건한 주체성만 가졌던들 이조의 「抑佛崇儒」따위의 정책상, 社會의 문제는 도리어 「적절한 역경」일 것이요, 비약적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새롭게 致來하는 사상이 전연 異邦의 문화일 경우는 이것을 受容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려의 불교가 역경이 없이 그대로 전해 내려 왔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지극히 무반성적이었음을 간과할 수 있다. 護國佛教, 御用佛教, 정치세력에 아부된 불교는 결코 어려운 고비(受難期)를 넘기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쇠망은 이미 오랜 시대부터 진행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고려불교가 자주력이 없이, 비판기준이 없이 그대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속단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후 이조 五백년간의 불교이념은 독창적 문화에 기여할 수가 없었다. 기껏해야 승려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黑山窟속의 自樂」에 그친 것이요, 다만 수양에 의하여 超然해 진대로 풍류나 소요를 일삼게 되었던 것이다.

불교가 삼국시대에 수입된 이래 고려시대에는 최고도로 융성함으로써 그 裏面에는 마침내 자주성을 상실한 것이었다면 李朝불교는 산중으로 쫓겨들어가 소수인의 불교가 되었다. 그들은 偏僻된 修行을 하였으며 또한 불교 본래의 진리관을 매몰시켰던 점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국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氣質이 나쁜 것은 아닌 모양이다.

고려에서 더 소급하여 신라불교를 보면 그야말로 한국불교였다.

그들은 신라의 고유한 기질과 풍속에 잘 조화를 시켰던 것이다. 조각·건축·미술이며 사회의 제도 그리고 생활양식에 있어서 그들의 주체성이 살아 있었다. 元曉는 그 시대에 자주적인 주체를 지녔던 불교계의 대표적인 일물이었다. 華嚴, 天台, 般若 等の 大乘思想을 理論化할 수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나라 現今의 불교는 하루속히 李朝불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라 불교를 본받아야 한다. 본래적인 氣質과 전통을 이어받아 부흥시켜야겠다. 오늘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가리켜 隱者の 나라(Hermitnation)라고 부른다. 또한 잠자는 나라라고도 한다. 이는 문화적으로 무엇인가 존재할듯 하면서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신라와 고려의 찬란했던 문화가 이조 五백년간의 黨爭 內亂으로 뒤숭숭하여 마침내는 이웃나라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니 문화적 전통마저 外勢에 짓밟혀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고유한 文獻이나 文化財는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남의 손에 쥔 것을 아쉬움게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남의 핑계, 조상의 핑계를 대지 말고 제각기 처해 있는 입장에서 한국적인 기질과 전통을 되살리기 위하여 革新의 姿勢를 취해야 하겠다.

이는 세계가 우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한국정신의 支柱가 되어 왔었다. 불교이념은 「세계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안에서 세계를 찾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이념만 우리에게 아로새겨 진다면 우리는 곧 세계에 자랑할 수 있다. 따라서 李朝시대에 머뭇거리고 있는 靜의이며 부정적이며 逃避的인 修行方式을 止揚해서 생활이념을 확립하는 불교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근본불교의 이념이 「否定性」이라고 하지만 현실에 대한 부정은 또다시 현실의 새로운 건설을 위하여 되돌아와야 한다. 남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쫓겨 들어가서야 되겠는가. 이것이 이조불교의 殘有觀念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종교인의 후퇴는 자주적인 주체성을 지니고 일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되돌아 올 수 없는 후퇴는 出定없는 入定인 것이다. 이는 灰身滅智의 小乘行인 것이니 死滅에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불교인이 되므로써 영원히 죽지 않는 歸還이 있어야 한다.

나는 修道와 修行을 구별짓고 싶다.

自己를 위한 종교적 후퇴를 수도라고 한다면 중생을 위한 후퇴를 수행이라고 말하고 싶다. 수도인은 실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菩薩의 정신인 것이다. 직접 행동으로 현실을 이상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래 한국불교계의 지도방법이 매우 낡았다. 나의 과거에 비추어 현대인들을 지도하려는 방식은 어느 사회의 지도층에 있어서나 敎化의 위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發心の 根機를 알기 위하여 제자를 냉정하게 대해주는 化導法이 불교 고유의 格式으로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간혹 특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요, 결코 보편화 할 수 없는 특수방편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일상적인 지도 방법이라고 본다면 큰 착오다. 이렇게 되면 재주있는 사람들이 誓願을 세우고 스승앞에 한두달 기껏해야 일이년 동안을 공부하고 나면 바보 천치가 아닌 바에야 그 道場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한다. 이 뿐인가. 그런 정도면 문제가 아니다. 그 제자는 x도 하든 스승을 등에 업고 승려 행세를 능능히 하는 것이 더욱 큰 일이다. 불교가 현실로 되돌아와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돌아온 것은 일종의 「불교적 데카단」이기 때문이다. 스승의 지도방식이 낡은 것은 그 師匠이 否定에서 되돌아올줄 모르는 수도 때문인 것이며 제자가 데카단으로 전락되는 것은 불타의 否定性원리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건방진 태도다.

圓佛敎와 革新의 姿勢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圓佛敎의 입장에서 보는 佛敎革新運動이다. 지극히 좁은 한 분야인 것 같다. 그러나 圓佛敎가 지향하는 세계는 좁지 않다.

착잡한 현대문명에 遭遇한 금후의 인류앞에 새롭게 외치고 나온 新生宗教의 모습인 것이다. 원불교가 취하는 혁신의 姿勢를 논하기 전에 여기에 圓佛敎의 大要를 밝혀 보겠다. 圓의 진리는 어떠한 것인가. 넓은 의미로 밝힌다면 「모든 진리의 本源」 「하나만의 진리」 「圓滿俱足한 진리」라고 할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생활해나가는 데 있어서 一圓과 같이 원만평등하며 至公無私해서 四通五達이 되는 大人格을 목적하고 신앙과 수행을 정진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과 心量을 체득하도록 標像한 것이 곧 圓이라고 하겠다.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圓이란 불타가 悟得한 「마음」을 상징한 말이다.

불타는 否定性을 통하여 세계나 우주를 능히 포용하도록 크고 넓게 빌 수(虛) 있었기 때문에 이를 「空」이라고도 표시하며 또한 이空的 경지에 되돌아 왔는데 어느 곳에 하든지 食(욕

심)과 眞(시기심)과 痴(愚昧)의 三毒心에 물들지 않고 항상 중생들의 마음을 바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正」이라고도 표현한다. 따라서 圓은 현실을 철저히 부정할 수 있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되돌아옴으로서 現實化의 능력을 상징한 正이란 두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며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심경이 될 때 그것이 곧 「부처의 마음」인 것이다. 내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같이 「空」해져서 세계 및 우주가 내마음 속에서 움직여질 때 그 심경은 곧 지금 여기에서의 부처의 심경인 것이요, 또다시 내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같이 「正」이 되므로써 어느 곳에 있든지 六途衆生이 感化를 입게 될 때 그가 바로 「人天의 스승」인 것이다.

이와같이 볼 때 원불교는 불타의 근본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의하여 歷史性을 지니므로써 在來佛敎는 圓의 진리를 온통 송두리채 드러내지 못하고 혹은 「空」의 의미에 치우치기도 하며 혹은 「正」의 의미에 치우치기도 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는 운동으로 출발한 것이 원불교의 革新點이다. 그러므로 敎主인 少太山(一名 大宗師) 先生께서는 圓의 진리를 체득하여 생활이념을 확립하려는 信念을 굳게 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세계 思潮를 간파 하시고 「物質이 開闢되니 精神을 개벽하자」는 정신적 혁명의 旗幟를 높이 들었다.

원불교의 입장에서 보는 불교혁신운동의 범위는 매우 광범하다. 왜냐하면 少太山先生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동서양을 통털어 사상계를 「하나만의 진리」로 통일하려고 결심함으로써 과거 성현과 철인의 諸說을 열람한 후 모든 사상중에 불타의 정신을 주체적인 사상이라고 승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儒敎나 道敎나 基督教 그리고 多樣的 서양의 철학사상까지도 면밀히 탐구하여 그들의 일면적인 진리를 우리는 다 收用할 수 있어야 비로소 「원만구족한 진리」 「하나만의 진리」 즉 「모든 진리의 본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고 역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불교는 재래에 있었던 현상처럼 老大宗敎가 宗派를 이루어 나가듯이 파생된 종교 즉 불교의 一分派라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원불교는 內的으로 재래불교의 宗派觀念을 지양하고 또한 특수 지역에만 알맞게 규정되어 버리든 진리관을 초월해서 불타의 근본 정신을 재생시키려는 주체적 자각을 촉구하는가 하면 외적으로는 동서양을 망라하여 일반적인 진리관을 조화 통일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불교에서 원의 진리를 체득한다는 것은 불타의 「如來의 否定」의 원리 다시 말하면 「空과 正」의 진리를 주체로 삼고 밖으로는 항상 수많은 일방적 진리관들까지도 두루 통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원불교의 敎義상으로 찾아본 불교혁신의 특징을 지적해 본다. 첫째 원불교는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까지도 「하나만의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아 진리관의 국한을 터놓았다. 그러므로 불타의 인격에 도달하려는 現代의 觀點은 나의 마음이 어느 곳에도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外邦의 불교를 우리의 불교로 만든 점이다. 물론 남의 나라말(漢文·梵語)을 우리나라 글로 고쳐 써서 대중들이 볼 수 있는 經典을 만든 일도 그 일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자립성을 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남의 나라 것이지만 제 힘으로 받을 수

만 있었다면 그 종교는 始初가 아무리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以小成大의 原則이 실현되는 것이니 마침내 세계적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佛法是生活, 生活是佛法의 이념을 강조한 점이다. 佛法이 世間生活과 격리되어서는 안된다.

참으로 「불타 된 자」가 가르치는 법이라면 그 법은 世間을 다스리는 법이 될 것이요, 따라서 세간생활이 원만해지려면 불법을 모르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재래 佛家에서 世間法과 出世間法을 구별지으므로서 마침내 修道人은 超然해 있기만 하고 세간과 타협을 하지 않으며 보통 世間人은 불법을 생각하기에 이 세간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믿는것이라고 단정하는 폐단이 생기었으니 이 관념을 개혁하여 세간인으로서도 불법을 신앙하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출세간인으로서도 불법을 세간에 돌아와서 실천하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네째로 事事佛供, 處處佛像의 이념을 강조한 점이다. 불법에 대한 在來觀念이 婦女子들은 대개 佛供은 산중 절에 들어가 음식을 佛像앞에 차려 놓고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원불교에서는 이 현실 그대로가 바로 法身佛의 應化身인줄만 알고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일 그 일을 당해서 절에 들어가 불공드리는 심경으로 정성스럽게 處事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간파하여 소위 當處佛供을 가르친 점이다. 그리고 불상에 있어서도 비단 釋迦牟尼佛像을 장엄하게 모신 곳만 법당인줄 알지 말고 그대로 이 현실이 盧遮那佛의 百億化身인 줄만 안다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상대되는 對象들이 모두 법당에 모신 부처님으로 알아서 법당의 佛像 앞에서 기도드리는 정성을 그 對象들에게 다 함은 참 불공이라고 하였다. 다섯째로 禪하는 법에 있어서 無時禪·無處禪이 최고 禪이라고 가르친 점이다. 本來선이란 바로 佛의 마음을 찾아서 수호하는 것인줄만 안다면 구태여 산란한 마음을 통일시키려고 境界를 피하여 坐禪하려는 修練이 따로 있을 이가 없는 것이다.

이 선에서 얻은 마음의 不動力은 죽음이라는 경계에 까지도 끌리지 않고 자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만 믿고 在來禪家에서는 坐禪에만 치우친 감이 있었다. 그런데 이 좌선을 너무 오래 하고 보면 마음은 어느정도 힘이 생기는것 같으나 육신이 게을러져서 무능한 존재가 된다. 결국 「趣味禪」에 떨어지니 그야말로 「黑山窟속의 祖師」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좌선은 이를 初步과정으로 알고 하루에 제일 경계가 없는 새벽에 시간을 정하고 할 것이지만 기타의 경우는 無時禪·無處禪을 행하라는 것이다. 무시선·무처선이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禪하는 심경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 要旨을 말한다면 「無事時에는 잡념을 제거하고 一心을 養成하며 有事時에는 不義를 제거하고 正의를 養成하겠다」는 결단력을 가지라고 밝힌 점이다. 여섯째로 靈肉雙全과 動靜一如의 法을 내세워 편벽된 수행을 원만한 수행으로 만들게 한 점이다. 재래에는 종교인으로 世慾이 있고 보면 이는 수도인이 아니라고 하므로 종교가에서는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수도인은 자연 肉身보다 精神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動的이기 보다 지극히 靜의으로 치우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재래종교가의 타입이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대한 크나큰 害毒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니 이 관념을 지양해서 새 세상의 종교인으로서 진리와 수행으로써 衣食住를 구하고 의식주와 수행으로써 그 진리를 얻어야 한다고 간파하였다. 불교로 말한다면 「부처의 마음」 즉 「一圓의 眞理」와 戒定慧 三學으로써 의식주를 구하고 의식주와 戒定慧 三學으로써 그 진리를 얻는 것이 곧

靈肉雙全이 되는 동시에 動中에서 정을 찾는 또는 靜을 動化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는 修道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女苑 8월호

부디즘의 異色地帶·圓佛教(화보)

大宗師(敎祖) 故 少太山선생(사진)

圓佛教란 재래불교의 시대화 생활화를 표방하는 신흥불교 교단이다.

주일회 일요일에 例會라는 모임을 갖는데 종래 불교에서 볼 수 없었던 성가와 울갠이 목탁을 대신한다.

창설된 지 44년 현재 신자는 약99만4천여, 원광대학을 비롯 원불교재단 경영 교육기관이 77, 고아원 4개 양로원 2개의 놀랄만한 발전을 하고 있다.

一. 화보: 例會시의 한 의식

一. 화보: (불당)원은 신앙의 대상이며 수행의 표본으로 이는 법신불의 상징이다.

一. 화보: 합장모습

一. 화보: 하얀가사를 입고 설법하는 法師

一. 화보: 佛教의 바이불인 불경강독

* 女苑

韓國의 宗教(화보)

一. 韓景職 牧師(永樂教會 首席牧師)

一. 河東山 스님(佛教曹溪宗 宗正)

一. 윌리엄스 牧師(安息敎 宣敎部長)

一. 尹亨重 神父(京鄉新聞社 社長)

一. 全二昌 貞女(圓佛教鍾路支部 敎務)

一. 이상 5인이 소속하고 있는 종단 소개 및 개인 프로필을 화보와 함께 기재 했음
(화보 내용)

全二昌 貞女 (圓佛教 鍾路支部 敎務)

연약한 女子의 몸으로 단지 자기의 굳은 信仰心만을 의지하여 한 敎會를 이끌어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다. 全南 靈光에서 出生하여 圓光大學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쪽 貞女(修女) 生活를 거듭하면서 또한 全貞女는 敎務(牧師)로 圓佛教의 敎化和 普及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圓佛教는 法身佛 一圓相을 最高 宗旨로 하여 이를 信仰의 對象과 修行의 標本으로 삼고 正覺正行 知恩報恩 佛教普及 無我奉公의 四大綱領을 實現코 있는 것이다.

* 전북일보 원기50년(1965) 11월 16일

圓佛教서 大學까지

—手記의 朴東赫君에 進學길 활짝—

「이리서 本社 金鍾錫·蘇完永 특파원發」 본보에 연재중인 「다섯엄마」 수기의 주인공 朴東赫(18)군을 돕는 따뜻한 인정이 도내 각처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이때에 이 곳 圓光中高等學校에서는 「朴君을 학비일체를 면제하여 가르치겠다」고 나섬으로써 꿈에만 그렸던 東赫군의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13일 아침 朴將植교장(圓光中學校)은 「동혁군의 수기를 읽고 박군의 뛰어난 머리와 어린소년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가난에 짓눌린 역경에서도 오직 배움의 꿈과 바른 길을 저버리지 않는 장한 발버둥에 눈시울이 뜨거워 동혁을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圓光學園 成丁鎬이사장은 圓光중고교를 동혁군이 다니는 동안 그의 성적 및 소행이 장래가 촉망된다고 재확인 될 때에는 圓光大學도 학원재단에서 가르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소식을 들은 동혁군은 벅찬 기쁨에 눈물을 글썽- 울먹이는 소리로 「나를 도와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않게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朴군은 이날 하오 圓光中高的 초청을 받고 朴光振교감의 안내로 동교와 圓大, 그리고 圓佛敎中央總部에 들러 관계자들에게 인사했다. 동혁군은 오는 19일(금요일) 하오3시 본사 인솔하에 圓光中學 3학년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동혁군은 3년전 중학 3학년 때 생활난으로 중퇴 서워서 3년 동안 協成고등공민학교를 비롯 3개 공민학교를 고학하며 옮겨 다녔다.

학비조달을 못해 그만두고 배를 줄라가며 몇 톨돈을 모아서 다시 딴 학교로 편입. 그랬다가 다시 힘에겨워 끈덕진 어린 향학열을 못내 굽히고 만 고달픈 역경을 겪어왔던 것이다. 그러던 박군이 이제 圓光중고등학교 당국자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고교졸업할 때 까지 어엿한 교복을 입고 안심하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행운이 깃든 것이다.

* 경향신문 원기50년(1965) 11월 19일

宗教界

日本에 輸出되는 圓佛敎

전국 1백40여개 교회에 50만교도를 가지고 있다는 원불교가 처음으로 日本에 수출된다. 원불교본부는 이번 海外포교사로 徐世仁교무를 처음으로 임명, 일본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일교포 永松太介씨(일본명)의 초청으로 첫길이 트인 것인데 1차로 神戶에 본부를 두고 재일교포와 일본인교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자랑-.

* 전북일보 원기50년(1965) 11월 21일

「學海」 마침내 트여

逆境 이겨내라 각계 격려- 뼈 닳도록 공부로 報答하겠어요.

19일 하오 3시 30분 圓佛敎재단이 경영하는 원광중학교(이리시내소재)에서 朴군에 대한 전입학식을 따로 마련 박군 장래를 축복해줌으로써 원광중학교 3년 2반 학생임을 확인했다. 이로서 그렇게도 향학열에 발버둥치던 朴군의 숙원은 풀리게 된 것이다.

동교 급우를 비롯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던 이자리에서 학교측과 내빈들은 朴군을 향해 「군 세계 살아가라」고 격려했고 朴군은 「그 은혜보답하고자 뼈가 닳도록 공부하여 훌륭한 이 나

라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맨먼저 본 全北日報 朴龍相사장은 그 인사를 통해 「朴군을 위해 이같은 배움의 보금자리에 앉혀준 원불교재단과 학교측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朴군은 이 사회의 아들로써 그 자신의 책임완수에 최선을 다하라. 실패후엔 울어봐도 슬퍼해봐도 소용없다.」고 격려했다.

朴將植 원광중고등학교장은 「전북일보에서 朴군을 구제하고자 수기를 연재한다. 좌담회를 갖는다. 등 하나의 불우한 인생을 구하고자 발버둥쳤다는 점에 감동— 우리 원불교재단과 학교에서 朴군의 배움을 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에서 원불교재단이사장에게 보내는 화환을 朴吉眞 원광대학장이 받고 「朴군이 훌륭한 인간이 되게 이 사회가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 朴군 모교인 金提東國 교장이 朴교장에 보내 온 화환이 증정됐는가 하면 3년 2반(대표=강대현군)에서 朴군에게 보내는 꽃다발이 각각 전해졌다. 시종 이를 악물고 굳은 표정을 지은 朴군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끝으로 金岩煥 도교육감은 그 치사에서 「朴군을 발굴해 낸 全北日報에 감사한다.」고 전체 「朴군과 같이 모든 여건이 불리한 천재에 대해 진학면에서 이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외쳤다.

김교육감은 이어 「우리는 독선으로 살 수 없다. 서로 협조하면서 산다는게 얼마나 기쁜일인가. 朴군의 이번 경사는 그 개인문제가기에 앞서 한국교육계의 커다란 문제임과 아울러 하나의 좋은 경중이다.」고 말했다.

＊ 불교신문 원기51년(1966) 11월 20일

對話를 읽은 社會

〈圓佛敎 서울事務所 교무부장〉— 李 運 徹

廣場

인류는 생존의 역사이래 벌써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워왔다. 이것이 인류가 자아를 의식했다는 하나의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자아의식은 어느새 자기구속의 모순을 낳고 마는 예가 허다하게 되었다.

「나」는 상황속의 「나」요 대중속의 「나」인 것이다. 자유·평등·행복·역사 대중속에서 또는 상황속에서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참다운 자아의식을 자각하기도 전에 「나」 하나만의 자유, 행복을 구사하다가 결국 「나」를 상실하고마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는 수두룩 한것이다.

오늘날 「對話」니 「對話의 廣場」이니 하는말이 퍼이나 자주 「크로즈업」 되곤한다. 「對話」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속에서 「나」와 「他者」와의 자유로운 교통일 것이다. 「對話」가 상실된 곳에 자유·평화·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진정으로 무릎을 가까이하고 대화를 나눌 수만 있다면 거기에 곧 평화가 깃들고 행복이 자리잡지 않을까.

「하모니」라는 말이있다. 서로서로 잘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다 조화되려면 서로 막힘이 없이

마음의 창을 화알짝 열어야 할것이다.

예로부터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며 행동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위에 장막을 가리우지 아니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문을 굳게 닫아놓고 사는 예가 많은 것 같다. 대화가 상실한 사회라고 하면 좋을는지 커다란 자기네의 전통과 위신이라는 물체를 붙들고 행여나 다칠세라 주야로 방심하진 못한다. 그런가하면 고착된 세계관속에서 영화를 고수하기 위해서 끼리끼리만 문을 통해 놓고 들어 앉아있는 권위주의 보수주의 배타주의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것은 슬픈일이 아닐수 없다. 문을 열음은 발전이요 건설인 것이다. 문을 열어 놓을때 진정으로 찬란한 광명을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어둠의 장막이 내린 곳에 명량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답답한 질식 死境의 낡은 껍질을 뚫고 문을 열어야겠다. 이목구비의 門을 열어 역사의 침을 들고 오늘의 사실을 보며 진실로 토론해야 하고 마음의 창문을 열어 진리와 교통하여야 한다. 오늘의 비극은 바로 이 門을 닫아놓고 있는 곳에 있지 않은가. 門을 닫음은 막힘이요 滅亡이며 고립이다.

오늘의 인류역사는 닫혀진 성문을 쳐부수고 모든 문을 개방하는 곳에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인류사의 수레바퀴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조화통일의 길로 굴러가고 있다.

시간은 단축되었고 공간은 무한히 트였다. 서로의 실존적 자각은 이제부터인지도 모른다. 「對話」 「廣場」은 「함께함」이요 「開放」이어야 할것이다. 시야가 넓어진만큼 우리의 의무와 책임도 커지고 무거워졌다. 활동도 펴 다양해져 가고 있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단순화 과정을 벗어나 세분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오늘의 현대를 문명의 위기니 정신적 혼란이니들 하고 떠들석하는 것도 우리가 아닐 것 같다. 밖으로만 달리는 눈은 마치 급경사를 달려 내려가는 차량과 같이 견잡을 수 없으니 말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감하여 위기임을 의식하곤 그 타개의 길을 모색하며 정신적 혼란상을 바로 잡으려 함은 진정한 자아의 위치 파악이요, 현실 통견일 것이다.

우리는 「對話」의 實다운 뜻을 살리고 통로를 마련하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門을 열자 실존에서 우러나오는 확고한 주체성을 가지고 인류사회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장막을 열때에 광명은 어둠을 몰아낼 것이요 이땅의 부정 불의는 사라지고 정의의 밝음이 실현될 것이요. 진정한 자유 평화 행복은 찾아올 것이다.

* 大韓佛敎 원기53년(佛紀 2512) 10월 24일

韓國六大宗教의 對話-가로놓인 벽 무너질까? (크리스찬·아카데미주관 심포지움)

十八, 十九일 양일간 광나루 용당산호텔에서 佛敎를 비롯한 프로테스탄트, 카톨릭, 천도교, 원불교, 유교 등 한국의 六大宗教 대표자 二六명이 모여 「韓國諸宗教의 共同課題」라는 주제로 각 종파간에 가로놓인 벽을 무너뜨리고 대화를 나누었다.

작년 가을 첫 대화(곳=워커·힐)를 나눈 후 두번 째로 시도된 이 번 회합도 한국크리스찬·아카데미(원장 姜元龍박사)의 주관하에 열렸는데 姜元龍박사의 간략한 개회사에 이어 각 종파는 한국종교의 공동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알찬 발제강연이 있었다.(불교=李能嘉스님, 원

불교=黃溫順(여사), 유교=柳承國(교수), 카톨릭=朴養雲(박사), 천도교=白世明(선생), 프로테스탄트=金在俊(박사) 종교를 달리하며 이질적인 체취를 풍기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침식을 같이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공동과제의 문제점을 설정, 자유로운 입장에서 각 종파의 견해를 피력했다.

설정된 문제는 ① 한국의 정신풍토에서 종교가 담당해야 할 문제(A. 求心力의 문제, B. 주체의식의 문제, C. 토착화의 문제, D. 無宗教상태의 문제, 宜敎의 자세) ② 사회참여 문제 ③ 국가와 신앙의 自由 문제(限界) A. 民主化 B. 民族化 C. 共產主義 D. 南北統一 ④ 邪敎의 계속 打破 ⑤ 貧困 ⑥ 不正부패의 일소 ⑦ 대화의 계속 문제 등이었다.

각 종교에서 四·五인의 대표자가 참석, 朴養雲(카톨릭), 李箕永(불교) 徐景洙(불교), 金在俊(프로테스탄트)씨 등의 순서로 문제점이 바뀔때마다 사회자를 교체해가면서 발랄한 대화가 계속되었다.

설정된 문제에 대해 각 종교가 보는 견해가 피력되면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결론을 맺어보려는 이들의 진지한 태도는 이질적인 그들의 체취를 감췄다. 이 회합에 非宗教人의 자격으로 참석한 金容九(한국일보논설위원)씨는 여기 사상의 자유시장이 있다고 지적하고 각 종교가 쌓아 놓은 두터운 벽을 뚫고 자유로운 대화가 소통할 문이 개방되었다고 극찬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歷史的인 모임이라고 말하고 이 민족의 정신풍토를 말해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지적, 이 씨앗은 꽃피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간 진지한 대화를 나눈 대표자들은 각 파에서 1명씩 대표를 선출 협의체구성의 모체가 되게 했다.

* 大韓佛敎 원기53년(불기 2512) 11월 14일)

한국六大宗教-宗教協議體 構成

龍堂山「호텔」에서 있었던 대화이후 한국의 六大宗教 대표자들은 六일 오후 六時 시내 충무로 소재 「향원」(한식부)에서 화합을 갖고 각 종파간에 이해를 촉진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한국六大宗教協議體」를 구성할 것을 결의, 첫 회합의 모체가 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날 이들 六명의 대표들은 협의체 구성에 따른 「규약」을 제정할 것을 결의하고 김운학(불교), 유동수(프로테스탄트) 양씨를 규약기초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음 十二月 중순 경 열릴 회합에는 한국의 六大宗派(불교, 유교, 원불교, 카톨릭, 천도교, 프로테스탄트)에 대표자 十명씩이 참가할 것이라고 하며 이 협의체가 구성되면 앞으로는 각 종교의 체취를 보다 강하게 흡수케 하기 위해 각 종교단체가 차례로 회합을 주관하여 그들 고유의 종교의식속에 이들을 끌어들이어 보다 깊은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라 한다. 이 날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불교=김운학, 유교=유정동, 프로테스탄트=유동수, 원불교=이운권, 카톨릭=박도식, 천도교=백세명.

* 한국일보 (1964年 8月 29日)

圓佛敎중앙총부, 本社 裡里支局에—
水災民에 現金 등을 寄託

「이리」익산군 원불교중앙총부 직원 일동은 二十七日 상오 강원, 경기지방의 수재민을 위해 모은 현금 二千圓과 공책 100권, 연필 十二타, 옷 十六점을 본보 이리지국에 보내왔다. 이것은 본사를 통해서 이재민에게 전달된다.

＊ 大韓佛敎 원기53년(佛紀 2512) 12월 26일

韓國宗教研究協會 發足－宗教史上 最初의 共同廣場. 六大宗教 모여 出口를 模索

한국종교연구협회가 二十一日 창립되어 우리 종교사상 최초로 종교인 공동광장이 마련되었다. 불교, 유교, 천주교, 천도교, 개신교, 원불교의 六大宗教인들이 여성회관강당에서 한자리에 모여 창립을 본 「한국종교연구협회」는 각 종교인 간의 물이해와 무관심 속에서 오는 장벽을 허물고 오해와 배타적 태도를 일소하여 종교인 공동의 이상인 현실을 구제하고 民族의 새 文化창조에 이바지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교 대표 三十四명이 모인 이 날 창립총회에서는 초대대표에 李能嘉(불교)스님을 선출하고 상임위원 및 연구, 출판, 재정 三分科委員을 선출했다.

지난 四月 世界文化自由會議 한국본부주최의 종교인 모임에서 씬이 움터 十月 「크리스찬·아카데미」주최 「한국종교의 공동과제」란 六大宗教인 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각 종교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과제의 연구 공동강연을 비롯하여 책자의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같은 활동은 한국종교가 敎條나 상호이해를 초월하여 함께 손잡고 새 文化創造에 선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이날 창립총회는 개회, 국민의례, 경과보고, 의장선출, 회칙통과, 임원선출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金南鉉(불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사회부장), 吉眞京(대한기독교연합회 총무) 양氏は 축하에서 다같이 「종교인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協力할 수 있는 一同協會의 창립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종교사상에 획기적인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장차 인류 문화와 歷史創造에 큰 공헌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초대대표 이능가스님은 취임사에서 「과거 각 종교간에 왕왕있었던 질시 의혹 배타적 태도는 이 협회의 창립을 계기로 깨끗이 일소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인 종교인들이 함께 손잡고 웃는 낮으로 공동의 목표를 實現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各界의 성원을 요청하였다.

同協會의 구성은 종교인과 종교학자로 되어 있는데 加人은 개인자격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財政은 회비찬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부는 서울에 두기로 되어 있다.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선출된 한국종교연구협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소속종교)

◇ 대표=李能嘉(불교)

◇ 상임위원=白世明(천도교), 柳承國(유교), 李雲行(원불교), 朴養雲(천주교), 金雲學(불교), 洪顯禹(개신교)

◇ 분과위원회

○ 연구=柳東植(회장·개신교), 金善積(유교), 林文變(천도교), 유봉준(천주교), 徐景洙(불교)

교), 黃溫順(원불교)

◦ 출판=李恩錫(회장·원불교), 鄭賀恩(개신교), 柳正東(유교), 朴道植(천주교), 朴敬勛(불교), 表隱三(천도교).

◦ 재정=玄錫虎(委員長·천주교), 高光德(불교), 배호길(천도교), 조광원(개신교), 김청구(유교), 문동현(원불교).

*** 서울신문 원기54년(1969) 5월 13일**

“세계의 불교서적 통일” 우리대표 2명 귀국.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9차세계 불교도대회에 참석했던 우리나라대표 朴完一(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무총장)씨와 金三龍(원광대 교학처장)씨가 12일낮 귀국했다. 이들 대표는 15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불교세계본부를 태국에 두고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불교서적을 통일해서 발간, 불교회관을 건립, 불교기구의 「유네스코」가입을 협의하기로 결의했다.

원불교 창립 제2대 및 대중사 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圓佛教七十二年總覽 發刊委員

총 재 : 대산종법사

회 장 : 이공주

부 회 장 : 김경원 김윤중 김정용 문동현 이공전 이철행 정도진 정진숙

사 무 총 장 : 김인철

편찬분과대표 : 김이현 류기현

편찬분과위원 : 김기원 김도종 김성관 김성택 김성훈 김정관 김학인 김형철

노대훈 박광수 박용덕 서경전 성대진 송천은 신명국 심도정

장연광 정현인 한정석 한정원

감 수 위 원 : 김윤중 김인철 김정용 김지현 박은국 박장식 서대인 안이정

양도신 이공전 이광정 전이창

편 집 위 원 장 : 박달식

편 집 위 원 : 박용덕 성시종 안도순 양해관 이덕도 장덕훈 장연광

집 필 위 원 : 김경일 김도심 김원영 김주원 김학종 김혜광 박달식 박용덕

박윤철 백심덕 성대진 성도종 성시종 손정윤 송인걸 신대성

안도순 양해관 양현수 유진근 이덕도 이삼덕 이성은 이용환

이원조 이정광 장경도 장덕훈 장연광 최경도 최세종 최심경

허광영

자 료 정 리 원 : 김명자 김이성 모경희 박진성 사영인 서원중 서인정 신중경

심상원 양인경 여덕혜 원익선 유승규 육관용 이진중 이경진

이명은 이윤성 이이성 이이원 장오성 정부원 조향진 주인지

진선원 최중원

〈가나다순〉

歷史를 아는가

우리는 역사에서 두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되풀이 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큰 사건일 수록 이것은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圓佛教七十二年總覽』을 발행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아는 교단의 의지인 것입니다. 수록된 자료들 하나하나가 지금은 사료적 가치를 찾을 수 없고, 부분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당대에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며, 역사는 부분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역사도 한 토막 한 토막의 자료들을 관련시킬 때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圓佛教七十二年總覽』에서는 노인 5, 6명이 모여 올리는 기도식, 어린이들이 글씨를 손수 써 복사해서 발행된 회보 한장의 기록까지도 놓치지 않고 수록하려 애썼습니다. 「자료(資料)」를 모으면서 어떤 가치를 논하지도 않았고, 정리하면서 자료들에 어떤 의도적인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수록된 자료들이 개교 백년을 맞아서는 백년대를 여는 「사료(史料)」가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들은 백년대의 주인들이 이 속에서 앞 세대의 교훈을 찾아낼 것이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진들은 「역사」를 알았습니다. 빛에 쫓들이면서도 묵사본 『月末通信』을 발행하여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당시는 어느 선진이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려 하루 밤 자고 간 것이 무슨 기록사항이 되느냐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줄 동정소식이 창립 3대를 맞은 지금은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자세하게 수록되지 못한 지면의 부족이 아쉬울 뿐입니다.

『月末通信』은 프린트판으로 발전하여 『月報』로 발행되지만 식민지 정책의 탄압으로 강제 폐간이 되었고, 본격적인 잡지로 발전된 『會報』는 식민지시절 물자품귀로 또 정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교단의 초창기인 원기13년(1928)에서 원기26년(1941)사이에 이루어 졌으며 우리 민족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인 1920년대 후반기에서 40년대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기록문화에 철저했던 우리 선진들은 깨어있는 세대였으며 교단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들은 교단의 중요 계기마다 기록의 역사를 남겨 왔습니다.

『圓佛教七十二年總覽』은 창립 제2대말 기념대회가 열리는 원기73년(1988)에 발행하기 위하여 원기71년(1986)년 1월 《원불교 창립 제2대 및 대종사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의 학술편찬분과

에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넘게 흩어진 자료를 모으는
어려움과 교단창립 제2대를 총정리하는 『圓佛教七十二年總覽』으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창립 제2대말 기념대회가 전부 수록되어야 한다는 검토에 따라 발행날짜를 변경하여 대종사
탄생백주년 기념의 해에 발행키로 했습니다.

자료정리와 집필, 편집에 이르기까지 동원된 연인원은 1천명이 넘었으며 편집기간도 5년이
걸렸습니다.

수록된 자료량도 처음 계획은 3천여 페이지의 2권이었으나 5천여 페이지의 3권으로 발행되
게 되었습니다.

원고량도 최종 정리된 원고는 2만4천여 매이지만 자료수집에서 정리를 거쳐 편집에까지 재
집필된 원고량을 합하면 20만장이 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해냈다」는 생각뿐입니다.

『圓佛教七十二年總覽』 발행에 동참되었던 모든 분들에게 少太山大宗師 탄생백주년의 기쁨
이 함께 하시길 심축드리며 이 자료들이 교단 만대의 역사이길 기원합니다.

원기76년(1991) 4월

소태산대종사 탄생1백주년 기념의 해에 中央總部 成佛堂에서

편집위원장 朴 達 識

圓佛教七十二年總覽

圓紀76(1991)年 2月 10日 印刷

圓紀76(1991)年 4月 28日 發行

編輯：圓佛教七十二年總覽編輯委員會

發行：圓佛教 創立 第二代 弘聖業奉贊會
大宗師誕生百周年

印刷：圓 佛 教 圓 光 社

570-754 全北 裡里市 新龍洞 344-2

圓 佛 教 中 央 總 部

TEL (0653) 50-3310

登錄 番號 (1967. 7. 1)第 7 號

